

史記 外國傳 譯註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



간행사

동북아역사재단은 『사기(史記)』에서부터 『청사고(淸史稿)』에 이르는 전통시대 중국의 정사(正史)에서 외국이나 인근 종족과 관련된 열전(列傳)을 추려 ‘외국전’으로 정의하고, 2007년부터 장기적으로 외국전 전체를 번역, 주석하여 역주서를 발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의 ‘외국전’을 역주하여 『사기 외국전 역주』, 『한서 외국전 역주』 상·하, 『후한서 외국전 역주』 상·하, 『삼국지·진서 외국전 역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한(前漢)의 『사기』 이래 중국의 왕조에서는 기전체(紀傳體) 형식으로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여 이를 정사라 하고, 중화민국(中華民國) 시기에 편찬된 『신원사(新元史)』까지 포함하여 ‘25사’라고 통칭하였으며, 정사에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청사고』까지 포함하여 ‘26사’라 통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정사에는 이웃 국가나 종족에 관한 기록이 별도의 열전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열전의 명칭은 종족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지역적 구분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사방을 중국 중심의 관념체제로 이념화한 ‘사이(四夷)’ 의식에 따라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전’이라는 명칭은 『구오대사(舊五代史)』에서 처음으로 쓰였지만, 이후에도 ‘외국’과 더불어 ‘사이’ ‘만이(蠻夷)’ ‘외이(外夷)’라는 명칭이 쓰였습니다. 『청사고』에서는 ‘번부(藩部)’와 ‘속국(屬國)’의 개념이 도입되었는가 하면, 일본과 서구 각국은 열전이 아닌 ‘방교지(邦交志)’에서 기술하

였습니다.

중국 정사의 편찬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통일적 역사인식의 확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 중국 왕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정리되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전에 나타난 외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당시의 실제적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당위적 이념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은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 변경인식, 세계인식의 실체를 담고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역사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의 증진과 공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객관적 시각에서 역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중국의 왕조들이 정사에 ‘외국전’을 두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록을 남긴 데 비해, 인접 국가나 종족들은 그들 스스로의 입장에서 정리한 역사 기록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는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한중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층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은 바로 외국전에 실려 있는 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외국 인식의 이념적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나 종족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중국 사서에 기록된 한중관계에 관한 내용이 어떠한 이념적 원리에 의해 서술되었는지 파악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특히 한국 고대사와 한중관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인 중국 정사 ‘조선전(朝鮮傳)’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주하여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전만으로는 한중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조선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전근대 한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의 실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전체적인 역주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입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 기사의 방대한 분량과 원문의 난해함, 걸쳐있는 시간적 길이와 공간적 폭을 생각할 때, 외국전 전체를 역주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인 만큼 번역상의 오류나 체제상의 미비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은 한문 원사료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전근대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종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전문 연구자에게는 연구 분야의 확대와 연구 수준의 심화를 가능하게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및 교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외국전 상호간에 내용적, 시대적, 지역적 연계성이 두드러져 그 역주에는 개별 작업과 더불어 공동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전 역주에 참여해주신 학계 연구자들과 재단의 김정희 연구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이 중국의 역사인식과 세계인식 연구, 민족문제와 변경문제 연구,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 등 관련 분야의 연구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역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역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역주서들이 학문 발전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9년 2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응덕

역자 서문

이 역주서는 전통시대 중국의 정사(正史)에서 외국이나 인근 종족과 관련된 열전을 추려 ‘외국전(外國傳)’으로 정의하고 번역 주해한 것이다. 『구오대사』 이후 열전의 편명으로 나타난 「외국전」만이 아니라 지역, 종족명칭이 붙여진 모든 열전이 여기에 포함된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는 기전체(紀傳體) 형식의 정사(正史)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사기(史記)』 이래 ‘25사(史)’ 혹은 『청사고(淸史稿)』도 포함하면 ‘26사’로 근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들 정사에는 대부분 인근의 종족이나 국가권력과 관계에 대한 기록이 열전 가운데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접 국가나 종족들은 자신들에 의해 정리된 고대사 기록이 충분하지 못하여 중국 정사의 내용에 의존하여 역사를 복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찬술 때 이들 중국 정사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중국 정사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정사들의 편찬동기나 과정은 시대별 편차가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사로 흠정되었다. 이에 따라 『후한서』나 『진서』가 최종적인 정사로 뒤늦게 확정된 뒤 기왕에 편찬되었던 많은 사서들이 모두 인멸되어 버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사의 편찬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통일적 역사인식의 확립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물론 위진남북조시대 각 개별 왕조사와 함께 『남사』와 『북사』가 편찬되었고, 신·구의 『당서』와 『오대사』가 병존하기도 하지만, 이는 왕조적 관점에서

두 가지 정사가 모두 유용하다는 판단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의 체제나 내용도 중국 왕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부분은 대상 종족의 선택, 그 호칭, 풍습이나 사회구조, 대외관계와 교류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정리되고 표현되었다. 더욱이 정사라는 역사 서술 체제 자체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왕조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념적 역사 인식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기록에 비해서도 중화주의(中華主義)적 관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초기에 ‘흉노(匈奴)’, ‘남월(南越)’, ‘오환(烏桓)’ 등과 같이 종족단위, 혹은 ‘서역(西域)’, ‘서남이(西南夷)’, ‘동이(東夷)’ 등 지역 관념에 입각하여 독립된 열전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7세기 당왕조(唐王朝)에서 편찬된 정사에서는, 『진서(晉書)』 「사이전(四夷傳)」, 『양서(梁書)』 「제이전(諸夷傳)」, 『남사(南史)』 「이맥전(夷貊傳)」,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처럼 외국과 인근 종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으로 편제되었다. 또 『수서(隋書)』에서는 「동이전(東夷傳)」, 「남만전(南蠻傳)」, 「서역전(西域傳)」, 「북적전(北狄傳)」으로 나누어 사방을 중국 중심의 관념체제로 이념화한 편제를 채택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외관계의 실상보다는 천하질서를 당왕조 중심으로 이념화하여 파악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오대(五代)와 송초(宋初)에 편찬된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서는 중국 중심의 사이(四夷) 구분 외에 ‘돌궐(突厥)’, ‘토번(吐蕃)’, ‘회골(回鶻)’, ‘사타(沙陀)’ 등이 별도의 열전으로 편제되었다. 이는 관념적인 사의의식(四夷意識)과 왕조의 현실적인 대외관계가 혼합된 의식을 반영한다. 특히 당왕조가 자기 중심의 천하질서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오대와 송대에서는 국제질서의 현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점에서 당대(唐代)를 서술하면서 나타난 절충적인 인식이었다.

민족국가적 의식이 강한 송대(宋代)에 들어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한 국제관계를 중시하였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 송초에 편찬된 『구오대사(舊五代史)』였다. 여기에

처음으로 ‘외국전(外國傳)’이란 명칭으로 대외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체제가 나타나, 청초에 편찬한 『명사(明史)』에 이르기까지 정사의 일반적인 편제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외국(外國)’이라는 표현은 『사기』에서부터 보이는데, 대체로 ‘이적(夷狄)’, ‘만(蠻夷)’와는 구분되는 국가 혹은 종족집단으로, 중국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범위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적대적인 관계 혹은 전쟁 상황에서는 곧바로 ‘이적’으로 그 호칭이 변화되었다.

‘외국’이라는 개념에는 예적(禮的) 관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외국도 만이와 동일하게 직공(職貢)의 주체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제관계의 현실 상황과 이념적인 천하질서의 개념을 이중적으로 설정하는 중화주의 관념의 독특한 수사(修辭)였다. 청대에 편찬된 『명사』에서는 유럽의 국가들도 대거 ‘외국전’에 포함되는데, 청말에 전통적인 천하질서의 관념과 현실적인 국제관계가 충돌하는 의례분쟁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외국’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관념이 그 요인이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비교적 가치관념이 배제된 외국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기류도 나타났다. 화이(華夷) 관념을 특별히 강조한 구양수(歐陽修)에 의해 다시 편찬된 『신오대사(新五代史)』에서는 「사이부록(四夷附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기도 한다. 또 명초에 편찬된 『원사(元史)』에서는 ‘외이전(外夷傳)’이라는 명칭을, 민국초에 편찬된 『청사고(淸史稿)』에서는 ‘속국(屬國)’과 ‘번부(藩部)’의 개념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족의 민족적 위기가 커지거나 혹은 중화주의적 관념이 강조되는 시기에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족의 위기가 확대되고 중화주의적 관념이 강조될 경우에 외국과 주변 종족에 대한 표현을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한편, 『송사』에서는 「외국전」 외에 「만이전(蠻夷傳)」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과거 ‘남만(南蠻)’의 후예인 운남(雲南)·귀주(貴州)·광서(廣西)의 여러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생활공동체 단위로 분산 거주하였고, 송왕조의 입장에서는 중앙조정에서 관장하는 국제교류가 아니라 지방조직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송대에 들어

독립된 정치체제가 확고해진 북방지역의 종족 상황과는 달리, 남방의 제종족은 종족적 통합이 확대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역대로 남월, 서남이, 남만의 후예로 크게 만이(蠻夷)의 범주에 들어 있었지만, 송대에 독립적인 국가권력을 형성하였던 교지(交趾), 대리(大理) 등은 『송사』에서는 「외국전」에 포함되게 되었다.

『명사』에서는 이전에 「외국전」에 편제되어 있던 서역지역을 분리하여 별도로 「서역전」으로 편제하였다. 명대 들어 서역과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교류와 관계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송사』에서 「만이전」에 포함되었던 남방의 종족에 대한 기록을 위해 『명사』에서는 새로이 「토사전(土司傳)」을 설정하였다. 토사(土司)는 일정 지역 종족집단의 수령을 명조가 지방관으로 임명한 자로서, 결국 종족집단을 하급지방으로 포섭하여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이미 남조 송(宋), 제(齊) 시기에 시행된 ‘좌군(左郡)’, ‘좌현(左縣)’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명대 들어 토사제도(土司制度)로 남방의 여러 민족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반영된 정사의 편제는 『청사고』에서도 계승되었다.

이처럼 외국전의 편제가 해당 왕조의 다른 종족이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입각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훗날 편찬 당시의 관념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외국전에 나타난 외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당위적 이념을 위해 편제되고 기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를 역주하고자 하였던 것은 정사에 나타나 있는 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이념의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즉 이 역주작업은 일차적으로 해당 종족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국가와 종족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한중관계(韓中關係)에 대해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이 어떠한 이념적 원리하에 서술되었는가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국과 여타 국가나 종족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중관계의 본질과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한다.

중국 정사 외국전 모두에 대한 전체적인 역주는 기왕에 출간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정사 전체가 『이십사사전역(二十四史全譯)』(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자세한 주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 『사기』, 『한서』, 『후한서』가 별도로 역주본이 출간되어 있고, 고대를 중심으로 하여 「서역전」과 「흉노전」 등 부분적으로 중국, 일본 및 영어의 역주본이 나와 있다. 우리의 역주작업에서는 이들 역주본은 물론 기타 관련연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참고하여 최상의 역주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만을 모아서 『중국정사조선전역주(中國正史朝鮮傳譯註)』 전5책(국사편찬위원회, 1986~1990)이 출간되어 있다. 이는 매우 상세하게 주석하면서 번역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이번 역주작업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역주작업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정확성을 확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동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사업의 1차 단계로 김정희, 김유철, 하원수의 책임하에 『사기』에서 『신오대사』까지를 그 범주로 하여, 역주원칙을 정하고, 편장별로 역주담당자를 선정 의뢰하였다. 그리고 일부분의 가역주(假譯註)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역주원칙을 수정 확정하였다. 역주작업은 편장별 담당자에 의해 초벌 역주가 진행된 다음 동북지역과 서남지역으로 나누어 윤독을 통하여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 하원수와 김유철이 각각 교열하였다. 그렇지만 역주에 대한 최종적인 공과는 역주 담당자의 몫이다.

전체적인 역주는 다음의 원칙하에 진행하였다.

첫째, 역주작업은 외국전 전체를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념을 한글의 현대적 관념과 용어로 번역한다. 다만, 사서별로 심하게 중복된 부분은 이를 설명하고 차이를 정리한 다음 중복된 부분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둘째, 역주의 텍스트는 원칙적으로 중화서국(中華書局)의 표점교감본(標點校勘本)을 저본으로 사용한다. 문장의 교감과 표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경우, 주석을 통하여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셋째, 역주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두 본문에 한정한다. 중화서국본에 나와 있는 주를 비롯하여 본문에 대한 이전의 주석은 역자의 주석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의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내용이 많이 포함된 『삼국지』 배송지(裴松之)의 주는 원문과 동일하게 역주한다.

넷째, 한자로 표시된 인명과 지명에 대해 번역문에서는 원문을 살리되 주석에서는 당시 현지 언어와 문자에 의한 표현과 발음을 복원하는 데 노력하여 한글 발음으로 적고 괄호 안에 로마자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특히 지명은 현재의 지명으로 정확하게 고증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능한 현대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대나 지역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수 용어나 개념 그리고 표현법은 원래의 용어를 번역문에서 살리되 주석을 통하여 현대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인명, 역사적 사건, 종족의 관직이나 사회조직, 풍속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에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도록 설명한다.

여섯째, 중국의 문화나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설정된 가치 관념이 반영된 표현들에 대해 번역에서는 원문에 충실하되, 주석을 통하여 그 실체를 설명하도록 한다. 특히 이들 종족들의 신화나 전설, 역사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종족 식자층까지도 중국의 고전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하여, 이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가능한 한 확인하여 주석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일곱째, 외국전 이외에 다른 사서나 정사 내 다른 열전기록 등을 주석에서 보충하고 그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해당 국가나 종족의 역사기록이나 고고유물을 최대한 검토하여 중국 정사 외국전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해를 추구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다른 문헌의 원문을 전재하고 번역하도록 한다. 다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경우 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여덟째, 역주는 철저히 원문의 이해를 돕는 데 한정하고, 세밀한 사항에 대한 주관적 의견은 가능하면 배제한다. 다만,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대표적인 참고문헌

과 함께 이를 소개한다.

아홉째, 각 편별로 해당 종족의 실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 편장 전체의 줄거리와 구성 그리고 저술과정의 특징, 이전 정사와 중복된 부분이나 차이, 사료적 가치 등을 설명하는 〈해제〉를 포함한다. 아울러 말미에 참고문헌을 덧붙이고, 〈연표〉, 〈세계표〉와 〈지도〉를 작성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2009년 1월 15일

김유철·하원수

일러두기

1. 역주문의 순서는 저본의 문단 단위로 한문 원문을 앞에 두고 이어서 본문 역주를 배치한다.
2. 원문의 구두점은 중화서국 표점본의 체계를 따르되, 전각기호는 모두 반각기호와 띄어쓰기로, ‘。’은 ‘.’로, ‘，’는 ‘.’로 바꾼다. 서명과 인명에 대한 기호는 없앤다.
3.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문투를 어색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가끔씩 현대적 표현으로 바꾼다. 번역문에서 내용의 이해와 문맥의 순조로운 연결을 위해 말을 보충할 경우에는 []에 넣어 처리하고, 부연설명일 경우에는 ()에 넣는다.
4. 번역문의 문단은 기본적으로 저본에 따르지만, 한 문단이 너무 길어 읽기에 불편한 곳은 단락 전체의 내용 이해에 곤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문단을 나눈다.
5. 번역문도 원본의 표점과 구두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문장을 끊어 번역할 수 있다.
6. 모든 번역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명, 지명, 국명, 서명, 개념어, 역사적 용어 등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에 한자를 병기한다. 주석문의 경우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기 위해 국한문을 혼용한다.
7. 번역문과 주석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글의 구두점을 사용한다. 서명은 『 』로, 편명은 「 」로 표기한다.
 예1) 『史記』「西南夷傳」, 편명 안에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史記』「西南夷傳」〈노래명〉
 “노래구절”
 예2) 주석문의 사례: 원문은 ‘必’인데 안사고는 그 뜻이 ‘極’이라고 했다. 그에 따라 해석하였다
 ([顔]師古曰, “必, 極也. 極保之也”).
8. 번역문이나 주석문에서 황제나 인물 그리고 연호에 대해 그 생졸년이나 재위 기간 등을 ()에 병기하여 이해를 돕는다.
 예) 광무제(光武帝: 劉秀, 전6~후57; 재위 25~57), 유흠(劉歆, ?~25), 영제(靈帝: 劉宏, 재위 168~189)
9. 왕조명(王朝名)은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표현법을 따르고, 주석문에서는 前漢, 後漢, 曹魏, 孫吳, 蜀漢, 西晉, 東晉, 劉宋, 南齊, 梁, 陳, 北魏, 北周, 北齊로 통일한다.

10. 번역문의 숫자 표기방법은 일, 십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지만, 관용적이거나 포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 원칙상 한글로 표기한다. (예: ‘천만인’, ‘팔십만 병사’, ‘천승지국’)
11. 번역문에서의 연도 표시는 ‘본문의 연도표기법(서력기원)’으로 표기한다. 연월일(年月日)이 모두 나타날 경우 사료에 표시된 대로 음력을 그대로 표기하되, 정월, 이월, 시월 등의 표현으로 음력임을 나타낸다.
- 예) “건초(建初) 원년(76)”, “원봉(元封) 6년(전75) 시월 5일”, “영수(永壽) 3년(157, 후한 환제)”
12. 주석의 항목이 인명, 지명, 관명, 역사적 사건, 개념어 등 구체적인 용어에 해당될 경우, 이를 먼저 표기하고 쌍점을 찍은 뒤 설명하여 이해의 편의를 돕는다.
- 예) 吳起: 전국시대 군사전략가.
13. 주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과거 주석가들의 주석내용이나 다른 문헌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문과 함께 제시하고 번역문을 병기한다. 이때 보기 편하도록 괄호 안에 원문을 제시하거나 해설을 첨가할 수도 있다.
- 예1) 糴布: 李賢注에서는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南蠻의 賦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晉代 戶調之式이다. 戶調之式에서는 “丁男之戶, 歲輸絹三匹, 絲三斤, 女及次丁男爲戶者半輸. 其諸邊郡或三分之二, 遠者三分之一. 夷人輸糴布, 戶一匹, 遠者或一丈.” (『晉書』卷26, 「食貨志」: 790)로 규정하고 있는데, 夷人糴布가 戶當 1匹이라고 하여, 糴布는 전국시대 이래 1匹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 예2) 武谿: 李賢은 『後漢書』 다른 곳의 주석에서 武谿는 강이름으로, 辰州 盧谿縣에 있다고 하였다(『後漢書』卷18, 「吳蓋陳臧列傳第」: 695). 史書에선 ‘武溪’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武陵의 五溪 중의 하나이다. 五溪는 沅水유역의 雄溪, 楠溪, 辰溪, 酉溪, 武溪를 가리키는데, 蠻夷의 거주지로 이를 五溪蠻으로 불렀다(『南史』卷79, 「夷貊下」〈荊雍州蠻〉: 1980).
14. 주석과정에서 다른 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병기하고 반드시 말미의 〈참고문헌〉에 그 책의 자세한 서지사항을 밝힌다. 이때 쌍점(:) 뒤의 아라비아 숫자는 쪽수를 의미한다. 제자서나 유교 경전일 경우 권수와 쪽수를 생략한다. 다만, 사전이나 일반적인 공구서에 나와 있는 연대나 단순한 사실에 관한 설명은 특수한 내용이 아닌 경우 구체적 근거를 생략하되, 〈참고문헌〉에는 그 책을 포함시킨다.
- 예) (方國瑜, 1927: 34~39), (內藤湖南, 1944: 55), (다니카와, 1988: 37~40), (디코스모 2005: 123), (Hartwell, 1977: 12), (『南史』 권79, 「夷貊下」〈荊雍州蠻〉: 1980), (『鹽鐵論』, 卷14 「論功篇」, “刻骨卷木, 百官有以相記”), (『孟子』 「梁惠王上」)

차 례

- 사기 외국전 해제 18

- 흉노열전
 - 해제 / 25
 - 흉노 연원 / 28
 - 흉노 전사(前史) / 41
 - 두만선우(頭曼單于)와 목득선우(冒頓單于) / 58
 - 노상선우(老上單于) / 87
 - 군신선우(軍臣單于) / 99
 - 이지사선우(伊稚斜單于) / 109
 - 오유선우(烏維單于) / 122
 - 아선우(兒單于), 구리호선우(响梨湖單于),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 / 132
 - 논찬 / 141
 - 참고문헌 / 143

- 남월열전
 - 해제 / 149

무제(武帝) 조타(趙佗) / 152

문왕(文王) 조호(趙胡), 명왕(明王) 조영제(趙嬰齊), 조흥(趙興), 조건덕(趙建德) / 164

논찬 / 181

참고문헌 / 182

- 동월열전

해제 / 185

동월 / 188

논찬 / 202

참고문헌 / 203

- 서남이열전

해제 / 207

서남이 / 211

논찬 / 239

참고문헌 / 241

- 대완열전

- 해제 / 245

- 장건(張騫) 1차 사행(使行) / 250

- 서역(西域) 사정(事情) : 대완(大宛), 오손(烏孫), 강거(康居), 엄채(奄蔡), 대월지(大月氏), 안식(安息), 조지(條枝), 대하(大夏) / 255

- 장건 2차 사행 / 273

- 이광리(李廣利)의 대완(大宛) 공략 / 288

- 논찬 / 299

- 참고문헌 / 301

- 세계포 306

- 연표 308

- 지도 314

- 색인 319

『사기』 외국전 해제

『사기』는 황제(黃帝)에서 시작하여 전한(前漢) 무제(武帝) 말기까지의 역사를 본기(本紀) 12권, 표(表) 10권, 서(書) 8권, 세가(世家) 30권, 열전(列傳) 70권, 총130권으로 구성된 중국 최초의 정사이며, 기전체(紀傳體) 통사이다. 태사령(太史令) 사마천(司馬遷)에 의해 전한 무제 정화(征和) 2년(전91)경에 완성되었다고 전하는데, 이 기전체의 역사 서술방식은 이후 정사 편찬의 모범이 되었다.

사마천이 『사기』를 찬술한 계기는 한왕조가 흥기하여 천하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들과 의(義)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행적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태사(太史)에게 있다는 부친 사마담(司馬談)의 유언 때문이라고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 밝히고 있다. 사마천은 이러한 활동이 춘추시대 말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찬술한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자부감을 보이고 있었는데, 『춘추』를 계승하여 ‘일가지언(一家之言)’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춘추』를 계승한다고 하였지만, 그 편제는 『춘추』의 편년 형식과는 달리 기전체라는 새로운 방식을 창안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편년형식의 본기에서는 『춘추』의 편제를 채용하고, 열전이나 서 등은 『상서(尙書)』나 다른 경전을 응용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일가(一家)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사기』의 편찬과정에서 사마천은 태사로서 궁중의 공식문서를 이용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천하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보고 듣고 채록한 내용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실제 사마천은 대체로 7차에 걸친 원거리 여행을 통하여 변방 각지를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각 편의 말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한 <논찬(論贊)>에서 현지를 방문하였던 경험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다른 종족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서 그의

변방여행이 주목되는데, 사마천은 무제 원정 6년(전111) 낭중(郎中)으로서 서쪽으로 파촉(巴蜀) 이남을 정벌하고, 공(邛)·작(笮)·곤명(昆明)을 경략하였고, 무제의 순행을 따라 원봉(元封) 원년(전110) 탁록(涿鹿), 정양(定襄), 운중(雲中), 오원(五原) 등을, 또 원봉 5년(전106)에는 남군(南郡), 회계(會稽) 등을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이 여행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이 『사기』에서 흉노, 서남이, 남월 등의 민족에 대한 서술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논찬에 나타난 여행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제로(齊魯)지방과 한왕조 창업의 출발지인 서주(徐州)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북변을 여행하면서 장성(長城)에 대해 부정적인 감각으로 언급한 것이 변방 여행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다. 특히, 그가 방문하였던 남군(南郡)과 동정호(洞庭湖) 주위에 산재한 남만(南蠻)이나, 역시 그가 민산(岷山)이나 공동산(空桐山)에 가는 여정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저족(氐族)과 강족(羌族)에 대해 열전에서 별도의 편제는 물론 다른 언급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그의 여행이 『사기』 「외국전」 찬술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실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변방에 관한 내용도 그렇거니와 『사기』 전체의 찬술에서도 개인적인 활동에 의한 자료채록이나 조사보다는 왕조의 공식적인 보고서나 문서가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릉(李陵)의 화(禍)로 궁형을 당한 사실도 그렇거니와, 『사기』 「태사공자서」나 『한서』 「사마천전」의 〈보임안서(報任安書)〉 등에 표출되는 사마천의 개인과 역사에 대한 감정은 『사기』 전편에 흐르는 왕조 중심의 역사인식과는 다소간의 괴리가 있다. 따라서, 사마천은 『사기』 찬술과정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판단보다는 왕조의 공식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굳이 모든 편의 말미에 ‘태사공왈(太史公曰)’이라고 하여 논찬을 설정하여 개인적인 평가를 첨부한 것은 『사기』 편찬에서 공식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감정을 구분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당몽(唐蒙)의 야랑(夜郎) 등 남이(南夷)지역 개척에 관한 상주와 그 과정,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서이(西夷) 경략과 치리(置吏), 남이도(南夷道)와 서이도(西夷道) 개착을 둘러싼 조정의 토론과 공손홍(公孫弘)의 서남행, 장건(張騫)의 서역 사행(使行)과 신독도(身毒道)에 관한 보고서, ‘야랑자대(夜郎自大)’의 이야기를 담은 한나라 사자의 전언,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정벌과정과 군현 설치의 과정 등에 관한 보고서와 이를 정리한 문서들이 『사기』 편찬의 핵심자료였을 것이다.

『사기』 열전에서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설정된 이후 『한서』부터 이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편제 상황이나 그 내용을 보면 『사기』와 기타의 정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기(史記)』에서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부분은 권110 「흉노열전(匈奴列傳)」, 권113 「남월열전(南越列傳)」, 권114 「동월열전(東越列傳)」, 권115 「조선열전(朝鮮列傳)」, 권116 「서남이열전(西南夷列傳)」, 권123 「대완열전(大宛列傳)」이 해당한다. 권110 「흉노열전」에 이어서 권111에 위청(衛靑)과 곽거병(霍去病)을 대상으로 하는 「위장군표기장군열전(衛將軍驃騎將軍列傳)」과 권112에 공손홍(公孫弘)과 주부연(主父偃)을 대상으로 하는 「평진후주부연전(平津侯主父列傳)」이 편제되어 있다. 남월, 동월, 조선, 서남이를 대상으로 하는 편제에 이어서는 사마상여(司馬相如)와 회남왕(淮南王), 형산왕(衡山王)열전이 편제되어 있다. 이와는 동떨어지게 권123에 「대완열전」이 「흑리열전」과 「유협열전」 사이에 편제되어 있다. 이는 『한서』 이후의 정사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열전이 주로 맨 마지막에 연속적으로 편제하여 외국이나 이민족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사기』의 전승과정에서 편제의 혼란이 생겨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 「대완열전」은 그 내용이 ‘대완(大宛)’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문장은 『한서』 「이광리열전(李廣利列傳)」과 거의 유사하다. 이 때문에 전승과정에서 『사기』 「대완열전」은 일실되고, 『한서』 「이광리열전」의 내용으로 이를 보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내용도 그렇거니와 『사기』 열전의 편제는 그 순서가 일관된 원리에 의해 정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물론, 흉노와 관련이 깊은 이릉(李陵)과 위청 곽거병의 열전이 「흉노열전」 앞뒤로, 사마상여열전이 「서남이열전」 바로 뒤로 편제된 것을 보면, 열전의 순서가 무작위적으로 나열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사기』에서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편제로서 주목되는 점은 전한시기 이미 독자적인 종족으로 존립하고 있던 서방의 저(氐)와 강(羌), 그리고 형상(荊湘)과 강한(江漢) 지역의 남만(南蠻)에 대해 별도의 열전이 편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서』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후한서』에서 비로소 「오환선비전(烏桓鮮卑傳)」과 함께 「남만서남이전(南蠻西南夷傳)」, 「서강전(西羌傳)」이 편제되기 시작한다.

오환(烏桓)과 선비(鮮卑)는 후한대 흉노의 분화에 따라 종족적 실체가 갖추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남만(南蠻)은 『한서』에서 한 차례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기』와 『한서』에서는 전한 말까지 구체적인 종족 칭호로 개념화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렇지

만 『사기집해』에 인용된 공안국(孔安國)의 말에서도 ‘용(庸)’, ‘복(濮)’ 등의 종족집단이 존재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후한서』에서 보듯 전한시기 이미 독자적인 종족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특히 강(羌)과 저(氐)는 전한시기 이미 서방의 주요 종족으로 한 조정에서 자주 운위되는 집단이었다. 원정 5년(전112)에는 10만 명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와 연락하여 대규모 정벌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당시 강족은 한 조정의 입장에서 남월이나 동월 혹은 서남이에 비해서 오히려 더 위협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후한시대에 들어서야 고구려(高句麗)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조선(朝鮮)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조정에서의 중요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실제 『사기』와 『한서』 곳곳에서 저와 강에 대한 기록은 많이 발견된다. 구체적인 군사활동이나 접촉이 많지 않았던 남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과 저가 『사기』에 이어 『한서』에서 별도 열전으로 편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당시의 기록에서 남만은 물론이고 저와 강족의 군장이나 왕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조선전」은 “조선왕(위)만은 ……”으로 시작하는데, 남월은 조타(趙佗), 동월은 민월왕(閩越王) 무저(無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서남이는 군장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 흉노는 그 선조가 하후(夏后)의 후예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즉 『사기』 친술에서 외국에 관한 열전은 국가나 종족 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군장(君長)이나 왕 등 인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도 종족의 내부사정이나 풍습과 제도 등에 대한 서술은 소략하고, 대체로 군장과 한 조정과의 관련된 사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사기」에서는 종족이나 사회보다는 그 인물을 기술한다는 차원에서 열전으로 편제된 것으로, 「유협열전」, 「흑리열전」 등처럼 성격이 유사한 여러 인물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한조정과 실제적인 교류가 별로 많지 않은 조선이었지만 「조선전」은 위만이라는 인물 때문에 편제되었다. 그에 비해 반란과 토벌 등 직접적인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지만 군장이 부각되지 않은 강족은 별도의 열전으로 편제될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민족 관련 열전에서는 당시 한 조정의 천하관념이나 영역의식 혹은 변군(邊郡)이나 부도위(部都尉) 등의 변경정책에 관한 내용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기』 곳곳에서는 진(秦)의 통일이나 진시황과 한무제의 순행을 설명하면서, 북쪽으로는 음산(陰山)을 기준으로 흉노, 서쪽으로는 강(羌), 남쪽으로는 구의산(九疑山) 혹은 북향호(北嚮戶)에서 회계(會稽)를 넘어서는 월(越), 동쪽으로는 바다를 넘어 조선(朝鮮)이 중국 천하의 사방으로

포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당시 조정의 통치 범위와 천하관념이 대체로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민족 관련 열전에서는 이러한 의식이나 관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사기』 외국전은 종족이나 사회보다는 그 인물을 기술한다는 차원에서 열전으로 편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외국전과 인접하여 편제된 위청, 광거병, 사마상여, 형산왕의 열전을 비롯하여 『사기』 여러 곳에서, 번역의 대상에 포함된 열전에 들어 있지 않은 외국관련 기사가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사기』에서 외국이나 다른 종족에 관한 내용은 번역의 대상으로 선택한 6편의 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가 외국전에 해당하는 열전만을 채택하고, 이미 한글 역주본이 출간된 「조선선」을 제외하여, 「흉노열전(匈奴列傳)」, 「남월열전」, 「동월열전」, 「서남이열전」, 「대완열전」만을 역주에 포함시켰다.

흉노열전(匈奴列傳)



「흉노열전(匈奴列傳)」 해제

흉노(匈奴)는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하던 종족으로 기원전 4세기 초에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이 과거 주(周)의 북변을 위협하였던 산융(山戎), 험윤(獫狁), 훈육(葷粥) 등의 후예라고도 하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실제 흉노가 장성(長城) 이북의 유목민을 통일한 것은 기원전 3세기 말 두만선우(頭曼單于) 때이다. 특히 목특선우(冒頓單于: 재위 전209~전174)는 아버지 두만선우를 살해하고 서로 월지(月氏), 동으로 동호(東胡), 남으로 누번(樓煩)과 백양(白羊) 등을 병합하여 거대한 유목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성립한 한(漢)과 군사적으로 충돌하여 고조(高祖: 재위 전206~전195)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였다. 그 이후 양국 사이에 흉노의 침탈과 화친 관계의 재건이 반복되었다. 한의 무제(武帝: 재위 전141~전87)는 이전의 치욕적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흉노 원정을 시도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다. 이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흉노는 그 이후에도 계속 한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이었다.

『사기(史記)』의 「흉노열전」은 한 무제 시기에 사마천(司馬遷: 전145?~전86)이 당시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이었던 흉노와의 교섭 내용은 물론 그들의 관습과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는 흉노 자신들의 문헌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주지하듯이 사마천은 흉노에 투항한 이릉(李陵: ?~전74)을 변호하다가 궁형(宮刑)을 당하였다. 이러한 찬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혹 이 글에 흉노에 대한 반감이 개입되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흉노열전」은 『한서(漢書)』의 경우와 비교할 때 흉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가로서 사마천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이다.

본편의 구성을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맨처음 총론 부분에서 흉노의

유래와 그 습속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유래에 대한 설명은 산융, 험윤, 훈육 나아가 하후씨(夏后氏)의 후예 순유(淳維)로까지 흉노의 조상을 소급한다. 이것은 『사기』의 ‘회통(會通)’ 정신에 입각한 서술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근의 나라와 종족들이 모두 중국(中國)에 통합되어야만 할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보의 조작 의도 역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듯하다. 이에 비하여, 흉노의 습속에 대한 기록은 훨씬 객관적이다. 이것은 『산해경(山海經)』 등에서 관념적·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북방의 유목민족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사마천의 「흉노열전」이 유목민에 대한 기록의 모범으로도 간주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전국시대(戰國時代)를 통일한 진(秦)나라 때까지 중원의 국가들과 그 북면에 존재했던 흉노 이전의 다양한 종족들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주대(周代)에 존재했던 적(狄)과 용(戎)이 정치적·문화적으로 점차 주의 제후국들에 흡수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춘추시대(春秋時代)를 거쳐 전국시대에 진(秦)·조(趙)·연(燕) 등 중국의 북방 국가들이 장성(長城)을 구축하면서 새로 등장한 기마 유목민인 호(胡)와 벌인 대결 양상과 함께 진나라가 통일 이후 그들을 장성 밖으로 몰아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기원전 4세기 흉노가 출현하기 이전까지 북방의 역사는 물론 유목민과 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가 잘 드러난다.

셋째, 흉노 최초의 군주인 두만선우의 등장과 목특선우 시대의 발전을 설명함과 동시에 흉노의 관제, 국가 제사 의례, 매장 습속, 사회와 법률 등을 기록하고 있다. 총론에서 다른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습속이 아니라 흉노국가 건설 이후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이 내용의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사마천 자신의 직접 답사에 의한 조사, 당시 흉노와 관련되었던 한인(漢人)들의 경험,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수집된 정보, 그리고 투항한 흉노인의 진술 등이 그것이다. 폭넓은 자료 수집과 이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술이라는 『사기』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넷째, 목특선우 이후 중국을 통일한 한과의 화친과 전쟁 등의 교섭 과정을 상세하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한나라가 성립한 이후 사마천의 시대까지 10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흉노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이 본권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흉노를 북방의 위협적 존재로 보는 한나라의 시각에서 기록되었으나,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만에 입각하였다기보다는 양국 간에 벌어진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사마천은 중항열(中行說)의 말을 통해

흉노 역시 나름의 생활 방식과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흉노를 비롯한 주변 종족을 야만시하던 당시 중국의 분위기와 다른 것이다. 특히, 후한시대 흉노의 세력이 약화된 시점에서 나온 반고(班固: 32~92)의 『한서』가 흉노를 금수(禽獸)와 같이 인식했던 태도와 대조된다. 즉 후대와 달리 흉노의 실재(實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묘사를 시도했던 것이다.

다섯째, 사마천의 평가, 곧 사평(史評)이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의 기록이 검열당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춘추』의 기록에 빗대어 설명하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사마천은 무제의 흉노 원정 추진과 그에 참여했던 관리들에 대해 의연(毅然)한 비판을 가했다. 이런 그의 평가를 흉노와의 전쟁 중 자신이 당한 곤경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마천은 당시의 심각한 대외적 위협 속에서도 투철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비판정신을 견지하였고, 『사기』에 대한 후대의 칭송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사마천의 「흉노열전」은 북방에 존재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재하는 유목민으로서의 그 구체적인 역사상을 잘 보여 주었다. 그리고 적대적인 대상에 대한 한인(漢人)들의 일반적인 편견과 왜곡된 자의식 역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이런 사마천의 인식은 본편이 『사기』 중에서도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국적인 시각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른 문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흉노에 대한 기록이 많을 뿐이지, 그 관심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한나라와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중국 정사의 '북적(北狄)' 열전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인데, 『사기』 또한 흉노 자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흉노가 중국과 조상을 공유한다는 사마천의 기록은 향후 그들을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할 수 있다는 확대해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국의 현실적 관심이 개재된 『사기』 「흉노열전」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목민의 입장에서 양국 간의 관계에 접근해 보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 역주: 정재훈
- 교열: 하원수

「흉노열전(匈奴列傳)」역주

匈奴，其先祖夏后氏之苗裔也，曰淳維。唐虞以上有山戎·獫狁·葷粥，居于北蠻，隨畜牧而轉移。其畜之所多則馬·牛·羊，其奇畜則橐駝·驢·羸·馱騾·駒騾·驛騾。逐水草遷徙，毋城郭常處耕田之業，然亦各有分地。毋文書，以言語爲約束。兒能騎羊，引弓射鳥鼠；少長則射狐兔，用爲食。士力能毋弓，盡爲甲騎。其俗。寬則隨畜，因射獵禽獸爲生業，急則人習戰攻以侵伐，其天性也。其長兵則弓矢，短兵則刀鋌。利則進，不利則退，不羞遁走。苟利所在，不知禮義。自君王以下，咸食畜肉，衣其皮革，被旃裘。壯者食肥美，老者食其餘。貴壯健，賤老弱。父死，妻其後母；兄弟死，皆取其妻妻之。其俗有名不諱，而無姓字。

흉노(匈奴)¹⁾는 그 선조가 하후씨(夏后氏)²⁾의 후예로 순유(淳維)³⁾라고 불린다. [도]당[씨]

1) 匈奴: 기원전 3세기 말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북아시아 최초로 유목국가를 건설하여 발전하였다. 漢나라와 대결·화친을 되풀이하다가 내분으로 기원후 1세기경에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그 이후 내부적인 갈등의 증폭과 漢나라의 羈縻政策으로 인해 국가가 붕괴되었다. 그 이후에 주요 세력은 中國 북방으로 내려와 南匈奴를 형성하여 三國時代까지 中國의 藩屏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永嘉의 喪亂을 계기로 시작된 五胡十六國時代에 漢과 前趙, 北涼 등을 건설하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匈奴 세력은 과거와 같은 유목국가 내지는 중원의 왕조를 건설하지 못하고 약화되어 정치적으로 소멸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4세기 유럽 게르만의 대이동을 유발한 훈(Hun)의 등장과 함께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匈奴와 훈의 유사성이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종족적인 기원과 함께 匈奴와 훈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중시되었다.

그동안의 연구 경향은 匈奴와 훈을 동일하게 보는 입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同族論 역시 절대적인 논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문헌 연구와 함께 고고학적 조사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정수일, 2001: 264~273). 匈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사 정리 차원에서 기존에 전개되었던 匈奴라는 말의 어원 내지는 종족적 기원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匈奴’라는 말의 原義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匈’을 훈(Hun 혹은 Qun)의 音寫로 보는데, 그 의미는 퉁구스어에서 ‘사람’이라는 뜻이며 匈奴 스스로가 자신들을 ‘훈(Hun, 匈)’이라고 불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알타이어에서 쿤(kün), 즉 ‘태양’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卡哈爾曼·穆汗, 2000: 28). 그리고 한자에서 ‘奴’ 역시 비어인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奴’가 멸시의 의도로 첨가되어 匈奴라고 불렀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칭을 匈奴가 자신의 명칭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그 의미를 비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르는 어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江鴻, 1984: 9~14). 匈奴의 종족적 기원에 대해서는 그리스 자료에서 등장하는 ‘프로노이(Phrynoi)’나 ‘파우노이(Phaunoi)’ 등과 匈奴를 동일시한 19세기의 주장 이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匈奴와 훈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려는 시도와 관련되는데, 워낙 오래 계속된 해묵은 논쟁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考古學的인 증거들과 서구 기록들이 훈의 아시아적 요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게르만의 명칭을 지닌 훈의 지배층이 아시아의 匈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결정적인 증거 역시 없다는 점에서 同族說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물론 匈奴가 서구의 기록에 나오는 ‘후나(Huna)’, ‘훈니(Hunni)’라는 명칭들과 언어적인 공통점이 있으므로 그들의 연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이것이 아시아 전역에서 유목민 일반을 지칭하거나 특정한 유목민 또는 유목민의 소국을 가리킬 때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匈奴와 훈의 명칭적 유사성만을 가지고 그의 종족적 연관성을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匈奴의 종족적 기원 문제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를 입증하려는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훈, 투르크, 몽골을 포괄하는 ‘타타르’와 匈奴를 동일시하려고 한 18세기 드기네(Deguignes)로부터 시작되어 20세기까지 匈奴가 훈의 조상이라는 견해가 유행하였다. 20세기에 들면서 히르쓰(Hirth), 白鳥庫吉 등이 匈奴와 투르크를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중국 기록의 狄이라는 명칭이 투르크의 초기 음역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설득력을 가졌다. 그리고 프리차크(Pritsak), 에버하르트(Eberhard), 바쟁(Bazin), 사몰린(Samolín) 등은 葷粥(薰粥), 獫狁(獵狁), 犬戎 등이 모두 匈奴가 속했던 종족과 같은 것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칼그렌(Kalgré), 마스페로(Maspero) 등은 반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크릴(Creel)은 狄과 戎 같은 중국 북방의 종족이 투르크라는 점을 부정하고 사실상 투르크는 알타이보다는 漢族에 가깝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리게티(Ligeti)는 훈노의 언어가 알타이어계라기보다는 예니세이강 남부 시베리아 계통의 언어인 오스티약(Ostyak)어라는 주장도 했다. 또한 풀리블랭크(Pulleyblank)는 匈奴의 언어에 알타이어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원래 시베리아 계통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나중에 몽골 초원에서 국가를 세운 투르크와 몽골 등이 차용하게 되면서 비슷해졌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일리(Baily)는 匈奴가 이란계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고, 도르퍼(Doerf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연관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陶唐氏)⁴⁾와 [유]우[씨](有虞氏)⁵⁾ 이전에는 산융(山戎),⁶⁾ 험윤(獫狁),⁷⁾ 훈육(葷粥)⁸⁾ 등[의

이처럼 언어를 기초로 한 匈奴의 원류에 대한 설명은 현재 하나의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터키(투르크), 몽골 등과 같은 나라들이 匈奴를 자신의 조상으로 보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어렵게 한다(디코스모, 2005: 449). 따라서 이런 입장은 이후 자신들의 조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匈奴나 훈에 ‘族’을 결합시켜 ‘匈奴族’·‘훈족’ 등과 같이 사료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종족적 내지는 인종적 접근을 하려고 했던 기존의 설명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 그보다는 원래의 기록에 충실하게 匈奴라는 말이 사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그것을 인종적 측면보다 하나의 정치집단을 부르는 통칭이었다고 보는 것이 그 복합적인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올바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즉, 이와 같이 다양한 주장들을 볼 때, 匈奴가 현재 분명하지 않은 다양한 종족과 언어 집단의 복합체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2) 夏后氏: 옛날 부락의 명칭이다. 그 우두머리 禹가 黃河의 치수에 공이 있어 舜임금을 이어 군주가 되었고, 그 아들 啓가 夏나라를 건립하였다. 따라서 夏后氏는 夏나라의 별칭으로도 쓰인다. 夏나라는 중국 最古의 王朝로서 桀王이 商의 湯王에게 망할 때까지 17세대에 걸쳐 439년간 존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考古學的 증거가 거의 없어 그 실존 여부는 논쟁 중에 있다.

3) 淳維: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를 匈奴의 조상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商(殷은 이하에서 모두 商으로 표기)代에 北邊으로 도망간 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淳維가 商나라 말기 북변으로 도망가게 된 유래를 자세하게 부연함으로써 淳維가 匈奴의 조상이고, 薰粥과 匈奴가 동일하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淳維(Chun-wei)’와 ‘薰粥(Xun-yu)’이 그 음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계통이 같다고 설명할 수 있는 여타의 증거가 없다. 물론 ‘淳維’나 ‘薰粥’이 匈奴(Xiong-nu)의 발음과 비슷한 이상 동일한 原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匈奴의 계통에 대한 이러한 司馬遷의 설명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그들의 종족 내지 부족 단위로서의 역사 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국에 남아 있는 기록만에 의거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匈奴의 기원이 中國人과 연결된다고 하는 설정은 이들을 시초부터 中國 역사의 합법적인 구성 요소의 하나로 만들려는 목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漢代 和親의 상대로서 실재하는 匈奴가 과거부터 존재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漢代 이후 이미 和親政策을 통해 婚姻關係를 맺는 등 정치적인 血緣關係 설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古代의 聖賢과 異民族들을 연결시키는 中國의 전통, 예를 들어 舜을 東夷로, 文王을 西夷로 보거나, 羌族을 神農氏의 후예로 설명한 것 등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빈번하게 中國 史書에 등장하는 이런 식의 수사적인 표현을 기초로 이민족들과 中國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논의는 보다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보다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 등에 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9) 참조

4) 陶唐氏: 五帝의 하나인 堯을 가리킨다. 舜이 그를 이었다(『史記』 권1 「五帝本紀」: 15~30).

5) 有虞氏: 五帝의 마지막인 舜을 가리킨다(『史記』 권1 「五帝本紀」: 30~44). 치수에 공을 세운 禹가 그를

여러 종족들이⁹⁾ 북쪽 이민족의 땅(北蠻)¹⁰⁾에 살면서 가축을 따라서 먹이며 옮겨 다니며 [살았다].¹¹⁾ 기르는 짐승들은¹²⁾ 대다수가 말,¹³⁾ 소,¹⁴⁾ 양¹⁵⁾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이었고, 이로부터 夏나라가 시작되었다(주2) 참조).

- 6) 山戎: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無終’, ‘北戎’이라고도 한다. 春秋시대에 山西省 太原에 살았던 戎의 한 갈래이다. 이후에 지금의 河北 涿源으로 옮겨 갔다가 다시 東遷하여 河北省 玉田縣 서북에 있는 無終山으로 이주했다. 燕나라 莊公 27년(전664)에 燕나라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齊나라 桓公이 燕나라를 도와 孤竹(지금의 河北省 盧龍 남쪽)에서 이들을 격파하였다. 이후에 이들은 다시 晉나라 북부로 이주하였다. 晉나라의 悼公 4년(전569)에 사신을 보내 여러 戎들과 결맹을 하였다. 晉나라 平公 17년(전541)에 晉나라가 이들을 太原에서 격파하였다. 그 뒤 趙나라에게 멸망당했다. (주74) 참조)
- 7) 獫狁: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음은 험윤이다. 지금의 陝西省·甘肅省 북부와 內蒙古自治區 서부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다른 종족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漢書』에는 ‘獫允’으로 기록했는데, 후 ‘獫狁’으로 적기도 한다. 이런 表記의 차이는 곧 漢字로 音譯된 것임을 보여 준다.
- 8) 薰粥: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음은 훈육이다. 『漢書』에는 ‘薰粥’으로 기록했는데, 후 ‘獯鬻’으로 적기도 한다. 이런 表記의 차이는 漢字로 音譯된 것임을 보여 준다. (주3) 참조)
- 9) 『史記集解』는 “堯時曰薰粥, 周曰獫狁, 秦曰匈奴.”라는 晉灼의 말로 이 구절을 설명하였으며, 전통적으로 山戎, 獫狁, 薰粥이 모두 秦漢時代 이전 匈奴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런 전근대의 기록을 토대로 王國維는 商과 周시대의 鬼方, 混夷, 獯鬻, 西周시대의 獫狁, 春秋時代의 戎狄, 戰國時代의 胡가 모두 匈奴와 같은 종류로 보았다(王國維, 1984: 583~606; 姚大力, 2004, 48~54). 梁啓超나 呂思勉, 金元憲, 何震亞 등과 같은 학자들도 이런 입장에 찬동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匈奴가 鬼方, 獯鬻, 混夷, 獫狁 등이 아니라 義渠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거나(蒙文通, 1958), 鬼方, 混夷, 獯鬻, 獫狁 등을 羌人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黃文弼, 1983: 2~28). 그 밖에도 이들을 서방에서 온 종족으로 이해하기도 했다(岑仲勉, 1983: 29~36). 따라서 기존에 존재했던 다른 종족들이 匈奴라는 국가를 세운 지배집단과 직접 연결된 증거는 없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런 명칭의 유사성은 匈奴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었던 기존의 종족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주3) 참조)
- 10) 北蠻: 북쪽에 사는 이민족을 의미한다. 蠻은 四夷의 通稱으로 남쪽에 있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주57) 참조)
- 11) “가축을 따라서 먹이며 옮겨 다니며 살았다.”고 한 것은(『漢書』에는 “隨草畜牧而轉移”라고 하여 조금 표현이 다르다.) 몽골 초원에서 이루어지는 遊牧(또는 游牧: nomadism)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遊牧: 구대륙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목축 방식의 하나로서, 초식성의 발굽 동물을 길들여 이들을 이끌고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생활 형태를 말한다. 유목은 거주지를 완전히 바꾸는 移住와 다르며, 또 일정한 중심지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점에서 정처 없는 방랑이나 流浪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유목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거나 하자노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정리했다. ① 목축은 무엇보다도 경제 행위의 한 형태이다. ② 그 광역적 성격은 축사를 갖지 않고

연중 거리의 제한 없이 방목시키는 가축 사육 방법에서 비롯된다. ③ 주기적 이동은 목축 경제의 욕구에 따라 일정한 목지의 범위 내에서, 혹은 지역 간을 오가면서 이루어진다. ④ 목축 이동에는 성원의 전부 혹은 대다수가 참여한다. ⑤ 생산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한다(하자노프, 1990: 50).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遊牧’에서 목민들이 가축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가축들의 기후 적응과 관련되었다. 왜냐하면 혹독한 환경에서 가축들의 생체 리듬과 기후 변화를 맞추어 재생산을 해야만 했고, 그와 동시에 가축들의 먹이를 제공하는 초원의 생태를 파괴시키지 않아야 되었기 때문이다. 즉, 移動을 통해 초지의 파괴를 막음으로써 이후 다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再生産 構造의 確保’가 유목의 이유였다. 초원(steppe)은 강수량이 많지 않고 척박해 한 번 파괴되면 다시 그 초지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목민들은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을 길러야만 했다. 때문에 가축들이 초지를 파괴하는 것을 막고 재생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유목 생산의 기본이었다. 따라서 유목민들은 초지 보호와 가축들의 생체 리듬에 맞추어 가능하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이동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범위 역시 다른 유목민들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遊牧은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대체적으로 몽골 초원에 거주하는 목민들은 중앙아시아의 산악지역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직’ 이동하는 유목민들과 달리 비교적 평탄한 구릉을 중심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른다. 그리고 유목민들은 가축을 길러 얻어지는 생산물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냥 또는 채집을 하거나 약간의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한 곡식 등과 같이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얻기 위해 농경민들과 교역을 하기도 한다. 구릉 지역을 계절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의 경우에도 가축의 종류, 지형, 기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띠고 있다. 몽골 초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유목의 형태가 다르다. 고비 남부의 內蒙古의 경우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갈수록 건조 정도가 강해지고 고비 북부의 몽골공화국(외몽골)은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건조 정도가 완화되면서 삼림지대로 연결된다. 그리고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에는 알타이를 비롯한 산지가 발달해 있어 지역에 따라 유목민들의 생활양식이 다르다. 이런 자연환경의 차이는 식생과 가축의 구성 등에 큰 영향을 미쳐 유목민들의 생활방식을 결정한다(後藤富男, 1967; 張承志, 1993; 松井健, 2001).

- 12) 인류는 신석기시대 짐승을 길들여 생산경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발굽을 갖고 있는 초식성의 ‘有蹄類’였다. 양, 염소, 소, 낙타, 말, 순록, 산양 등이 가장 중요한 가축이었는데, 몽골 초원에서는 이 중에서도 순록과 산양을 제외하고 다섯 가지의 가축을 중시한다. 그중에서도 중요도에 따라 말, 소, 낙타, 양, 염소 순서로 나열할 수 있다. 말과 소, 그리고 양과 염소 등이 가장 기본적인 가축인데, 습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덜 건조하고 풀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소의 사육 비중이 높고, 고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타, 그리고 북부 산악지역에서는 이끼를 주로 먹는 순록을 일부 사육하기도 한다. 『史記正義』에 인용된 「西河故事」의 “亡我祁連山, 使我六畜不蕃息; 失我焉支山, 使我婦女無顏色.”의 기록에 나오는 六畜을 말, 소, 양, 닭, 개, 돼지 등이라고 몽골 초원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열거한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 13) 말: 인류의 말 사육은 기원전 3500~3000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수레를 끄는데 사용되었다. 반면에 말 위에 올라타는 승마를 시작한 것은 중앙유라시아에서 기원전 약 2000년경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유목민들은 말을 타기 위한 다양한 마구를 개량하게 되면서 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철기로 마구를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유목민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7세기경 흑해 연안의 남



〈匈奴人の 싸름하는 모습과 말의 모습을 보여 주는 청동 장식〉

러시아 초원에서 국가를 건설하였던 스키타이(이란에서는 ‘사카(Saka)’, 中國에서는 ‘塞’로 기록)였다. 스키타이가 보여 준 기마 유목기술과 다양한 문화는 이후 중앙유라시아 전반에 전파되어 보편적으로 나타났고, 몽골 초원의 경우에도 月氏, 匈奴 등과 같은 세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몽골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은, 다리가 가늘고 키가 큰 아라비아종의 말과 달리, 체구에 비해 머리가 크고 목이 굵으며 다리가 짧고 둔부가 삼각형의 모양을 띠며 노지에서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뺏가죽이 얇아 축 쳐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털이 많아 추위를 잘 견디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강한 알타이 계통의 말로 과거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조랑말이 바로 이 계통의 말이다. 말 무리는 거세하지 않은 수말을 리더로 30마리 정도의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작은 여러 개의 무리가 모여서 큰 무리가 된다. 대개 여름철에 어린 말들을 길들여 승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몽골인은 다리가 4개라고 할 정도로 말과 뿔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말을 탄 이런 스키타이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인들이 신화 속 켈타우루스의 형상을 만들어 냈을 정도로 유목민들은 말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큼 말을 자유자재로 잘 탄다. 또한 몽골 속언으로 “안장이 없으면 낮에 굶고, 아내가 없으면 밤에 굶는다.”라고 할 정도로 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말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성격 역시 강하게 갖고 있다. 몽골 사람들은 駿馬를 과시하며 초원을 질주하는 것을 중시하고, 말에 대한 장식 역시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말에 대한 애정 표시는 머리에 행운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체적으로 머리를 때리지 않고 애마는 절대로 식용하지 않는다. 식용의 경우에도 모두 먹지 않고 먹은 후에는 오보(Ovoo)에서 제사하고 또한 말의 고환도 거세한 후에 먹지 않는 등 대우를 한다. 또한 유목민들의 지혜는 말에 대한 어휘가 연령, 성별, 털의 색깔, 털의 부분적인 특징, 신체 부위의 특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어휘가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어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활과 지혜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반영한다.

- 14) 소: 소는 일찍부터 가축화된 동물의 하나이다. 몽골 초원에서 기르는 소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에 비해 약간 작다. 소는 가축 중에서 큰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고기와 젖, 그리고 가죽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축의 하나로 여겨진다. 몽골 초원에서는 풀이 좋고 습지가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의 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소와 비슷하지만 고산지역에서 잘 자라는 야크가 몽골 초원에

낙타[橐駝],¹⁶⁾ 나귀[驢], 노새[羸],¹⁷⁾ 버새[馱驘],¹⁸⁾ 도도(駟駟),¹⁹⁾ 탄해(驛駟)²⁰⁾ [등]이었다.

서는 오히려 더 많이 사육된다. 목민들은 주로 거세한 황소를 주요한 운송수단의 하나로 사용했는데, 匈奴의 경우 車廬(수레 위에 穹廬를 올려놓은 것)를 끄는 데 소를 주로 사용했다(주21) 참조). 또한 소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기 때문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에 소를 해체하여 냉동 건조한 다음에 라면의 수프와 같이 고기 섬유질을 모은 형태의 비축양식을 만들었다. 이것은 유목민들의 전투를 할 경우에 안장에 그것을 매달고 이동하면서 바로 물에 넣어 끓여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사용되었다(주37) 참조). 이런 전투 식량의 확보로 인해 중국처럼 많은 보급부대가 필요하지 않았던 유목군대는 기동성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 15) 양: 털과 가죽, 그리고 고기와 젓 등 의식주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축으로 여겨진다. 몽골 초원에서는 한 가정이 200~300마리 정도의 양을 길러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양의 사육이 유목 생활에서 이처럼 중요한 만큼 목민들의 모든 움직임도 양의 생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양의 사육에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몽골 초원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사육한다. 이것은 염소가 양에 비해 황량한 지방에서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고 추위도 잘 견디는 특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과 다른 습성을 이용해 이들을 조화롭게 기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염소를 이용해 양을 방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를 8:2 또는 7:3 정도 섞어서 기른다.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염소가 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양을 끌고 다니게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물러 양을 그대로 두면 한 곳에 머물러 풀의 뿌리까지 먹어 버림으로써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초원의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목의 계절 이동 중에 겨울을 나는 것 역시 양들의 생식 주기와 맞물려 있다. 혹독하고 긴 계절인 초원의 겨울을 나기 위해 유목민들은 가장 많은 가축인 양을 계획적으로 겨울이 접어드는 시점에 임신을 시킨다. 왜냐하면 양의 임신 주기가 150일 정도가 되는데, 따뜻한 봄이 됨과 동시에 출산을 하게 함으로써 재생산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 때나 새끼를 낳게 되면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착하여 생활하는 冬營地와 春營地에서 새끼의 출산과 관련된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여해 1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 16) 橐駝: 낙타를 말하는데, “등의 살이 전대와 같아서 橐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처럼 몽골 초원에는 등에 기름주머니인 혹이 두 개 있는 쌍봉낙타가 주로 사육된다. 이들은 체구가 아주 크고 강인하여 추위에 강하나 더위에 약한 특징이 있다. 초원보다는 주로 고비와 같은 더 건조한 지역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낙타는 고비(사막)의 장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낙타는 털, 젓, 고기 등을 이용하고 짐을 옮기거나 승용으로 사용하는데, 특히 나쁜 자연조건에 잘 버티 내기 때문에 ‘사막의 배’로서 隊商이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목민들에게 낙타는 그들의 인내력과 강한 힘에 대한 신뢰와 함께 등에 달린 혹 때문에 유머러스한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
- 17) 羸: 곧 수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驘: mule)’이다. 생식기능은 없으나 온순하기 때문에 주로 운반용으로 사용하였다.
- 18) 馱驘: 수말과 암나귀 사이에서 생긴 잡종 말로 ‘버새(hinny)’이다. 北狄의 좋은 말[駟馬]로서 어미의 배를 갈라서 태어나고 이레 뒤에 벌써 어미를 넘어선다고도 했다. 이런 말의 교잡 기술은 목민들이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살아 성곽이나 일정하게 사는 곳,²¹⁾ [그리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것이 없었으나, [각자가] 나누어 갖고 있는 땅[分地]²²⁾은 있었다. 글이나 책이 없어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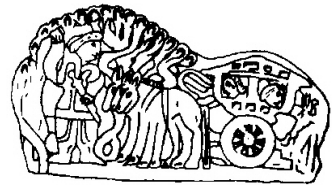
특수하게 발명해 낸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증명하는 것으로 초원에 성숙된 유목 문화가 발달했음을 보여 준다.

19) 駒駝: 푸른색을 띤 말을 뜻하는데, 몽골어로 야생의 노새를 가리키는 ‘치기타이(chigitai)’가 바로 이 ‘駒駝’를 뜻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北海(바이칼호)에 있는 말처럼 생긴 짐승 또는 북쪽에 있는 나라의 명칭으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말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20) 驛駝: ‘巨虛之屬’이라 하였고, 驛은 ‘野馬屬’이라고 하였다. 이는 몽골어로 野生馬를 ‘타키(taki)’라고 하는 것과 음이 상통한다는 점에서 野生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内田吟風, 1971: 4). 『漢書』에는 “驛奚”로 되어 있다.

21) 處: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은 목재 기둥과 서까래 등의 골조를 펠트로 둘러싸고 난 다음 그 위에 면포나 가죽을 덮는 조립식 이동용 천막(yurt 또는 ger)에 살았다. 匈奴 시대에는 이런 조립식 천막을 수레 위에 설치한 穹廬에 거주하면서 바로 땅 위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주로 벽부분이 탄력성이 좋고 유연한 버드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사와다, 2007: 122). 이런 이동식 가옥을 이용해 遊牧民들은 계절에 따라 옮겨다니며 생활했기 때문에 司馬遷의 기록처럼 고정된 주거지를 만들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을 보내야 하는 冬營地에서 목민들은 대체로 정해진 지역에서 머물러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맞춘 잦은 이동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分地가 일정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거지를 만들어 이동하는 생활을 했다.

한편, 계절적 이동을 기초로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에게도 匈奴 시대부터 이미 고정적인 주거지 내지는 소규모의 성곽, 그리고 넓은 농경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 유목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유목국가가 건설되면서 그를 위해 봉사하는 외래의 정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20세기 이래 몽골과 바이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굴된 匈奴時代의 농경지와 성곽 등의 유적이 그 증거이다. 이를 통해 匈奴의 대외 확장과 함께 몽골 초원과 오아시스 지역, 그리고 중국과 근접한 변경 지역에서 농업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많은 주거지가 匈奴 영역 내에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다양한 종자의 사용만이 아니라 농기구 등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 등이 존재했음 역시 확인된다(馬利滿, 2005: 378~388). 이상과 같은 유목과 정주의 복합적인 특징은 遊牧國家의 건설과 함께 몽골 초원에 정주와 유목의 이중적인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漢書』에는 “居”로 되어 있다.



〈西峯溝출토 穹廬 모양 청동장식〉



〈穹廬와 씨름하는 모습을 투각한 청동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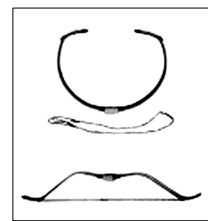
22) 分地: 하나의 가족 내지는 氏族 등이 소유한 分有地를 가리키는데, 이는 유목민들의 개인적인 토지 소유 상황을 설명한다. 즉, 遊牧民들은 개인과 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축 무리를 먹일 수 있도록 특정 牧草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유목민들이 토지를 하늘에서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말로 [서로] 약속을 했다.²⁴⁾ 어린아이들도 양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으며 활을 당겨 새나 쥐를 쏘아 맞추고, 조금 크면 여우나 토끼를 쏘아 맞추어서 먹을 것으로 썼다.²⁵⁾ 남자들의 힘은 활[𠄎弓]²⁶⁾을 잘 다룰 수 있어 모두 무장 기병(騎兵)이 되었다.²⁷⁾ 그 습속은 편하면

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토지에서 자라는 풀에 대해서 점유권 분쟁을 일으켰을 뿐이다. 遊牧民들에게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초지만이 중요한 것이었지 그 자체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목지는 어느 한 개인의 사유지적인 성격보다는 유목집단 전체의 공유물이었고, 공유라는 개념도 엄밀히 말하면 ‘限時的인 獨占의 使用權’에 가깝다. 우선적인 사용권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다른 집단이 양해를 얻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소유권의 침해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 이용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나름대로 일정한 목지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金浩東, 1989: 260).

- 23) 『漢書』에는 “無文書”로 되어 있다. ‘無’字는 아래의 다른 용례에서는 ‘毋’字로 되어 있다.
- 24) 匈奴에는 文字가 없었으나, 기호로 서로 의사 전달하는 수단이 있었음을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鹽鐵論』「論功篇」“刻骨卷木, 百官有以相記.”: 357; 『後漢書』「南匈奴列傳」“主斷獄訟, 當決輕重, 口白單于, 無文書簿領.”: 2944). 현재까지 匈奴에서 사용된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漢나라와의 관계에서 외교문서가 작성 교환되는 등의 예로 볼 때 한자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유목군주를 보좌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독자적인 문자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구소련의 구밀료프(Gumiev) 이래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해서 몽골공화국 서북부 예니세이강 가에서 발견된 돌에 새겨진 글자와 기호가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몽골의 도르주스렌(Dorjasuren)은 발굴된 여러 가지의 토기나 중국제 칠기 바닥에 새겨진 기호를 토대로 14개의 匈奴文字가 존재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의 일부가 이후 소위 ‘오르콘 문문자’라고 하는 突厥文字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것은 기호가 갖고 있는 유사성으로 추정되고 또한 발견된 장소가 토기나 칠기라는 점에서 소유자의 서명 정도로 보인다(사와다, 2007: 132~133). 그 외에도 현재까지 몽골 초원 岩刻畫 등에서 발견된 400여 개의 기호 역시 문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연대의 추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匈奴의 문자 존재 여부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田廣金·郭素新, 2005: 483; 馬利清·宋遠茹, 2004: 49~53).
- 25) 『漢書』에는 “肉食”으로 되어 있다.
- 26) 𠄎弓: 𠄎의 음은 ‘관’인데, ‘貫’과 통한다. 이는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된다(『鹽鐵論』「論功篇」“一旦有急, 貫弓上馬而已.”: 356). 여기에서 ‘𠄎’은 ‘彎’의 借字이고, 실제로 『漢書』에는 “彎弓”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활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 발명해 낸 것이다. 두 개의 판을 풀을 먹여 합치거나 혹은 나무로 된 궁체 뒷면에 동물의 힘줄을 팽팽하게 붙여 만든 合成弓이다. 길이가 짧은 短弓의 하나이다. 強化弓의 일종인 合成弓은 탄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 시위를 벗기는 것이 보통이다. 시위를 벗기면 궁체는 시위를 걸었을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휘다. 시위를 걸었을 때나 벗겼을 때도 궁체는 직선이나 반달



〈田弓(彎弓)〉

가축을 따라 다니면서 새나 짐승을 쏘아 잡는²⁸⁾ [사냥을] 생업으로 삼았고,²⁹⁾ 급하면 사람들이 싸워 공격하는 것을 익혀 침공하는 것이 [그들의] 타고난 성품이었다.³⁰⁾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쓰는 무기는³¹⁾ 활과 화살이고,³²⁾ 가까이 떨어져 있을 때 쓰는 무기는 칼³³⁾과

모양으로 되지 않고 彎曲되기 때문에 合成弓을 ‘反曲弓’ 또는 ‘彎弓’이라고 한다. 合成弓은 활 중에서 가장 발달된 구조로서 그 힘이 강력하다. 궁체의 길이가 짧아도 긴 單純弓에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기마민족들은 이 활을 많이 사용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Hildinger, 199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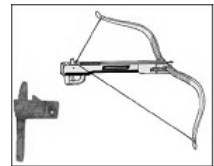
27) 騎兵의 등장은 기원전 2000년경 카스피해 근처에 살던 초원의 주민들이 말을 길들이고 그에 맞는 마구를 개발하여 직접 올라타게 된 이후이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경 스키타이 등이 유라시아초원에서 최초로 유목국가를 건설하면서 이들의 강력한 위력이 증명되었다. 이런 강력한 전투력을 제공하는 유목 기마 기술은 이후 점차 중앙유라시아의 초원을 따라 주변으로 전파되었다. 이로 인해 몽골 초원의 주민들도 말을 잘 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였다. 그들의 중요한 기술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독특한 전술이었다. 이것은 이후에 농경 정주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왜냐하면 초기에 말을 길들이며 원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고도의 숙달된 기술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말이 잘 자랄 수 있는 초원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농경 정주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말을 사용하였지만 말을 길들이고 올라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말에 수레를 달아 사용하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주로 말을 이용한 전차 전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두 세계에서의 말의 상이한 사용이 전력상 큰 차이를 가져왔다.

28) 『漢書』에는 “田獵”으로 되어 있다.

29) “편하면 가축을 따라 다닌”다는 기록은 가축들의 생리적 특성에 맞춰 유목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새나 짐승을 쏘아 잡는 [사냥을]” 한다고 한 것은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생업 수단의 하나가 사냥이었음을 뜻한다. 유목민들은 사냥을 통해 부족한 고기를 보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동물의 가죽과 털을 획득하여 교역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담비털과 같은 모피가 중요한 교역 물품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사냥은 개별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지만 집단적인 물이사냥으로 상시적인 군사훈련을 할 수 있어 유목민들의 전투 능력을 배가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30) 司馬遷이 유목민들의 이러한 행태를 “타고난 성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연적인 행동’이라고 이해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유목민들이 기마공사가 되는 것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중국인과 달리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31) 長兵: 射程거리가 긴 長器인 ‘弓矢’를 말한다. 匈奴의 弓矢는 漢나라에 비해 좋은 것은 아니었다. 漢나라는 활과 비슷하지만 기계적 힘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 쇠뇌(弩)를 가지고 있었다. 쇠뇌는 활과 달리 사용자의 팔 힘에 상관없이 일정한 강도로 발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활은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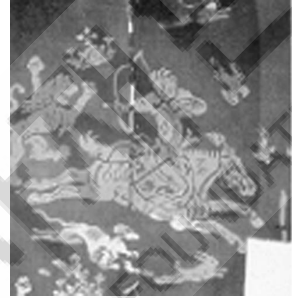


〈漢代の 쇠뇌〉

창(鋌)³⁴⁾이었다. [싸움이] 유리하면 나아가고 불리하면 물러났는데, 달아나는 것을 수치로

쇠뇌는 단기간에 조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따라서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사용하기에는 쇠뇌가 활보다 훨씬 편리하였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장전시간이 오래 걸려 발사속도가 활보다 훨씬 느리다는 점이었다. 이 무기의 장점에 대한 지적은 晁錯의 “勁弩長戟，射疏及遠，則匈奴之弓弗能格也(『漢書』 권49 「晁錯列傳」: 2281).”라는 말에 잘 드러난다.

- 32) 匈奴는 漢나라에 비해 열등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쓰는 활과 화살의 전술적인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匈奴가 주요한 무기인 弓矢를 이용해 輕裝騎兵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목민들이 기동력이 둔한 적을 만났을 때 적을 향해 돌진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이르르면 갑자기 일제히 말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흩어지면서 뒤돌아보듯이 좌후방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쏜 다음에 멀리 도망가는 전술이었다. 기마공사들은 이런 방법을 반복적으로 구사해 적을 어지럽게 한 다음에 격파하였다.



〈파르티아식 기사법의 모습을 보여 주는 비단〉

유목민들이 활 쏘는 모습은 고구려 벽화 무용총 기마 수렵도에서 말을 탄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활을 쏘는 자세와도 같다. 이를 일반적으로 ‘파르티아식 騎射法(Parthian shooting)’이라고 한다. 匈奴 역시 이런 전술에 익숙하였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 위에 탄 상태에서 상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마법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화살을 쏠 때 반동이 적은 ‘側對步(amble)’이다. 側對步는 같은 쪽의 두 다리가 서로 근접하는 일이 없게 앞의 왼발과 뒤의 왼발이 동시에 들리는 주법(走法)이다. 이 방법은 속도를 내면 말의 어깨 쪽이 떠올라 말을 탄 사람이 넘어지기 쉽고 선회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에 쉽게 정지할 수 있고 말을 탈 때 거의 반동을 느끼지 않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기마에 능숙하게 훈련이 된 유목민들은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을 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나라에 비해 장비 및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투와 사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33) 刀: 匈奴에서 사용한 칼은 길이가 길지 않은 소위 ‘아키나케스 단검’이라고 부르는 동검(또는 철검)과 유사하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그리고 스키타이에서 사용한 양날의 칼인데, 騎馬에 편리하게 50cm 이하로 만들었다. 이런 형식의 칼이 점차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기원전 6~3세기 경에 시베리아, 몽골, 화북 지역에 보급되었다. 고고학적인 발굴 자료에 따르면 匈奴時代 칼의 모양은 양쪽에 날을 가진 단검으로 날과 자루가 하나로 주조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칼끝이 상대적으로 좁고 곧은 검코 모양을 띠고 있고 자루 끝이 버섯 모양, 동물 머리 모양, 다양한 고리 형태 등이었다. 단검에 장식된 가하학적 문양과 유사한 것이 칼자루에도 있었다(馬利清, 2005: 77~78). 특히, 이런 단검 ‘徑路刀’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을 추적해 보면 킱록(king luk; 徑路)은 아키나케스(Akinakes)의 약어인 키낙(Kinak)의 전사음으로 볼 수도 있다(內田吟風, 1971: 4).

- 34) 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史記集解』는 “모양이 창과 비슷하나 쇠로 된 자루가 있다(鋌形似矛，鐵柄).”고 하며 『史記索隱』에서는 “작은 창으로 쇠로 된 자루가 있다(小矛鐵矜).”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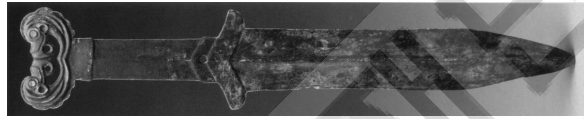
여기지 않았다.³⁵⁾ 오로지 이익이 있는 곳에 있고자 할 뿐 예의를 알지 못하였다.³⁶⁾ 임금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축의 고기를 먹고³⁷⁾ 그 가축과 [털]로 옷을 해 입고 [털을 다진] 모직물과 가축[旃裘]³⁸⁾을 덮었다. 젊은이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늙은이들이



〈흉노의 청동 투구〉



〈흉노의 청동 창〉



〈흉노의 아키나케스형 청동 검〉

- 35) 이것은 앞서 설명한 유목민들의 ‘파르티아식 騎射法’을 사용한 경장기병의 전형적인 전법과 관련이 있다. 중국인에게 낯선 이런 전법의 기록은 이 시대 匈奴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적은 도망함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는 『左傳』의 기록과 비슷한 이 『史記』의 설명은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 명예와 희생정신을 중시하는 중국의 군대는 물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司馬遷만이 아니라 그리스·로마 사가들의 초원 유목민들의 전투 방법에 대한 기록에서도 보인다(디코스모, 2005: 361).
- 36) 몽골의 속담에 “3일을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원에서 유목민들의 삶은 힘들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예의와 같은 것은 따질 수 없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초원의 유목민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런 태도를 司馬遷은 예의를 모른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 37) 食: 匈奴의 음식은 현재 몽골 유목민과 비슷하게 가축의 고기를 위주로 하는 육식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현재 몽골인들의 식생활과 연결시켜 설명해 보면, 육고기는 주로 양고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다. 그 조리 방법은 소금물에 고기를 삶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 외에 소고기나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고기도 먹는다. 또한 장기간의 보존을 위해 생고기를 냉동 건조시켜 저장해 두었다가 이것을 물에 넣어 끓여 먹는 방법 역시 발달하였다(주14) 참조). 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젖 역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식품으로 제작되었다. 젖을 약한 불에 가열해 유지방을 모은 다음 산과 효모 등으로 응고시킨 駝酪이 그것이다. 이 駝酪을 바짝 졸여 직사각형이나 구형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리면 煉乳(固乳)가 된다. 이것은 뺀아서 물에 녹여 먹을 수 있는데 휴대가 간편하여 유목민들에게 좋은 식량이 되었다. 그리고 여름철에 말의 젖을 가축 포대에 넣고 계속 저어 유산분해로 발효시켜 馬乳酒를 만들었다. 또한 이것을 다려 만든 燒酒 형태 등의 주류가 중요한 기호식품으로 음용되었다. 그 외에 일부 정주민들이 경작하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곡물이나 야채 등을 식용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했다.
- 38) 旃: ‘毡’과 같은 의미로, ‘모전[毡]’을 의미하는데, 봄철 털갈이를 하기 전의 양이나 낙타, 염소 등의

그 나머지를 먹었다. 건장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노약자들은 경시하였다.³⁹⁾ 아버가 죽으면 [그를 잇는 아들이] 그 후처를 아내로 맞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 있는 형이나 아우가] 그 아내를 차지하였다.⁴⁰⁾ 그 풍속은 이름이 있어도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며 성(姓)이나 자(字) 같은 것은 없었다.⁴¹⁾

털을 깎아 그것을 짜거나(양탄자) 다져서(펠트) 만들었다. 갓옷[裘]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만든 옷이다.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자신들의 기본적인 의복 이외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귀족층을 중심으로 많은 비단옷이 사용되기도 했다. 몽골 초원지역에서 모직물의 의류와 함께 발굴된 비단 자수로 된 겹옷이 그 증거의 하나이다. 아래에 첨부한 사진은 몽골 노인 올라 유적에서 발견된 흉노시대의 의복들인데, 당시 지배층의 의복 형태를 추정하게 한다(馬利淸, 2005: 88~89).



〈흉노의 비단 長袍〉

〈흉노의 모직 바지〉

〈흉노의 비단 버선과 허리띠〉

〈흉노의 털모자〉

39) 司馬遷은 이와 같이 적고 있으나, 유목민들의 경우에도 노인의 지혜를 그 사회 유지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匈奴의 모습은 실제 핵가족 단위의 생활을 유지하는 유목민들의 습성과도 관련되었다. 왜냐하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유목민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경우 일단 젊은 남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유목적인 지혜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 中行說이 漢나라의 사자와 논쟁을 벌이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주374) 참조).

40) 아버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나 동생이 그 후처를 아내로 맞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 있는 형이나 아우가 그 아내를 차지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嫂婚制’ 또는 ‘兄死取嫂’ 내지는 ‘收繼婚(levirate)’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계를 상속하는 사람이 선대의 아내를 계승함으로써 종족의 혈통이 없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했다. 왜냐하면 異姓 아내의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출신 씨족에게서 얻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나 형의 후처를 아들이나 동생이 다시 취함으로써 혈족의 단결을 유지하고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武沐, 2005: 42).

41) 『漢書』에는 “無字”라고만 하였다. 반면에, 사실 匈奴에 欒鞮氏, 呼衍氏, 須卜氏 등의 氏姓이 있었음은 本傳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성이 없었다는 『史記』의 기록은 착오이거나 아니면 匈奴 이전의 옛 北方民族의 습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夏道衰，而公劉失其稷官，變于西戎，邑于豳。其後三百有餘歲，戎狄攻大王亶父，亶父亡走岐下，而豳人悉從亶父而邑焉，作周。其後百有餘歲，周西伯昌伐畎夷氏。後十有餘年，武王伐紂而營雒邑，復居于豐鄗，放逐戎夷涇·洛之北，以時入貢，命曰「荒服」。其後二百有餘年，周道衰，而穆王伐犬戎，得四白狼四白鹿以歸。自是之後，荒服不至。於是周遂作甫刑之辟。穆王之後二百有餘年，周幽王用寵姬褒姒之故，與申侯有卻。申侯怒而與犬戎共攻殺周幽王于驪山之下，遂取周之焦穫，而居于涇渭之間，侵暴中國。秦襄公救周，於是周平王去豐鄗而東徙雒邑。當是之時，秦襄公伐戎至岐，始列爲諸侯。是後六十有五年，而山戎越燕而伐齊，齊釐公與戰于齊郊。其後四十四年，而山戎伐燕。燕告急于齊，齊桓公北伐山戎，山戎走。其後二十有餘年，而戎狄至洛邑，伐周襄王，襄王奔于鄭之汜邑。初，周襄王欲伐鄭，故娶戎狄女爲后，與戎狄兵共伐鄭。已而黜狄后，狄后怨，而襄王後母曰惠后，有子子帶，欲立之，於是惠后與狄后·子帶爲內應，開戎狄，戎狄以故得入，破逐周襄王，而立子帶爲天子。於是戎狄或居于陸渾，東至於衛，侵盜暴虐中國。中國疾之，故詩人歌之曰「戎狄是應」，「薄伐獫狁，至於大原」，「出與彭彭，城彼朔方。」周襄王既居外四年，乃使使告急于晉。晉文公初立，欲修霸業，乃興師伐逐戎翟，誅子帶，迎內周襄王，居于雒邑。

하(夏)나라의 국운이 쇠락하자 공유(公劉)⁴²⁾가 [대대로 이어 내려온] 직관(稷官)⁴³⁾의 지위를 잃고 서융(西戎)⁴⁴⁾으로 바뀌어⁴⁵⁾ 빈(邠)⁴⁶⁾ 땅에 마을을 만들어 살았다. 그 뒤 300여 년이

42) 公劉: 周의 시조로서 전설상의 인물인 后稷의 증손이라고 한다. 『史記』의 「周本紀」에 따르면, 稷官의 지위를 잃고 “戎狄”의 땅으로 옮긴 것은 公劉의 조부 不窋 때의 일이다(『史記』 권4 「周本紀」: 112).

43) 稷官: ‘稷’은 본래 精米를 뜻하고 ‘稷官’은 농업을 관할하던 관리의 우두머리로 ‘稷正’이라고도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周의 시조 后稷이 唐堯 시기에 이 직임을 맡아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후손들이 그를 이어 관직을 세습하였다고 한다(『史記』 권1 「五帝本紀」: 38).

44) 西戎: 中國 古代 西北에 거주했던 戎狄에 대한 총칭이다. 이들은 주로 지금의 甘肅省과 陝西省 일대에 거주했다.

45) 公劉의 祖父가 稷官의 지위를 잃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주했다. 이것은 公劉가 그 뒤 戎狄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농업 생산을 하여 西戎의 풍속과 습관을 바꾸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公劉가 西戎의 풍속에 따르게 되었다고 보았다(『鹽鐵論』 「和親篇」 “故公劉處西

지나 용적(戎狄)⁴⁷⁾ 대왕단보(大王檀父)⁴⁸⁾ 공격하였다. [대왕]단보가 기[산](岐山)⁴⁹⁾ 기슭으로 달아났는데, 빈 땅의 사람들이 모두 [대왕]단보를 따라와서 [그곳에] 마을을 만들고 주(周)를 세웠다. 그 뒤 백여 년이 지나 주 서백창(西伯昌)⁵⁰⁾이 견이씨(畎夷氏)⁵¹⁾를 정벌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나 [주의] 무왕(武王)⁵²⁾이 [상(商)의] 주왕(紂

戎, 戎狄化之.”: 335).

46) 邠: 음이 빈인데 ‘邠’과 동일하다. 이곳은 지금의 陝西省 旬邑縣과 彬縣 일대이다.

47) 戎狄: 서쪽에 사는 다른 종족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48) 大王檀父: 古公亶父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父’는 ‘甫’와 통한다고 보아 통상 ‘보’로 읽는다. 그는 周의 우두머리로서 周의 전설상 시조로 여겨지는 后稷의 12대손이고, 公劉의 9대손이다. 그가 岐로 도망오자 邠 땅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라와 마을을 만들었다. 그는 文王의 조부로 周 武王 때에 太王으로 추존되었다. 그는 周의 무리를 이끌고 陝下로 옮겨 성곽과 집을 짓고 관리를 두어 戎狄의 풍습을 개혁하였다. 그리고 생산을 늘려 周의 번영을 이룩하였다고 한다(『史記』 권4 「周本紀」: 113~115).

49) 岐山: 지금의 陝西省 岐山縣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50) 西伯昌: 周의 文王 姬昌을 가리킨다. 古公亶父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伯, 虞仲, 季歷이 그들이다. 季歷은 周祀를 이었고, 商王은 그가 西方의 霸王이 되는 것을 인정하여 西伯이라 불리게 되었다. 계력의 아들 昌이 그 뒤를 이어서 西伯昌이라 불리게 되었다(『史記』 권4 「周本紀」: 116).

51) 畎夷氏: 고대 종족 명칭의 하나이다. ‘畎戎’, ‘犬夷’ 또는 ‘昆夷’이라고도 하며, ‘犬戎’으로 통칭된다. 이들은 원래 周나라와 관계가 깊었는데, 周文王이 西戎의 霸者로서 왕조의 기초를 쌓았고, 穆王이 犬戎을 정벌하여 太原으로 쫓은 이래 周나라는 犬戎의 잦은 침략에 시달렸다. 주나라 말기에 幽王이 즉위하여 정치가 문란해지자 전771년 犬戎은 申侯와 연합하여 주를 공격, 유왕을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周나라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 후 犬戎은 涇水·渭水에 진출하여 周나라를 위협하다가 秦의 襄公·文公 시기에 그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는 春秋時代에도 세력을 떨치다가 秦과 匈奴의 힘에 눌려 쇠퇴하였다.

52) 武王: 周 武王 姬發이다. 그는 文王의 둘째 아들로서 형 伯邑考가 商 紂王에게 피살되자 文王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姜太公을 國相에 그대로 연임 시키고, 동생 周公 旦과 召公 奭의 보좌를 받으면서 내정을 더욱 정비하고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또한 文王의 유지를 받들어 商나라 紂王 토벌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2년 후 봄 때가 무르익자 武王은 전차 300대, 무사 3,000명, 병사 45,000명을 직접 이끌고 주변 소국의 병력과 연합하였다. 정월 초하루에 출정식을 갖고 盟津에서 商나라로 공격해 들어갔다. 牧野에서 크게 승리한 후 商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수도를 鎬京(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서남)에 정하고 이름을 宗周라 하였다. 이후 周王室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 친족과 공신들을 책봉하고 그들에게 諸侯國을 세우도록 했다. 이에 姜太公을 營丘(지금의 山東省 淄博市)의 齊나라에, 周公 旦을 曲阜(지금의 山東省 曲阜縣)의 魯나라에, 召公 奭을 薊丘(지금의 北京)의 燕나라에 각각 분봉하였다. 그리고 商나라의 잔여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紂王의 아들 武庚을 殷侯에 봉하여 殷의 도성에 살게 하고, 형제 管叔鮮, 蔡叔度, 霍叔處를 三監으로 파견해 그를 감시하게 하였다. 周나라가 건국된 지 3년째

王)⁵³⁾을 치고 난 다음 낙읍(雒邑)⁵⁴⁾을 만들었고, 다시 풍호(酈鄘)⁵⁵⁾ 땅으로 [되돌아와] 살며 용이를 경수(溇水)와 낙수(洛水)⁵⁶⁾ 이북으로 내쫓으니 [용이가 이로부터] 철따라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황복(荒服)⁵⁷⁾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 뒤 이백여

되던 해에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鎬京에서 병사하였다. 그가 죽은 후에 시호를 武王이라 하였다(『史記』 권4 「周本紀」: 12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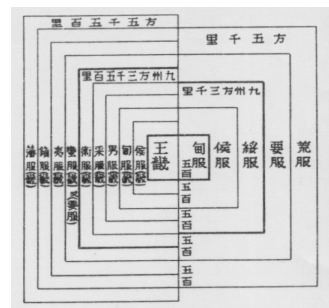
53) 紂王: 商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姓이 子이고, 이름은 辛이다. 帝乙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었다. 신체가 장대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총명하고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애첩 妲己와 황음무도한 짓을 일삼아 夏의 마지막 왕 桀과 함께 폭군의 전형이 되었다. 술로 가득 채운 연못(酒池) 주변의 나무를 비단으로 휘감은 뒤 고기를 매달아 놓고(肉林), 妲己와 함께 배를 타고 노닐면서 손이 가는 대로 고기를 따서 먹었다고 한다. 또 학정을 그치도록 간언하는 신하들로 하여금 기름을 발라 숯불 위에 걸쳐 놓은 구리기둥 위를 걷게 하는 炮烙之刑을 내려 미끄러져서 타 죽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였다. 7년에 걸쳐 거대한 호화궁전 鹿臺를 짓느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였다. 마침내 諸侯들의 맹주격인 姬發의 공격을 받아 패배한 뒤 紂王은 鹿臺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고 전한다(『史記』 권3 「殷本紀」: 105~110).

54) 雒邑: 洛邑이며, 지금의 河南省 洛陽시에 해당한다. 周 武王이 죽은 뒤 나이 어린 成王이 제위에 오른 이후 攝政이 된 周公이 河南省 洛陽 부근인 洛邑(또는 成周)에 성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당시 商의 대표자인 武庚과 祿父, 그리고 周公의 동생 管叔·蔡叔 등이 東夷와 결탁하여 대반란을 일으키자 召公과 협력하여 이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 동방에 대한 지배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었다. 이곳은 이후 西周가 몰락하고 東周시대가 되면서 천하의 중심이 되었다.

55) 酈鄘: ‘酈京’ 또는 ‘京’이라고도 지칭되는데, 西周시대의 수도였다. 周 文王이 溇水 西岸에 酈邑(지금의 陝西省 長安縣 서북쪽 溇水 西岸 馬王村, 西王村 일대)을 건립하고 수도로 삼았다. 周 武王은 商나라를 멸한 후에 鄘(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서쪽)에 수도를 세웠다.

56) 溇水·洛水: 모두 陝西省 경내 渭河 西岸의 양대 지류이다. 溇河는 서쪽에, 洛河(지금의 北洛河)는 동쪽에 위치한다.

57) 荒服: 중국 고래의 관념적 지역구분의 하나로, 邊疆의 외진 지역이면 서도 능히 帝王에게 복종할 수 있는 땅을 뜻한다. 이것은 王畿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五服’을 둔 제도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周대에 每 500리를 1服이라고 하고, 그 순서는 侯服, 甸服, 男服, 采服, 衛服, 蠻服, 夷服이었다. 대체적으로 荒服은 王畿로부터 2500리(일설에는 4500리에서 5000리라고도 한다.) 밖의 지역으로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질적인 종족이나 국가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周禮』 「夏官·職方氏」에서는 中國의 구역을 首都로부터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이를 ‘九服’이라 했다. 그중에서 蠻服은 天子의 京畿로부터 4500리 떨어져 있는 여섯 번째 구역, 즉 夷보다 앞에 있는



〈五服과 九服 比較圖〉

년이 지나⁵⁸⁾ 주나라의 국운이 쇠약해졌으나 목왕(穆王)⁵⁹⁾이 견용(犬戎)을 쳐서 네 마리의 흰 이리[狼]와 네 마리의 흰 사슴[鹿]을 잡아 가지고 돌아왔다.⁶⁰⁾ 이때부터 그 이후에 황복에서 [조공을 하러] 오지 않았다. 이에 주나라에서는 마침내 보형(甫刑)⁶¹⁾이라는 법[辟]을 만들었다. 목왕 이후 이백여 년이 지나⁶²⁾ 주나라 유왕(幽王)⁶³⁾이 포사(褒姒)⁶⁴⁾라는 총희(寵姬)로

지역에 거주하여 다른 민족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 역시 동심원으로 형성된 中國의 지리 체계 내에 포함되기는 하나 정치적·도덕적 권위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리적 범주를 의미하였다(주10) 참조).

58) 周 武王이 商을 무너뜨린 시점부터 周 穆王시대까지의 시차는 200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其後二百有餘年”이라고 한 것에서 ‘二’는 ‘一’의 착오로 보인다.

59) 穆王: 이름이 姬滿으로 西周 5대 군주이다. 昭王의 아들로 기원전 10세기경 사람으로 50세 때 즉위하여 55년간 재위하였다고 한다(『史記』 권4 「周本紀」: 134). 西方의 犬戎을 토벌하려다가 실패하여 諸侯의 離反을 초래하였다. 이때부터 周나라의 덕이 쇠퇴하였다고 한다. 한편, 金文銘으로 보아 昭王·穆王시대에 법제가 정비되고 姬姓의 나라가 증가하여 영토가 확장되고 주나라 국력이 확충되었다는 견해도 있다(『史記』 권4 「周本紀」: 135~136). 현존하는 『穆天子傳』은 穆王의 西遊 이야기인데, 후세의 僞書로 여겨지고 있다.

60) 이 說話는 말 그대로 犬戎의 수렵지로 들어가 진귀한 짐승을 사냥하였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이리와 사슴을 토렘으로 하는 部族들을 征伐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리와 사슴 등과 같은 神話素가 북아시아 신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烏孫·高車·突厥·蒙古 신화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북아시아 신화를 통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몽골의 건국신화에서도 젓빛 이리와 하얀 사슴이 결합해서 건국자 칭기스 칸의 조상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原山燿, 1995: 46~47). 이런 점에서 볼 때 周대에 犬戎으로 표현된 다른 종족들과 후대 북방의 여러 유목민족들이 계통적인 연결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史記』 권4 「周本紀」: 136).

61) 甫刑: 甫侯가 穆王의 명을 받아 만든 刑法이다. 『漢書』에는 “呂刑”으로 되어 있다. 『尙書』의 「呂刑」 篇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史記』 권4 「周本紀」: 138~139). 穆王은 外征 뒤 諸侯와 外蕃들 중에 周나라를 따르지 않는 이가 생기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새로 贖法을 제정한 甫刑(呂刑)을 발표하여 조정의 권위를 높이고 財政을 확보하려고 했다.

62) 『漢書』에는 穆王 이후 懿王에 이르는 시기 왕실의 쇠퇴와 이민족의 침입으로 나라가 혼란하였다가 宣王시기 원정을 통해 이민족들을 복속시키고 나라를 중흥시키게 된 내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史記』와 다르므로 이를 보충해 보면 아래와 같다.

“穆王의 孫子인 懿王의 시대에 王室이 마침내 쇠퇴하게 되어 戎狄가 침입하여 中國을 괴롭혔다. 中國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자 시인들이 비로소 그것을 아파하면서 노래를 했다. ‘처도 없고 가장도 없게 된 것은 獫狁 때문이다.’, ‘어찌 하루도 경계하지 않겠는가! 獫狁의 [침입이] 급격한데.’ 懿王의 曾孫인 宣王시대가 되어 군대를 일으키고 장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정벌하게 하니 詩인들이 그 공을 크게 찬미하여

인해 신후(申侯)⁶⁵와 틈이 생기게 되었다. 신후는 화가 나서 견융과 함께 쳐들어와 주나라 유왕을 여산(驪山)⁶⁶ 기슭에서 죽이니 [견융이] 마침내 주나라의 초확(焦穫)⁶⁷을 얻어 경수(涇水)와 위수(渭水)⁶⁸ 사이에 머물러 살면서 중국을 침범하고 약탈할 수 있었다.

[한편] 진(秦)나라 양공(襄公)⁶⁹이 주나라를 구원하였으므로 이에 주나라 평왕(平王)⁷⁰이 풍호를 떠나 동쪽 낙읍으로 옮겨 갔다. 이때에⁷¹ 진나라 양공이 [견]융을 쳐서 기[산]까지 가게 되어 비로소 제후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⁷² 이후 65년이 지나⁷³ 산융⁷⁴이 연(燕)⁷⁵나

노래하였다. ‘獫狁을 몰아내고 太原에 이르렀네.’ ‘떠나가는 전차가 아주 가득하고’, ‘북녘 땅에 성을 쌓았도다.’ 이때 四夷들이 모두 복속하게 되니 中興이라 칭하였다.”(“至穆王之孫懿王時，王室遂衰，戎狄交侵，暴虐中國。中國被其苦，詩人始作，疾而歌之，曰‘靡室靡家，獫狁之故’‘豈不日戒，獫狁孔棘’至懿王曾孫宣王，興師命將以征伐之，詩人美大其功，曰‘薄伐獫狁，至於太原’‘出車彭彭’，‘城彼朔方’。是時四夷賓服，稱爲中興。”：3744).

63) 幽王(재위 전781~전771): 이름이 姬宮涅이다. 宣王의 아들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寵姬 褒姒를 웃기기 위하여 가끔 거짓 烽火를 올리게 하여 諸侯들을 모이도록 하였다. 때문에 犬戎이 침공하였을 때 봉화를 올렸으나 諸侯들이 응하지 않아 驪山 기슭에서 패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사후 아들 平王이 수도를 洛陽으로 옮겨 西周時代는 끝났다(『史記』 권4 「周本紀」: 145).

64) 褒姒: ‘褒’는 나라이름이고, ‘姒’는 姓이다.

65) 申侯: 西周 말기 申의 諸侯로서 幽王의 후 申氏의 아버지이다. 幽王이 褒姒를 총애하여 申后와 태자 宜臼를 폐하자, 申侯가 犬戎과 연합하여 幽王을 살해하고 宜臼를 平王으로 옹립하였다(『史記』 권4 「周本紀」: 147~149). 申侯의 封邑은 申城으로 지금 河南 南陽市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漢書』에서는 “與申侯有隙”이라고 했는데, ‘卻’과 ‘隙’은 통한다.

66) 驪山: 지금의 陝西省 臨潼縣 동남쪽에 있다.

67) 焦穫: 지금의 陝西省 涇陽縣 서북쪽에 있다. 『漢書』에는 “鹵獲”으로 되어 있는데, 『漢書』에서는 ‘노획하다’는 의미로 보았다.

68) 渭水: 甘肅省 渭源縣에서 발원하여 陝西省 중부를 지나가는 黃河의 支流이다. 지금의 西安과 咸陽을 가로지른다.

69) 秦 襄公: 秦나라의 開國始祖로 周 平王을 도와 동천하는 데 공을 세웠고, 이로 말미암아 諸侯로 책봉되었다(『史記』 권5 「秦本紀」: 178~195).

70) 平王(재위 전770~전720): 幽王의 아들로 이름은 姬宜臼이다. 어머니는 申侯의 딸인 申后이다. 처음에 태자에서 폐위되었다가 幽王의 사후 다시 복위하였다. 西方의 異民族이 강성해져 周나라 영토를 침공하자 鎬京을 버리고 동쪽의 洛邑으로 도읍을 옮긴(전770) 다음 洛邑에서 즉위하여 전 720년까지 재위하였다. 그가 東遷한 이후의 시대를 일반적으로 ‘春秋時代’라고 한다(『史記』 권4 「周本紀」: 149~150). (주 63), 주65) 참조)

71) 周 桓王 14년(전706)의 일이다(『史記』 권4 「周本紀」: 150).

라를 넘어 제(齊)⁷⁶나라를 공격하니 제나라 희공(釐公)⁷⁷이 [산융과] 제나라의 국경에서 싸웠다. 이후 44년이 지나⁷⁸ 산융이 연나라를 쳤다. 연나라는 위급함을 제나라에 알렸고, 제나라 환공(桓公)⁷⁹이 북쪽으로 산융을 공격하니 산융이 도망갔다.

72) 秦 襄公이 周를 구한 공이 있어 平王이 東遷한 다음에 그의 故地인 酈鄗를 秦襄公에게 주었다. 이때가 襄公 7년(전771)이다.

73) 東周가 건국된 뒤 65년이 지난 전 706년의 일이었다.

74) 『史記索隱』에 따르면 山戎을 후한 시기 東胡의 別種인 鮮卑라고 했다. 鮮卑는 秦나라 때 長成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로 長城 밖으로 도망쳐 鮮卑山에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주6) 참조)

山戎은 기원전 8세기 이후 燕나라가 遼寧지역으로 계속 진출하자 遼西에 거주하던 여러 종족들이 이에 맞서 燕나라와 山東半島 일대까지 침입하면서 확인되기 시작했다. 山戎은 주로 燕나라의 북쪽, 즉 지금의 遼西지역 내지는 內蒙古 등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기초로 문헌에 등장하는 여러 종족의 문화적인 특징을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山戎의 주요 거주지인 遼西지역 청동기문화의 주인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田廣金, 2005: 365~369). 특히, 遼西地域 青銅器文化, 즉 夏家店上層文化와 大凌河 동쪽에 분포하는 遼寧式 銅劍文化를 어느 집단의 문화로 보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遼西地域의 青銅器文化 담당자를 古朝鮮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東胡나 山戎이냐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이다(송호정, 2003: 100).

75) 燕: 武王의 동생인 召公 奭에게 봉해된 나라이다. 河北省으로부터 점차 동북쪽으로 발전하여 戰國時代에 七雄의 하나가 되었다. 지금의 河北省 북부와 遼寧省 서쪽에 위치하였다. 이후 전222년에 秦나라에 병합되었다.

76) 齊: 전1123년경 周나라 武王이 太公望에게 봉해 준 나라이다. 지금의 山東省 북부와 동부에 위치하였다. 齊나라의 영역은 산이나 바다의 물산이 풍부하고 도읍지인 臨淄(지금의 濟南 부근)는 커다란 상업도시로 번창하였다. 春秋 初期에 桓公이 管仲의 내정개혁 정책에 힘입어 국력을 키워서 霸主가 될 수 있었다. 靈公 때에는 萊를 멸망시켜 나라를 山東省 동부까지 확장하는 등 크게 발전하였다.

77) 齊 釐公(재위 전730~전698): 이름이 姜祿甫이다. 여기에서 ‘釐’는 통상 ‘禧’와 통한다고 보아서 ‘희’로 읽는다(『史記』 권32 「齊太公世家」: 1482~1483).

78) 『左傳』에 의하면, 魯 莊公 30년(전664)에 齊가 燕을 괴롭히던 山戎을 쳤다. 따라서 이해는 앞서 설명한 山戎이 齊나라를 공격한 시점(전706년)으로부터 43년 뒤의 일이다.

79) 齊 桓公(재위 전685~전643): 이름은 姜小白으로, 春秋五霸의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내란으로 형 襄公이 살해된 후, 이복동생 糾를 몰아내고 즉위하였다. 鮑叔牙의 진언으로 糾의 옛 신하인 管仲을 재상으로 기용하였다. 그 후 管仲의 협력으로 諸侯와 종종 會盟하여 신뢰를 얻었다. 특히 葵丘에서의 회맹으로 霸者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었다. 또 山戎을 쳐서 燕나라를 구하고, 魯의 내란 평정에 힘을 기울였다. 다른 종족의 침입으로 멸망한 邢을 夷儀로, 衛를 楚丘로 옮겨 부흥시켰다. 內政에서는 군사적 강화와 상업·수공업의 육성으로 나라를 튼튼히 하였다. 만년에 管仲의 유언을 무시하고 전에 추방한

이후 20여 년이 지나 용적(戎狄)⁸⁰이 낙읍까지 와서 주나라 양왕⁸¹을 치니⁸², 양왕이 정(鄭)⁸³나라의 범읍(汎邑)⁸⁴으로 달아났다. 일찍이 주나라 양왕이 정나라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적 [추장의] 딸을 왕후로 맞아들여⁸⁵ [용]적의 군사와 함께 정나라를 쳤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양왕이 적후(狄后)를 멀리하게 되자 적후가 왕을 원망하게 되었다.⁸⁶ 그런데 양왕의 계모 혜후(惠后)에게는 자대(子帶)라는 아들이 있어 그를 [천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혜후가 적후, 자대와 함께 [몰래 용적과] 내통해 용적에게 [성문을] 열어주니 용적은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결국 양왕을 격파해 내쫓은 다음에 자대를 천자로 삼았다. 이로 인해 용적이 더러 육훈(陸渾)⁸⁷에 살게 되면서 동쪽으로는 위(衛)⁸⁸나라에까지 이르러 중국을 침입해 약탈하며 포학을 일삼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그것을]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시인들은 [그들에 대해] “용적을 이에 응징하였네.”⁸⁹ “험운을 쳐부수어 대원(太原)⁹⁰

신하를 다시 등용하였으나 그들에게 권력을 빼앗겼다. 그가 죽은 후 내란이 일어나 국력이 약화되었다(『史記』 권32 「齊太公世家」: 1486~1494).

- 80) 『漢書』에는 “戎翟”으로 되어 있다. ‘狄’과 ‘翟’은 서로 통용하면서 쓴다.
- 81) 周 襄王(재위 전651~전619): 이름이 姬鄭이었다(『史記』 권4 「周本紀」: 152~154).
- 82) 周 襄王 16년(전636)의 일이다.
- 83) 鄭: 전806년 周나라 宣王의 아우 桓公이 세운 周나라의 封國이다. 처음 鄭(지금의 陝西省 華縣 동쪽)에 있다가 이후에 河南省 新鄭縣으로 옮겨 발전했다. 전375년 韓나라 哀侯에게 망하였다.
- 84) 汎邑: 지명으로 지금의 河南省 襄城縣에 있었다.
- 85) 周 襄王 15년(전637)의 일이다.
- 86) 周 襄王 16년(전636)의 일이다.
- 87) 陸渾: 지명으로 지금의 河南省 嵩縣 서남쪽에 있었다.
- 88) 衛: 周나라에서 商나라의 유민을 다스리기 위해 周公의 아우 康叔을 商나라의 옛 도읍 朝歌에 봉해 준 나라이다. 西周 말년, 제8대 頃侯 때 최성기를 맞이하였다. 周나라의 幽王이 살해되었을 때에 제11대 武公이 周나라 왕실을 도와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春秋時代에 이르러서는 齊, 晉, 宋, 魯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점차 쇠퇴하였다. 전600년에는 狄의 침략을 받아 한때 국토를 잃기도 하였다. 교통의 요지를 점유하고 있어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戰國時代에는 秦과 魏 사이에 끼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전209년 제46대 君角 때 秦나라의 2世 皇帝에게 병합되었다. 지금의 河南省 북부에 있었다.
- 89) 魯 僖公(재위 전659~627)이 ‘周公之字’를 修復한 것을 칭송한 『詩經』 「魯頌 閟宮」에서는 “公車千乘, 朱英綠蔭, 二矛重弓. 公徒三萬, 貝冑朱紱. 烝徒增增, 戎狄是應, 荊舒是懲, 則莫我敢承. 俾爾昌而熾, 俾爾壽而富, 黃髮台背, 壽胥與試. 俾爾昌而大, 俾爾耆而艾, 萬有千歲, 眉壽無有害.”라고 하였다.
- 90) 『漢書』에는 “太原”으로 되어 있다.

에 이르렀네.”⁹¹⁾ “떠나는 수레[戰車]가 [길에] 가득하고, 저 북녘땅[朔方]⁹²⁾에 성을 쌓았다.”⁹³⁾라고 노래를 불렀다.⁹⁴⁾ 주나라 양왕은 도성 밖에서 4년이나 살다가,⁹⁵⁾ 사신을 진(晉)⁹⁶⁾ 나라에 보내 위급함을 알렸다. [당시] 진(晉)나라 문공(文公)⁹⁷⁾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패업(霸業)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용적(戎翟)을 쳐서 내쫓은 다음 자대를 죽이고 양왕을 맞아들여⁹⁸⁾ 낙읍에 살게 하였다.

當是之時，秦晉爲疆國。晉文公攘戎翟，居于河西園·洛之間，號曰赤翟·白翟。秦穆公得由余，西戎八國服於秦，故自隴以西有緄諸·緄戎·翟獫之戎，岐·梁山·涇·漆之北有義渠·大荔·烏氏·胸衍之戎。而晉北有林胡·樓煩之戎，燕北有東胡·山戎。各分散居谿谷，自有君長，往往而聚者百有餘戎，然莫能相一。

이 무렵 진(秦)나라와 진(晉)나라가 강한 나라였다.⁹⁹⁾ 진나라의 문공은 용적을 몰아내 [그 들을] 하서(河西)¹⁰⁰⁾의 은수(圃水)¹⁰¹⁾와 낙수¹⁰²⁾ 사이에 살게 하고 적적(赤翟)¹⁰³⁾, 백적(白

91) 『詩經』「小雅 六月」에서 “戎車旣安，如輕如軒。四牡旣佺，旣佺且閑。薄伐玁狁，至于大原。文武吉甫，萬邦爲憲。”라고 하였다.

92) 朔方: 북녘 땅을 의미한다. 이곳은 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靈武縣 일대이다.

93) 『詩經』「小雅 出車」에서 “王命南仲，往城于方。出車彭彭，旂旐中央。天子命我，城彼朔方。赫赫南仲，玁狁于襄。”라고 하였다.

94) 주62) 참조.

95) 周 襄王이 都城 밖에서 산 것은 사실 단지 1년뿐이다. 즉위 16년(전636)에 나와 鄭에 머물다 17년(전635) 삼월 都城으로 돌아와 복위하였다.

96) 晉: 周나라의 封國으로 春秋時代에 文公이 楚나라를 격파하고 周나라를 도와 패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전453년에 韓, 魏, 趙의 세 나라로 분리되었다. 지금의 山西省 지역에 있었다.

97) 晉 文公(재위 전636~전628): 이름은 姬重耳인데, 春秋五霸의 두 번째 인물로 이름이 높다(『史記』권5 「秦本紀」: 190).

98) ‘內’는 ‘納’과 통하는데, 晉 文公이 襄王을 맞아들인 것은 文公 2년(전635) 삼월이었다.

99) 기원전 7세기 秦 穆公(재위 전659~전621) 任好와 晉 文公(재위 전636~전628) 重耳가 霸者로서 列國 중에서 강국의 지위에 올랐던 사실을 말한다. ‘疆’은 ‘強’과 통하는데, 아래의 다른 용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0) 河西: 지금의 陝西省 동부 黃河 남단과 그 西岸 지역이다. 『漢書』에는 “西河”로 되어 있다.

翟¹⁰⁴⁾이라 불렀다. [또], 진(秦)나라의 목공(穆公)은 유여(由余)¹⁰⁵⁾를 얻어 서융의 여덟 개 나라¹⁰⁶⁾가 진나라에 복속되게 했다. 따라서 농[산(隴山)¹⁰⁷⁾의 서쪽에 면저(縣諸),¹⁰⁸⁾ 곤융(緄戎),¹⁰⁹⁾ 적환(翟獯)¹¹⁰⁾ 등의 용이 있었고, 기산, 양산(梁山),¹¹¹⁾ 경수, 칠수(漆水)¹¹²⁾ 이북에는 의거(義渠),¹¹³⁾ 대려(大荔),¹¹⁴⁾ 오지(烏氏),¹¹⁵⁾ 후연(胸衍)¹¹⁶⁾ 등의 용이 있었다. 그리고 진(晉)

101) 圃水: 秃尾河라고도 한다. 지금 陝西省 북부의 榆林과 葭縣의 경계에 있다. 『漢書』에는 “居於西河園·洛之間”이라고 되어 있다.

102) 洛水: 지금의 北洛河로 陝西省 북부에서 발원하여 吳旗·延安縣 경계를 따라 흐른다.

103) 赤翟: 고대 종족 명칭으로 ‘赤狄’이라고도 한다. 春秋時代 狄人의 하나이다. 그들의 분포지역은 대체적으로 지금의 山西省 長治縣 북부에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쫓나라 사람과 섞여 살았다. 그들이 붉은 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기원전 6세기경에 쫓나라에 복속되었다. 이들과 관련하여 『左傳』 宣公 16年조에 “晉師滅赤狄潞氏”라는 기록이 있다. 과거에 赤翟이 山西省 長治縣에 거주하였는데, 本文에서는 赤翟이 河西의 圃·洛之間에 거주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杜預는 ‘潞’를 赤翟의 다른 종류로 보았다.

104) 白翟: 고대 종족 명칭으로 ‘白狄’이라고도 한다. 春秋時代 狄人의 하나이다. 지금의 山西省 介休縣과 陝西省 延安市 경계지대에 거주했다가 이후에 河北省 경계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하얀 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기원전 6세기경에 쫓나라에 복속되었다. 隗姓으로 春秋時代에 쫓나라와 通婚하였다.

105) 由余: 春秋時代 秦나라의 大夫인데, 그의 조상은 원래 秦나라 사람으로 戎의 땅으로 흘러들어갔다. 이후에 戎의 왕이 秦나라의 상황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秦나라에 투항하였다. 이후 秦나라는 由余의 策略을 이용하여 西戎의 8개 부락을 정복하고 땅을 천여 리 넓혀 일약 패자가 될 수 있었다(『史記』 권5 「秦本紀」: 192~195).

106) 『鹽鐵論』 「論勇篇」에도 이때 정복한 나라를 여덟 개라고 하였다. 하지만 『史記』 「秦本紀」, 『韓詩外傳』, 『韓非子』 「十過篇」, 『說苑』 「反質篇」, 『金樓子』 「說蕃篇」 등에서는 모두 열두 개 나라라고 하였고, 『漢書』 「韓安國傳」에서는 열 개 나라라고 하는 등 차이가 있다.

107) 隴山: 지금의 六盤山 남단으로 陝西省, 甘肅省 경계에 위치한 산 명칭이다.

108) 縣諸: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현재의 甘肅省 通渭縣의 서북에 거주했다.

109) 緄戎: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緄戎의 ‘緄’은 ‘混’이 되어야 한다. 『漢書』에는 “吠夷”로 되어 있다. 그들은 지금의 甘肅省 天水縣에 거주했다. 緄戎은 『春秋』에는 “犬戎”으로 되어 있다.

110) 翟獯: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로 음은 ‘적환’이다. 지금의 甘肅省 通渭縣 부근에 거주했다. 『史記』의 저본에서는 “翟獯”을 ‘翟’과 ‘獯’으로 끊었으나 『漢書』에는 이를 “狄獯”으로 묶어 기록하였고, 여기에서는 이에 따랐다.

111) 梁山: 지금의 陝西省 韓城縣 서북쪽에 위치한 산 명칭이다. 『漢書』에는 “梁”으로 되어 있다.

112) 漆水: 지금의 陝西省 舊同官縣에서 시작해 西南으로 耀州로 흘러들어가는 강의 명칭이다. 沮水와 합쳐 石州河가 되었다가 南으로 흘러가 渭水와 합류한다.

나라의 북쪽에 임호(林胡),¹¹⁷⁾ 누번(樓煩)¹¹⁸⁾ 등의 용이 있었으며, 연나라의 북쪽에 동호(東胡),¹¹⁹⁾ 산융 등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 계곡에 흩어져 살면서 나름의 군장(君長)이 있어 가끔씩 무리를 이룬 것이 백여 개의 용(戎)¹²⁰⁾이었는데, 서로 하나로 [묶이지는] 않았다.

113) 義渠: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이들은 원래 北地郡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甘肅省 東南部和 寧夏回族自治區 南部 일대이다. 前漢시대의 名將 公孫昆邪, 公孫賀, 公孫敖 등이 모두 義渠 출신의 사람들이다.

114) 大荔: 고대 종족 명칭으로 西戎의 하나이다. 이후에 명칭을 ‘臨晉’으로 바꾸었고, 馮翊에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陝西省 大荔縣 지역이다.

115) 烏氏: 고대 종족 명칭이며 西戎의 하나로 음은 ‘오지’이다. 이들은 涇州 安定縣 동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甘肅省 涇川縣이다.

116) 胸衍: 고대 종족의 명칭이며 西戎의 하나로 음은 ‘후연’ 또는 ‘유연’이라고 읽을 수 있다. 鹽州(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鹽池縣) 부근에 있었다.

117) 林胡: 고대 종족 명칭으로 ‘林人’, ‘儋林’이라고도 한다. 樓煩, 東胡와 함께 ‘三胡’라고 지칭된다. 戰國時代 지금의 山西省 朔縣에 거주했다. 목축과 수렵에 종사하였고, 말 키우는 데 능숙했다. 기원전 7세기 중반 췌나라의 북변에 거주하고 있었다. 기원전 5~3세기에 燕나라의 북변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췌나라의 북변으로 이주했다. 趙나라의 肅侯(재위 전349~전326)가 군대를 보내 荏(山西省 북부)에서 대패시켰고, 武靈王이 전306년에 대패하자 그에 복속되어 공물을 바쳤다. 趙나라 孝成王(재위 전265~전244)이 李牧을 시켜 匈奴 십여 만 기를 격파할 때 이들 역시 완전히 복속되었다. 그 이후 이들은 소멸되었다. (林幹, 2003: 45~46).

118) 樓煩: 고대 종족 명칭으로 林胡의 서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春秋末에 주로 山西省 靈武縣, 崑崙縣 등지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騎射에 능숙하고 목축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陝北과 內蒙古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다가 秦나라 말기 匈奴에게 정복되었다. 이후에 지금의 內蒙古 오르도스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漢武帝 元朔 2년(전127)에 衛青이 이들을 격파하였다. 이런 종족명칭의 해석과 달리 『史記索隱』에서는 이것을 縣의 명칭으로 해석하고 있다. 縣으로서의 樓煩은 원래 異民族의 땅으로 漢代에는 雁門郡에 속했다. 이곳은 지금의 山西省 神池, 五寨 등지에 해당한다. (林幹, 2003: 46~47).

119) 東胡: 고대 종족 명칭이다. 匈奴의 동쪽에 거주했기 때문에 東胡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長成 동북의 광활한 범위에 걸쳐 살았고, 목축업에 주로 종사하였다. 春秋戰國시대에는 남으로 燕나라와 접했다. 燕나라에게 패배해 북쪽의 遼河 상류지역으로 이주했다. 秦나라 말기에 東胡가 다시 강해졌지만 匈奴의 冒頓單于에게 패배하여 대부분이 그에 병합되었다. 이들은 이후에 등장하는 烏丸과 鮮卑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그들의 습속은 水草를 따라 다니고 고정적인 주거가 없었다. 아버의 이름을 성으로 삼았고, 부자 남녀가 모두 머리를 깎아서 가볍고 편안했다. (林幹, 1995: 9~23).

120) 戎: 일반적으로 중국 자료에서는 好戰의인 異民族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데, 그 용례는 아주 다양하다. 그 의미는 ‘尙武의인’, ‘軍隊의’, ‘戰爭’, ‘武器’ 등과 관련이 있다. 『左傳』에서도 戎은 “御戎(전차를 몰다)”, “戎車(전차)”와 같은 구절에서 戰車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西周時代에는 이 단어가 ‘오랑캐 또는

自是之後百有餘年，晉悼公使魏絳和戎翟，戎翟朝晉。後百有餘年，趙襄子踰句注而破并代以臨胡貉。其後既與韓魏共滅智伯，分晉地而有之，則趙有代·句注之北，魏有河西·上郡，以與戎界邊。其後義渠之戎築城郭以自守，而秦稍蠶食，至於惠王，遂拔義渠二十五城。惠王擊魏，魏盡入西河及上郡于秦。秦昭王時，義渠戎王與宣太后亂，有二子。宣太后詐而殺義渠戎王於甘泉，遂起兵伐殘義渠。於是秦有隴西·北地·上郡，築長城以拒胡。而趙武靈王亦變俗胡服，習騎射，北破林胡·樓煩。築長城，自代並陰山下，至高闕爲塞。而置雲中·鴈門·代郡。其後燕有賢將秦開，爲質於胡，胡甚信之。歸而襲破走東胡，東胡卻千餘里。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開之孫也。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當是之時，冠帶戰國七，而三國邊於匈奴。其後趙將李牧時，匈奴不敢入趙邊。後秦滅六國，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北擊胡，悉收河南地。因河爲塞，築四十四縣城臨河，徙適戍以充之。而通直道，自九原至雲陽，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起臨洮至遼東萬餘里。又度河據陽山北假中。

그 이후로 백여 년이 지나¹²¹⁾ 진(晉)나라의 도공(悼公)¹²²⁾이 위강(魏絳)¹²³⁾을 사신으로 보내어 용적과 화친하자 용적[의 군장]이 진(晉)나라에 입조했다. 그 후 백여 년이 지나¹²⁴⁾ 조양자(趙襄子)¹²⁵⁾가 구주[산](句注山)¹²⁶⁾을 넘어 대(代)¹²⁷⁾[의 땅]을 격파하여 병합해서¹²⁸⁾

異民族'이라기보다는 '敵對國'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1) 秦이 西戎을 차지하게 된 것은 穆公 37년(전623)이었다. 그리고 魏絳이 화친 사절로 戎에 간 것이 晉 悼公 4년(전569)이니 약 앞뒤로 대략 54년 정도이다. 따라서 백여 년이라고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122) 晉 悼公(재위 전572~전558): 이름은 周이고 襄公의 손자이다.

123) 魏絳: 魏의 長子로 晉나라의 大夫이다.

124) 여기에서 '백여 년'이라고 한 것은 魏絳이 晉 悼公 4년(전569)에 戎에 사신으로 가서 그와 화친한 이후 晉 出公 18년(전457) 趙襄子가 代를 격파할 때까지 약 117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125) 趙襄子: 이름은 趙毋恤로, 晉나라의 執政大臣이었다. 趙簡子의 아들이다. 韓, 魏의 두 집안과 함께 智伯을 무찌르고 부단히 봉읍을 확장시켰다(주134) 참조.

126) 句注山: 雁門에 있는 산 명칭이다. '陁嶺' 또는 '西陁山'이라고도 불리는데, 古代 9塞 중의 하나이다. 山西省 代縣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호(胡)¹²⁹와 맥(貉)¹³⁰과 맞붙게 되었다. 그 이후 [조양자가] 이미¹³¹ 한(韓)¹³²나라, 위(魏)¹³³나라와 함께 지백(智伯)¹³⁴을 멸망시키고 진나라 땅을 나누어 갖게 되니¹³⁵ 조(趙)나라

127) 代: 나라 명칭으로 지금의 內蒙古 自治區 興和와 山西省 靈丘, 그리고 河北省 懷安과 涿源 지역에 걸쳐 있었다.

128) 并을 동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로 이해하여 나라 명칭으로 해석할 경우 이곳은 지금의 內蒙古와 山西省 北部, 그리고 河北 일대이다. 『漢書』에는 없다.

129) 胡: 일반적으로 匈奴 이전에는 북방의 異民族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범용되었다. 이후 匈奴帝國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로 匈奴를 지칭한다(陳勇, 2005: 60). 여기에서는 匈奴와 東胡 등을 모두 일컫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隋唐代에는 북방에 거주하는 유목민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인[粟特人]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모리야스, 2006: 108). 이 단어의 어원은 비중국어 계통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 몽골어에서 ‘아들’을 뜻하는 ‘k’ö’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30) 貉: 고대 퉁구스계통 종족의 하나이다. 이들은 濊·韓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된 구성체로서, 『詩經』, 『書經』 등을 보면 周나라의 동북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뒤 북중국의 遼東·만주지역으로 이동해 高句麗·夫餘 등의 國名이 나타나기 전까지 濊와 貉으로 중국측 기록에 보인다. 그 이후 이들은 북방 정세의 변화 또는 다른 요인으로 한반도 내로 이주한 高句麗와 계통을 같이 한다. ‘貉’은 ‘貉’과 통한다. (주223) 참조)

131) 『漢書』에는 “既”가 없다.

132) 韓: 戰國七雄의 하나이다. 그의 조상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쫓나라를 섬기던 유력한 世族으로 春秋時代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韓武子의 3대손 韓厥(獻子) 및 아들 韓起(宣子)가 함께 쫓나라의 6卿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이후 전453년에 韓康子가 趙氏, 魏氏와 함께 쫓나라의 知伯을 내쫓고 영토를 삼분하였다. 그리고 전403년에 周나라의 威烈王으로부터 諸侯로 승인받았다. 도읍은 平陽이었으나 이후 宜陽으로 옮겼다고, 전375년에 哀侯가 鄭國을 멸한 뒤 다시 新鄭으로 천도하였다. 전 355년 昭侯가 申不害를 재상으로 삼아 관료체제를 정비하고 富國強兵策을 취하여 중원의 강국으로 발전했다.

133) 魏: 戰國七雄의 하나이다. 그의 조상은 周나라 왕실과 동족인 畢公高인데, 그의 자손 畢萬이 쫓나라의 獻公에게서 魏(山西省) 땅을 받고 大夫가 되었다. 이후 魏絳은 卿에 임명되어 쫓나라 6경의 한 사람으로 정권을 쥐었다. 전453년 魏의 桓子が 韓, 趙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쫓나라를 3분하였다. 그리고 전403년에는 周나라 威烈王에게서 諸侯로 인정받았다. 魏는 안邑에 도읍을 정하였는데, 지금의 山西省, 河北省, 山東省에 걸친 영역을 지배했다. 초대 文侯(斯)는 李悝, 魏成子, 翟璜 등을 재상으로 삼아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부국강병에 힘을 기울이고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해 관개사업을 크게 벌였다. 또한 명장 吳起를 등용해 秦나라의 河西 지방을 빼앗고 中山과 大梁(河南省 開封)을 차지했다. 그리고 楚나라를 공격하는 등 戰國 初期에 최강국으로 성장했다.

134) 智伯: 쫓나라의 大夫로 이름은 瑤인데, 智襄子라고도 불렸다. 쫓나라 내부에서 異姓 世族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전497년에 智伯이 韓康子, 魏桓子, 趙襄子 등과 함께 定公을 받들고 范氏, 中行氏 등을 제거하였다. 이후 국정을 장악한 智伯이 范氏, 中行氏로부터 빼앗은 토지 배분을 두고 여타 世族과 갈등을

는 대(代)와 구주[산]의 북쪽을 차지하였고, 위나라는 하서(河西)¹³⁶⁾와 상군(上郡)¹³⁷⁾을 차지하게 되어 [모두] 용과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그 후 의거(義渠)의 용이 성곽을 쌓고 스스로 지켰으나 진(秦)나라가 [이를] 점점 먹어 들어갔다. 혜왕(惠王)¹³⁸⁾에 이르러서는 의거의 25개 성을 차지하였다.¹³⁹⁾ 혜왕이 [또] 위(魏)나라까지 공격하여¹⁴⁰⁾ 위나라의 서하[군](西河郡)¹⁴¹⁾과 상군을 모두 진나라로 집어넣었다.¹⁴²⁾ 진나라 소왕(昭王)¹⁴³⁾의 시기에 의거의 용왕과 모친 선태후(宣太后)¹⁴⁴⁾가 사통하여 두 아들을 낳는 일이 생겼다. [그러나] 선태후는 감천궁(甘泉宮)¹⁴⁵⁾에서 의거 용왕을 속여 죽이고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 의거를 쳐서 죽여 버렸다.¹⁴⁶⁾

벌이는 과정에서 趙襄子를 공격했다. 하지만 趙襄子는 오히려 韓康子, 魏桓子와 결탁하여 智伯을 무찌르고 그의 후사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전453년에 췌나라는 三分되었다. 趙襄子는 그를 원수로 여겨 그의 두개골에 철을 해서 그릇으로 사용했다(주125) 참조).

135) 韓, 魏, 趙는 春秋時代와 戰國時代 초기까지 췌나라의 귀족이었으나 후에 나라를 쪼개어 각자 독립하였다. 周나라 威烈王 23년(전403)에 이 三家를 諸侯로 정식 승인하였다. 이를 ‘三晉’이라 하는데, 이로부터 전221년 秦나라가 통일할 때까지의 시기를 ‘戰國時代’라고 한다(『史記』 권5 「秦本紀」: 199).

136) 河西: 黃河의 서쪽을 의미한다. 『漢書』에는 郡의 명칭인 “西河”로 되어 있다(주141) 참조).

137) 上郡: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魏 文侯가 설치했다. 秦代에는 治所가 肤施縣(지금의 陝西省 榆林市 동남 魚河堡 부근)이고 前漢시대 관할 구역은 지금의 陝西省 북부와 內蒙古 自治區 烏審旗 등지였다. 後漢 建安 20년(215)에 폐지되었다.

138) 惠王(재위 전337~전311): 惠文王이라고 하는데, 秦나라의 嬴駟를 가리킨다.

139) 『史記』 권5 「秦本紀」에는 이 사건을 秦 惠文王 初更 10년(전315)에 일어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史記』 권15 「六國年表」에는 이 사건을 惠文王 初更 11년(전314)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140) 『漢書』에서 “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벌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141) 西河: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魏나라에서 설치되었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陝西省 동부 黃河 西岸 지역이다. 전330년에 秦나라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 前漢 元朔 4년(전125)에 다시 설치되었다. 治所는 平定縣(지금의 內蒙古 自治區 伊金霍洛旗 동남)인데, 일설에는 治所가 富昌縣에 있었다고도 한다. 관할 구역은 지금 內蒙古 自治區 伊克昭盟 동부, 山西省 呂梁山·蘆芽山 이서, 石樓 이북과 陝西省 宜川의 黃河 연안 지대이다. 後漢時代에 治所를 離石縣(지금 山西省 離石縣)으로 옮겼다(주136) 참조).

142) 秦나라가 秦 惠文王 8년(전330)에 魏나라로부터 西河를,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上郡의 15개 현을 넘겨받아 河西 濱洛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143) 秦 昭襄王(재위 전306~전251): 嬴稷(또는 則)을 말한다. 秦 武王의 배다른 동생이다(『史記』 권5 「秦本紀」: 209~218).

144) 宣太后: 昭王의 모친으로 楚나라 사람이었다. 姓은 芈이다(『史記』 권5 「秦本紀」: 209).

145) 甘泉宮: 秦나라가 세운 離宮의 명칭으로 陝西省 淳化縣 서북쪽에 위치하였다. (주4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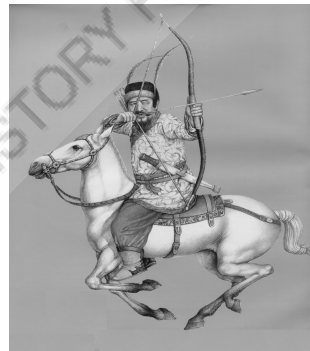
146) 『漢書』에는 “滅”로 되어 있다.

이에 진(秦)나라가 농서[군],¹⁴⁷⁾ 북지[군],¹⁴⁸⁾ 상군을 차지하게 되었고 장성까지 쌓아 흉노[胡]를 막았다. 그리고 조나라 무령왕(武靈王)¹⁴⁹⁾은 또한 풍속을 바꾸어 호복(胡服)을¹⁵⁰⁾ 입고 말을 타며 활 쏘는 것을 익혀 북쪽으로 임호와 누번을 격파한 다음 장성을 구축한¹⁵¹⁾ 뒤 대(代)와 음산(陰山)[산맥]¹⁵²⁾ 기슭으로부터 고궐(高闕)¹⁵³⁾에 이르기까지 요새를 만들어 운중

147) 隴西: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秦나라 襄王 28년(전279)에 설치되었다. 治所는 赤道縣(지금의 甘肅省 臨洮縣 남쪽)이다. 隴山의 서쪽이라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관할은 지금의 甘肅省 隴山 이서, 黃河 이동, 西漢水와 白龍姜 상류 이북, 祖歷河와 六盤山 이남의 땅이다. 後漢시대에는 점차 영역이 축소되었다.

148) 北地: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秦나라에서 설치하였다. 治所는 義渠縣(지금의 甘肅省 西峰市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西漢시대에는 治所를 馬頡縣(지금의 甘肅省 慶陽縣 서북)으로 이전하였다. 관할 구역은 지금의 甘肅省 環江, 馬蓮河 유역과 寧夏回族自治區 賀蘭山, 青銅峽, 山水河 동쪽이었다.

149) 趙 武靈王(재위 전325~전299): 이름은 趙雍이다. 戰國 중기에 강대해지기 시작한 秦나라가 遠交近攻策이라는 외교술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자 趙나라가 이에 대응하였다. 趙나라의 원래 위치가 북방민족에 가까웠으므로 그들과 싸워 북방으로 국토를 확대시켜 갔고, 그들과의 교류 역시 빈번했다. 이런 과정에 武靈王은 군제를 개혁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19년(전307) 북방민족 고유의 ‘胡服騎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武靈王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胡服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면서 활쏘기를 익혔다. 이것은 북방 유목민들의 탁월한 군사기술을 수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는 이런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을 기초로 발전을 도모하였고, 이후 秦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왕위를 惠文王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다음 스스로 主父라 불렀다. 그리고 군대를 지휘하여 이민족의 땅을 지나 秦나라를 공격하기도 했다(『史記』 권43 「趙世家」: 1803~1812).



〈武靈王의 胡服騎射 想像圖〉

150) 胡服: 말을 타기에 편한 질긴 바지와 버선 모양의 부츠형 신발, 그리고馬上에서 활쏘기에 편하게 웃고름이 왼쪽에 있는 저고리[左衽]를 말한다. 그에 비해 中國의 복장은 바지를 입지 않고 고름이 오른쪽에 있었다는 집[右衽]에서 달랐다.

151) 趙 武靈王은 朔州 善陽縣 북쪽에 長城을 쌓았는데, 趙나라의 長城 축조는 趙 肅侯 17년(전332)에 이미 시작되었다(『史記』 권43 『趙世家』: 1802)

152) 陰山山脈: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중부에 위치한 산맥이다. 지금은 大青山이라 불리는데, 고비 남부에 있는 일련의 산지를 부르는 명칭이다. 徐廣은 五原의 서쪽 安陽縣의 북쪽에 위치한다고 했고, 『括地志』에서는 “朔州의 북쪽 塞外에 있는데, 突厥과의 경계가 된다.”고 했다. 이곳은 遊牧民들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로 역할했고, 중국 역시 이 지역을 유목민족이 차지하고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吉田順一, 1980).

[군](雲中郡),¹⁵⁴⁾ 안문[군](雁門郡),¹⁵⁵⁾ 대군(代郡)¹⁵⁶⁾을 두었다. 그 이후에 연나라에는 진개(秦開)¹⁵⁷⁾라는 현명한 장군이 있어 흉노[胡]¹⁵⁸⁾에 불모가 된 적이 있었는데, 흉노[胡]가 [그를] 매우 믿었다. [진개는 그때에 정세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귀국하자마자 동호를 격파해 도망가게 만들었다. 동호는¹⁵⁹⁾ 이때 천 리나 물러났다. 형가(荊軻)와 함께 진나라의 왕 정(政)을 암살하러 떠났던 진무양(秦舞陽)이 바로 [진]개의 손자였다.¹⁶⁰⁾ 연나라는 또한 장성을 조양(造陽)¹⁶¹⁾에서 양평(襄平)¹⁶²⁾까지 쌓았고, 상곡[군](上谷郡),¹⁶³⁾ 어양[군](漁陽郡),¹⁶⁴⁾ 우북평

153) 高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杭錦後旗 동북쪽에 위치한 험준한 산 계곡의 명칭이다. 陰山山脈이 여기에서 중단되는데, 그 사이에 생긴 협곡이다. 그 입구가 마치 대궐문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154) 雲中: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趙 武靈王이 설치하였다. 秦나라 때의 治所는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托克托縣 東北 古城鄉 古城村 서쪽에 있는 古城이다. 관할 구역은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土默特右旗 이동, 大青山 이남, 卓資縣 이서, 黃河 南岸과 長城 이북의 땅이었다. 前漢시기에 관할 구역이 축소되어 後漢시대에는 并州에 속하게 되었다.

155) 雁門: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趙 武靈王이 설치하였다. 秦, 前漢 때의 治所는 善無縣(지금의 山西省 右玉縣 남쪽)이다. 관할 구역은 山西省 河曲, 五寨, 靈武 등의 縣 이북, 恒山 이서. 內蒙古自治區 黃旗海, 岱海 이남의 땅이다. 後漢시대에는 治所를 陰館縣(지금의 山西省 朔州市 東南 夏關城)으로 옮겼다.

156) 代郡: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趙나라에서 설치하였다. 秦, 前漢 때의 治所는 代縣(지금의 河北省 蔚縣 서남)이었다. 前漢시대 관할 구역은 지금의 河北省 懷安, 蔚縣 이서, 山西省 陽高, 渾源 이동에 있는 장성 안팎의 땅과 함께 장성 밖에 있는 東洋河 유역이었다. 後漢時代에 高柳縣(지금 陽高縣 서남)으로 治所를 옮겼다가 西晉時代 말에 폐지되었다.

157) 秦開: 燕 昭王(재위 전311~전279) 때의 사람이다. 동쪽으로 東胡를 경략하고, 朝鮮을 侵入하여 滿潘汗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158) “胡”는 원래 ‘北狄’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匈奴를 지칭한다(주129) 참조.

159) 『漢書』에는 “東胡”라는 말이 없다.

160) 荊軻: 衛나라 사람으로 秦나라가 衛나라를 멸한 후에 燕나라로 도피하였다. 전227년에 燕 太子 丹의 명을 받고 秦나라에 들어가 秦王 嬴政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살되었다. 秦舞陽은 그의 부하였다(『史記』 권86 「刺客列傳」: 2527~2528).

161) 造陽: 음의 명칭으로 지금의 河北省 獨石口 부근이다. 일설에는 河北省 懷來縣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燕나라 長城의 서쪽 기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162) 襄平: 음의 명칭으로 지금의 遼寧省 遼陽 북쪽 70리 정도 떨어진 곳이다. 燕나라 장성의 동쪽 기점이다. 현재의 赤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두 줄의 長城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장성은 赤峰 남쪽의 美麗河 공사에서 동서로 횡단하여 赤峰 북쪽에 있는 장성과 대체로 약 50km 거리를 두고 평행하게 존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昭盟 喀喇沁旗, 赤峰縣 남쪽, 建平縣 북쪽, 敖漢旗 중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老哈河,

[군](右北平郡)¹⁶⁵ 요서[군](遼西郡)¹⁶⁶ [그리고] 요동[군](遼東郡)¹⁶⁷을 설치해 흉노[胡]를 막았다. 이 무렵 의관(衣冠)과 속대(束帶)¹⁶⁸를 할 줄 아는 [예제(禮制)의 문명국이] 전국[시대]에 일곱¹⁶⁹이었는데, [그 중에서] 세 나라¹⁷⁰가 흉노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 그 이후 조나라 장군 이목(李牧)¹⁷¹이 [지키고 있는] 시기에는 흉노가 감히 조나라의 변경을 넘볼

蹋河, 盟克河, 教來河 등을 통과한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魚骨盆, 明刀, 繩紋板瓦, 山字紋·獸紋 半瓦當 등의 출토를 통해 이 장성이 燕代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燕나라가 설치한 5군이 모두 이 장성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고 보았다.

- 163) 上谷: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燕나라에서 설치하였다. 秦나라 때에는 治所가 沮陽縣(지금의 河北省 懷來縣 동남 20리 떨어진 廳水庫 남안에 있는 古城)에 있었다. 관할 구역은 지금의 河北省 張家口市, 小五臺山 이동, 赤城縣, 北京市 延慶縣 이서, 內長城과 昌平縣 이북의 지역이었다. 上谷郡이 지금의 媯州라고 한 것은 唐代의 지명을 칭한 것이다.
- 164) 漁陽: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의 燕나라에서 설치하였다. 秦나라 때의 治所는 漁陽郡인데, 지금의 위치를 北京市 密雲縣 혹은 그 서남, 懷柔縣, 더욱 구체적으로 懷柔의 梨園莊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관할 구역은 지금의 河北省 灤河 상류 이남, 薊運河 이서, 天津市 海河 이북, 北京市 懷柔縣, 通縣 이동 지역이었다.
- 165) 右北平: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燕나라에서 설치하였다. 秦나라 때 治所는 無終縣(지금의 天津市 薊縣)이고, 前漢시대 治所를 平剛縣(지금의 遼寧省 凌源市 서남)으로 옮겼다. 하지만 燕代의 治所는 河北省 平泉, 遼寧省 凌源縣 安杖子村 古城, 內蒙古自治區 寧城縣 甸子鄉 黑城 古城, 寶坻 古城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에 따르면, 黑城 내지는 寶坻 古城에서 燕나라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를 戰國時代, 그리고 후자를 말기의 治所로 보기도 한다. 관할 구역은 지금 河北省 承德, 天津市 薊縣 이동(長成 남부 灤河 유역과 그 이동은 제외), 六股河 이남지역이다. 後漢시대에는 治所가 土垠縣(지금의 河北省 豐潤縣 동남)으로 옮겼다. 현재는 점차 영역이 축소되어 長城 이남으로 경계가 바뀌었다.
- 166) 遼西: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燕나라에서 설치했다. 秦나라 때 治所는 陽樂縣(지금의 遼寧省 義縣 서쪽)이었다. 前漢시대에는 柳城이라고 불렸는데, 이곳을 遼寧省 朝陽市 十二臺營子 袁臺子 유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할 구역은 지금의 河北省 遷西縣, 唐山市 이동, 遼寧省 醫巫閭山, 大凌河 하류 이서와 長城 이남 지역이었다.
- 167) 遼東: 郡의 명칭으로 戰國時代 燕나라에서 설치했다. 治所는 襄平(지금의 遼寧省 丹東市 老城)이다. 관할 구역은 지금의 遼寧省 大凌河 이동, 開原市 이남, 淸川江 하류 이북 지역이었다.
- 168) 冠帶: 본래 帽子和 腰帶를 지칭하는 것으로 文明의 나라, 즉 中國을 지칭한다.
- 169) 이른바 戰國七雄, 곧 秦, 楚, 齊, 燕, 韓, 魏, 趙를 말한다.
- 170) 세 나라는 秦, 趙, 燕나라를 말한다.
- 171) 李牧: 代郡과 雁門郡 등지에서 오랫동안 匈奴에 대비하여 趙나라의 변경을 수비하였다. 匈奴가 도발을 하자 군대를 일으켜 單于를 쫓아내고 東胡를 격파하고, 澹林을 없애 匈奴를 물리쳤다. 그 이후 匈奴는

수가 없었다.

이후에 진(秦)나라가 여섯 나라를 멸망시키고 시황제(始皇帝)가 몽염(蒙恬)¹⁷²⁾에게 십만의 군사를 주어¹⁷³⁾ 북으로 흉노[胡]를 치게 해 하남(河南)¹⁷⁴⁾ 땅을 모조리 손에 넣었다. 황하를 이용해 요새를 만들고 황하를 따라 44개의 현에 성을 쌓고 죄수[適]¹⁷⁵⁾로 [구성된 군사를] 이주시켜 [방어에] 충당하게 했다. 그리고 직도(直道)를 통하게 해 구원[군](九原郡)¹⁷⁶⁾에서 운양[현](雲陽縣)¹⁷⁷⁾에 이르렀는데,¹⁷⁸⁾ 험준한 산의 능선을 국경으로 삼고 골짜기를 이용해 참호로 삼고 수선할 수 있는 것을 손보아¹⁷⁹⁾ 임조[현](臨洮縣)¹⁸⁰⁾에서 요동[군](遼東郡)까지 만 여리에 이르렀다. 게다가 황하를 건너 양산(陽山)¹⁸¹⁾과 북가(北假)¹⁸²⁾ 사이에 근거지를

10여 년 이상 함부로 趙나라를 범하지 못하였다. 이후에 秦나라 군대를 대파하여 그 공으로 武安君에 봉해졌다. 전229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史記』 권102 「張釋之馮唐列傳」: 2758).

172) 蒙恬: 秦나라의 장수로 始皇帝의 명을 받아 匈奴를 북방으로 내쫓은 다음에 장성을 수축하는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이후에 2世 皇帝의 핍박을 받아 자살하였다(『史記』 권88 「蒙恬列傳」: 2565~2570).

173) 秦 始皇帝 32년(전215)에 北巡하던 始皇帝는 “亡秦者胡也”라는 盧生的 말을 듣고 匈奴를 막기 위해 蒙恬에게 명령하여 匈奴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가 인솔한 군대의 숫자를 저본에서는 “十萬”이라고 하였으나 『漢書』에는 “數十萬之物衆”이라고 되어 있다. 그와 달리 「蒙恬列傳」과 「秦始皇本紀」에서는 이것을 모두 “三十萬衆”이라고 다르게 기록했다. 『鹽鐵論』 「伐功篇」의 기록(“蒙公爲秦擊走匈奴, 若鷩鳥之追群雀. 匈奴勢慄, 不敢南面而望者十餘年.”: 316)을 보아도 “三十萬衆”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74) 河南: 지명으로 內蒙古 河套(오르도스), 즉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伊克昭盟 일대이다. 秦나라의 蒙恬이 匈奴를 몰아내고 黃河 이남의 땅을 회복한 다음에 성곽을 쌓고 백성을 이주시킨 다음에 이곳을 ‘新秦’이라고 했다. 漢 武帝시대에도 이곳을 ‘新秦中’이라 불렀다(주597) 참조.

175) 適: 음은 ‘적’이다. 그 의미는 ‘謫’과 통해 ‘譴責’ 또는 ‘懲罰’을 뜻한다. ‘適戍’는 죄가 있어 변방을 지키는 벌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176) 九原: 秦나라 때의 郡 명칭으로, 漢武帝 때에 ‘五原’으로 바뀌었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包頭市 兩五原縣이다.

177) 雲陽: 縣 명칭으로 지금의 陝西省 淳化縣 서북쪽이다. 이곳에는 秦나라 때의 林光宮, 漢나라 때의 甘泉宮이 있었다.

178) 直道: 九原에서 雲陽까지 직선으로 북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말한다. 秦 始皇帝 35년(전212)에 만들어졌는데 『史記索隱』에서는 그 거리가 8000여 리라고 했고, 『史記正義』에서는 1800리라고도 했다. 秦 始皇帝의 운구가 이 길을 통해 咸陽으로 운반되기도 했다(來村多加史, 2004: 76~82).

179) 『漢書』에는 “治”와 통하는 “繕”으로 되어 있다.

180) 臨洮: 縣 명칭으로 지금의 甘肅省 岷縣이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12리 떨어진 곳에서 秦나라 장성이 시작되었다.

두었다.

當是之時，東胡疆而月氏盛。匈奴單于曰頭曼，頭曼不勝秦，北徙。十餘年而蒙恬死，諸侯畔秦，中國擾亂，諸秦所徙適戍邊者皆復去，於是匈奴得寬，復稍度河南與中國界於故塞。

그 무렵 동호가 강하고 월지(月氏)¹⁸³가 번성했다. 흉노의 선우(單于)¹⁸⁴를 두만(頭曼)¹⁸⁵

181) 陽山: 산 명칭으로 河北과 高厥의 동쪽에 있는 산이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에 있는 狼山을 가리킨다.

182) 北假: 지명으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河套(오르도스) 북쪽, 陽山 남쪽의 來山帶河 지역이다.

183) 月氏: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음은 ‘월지’이며 ‘氏’는 ‘支’와 통한다. 지금의 甘肅省 서부와 青海省 경계 지역에 살았다. 최근에 중국학자들은 ‘yuezhi’가 아니라 ‘rouzhi’로 읽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肉氏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설한 것에 의거한 것이나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 한편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禹氏駒駘(『逸周書』)”, “禹氏之玉(『管子』)”, “和氏之璧(『淮南子』)” 등에 나오는 “禹氏”와 “和氏”와 음이 비슷한 月氏가 춘추시대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桑原隲藏, 松田壽男, 江上波夫 등). 하지만 이것 역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의 원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정설이 없으나 다만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기초로 문화적인 면에서 기원전 4~3세기경 몽골 초원, 중국 서북으로부터 아무다리아 지역까지 퍼져 있었던 이란 계통인 사카 유목민 집단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小穀伸男, 1999: 19~22). 이들은 기원전 3세기 匈奴의 등장과 함께 아무다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그리스 계통 박트리아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大月氏를 건국했다. 이후 쿠산 왕조의 건국세력과 연결되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184) 單于: 음은 ‘선우’이고 匈奴 君主의 칭호이다. 『漢書』에는 “單于”를 “하늘과 같이 넓고 무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單于에 붙는 “孤塗”를 투르크어에서 아들을 의미하는 ‘코토(koto)’와 대비하여 “蠭黎孤塗”를 ‘中國의 天子와 같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中國의인 개념에 대응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單于姓攀鞮氏，其國稱之曰蠭黎孤塗單于”。而匈奴謂天爲‘蠭黎’，謂子爲‘孤塗’，單于者，廣大之貌也。言其象天，故曰蠭黎孤塗單于”。又玄晏春秋云“士安讀漢書，不詳此言，有胡奴在側，言之曰‘此胡所謂天子，與古書所說符會也’)”。 그와 달리 ‘蠭黎’가 텡그리(tengri), 즉 하늘[天 또는 神]을 의미하고 ‘孤塗’가 투르크어의 쿠틀(qut), 즉 祝福을 의미한다고 이해한 것을 기초로 이 단어들인 單于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즉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군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아래에 나오는 匈奴시대의 單于의 이름 교정 및 계보에 대한 고증은 龔蔭의 연구(1999: 89~111)를 참조.

185) 頭曼: 음은 ‘두만’이다. 이것은 투르크어 내지는 몽골어 ‘튀멘(tümen)’을 음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突厥帝國을 건설한 土門 역시 그와 동일한 음차이다. 그 의미는 만 명을 이끄는 大將 또는 酋長, 즉 萬騎長이다. 頭曼單于是 역사에 기록된 匈奴 최초의 君長으로, 초원에 있던 遊牧民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匈奴의 국가를 형성하였다.

이라 불렀는데, 두만은 진(秦)나라를 이겨 내지 못하고 북쪽으로 옮겨 갔다.¹⁸⁶⁾ 십여 년이 지나 몽염이 죽고¹⁸⁷⁾ 제후들이 진나라를 배반하여¹⁸⁸⁾ 중국 전체가 소란스럽게 되자 진나라가 강제로 변경에 이주시킨 여러 유형수들이¹⁸⁹⁾ 모두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 [이에] 흉노가 여유를 얻어 다시 조금씩 황하를 건너 남쪽¹⁹⁰⁾으로 중국과 이전의 요새로 경계를 삼게 되었다.

單于有太子名冒頓。後有所愛閼氏，生少子，而單于欲廢冒頓而立少子，乃使冒頓質於月氏。冒頓既質於月氏，而頭曼急擊月氏。月氏欲殺冒頓，冒頓盜其善馬，騎之亡歸。頭曼以爲壯，令將萬騎。冒頓乃作爲鳴鏑，習勒其騎射，令曰：「鳴鏑所射而不悉射者，斬之。」行獵鳥獸，有不射鳴鏑所射者，輒斬之。已而冒頓以鳴鏑自射其善馬，左右或不敢射者，冒頓立斬不射善馬者。居頃之，復以鳴鏑自射其愛妻，左右或頗恐，不敢射，冒頓又復斬之。居頃之，冒頓出獵，以鳴鏑射單于善馬，左右皆射之。於是冒頓知其左右皆可用。從其父單于頭曼獵，以鳴鏑射頭曼，其左右亦皆隨鳴鏑而射殺單于頭曼，遂盡誅其後母與弟及大臣不聽從者。冒頓自立爲單于。

[두만] 선우¹⁹¹⁾에게 태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목특(冒頓)¹⁹²⁾이었다. 그 이후에 [선우

186) 頭曼單于가 蒙恬에게 패해 北方으로 도망간 것은 秦 始皇帝 26년(전221)의 일이다(『史記』 권88 「蒙恬列傳」: 2569).

187) 蒙恬이 죽은 것은 秦始皇 37년(전210)의 일이다.

188) 畔: '叛'과 통하는데,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鹽鐵論』 권45 「伐功篇」: 316, "乃其後, 蒙公死, 而諸侯叛秦, 中國擾亂, 匈奴乃敢復爲邊寇.")

189) 『漢書』에는 "戍"가 없다.

190) 河南: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볼 경우 지역 명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주174) 참조). 하지만 여기에서는 '河'를 '黃河'로 보고 그곳을 끊은 다음 '南'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보다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191) 頭曼單于를 지칭한다.

192) 冒頓(재위 전209~전174): 음은 '목특' 또는 '목돌'로 읽는데, 목특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史記索隱』 冒音墨, 又如字). 冒頓의 의미는 투르크 또는 몽골어로 영웅을 지칭하는 바가투르(baghatour) 내지는 몽골어의 神聖을 지칭하는 보구드(boghud)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는 전209년에 아버지인 匈奴의 초대 頭曼單于를 살해하고 스스로 單于가 되었다. 이후 내정을 갖춘 다음 東胡와 月氏 등 주변 부족을 격파하고 오르도스의 樓煩과 白羊 등을 병합하였다. 그리고 秦나라가 확보했던 河南 지역을 다시 차지

가] 좋아하는 연지(閼氏)¹⁹³가 막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두만] 선우¹⁹⁴는 목특[태자]을 폐하고 막내 아들을 태자로 세우려고 목특을 월지(月氏)에 볼모로 보냈다. 목특이 월지에서 볼모로 있을 때 [그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진] 두만 [선우]가 갑자기 월지를 공격했다.¹⁹⁵ [이에] 월지가 목특을 죽이려고 하자 목특이 [월지의] 좋은 말을 훔쳐 타고 [본국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두만은 [자신의 계획은 어긋났지만] 아들 목특의 [용기를] 장하게 여겨 만 기(騎)를 거느리게 했다. 목특은 이에 소리나는 화살(鳴鏑)¹⁹⁶을 만들고 부하들에게 말을 타고 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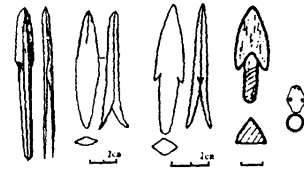
하는 등 세력을 크게 발전시켰다. 나아가 북방의 예니세이강 상류의 丁零과 서북방의 堅昆 등도 복속시켰다. 이를 통해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거대한 유목제국을 건설했다. 漢나라와 싸워 이긴 이후에 화친을 통해 더욱 세력을 확대하는 등 匈奴帝國의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 閼氏: 음은 ‘연지(煙肢)’와 ‘알지’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匈奴 군주의 妃(또는 妻)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기도 하고 皇后로 번역되기도 한다. 閼氏의 음에 대해 먼저 北宋대에 편찬된 『大宋重修廣韻』에 의거해 ‘閼’의 古代 漢語음이 燕, 蓮, 漣, 鄰, 焉과 같이 ‘연’으로, 匈奴의 부인들이 식물에서 추출해서 얼굴에 발랐다는 焉支(연지)와 같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諤’과 같이 ‘알’이라는 설, 그리고 歇, 羯 등 여러 어음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古代~現代 한국어의 음으로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始祖條〉에 보이는 “閼川 楊山村”, “閼英” 및 『三國史記』 권2 「新羅本紀」〈味鄒尼師今條〉에 보이는 “閼智”에서의 ‘閼’의 음이 ‘알’이기 때문이다.(李丙燾, 1977; 李基東, 1982). 한편, 閼氏의 漢語 古音을 ‘앗시(atsi)’로 보고 이것이 통구스어와 몽골어의 ‘아시(asi)’ 또는 ‘아쉬(ashi)’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 閼氏, 즉 匈奴語 ‘아시(asi)’는 통구스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閼’의 한국어 음은 ‘알(al)’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徐復, 1983: 222~226). 여기에서는 『史記索隱』의 해설에 근거해서 ‘연지’로 읽었다(習鑿齒與燕王書曰 “山下有紅藍, 足下先知不? 北方人探取其花染緋黃, 掇取其上英鮮者作煙肢, 婦人將用爲顏色. 吾少時再三過見煙肢, 今日始視紅藍, 後當爲足下致其種. 匈奴名妻作‘閼支’, 言其可愛如煙肢也. 閼音煙. 想足下先亦不作此讀漢書也.”).

194) 『漢書』에는 “單于”가 아니라 정확하게 “頭曼”으로 되어 있다.

195) 匈奴가 月氏를 공격한 시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蒙恬이 장성을 축조하고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匈奴가 중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못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추정된다. 대략 秦始皇帝 30년(전217)경이다.

196) 鳴鏑: 쏘면 날아가면서 소리를 내는 화살로 ‘嚆矢’라고도 한다. 원래 嚆矢나 鳴鏑은 공격 시작을 알리는 신호용으로 사용하던 화살인데, ‘어떤 사건의 시작이나 기원’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쉬이익’하고 鳴鏑 소리가 나면 이어서 수십, 수백 발의 화살이 뒤따르기 때문에 鳴鏑은 적에게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 鳴鏑의 실물을 보면 화살촉 중간 부분에 둥그란 방울처럼 생긴 부분이



〈匈奴時代 화살촉과 鳴鏑〉

쏘는 연습을 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내가] 소리나는 화살을 쏜 곳에 [너희들이] 모두 쏘지 않으면 베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정말] 새¹⁹⁷⁾와 짐승을 사냥하러 나가서 소리나는 화살을 쏜 곳에 쏘지 않는 자가 있자 바로 베어 버렸다. 얼마 후에 목특이 소리나는 화살로 스스로 자신의 좋은 말[善馬]을 쏘았는데, 좌우에서 감히 쏘지 못하는 자가 있자 목특이 바로 좋은 말을 쏘지 못한 자들을 베어 버렸다. 다시 얼마 지난 후 [목특이] 소리나는 화살로 스스로 아끼던 처를 쏘았는데, 좌우에서 몹시 두려워하여 감히 쏘지 못하자 [목특이] 다시 베어 버렸다. [또] 얼마 뒤에 목특이 사냥하러 나갔는데, 소리나는 화살로 [두만] 선우의 좋은 말을 쏘니 좌우의 부하들이 모두 쏘았다. 이에 목특이 그의 좌우 [부하가] 모두 쓸 만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버지 선우 두만을 따라 사냥을 나가 [목특이] 소리나는 화살로 두만을 쏘자 그의 좌우 [부하들이] 모두 소리나는 화살을 따라 화살을 쏘아 선우 두만을 죽였다. 마침내 [목특은] 그의 계모와 동생들,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는 대신들을 모조리 베어 버렸다. [그리고] 목특이 스스로 선우가 되었다.¹⁹⁸⁾

冒頓既立，是時東胡彊盛，聞冒頓殺父自立，乃使使謂冒頓，欲得頭曼時有千里馬。冒頓問羣臣，羣臣皆曰：「千里馬，匈奴寶馬也，勿與。」冒頓曰：「柰何與人鄰國而愛一馬乎？」遂與之千里馬，居頃之，東胡以爲冒頓畏之，乃使使謂冒頓，欲得單于一閼氏。冒頓復問左右，左右皆怒曰：「東胡無道，乃求閼氏！請擊之。」冒頓曰：「柰何與人鄰國愛一女子乎？」遂取所愛閼氏予東胡。東胡王愈益驕，西侵。與匈奴聞，中有弃地，莫居，千餘里，各居其邊爲甌脫。東胡使使謂冒頓曰：「匈奴所與我界甌脫外弃地，匈奴非能至也，吾欲有之。」冒頓問羣臣，羣臣或曰：「此弃地，予之亦可，勿予亦可。」於是冒頓大怒曰：「地者，國之本也，柰何予之！」諸言予之者，皆斬之。冒頓上馬，令國中有後者斬，遂東襲擊東胡。東胡初輕冒頓，不爲備。及冒頓以兵至，擊，

있다. 그 속이 비어 있고 구멍이 1~6개 정도 뚫려 있어 비행 중에 호루라기처럼 소리를 내게 된다. 재질은 뼈나 청동제가 많고 철제는 흔하지 않다.

197) 『漢書』에는 “鳥”字가 없다.

198) 冒頓單于가 자립을 한 것은 秦 2世 皇帝 元年(전209)이다.

大破滅東胡王，而虜其民人及畜產。旣歸，西擊走月氏，南并樓煩·白羊河南王。(侵燕代)悉復收秦所使蒙恬所奪匈奴地者，與漢關故河南塞，至朝那·膚施，遂侵燕·代。是時漢兵與項羽相距，中國罷於兵革，以故冒頓得自彊，控弦之士三十餘萬。

목특이 즉위하니 이때 [이웃의] 동호가 강성하여 목특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선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목특에게 사자를 보내 생전에 두만선우가 갖고 있던 천리마(千里馬)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목특이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대답했다. “천리마는 흉노의 보배로운 말입니다. 주지 마십시오.” 목특은 “내가 어찌 이웃 나라끼리 한 마리의 말을 아까워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천리마를 주어 버렸다. 얼마 후 동호는 목특이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목특에서 [다시] 사자를 보내 선우의 연지 한 명을 달라고 말했다. 목특이 다시 좌우에게 [그 여부를] 물으니 좌우가 모두 화를 내면서 대답했다. “동호는 무례 무도하게 연지를 달라고 하니 그들을 치기를 바라옵니다.” 목특은 “내가 어찌 이웃 나라끼리 여자 하나 주는 것을 아까워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가 아끼던 연지를 골라 동호에 보내 주었다. 동호의 왕은 더더욱 교만해져 서쪽을 쳤다. [동호와] 흉노 사이에는 버려진 땅에¹⁹⁹⁾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1천여 리에 이르렀고 [양국은] 각각 땅을 보는 시설[甌脫]²⁰⁰⁾을 경계로 삼고 있었다. 동호는 사신을 목특에게 보내 “흉노와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땅을 보는 시설 밖에 있는 버려진 땅은 흉노가 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내가 갖고 싶소.”라고 말했다. 목특이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버려진 땅이니 주어도 또한 가하고 주지 않아도 또한 가합니다.”²⁰¹⁾ 이에 목특은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땅이란 나라의 근본인데 어찌 줄 수 있단 말인가?” [땅을] 주자고 말한 여러 명을 모두 목 베었다. [바로] 목특은 말에 올라타 백성들에게 뒤늦게 출진하는 자도 베어 버리겠다고 명령했다. 마침내 [흉노가] 동으로 동호를 습격했다. 동호는 처음부터 흉노를 가볍게 보고 방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목특이 군대를 이끌고 [동호 땅에] 도착해 공격하니 동호의 왕이 크게 패해 망했고 [목특은] 그 백성(民人)²⁰²⁾과 가축 등을 [전리품으로] 빼앗았다.²⁰³⁾ 돌아와 서쪽으로

199) 『漢書』에는 “與匈奴中間有棄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棄地’는 고비[沙漠]를 말한다.

200) 甌脫: 땅을 보기 위한 지하 시설이다.

201) 『漢書』에는 “予之亦可，勿予亦可.”가 ‘予之’로만 되어 있다.

월지를 격파해 [도망]가게 하고,²⁰⁴⁾ 남으로 누번, 백양(白羊)²⁰⁵⁾ 하남왕의 [땅을] 병합했다.²⁰⁶⁾ 마침내 다시 진나라 몽염이 탈취해 간 흉노의 땅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한나라와 과거 하남의 장성선에 관문을 두고 조나(朝那),²⁰⁷⁾ 부시(膚施)²⁰⁸⁾까지 진출하고 마침내 연나라의 대(代)까지 침입해 들어갔다. 이때 한나라 군대²⁰⁹⁾가 항우(項羽)²¹⁰⁾와 대치하여 싸우느라고²¹¹⁾ 중국이 전쟁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목득은 스스로 강하게 되어 궁사(弓士)가 30여 만이라고 했다.

自淳維以至頭曼千有餘歲，時大時小，別散分離，尚矣，其世傳不可得而次云。然至冒頓而匈奴最彊大，盡服從北夷，而南與中國爲敵國，其世傳國官號乃可得而記云。

202) 『漢書』에는 “民衆”으로 되어 있다.

203) 冒頓이 東胡를 격파한 것은 漢 高祖 元年, 冒頓單于 4년(전206)의 일이다. 東胡는 冒頓에게 격파된 이후에 나머지 무리가 烏桓山으로 물러나 살았는데, 그래서 烏桓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들의 세력이 고립되어 약했기 때문에 匈奴에게 신속하여 매년 소, 말, 양의 가죽을 바쳤다(『後漢書』 「烏桓傳」: 2981. “東胡自爲冒頓所破，餘衆退保烏桓山者號烏桓，勢力孤弱，臣服於匈奴，歲輸牛·馬·羊皮.”). (주 119) 참조)

204) 匈奴가 月氏를 격파한 시기는 기원전 3세기 말로 전204~전203년 전후이다.

205) 白羊: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匈奴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이들이 河南(河套 이남) 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

206) 樓煩은 冒頓單于가 月氏를 공격하기 이전에 河南에 옮겨와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匈奴의 공격을 받고 그에 복속되었다. 이런 상황은 『漢書』의 “敬從匈奴來，因言匈奴河南白羊·樓煩王”과 같은 기록(권43 「鄴陸朱劉叔孫傳」: 212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南并樓煩，白羊王”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河南’은 쓸데없이 덧붙은 것이다(주118) 참조).

207) 朝那: 縣의 명칭으로 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固原縣 동남쪽이다.

208) 膚施: 縣 명칭으로 지금의 陝西省 榆林縣 동남쪽이다.

209) 『漢書』에는 “漢方”으로 되어 있다.

210) 項羽: 이름이 籍이고 자가 羽이다. 江蘇省 臨淮郡 下相縣 출신이다. 秦 2世 皇帝 1년(전209) 陳勝·吳廣의 난으로 秦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숙부 項梁과 함께 봉기했다. 會稽郡 太守를 참살하고 印綬를 빼앗았다. 그리고 秦나라 군대를 도처에서 무찌르고, 드디어 函谷關을 넘어 關中으로 들어갔다. 이어 앞서 들어와 있던 鄧邦과 鴻門에서 만나 이를 복속시켰다. 그 이후 秦王 子嬰를 죽이고 咸陽을 불사른 뒤에 彭城(徐州)에 도읍해 西楚의 霸王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각지에 봉한 諸侯를 통솔하지 못하여 垓下에서 漢王 劉邦에게 포위되어 자살하였다(『史記』 권7 「項羽本紀」: 297~339).

211) 楚나라와 漢나라가 서로 대결을 벌인 것은 전206년부터 전202년까지이다.

순유에서 두만까지 천여 년 동안 [흉노는] 때로 컸다가 때로 작아지기도 했다. [그들끼리] 달리 흩어지고 나뉘어 갈라선 것이 오래 되어 그들이 대대로 전해 온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목특에 이르러 흉노가 가장 강대하게 되어 북방의 다른 종족[北夷]²¹²⁾을 모두 복종시키고 남으로는 중국²¹³⁾과 대적하는 나라가 되니, [이때에서야] 그들이 대대로 전하는 나라의 관직과 명칭을²¹⁴⁾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置左右賢王，左右谷蠡王，左右大將，左右大都尉，左右大當戶，左右骨都侯。匈奴謂賢曰「屠耆」，故常以太子爲左屠耆王。自如左右賢王以下至當戶，大者萬騎，小者數千，凡二十四長，立號曰「萬騎。」諸大臣皆世官。呼衍氏，蘭氏，其後有須卜氏，此三姓其貴種也。諸左方王將居東方，直上谷以往者，東接穢貉·朝鮮；右方王將居西方，直上郡以西，接月氏·氏·羌；而單于之庭直代·雲中：各有分地，逐水草移徙。而左右賢王·左右谷蠡王最爲大(國)，左右骨都侯輔政。諸二十四長亦各自置千長·百長·什長·裨小王·相封·都尉·當戶·且渠之屬。

[선우 밑에는]²¹⁵⁾ 좌현왕(左賢王), 우현왕(右賢王), 좌록리왕(左谷蠡王), 우록리왕(右谷蠡王),²¹⁶⁾ 좌대장(左大將), 우대장(右大將), 좌대도위(左大都尉), 우대도위(右大都尉), 좌대당호

212) 北夷: 渾庾, 屈射, 丁零, 鬲昆, 薪犁 등의 종족을 말한다(『漢書』 권110 「匈奴傳」: 2293).

213) 『漢書』에는 中國과 같은 의미의 “諸夏”로 되어 있다.

214) 『漢書』에는 “其世姓官號”라고 되어 있다. ‘世姓官號’는 匈奴의 계보와 官制를 의미한다. 이것은 匈奴가 남쪽의 中國과 적대국이 된 이후 양국이 빈번하게 접촉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게 된 것을 말한다.

215) 『漢書』에는 여기에 “單于姓攢鞬氏，其國稱之曰‘攢犁孤塗單于’。匈奴謂天爲攢犁，謂子爲孤塗。單于者，廣大之貌也。言其象天單于然也。”과 같이 單于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이후에 보충되었거나 아니면 『史記』에서 그 내용이 탈락했을 것으로 보인다(주184) 참조).

216) 谷蠡王: 음은 ‘록리왕’이다. ‘谷蠡’의 발음은 ‘luk-li’ 즉 ‘록리’이다.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左賢王, 右賢王, 左谷蠡王, 右谷蠡王 등의 관칭은 地方에서 군사와 행정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들의 명칭이다. 이들은 각기 單于로부터 分封을 받아 각자의 영지를 갖고 있었다. 左部는 東部를, 右部를 西部에 위치하고 있었다. 匈奴의 통치체제는 동남부에는 左賢王, 동북부에는 左谷蠡王, 서남부에는 右賢王, 서북부에는 右谷蠡王이 중앙부의 單于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통치하는

(左大當戶), 우대당호(右大當戶), 좌골도후(左骨都侯), 우골도후(右骨都侯)²¹⁷)를 두었다. 흉노에서는 ‘어질다[賢]’는 [말을] 도기(屠耆)라고 했는데,²¹⁸) 그래서 늘 태자를 좌도기왕(左屠耆王)이라고도 불렀다. 또 좌현왕과 우현왕 이하 당호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만 기(騎), 작게는 수천 기를 거느렸는데, 대체로 24인의 장(長)들이 있었고,²¹⁹) [이들을] 만기(萬騎)라 불렀다. [이] 여러 대신들은 모두 세습하는 관직이었다. 호연씨(呼衍氏), 난씨(蘭氏), 그 다음에 수복씨(須卜氏)가 있었는데,²²⁰) 이 세 가지의 성이 귀하였다. 여러 명의 왼쪽[左]²²¹) 방향의 왕이나

5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로 單于의子弟들, 즉 왕족들이 담당했다. 賢王 아래에 谷蠡王이 자리했다. 특히 左賢王은 차기 單于를 계승할 사람인 太子가 담당했는데, ‘左屠耆王’이라고도 불리었다.

217) 左大將, 右大將, 左大都尉, 右大都尉, 左大當戶, 右大當戶, 左骨都侯, 右骨都侯 등은 모두 匈奴의 官稱이다. 單于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직을 나열한 것이다. 그중에서 骨都侯는 單于의 일족인 攣鞮氏가 아닌 여타 異姓들이 담당했다. 즉 呼衍氏·蘭氏·須卜氏 등이 담당했는데, 呼衍氏는 左에 蘭氏·須卜氏는 右에 자리했다(주219) 참조).

218) “屠”는 ‘諸’로 쓰기도 한다.

219) 萬騎를 이끄는 長이 24개라고 한 기록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한 『漢書』의 기록과 그 이후 匈奴의 변화를 기록한 『後漢書』 권89 「南匈奴傳」의 내용을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後漢書』에서는 위와 달리 “其大臣貴者左賢王, 次左谷蠡王, 次右賢王, 次右谷蠡王, 謂之四角; 次左右日逐王, 次左右溫禺鞮王, 次左右漸將王, 是爲六角; 皆單于子弟, 次第當爲單于者也. 異姓大臣左右骨都侯, 次左右尸逐骨都侯, 其餘日逐·且渠·當戶諸官號, 各以權力優劣·部衆多少爲高下次第焉.”이라고 四角, 六角, 異姓大臣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匈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했다(護雅夫, 1970: 362; 李春梅, 2006: 51). 1950년 처음 護雅夫의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반론으로 프리차(Pritsak)은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ritsak, 1954: 178~202). 이에 대해 山田信夫는 24長을 左右賢王과 左右谷蠡王 및 左右骨都侯가 담당하는 지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大將, 大都尉, 大當戶가 그에 소속된 것이라고 설명해 그 실태를 해명하였다(山田信夫, 1989: 31~46). 하지만 그는 左賢王, 左谷蠡王, 右賢王, 右谷蠡王, 즉 四角이라 칭해진 것을 상급지휘관, 左右大將, 大都尉, 大當戶 등을 중급지휘관으로 분류했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單于를 배출하는 攣鞮氏였다는 점에서 姻戚氏族인 骨都侯의 지휘하에 조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4長이라고 기록된 것이 그 앞에 나열된 左賢王 이하의 관직과 그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요한 관직만을 나열한 것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사와다, 2006: 158).

220) 呼衍氏, 蘭氏, 須卜氏는 單于를 배출하는 씨족 이외에 匈奴의 지배층을 형성하는 핵심 씨족들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顏師古가 呼衍이 鮮卑族에 있는 呼延과 같은 성씨이고 蘭氏 역시 蘭姓이라고 했다(『史記正義』: 顏師古云 “呼衍, 即今鮮卑姓呼延者也. 蘭姓今亦有之.” 其後有須卜氏). 그리고 이런 유력씨족들은 單于를 배출하는 씨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須卜氏의 경우에는 주로 訟事를 담당하였다고

장군들은 동방에 위치하며 상곡[군]의 동쪽을 담당하였고,²²²⁾ 예맥(穢貉)²²³⁾, 조선(朝鮮)²²⁴⁾과 접해 있었다. 오른쪽[右] 방향의 왕이나 장군들은 서방에 위치하며 상군²²⁵⁾의 서쪽을 담당

한다(주217) 참조).

221) 『漢書』에는 “王”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左[가 붙는] 王’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 右의 용례도 동일하다.

222) 直: ‘值’과 같은 글자인데, 그 의미는 ‘當’과 같다.

223) 穢貉: 고대 종족 명칭으로 東北 邊方의 韓半島 북부에 거주하였다.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詩經』, 『論語』, 『中庸』, 『孟子』 등에는 “貉”으로, 『史記』에는 “穢貉”으로 기록되어 있다. ‘貉’의 원주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三國志』의 ‘高句麗’ 관련 기록에 따르면, 大水(漢代에 鹽難水라고 하였던 鴨綠江) 유역에 거주한 부락과 小水(漢代에 馬訾水라고 하였던 渾江) 유역에 거주한 2개의 부락이 있어 각기 首長을 추대하고 있었다. 漢인들이 小水 지역에서 거주한 부락을 小水貉이라 칭하였다. 또한 『漢書』 권6 「武帝紀」와 『後漢書』 권85 「東夷傳」〈濊〉에 보면 전 128년 穢의 君長인 南闔가 朝鮮王 右渠와의 관계를 끊고 그가 지배하던 인구 28만을 이끌고 漢의 遼東郡에 가서 內屬을 청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초기에 肅慎과 東胡 사이에 끼어 松花江 및 黑龍江과 鴨綠江, 豆滿江 유역 및 한반도 북부지역인 함경도와 강원도 등지에 걸쳐 살고 있었다. 그 갈래가 남부로 이주하여 百濟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종족적으로는 알타이어계 통구스에 속하는 한 갈래로 농경문화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발전해 韓民族의 주류를 형성하였다(주130) 참조).

224) 朝鮮: 遼河 유역에서 韓半島 서북지방에 걸쳐 성장한 여러 지역집단을 통칭한다. 檀君神話의 기록에 따르면 전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나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것은 기원전 7세기 초이다. 朝鮮은 戰國時代에 들어와 周나라가 쇠퇴하자 각 지역의 諸侯들이 왕이라 칭할 때 인접국인 燕나라와 동시에 왕을 칭하면서 발전하였다. 朝鮮은 기원전 4세기 무렵 燕나라와 대립하였다. 또, 당시 중국에서 교만하고 잔인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朝鮮은 기원전 3세기 후반부터 燕나라가 동방으로 진출하면서 밀리기 시작하였다. 燕나라의 장수 秦開가 遼河 상류에 근거를 둔 東胡를 원정한 다음 朝鮮 영역 내로 쳐들어와 遼河 동쪽에 遼東郡을 설치하고 障塞를 쌓았다. 그 결과 朝鮮은 서방 2천여 리의 땅을 상실하였다. 그 뒤 秦나라가 燕나라를 멸망시키고(전222) 遼東郡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자 朝鮮의 否王은 秦나라의 공격이 두려워 복속할 것을 청하나 직접 朝會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否王이 죽고 아들 準王이 즉위할 무렵 전202년 漢나라가 中國을 통일하였다. 漢나라는 秦나라와 같이 동방진출을 적극 피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燕나라가 쌓은 障塞만을 수축하고 朝鮮과의 경계를 溟水로 재조정하였다. 전195년 燕王 盧綰이 漢나라에 반기를 들고 匈奴로 망명한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朝鮮으로 망명하였다. 이들 가운데 衛滿이 무리 약 천 명을 이끌고 朝鮮으로 들어왔다. 準王은 그를 신임하여 博士라는 관직을 주고 서쪽 백 리 땅을 통치하게 하는 한편, 변방의 수비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衛滿은 전194년 중국 군대가 침입하여 온다는 구실을 허위로 내세우고 수도인 王儉城에 입성하여 準王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로부터 일반적으로 衛滿朝鮮이라고 부른다. 그 이전의 시대를 衛滿朝鮮이나 李氏朝鮮과 구분하기 위해 古朝鮮이라고 칭하였다(『史記』 권105 「朝鮮列傳」).

하였고, [소]월지나²²⁶⁾ 저(氐),²²⁷⁾ 강(羌)²²⁸⁾과 접해 있었다. 선우정(單于庭)²²⁹⁾은 대[군], 운중[군]을 담당하고 있었다. 각각의 영역[分地]이 있었으며, [그 범위 안에서]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좌현왕과 우현왕, 그리고 좌록리왕과 우록리왕의 영역이 가장 컸다. 좌골도후와 우골도후가 선우의 정치를 보좌했다. 여러 24명의 장들은 각자 천장(千長), 백장(百長), 십장(什長),²³⁰⁾ 비소왕(裨小王),²³¹⁾ 상봉(相封),²³²⁾ 도위(都尉), 당호

225) 上郡의 故城은 涇州 上縣 東南 50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匈奴가 서남쪽으로 綏州와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26) 『漢書』에는 “月氏”가 빠져 있는데, 이들은 匈奴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이주한 大月氏가 아니라 甘肅省에 거주하고 있었던 小月氏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27) 氐: 고대 종족의 하나로 羌과 원류가 같은 종족 또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두 종족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氐의 언어는 고대의 羌, 雜胡의 언어와 비슷하였고, 漢語도 상당부분 섞여 있다. 氐는 羊을 토켄으로 하는 羌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의 발상지는 지금의 甘肅省 남부인 武都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華夏와 가까운 관계로 氐는 과거에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殷墟 갑골문에 氐라는 글자가 나타나는데, 주로 征伐의 뜻으로 통용되었다. 이를 통해 商나라와 氐 사이에 정복전쟁이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史記』 「西南夷列傳」에 보면 “冉과 駟으로부터 동북쪽으로 군장이 열을 헤아리는데, 白馬가 가장 크며, 모두 氐의 부류이다.”라고 하였다. 『魏略』 「西戎傳」에도 “氐에는 임금에 있다.”고 했으며, 또한 “여러 부족에는 왕후가 있으며 중국의 책봉을 받는다.”고 하였다. 漢武帝 元鼎 6년(전111)에 “氐의 왕을 멸하고 罽·방의 땅을 개산군으로 하였으며 광한군 서부 및 백마 氐의 땅을 武都郡으로 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곳이 氐가 주로 사는 거주지였다. 漢武帝 元封 8년(전 108)에 氐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하였고 일부가 酒泉으로 이주되었다(馬長壽(b), 2006).

228) 羌: 서북지역의 오래 된 종족 중의 하나이다. 주로 羊을 기르기 때문에 羊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羌’이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商代부터 보인다. 甲骨文에서는 ‘羌方’이라 불렀다. 이때에 두 개의 큰 부락이 있어 北羌과 馬羌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오늘날의 陝西省 서부와 甘肅省 동부, 남부에 주로 거주하였다. 『詩經』 「商頌」에 보면 商 건국 시조인 成湯 시절에 먼 곳에 사는 氐, 羌이 굴복하여 왔다고 칭송하는 노래를 지었다. 商 말기에 周가 周原에서 일어나 발전할 때 羌은 그에 붙어 武王이 商나라를 공격할 때 군사를 보내 회맹에 참가하였다. 春秋時代에 秦나라가 陝西, 甘肅에서 발전하자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羌은 자체적으로 발전하여 越雋羌, 廣漢羌, 武都羌 등으로 불렸다. 秦나라 孝公時期에 羌은 秦나라의 위협에 굴복하였고, 秦始皇이 6국을 통일하고 蒙恬이 匈奴를 공격하고 서쪽의 여러 戎族을 압박하자 羌은 동진할 수밖에 없었다. 漢나라 초기에 匈奴의 冒頓單于가 西域을 압박하자 羌은 匈奴에 귀부하고 漢나라의 서쪽을 공격하였다. 漢나라 초기부터 甘肅, 青海 지역의 羌은 東進를 시작해 景帝시기에 隴西에 이르렀고, 武帝시기에 다시 밀려났다가 匈奴와 연합하여 河西지역을 공략하기도 했다(馬長壽(b), 2006).

229) 單于庭: 王庭(오르두)으로 單于가 머무르면서 정사를 행하던 곳이다. 匈奴 單于庭의 위치에 대해서는 주238)의 설명을 참조.

(當戶),²³³⁾ 저거(且渠)²³⁴⁾ 등의 속관을 두었다.

歲正月，諸長小會單于庭，祠。五月，大會龍城，祭其先·天地·鬼神。秋，馬肥，大會蹕林，課校人畜計。其法，拔刃尺者死，坐盜者沒入其家；有罪小者劓，大者死。獄久者不過十日，一國之囚不過數人。而單于朝出營，拜日之始生，夕拜月。其坐，長左而北鄉。日上戌己。其送死，有棺槨金銀衣裘，而無封樹喪服；近幸臣妾從死者，多至數千百人。舉事而候星月，月盛壯則攻戰，月虧則退兵。其攻戰，斬首虜賜一卮酒，而所得鹵獲因以予之，得人以為奴婢。故其戰，人人自為趣利，善為誘兵以冒敵。故其見敵則逐利，如鳥之集；其因敗，則瓦解雲散矣。戰而扶輿死者，盡得死者家財。

매년 정월²³⁵⁾에는 여러 장²³⁶⁾들이 선우정에서 작은 모임[小會]을 갖고 제사를 지냈다.²³⁷⁾

230) 遊牧民들의 군사조직은 십진법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匈奴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遊牧帝國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 호시가 匈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1) 裨小王: 匈奴의 관칭으로 漢의 裨將과 같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漢輕騎校尉郭成等逐數百里，不及，得右賢裨王十餘人.”: 2925).

232) “封”은 ‘將’과 통한다. 『漢書』에는 “封”이 없다. 相封은 원래 相邦인데, 漢 高祖 劉邦의 이름을 피해 ‘邦’을 ‘封’으로 했다고 한다. 저본에서 相과 封을 끊어 읽었는데 이는 잘못이다.

233) 當戶: 匈奴의 관칭으로 諸王이나 大臣들이 스스로 둔 속관이었다.

234) 『漢書』의 顏師古 주에서 “지금의 沮渠氏는 대개 이 관직 명칭에서 연유된 성씨이다(今之沮渠姓，蓋本因此官).”라고 하였다.

235) 漢初에는 周나라의 역법에 따라 시월을 한 해의 첫 달로 했다. 하지만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夏나라의 역법으로 바꾸면서 正月을 첫 달로 삼았다. 司馬遷은 太初曆의 개정에 참가한 이후에 『史記』를 지었는데, 匈奴의 정확한 역법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꾼 역법에 기초해 기록했다는 점에서 歲正月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36) 諸長: 左賢王 이하 24長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219) 참조)

237) 겨울철에 모임을 갖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모피 내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냥 모임이란 이유 이외에 달리 까닭을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초원의 겨울은 길고 추위 모임을 갖기 좋은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正月에 單于庭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匈奴 고유의 것이 아니라 中國의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는 이 집회의 성격이 원래 單于의 일족인 攣鞮氏 또는 그 씨족의 祭儀였으나 국가 성립 이후 匈奴의 장들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성격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江上波夫, 1948: 250~252). 한편, 겨울철의 大狩獵祭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으로 보아 祭天의

오월에는 농성(龍城)²³⁸)에서 큰 모임[大會]을 갖고 그들의 조상, 하늘과 땅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가을이 되어 말이 살찔 무렵에는 대림(躡林)²³⁹)에서 큰 모임을 열어 백성과

의미보다는 部族이나 국가의 통합을 위한 동맹의 확인 또 충성의 상징을 보이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집단 물이사냥을 통한 군사적 의미에 더 초점을 두기도 한다(박원길, 2001: 23~24).

238) 龍城: 單于가 머무는 곳이기도 하면서 祭天儀式을 거행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龍城에서 벌어지는 제천 행사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몽골 초원 유목민들이 오월 초원의 풀이 푸르러지고 말 젖으로 만든 술이 익는 풍요로운 계절(여름의 시작)에 벌이는 春祭였다. 이후 몽골시대에 보이는 쿠릴타이와 같은 정치·종교적 행사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되기도 했다. 따라서 龍城의 의미와 위치, 정치적 비중, 종교적 성격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의미와 위치에 관련하여 『史記』에 기록된 龍城의 龍이 『漢書』「嚴安傳」에 “深入匈奴, 燔其龍城”이라고 된 것에 대해 顏師古가 “燔燒也. 龍城匈奴祭天處.”라고 주를 단 것을 기초로 자연 상태의 나무나 목조로 된 제단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江上波夫, 1948: 237~8). 그의 입장을 이어 龍城이 오늘날 몽골의 신앙 대상인 오보(Ovoo)라고 주장하기도 했다(護雅夫, 1967: 89~190; 後藤富男, 1956: 65). 그와 달리 성체와 같은 실체가 있는 건물로 政治·軍事·宗教의 중심이라고 보기도 했다(內田吟風, 1975: 60~64). 이것은 “龍城”이 문헌에 따라 “龍城”(『史記』「匈奴傳」), “龍城”(『漢書』「匈奴傳」, 『鹽鐵論』), “籠城”(『漢書』「衛青傳」) 등으로 달리 표기되고, 또한 경우에 따라 “單于庭”(『史記』와 『漢書』), “龍祠”(『後漢書』「南匈奴傳」), “朝會”(『漢書』「西域傳」), “龍庭”(『後漢書』「竇憲傳」), “庭會”(『後漢書』「南匈奴傳」) 등의 표현이 龍城과 같이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용례를 통해 그 의미가 單于가 있는 單于庭(오르두)을 의미하는 것이고, 龍이 그와 음이 유사하고 뜻이 부합하는 龍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하고, 그 어원을 單于의 씨족인 蠻鞬의 祭로 이해하기도 했다(박원길, 2001: 27~28). 한편 龍城의 의식이 갖는 성격에 대해서는 祭天儀式 이외에도 합의를 이루는 會議體로서의 정치적인 성격을 부여하기도 했다(箭內互, 1930: 367). 따라서 龍城의 위치를 單于庭이 위치한 곳과 연결 지어 漠南에 匈奴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을 때에는 현재 內蒙古自治區 呼和浩特市 주변(『史記』 권110 「匈奴傳」) 또는 그들이 밀려 올라가 漠北에 머무를 때에는 몽골공화국 오르곤강 주변(『雙溪醉隱集』 “龍庭, 和林西北地”)에 있는 호쇼 차이담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馬長壽(a), 2006: 24). 『漢書』에는 ‘籠城’으로 되어 있다.

239) 躡林: 匈奴가 제전을 벌이기 위해 벌이는 장소 내지는 행사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이에 대해 자료 부족으로 시기, 장소, 행사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먼저, 躡林이 벌어지는 시기가 단순하게 가을[秋]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타 기록을 통해 팔월 말에서 구월 초, 즉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 다시 말해 冬營地로 이동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행사가 벌어진 장소로서 躡林에 대해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있다. 먼저 顏師古는 “나무로 둘러싸고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른 한편에서 服虔은 지명으로 보아 “삼림으로 둘러싸여진 곳”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런 차이로 인해 躡林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었다. 먼저, 전자의 연장선 상에서 龍城에서 이 행사가 벌어지고 躡林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祭祀儀式으로 자연 상태나 인공 상태로 세운 나무(몽골의 오보와 비슷하게 생긴 것) 주변을 도는 의식으로 이해했다(江上波夫, 1948: 249; 護雅夫, 1967: 190). 그와 달리 單于庭에서 벌어지는 행사의 다른 명칭에 불과하고 그곳으로

가축의 숫자를 헤아렸다.²⁴⁰⁾ 그의 법에 따르면, 칼을 한 자 이상 칼집에서 뽑는 자는 사형에 처하며,²⁴¹⁾ 도둑질한 자는 그 집안[의 재산]²⁴²⁾을 몰수했다. 가벼운 범죄자는 알형(輒刑)²⁴³⁾에 처하며 큰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은 길어도 열흘을 넘지 않으니 죄수는 전국을 통틀어도 몇 명이 되지 않았다.²⁴⁴⁾ 그리고 선우는 아침 천막에서 나와 해가 뜨는 [동쪽을 보고] 절하고,²⁴⁵⁾ 저녁에는 달을 보고 절했다. 좌석은 왼쪽을 중요하게 여겼고 북쪽을 향하였다.²⁴⁶⁾ [열흘마다 돌아오는 십간(十干) 중에서 제5일째의] 무일(戊日)과

가는 것을 묘사한 것이 蹠林이라고 설명하는 입장도 있었다(內田吟風, 1975: 244). 물론 전자와 관련해 蹠林을 구체적 지명이 아니라 단순한 숲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林幹, 1986: 34), 그 祭儀의 형식이 神樹의 주변을 도는 의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즉 祭儀가 북아시아 유목민들의 神樹 숭배와 관련된 샤머니즘의 성격을 띤 것이라는 이해가 이와 관련되었다. 반면 蹠林을 실재하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이해하고 그 위치를 음의 유사성에 근거해 單于庭이 위치한 호쇼 차이담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타미르강이라고 비정하기도 했다(馬長壽(a), 2006: 24)

240) 人口와 家畜의 숫자를 따져 單于나 王長 등에게 바칠 賦稅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匈奴의 賦稅가 어떠한가 하는 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후대에 등장하는 유목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징수체계와 비슷하게 人頭稅와 가축에 대한 貢納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241) “拔刀尺者死”라고 기록된 내용은 평상시에 칼을 1척 이상 뽑는 것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전쟁에 사용하는 신성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사와다, 2007: 128).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혹 이것을 “칼을 뽑아 남을 상하게 한 것이 1尺이 되면 사형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242) 여타 북방 유목민들의 습속에 따르면 도둑질을 한 경우 재물을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상과 같은 번역이 가능하다.

243) 輒刑: 『漢書音義』에 따르면 “칼로 죄인의 얼굴을 새기는 형벌”이고, 또는 顏師古에 따르면 “죄인의 몸에 수레바퀴가 지나가게 하는 형벌”이라는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이 중에서 戰士의 능력을 없앤다는 점에서 발의 복사뼈를 수레바퀴로 치어 부수는 형벌이라는 설명이 더 맞을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전투력을 중시하는 유목사회에서 발을 못 쓰게 될 경우 보다 치명적인 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사와다, 2007: 128). 그리고, 고대 유목민의 장례 풍습에는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얼굴을 칼로 자해하는 습속이 있었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44) 위와 같은 내용은 『鹽鐵論』의 기록(「論功篇」: 356) “匈奴……法約而易辨, 求寡而易供, 是以省刑而不犯, 指麾而令從.”에서도 확인된다.

245) 匈奴는 동쪽을 앞쪽으로 삼고 이를 신성하게 여겼다. 이런 관습은 이후 突厥 등의 그것과 비슷하나 남쪽을 앞으로 생각하는 몽골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종족 간의 풍습 차이를 알 수 있다.

246) 單于의 자리는 천막 안에서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그의 왼쪽에 앉았다. 이런 배치는 왼쪽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匈奴의 관계에도 반영되어 차기 계승자에게

[제6일째의] 기일(己日)을 길일(吉日)로 쳤다.²⁴⁷⁾ 장례를 치를 때 관(棺), 곽(槨)에다 금은이나 옷가지와 갓옷(裘)²⁴⁸⁾ 등을 부장품으로 넣었으며,²⁴⁹⁾ [무덤²⁵⁰⁾에] 봉분을 하거나 나무를 심지 않았고 상복(喪服)도 입지 않았다.²⁵¹⁾ [군주가 죽으면] 측근 신하나 애첩이 따라 죽었는데[從死],²⁵²⁾ 많으면 수천, 수백 명에 이르렀다.²⁵³⁾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항상 별²⁵⁴⁾과 달의

左賢王의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늘 왼쪽이 우선적이었다. 이후 突厥시대에도 游牧君主가 거주하는 천막 내의 자리 배치의 경우 君主의 子弟들을 왼쪽에, 그리고 異姓의 貴族이나 官吏들이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배치는 匈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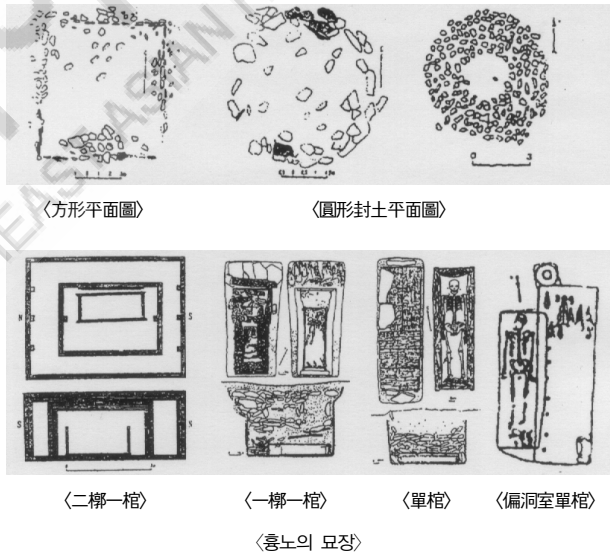
247) 이런 기록을 통해 匈奴가 열흘 단위의 태양력에 기초한 달력을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戊’와 ‘己’는 五行에서 土에 해당하는 방위로 ‘중양’이며 ‘행운’과 ‘축복’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네 방위에서 종족을 통치하는 권력을 나타낸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中國의인 이해가 匈奴의 그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 분명하지 않아 논쟁거리이다.

248) 『漢書』에는 “衣裳”으로 되어 있다.

249)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에 따르면, 匈奴시대의 묘에 부장되는 물품은 희생해 순장하는 가축(말, 소, 양 등)과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陶器, 금은과 같은 귀금속제품과 옥석장식품, 골제품, 칠기목제품, 비단 등) 등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馬利清, 2005: 72~92).

250) 匈奴는 무덤을 “冢落”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251) 20세기 이후 內蒙古와 몽골공화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고고 발굴 성과에 따르면, 匈奴 墳墓는 다양한 형식을 갖고 있었다. 주로 중국 북방에서 발견된 소형의 匈奴 무덤은 木棺을 넣은 장방 豎穴墳으로 지면에는 별다른 표지가 없다. 반면, 몽골공화국 내지는 바이칼 지역에서 발견된 대형의 匈奴 무덤에는 지면에 원형의 돌무지와 무덤의 네 주변에 돌무더기가 있고, 안으로는 장방형의 豎穴墳 안에 棺과 槨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內蒙古와 달리 지금 몽골공화국의 초원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匈奴의 분묘는 司馬遷의 기록과 달리 封墳이 있다(田廣金·郭素新, 2005: 474~477). 오른쪽의 그림처럼 방형과 원형의 봉토분이 있고, 내부에는 곽과 관이 다양하게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일반 평민의 무덤으로 보이는 것에는 石棺, 囊棺, 天葬 등의 다양한 형식이 발굴되기도 했다.



상태를 살폈다. 달이 차면 공격해 싸우고 달이 기울면 군대를 물렸다.²⁵⁵⁾ 전투를 벌여 목을 베거나 [산 채로] 포로를 잡으면 상으로 한 잔의 술을 내렸고, 노획품은 그대로 본인이 갖도록 하였다.²⁵⁶⁾ 포로는 잡은 자의 노비가 되었다.²⁵⁷⁾ 그러므로 전투 때에 사람들은 제 이익을 위해 달려 나갔는데, 군대를 유인하여 적을 덫치는²⁵⁸⁾ 것을 잘하였다. 그 까닭에 적을 발견하면 이익을 쫓는 것같이 새떼처럼 모여들었고 어려워 도망갈 때는 구름처럼 스러져 흩어졌다.²⁵⁹⁾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을 거두어 돌아오면,²⁶⁰⁾ 그 죽은 사람의 집과 재물[家財]을 모두

252) 匈奴의 장례 풍속은 유라시아 초원에서 살았던 여타 유목민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먼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기간 동안 스스로 얼굴에 칼로 상처를 내서 피와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하는 풍습인 齧面이 있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이마에 산 자의 피를 뿌려 죽은 자와 산 자가 일체화됨으로써 그를 소생시키려는 바람을 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죽은 자와 관계 있는 사람을 殉葬하는데,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축을 함께 묻거나 산 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무덤에 넣는 剪髮의 풍습이 더욱 보편적이었다. 이것은 몸의 일부를 매장하여 의례의 간편화를 도모하며 죽은 자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 殉死를 형식화함으로써 남겨진 사람들의 희생을 막고 나아가 노동력과 전투력을 보존하려는 것에도 관련되었다(사와다, 2007: 126~7).

253) 『史記』의 “多至數千百人”이라는 기록은 『漢書』 권94 「匈奴傳」에 “多至數十百人”으로 다르게 나온다. 또한 기존의 匈奴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와 顏師古의 주석(〔顏〕師古曰: “或數十人, 或百人.”)에 따라 ‘千’은 ‘十’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54) 『漢書』에는 “星”이 없다.

255) 초원 유목민에게는 역법이 발달하지 않아 달이 차는 것을 기다려 공격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것은 이후 突厥도 비슷하다(『隋書』 권84 「突厥傳」: 1864, “候月將滿, 輒爲寇抄”).

256) 일반적으로 遊牧民들은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재화를 약탈한 본인이 모두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목 군주 역시 약탈한 재화를 部落民들에게 다시 惠施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고 했다. 이것은 초기에 遊牧君主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국가가 발전하고 중국과 관계를 맺게 되면 遠征보다는 協商과 交易을 통해 물자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배분함으로써 군장에 대한 부락민들의 경제적 예측관계를 강화하려고 했다. 이상과 같이 약탈물의 획득과 분배가 부락민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초기 국가 건설 시기 부족 통합 과정에서 君主權의 強化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김호동, 1993: 152).

257) 匈奴에 존재하고 있었던 한인 노예는 전쟁으로 인해 文帝시대부터 昭帝시대까지 匈奴에 잡혀 간 포로의 숫자가 약 10만 정도 된다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기록은 약탈전쟁의 성격이 재화와 人口의 약탈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王慶憲, 2005: 47~52).

258) 冒: “덫치다”, “갑자기 공격하다”는 의미이다. 『漢書』에는 “包”로 되어 있다.

259) 이런 기록과 관련하여 『鹽鐵論』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다(「備胡篇」: 280~281, “匈奴不變業, 而中國已騷動矣. 風合而雲解, 就之則亡, 擊之則散, 未可一世而舉也.”). 이렇게 중국인들은 匈奴와 같은 유목민들이

갖게 했다.

後北服渾庾·屈射·丁零·鬲昆·薪犁之國。於是匈奴貴人大臣皆服，以冒頓單于爲賢。

그 후 [목특선우는] 북방으로 혼유(渾庾),²⁶¹⁾ 굴역(屈射),²⁶²⁾ 정령(丁零),²⁶³⁾ 격곤(鬲昆),²⁶⁴⁾ 신리(薪犁)²⁶⁵⁾ 등의 [다섯] 나라[國]²⁶⁶⁾를 복속시켰다.²⁶⁷⁾ 이에 흉노의 귀인(貴人)과 대신(大臣)들이 모두 [그에게] 감복하여 목특선우를 어질다고[賢] 하였다.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유목민들이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주36) 참조).

260) 『漢書』에는 “輿”가 “輿”로 되어 있다.

261) 渾庾: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몽골공화국 북방 시베리아 오브강과 쉘렝계강 주변에 거주했다. 匈奴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漢書』에는 “渾窳”로 되어 있다.

262) 屈射: 음은 ‘굴역’ 또는 ‘굴석’이다(『史記索隱』: “國名, 射音亦, 又音石.”).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주로 몽골공화국 북방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동쪽 지역에 거주했다.

263) 丁零: 고대 종족의 명칭이다. 이후 丁令, 狄曆, 敕勒, 鐵勒 등으로 기록된 것과 동일한 투르크계 집단으로 추정된다. 사서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기도 했는데, 魏에서는 이들이 바퀴가 큰 수레를 탄다고 해서 ‘高車’라 부르기도 했다. 주로 몽골공화국 북방 바이칼 호수에서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몽골 초원 등지에 광범위하게 거주하면서 아주 다양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段連勤, 1988: 80). 匈奴시대 존재했던 다른 유목민 집단인 康居의 북쪽에 거주했다.

264) 鬲昆: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몽골공화국의 사얀산맥 북쪽 시베리아 예니세이강 상류지역에 거주했다. 『漢書』에는 “鬲昆”이라고 되어 있다. 그 이후 堅昆으로, 唐代에는 黠戛斯로 불렸다.

265) 薪犁: 고대 종족의 명칭이다. 몽골 초원의 북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소재지는 알 수 없다. 『漢書』에는 “新犁”로 되어 있다.

266) 國: 일반적으로는 ‘나라’로 번역되나, 어떤 구체적인 정치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부족 내지는 하나의 종족집단을 의미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방민족에 대한 기록에서 國 내지는 部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突厥에서는 이것을 일(yl) 또는 엘(el)이라고 했고, 몽골에서는 이것을 울루스(ulus)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층차의 단위가 모두 포함된다(丁載勳, 2003: 332).

267) 丁零 이외에도 屈射, 渾庾, 鬲昆, 薪犁 등의 종족이 匈奴의 북쪽에 거주했다.

是時漢初定中國，徙韓王信於代，都馬邑。匈奴大攻圍馬邑，韓王信降匈奴。匈奴得信，因引兵南踰句注，攻太原，至晉陽下。高帝自將兵往擊之。會冬大寒雨雪，卒之墮指者十二三，於是冒頓詳敗走，誘漢兵。漢兵逐擊冒頓，冒頓匿其精兵，見其羸弱，於是漢悉兵，多步兵，三十二萬，北逐之。高帝先至平城，步兵未盡到，冒頓縱精兵四十萬騎圍高帝於白登，七日，漢兵中外不得相救餉。匈奴騎，其西方盡白馬，東方盡青驄馬，北方盡烏驪馬，南方盡騂馬。高帝乃使使閒厚遺閼氏，閼氏乃謂冒頓曰：“兩主不相困。今得漢地，而單于終非能居之也。且漢王亦有神，單于察之。”冒頓與韓王信之將王黃·趙利期，而黃·利兵又不來，疑其與漢有謀，亦取閼氏之言，乃解圍之一角。於是高帝令士皆持滿傳矢外鄉，從解角直出，竟與大軍合，而冒頓遂引兵而去。漢亦引兵而罷，使劉敬結和親之約。

이 무렵²⁶⁸ 한나라가 중국을 평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²⁶⁹ 한왕(韓王) 신(信)²⁷⁰을 대군]으

268) 匈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점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匈奴의 冒頓單于가 동쪽으로 東胡와 서쪽으로 月氏를 격파한 다음 남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이다. 즉, 전204년에서 전203년경으로 추정된다.

269) 이 시점은 高祖 5年(전202) 십이월에 項羽가 垓下에서 죽은 다음 正月에 諸侯와 將相들이 모두 漢王을 皇帝로 추대하자 이월 甲午(初3日)에 劉邦이 汜水의 북쪽에서 皇帝에 즉위한 때를 말한다.

270) 韓王 信(?~전196년): 본래 韓 襄王 서얼의 손자로, 키가 여덟 자 다섯 치나 되었다. 項梁이 楚의 후손인 襄王을 세웠을 즈음에 燕, 齊, 趙, 魏에 과거의 왕을 다시 왕으로 봉하였다. 하지만 오직 韓나라만이 후사가 없어 왕을 세울 수가 없었다. 橫陽君 成을 만나 韓王으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項梁이 定陶(山東省)에서 패전해 죽었다. 이후 劉邦이 군사를 이끌고 와 陽城(河南省 登封縣)을 치고 張良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진무케 할 때 信이 張良을 만나 그에 투항했다. 信은 그의 병사들을 데리고 劉邦을 따라 武關(陝西省 商縣)으로 들어갔다. 劉邦이 자립하여 漢王이 되자 漢中으로 들어갔다. 三秦을 평정하자 信은 韓의 太尉가 되어 옛 땅을 공략하고 韓王이 되었다. 그는 이후 楚나라의 습격을 받고 항복했다가 나중에 도망하여 다시 漢나라로 돌아갔다. 劉邦은 다시 그를 세워 韓王으로 봉했고, 결국 項羽를 격파해 천하를 평정하는 데 공헌했다. 高祖는 割符를 갈라 信을 정식으로 韓王에 봉하고 潁川(河南省)에 도읍하게 했다. 이후 太原 일대의 왕으로 삼아 북방에 대비하게 하면서 晉陽에 도읍하게 했다. 이후 도읍을 馬邑으로 옮겨 갔는데, 그 해 가을 匈奴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그는 高祖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匈奴에 투항해 太原을 공격했다. 그 이후 직접 원정을 지휘한 高祖가 白登山에서 패배하자 匈奴를 위해 변경을 왕래하면서 漢나라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또한 王黃 등을 시켜 漢나라의 陳豨를 설득해

로 옮겨 마읍(馬邑)²⁷¹⁾에 도읍하게 했다. [그런데] 흉노가 크게 공격해 마음을 포위하자 한왕 신이 흉노에게 투항하였다.²⁷²⁾ 흉노는 [한왕] 신을 잡자 이를 기회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구주[산](句注山)²⁷³⁾을 넘어 태원[군](太原郡)²⁷⁴⁾을 공격해 진양[성](晉陽城) 밑까지 왔다. [한나라의] 고제(高帝)²⁷⁵⁾가 손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자 했다. 때마침²⁷⁶⁾ 겨울이라 아주 춥고 눈까지 내려 병사들이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는 자가 열 명 중에 두세 명 되자 이에 목특이 [이런 사정을 간파하고] 저서 도망가는 척하면서²⁷⁷⁾ 속여 한나라의 군대를 유인했다. 한나라의 군대가 목특을 추격해 오자 목특은 그의 정예부대를 감추어 두고 [그 중에서] 노약한 [병사들을] 드러나 보이게 하였다. 이에 한나라는 모든 군대를 모아 대부분 보병으로서 32만이었는데, 북으로 [흉노 군대를] 추격했다. 고조가 먼저 평성(平城)²⁷⁸⁾에 도착하였는데, 보병들이 아직 모두 도착하지 못하자 [이에] 목특이 정예병 40만 기(騎)를 풀어 고조를 백등(白登)[산]²⁷⁹⁾에서 에워쌌고, 이레 동안 한나라 군대는 [포위망의] 안팎에서

漢나라에 모반하도록 했다가 실패했다. 高祖 11년(전196) 三畝(山西省 陽高縣)에서 匈奴의 기병과 함께 漢나라에 저항하다가 죽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가 漢나라로 항복해 돌아와서 侯로 봉해졌다(『史記』 권93 「韓信盧縮列傳」: 2631~2636).

271) 馬邑: 縣 명칭으로 지금의 山西省 朔縣이다.

272) 이 사건은 漢 高祖 6년(전203) 구월의 일이다.

273) 句注: 雁門山을 지칭한다(주126) 참조.

274) 太原: 郡 명칭으로 秦나라 莊襄王 4년(전246)에 설치되었다. 治所는 晉陽(지금의 太原市 서남쪽)이었다. 관할구역은 지금 山西省 五臺山과 管涔山 이남, 霍山 이북이다. 前漢시대 이후에 축소되어 文帝시대에는 國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郡이 되었다.

275) 高帝(재위 전202~전195): 漢나라를 건국한 劉邦(전256~전195)의 시호로 廟號는 高祖이고 高皇帝라고도 칭해진다. 진나라 말기 泗水 沛縣(지금의 江蘇省 지역) 사람이다. 字는 季이다. 일찍이 亭長을 맡았다. 秦 二世皇帝 元年(전209)에 陳勝 吳廣의 봉기에 호응하여 沛公이라고 칭하였다. 項羽가 秦나라의 주력부대와 대결을 벌일 때 潁川, 南陽을 거쳐 關中으로 들어갔다. 전206년에 咸陽을 함락시키고 진나라의 법을 폐지하고 關中의 父老와 法三章을 약속하였다. 이후에 項羽가 입관하자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복속되어 그로부터 漢王의 칭호를 얻고 漢中으로 들어갔다. 이후 項羽와 4년간의 대결을 벌여 垓河에서 격파하고 칭제하였다. 한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長安에 세웠다. 건국 이후에는 제도를 완비하고 전후의 사회적 안정을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異姓 諸侯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76) 漢 高祖 7년(전204) 冬 시월의 일이다.

277) 『漢書』에는 “詳”이 “陽”으로 되어 있는데, ‘詳’은 ‘佯’과 통하기 때문에 양으로 읽을 수 있어 『漢書』에 ‘陽’으로 되어 있다. (주35) 참조

278) 平城: 縣 명칭으로 지금의 山西省 大同市 동북쪽에 있었다.

서로 구원하거나 식량을 보급할 수가 없었다. 흉노의 기병들은 서쪽 부대가 모두 흰색 말[白馬], 동쪽 부대가 모두 푸른색 말[靑驄馬],²⁸⁰⁾ 북쪽 부대가 모두 검정색 말[烏驪馬],²⁸¹⁾ 남쪽 부대가 모두 적황색 말[驃馬]²⁸²⁾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조는 사신을 몰래 보내 연지에게 후한 선물을 주었다. 연지가 이에 묵특에게 말하였다. “두 나라 임금이 서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라 땅을 얻는다 해도 선우께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한나라 왕에게 신비한 [힘]이 있을지 모르니 선우께서는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마침] 묵특은 한왕 신의 장군 왕황(王黃)²⁸³⁾과 조리(趙利)²⁸⁴⁾와 [함께 공격하기로 미리] 약속하였는데, 기일이 되어도 [왕]황과 [조]리의 군대 또한²⁸⁵⁾ 오지 않자 그들이 한나라와 음모를 [획책했을까] 의심하여, 연지의 말대로 포위망의 한쪽을 풀어 주었다.²⁸⁶⁾ 이에 고조

279) 白登山: 산 명칭으로 지금의 山西省 大同市 동쪽, 즉 과거 平城 동남쪽에 17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다. 그 위에 白登臺가 있었다. 顏師古는 平城에서 10여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

280) 靑驄馬: 푸른색의 말을 뜻한다. ‘驄’은 ‘얼굴과 이마가 흰 푸른말’, 또는 ‘얼굴이 흰 검은말’ 등을 뜻하기도 한다. 『漢書』에는 “驄”로 줄여 기록되어 있다.

281) 烏驪馬: 검정색의 말을 뜻한다. 『漢書』에는 ‘驪’로 되어 있다.

282) 驃馬: 적황색의 말을 뜻한다. 顏師古는 赤馬로 설명하였다.

283) 王黃: 匈奴 사람으로 韓王 信의 부장이었다. 이후에 韓王 信이 匈奴에 투항하자 趙利를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284) 趙利: 戰國時代 趙나라의 후예로 韓王 信이 匈奴에 도망가자 曼丘臣과 王黃 등에게 추대되어 왕이 되었다(『史記』 권93 「韓信盧綰列傳」: 2633).

285) 『史記』의 원문은 “又”이나, 이를 “久”로 쓴 『漢書』가 그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286) 韓信列傳에는 匈奴와 漢나라의 전투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 해(전203년)] 가을에 匈奴 冒頓[單于]가 대대적인 작전으로 [韓]信을 에워쌌다. [韓]信은 여러 번 사자를 보내 匈奴와 화친을 구하였다. 한나라에서 군대를 보내 구원하였으나 [韓]信이 여러 차례 사자를 [匈奴에] 보낸 것이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의심하여 사람을 시켜 [韓]信을 꾸짖었다. [韓]信이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여 匈奴와 함께 한나라를 공격할 것을 약속하고 반란을 일으켜 馬邑를 가진 채 匈奴에 항복하고 太原을 공격했다. [高祖] 7년(전200) 겨울에 황제가 직접 가서 공격을 하여 [韓]信의 군대를 銅鞮에서 격파하고 그의 部將 王喜를 베자 [韓]信이 匈奴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의 장수인 白土 출신인 曼丘臣과 王黃 등이 이 때 趙나라 [후예] 趙利를 세워 王으로 삼고 [韓]信의 패잔병까지 긁어모은 다음 [韓]信, 冒頓[單于]와 모의하여 漢나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匈奴는 左賢王과 右賢王에게 기병 만여 명을 주어 王黃 등과 함께 廣武에 진을 치게 한 뒤 남하하여 晉陽에 와서 漢나라 군대와 싸웠다. 그러나 오히려 匈奴軍이 크게 패해 離石까지 추격당해 다시 격파 당했다. 匈奴는 다시 樓煩 서북쪽에서 군사를 정비하니 漢나라에서 車騎將軍이 와서 匈奴를 격파하였다. 匈奴가 늘 패해 달아나

는 병사들에게 명하여 모두 활시위를 한껏 당긴 채 화살을 메겨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여²⁸⁷⁾ 포위가 풀린 쪽으로 바로 도망쳐 나가 마침내 자신의 대군과 만나게 되자 목특도 바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한나라 [고조] 역시 군대를 이끌어 물러나면서 유경(劉敬)²⁸⁸⁾을 시켜 화친조약을 맺도록 했다.²⁸⁹⁾

자 漢나라 군대는 승세를 타 북으로 추격하여 冒頓[單于]가 代의 [上]谷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高祖가 晉陽에 있다가 사람을 시켜 冒頓[單于]를 살피게 하니 돌아와 보고하여 말하였다.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마침내 平城에 도착했다. 황제가 白登山으로 나아가자 匈奴의 기병들이 상을 에워쌌는데, 황제가 바로 사람을 시켜 關氏에게 사람을 시켜 후한 선물을 주었다. 이에 關氏가 冒頓[單于]를 설득하여 말하였다. “지금 한나라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서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양국의 군주가 서로 괴롭혀야 될 까닭도 없습니다.” 이레를 머물다가 匈奴의 기병이 점차 물러나 갔다. 이 때 하늘에서 짙은 안개가 내려오니 한나라 사신이 갔다 왔다 해도 匈奴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護軍中尉 陳平을 황제에게 말하였다. “匈奴는 화살을 쏘는 부대이니 強弓에 화살 두 개씩을 장치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천천히 가면 포위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평성에 들어갔을 때 한나라 구원 부대가 또한 도착하니 흉노의 기병이 [포위를] 풀고 갔다. 한나라 역시 군대를 물려 돌아왔다. 韓信이 匈奴를 위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을 공격하였다(『史記』 권93 『韓信盧縮列傳』: 2633~2634).

이와 동일한 내용은 『史記』의 기록(권93 『韓信盧縮列傳』 “護軍中尉陳平言上曰 胡者全兵, 請令彊弩傳兩矢外鄉, 徐行出圍.”: 2634)과 『漢書』의 기록(권41 『樊鄴滕灌傳斬周傳』 “高帝出欲馳, 嬰固徐行, 弩皆持滿外鄉, 卒以得脫.”: 2078)에도 나온다.

287) 『漢書』에서 顏師古는 ‘傳’를 ‘附’로, ‘鄉’을 ‘嚮’으로 읽어 활시위를 한껏 당긴 채 화살을 메겨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여 포위가 풀린 쪽으로 바로 도망쳐 나아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288) 劉敬: 齊나라 사람으로 원래의 성이 婁氏였는데, 劉氏 성을 받아 劉敬이 되었다. 漢나라 高祖 5년(전202)에 隴西의 수비병으로 가다가 劉邦을 만나 郎中에 임명되었고 奉春君이라 불렸다. 高祖가 匈奴를 공격할 때 정확한 걱정 분석과 조언으로 중용되었다. 高祖가 白登山에서 겨우 돌아온 이후 封領으로 2천 호를 덧붙여 關內侯에 봉해지고 建信侯라 불렸다. 그리고 匈奴에 대한 和親政策을 주청하고 匈奴에 가서 조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돌아와 과거 戰國時代의 貴族들을 제압하기 위해 10만여 명을 關中에 徙民하게 하도록 하는 등 強幹弱枝政策을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史記』 권99 『劉敬叔孫通列傳』: 2715~2720).

289) 公主를 匈奴에 시집보냄으로써 그와 화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劉敬列傳』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황제가 걱정을 하여 劉敬에게 물었다. 劉敬이 대답하였다. “천하가 안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졸들이 전투에 지쳐 있어 다시 무력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冒頓[선우]가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즉위하여 여러 계모들을 처로 삼고 힘으로서 누른 것은 仁義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 자손을 신하로 만들 수 있는 계책이 있으나 아마도 폐하께서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잘

是後韓王信爲匈奴將，及趙利·王黃等數倍約，侵盜代·雲中。居無幾何，陳豨反，又與韓信合謀擊代。漢使樊噲往擊之，復拔代·鴈門·雲中郡縣，不出塞。是時匈奴以漢將衆往降，故冒頓常往來侵盜代地。於是漢患之，高帝乃使劉敬奉宗室女公主爲單于閼氏，歲奉匈奴絮繒酒米食物各有數，約爲昆弟以和親，冒頓乃少止。後燕王盧綰反，率其黨數千人降匈奴，往來苦上谷以東。

그 뒤에 한왕 신이 흉노의 장군이 되었고, 조리, 왕황 등이 자주 [화친] 약속을 깨고 대[군], 운중[군]²⁹⁰⁾을 침입해 노략질해 갔다. 얼마 안 되어 [한나라의] 진희(陳豨)²⁹¹⁾가 모반해 또 한신과 같이 모의하여 대[군]을 공격했다. 한나라에서는 번쾌(樊噲)²⁹²⁾를 시켜 이들을 치도록

할 수 있다. 어찌 할 수 없겠는가! 무슨 계획인가?” 劉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폐하께서 정말로 嫡出 중에서 큰 公主를 시집보내는데, 후하게 만들어 보낸다면 그들이 한나라 적출 공주가 후하게 보내져 온 것을 알고 오랑캐들은 반드시 만들어 閼氏로 삼을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태자가 되어 單于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匈奴가] 한나라의 푸짐한 선물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폐하가 매년 한나라에서 남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을 문안 편지와 함께 보내고 그와 함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 예절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冒頓[單于]가 있는 동안은 사위가 되고, 죽으면 외손자가 單于가 되는 것입니다. 외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예를 거스르는 것을 일찍이 들어본 바 없습니다. 병사들이 싸우지 않고도 [匈奴를] 점차 신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큰 공주를 보내지 못하시겠다고 宗室 내지는 後宮의 [딸을] 공주라고 속여 보냈는데, 그들이 알게 되면 귀하고 살갑게 대하지 않을 것이니 효과가 없습니다.” 高帝가 말하였다. “좋다.” 큰 공주를 보내려고 하였다. 呂后가 낮밤을 울면서 말하였다. “첩에게는 태자와 하나의 딸만 있는데, 어찌하여 匈奴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마침내 공주를 보낼 수 없게 되자 서민의 딸을 골라 큰 공주라고 하여 單于에게 시집보냈다. 劉敬을 사자로 보내 화친을 맺고 결혼을 약속하게 하였다(『史記』 권99 「劉敬叔孫通列傳」: 2719).

290) 『漢書』에는 代[郡] 뒤에 “鴈門”이 들어가 있다. 代, 鴈門, 雲中 등의 郡은 과거 趙나라의 武靈王이 북쪽으로 林胡와 樓煩을 격파하고 長城을 구축한 다음에 설치한 것이었다(주154, 주155, 주156) 참조.

291) 陳豨: 지금의 山東省 曹縣 서북쪽에 위치한 宛朐 사람이다. 처음에 高祖를 어떻게 따라다니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漢 高祖 7년(전200)에 漢王 信이 匈奴에 투항한 것을 정벌하기 위해 高祖가 원정을 하였을 때 列侯가 되었다. 그리고 趙나라 相國의 신분으로 병졸을 거느리고 代를 수비하다가 전197년 匈奴와 결탁하였다. 그 다음 漢나라를 배반하고 스스로 代王이라고 하였다. 이후 高祖 12년(전195)에 樊噲의 공격을 받아 패배해 靈丘(山西省 靈丘縣 동쪽)에서 죽임을 당하였다(『史記』 권93 「韓信盧綰列傳」: 2639~2641).

292) 樊噲(?~ 전189): 沛縣(지금의 江蘇省 沛縣) 사람으로 젊어 개백정이었다. 신분이 미천했으나 劉邦을

하여 대[군], 안문[군], 운중[군] 등의 군현을 다시 뺐었으나 [국경의] 요새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이 무렵 한나라 장수들이 많이 흉노로 가서 투항하였다.²⁹³⁾ 그래서 [교만해진] 목특이 늘 대[군]의 땅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한나라에서 이를 근심스럽게 여겨 고조가²⁹⁴⁾ 유경으로 하여금 종실의 딸을 공주²⁹⁵⁾라 하여 모셔 가게 해 선우의 연지로 삼게 했고, 해마다 흉노에게 명주솜, 견직물, 술, 곡물[米]쌀²⁹⁶⁾과 식품 등을 일정량 주고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면서 화친을 맺자, 목특이 이에 [공세를] 약간 멈추었다. [그렇지만] 이후에 연왕 노관(盧綰)²⁹⁷⁾이 반란을 일으켜 그의 무리 수천 명을²⁹⁸⁾ 이끌고 흉노에게 투항해 갔다가 상곡[군]의 동쪽을 드나들면서 [한나라를] 괴롭혔다.

高祖崩，孝惠·呂太后時，漢初定，故匈奴以驕。冒頓乃爲書遺高后，妄言。高后欲擊之，諸將曰：「以高帝賢武，然尚困於平城。」於是高后乃止，復與匈奴和親。

고조가 붕어하고²⁹⁹⁾ 효혜제(孝惠帝),³⁰⁰⁾ 여태후(呂太后)³⁰¹⁾의 시대가 되었으나 한나라는

따라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楚漢전쟁에 참가해 鴻門之會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劉邦을 위기에서 구출하였다. 그는 劉邦이 漢王이 된 이후 列侯, 郎中으로 三秦의 토벌을 맡았다. 즉위 이후에는 左丞相, 相國이 되어 燕王 藏余의 반란, 楚王 韓信의 반란, 燕王 盧綰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힘을 써 舞陽侯로 5,400호를 받았다. 呂皇后의 동생이 그의 처인데, 高祖 말기 呂后의 일파로 몰렸다. 하지만 惠帝時期에 풀려났다가 惠帝 6년(전189)에 죽었다(『史記』 권95 「樊噲列傳」: 2651~2658).

293) 이 무렵 匈奴에 투항한 한나라의 장군은 韓信, 王黃, 曼丘臣, 陳豨, 盧綰 등이었다.

294) 『漢書』에는 “於是高祖患之”로 되어 있다.

295) 『漢書』에는 “翁主”로 되어 있다.

296) 『漢書』에는 “곡물[米]”이 없다.

297) 盧綰: 沛縣 사람으로 처음 劉邦을 따라 봉기하였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그를 시종하다가 관직이 太尉에 오르고 燕王에 봉해졌다. 陳豨가 漢나라를 배반하였을 때, 그가 사람을 보내 서로 연락하고 匈奴와 결탁하였다. 漢나라 군대가 진격해 오자 무리를 이끌고 匈奴로 도주하였다. 匈奴에서 東胡 盧王에 임명되었다(『史記』 권93 「韓信盧綰列傳」: 2637~2639).

298) 『漢書』에는 “萬人”으로 되어 있다.

299) 高祖 12년(전195) 사월 25일 長樂宮에서 붕어했다. 『漢書』에는 앞 단락의 끝에 “終高祖世”로 되어 있다.

천하를 평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흉노가 교만하게 굴었다. 목욕은 고후(高后)³⁰²에게 서신을 보내 망령되게 말하였다. 고후가 [노하여] 공격하려 하였다. 여러 장군들이 말하였다. “고조의 현명함과 용맹을 갖고서도 [그들을 응징하기는커녕] 평성에서 곤욕까지 겪었습니다.”³⁰³ 이에 고후는 [정벌을] 그만두기로 하고 다시 흉노와 화친했다.

300) 惠帝(재위 전195~전188): 이름은 劉盈으로 高祖의 長子로서 황위를 이었으나, 유약하여 母 呂太后가 실권을 행사하였다.

301) 呂太后: 漢 高祖 劉邦의 정실부인이다. 성은 呂, 자는 娥姁, 이름은 雉이다. 山陽 출신으로 劉邦과 결혼한 이후 지속적으로 남편을 도와 漢나라의 건국을 가능하게 했다. 劉邦이 죽은 뒤 아들 惠帝를 즉위시키고 실권을 잡았다. 惠帝가 23세의 나이로 죽자, 惠帝의 후궁에서 출생한 여러 왕자들을 차례로 등극시켰으나 呂氏 일족을 중용하여 사실상 呂氏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특히, 劉氏만을 侯王으로 책봉하라는 高祖의 遺訓을 어기고 동생 呂產, 呂祿 등을 侯王으로 책봉하였다. 이것이 劉氏 옹호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그녀가 집권한 지 8年만인 辛酉 칠월 30日 未央宮에서 죽자 곧 呂氏 일가가 모두 誅滅되었다. 이로써 呂氏 정권이 붕괴한 다음에 高祖의 차남 劉恆이 즉위하여 文帝가 되었다.

302) “高后”는 呂太后를 지칭한다.

303) 『漢書』에는 呂后時期 匈奴와의 관계에서 오고간 서신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였다. 『史記』에 빠진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惠帝, 高后의 시대에 冒頓이 더욱 교만하게 되어 서신을 보냈다. 사신을 高后에게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독해서 설 수 없는 임금은 음습한 땅에서 태어나 드넓은 초원에 소와 말이 사는 곳에서 자랐으나 여러 번 변경에 와서 중국에서 놀기를 원했소이다. 폐하께서도 홀로 즉위하시니 고독해서 설 수 없는 과부의 신세입니다. 두 임금이 즐거움이 없어서 스스로 근심스러우니 그 가진 바로 부족함을 바꾸기 바라는 바입니다.” 高后가 크게 화를 내며 丞相과 樊噲, 그리고 季布 등을 불러 그의 사자를 벨 것과 군대를 일으켜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다. 樊噲가 “신이 십만의 군대를 얻어 匈奴에서 누비고 다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계포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해 “樊噲를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전에 陳豨가 代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한나라 군대가 32만으로 변패가 大將軍이었습니다. 그때 匈奴가 高祖를 평성에서 포위하였는데, 樊噲가 그 포위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천하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평성의 아래에서 정말로 고생했구나! 이레 동안 먹지 못하니 쇠뇌를 당길 힘도 없네.’ 지금 노래도 지금 소리도 끊기지도 않았고 그때 다친 사람들이 이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樊噲가 천하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여 십만의 군대로 누비고 다닌다고 망령되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족들은 비유하면 짐승과 같이 그들은 좋은 말을 들어도 기뻐하는 것이 부족하고, 나쁜 말을 들어도 노하는 것이 부족한 자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高后가 “옳다.”라고 했다. 大謁者 張澤에게 그에 대답하는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單于是 우리 나라의 일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 주니 우리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고,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하였으나 나는 늙고 기운도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이빨이 모두 빠져 건는 것도 힘이 드오. 선우가 이전에 청한 것을 받들기에는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소. 우리 나라는

至孝文帝初立，復修和親之事。其三年五月，匈奴右賢王入居河南地，侵盜上郡葆塞蠻夷，殺略人民。於是孝文帝詔丞相灌嬰發車騎八萬五千，詣高奴，擊右賢王。右賢王走出塞。文帝幸太原。是時濟北王反，文帝歸，罷丞相擊胡之兵。

효문제(孝文帝)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과거에] 화친했던 것을 확인했다. [하지
만] 그의 3년(전177) 오월에 흉노 우현왕이 하남 땅으로 쳐들어 와 자리를 잡고 상군의 장성을
지키고 있던 다른 종족[蠻夷]³⁰⁴⁾들을 공격하여 약탈했고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했다. 이에
효문제는 승상(丞相)³⁰⁵⁾ 관영(灌嬰)³⁰⁶⁾에게 거기(車騎) 8만 5천 명을 징발해 고노(高奴)³⁰⁷⁾로

잘못이 없으니 마땅히 용서해 주시오. 천자가 타는 두 대의 수레와 그에 맞는 말 여덟 필을 드리니
일상적으로 타는 수레로 쓰십시오.” 冒頓이 편지를 받고서 다시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중국의 예의를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폐하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에 말을 바치니 마침내 화친이 이루어
졌다.(孝惠·高后時，冒頓寢驕，乃爲書，使使遺高后曰“孤債之君，生於沮澤之中，長於平野牛馬之域，數至
邊境，願遊中國。陛下獨立，孤債獨居。兩主不樂，無以自虞，願以所有，易其所無。”高后大怒，召丞相平及樊
噲·季布等，議斬其使者，發兵而擊之。樊噲曰“臣願得十萬衆，橫行匈奴中。”問季布，布曰“噲可斬也！前陳
豨反於代，漢兵三十二萬，噲爲上將軍，時匈奴圍高帝於平城，噲不能解圍。天下歌之曰‘平城之下亦誠苦！七
日不食，不能穀弩。’今歌吟之聲未絕，傷痍者甫起，而噲欲搖動天下，妄言以十萬衆橫行，是面謾也。且夷狄譬
如禽獸，得其善言不足喜，惡言不足怒也。”高后曰“善。”令大謁者張澤報書曰“單于不忘弊邑，賜之以書，弊
邑恐懼。退日自圖，年老氣衰，髮齒墮落，行步失度，單于過聽，不足以自汗。弊邑無罪，宜在見赦。竊有御車二
乘，馬二駟，以奉常駕。冒頓得書，復使使來謝曰“未嘗聞中國禮義，陛下幸而赦之。”因獻馬，遂和親。『漢書』
권94上「匈奴列傳 上」: 3754~3755).

304)葆塞蠻夷:葆塞蠻夷를 지칭하는 것으로,漢나라 초기에 포로로 잡힌 주변 종족들로 한나라에 소속되어
변방 요새 인근에 거주하면서 변경방비를 담당하였다.

305)丞相:天子를 보좌하고 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의 관직으로서 秩이 萬石이었다.高祖시기에 한
명의丞相을 두었다가,11년에는 명칭을 相國으로 바꾸었다.孝惠帝와 呂后시기에 左右 2명의丞相을
두었다가文帝 2년에 다시 한 명의丞相을 두었다.

306)灌嬰(?~전176):睢陽(지금의河南省 商丘市 남쪽) 사람으로 원래 비단 상인이었다. 그는 劉邦이沛公이
되었을 때부터 그를 도왔다.楚나라와 漢나라의 승패를 결정하는 滎陽 전투에서 中大夫로 楚나라를
격파하여 糧道를 끊는 큰 공을 세웠다.御史大夫가 되어 齊와 淮北을 평정하였다.高祖 즉위 이후
車騎將軍으로 燕王을 격파하고 漢王 信을 토벌하여 穎陰侯로 봉해졌다.匈奴 토벌 중에 平城에서 고생
하였다.돌아와 陳豨를 토벌하고 黥布의 반란 역시 진압하였다.高祖 사후에 列侯로 惠帝와 呂后를
모셨다.하지만 呂后가 죽은 뒤 周勃,陳平 등과 함께 呂氏를 몰아내고 代王을 맞아들여文帝로 추대하였
다.周勃을 이어 승상이 되었는데,匈奴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죽었다(『史記』 권95「樊鄴滕灌列傳」:

가서 우현왕을 치도록 했다.³⁰⁸⁾ [결국] 우현왕은 장성 밖으로 달아났다. 효문제가 태원에 행행 하였다.³⁰⁹⁾ 이 때 제북왕(濟北王)³¹⁰⁾이 [그 틈을 타] 모반하자 급히 문제가 [장안으로] 귀환하면서 승상이 흉노[胡]를 공격하려고 했던 군대를 물렸다.

其明年，單于遺漢書曰：「天所立匈奴大單于敬問皇帝無恙。前時皇帝言和親事，稱書意，合歡。漢邊吏侵侮右賢王，右賢王不請，聽後義盧侯難氏等計，與漢吏相距，絕二主之約，離兄弟之親。皇帝讓書再至，發使以書報，不來，漢使不至，漢以其故不和，鄰國不附。今以小吏之敗約故，罰右賢王，使之西求月氏擊之。以天之福，吏卒良，馬彊力，以夷滅月氏，盡斬殺降下之。定樓蘭·烏孫·呼揭及其旁二十六國，皆以爲匈奴。諸引弓之民，并爲一家。北州已定，願寢兵休士卒養馬，除前事，復故約，以安邊民，以應始古，使少者得成其長，老者安其處，世世平樂。未得皇帝之志也，故使郎中係雫淺奉書請，獻橐他一匹，騎馬二匹，駕二駟。皇帝即不欲匈奴近塞，則且詔吏民遠舍。使者至，即遣之。」以六月中來至薪望之地。書至，漢議擊與和親孰

2667~2673).

307) 高奴: 縣의 명칭으로 지금의 陝西省 延安 동북쪽이다.

308) 『漢書』에는 文帝가 匈奴 右賢王의 침공에 대해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보충되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文帝가 詔를 내려 말하였다. “漢나라와 匈奴가 형제가 되어 변경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匈奴로 공급해 주는 것을 아주 후하게 해 주었다. 지금 右賢王이 그 나라를 나와 무리를 이끌고 河南 땅에 와 있는 것은 이상하다. 다니면서 장성으로 들어와 吏卒을 잡아 죽이고 上郡의 장성을 수비하는 이민족들을 침범하여 잡아 가니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변방에 사는 관리들을 능멸하여 힘들게 하고 들어와 도둑질을 하니 그 무도함이 심각한데 이는 약속한 바가 아니다. 변방의 관리와 車騎 8만을 징발하여 [上郡의] 高奴로 가게 하고, 丞相 灌嬰을 보내 右賢王을 격파하게 하라.”(於是文帝下詔曰 “漢與匈奴約爲昆弟，無侵害邊境，所以輸遺匈奴甚厚。今右賢王離其國，將衆居河南地，非常故。往來入塞，捕殺吏卒，毆侵上郡保塞蠻夷，令不得居其故。陵轢邊吏，入盜，甚驚無道，非約也。其發邊吏車騎八萬詣高奴，遣丞相灌嬰將擊右賢王。” 『漢書』 권94上 「匈奴列傳上」: 3756).

309) 文帝 前元 3年(전177) 유월 27일에 文帝는 甘泉에서 高奴를 거쳐 太原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 십여 일 머물렀다.

310) 濟北王: 東牟侯 劉興居로 高祖의 長庶 齊悼王 劉肥의 아들이었다. 그는 呂氏 세력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워 文帝 前元 2年(전178) 삼월에 濟北王이 되었다. 文帝 前元 3年(전177) 오월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해 팔월에 자살하였다.

便. 公卿皆曰: 「單于新破月氏, 乘勝, 不可擊. 且得匈奴地, 澤鹵, 非可居也. 和親甚便.」 漢許之.

그 이듬해³¹¹⁾ 선우가 한나라에 편지를 보내왔다. “하늘이 세워 준 흉노대선우(天所立匈奴大單于)³¹²⁾가 삼가 중국의 황제에게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 전날 황제가 화친의 일을 말했고 편지의 뜻도 이와 같아서 크게 기뻐할 만하였소. [그런데도] 한나라 변방의 관리가 [우리] 우현왕을 침범해 모욕했으며 우현왕은 [선우인 나한테도] 주청하지 않고 [자기 부하] 후의노후(後義盧侯)³¹³⁾ 난지(難氏)³¹⁴⁾ 등의 계획을 듣고 한나라 관리들과 서로 싸워³¹⁵⁾ 두 나라 임금 사이에 맺었던 약속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형제간의 친밀함을 이간질했소. 황제로부터 문책하는 편지가 다시 왔으므로 [이쪽에서도] 사자를 보내 편지로 회답했는데, [그 사신은] 돌아오지 않았고 한나라의 사신 [역시] 오지 않으니 한나라도 그런 이유로 화합하지 않았고 이웃 나라 와도 친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요. 지금 낮은 관리가 [화친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현왕에게³¹⁶⁾ 그 벌로 서쪽의 월지를 치게 했소.³¹⁷⁾ 하늘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 병사가 우수하고 말이 강력하였기³¹⁸⁾ 때문에 월지를 섬멸함으로써 모두 죽이고 항복시켰소. 누란(樓蘭),³¹⁹⁾

311) 濟北王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文帝 前元 3년(전177) 오월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明年”이라고 한 것은 文帝에게 前元 4年(전176)이 되어야 한다.

312) “天所立匈奴大單于”라는 칭호는 匈奴의 군주 칭호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원래는 『漢書』에서 ‘天子’의 의미로 해석했던 “撐犁孤塗”라고도 추정된다(주184) 참조.

313) 後義盧侯: 難氏와 연결하여 그의 관칭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匈奴의 인명으로, ‘後義盧侯’ 또는 ‘後義’와 ‘盧侯’로 나누어 인명으로 읽을 수도 있다. 모두 확실하지 않다.

314) 難氏: 匈奴의 인명인데, 氏의 음은 ‘지’이다. 『漢書』에는 “難支”로 되어 있다.

315) 『漢書』에는 “相恨”으로 되어 있다.

316) 『漢書』에는 “之”가 “至”로 되어 있다.

317) 冒頓單于가 右賢王으로 하여금 月氏를 공격하게 한 것은 文帝 前元 6년(전174)보다 1~2년 정도 앞선 시기로 추정된다(대략 전177~176경) 이로 인해 月氏가 점차 서남방으로 향하여 이 무렵에 준가르 분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月氏는 전174~전161년 사이에 烏孫과 연합한 匈奴의 공격을 받아 일리강 유역으로부터 축출되어 아무다리아 지역으로 갔다. 이후에 이들은 이곳에서 세력화하여 大月氏를 건설하였다.

318) 『漢書』에는 “馬力強”이라고 되어 있다.

319) 樓蘭: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롭 노르(Lop Nor; 羅布泊) 서북쪽 일대에 위치했던 오아시스 도시국가

오손(烏孫),³²⁰⁾ 호걸(呼揭)³²¹⁾과 그 주변의 26개 나라를 평정해 모두 흉노와 한 나라가 되었소.³²²⁾ 여러 유목민[引弓之民]들이 모두 한 집안 식구가 되니 북쪽 지방[北州]³²³⁾은 이미 안정되게 되었소. 원컨대, [이제는] 전쟁을 중지시켜 사졸을 쉬게 하고 말을 먹여 앞서 있었던 [국경분쟁] 문제를 불문에 붙여 이전의 [화친] 약속을 회복시킴으로써 변경지대 백성들을

이다. 왕은 扞泥城(지금의 婁羌縣)에 살았는데, 동서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크게 번영하였다. 中國이 이곳에 진출하기 이전에 匈奴의 복속을 받았다가 이후에 漢나라와 匈奴 모두와 관계를 유지했다. 漢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鄯善國이라고 고쳐 불렸다. 1세기 말부터 서쪽의 쿠산 왕조의 진출로 인해 2세기 말에는 이들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中國의 분열을 틈타 동서 무역로를 차지하고 크게 번성하였다. 이 왕국은 20세기 초 이 지역을 탐사한 영국의 A. 스타인과 스웨덴의 S. 헤딘 등의 발굴조사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졌다. 특히 왕국의 남부에 있었던 니야 유적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카로슈티 문서(쿠산 왕조의 영내에서 사용된 카로슈티 문자로 기록)의 기록에 통해 그 실체가 밝혀졌다. 이후 대규모의 조사발굴로 東西交通路에서 차지하는 樓蘭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기도 했다. 4, 5세기에 河西지방이나 중원에 성립된 여러 왕조에 계속 入貢使를 보내어 冊封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439년 北魏가 河西지방의 涼州에 있던 北涼을 토벌하자 北涼의 잔당이 樓蘭을 공격하였다. 그 뒤 3년 후에 北魏의 군대가 樓蘭을 점령한 이후 그 명맥이 겨우 유지되었지만 왕국의 질서는 붕괴되었다. 그리고 6세기경 주변 세력의 공격과 함께 록 노르의 이동과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원이 고갈되어 이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20) 烏孫: 고대 종족의 명칭이다. 漢代로부터 南北朝時代 초기에 걸쳐 天山山麓의 일리 계곡, 이식클 근처, 시르다리아 상류 등지에서 유목생활을 하였다. 그 인종에 대해서는 사카, 투르크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들의 혼혈종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河西走廊에서 月氏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의 지배를 받다가 匈奴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이주하여 일리 계곡과 이식 클 주변지역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로 인해 세력화하게 되면서 동쪽으로는 匈奴, 西北으로는 康居라는 유목민과 서쪽으로는 安息 등과 접하였다. 君長이 거주하는 곳을 ‘赤穀城’이라고 하였는데, 이식 클 근처에 있었다. 이들은 張騫의 여행 이후에 漢나라에 알려져 그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匈奴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존재했다(王明哲·王炳華, 1983: 1~2).

321) 呼揭: 음은 ‘호걸’이다. 고대 종족의 하나로 烏孫의 동쪽, 匈奴의 서북에 살았다. 呼揭은 瓜州의 서북지역에 거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몽골의 북서부에 살던 투르크계 부족으로 오구즈(Oghuz)로 비정된다. 기원전 2세기 冒頓單于에게 정복되어 匈奴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呼揭王은 匈奴에 포함된 呼揭 부족의 장이라고 추정된다. 그 뒤 呼漢邪單于와 郅支單于가 匈奴를 동서 양분한 뒤, 呼揭은 郅支單于에게 정벌되었다(전49). 그 뒤 堅昆과 丁零 등의 정벌에 동원되었다. 南北朝·隋朝 시기 사료에 遠紇, 烏護, 韋紇 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唐代 回鶻, 즉 위구르는 이들의 後身으로 알려져 있다.

322) 匈奴에 복속되어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323) 北州: 원래 좁게 匈奴의 북방에 위치한 渾廆, 屈射, 丁零, 鬲昆, 薪犁 등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문맥의 흐름상 보다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月氏를 포함한 西域의 정복이 완성되었음을 표현한다.

편하게 하고, 처음의 관계에 맞추어 어린아이들이 탈 없이 자라게 하고 늙은이들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어³²⁴⁾ 대대로 태평함을 즐기도록 해 주고 싶소이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 황제의 의중을 알 수가 없으니 낭중(郎中)³²⁵⁾ 헤호천(係雱淺)³²⁶⁾을 사신으로 삼아 이 편지를 받들어 올리게 함과 동시에 낙타[橐他]³²⁷⁾ 한 필, 전투용 말[驕馬] 두 필, 수레 끄는 말[駕] 두 짝[駟]을³²⁸⁾ 드리겠소. 황제께서는 흉노[의 군대]가 한나라 변경에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귀국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조칙을 내려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도록 명령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오. 사자가 도착하면 돌려보내 주시기 바라오.” 유월 중에 [흉노의 사신] 신망(薪望)³²⁹⁾의 땅에 도착하였다. [흉노의] 편지가 [한나라 조정]에 오자 한나라에서는 공격과 화친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논의하였다. 공경(公卿)들이 모두 말하였다. “선우가 새로 월지를 격파해 승세를 타고 있으니 공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흉노의 영토를 얻는다고 해도 늙 아니면 소금기 많은 황무지뿐이니 살 만한 곳도 못 됩니다. [결국] 화친이 더 낫습니다.” 한나라[의 황제가 화친]을 허락했다.

孝文皇帝前六年，漢遺匈奴書曰：「皇帝敬問匈奴大單于無恙。使郎中係雱淺遺朕書曰：『右賢王不請，聽後義盧侯難氏等計，絕二主之約，離兄弟之親，漢以故不和，鄰國不附。今以小吏敗約，故罰右賢王使西擊月氏，盡定之。願寢兵休士卒養馬，除前事，復故約，以安邊民，使少者得成其長，老者安其處，世世平樂。』朕甚嘉之，此古聖主之意也。漢與匈奴約爲兄弟，所以遺單于甚厚。倍約離兄弟之親者，常在匈奴。然右賢王事已在赦前，單于勿深誅。單于若稱書意，明告諸吏，使無負約，有信，敬

324) 『漢書』에서는 “得安”으로 ‘得’이 더 있다.

325) 郎中: 관직 명칭으로 관청의 車, 騎, 門, 戶를 관리하였다. 안으로는 호위를, 밖으로는 작전을 맡는 역할을 했다.

326) 係雱淺: 음은 ‘헤호천’이다. 匈奴의 사람 이름으로 『漢書』에서는 “雱” 대신 “庠”로 표기했다. 그는 匈奴에 투항하였던 秦나라 사람의 후예로 추정된다. 그의 선조가 郎中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郎中이라는 관칭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27) 橐他: 駱駝를 말한다. 『漢書』에서는 “橐佗”로 되어 있다(주16) 참조).

328) 駟: 한 대의 수레를 끄는 네 필의 말을 뜻하므로, “二駟”는 두 대의 수레를 끄는 말 네 필의 두 짝을 말한다.

329) 薪望: 변방의 지명인데, 『漢書』에는 “新望”으로 되어 있다.

如單于書。使者言單于自將伐國有功，甚苦兵事。服繡袷綺衣·繡袷長襦·錦袷袍各一，比余一，黃金飾具帶一，黃金胥純一，繡十匹，錦三十匹，赤緋·綠繒各四十匹，使中大夫意·謁者令肩遺單于。」

효문황제³³⁰⁾ 전원(前元)³³¹⁾ 6년(전174) 한나라[의 황제가] 흉노에 편지를 보내 말하였다. “황제는 삼가 흉노대선우에게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 낭중(郎中) 헤호천(係雱淺)을 시켜 짐³³²⁾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우현왕이 [선우인 나한데도] 주청하지 않고 [자기 부하인] 후의노후 난지 등의 계획을 듣고 [한나라 관리들과 서로 싸워] 두 나라 임금 사이에 맺었던 약속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형제간의 친밀함을 이간질하게 되자, 한나라도 그를 이유로 화합하지 않게 되었고 이웃 나라와도 친하지 않게 되었소. 지금 낮은 관리가 [화친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현왕에게 그 벌로 서쪽의 월지를 치게 해 모두 평정할 수 있었소. 원컨대, 이제는 전쟁을 중지시켜 사졸을 쉬게 하고 말을 먹여 앞서 있었던 [국경분쟁] 문제를 불문에 붙여 이전의 [화친] 약속을 회복시킴으로써 변경지대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탈 없이 자라게 하고 늙은이들이 그 땅에서 편안하게 하여 대대로 태평함을 즐기도록 해 주고 싶소이다.’³³³⁾”라고 했소. 짐은 [이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는데, 이는 옛 성왕의 뜻이기도 하오. 한나라는 흉노와 형제가 되기로 약속해 선우에게 아주 후하게 선물을 보냈었소. 그런데도 약속을 어기고 형제의 정리를 이간시킨 이유는 늘 흉노에 있었소. 그러나 우현왕이 일으킨 사건은 [한나라에서] 이미 대사령(大赦令)을 발포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선우는 그를 너무 심하게 책하지 말기 바라오. 만약 선우가 이 편지의 뜻과 같다면, 그대 나라의 여러 관리들에게 명백히 알려 화친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오. 그 사실이 확인되면, 삼가 선우 편지의

330) 『漢書』에는 “孝文皇帝”가 아니라 “孝文”으로 약칭되어 있다.

331) 漢 文帝는 23년간 재위하였는데, 중간에 한 번 개원하였다. 그래서 前元 7년과 그 이후 後元 16년으로 나누어진다.

332) “朕”은 옛날에 일반적인 自稱이었으나 秦 始皇帝 시대부터 皇帝의 自稱으로만 사용되었다.

333) 『漢書』에는 匈奴에서 보내 온 편지 내용에서 앞부분이 생략되고 “원컨대, 전쟁을 중지시켜 사졸을 쉬게 하여 앞서 있었던 [국경분쟁] 문제를 불문에 붙여 이전의 [화친] 약속을 회복시킴으로써 변경지대 백성들을 편하게 하여 대대로 태평함을 즐기도록 해 주고 싶소이다.”라고 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다(願寢兵休士，除前事，復故約，以安邊民，世世平樂：3758).

뜻을 따를 것이요. 사자가 선우께서 몸소 군사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정벌해³³⁴⁾ 비록 전과는 얻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역시 크다고 하니, [짐이 입는] 의복인 수겹기의(繡袷綺衣),³³⁵⁾ 수겹장유(繡袷長襦),³³⁶⁾ 금겹포(錦袷袍)³³⁷⁾ 각 한 벌, 비여(比余)³³⁸⁾ 한 개, 황금으로 만든 허리띠[黃金飾具帶]³³⁹⁾와 황금으로 만든 허리띠 장식[黃金胥紕]³⁴⁰⁾ 한 개, 수놓은 비단[繡] 열 필,³⁴¹⁾ 비단(錦)³⁴²⁾ 서른 필, 붉은 색의 두꺼운 비단[赤縹]³⁴³⁾과 푸른색 비단[綠縹]³⁴⁴⁾ 각각 마흔 필³⁴⁵⁾씩을 중대부(中大夫)³⁴⁶⁾ 의(意)³⁴⁷⁾와 알자령(謁者令)³⁴⁸⁾ 견(肩)³⁴⁹⁾을 시켜 선우에게 보내오.”

後頃之，冒頓死，子稽粥立，號曰老上單于。

334) 伐國: 匈奴가 정복한 나라를 말하는데, 그 대상은 東胡, 渾庾, 屈射, 丁零, 鬲昆, 薪犁, 烏孫, 月支 등이었다 (주267) 참조.

335) 繡袷綺衣: ‘꽃을 수놓은 비단으로 겹옷을 만들고, 꽃무늬를 짜 넣은 비단으로 안감을 댄 겹옷’으로天子가 착용했다. 『漢書』에는 “繡袷”이 없다.

336) 繡袷長襦: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긴 겹옷’이다. 『漢書』에는 “長襦”로 되어 있다.

337) 錦袷袍: 겹감을 큰 꽃무늬를 채색한 비단으로 만든 솜옷이다. 『漢書』에는 “袷”이 없다.

338) 比余: 금으로 장식한 빛의 종류이다. 『漢書』에는 “比疏”라고 되어 있다.

339) “具”는 ‘貝’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이것은 조개 장식을 단 황금 요대를 말한다.

340) 胥紕: 허리띠 고리(버클)를 말한다. 『漢書』에는 “犀紕”로 되어 있다.

341) 繡: 무늬가 있는 비단이다.

342) 錦: 색깔이 빛나는 비단이다. 『漢書』에는 “二十四”로 되어 있다.

343) 縹: 음은 ‘제’이고, 두꺼운 비단이다.

344) 縹: 명주실로 짠 모든 직물을 말한다.

345) 匹: 織物의 길이를 計量하는 중국 고대의 量詞이다. 漢代에 1匹의 폭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대개 帛의 넓이가 폭이 2尺 2寸, 길이가 40尺인 것을 1匹이라고 한다. 1尺=23.5cm이므로 漢代의 1匹은 길이가 약 940cm, 폭이 51.7cm 정도였다(內田吟風, 1975: 227 및 丘光明, 1992: 520).

346) 中大夫: 관직 명칭으로 郎中令의 속관으로 議論을 관할하였다. 武帝 太初 元년에 光祿勳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光祿大夫로 바뀌었다.

347) 意는 사람 이름이다.

348) 謁者令: 관직 명칭으로 中書謁者令을 말한다. 주요 업무는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었고, 少府에 소속되었다. 후에 中謁者令으로 바뀌었다.

349) 肩은 사람 이름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욕이 죽고 아들 계육(稽育)³⁵⁰이 서니 노상선우(老上單于)라 불렀다.

老上稽粥單于初立，孝文皇帝復遣宗室女公主爲單于閼氏，使宦者燕人中行說傳公主。說不欲行，漢彊使之。說：“必我行也，爲漢患者。”中行說既至，因降單于，單于甚親幸之。

노상계육선우(老上稽粥單于)³⁵¹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문제가 다시 중실의 여자를 공주³⁵²라 하여 선우에게 보내 연지로 삼게 했는데, 연나라 출신의 환관 중항열(中行說)³⁵³을 공주의 호위[傅]로 삼았다. 중항열이 가려고 하지 않자 한나라에서 억지로 [가게] 만들었다. [그러자] 중항열이 말하였다. “기필코 나를 가게 한다면³⁵⁴ 한나라에 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항열이 [흉노 땅에] 도착하자마자 선우에게 투항하니 선우가 [그를] 몹시 친근하게 아꼈다.³⁵⁵

初，匈奴好漢繒絮食物，中行說曰：「匈奴人衆不能當漢之一郡，然所以彊者，以衣食異，無仰於漢也。今單于變俗好漢物，漢物不過什二，則匈奴盡歸於漢矣。其得漢繒

350) 稽育: 음은 ‘계육’이다. 老上單于를 말한다.

351) 老上稽粥單于(재위 전174~전161): 匈奴의 제3대 單于로 老上單于라고도 불린다. 이름이 稽粥이다. 匈奴의 융성을 이룩한 冒頓單于의 아들로 전174년 아버지가 죽자 즉위하였다. 漢나라 宗室의 딸을 아내로 맞고 漢나라에서 항복해 온 中行說을 고문으로 삼았다. 中行說은 匈奴의 세력 신장에 주력하여 문서 작성, 국가의 재정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이후 月氏를 공격하여 일리 지방으로 쫓아내고, 죽인 月氏王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쓰는 등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전166년에는 漢나라 깊숙이 쳐들어갔고, 해마다 침공을 거듭하였다. 漢 文帝는 종래의 조약 외에, 匈奴에게 해마다 공물을 보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和議를 다시 맺어 무마시키고자 했다.

352) 宗室의 여자는 ‘翁主’라고 해야 하는데 “公主”로 되어 있다. 이것은 匈奴에 시집갈 때 그녀가 公主로 책봉되었기 때문이다. 『漢書』에는 “宗人女翁主”로 되어 있다.

353) 中行說: 음은 ‘중항열’이다. 사람 이름으로 中行이 성이고 說이 이름이다.

354) 『漢書』에는 “必我也。”로 “行”이 없다.

355) 『漢書』에는 “單于愛幸之”로 되어 있다.

絮，以馳草棘中，衣袴皆裂敝，以示不如旃裘之完善也。得漢食物皆去之，以示不如
 醢酪之便美也。」於是說教單于左右疏記，以計課其人衆畜物。

처음에 흉노가 한나라의 비단과 명주솜, 그리고 식품 등을 좋아했는데, 중항열이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흉노의 인구는 한나라의 일개 군(郡)만도 못합니다.³⁵⁶⁾ 그런
 데도 강한³⁵⁷⁾ 까닭은 입는 것과 먹는 것이 달라 한나라에 의존하지³⁵⁸⁾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우께서 풍속을 바꾸어 한나라 물자를 좋아하게 되면 한나라 물자가 10분의 2를 넘지 않아도
 흉노는 한나라에 모두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³⁵⁹⁾ 그렇게 얻은 한나라의 견직물과 명주솜을
 가지고 [선우께서 입고 나가] 풀과 가시덤불 속으로 말을 달려 나가 옷과 바지가 모조리
 찢어져 못쓰게³⁶⁰⁾ 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³⁶¹⁾ [견직물과 명주솜이 흉노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의복만큼] 완전하고 좋지³⁶²⁾ 못하다는 점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
 식품을 얻은 다음 [그것을] 모두 버려 짓이나 유제품(醢酪)³⁶³⁾의 편리함과 맛보다 못하다는
 점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항]열은 선우를 보좌하는 [관리들]에게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 백성과 가축의 [숫자를] 세어서 과세하도록 했다.³⁶⁴⁾

356) 匈奴의 인구가 漢나라의 1개 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中行說의 말은 『鹽鐵論』 「論功篇」에서의 지적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확하다. 실제 匈奴의 인구를 『匈奴列傳』의 기록(“自左右賢王以下至當戶，大者萬
 騎，小者數千，凡二十四長，立號曰萬騎.”: 3751)을 근거로 계산해 보면, 匈奴의 丁壯이 24만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다시 戶口數로 계산해도 아무리 많아도 144만 정도 된다. 이것은 漢代에 汝南이 가장
 번성했을 때 46만 戶에 인구가 260만 정도 되는 것과 비교된다.

357) 『漢書』에는 “彊”이 모두 “強”으로 되어 있다.

358) 『漢書』에는 “仰”으로 되어 있다.

359) 漢나라가 물자의 10분의 2도 쓰지 않고 匈奴의 백성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中行說의 주장은 이미
 賈誼의 五餌之說에서 주장한 것(“車服以壞其目，飲食以壞其口，音聲以壞其耳，宮室以壞其腹，榮寵以壞其
 心”)과 상통한다. 韋昭는 漢나라 물자가 10분의 2가 匈奴에 들어가면 匈奴인들이 마음을 움직여 漢나라
 에 귀속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言漢物什中之二入匈奴，匈奴則動心歸漢矣.”).

360) 『漢書』에는 “弊”로 되어 있다.

361) 『漢書』에는 “視”로 되어 있다.

362) 『漢書』에는 “堅善”으로 되어 있다.

363) 醢酪: 음이 ‘동락’인데, 젓과 유제품을 의미한다. (주37) 참조) 『漢書』에는 “重”으로 되어 있다.

364) 『漢書』에는 “課”가 “識”으로 되어 있다.

漢遺單于書，牘以尺一寸，辭曰「皇帝敬問匈奴大單于無恙」，所遺物及言語云云。中行說令單于遺漢書以尺二寸牘，及印封皆令廣大長，倨傲其辭曰「天地所生日月所置匈奴大單于敬問漢皇帝無恙」，所以遺物言語亦云云。

한나라에서 선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무쪽[牘]³⁶⁵⁾을 한 자 한 치짜리를 썼고³⁶⁶⁾ [그 첫] 구절은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는 삼가 흉노대선우가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 [그리고] 보내 주는 물자와 용건은 무엇 무엇³⁶⁷⁾이라고 되어 있었다. 중항열은 선우가 한나라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한 자 두 치³⁶⁸⁾짜리 나무쪽을 쓰고 봉인(封印)³⁶⁹⁾까지 모두 한나라 것보다 넓고 크고 길게 하도록 했고³⁷⁰⁾, 글투도 오만³⁷¹⁾하게 “하늘과 땅이 낳고 해와 달이 둔 흉노대선우³⁷²⁾가 삼가 중국의 황제에게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라고 인사하고, 보내는 물자와 용건이 무엇 무엇이라고 기재하였다.

漢使或言曰：「匈奴俗賤老。」中行說窮漢使曰：「而漢俗屯戍從軍當發者，其老親豈有不自脫溫厚肥美以齎送飲食行戍乎？」漢使曰：「然。」中行說曰：「匈奴明以戰攻爲事，其老弱不能鬪，故以其肥美飲食壯健者，蓋以自爲守衛，如此父子各得久相保，何以

365) 牘: 書版, 竹과 木簡 등과 같은 고대 기록 도구이다. 이후에 이것은 비단이나 종이 등으로 대체되었는데, 현재는 문서를 ‘文牘’이라고도 한다. 漢代의 1尺=23.5cm이므로 1尺 1寸은 25.85cm이다.

366) 『漢書』에는 “以尺一牘”으로 되어 있다.

367) 『漢書』에는 “所以遺物及言語云云”으로 되어 있다.

368) 漢尺 1尺 2寸은 28.3cm이다.

369) 封印: 고대에 函牘을 봉인할 때에는 竹木簡을 묶은 끈에 진흙을 칠했다. 그래서 封印을 泥封이라고 했다. 匈奴에서도 漢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여 동일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370) 『漢書』에는 “長大”로 되어 있다.

371) 『漢書』에는 “倨傲”로 되어 있다.

372) 원문은 “天地所生日月所置匈奴大單于”인데, 이 말에서 匈奴가 天地와 日月을 중요한 권위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유목민들의 인식은 이후 突厥, 回鶻時代의 비문에서 확인되는 군주의 명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형용적인 표현을 보다 많이 쓴 것은 앞서 “天所立匈奴大單于”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을 더욱 높게 보이기 위한 修辭的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言匈奴輕老也？」漢使曰：「匈奴父子乃同穹廬而臥。父死，妻其後母；兄弟死，盡取其妻妻之。無冠帶之飾，闕庭之禮。」中行說曰：「匈奴之俗，人食畜肉，飲其汁，衣其皮；畜食草飲水，隨時轉移。故其急則人習騎射，寬則人樂無事，其約束輕，易行也。君臣簡易，一國之政猶一身也。父子兄弟死，取其妻妻之，惡種姓之失也。故匈奴雖亂，必立宗種。今中國雖詳不取其父兄之妻，親屬益疏則相殺，至乃易姓，皆從此類。且禮義之敝，上下交怨望，而室屋之極，生力必屈。夫力耕桑以求衣食，築城郭以自備，故其民急則不習戰功，緩則罷於作業。嗟土室之人，顧無多辭，令喋喋而佔佔，冠固何當？」

한나라 사자³⁷³⁾가 [와서 중항열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흉노의 풍속은 노인을 천대한다고 하더군요.”³⁷⁴⁾ 중항열은 모질게 한나라 사신에게 대꾸했다. “당신들 한나라 풍속에도 누군가가 변경 주둔군의 수비를 위해 징발될 때에는 그 늙은 부모가 따뜻한 옷과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³⁷⁵⁾ 수자리 서기 위해 [군대에] 나가는³⁷⁶⁾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까?”³⁷⁷⁾ 한나라 사신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중항열이 말하였다. “흉노가 분명히 공격하고 싸우는 것을³⁷⁸⁾ 일로 삼는데, 노약자는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맛있는 것을 건장한 사람들에게 먹임으로써 노약자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³⁷⁹⁾ 이와 같이 하여 아비와 자식이 각각 오랫동안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찌 흉노[만] 노인을 가벼이 여긴다고

373) 文帝시대 漢나라에서 匈奴로 간 使臣이 많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漢書』의 기록(권43 「鄯陸朱劉叔孫傳」, “乃召其子, 拜爲中大夫, 使匈奴。單于無禮, 罵單于, 遂死匈奴中.”: 2118)에서 그가 中行說과 토론을 벌이고 그로 인해 匈奴로부터 죽임을 당한 漢나라 사신의 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朱建의 아들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74) 이 단락의 내용은 匈奴傳의 총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匈奴의 습속에 대한 기술과 상통한다(주35), 주36), 주39) 참조).

375) 『漢書』에는 “奪”로 되어 있다. “溫厚肥美”라는 기록과 연결해 보면 그 의미상 『漢書』에서 “奪”로 바꾼 것이 보다 정확하다.

376) 『漢書』에는 “行者”로 되어 있다.

377) 『漢書』에는 “其親豈不自奪溫厚肥美齋送飲食行者乎?”로 되어 있다.

378) 『漢書』에는 “攻戰”으로 되어 있다.

379) 『漢書』에는 “故以其肥美飲食壯健以自衛.”로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 사자가 말하였다. “흉노는 부자가 같은 천막[穹廬]³⁸⁰⁾에 살면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모두 그 처를 아내로 삼고 있고, [이것은] 관을 쓰고 허리띠를 매는 예절과 조정의 예제(禮制)³⁸¹⁾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중항열이 말하였다. “흉노의 풍속은 사람들이³⁸²⁾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 젖을 마시며 그 가축을 입는데, 그 가축이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편하게 되면 일없이 즐기며, 그의 약속은 간단하여 실행하기 쉽습니다.³⁸³⁾ 군신[의 관계]도 간단하고 쉬워³⁸⁴⁾ 한 나라의 정치가 마치 한 몸처럼 쉽고 편하게 움직입니다.³⁸⁵⁾ 부자, 형제³⁸⁶⁾가 죽고 나서 그 아내를 취하는 풍습은 종족의³⁸⁷⁾ 대가 끊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흉노는 비록 어지럽기는 하나 종실[의 자제를 선우]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비록 [겉으로] 드러내놓고³⁸⁸⁾ 아버지와 형의 처를 취하지 않지만, 친족이 멀어지게 되면 서로 죽이고 역성(易姓)까지³⁸⁹⁾ 하는 것도 모두 이런 부류에서 생긴 것입니다. 또한 예의의 폐해로 위아래가 서로를 원망하고 [좋은] 집짓기에 힘을 다 쏟아 사람들의 힘이 결국 약해집니다.³⁹⁰⁾ 무릇 농사와 양잠에 힘을 써 옷과 먹을거리를 구하고 성곽을 쌓아 스스로를 갖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급하게 되어도 전투에 익숙하지 못하고 편할 때에도 일하는 것에 지치게 됩니다. 슬프도다. 흙집[土室]에 사는 [불쌍한 한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쓸 데가 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³⁹¹⁾ [그 따위] 관을 쓰고서 정말로

380) 穹廬: 匈奴의 이동식 천막을 의미하는데, 수레에 위에 올려놓은 것을 車廬라고 했다. (주21) 참조

381) 闕庭之禮: 中國의 宮廟와 墓門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를 ‘闕’이라고 한다. 이것은 典章制度를 갖춘 문명된 국가를 의미한다.

382) 『漢書』에는 “人”이 없다.

383) 『漢書』에는 “約束徑”으로 되어 있다.

384) 『漢書』에는 “君臣簡, 可久.”로 되어 있다.

385) 『漢書』에는 “體”로 되어 있다.

386) 『漢書』에는 “父兄”으로 되어 있다.

387) “種姓”은 ‘宗族’을 지칭한다.

388) 『漢書』에는 “陽”으로 되어 있다.

389) 『漢書』에는 “至到易姓”으로 되어 있다.

390) 中行說은 집을 짓느라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할 힘을 다 써 버리기 때문에 기력이 고갈된다고 했다. 『漢書』에는 “生力屈焉”으로 되어 있다.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自是之後，漢使欲辯論者，中行說輒曰：「漢使無多言，顧漢所輸匈奴繒絮米粳，令其量中，必善美而已矣，何以爲言乎？且所給備善則已；不備，苦惡，則候秋孰，以騎馳蹂而稼穡耳。」日夜教單于候利害處。

그로부터 뒤에 한나라 사자가 변론하려고 하면 중항열이 얼른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 사자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나라에서 흉노로 보내오는 비단과 무명과 쌀과 누룩을 수량이나 맞추고 [품질이] 좋게만 잘 살피면 그뿐입니다. 어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³⁹²⁾ 또한 보내온 [물품이] 제대로 잘 갖추어 있으면 그만이지만 잘 갖추어지지 않아 거칠고 나쁘다면³⁹³⁾ [우리는] 가을 추수[하기]를 기다려 말달려 당신들의 농사지어 놓은 것들을 짓밟아 놓으면 될 뿐입니다.” [중항열은] 밤낮으로 선우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살필 수 있도록 가르쳤다.

漢孝文帝十四年，匈奴單于十四萬騎入朝那·蕭關，殺北地都尉卬，虜人民畜產甚多，遂至彭陽。使奇兵入燒回中宮，候騎至雍甘泉。於是文帝以中尉周舍·郎中令張武爲將軍，發車千乘，騎十萬，軍長安旁以備胡寇。而拜昌侯盧卿爲上郡將軍，富侯魏遼爲北地將軍，隆慮侯周竈爲隴西將軍，東陽侯張相如爲大將軍，成侯董赤爲前將軍，大發車騎往擊胡。單于留塞內月餘乃去，漢逐出塞即還，不能有所殺。匈奴日已驕，歲入邊，殺略人民畜產甚多，雲中·遼東最甚，至代郡萬餘人。漢患之，乃使使遺匈奴書。單于亦使當戶報謝，復言和親事。

391) 喋: ‘말을 잘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喋喋”은 말이 많다는 뜻인데, ‘喋喋’과 ‘佔佔’은 그 음과 뜻이 비슷하다. 『漢書』에는 “顧無喋喋佔佔”로 되어 있다. 顏師古는 “佔佔”을 “웃을 잘 차려 입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392) 『漢書』에는 “何以言爲乎”로 되어 있다.

393) 苦: ‘거칠다[麤]’는 의미이다. 『漢書』에는 “不備善而苦惡”로 되어 있다.

한나라 효문제 14년(전166)³⁹⁴에 흉노 선우 기병 14만이 조나(朝那), 소관(蕭關)³⁹⁵을 침입해 북지[군] 도위(都尉)³⁹⁶ [손]양(孫印)³⁹⁷을 죽이고 백성과 가축을 많이 노략질하여 마침내 팽양(彭陽)³⁹⁸에 이르렀다. 돌격 기병(奇兵)³⁹⁹이 들어와 회중궁(回中宮)⁴⁰⁰을 불태웠고, 척후 기병대[候騎] 웅(雍)⁴⁰¹의 감천[궁](甘泉宮)⁴⁰²까지 이르렀다. 이에 효문제는 중위(中尉)⁴⁰³ 주사(周舍)⁴⁰⁴와 낭중령(郎中令)⁴⁰⁵ 장무(張武)를 장군⁴⁰⁶으로 삼아 전차 천 대,⁴⁰⁷

394) 文帝가 즉위 후 3년(전177) 오월에 匈奴가 北地, 河南 등을 첫 번째로 공격하자 丞相 灌嬰을 시켜 막게 했다. 11년(전169) 여름에는 匈奴가 두 번째로 狄道를 공격하였다. 14년(전166) 겨울에는 文帝 즉위 이후 세 번째로 공격을 하였다. 14년의 대규모 침입 원인은 匈奴 인구의 中國으로의 유출을 유인하는 漢나라의 정책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로 인해 漢나라의 招納政策은 20년 정도 중단되었다(熊貴平·王擴建, 2005: 72)

395) 蕭關: 關門의 명칭으로, 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古原縣 동남쪽에 위치하였다.

396) 都尉: 武官 명칭으로, 秦代에는 '郡尉'라고 했다. 漢 景帝시기에는 명칭을 都尉로 바꾸었다. 郡守를 군사적인 면에서 보좌하면서 郡守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 모두 銀印割符를 받았고 秩이 比二千石이었다.

397) 印: 孫印을 말한다. 그는 공을 많이 세워 文帝 10년(전170) 삼월 丁巳(26일)에 그의 자손인 單이 絳侯가 되었다.

398) 彭陽: 현의 명칭으로 지금의 甘肅省 鎮原縣 동남쪽에 있었다.

399) 奇兵: 『漢書』에는 "騎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돌격 기병'이다.

400) 回中宮: 宮闕의 명칭으로 北地, 즉 지금의 陝西省 隴縣 서북쪽에 있는 岐山 雍縣 서쪽 40여 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武帝가 건설하였다.

401) 雍: 지칭으로 지금의 陝西省 鳳翔縣이었다. 이곳에 戰國時代 秦의 國都가 있었다.

402) 甘泉: 지명으로 雲陽을 지칭하는데, 지금 陝西省 淳化縣 서북쪽에 있었다. 雲陽의 서북쪽에 甘泉山이 있고, 그 위에 甘泉宮이 있었다. 이것이 秦나라의 林光宮이었다. (주145), 주177) 참조)

403) 中尉: 관직의 명칭이다. 이것은 이미 戰國時代부터 존재했는데, 漢나라가 秦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계속 존재했다.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명칭을 바꾸어 執金吾라고 했다. 中尉는 수도의 수비[掌徼循京師]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皇帝가 출행할 때에 그를 護衛, 儀仗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404) 周舍: 景帝시대에 御史大夫를 했다.

405) 郎中令: 관직의 명칭으로 秦나라 시기에 설치되었다. 武帝시대에는 명칭을 光祿勳으로 바꾸었다. 주로 宮殿의 門戶를 담당하였으나 실제 그 권력이 아주 막강하였다. 皇帝禁內에서 皇帝를 侍從, 護衛, 顧問하는 중요한 관직으로 九卿의 하나였다. 武帝시대에는 李廣과 李敢父子가 이 자리를 맡았다. 文帝가 代王일 때에는 張武가 郎中令을 대신하였다.

406) 將軍: 고급 무관의 통칭이다. 고급 문관을 '卿'이라고 통칭한 것과 비슷하다. 전쟁터에서는 부대의 작전을 지휘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다.

기병 십만을 일으켜 장안 근방에 포진시킴으로써 흉노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리고 창후(昌侯) 노경(盧卿)⁴⁰⁸을 상군장군으로, 영후(甯侯) 위속(魏遯)⁴⁰⁹을 북지장군, 융려후(隆慮侯) 주조(周竈)⁴¹⁰를 농서장군, 동양후(東陽侯) 장상여(張相如)⁴¹¹를 대장군,⁴¹² 성후(成侯) 동혁(董赤)⁴¹³을 전장군⁴¹⁴에 임명하고, 전차와 기병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흉노를 공격해 가도록 했다.⁴¹⁵ 선우가 국경 장성 안에서 한 달쯤 머물다가 물러나⁴¹⁶ 버리니 한나라 군대는 [그를 뒤쫓아] 장성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으나 [적을] 죽일 수 없었다. 흉노가 날로 교만해져⁴¹⁷ 해마다 변경지대를 [침범해] 들어와 백성들과 가축들을⁴¹⁸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서] 운중과 요동이 가장 심했고 [그 피해는] 대군에서⁴¹⁹ 만여 명에 이르렀다.⁴²⁰

407) 古代의 戰車 전술에서는 甲車 1乘에 甲士 3명, 步卒 72명, 馬 4匹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했다. ‘千乘’이라고 하면 甲士가 3,000명, 步卒이 72,000명, 馬가 4,000필이었다.

408) 盧卿: 高祖시대의 功臣이다. 본래는 齊나라의 장군으로 ‘昌圍侯 旅卿’으로 기록되었다(『漢書』 권16 「高惠高后文功臣表」). 漢王 4년에 韓信을 따라 齊를 정벌하고 項羽를 격파했고, 그 다음에 韓王 信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를 代郡에서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昌圍侯로 봉해졌다. 그는 上郡에 군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上郡將軍이라 불렸다. 아래 北地將軍, 隴西將軍 등도 將軍이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에 따라 붙은 명칭이다. ‘盧’는 달리 ‘旅’로도 표기되기도 하였다.

409) 魏遯: 高祖시기의 공신이다. 漢에 들어가 都尉가 되어 臧荼를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워 高祖 8년(전199) 4월 寧遠侯로 봉해졌다. 文帝 14년(전166)에 魏遯가 北地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北地將軍이라 불리게 되었다.

410) 周竈: 高祖시기의 功臣이다. 連敖(楚官)로 漢에 들어가 長鈺都尉로서 項籍을 격파하여 高祖 6년(전201) 正月에 隆慮侯로 봉해졌다. 그의 군대가 隴西에 있었기 때문에 隴西將軍이라 불리게 되었다.

411) 張相如: 高祖 6년(전201)에 中大夫가 되었고 河間守로 陳豨를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웠다. 高祖 11년(전196) 12월에 東陽武侯로 봉해졌는데, 1,300호를 받았다(『漢書』 권50 「張馮汲鄭傳」: 2307).

412) 大將軍: 부대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칭하는 명칭이다. 그의 지위는 丞相 다음에 해당하였고, 그에 대한 예의가 아주 깎듯하였다.

413) 董赤: 음은 ‘동혁’이다. 高祖시대의 功臣으로 侯가 되었다.

414) 前將軍: 부대 내의 고급 장군의 명칭으로, 前, 後, 左, 右將軍 중의 하나였다. 그 위치는 大將軍과 車騎將軍 다음으로 衛將軍과 동급이었다. 그 지위는 上卿 다음에 해당하였다.

415) 이상과 같은 장군 임명 이외에도 內史 欒布 역시 將軍이 되었다.

416) 『漢書』에는 “乃去”가 없다.

417) 『漢書』에는 “匈奴日以驕”로 되어 있다.

418) 『漢書』에는 “畜產”이 없다.

419) 『漢書』에는 “代”가 없다.

한나라는 [이를] 걱정하여⁴²¹⁾ 이에 사신을 시켜 편지를 보냈다. 선우도 또한 당호를 시켜 사과해 왔기 때문에 다시 화친에 대한 일을 얘기할 수 있었다.

孝文帝後二年，使使遺匈奴書曰：「皇帝敬問匈奴大單于無恙。使當戶且居雕渠難·郎中韓遼遺朕馬二匹，已至，敬受。先帝制：長城以北，引弓之國，受命單于；長城以內，冠帶之室，朕亦制之。使萬民耕織射獵衣食，父子無離，臣主相安，俱無暴逆。今聞滌惡民貪降其進取之利，倍義絕約，忘萬民之命，離兩主之驩，然其事已在前矣。書曰：『二國已和親，兩主驩說，寢兵休卒養馬，世世昌樂，闔然更始。』朕甚嘉之。聖人者日新，改作更始，使老者得息，幼者得長，各保其首領而終其天年。朕與單于俱由此道，順天恤民，世世相傳，施之無窮，天下莫不咸便。漢與匈奴鄰國之敵，匈奴處北地，寒，殺氣早降，故詔吏遺單于梳櫛金帛絲絮佗物歲有數。今天下大安，萬民熙熙，朕與單于爲之父母。朕追念前事，薄物細故，謀臣計失，皆不足以離兄弟之驩。朕聞天不頗覆，地不偏載。朕與單于皆捐往細故，俱蹈大道，墮壞前惡，以圖長久，使兩國之民若一家子。元元萬民，下及魚鼈，上及飛鳥，跂行喙息蠕動之類，莫不就安利而辟危殆。故來者不止，天之道也。俱去前事：朕釋逃虜民，單于無言章尼等。朕聞古之帝王，約分明而無食言。單于留志，天下大安，和親之後，漢過不先。單于其察之。」

효문제 후원(後元) 2년(전162)에 [황제가] 사신을 시켜 흉노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였다. “황제는 삼가 흉노대선우가 무고하신가 안부를 묻소. 당호·저거(且居)⁴²²⁾ 조거난(雕渠難)⁴²³⁾ 과 낭중 한료(韓遼)⁴²⁴⁾를 시켜 짐에게 보낸 말 두 필이 잘 와서 고맙게 받았소. 선제(先帝)께서

420) 『漢書』에는 “郡萬餘人”로 되어 있다.

421) 『漢書』에는 “漢甚患之”로 되어 있다.

422) 且居: 匈奴의 官名으로 『漢書』에는 “且渠”로 되어 있다. (주219) 참조)

423) 雕渠難: 匈奴의 사람 이름으로, 當戶·且渠는 그의 관칭이다.

424) 郎中은 匈奴에 없는 관직이므로, 여기에서의 郎中은 漢의 관직이다. 따라서 韓遼가 이런 명칭을 갖게 된 것은 그 자신이 郎中이므로 匈奴에 투항하였거나 아니면 그의 조상이 漢나라의 郎中이었다가 투항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성(長城) 북쪽에 있는 유목국가[引弓之國]는 선우에게 명령을 받으며,⁴²⁵⁾ 장성 안쪽에 있는 의관(衣冠)을 갖춘 [문명국인 우리] 나라는 또한 짐이 다스린다. 만백성으로 하여금 받을 갈고 베를 짜고 사냥하게 하여 입고 먹으면 아비와 자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고, 신하와 임금이 서로 편안하게 되니 모두가 포악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사악한 백성이 나아가 얻는 이익을 탐하여⁴²⁶⁾ 의리를 배반하고 약속을 어겨 만백성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두 나라 군주 간의 친선을 이간하였지만 그 일은 이미 과거의 일ियो. [선우께서 짐에게] 보내 온 편지에서도 ‘두 나라가 이미 화친하고 두 군주가 기꺼이 여기면서 전투를 중지하고 병졸을 쉬게 하고 말을 먹이니 대대로 번영과 즐거움 누리면서 화합해⁴²⁷⁾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도 [이것을] 정말로 기쁘게 여기요. 성인(聖人)이란 날마다 새롭게 옛것을 고치고⁴²⁸⁾ 바꾸어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여 늙은이를 쉴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각자가 수령(首領)을 보존하여 하늘이 준 수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짐은 선우와 함께 이런 도리로부터 천도(天道)에 따라 백성들을 어여쁘게 여기고 대대로 서로 이어가서 그것을 끝없이 베풀 수 있다면 천하에 편하지 않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⁴²⁹⁾ 한나라와 흉노는 이웃의 대등한 국가이나⁴³⁰⁾ 흉노가 북쪽 땅에 위치해 날씨가 추우니 만물을 죽이는 냉기가 일찍 내리기 때문에 [짐이] 관리에게 시켜 해마다 선우에게 일정량의 차조, 누룩, 황금, 비단, 명주솜 등을 보내도록 할 것이요. 지금 천하가 크게 태평하게 되어 만백성이 즐거워하고 있소. 짐과 선우는 [만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하오. 짐이 지난 일을 되돌아보니 그것은 하찮은 일이고 사소한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모두가] 모신(謀臣)의 계략이 잘못된 때문이니 [이런 것] 모두가 형제 나라로서의 친분을 벌릴 만한 것이 못 되오. 짐이 듣기에 하늘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덮지 않고 땅도 어느 한쪽만을 치우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425) 『漢書』에는 “受令單于”로 되어 있다.

426) 『漢書』에는 “今聞漂惡民貪降其進取之利，倍義絕約”라고 된 부분을 “지금 들으니 사악한 백성이 그 좋아하는 것을 탐하여 의리를 배반하고 약속을 어겨(今聞漂惡民貪降其趣，背義絕約)”라고 기록했다. 여기서 사악한 백성은 中行說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7) 闕은 ‘안정되었다’는 의미이다. 『漢書』에는 “翁”으로 되어 있다.

428) 이는 『大學』에서 나온 글귀인데, “계속 발전해 간다.”는 뜻이다. 『漢書』에는 “聖者日新”으로 되어 있다.

429) 『漢書』에는 “天下莫不咸嘉”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천하가 안정되었다.”는 뜻이다.

430) 『漢書』에는 “使漢與匈奴鄰敵之國”으로 되어 있다.

신지 않는다고 했소.⁴³¹⁾ 짐과 선우는 모두 사소한 지난번⁴³²⁾ 사건 등을 흘려버리고 같이 대도(大道)를 걸으며⁴³³⁾ 과거의 잘못[舊惡]을 깨 버림으로써 장구한 대책을 세워 양국 백성들이 한 집안의 식구처럼 살 수 있게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래로는 물고기나 자라에 미치고, 위로는 나는 새에 이르기까지, 발로 걸어다니는 것과 입으로 숨 쉬는 것, 그리고 꿈틀거리는 부류⁴³⁴⁾까지 편안하고 이익을 얻게 하여 위태로움을 피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오.⁴³⁵⁾ 그러므로 오는 자를 막지 않는 것⁴³⁶⁾이 하늘의 도리니, 다 함께 지난 일을 잊어버립시다. 짐은 흉노로 도망쳤거나 잡혀 온 백성을 풀어주겠소. 선우도 장니(章尼)⁴³⁷⁾ 등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짐이 듣건대, 옛날의 제왕은 약속을 분명히 하고 거짓말⁴³⁸⁾을 하지 않았다고 하오. 선우가 [화친에] 뜻이 있다면 천하는 크게 편해질 것이고, 화친한 뒤에 한나라는 먼저 [약속을 어기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오. 선우는 [이런 짐의 뜻을] 잘 살피 주시오.”

單于既約和親，於是制詔御史曰：「匈奴大單于遺朕書，言和親已定，亡人不足以益衆廣地，匈奴無入塞，漢無出塞，犯(令)[今]約者殺之，可以久親，後無咎，俱便，朕已許之。其布告天下，使明知之。」

선우도 이미 화친을 약속하니 이에 효문제가 어사(御史)⁴³⁹⁾에게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려

431) “天不頗覆，地不偏載”는 『莊子』 「大宗師篇」 “天無私覆，地無私載.”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그와 비슷한 것으로 『中庸』 “今天天，斯昭昭之多，及其無窮也，日月星辰系焉，萬物覆焉。今天地，一撮土之多，及其廣厚，載華嶽而不重，振河海而不洩，萬物載焉.”이 있다.

432) 『漢書』에는 “往”이 없다.

433) “捐往細故，俱蹈大道”는 『漢書』 「文帝紀」 後2년 유월조에 “俱棄細故，偕之大道”로 되어 있다.

434) 蠕動之類는 곤충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말한다.

435) 『漢書』에는 “避”로 되어 있다.

436) “故來者不止”는 『孟子』 「盡心下」 “夫子之設科也，往者不追，來者不拒.”에서 나온 글귀이다.

437) 章尼: 漢나라로 도망쳐온 匈奴 사람이다.

438) 食言: ‘거짓말’을 뜻한다(『爾雅』 「釋詁」 “食，偽也.” 『國語』 「晉語」 八 “魯人食言.” 韋注 “食，偽也.”).

439) 御史: 관직의 명칭으로 ‘御史大夫’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御史大夫는 皇帝의 옆에서 文書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때문에 관리들에게 하달되는 皇帝의 詔書를 만들어 ‘制詔御史’ 또는 ‘制詔丞相御史’라

서 말하였다.⁴⁴⁰⁾ “흉노대선우가 짐에게 편지를 보내와 말하기를 이미 화친이 결정되었다고 말하였다. [흉노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이⁴⁴¹⁾ 인구를 더해 주는 것도 영토를 넓혀 주는 것도 아니니, 흉노 [사람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나라 [사람도] 국경을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번의 약속을⁴⁴²⁾ 어기는 자를 베면 오래도록 화친할 수 있고 뒷날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 모두 편하게 될 것이다. 짐이 이미 [이를] 허가하였다.⁴⁴³⁾ 그것을 천하에 포고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도록 하라.”

後四歲，老上稽粥單于死，子軍臣立爲單于。旣立，孝文皇帝復與匈奴和親。而中行說復事之。

그로부터 4년 뒤에⁴⁴⁴⁾ 노상계육선우⁴⁴⁵⁾가 죽고 [그의] 아들 군신(軍臣)⁴⁴⁶⁾이 서서 선우가 되었다. [군신선우가] 즉위하자⁴⁴⁷⁾ 효문제가 다시 흉노와 화친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항열이 다시 [새로운 선우를] 섬겼다.⁴⁴⁸⁾

고 했다. (주480) 참조

440) 『漢書』에는 “曰”이 있다.

441) 亡人: 章尼 등과 같이 漢나라에 투항한 匈奴 사람들을 말한다.

442) 『漢書』에는 “令約”이 “今約”으로 되어 있으므로, 저본의 교감자가 “令”을 “今”으로 바꾸어두었다.

443) 『漢書』에는 “朕已許”로 되어 있다.

444) “後四歲”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漢 文帝 後元 4년(전160)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老上單于가 실제로 사망한 연도는 後元 3년(전161)이기 때문이다. 또한 “後四歲”라고 한 것은 다음에 벌어진 文帝와 匈奴의 화친 논의가 전개된 것이 後元 4년(전160)이기 때문이라고도 추정된다. ‘歲’는 『漢書』에 근거하면 ‘年’으로 해야 마땅하다.

445) 『漢書』에는 “老上單于”로 되어 있다.

446) 軍臣單于(재위 전161~전126): 匈奴의 4대 單于이다. 冒頓單于의 손자로 부친 老上單于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부친이 漢나라와 체결하였던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漢의 북변을 여러 차례 침범하였다. 景帝 때에는 漢나라의 公主를 연지로 맞이했고, 貢納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빈번히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武帝가 즉위한 뒤로는 다시 침공을 시작하여 서로 항쟁을 되풀이함으로써 치세 후반부터 점차 쇠퇴하였다. 여기에는 單于가 없다.

447) 軍臣單于가 즉위한 해는 後元 3년(전161)이다.

448) 『漢書』에는 “而中行說復事之。漢復與匈奴和親。”으로 내용이 도치되어 있다.

軍臣單于立四歲，匈奴復絕和親，大入上郡·雲中各三萬騎，所殺略甚衆而去。於是漢使三將軍軍屯北地，代屯句注，趙屯飛狐口，緣邊亦各堅守以備胡寇。又置三將軍，軍長安西細柳·渭北棘門·霸上以備胡。胡騎入代句注邊，烽火通於甘泉·長安。數月，漢兵至邊，匈奴亦去遠塞，漢兵亦罷。後歲餘，孝文帝崩，孝景帝立，而趙王遂乃陰使人於匈奴。吳楚反，欲與趙合謀入邊。漢圍破趙，匈奴亦止。自是之後，孝景帝復與匈奴和親，通關市，給遺匈奴，遣公主，如故約。終孝景時，時小入盜邊，無大寇。

군신선우가 즉위한 지 4년이 지나⁴⁴⁹⁾ 흉노는 또 다시 화친을 끊고 대거 상군과 운중[군]을 각각 삼만 명 기병으로 들어와⁴⁵⁰⁾ 죽이고 노략질을 많이 한 다음에 돌아갔다.⁴⁵¹⁾ 이에 한나라에서는 세 명의 장군⁴⁵²⁾을 북지에, 대(代)에는 구주산에,⁴⁵³⁾ 조(趙)에는 비호구(飛狐口)⁴⁵⁴⁾에 주둔시켜 변경⁴⁵⁵⁾을 따라 또한 수비를 단단하게 함으로써 흉노의 침입에 대비했다. 또한 세 장군들을⁴⁵⁶⁾ 배치하여 장안 서쪽의 세류(細柳)⁴⁵⁷⁾와 위수(渭水) 북쪽의 극문(棘門),⁴⁵⁸⁾ 폐상

449) 저본에 “四歲”로 되어 있는데, 『史記』 권10 「孝文本紀」와 『漢書』 권4 「文帝紀」, 『漢書』 권94上 「匈奴傳」에 근거하면 ‘일 년 남짓[歲餘]’으로 고쳐야 한다. 『漢書』 역시 이로 인해 “歲餘”로 되어 있다.

450) 文帝 後元 6년(전158)에匈奴가 대거 雲中을 공격했을 때 방어를 맡았던 것은 魏尚이었다.

451) 『漢書』에는 “所殺略甚衆”로 되어 있다.

452) 세 명의 장군은 車騎將軍 令免, 將軍 蘇意, 그리고 將軍 張武였다. 北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던 將軍은 張武였다(『史記』 권10 「孝文本紀」: 432).

453) 代郡의 句注山에 주둔했던 장군은 과거 楚相이었던 蘇意였다. 句注山은 雁門山인데, 山西省 代縣 西北에 위치하고 있다(주126) 참조.

454) 飛狐口: 요새 명칭으로 河北 蔚縣의 남쪽, 涿源縣의 북쪽에 있는 협곡이다. 그 길이가 백여 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곳에는 車騎將軍과 中大夫 令免이 주둔하고 있었다.

455) 緣邊: 漢나라와 匈奴가 서로 접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前漢시대에는 9개의 군이 匈奴와 접해 있었다. 그것은 五原郡, 朔方郡, 雲中郡, 代郡, 雁門郡, 定襄郡, 北平郡, 上谷郡, 漁陽郡 등이었다.

456) 세 명의 장군은 河內太守 周亞夫, 宗正 劉禮, 視茲侯 徐厲이었다(『史記』 권10 「孝文本紀」: 432).

457) 細柳: 지금의 陝西省 咸陽市 서남쪽 渭河 北岸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周亞夫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458) 棘門: 秦나라의 宮門 명칭으로 지금의 陝西省 咸陽市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徐厲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霸上)⁴⁵⁹에 진을 쳐 흉노에 대비하게 했다. 흉노의 기병이 대의 구주[산] 주변으로 들어오자 봉화불이 감천(甘泉)⁴⁶⁰에서 장안까지 전달되었다. 수개월이 지나 한나라 병사들이 변경에 이르니 흉노가 또한 변경 요새에서 멀리 가 버려⁴⁶¹ 한나라 군사들 역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년 남짓 지나 효문제가 붕어하고⁴⁶² 효경제가 즉위하니⁴⁶³ 조왕(趙王) 수(遂)⁴⁶⁴가 몰래 흉노로 사신을 보냈다. 오나라와 초나라 [등 일곱 나라의] 반란이⁴⁶⁵ 일어났을 때 [흉노는] 초나라와 모의하여 변경을 침입하고자 했다. 한나라가 초나라를 포위해 격파하니⁴⁶⁶ 흉노도 [침입 기도를] 그만두었다. 그 뒤로⁴⁶⁷ 효경제가 다시 흉노와 화친을 하고⁴⁶⁸ 관시(關市)를 열어 흉노에 [물자를] 보내 주고, 한나라 공주를 보냈는데, [이는] 본래의 약속과 같았다. 마침내 효경제의 시대에 때로⁴⁶⁹ 소규모의 변경 침범이 있었으나 대규모 침입은 없게 되었다.⁴⁷⁰

459) 霸上: 지명으로 '霸頭'라고도 한다. 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劉禮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460) 甘泉: 지명으로 甘泉山 또는 甘泉宮이 위치한 곳을 말하였다. 陝西省 淳化縣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402) 참조

461) 『漢書』에는 “去”가 없다.

462) 文帝는 後元 7년(전157) 여름(夏) 유월 己亥(초하루)未央宮에서 붕어했는데, 46세였다. 『漢書』에는 “文帝”로 되어 있다.

463) 文帝가 붕어하고 유월 초9일, 文帝의 中子 劉啟가 景帝(재위 전156~전141)로 즉위하였다. 『漢書』에는 “景帝”로 되어 있다.

464) 劉遂: 漢 高祖의 손자로 幽王 友의 아들이다. 文帝가 즉위하자 趙王이 되었다. 景帝시기에 晁錯가 영지를 줄이는 것에 반발해 吳·楚의 반란에 참여하였다가 패배하자 자살하였다.

465) 이를 보통 ‘吳楚七國의 亂’이라고 부른다. 漢 景帝 3년(전154) 正月 吳王 劉濞가 조정의 削藩에 반대하여 楚王 劉戊, 남쪽의 閩, 동쪽의 越, 북쪽의 匈奴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월 太尉 周亞夫 등이 출전하여 반란을 진압하자, 삼월 반란을 일으킨 왕들은 자살하거나 피살되었다.

466) 吳와 楚가 패배해 七王 聯合軍의 주력이 약화되자 漢 조정에서는 曲周侯 酈寄를 보내 趙를 공격하였다. 趙王이 邯鄲을 지키면서 대치하기를 7개월 정도 하였고 匈奴도 吳와 楚의 패전 소식을 듣고 군사 행동을 중지하였다. 欒布가 齊를 멸망시키고 趙를 공격하여 성이 파괴되자 劉遂 역시 자살하였다.

467) 『漢書』에는 “自是後”로 되어 있다.

468) 景帝 元年(전156) 사월 御史大夫 陶青을 보내 和親하고 2년(전155)과 5년(전152)에 和親使節을 다시 匈奴로 보냈다.

469) 『漢書』에는 “時時”로 되어 있다.

470) 景帝時期에 匈奴의 침공 기록을 검토해 보면, 2년(전155)에 燕나라를 공격한 것, 6년(전151)에 雁門을

今帝即位，明和親約束，厚遇，通關市，饒給之。匈奴自單于以下皆親漢，往來長城下。

지금의 황제[武帝]⁴⁷¹⁾가 즉위하자 [흉노와] 화친의 맹약을 분명히 하고⁴⁷²⁾ 대우를 후하게 하여 관시를 통해 [물자를] 풍부하게 주었다. 흉노에게도 선우⁴⁷³⁾ 이하가 모두 한나라와 친근

공격하여 武泉에 이르러 上郡을 공격한 것, 後元 2년(전142)에 雁門을 공격한 것인데, 이 모두가 소규모의 소요에 불과하였다.

471) 지금의 황제는 武帝를 지칭한다. 景帝가 後 3년(전141) 정월 甲子(28일)에 붕어하자 같은 날 즉위하였다. 『漢書』는 武帝 이후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武帝”로 되어 있다.

武帝(재위 전141~전87): 이름은 劉徹. 묘호는 世宗. 즉위 후 前代의 權臣들을 면직시키고 어질고 겸손한 선비를 등용하여 관리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五經博士를 두어 儒學에 중점을 두고 전127년부터 諸侯國을 왕의 여러 아들에게 分封하여 中央集權을 강화하였다. 이후에 全國을 13州로 나누고, 주마다 刺史를 두어 군수를 감독시켰다. 또 運河를 굴착하여 농지의 관개와 운송을 도왔다. 대외적으로는 張騫을 大月氏로 파견하고, 장군 衛靑, 霍去病, 李廣 등을 시켜 匈奴를 토벌시켜 오르도스 지방을 회복하여 두 개의 郡을 설치하였다. 전119년에는 衛靑이 匈奴를 고비 북쪽으로 내쫓았다. 河西에 있던 匈奴 渾邪王이 항복하자 그곳에 4군을 설치해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교통로를 확보하다. 이후 西域諸國의 入貢이 계속되었고 전104년에는 李廣利를 시켜 帕米르고원 북서에 있는 大宛國[大宛國]을 정벌하였다. 匈奴에 대한 방어와 西域 교통로 유지를 위해 漢人을 이주시키고 屯田을 두었다. 남으로 閩越·東越 두 왕국을 병합하였다. 전111년에는 番禺(지금의 廣州)에 도읍한 南越을 멸망시킨 다음 9개의 郡을 설치했다. 四川省 변경에서 雲南·貴州에 있는 冉駹·嶓·笮·夜郎·滇 등의 종족을 귀순시키고 6개의 郡을 설치했다. 동으로는 朝鮮을 공격해 王劍城을 함락시키고, 전108년 樂浪·眞番·臨屯·玄郡 등 4개의 郡을 두었다. 성공적인 外治의 성과에 비해 宮殿과 離宮을 짓고, 不老長生을 믿어 方士를 모아 泰山에 封禪하고 각지를 순행하여 재정을 압박함으로써 내치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增稅·新稅에다 鹽·鐵을 전매하고 均輸·平準法 등을 실시하는 등 재정확보 정책을 썼다. 또한 武功爵을 팔기도 했으나 관리의 부정이 심해지고 국민의 생활도 궁핍해져 皇太子의 반란(巫蠱의 亂)이 일어났다. 晩年에는 외정을 중지하고 다시 변경에 있던 輪臺의 屯田을 폐지하는 등 백성을 다스리는 데 힘썼다.

472) 武帝는 즉위한 이후에 과거에 맺었던 화친조약을 다시 확인하고 시집보내지 않은 公主를 匈奴로 보냈다. 建元 6년(전135) 匈奴가 화친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해 오자 그와 관련하여 조정에서 논의를 벌였다. 이때 大行王 恢는 군사를 동원해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御史大夫 韓安國이 화친을 주장하였다. 관료들이 모두 韓安國의 주장에 동조하자 武帝 역시 화친을 허락하였다. 이로 인해 형성된 일시적인 화친 국면은 元光 2년(전133) 여름 6월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깨졌다.

473) 匈奴의 軍臣單于를 지칭한다.

해져 장성 근처까지 왕래했다.

漢使馬邑下人聶翁壹奸蘭出物與匈奴交，詳爲賣馬邑城以誘單于。單于信之，而貪馬邑財物，乃以十萬騎入武州塞。漢伏兵三十餘萬馬邑旁，御史大夫韓安國爲護軍，護四將軍以伏單于。單于旣入漢塞，未至馬邑百餘里，見畜布野而無人牧者，怪之，乃攻亭。是時鴈門尉史行徼，見寇，葆此亭，知漢兵謀，單于得，欲殺之，尉史乃告單于漢兵所居。單于大驚曰：「吾固疑之。」乃引兵還。出曰：「吾得尉史，天也，天使若言。」以尉史爲「天王。」漢兵約單于入馬邑而縱，單于不至，以故漢兵無所得。漢將軍王恢部出代擊胡輜重，聞單于還，兵多，不敢出。漢以恢本造兵謀而不進，斬恢。自是之後，匈奴絕和親，攻當路塞，往往入盜於漢邊，不可勝數。然匈奴貪，尚樂關市，嗜漢財物，漢亦尚關市不絕以中之。

한나라가 마읍(馬邑)⁴⁷⁴ 근처에 사는 섭옹일(聶翁壹)⁴⁷⁵을 시켜 [금령을 어기고] 몰래 국경을 넘어 물자를 내어⁴⁷⁶ 흉노와 교역을 하게 했는데,⁴⁷⁷ [섭옹일이] 마음성을 파는 것처럼 해서 선우를 유인하도록 했다.⁴⁷⁸ 선우가 [이를] 믿고 마음의 재물을 탐내 10만의 기병을

474) 馬邑: 縣 명칭으로 漢代에 雁門郡에 속했는데, 지금의 山西省 朔縣 일대이다.

475) 聶翁壹: 원래 이름은 聶壹이다. 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翁”자를 붙인 것이다. 『衛將軍驃騎列傳』과 『漢書』 권52 『竇田灌韓傳』에서도 모두 “聶壹”이라고 되어 있다. 顏師古 역시 姓은 聶이고 名은 壹이고, 翁은 老人을 칭하는 것이라고 했다. 『漢書』에는 “下”가 없다.

476) 奸蘭: 불법적으로 사적인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477) 出物: 私적으로 國境을 넘어 交易하는 것을 말한다. 『漢書』에는 “與匈奴交易”로 되어 있다.

478) 馬邑의 聶壹이 벌인 匈奴 유인 술책에 대한 내용은 『韓長孺列傳』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元光 元年(전134) 雁門[郡] 馬邑 豪族 攝翁壹이 大行 王恢를 통해 皇帝께 아뢰었다. “匈奴가 이전에 화친을 하였기 때문에 변방사람들과 친해 믿고 있어 이익을 미끼로 그들을 끌어들이 수 있습니다.” 몰래 攝翁壹을 시켜 간첩으로 삼아 匈奴로 도망해 들어가 單于에게 말하게 했다. “제가 馬邑의 縣令과 縣丞과 관리들을 뒀 뒤 城邑을 가진 채로 투항을 하면 [그곳의 재물을] 몽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單于가 [攝翁壹을] 좋아하며 믿었으므로 곧 攝翁壹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攝翁壹이 바로 돌아와 사형수의 머리 몇 개를 베어 馬邑 성벽에다 내걸어 單于의 사자가 믿도록 하면서 말하였다.

이끌고 무주[현](武州縣)⁴⁷⁹⁾의 장성으로 들어왔다. 한나라에서는 30여 만의 [병력을] 마음 근방에 숨겨두고 어사대부⁴⁸⁰⁾ 한안국(韓安國)⁴⁸¹⁾을 호군(護軍)⁴⁸²⁾으로 삼아 네 장군⁴⁸³⁾을 통솔하여 선우를 숨어서 기다렸다. 선우가 이미 국경에 돌입해 마음으로부터 백여 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왔다가 들판에 가축들이 가득 널려 있으나 목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바로 정장(亭障)⁴⁸⁴⁾을 공격했다. 이때 안문위사(雁門尉史)⁴⁸⁵⁾가 장성을 순시하다가 [선

“馬邑의 長吏들을 이미 다 죽었으니 빨리 오시오.” 이에 單于가 장성을 뚫고 10여 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武州의 요새로 들어왔다(『史記』 권108 「韓長孺列傳」: 2861).

479) 武州: 縣 명칭으로 漢代에는 雁門郡에 속해 있었다. 지금의 山西省 在雲縣의 남쪽에 있었다.

480) 御史大夫: 관직 명칭으로 秦나라시기에는 御史였다. 이후에 명칭이 바뀌어 중앙의 관직이 되었다. 漢代에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丞相의 다음 지위에 해당했다. 秩이 中二千石이었다. 제도적으로 丞相은 金印紫綬를, 御史大夫는 銀印青綬를 갖고 있었다. 관위가 丞相에 비해 낮지만 御史大夫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국가의 모든 정무가 丞相府와 御史府에 귀속되어 있었고, 두 개의 府가 병칭되었기 때문이다. 御史大夫는 내적으로 本朝의 風化를 잇고, 밖으로는 丞相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돕는 등 맡은 임무가 막중하였다.

481) 韓安國: 字는 長孺로 梁나라 成安(지금의 河南省 동부) 사람이다. 韓非子와 雜家의 학설을 騶 땅의 田先生에게서 사사받은 다음에 梁孝王의 中大夫가 되었다. 吳楚七國의 반란 시기에 梁나라의 將이 되어 반란 진압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이후에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가 梁王의 2,000석의 봉록을 받는 內史가 되었다. 梁의 孝王이 죽고 共王이 즉위한 이후에 은퇴했다가 武帝時期에 田蚡이 太衛가 되었을 때 北地郡의 都尉가 되었다가 大司農이 되었다. 田蚡이 丞相일 때에 安國이 御史大夫가 되어 匈奴와의 화친을 주장하였다. 이후 馬邑에서 匈奴를 치려는 계획에 참가하여 護軍將軍으로 작전을 지휘했다. 御史大夫가 된 지 4년 후에 丞相 田蚡이 죽자 丞相 대행을 하던 중 皇帝가 行幸할 때 先導 수레를 지휘하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그를 丞相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다리를 몹시 절어 皇帝는 할 수 없이 平棘侯 薛澤을 丞相으로 삼았다. 결국 丞相이 못 되고 사직했다가 다시 中尉로 복직되어 衛尉로 승진했다. 衛青이 雁門에서 匈奴를 치려고 할 때 材官將軍으로 漁陽에 주둔했다. 하지만 匈奴의 공격을 받아 패전하였다가 문책당해 右北平(河北省 東北部와 熱河省 南部)에 주둔하는 등 좌천당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다가 元朔 2년(전127)에 죽었다(권108 「韓長孺列傳」: 2857~2864).

482) 護軍: 武官의 명칭이다. 漢代에는 大將軍에서 前後左右將軍까지 모두를 감독하며 다스리는 황제의 최고 급 무관이었다. 武帝時期에는 전쟁이 빈발하여 많은 將軍을 두었는데, 원정의 지명이나 대상 내지는 이끄는 부대의 종류 또는 임무에 따라 그 명칭이 결정되었다. 韓安國이 護軍將軍으로 임명된 것은 네 명의 장군을 통솔해야 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漢書』에는 “護軍將軍”으로 되어 있다.

483) 네 명의 장군은 驍騎將軍 衛尉 李廣, 輕車將軍 太僕 公孫賀, 將屯將軍 大行王 恢, 材息將軍 太中大夫 李息 등이다. 네 명의 장군은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馬邑 옆에 있는 谷中에 매복해서 單于를 기다리고 있었다(『史記』 권108 「韓長孺列傳」: 2862).

우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정장에 숨어 있었는데,⁴⁸⁶⁾ [그가] 한나라 군대의 계획을 알고 있다가 선우에게 잡혀 [선우가 위사를] 죽이려고 하자 위사가 바로 선우에게 한나라 군대가 있는 곳을 모두 고했다.⁴⁸⁷⁾ 선우가 크게 놀라 “나는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바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국경을] 벗어나면서 “내가 위사를 잡은 것은 하늘[天]의 뜻이고 하늘이 너에게 말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위사를 ‘천왕(天王)’이라 했다.

[한편] 한나라 군대는 선우가 마음에 들어오면 군사를 내어 [선우를] 치려고 약속했으나 선우가 오지 않자 한나라 군사들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한나라의 장군 왕희(王恢)⁴⁸⁸⁾의 부대는 대[군]에서 나와 흉노의 치중(輜重)⁴⁸⁹⁾부대를 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우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가 [공격하지] 못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왕]희가 원래 이번의 계략을 세웠는데, 나아가 공격하지 못하자 [왕]희를 참했다.⁴⁹⁰⁾ 그 이후로⁴⁹¹⁾ 흉노는 화친을 끊고 [연결] 도로에 있는 장성을 공격했고, 왕왕 한나라의 변경으로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흉노는 탐욕스럽게 여전히 관시를 좋아해 한나라의 재물을 밝히니⁴⁹²⁾ 한나라에서도 또한 그대로 관시를 끊지 않음으로

484) 亭: 본래 地方 治安을 담당하는 機構로 10里 1亭에 亭長 1명을 두었다. 盜賊을 막는 일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변방에 있는 봉수대를 亭 또는 亭障이라고 하는데, 변경에 적군의 동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이었다.

485) 尉史: 관직의 명칭으로 본래 縣尉의 屬官 또는 郡都尉의 屬官이다. 邊塞 險要지역에 障과 塞를 설치하고 그곳에 障尉와 塞尉 등을 두었다. 塞尉의 屬吏로는 士史와 尉史를 2명 두었다. 雁門은 요새였기 때문에 障塞를 두었고, 雁門尉史는 鄣尉 또는 塞尉에 속한 尉史였다.

486) 『漢書』에는 “保”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번역하였다.

487) 徐廣은 “바로 내려와 모든 것을 單于에게 고하였다”라고 해석하였다. 이 부분은 『漢書』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어 “單于가 [그를] 잡아 베고자 했다. 尉史가 한나라 군대의 계획을 알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자 單于에게 [한나라 군대가 있는 곳을] 모두 고했다(“單于得, 欲刺之. 尉史知漢謀, 乃下, 具告單于.”)”라고 되어 있다.

488) 王恢: 燕나라 사람으로 여러 차례 변경의 小吏로서 일했기 때문에 匈奴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王恢는 이번 馬邑에서 매복했다가 기습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사람의 하나였다.

489) 輜重: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부대를 말한다.

490) 이 밖에도 “王恢가 자살했다”거나(『史記』 전108 「韓長孺傳」), 혹은 “獄死했다”는(『漢書』 권6 「武帝紀」) 등 다양한 기록이 있다.

491) 『漢書』에는 “自是後”로 되어 있다.

492) 『漢書』에는 “耨”로 되어 있으나 “嗜”가 맞다.

써 [흉노의 비위를] 맞추었다.⁴⁹³⁾

自馬邑軍後五年之秋，漢使四將軍各萬騎擊胡關市下。將軍衛青出上谷，至龍城，得胡首虜七百人。公孫賀出雲中，無所得。公孫敖出代郡，爲胡所敗七千餘人。李廣出鴈門，爲胡所敗，而匈奴生得廣，廣後得亡歸。漢囚敖·廣，敖·廣贖爲庶人。其冬，匈奴數入盜邊，漁陽尤甚。漢使將軍韓安國屯漁陽備胡。其明年秋，匈奴二萬騎入漢，殺遼西太守，略二千餘人。胡又入敗漁陽太守軍千餘人，圍漢將軍安國，安國時千餘騎亦且盡，會燕救至，匈奴乃去。匈奴又入鴈門，殺略千餘人。於是漢使將軍衛青將三萬騎出鴈門，李息出代郡，擊胡。得首虜數千人。其明年，衛青復出雲中以西至隴西，擊胡之樓煩·白羊王於河南，得胡首虜數千，牛羊百餘萬。於是漢遂取河南地，築朔方，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因河爲固。漢亦棄上谷之什辟縣造陽地以予胡。是歲，漢之元朔二年也。

마음의 전투가 있는 지 5년⁴⁹⁴⁾ 후 가을,⁴⁹⁵⁾ 한나라에서는 네 장군⁴⁹⁶⁾에게 각각 만 기씩을 주어 관시 부근의 흉노를 치게 했다. 장군 위청(衛靑)⁴⁹⁷⁾은 상곡[군]⁴⁹⁸⁾을 나와 농성(龍城)⁴⁹⁹⁾

493) 『漢書』에는 “漢亦通關市不絕以中之”로 되어 있다.

494) 漢 武帝 元光 6년(전129)이었다.

495) 『漢書』 권6 「武帝紀」에는 “봄”으로 되어 있는데, 본기의 기록이 타당하다.

496) 네 명의 장군은 車騎將軍 衛靑, 騎將軍 公孫敖, 輕車將軍 公孫賀, 驍騎將軍 李廣 등이다. 『漢書』에는 “將軍”이 “將”으로 되어 있다.

497) 衛靑(?~전106): 字가 仲卿이고 河東 平陽(지금의 山西省 臨汾市 서남쪽) 사람이다. 부친의 이름은 鄭季인데 그가 관리 시절에 平陽侯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가 平陽侯의 비첩 위온과 밀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그의 이복누이 衛子が 平陽公主(孝武帝의 누나, 平陽侯의 夫人)를 모시다가 武帝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太中大夫(궁중고문관)가 되었다. 元光 5년(전127) 車騎將軍으로 匈奴를 공격한 이래 元朔 元年(전128)에는 河南 땅을 되찾아 朔方軍을 설치함으로써 長平侯가 되었다. 그 이후 이어진 匈奴의 공세에 대응해 元朔 5년(전124) 봄에 다시 高關에서 출정하여 匈奴의 右賢王을 격파하여 大將軍이 되었다. 그 이후에는 霍去病과 함께 大司馬가 되었다. 匈奴와의 계속된 전투에서 도합 7차례에 걸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21~2939).

498) 上谷: 郡의 명칭으로 현재 河北省 懷來縣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주163) 참조)

에 이르러 흉노의 수급과 포로 7백 인을 얻었다. 공손하(公孫賀)⁵⁰⁰는 운중[군]⁵⁰¹을 나와 [흉노를 공격하였으나] 전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공손오(公孫敖)⁵⁰²는 대[군]을 나와 흉노에게 7천여 명⁵⁰³을 잃었다. 이광(李廣)⁵⁰⁴은 안문[군]을 나와 흉노에게 패해 흉노가 [이]광을

499) 龍城은 『漢書』에서 “龍城”으로 되어 있다(주238) 참조).

500) 公孫賀: 義渠(秦나라에게 망한 西戎의 하나) 출신으로 그의 조상은 匈奴이다. 아버지 渾邪는 景帝 때 平曲侯가 되었으나 죄를 지어 侯를 잃었다. 武帝가 太子 시절이었을 때 舍人이었다. 武帝가 즉위하자 8년에 太僕 자격으로 輕車將軍이 되어 馬邑에 주둔했다. 4년이 지나자 輕車將軍으로 雲中郡에 출격했다. 5년이 지나서 輕車將軍으로 大將軍을 따라 출격해 軍功을 쌓고 봉을 받아 南窳侯가 되었다. 1년이 지나 左將軍으로 재차 大將軍을 따라 定襄에서 출격했으나 軍공은 없었다. 4년이 지나 酎禁에 걸려 侯를 잃었다. 8년이 지나서 浮沮將軍으로 五原에서 2천여 리를 진출했으나 軍공은 없었다. 8년이 지나자 太僕에서 丞相이 되어 葛繹侯로 봉해졌다. 일곱 명의 장군 중 하나로 匈奴에 출격했지만 큰 功은 없었다. 그러나 다시 侯가 되고 丞相이 되었다. 그의 아들 公孫敬聲이 陽石公主(孝武帝의 皇女)와 밀통하고 남을 저주한 죄로 일족이 몰살되어 후사도 끊어졌다(『史記』 권111 「衛將軍驍騎列傳」: 2941~2) (주113) 참조).

501) 雲中: 郡 명칭으로 戰國時代 林胡와 樓煩 등이 살던 곳이다. 趙 武靈王이 이들을 몰아내고 군으로 만든 이후에 漢代 11개의 현으로 이루어졌다. 郡의 治所는 內蒙古自治區 托克托縣에 있었다(주154) 참조).

502) 公孫敖: 義渠 출신의 장군이다. 그는 먼저 郎官으로 武帝를 섬겼다. 그는 衛靑을 구한 것으로 권세를 갖게 되었다. 武帝가 즉위한 지 12년에 驍將軍이 되어 代郡에서 출격했다. 사졸을 7천 명이나 잃어 참살될 뻔했으나 속전을 내고 서민이 되었다. 5년이 지나 校尉로서 大將軍을 따라 출격해 軍공을 세워 合驍侯가 되었다. 1년이 지나서 中將軍으로 大將軍을 따라 재차 定襄에서 출격했으나 軍공은 없었다. 2년이 지나서 將軍으로 北地郡에 출격해 驍騎將軍과의 약속기일에 지체돼 참죄에 해당했으나 속전을 내고 서민으로 다시 떨어졌다. 2년이 지나서 校尉로 大將軍을 따라 출격했지만 軍공은 없었다. 14년이 지나 因杆將軍으로 受降城을 구축했다. 7년이 지나서 다시 因杆將軍으로 匈奴를 쳤으나 余吾水에 이르러 많은 사졸을 잃었다. 형리에게 인도되어 참형을 당했으나 거짓 죽은 체하다 도망했다. 5, 6년 동안 민간에 숨어 살다가 뒤에 발각되어 다시 옥에 갇혔다. 그의 아내가 지은 巫蠱罪로 일족이 몰살되었다(『史記』 권111 「衛將軍驍騎列傳」: 2942).

503) 『漢書』에는 “七千”으로 되어 있다.

504) 李廣: 隴西 成紀(지금의 甘肅省 秦安縣) 사람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남다른 弓術과 騎馬術로 뛰어난 장수로 이름을 떨쳤다. 文帝 14년(전166) 匈奴가 대거 蕭關을 침입하자 이를 막은 공으로 발탁되어 郎中(侍從)과 武騎常侍(侍從騎兵 武官)가 되었다. 景帝시기에 都尉가 되었다가 驍郎將(侍從騎兵隊長)으로 승진했다. 그 이후 吳楚七國의 난 시기에 驍騎都尉로서 공을 세웠으나 梁王한테서 將軍의 인수를 몰래 받은 것이 탄로나 개선한 뒤에도 상이 없었다. 이후 上谷郡(河北省 廷慶縣 일대) 태수로 인근을 전전하면서 匈奴와 전투를 벌였다. 이후 隴西, 北地, 右北平 등의 변방 太守를 지냈다. 그리고

사로잡았으나 [이]광이 이후에 도망쳐 돌아왔다. 한나라에서는 [공손]오와 [이]광을 잡아가두었는데, [공손]오와 [이]광은 속전을 내고 [풀려나] 서인이 되었다. 그 해 겨울에⁵⁰⁵⁾ 흉노는 여러 차례⁵⁰⁶⁾ [한나라의] 변경을 노략질하였는데, 어양(漁陽)⁵⁰⁷⁾[의 피해가] 더욱 심했다. 한나라에서는 장군 한안국을 어양군에 주둔시켜 흉노[의 침입]에 대비케 했다. 그 이듬해 가을⁵⁰⁸⁾ 흉노의 기병 2만이 한나라로 들어와 요서(遼西)⁵⁰⁹⁾ 태수(太守)를 죽이고 2천여 명을 잡아갔다. 흉노는 또한 [변경 안으로] 들어와 어양 태수의 군대 천여 명을 패배시키고⁵¹⁰⁾ 한나라 장군 [한]안국을 포위했다. [한]안국은 마침 천여 기의 병력마저 전멸하러 하였는데, 때마침 연(燕)⁵¹¹⁾의 [구원병이] 구하러 도착하자⁵¹²⁾ 흉노가 바로 물러났다. 흉노가 다시 안문[군]으로 들어와⁵¹³⁾ 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다.⁵¹⁴⁾ 이에 한나라에서는 장군 위청으로

武帝時期에는 馬邑 전투에서 驍騎將軍으로 匈奴 원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잡혀 있다가 돌아와 참형을 면하고 庶人이 되었다. 이후 右北平郡 太守가 되어 匈奴를 방어하였다. 匈奴가 그를 飛將軍이라 부르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였다. 이후 元朔 6년(전123) 後衛軍의 將軍이 되어 大將軍 衛青의 군대에 소속되었다. 定襄(山西省 大同市 北西)으로 나가 匈奴를 쳤다. 9년에는 郎中丞으로 博望侯 張騫과 같이 출정했다가 패전하였다. 元狩 4년(전119)에 霍去病이 출정할 때 大將軍 衛青을 따라 참전하였다가 자살했다. 청렴하여 상을 받으면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음식도 사졸들의 것과 똑같은 것을 먹었다. 그는 죽기까지 40여 년 동안 2천 석의 俸祿을 받는 신분이면서도 집에는 재산이 남지 않았다. 또한 일생 동안 재물에 관해서 말한 적도 신경을 쓴 적도 없었다고 한다(『史記』 권109 「李將軍列傳」: 2867~2876).

505) 『漢書』 권6 「武帝紀」에는 “가을”로 되어 있다(“漢使將軍韓安國屯漁陽備胡, 亦在元光六年秋”).

506) 『漢書』에는 “數千人”으로 되어 있다.

507) 漁陽: 郡명칭으로 秦始皇 22년(전225)에 설치되어 지금의 河北省 密雲縣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漢代에 漁陽郡에는 22개의 縣이 있었고 治所는 漁陽縣이었다(주164) 참조).

508) 『漢書』 권6 「武帝紀」에서는 이 사건을 元朔 元年(전128) 가을로, 「衛將軍列傳」에는 元朔 2년(전127)으로 기록했으나, 전자의 기록이 정확하다.

509) 遼西: 郡명칭으로 秦始皇 2년(전245)에 설치되어 漢代에는 아래에 14개의 縣이 있었다. 郡治所는 且慮였는데, 지금의 河北省 盧龍縣이다(주166) 참조).

510) 『漢書』에는 “又敗漁陽太守軍千餘人”로 되어 있다.

511) 燕의 영역 범위는 때에 따라 변화가 많았다. 이때에는 단지 廣陽郡(지금의 北京市 大興縣과 河北省 固安縣)에 지나지 않았다. 도읍은 薊(지금의 北京市 서남쪽)에 있었다. 이 무렵에 다스렸던 燕王 劉定國은 劉澤의 자손이었다.

512) 『漢書』에는 “會燕救之, 至”로 되어 있다.

513) 『漢書』에는 “又入鴈門”로 되어 있다.

하여금 3만 기를 거느리고 안문[군]에서, 이식(李息)⁵¹⁵⁾은 대군에서 나아가 흉노를 공격하게 했다.⁵¹⁶⁾ [그 결과 흉노의] 수급과 포로 수천 명을⁵¹⁷⁾ 얻었다. 그 이듬해에 [위]청이 다시 운중[군]에서 나가 서쪽으로 농서에 이르러 흉노의 누번왕(樓煩王)과 백양왕(白羊王)을 하남(河南)에서 격파하여 흉노의 수급과 포로 수천과 소와 양 백여 만을 얻었다.⁵¹⁸⁾ 이에 한나라는 마침내 하남 땅을 빼앗아 삭방[군](朔方郡)⁵¹⁹⁾을 [설치하고 성을] 쌓고 다시 옛날 진나라 장군 몽염이 구축했던 장성을 수리하여 황하를 따라 [방비를] 굳게 하였다.⁵²⁰⁾ 한나라는 또한 상곡[군]의 [북방에 흉노와] 가까운⁵²¹⁾ 현(縣)인 조양(造陽)⁵²²⁾ 땅을 버리듯이 흉노에게 내주었다. 이 해가 한의 원삭(元朔)⁵²³⁾ 2년(전127)이었다.

其後冬，匈奴軍臣單于死。軍臣單于弟左谷蠡王伊稚斜自立爲單于，攻破軍臣單于太子於單。於單亡降漢，漢封於單爲涉安侯，數月而死。

그 후 겨울에⁵²⁴⁾ 흉노의⁵²⁵⁾ 군신선우가 죽었다. 군신선우의⁵²⁶⁾ 동생 좌록리왕 이지사(伊稚

514) 이 사건은 元朔 元年(전128) 가을의 일이다.

515) 李息: 北地郡 鬱郄人(甘肅省 慶陽縣) 출신으로 처음에는 景帝를 섬겼다. 武帝가 즉위한 지 8년이 되어 材官將軍이 되어 馬邑에 주둔했다. 6년이 지나 장군이 되어 代郡에서 출격했다. 3년이 지나자 將軍이 되어 大將軍을 따라 朔方軍에서 출격했으나 모두 軍功은 없었다. 이후에 세 차례나 將軍이 되었다. 그 후로는 늘 大行(特派大使)의 직에 있었다(권111 『衛將軍列傳』: 2942).

516) 이 사건은 元朔 元年(전128) 가을의 일이다.

517) 『漢書』에는 “得首虜數千”으로 되어 있다.

518) 元朔 2년(전127)에 한나라는 河南 땅을 수복하여 匈奴와의 전투에서 최대의 전과를 올려 과거 秦나라의 蒙恬이 확보했던 영역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했다.

519) 朔方: 郡명칭으로 元朔 2년에 설치되어 밑에 10개의 縣이 있었고 治所는 朔方縣이었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河套 서북부와 後套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520) 『漢書』에는 “因河而爲固”로 되어 있다.

521) 什辟: ‘匈奴와 가깝다’는 의미이다. 『漢書』에는 “斗辟”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동일하다.

522) 造陽: 지명으로 지금 河北省 赤城縣에서 獨石口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이곳은 燕나라 장성의 동쪽 기점이 되었다.

523) 『漢書』에는 “元朔” 앞에 “漢之”가 없다.

524) 漢 武帝 元朔 3년(전126)이었다.

斜)⁵²⁷⁾가 스스로 서서 선우가 된 [다음에] 군신선우의 태자 어단(於單)을 쳐서 격파했다. 어단이 한나라로 도망해 오자 한나라에서는 어단을 섭안후(涉安侯)로 봉했으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가] 죽었다.⁵²⁸⁾

伊稚斜單于既立，其夏，匈奴數萬騎入殺代郡太守恭友，略千餘人。其秋，匈奴又入鴈門，殺略千餘人。其明年，匈奴又復入代郡·定襄·上郡，各三萬騎，殺略數千人。匈奴右賢王怨漢奪之河南地而築朔方，數爲寇，盜邊，及入河南，侵擾朔方，殺略吏民甚衆。

이지사선우가 즉위한 뒤 그 해 여름⁵²⁹⁾ 흉노 수만 기가 쳐들어와 대군태수 공우(恭友)⁵³⁰⁾를 죽이고⁵³¹⁾ 천여 명을 잡아갔다. 그 해 가을⁵³²⁾ 흉노가 다시 안문으로 쳐들어와 천여 명을 죽이고 잡아갔다. 그 이듬해⁵³³⁾에는 흉노가 또 다시 대군, 정양[군]⁵³⁴⁾, 상군으로 들어와⁵³⁵⁾

525) 『漢書』에는 “匈奴”가 없다.

526) 『漢書』에는 “軍臣單于”가 아니라 “其”로 되어 있다.

527) 伊稚斜(재위 전126~전114): 음은 ‘이지사’이다. 『漢書』에는 “伊穉斜”로 되어 있다. 匈奴 제5대 선우이다.

528) 武帝 元朔 3년(전126) 여름 사월 丙子(초7일) 匈奴의 太子 於單을 涉安侯로 봉했는데, 오월에 죽었다(『漢書』「景武昭宣元成功臣表」第5: 644). “몇 달 되지 않아 죽었다(數月而死).”는 『史記』의 기록은 於單이 사월에 冊封되어 오월에 죽었다고 할 때 몇 달 되지 않아 죽은 것이 冊封을 받은 다음에 몇 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於單이 漢나라에 항복한지 몇 달이 되지 않아 죽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漢書』에는 “數月死”로 되어 있다.

529) 漢 武帝 元朔 3년(전126)이다.

530) 恭友: 姓이 恭이고 이름이 友이다. 『漢書』에는 “共友”로 되어 있다.

531) 『漢書』에는 “匈奴數萬騎入代郡，殺太守共友”로 되어 있다.

532) 『漢書』 권6 「武帝紀」: 171에는 元朔 3년(전126) 여름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533) 漢 武帝 元朔 4년(전125) 여름의 일이다(『漢書』 권6 「武帝紀」: 171).

534) 定襄: 郡의 명칭으로 高祖 6년(전201)에 雲中郡의 땅을 나누어 설치되었다. 12개의 縣이 속해 있었으며 郡의 치소는 成樂縣(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和林格爾縣 서북 土城子鄉 古城)이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和林格爾縣, 清水河, 卓資縣, 察哈爾右翼中旗 등지이다. 後漢 시대에 영역이 줄어들었다가 말기에 폐지되었다.

각각 3만 기로 수천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흉노의 우현왕은 한나라가 하남 땅을 빼앗아 삭방에 [장성을] 쌓은 것에 원한을 품고 여러 차례 쳐들어와 변경을 도둑질하였다.⁵³⁶⁾ 그리고 하남으로 들어와 삭방을 침범하고 관리와 백성들을 살해하고 약탈한 것이 아주 많았다.

其明年春，漢以衛青爲大將軍，將六將軍，十餘萬人，出朔方·高關擊胡。右賢王以爲漢兵不能至，飲酒醉，漢兵出塞六七百里，夜圍右賢王。右賢王大驚，脫身逃走，諸精騎往往隨後去。漢得右賢王衆男女萬五千人，裨小王十餘人。其秋，匈奴萬騎入殺代郡都尉朱英，略千餘人。

그 이듬해⁵³⁷⁾ 봄 한나라는 위청을 대장군⁵³⁸⁾으로 삼아 여섯 명의 장군⁵³⁹⁾과 십여 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삭방[군] 고궐⁵⁴⁰⁾에서 나아가 흉노를 치게 했다.⁵⁴¹⁾ 우현왕은 한나라의 군대가 [거기까지] 쳐들어 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는데, 한나라 군대가 장성에서 육, 칠백 리나 나와 밤중에 우현왕을 포위했다. 우현왕은 크게 놀라 몸만 빠져 나와 도망갔고 여러⁵⁴²⁾ 정예기병들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한나라는 우현왕이 거느리던 남녀 만 5천 명과 비소왕(裨小王)⁵⁴³⁾ 십여 명을 잡았다. 그 해 가을⁵⁴⁴⁾ 흉노의 기병 만명이 들어와 대군도위 주영(朱英)⁵⁴⁵⁾을 죽이고 천여 명을 잡아갔다.

535) 『漢書』에는 “又入代郡·定襄·上郡”으로 되어 있다.

536) 『漢書』에는 “數寇盜邊”으로 되어 있다.

537) 漢 武帝 元朔 5년(전124)이다.

538) 衛青이 車騎將軍으로 출정을 한 다음에 공을 세워 大將軍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大將軍”은 “車騎將軍”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23).

539) 衛青이 직접 인솔한 것은 游擊將軍 蘇建, 强弩將軍 李沮, 驍騎將軍 公孫賀, 輕車將軍 李蔡 등과 함께 右北平郡에서 출격한 李息, 張次公 등이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25).

540) 高關: 朔方郡의 북방에 위치한 협곡이다(주153) 참조.

541) 『漢書』에는 “擊胡”로 되어 있다.

542) 『漢書』에는 “諸”가 없다.

543) 裨小王: 漢나라의 裨將과 비슷한 下級 官吏이다(주231) 참조.

544) 漢 武帝 元朔 5년(전124) 가을이다.

545) 朱英: 『漢書』에는 “朱央”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漢代에 ‘英’과 ‘央’이 서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漢書』

其明年春，漢復遣大將軍衛青將六將軍，兵十餘萬騎，乃再出定襄數百里擊匈奴，得首虜前後凡萬九千餘級，而漢亦亡兩將軍，軍三千餘騎。右將軍建得以身脫，而前將軍翁侯趙信兵不利，降匈奴。趙信者，故胡小王，降漢，漢封爲翁侯，以前將軍與右將軍并軍分行，獨遇單于兵，故盡沒。單于旣得翁侯，以爲自次王，用其姊妻之，與謀漢。信教單于益北絕幕，以誘罷漢兵，徼極而取之，無近塞。單于從其計。其明年，胡騎萬人入上谷，殺數百人。

그 이듬해⁵⁴⁶⁾ 봄 한나라는 다시 대장군 위청을 보내 여섯 장군⁵⁴⁷⁾과 군사⁵⁴⁸⁾ 십여 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이에⁵⁴⁹⁾ 다시⁵⁵⁰⁾ 정양(定襄)에서 수백 리 밖까지 나가 흉노를 공격하게 했다. 앞 뒤⁵⁵¹⁾ [두 차례의 출정으로] 대략 수급과 포로 만 9천 여를 얻었으나 한나라 역시 두 명의 장군⁵⁵²⁾과 군사⁵⁵³⁾ 3천여 기병을 잃었다.⁵⁵⁴⁾ 우장군⁵⁵⁵⁾ [소]건⁵⁵⁶⁾은 단신으로 탈출할

에는 “匈奴萬騎入代郡，殺都尉朱央”로 되어 있다.

546) 漢 武帝 元朔 6년(전123)이다.

547) 여섯 명의 장군은 中將軍 公孫敖, 左將軍 公孫賀, 前將軍 趙信, 右將軍 蘇建, 後將軍 李廣, 强弩將軍 李沮 등이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25).

548) 『漢書』에는 “兵”이 없다.

549) 『漢書』에는 “仍”으로 되어 있다.

550) 衛青이 처음으로 定襄에서 출정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단지 元朔 4年(전125) 여름에 匈奴가 代郡과 定襄을 공격하였을 때 군대를 이끌고 출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定襄에서 다시 출정해 나갔다고 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51) 여기에서 “앞뒤”, 즉 “前後”는 元朔 6年(전123) 봄 2월과 여름 4월에 두 차례 출격하는 것을 말한다.

552) 前將軍 趙信과 右將軍 蘇建을 말한다. 趙信은 匈奴에 투항했고, 蘇建은 몸만 빠져 나왔다.

553) 『漢書』에는 “軍”이 없다.

554) 徐廣은 합쳐서 3천이었다고 하였다.

555) 前, 後, 左, 右將軍: 이런 장군 칭호는 늘 설치되는 것이 아닌 자리로 필요에 따라서 두어졌다. 그의 위상은 上卿 다음의 지위였다. 金印紫綬를 갖고 있었고 부대 내에서는 大將軍 또는 驃騎將軍 다음으로 車騎將軍 또는 衛將軍과 동렬이었다.

556) 蘇建: 杜陵(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동남쪽) 사람으로 蘇武의 부친이다. 匈奴 토벌에 공을 세워 平陵侯에 봉해졌고 朔方城을 쌓았다. 匈奴와의 전쟁에서 군사를 잃고 패해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속죄금을 물고 서민이 되었다가 후에 代郡의 太守가 되었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43).

수 있었고 전(前)장군 흠후(翁侯)⁵⁵⁷ 조신(趙信)도 전세가 불리하자 흉노에 항복했다. 조신은 원래 흉노의 소왕(小王)⁵⁵⁸이었다가 한나라에 항복해 한나라에서 흠후로 책봉된⁵⁵⁹ 자로서 전장군과 우장군이 군대를 합해 [주력파] 나뉘어 가다가⁵⁶⁰ 홀로 선우의 군대를 만나⁵⁶¹ 전멸하고 말았다. 선우는 흠후를 사로잡아 [그를] 자차왕(自次王)⁵⁶²으로 삼고 그의 누이를 처로 준 다음에 [그와] 함께 한나라 [공격] 모의했다. [조]신은 선우에게 좀더 북쪽으로 물러나 사막⁵⁶³을 건너 한나라 군대를 유인해 지치게 한 다음에 극도로 지치면 취하되⁵⁶⁴ 국경이 있는 곳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알려 주었다. 선우는 그 계책을 따랐다.⁵⁶⁵ 그 이듬해⁵⁶⁶ 흉노의 기병 만 명이⁵⁶⁷ 상곡으로 쳐들어가 수백 명을 죽였다.

其明年春，漢使驃騎將軍去病將萬騎出隴西，過焉支山千餘里，擊匈奴，得胡首虜(騎)萬八千餘級，破得休屠王祭天金人。其夏，驃騎將軍復與合騎侯數萬騎出隴西·北地二千里，擊匈奴。過居延，攻祁連山，得胡首虜三萬餘人，裨小王以下七十餘人。是時匈奴亦來入代郡·鴈門，殺略數百人。漢使博望侯及李將軍廣出右北平，擊匈奴左賢王。左賢王圍李將軍，卒可四千人，且盡，殺虜亦過當。會博望侯軍救至，李將軍得脫。漢死亡數千人，合騎侯後驃騎將軍期，及與博望侯皆當死，贖爲庶人。

그 이듬해 봄에⁵⁶⁸ 한나라는 표기장군(驃騎將軍)⁵⁶⁹ [곽]거병(霍去病)⁵⁷⁰에게 만 명의 기병

557) 翁: 지명으로 魏郡 內黃縣 북쪽(지금의 河南省 湯陽縣 동북 古城村)에 위치하였다.

558) 小王: 裨小王을 지칭한다(주543) 참조.

559) 漢 武帝 元光 4년(전131) 시월 12일의 일이다.

560) “軍分行”은 ‘본진과 따로 움직였다.’는 의미이다. 『漢書』에는 “分行”이 없다.

561) 『漢書』에는 “介獨遇單于兵”으로 되어 있다.

562) 自次王: 匈奴 관직의 명칭으로 單于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진 왕으로, ‘自次’는 匈奴語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563) 幕: ‘고비’, 즉 사막을 의미한다.

564) “微極而取之”는 “극도로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취한다.”는 뜻이다.

565) 『漢書』에는 “單于從之”로 되어 있다.

566) 漢 武帝 元狩 元年(전122)이다.

567) 『漢書』에는 “胡數萬騎入上谷”으로 되어 있다.

을 거느리고 농서군에서 출정하도록 했다. [그는] 연지산(焉支山)⁵⁷¹을 지나 천여 리 [나아가] 흉노를 공격해⁵⁷² 흉노의 수급과 포로 만 8천여 급⁵⁷³을 얻고 휴도왕(休屠王)⁵⁷⁴을 격파해⁵⁷⁵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는 황금상[祭天金人]⁵⁷⁶을 얻었다. 그 여름⁵⁷⁷ 표기장군이 다시 합기후(合騎侯)⁵⁷⁸ [공손오와] 함께 수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농서, 북지에서 이천 리를 나가 흉노를 쳤다. 거연(居延)⁵⁷⁹을 지나 기련산(祁連山)⁵⁸⁰[에 있는 흉노를] 공격해 흉노의 수급과 포로

568) 漢 武帝 元狩 2년(전123)이다.

569) 驃騎將軍: 관직의 명칭으로 前漢 초기 중앙에 설치한 최고급 武官이다. 그 지위는 丞相 다음에 위치하고 大將軍과 동급이었다. 秩은 萬石이었다. 이후에 ‘大司馬’라는 칭호를 가졌다.

570) 霍去病(전140~전117): 河東 平陽 사람으로 大將軍 衛靑의 누이 衛少兒의 아들이다. 18살에 侍中이 되고 元朔 6년(전123)에 驃騎校尉가 되어 大將軍을 따라 匈奴를 격파하여 공을 세워 冠軍侯가 되었다. 元狩 2년(전121) 봄에 驃騎將軍이 되었다. 霍去病은 萬騎를 이끌고 隴西에서 나아가 匈奴를 격파하고 여름에는 대규모로 匈奴를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匈奴 토벌에 나간 일이 여섯 차례였는데, 정예부대를 이끌고 大軍보다 먼저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는 전법을 썼다. 漢나라의 영토 확대에 지대한 공을 세워 衛靑과 함께 大司馬가 되었으나 그 권세는 衛靑을 능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불과 24세에 죽자 武帝는 크게 슬퍼하여 長安 근교의 茂陵에 무덤을 지어 주었다. 일찍이 霍去病이 대승리를 거둔 祁連山의 형상을 따게 하여 그의 무공을 기렸다. 그의 무덤 앞에는 匈奴를 밟고 선 石馬가 있다(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28~2939).

571) 焉支山: 음은 ‘연지산’이다. 다르게는 ‘燕支山’ 또는 ‘胭脂山’이라고도 불린다. 지금의 甘肅省 永昌縣 서쪽, 山丹縣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高榮, 2004: 25~27). 『漢書』에서는 “焉耆山”이라 되어 있다.

572) 『漢書』에는 “擊匈奴”가 없다.

573) 『漢書』에는 “八千餘級”으로 되어 있어 萬의 차이가 있다.

574) 休屠王: 匈奴의 관직 명칭으로 單于庭의 우측(서쪽)에 있는 休屠部(지금의 甘肅省 武威市 일대)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575) 『漢書』에는 “破”가 없다.

576) 金人: 匈奴가 하늘에 祭祀를 지내는 黃金人物像을 말하는데, 일부에서 金佛像이나 浮圖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休屠王의 후예인 金日磾가 漢나라에 들어와 활동하면서 성을 金으로 했다. 이것은 그들의 이런 金人崇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577) 漢 武帝 元狩 2년(전123) 여름이다.

578) 公孫敖를 가리킨다.

579) 居延: 縣 명칭으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額濟納旗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河西지역과 漠北 사이의 교통요지였다. 韋昭는 張掖縣이라고 했다.

580) 祁連山: 산의 명칭으로 ‘白山’, ‘雪山’, ‘天山’, ‘祁連天山’ 등으로 불린다. 祁連은 匈奴語로 그 의미는 ‘하늘[天]’이다. 지금의 甘肅省 酒泉市 이남에 있는 산을 말한다. 과거에 祁連山은 남북으로 두 가지가

3만여 명⁵⁸¹)과 비소왕 이하 70여 명을 얻었다. 이때⁵⁸²) 흉노 역시 대군, 안문[군]으로 들어와 수백 명을 죽이고 잡아갔다. 한나라에서는 박망후(博望侯)⁵⁸³) [장군] 이장군 광을 시켜 우북평 [군]⁵⁸⁴)에서 나가 흉노 좌현왕을 공격하게 했다. 좌현왕이 이장군을 포위하여 병졸 4천 명 정도가 모두 전멸할 지경이 되어⁵⁸⁵) 죽거나 사로잡힌 것 또한 [이쪽의 희생] 넘어섰다. 마침 박망후의 군대가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이장군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나라의 손실도 수천 명이었는데,⁵⁸⁶) 합기후도 표기장군과 [약속한] 날짜를 지나쳐 박망후와 함께⁵⁸⁷)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속전을 내고 서인이 되었다.

其秋，單于怒渾邪王·休屠王居西方爲漢所殺虜數萬人，欲召誅之。渾邪王與休屠王恐，謀降漢，漢使驃騎將軍往迎之。渾邪王殺休屠王，并將其衆降漢。凡四萬餘人，

있는데, 북은 新疆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祁連山은 남쪽에 있는 것을 말한다. 張掖과 酒泉 사이에 있는데 동서로 이백여 리가 되고 나무와 풀이 잘 우거져 있어 목축에 적당하였다. 匈奴가 이 산을 잃고 큰 타격을 입었다. (高榮, 2004: 25~27).

581) 『漢書』에는 “緞”으로 되어 있다.

582) 漢 武帝 元狩 2年(전123) 여름이다.

583) 博望侯: 張騫(?~전114)을 가리킨다. 그는 武帝의 명을 받고 匈奴를 협공하기 위해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의 일리강 유역에 있던 大月氏와 동맹하기 위해 建元 2년(전139)경 長安을 출발하였다. 도중에 匈奴에게 붙잡혔으나 탈출하여 大宛·康居를 거쳐 이미 아무 다리야 북안으로 옮긴 大月氏에 도착하였다(전129년경). 그러나 그는 大月氏가 匈奴를 칠 의사가 없어 동맹에 실패하고 귀국하던 중 다시 匈奴의 포로가 되었다가 元朔 3년(전126)에 귀국하였다. 元狩 2년(전121)에 다시 烏孫으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그가 파견한 副使들이 西域諸國의 사절과 隊商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의 여행으로 西域의 지리, 종족, 물산 등에 관한 지식이 中國으로 유입되어 東西간의 교역과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소위 ‘실크로드’를 개척한 인물로 유명하다(『史記』 권123 「大宛列傳」: 3157~3179).

584) 右北平: 郡의 명칭으로 秦 始皇帝 22년(전225)에 燕나라를 멸하고 설치하였다. 지금의 河北省의 東北部에 해당한다. 郡의 治所는 前漢시대에 河北 平泉縣이었고, 後漢시대에는 河北 玉田縣에 있었다(주165) 참조).

585) 『漢書』에는 “左賢王圍李廣，廣軍四千人死者過半”으로 되어 있다.

586) 『漢書』에는 “盡亡其軍”으로 되어 있고, 『史記』와 달리 표점이 되어 “이장군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의 군대가 모두 죽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587) 『漢書』에는 “與”가 없다.

號十萬。於是漢已得渾邪王，則隴西·北地·河西益少胡寇，徙關東貧民處所奪匈奴河南·新秦中以實之，而減北地以西戍卒半。其明年，匈奴入右北平·定襄各數萬騎，殺略千餘人而去。

그 가을⁵⁸⁸⁾ 선우⁵⁸⁹⁾는 혼야왕(渾邪王)⁵⁹⁰⁾과 휴도왕⁵⁹¹⁾이 서쪽에서 한나라에게 수만 명이나 죽고 사로잡힌 것에 화가 나서 그들을 불러 죽이려 했다. 혼야왕과 휴도왕은 [이들] 걱정하여 한나라에게 항복할 것을 모의하니⁵⁹²⁾ 한나라에서 표기장군⁵⁹³⁾을 보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⁵⁹⁴⁾ [그런데] 혼야왕이 휴도왕을 죽이고 그의 군사와 백성을 이끌고 한나라에 항복했다. 대체로 4만여 명 정도였으나 10만이라 칭했다. 이에 한나라가 혼야왕을 얻게 되자 농서, 복지, 하서(河西)⁵⁹⁵⁾에 대한 흉노 침공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나라에서는] 함곡관 동쪽의 빈민들을 흉노에게서 빼앗은 하남,⁵⁹⁶⁾ 신진중(新秦中)⁵⁹⁷⁾으로 옮겨 살게 해 [이 지역을] 채웠으므로 복지[군] 서쪽의 수비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⁵⁹⁸⁾ 그 이듬해⁵⁹⁹⁾ 흉노가 우북평[군]과

588) 漢 武帝 元狩 2년(전123) 가을이다.

589) 匈奴 伊稚斜單于이다.

590) 『漢書』에는 “昆邪王”으로 되어 있다.

591) 休屠王을 渾邪王이 살해하자 休屠王의 아들인 金日磾가 漢나라에 투항하여 光祿大夫가 되었다.

592) 이것은 元狩 2년의 일이다.

593) 『漢書』에는 “票騎將軍”으로 되어 있다.

594) 『漢書』 「食貨志」의 기록에 따르면 투항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 物資의 車輛이 3萬乘이 넘었다고 한다.

595) 河西: 지명으로 지금의 甘肅省과 青海省의 黃河 서쪽 지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596) 『漢書』에는 “河南地”로 되어 있다.

597) 新秦中: 지명으로 秦代에 빈민들을 이주시켜 살도록 한 곳을 말한다. 넓이가 사망 약 6~7백 리 정도가 되고 長安 북방 朔方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史記』에서는 秦始皇帝 시대에 匈奴를 몰아내고 얻은 땅에 백성을 이주시킨 곳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河套(오르도스) 일대이다. 武帝는 元狩 3년(전120)에 匈奴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마침 이때 華山 동쪽에서 黃河가 범람하자 백성들을 변경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關東의 주민들을 다시 찾은 新秦中으로 이주시켰다(주174) 참조).

598) 漢 武帝 元狩 3년(전122) 가을에 내린 詔에서 隴西, 北地, 上郡 등 3개 군의 戍卒을 반으로 줄여서 백성들의 요역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정양[군]으로 각각 수만 기로 쳐들어와 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다음에 돌아갔다.

其明年春，漢謀曰「翁侯信爲單于計，居幕北，以爲漢兵不能至」。乃粟馬，發十萬騎，(負)私[負]從馬凡十四萬匹，糧重不與焉。令大將軍青·驃騎將軍去病中分軍，大將軍出定襄，驃騎將軍出代，咸約絕幕擊匈奴。單于聞之，遠其輜重，以精兵待於幕北。與漢大將軍接戰一日，會暮，大風起，漢兵縱左右翼圍單于。單于自度戰不能如漢兵，單于遂獨身與壯騎數百潰漢圍西北遁走。漢兵夜追不得。行斬捕匈奴首虜萬九千級，北至闕顏山趙信城而還。

그 이듬해⁶⁰⁰ 봄에 한나라에서 모의하여 말하였다.⁶⁰¹ “흡후 [조]신이 선우를 위해 계략을 세워 [선우가] 고비 북쪽에 있으면 한나라의 군대가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한나라에서는] 말을 배불리 먹인 뒤⁶⁰² 10만의 기병을 일으켰는데, 개인의 물건을 지고⁶⁰³ 따라가는 말이 14만 필로 식량을 운반하는 [말은] 그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했는데, 대장군은 정양[군]에서 나가고, 표기장군은 대[군]에서 나가 모두 고비를 건너 흉노를 치기로 약속했다. 선우가 [이 소식을] 듣고 보급품[輜重]을 멀리 [대피해] 보낸 다음 정병을 거느리고 고비 북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나라 대장군과 하루 종일 전투를 벌였는데, 해질 무렵에 큰 바람이 일어나자 한나라 군대가 좌우익의 [군대를] 풀어 선우를 포위하였다. 선우는 스스로가 한나라 군대와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⁶⁰⁴ 마침내 선우⁶⁰⁵ 홀로 겨우 친위군[壯騎]⁶⁰⁶ 수백 기만 거느린

599) 漢 武帝 元狩 3년(전122)이다. 여기에서 이듬해라고 한 『史記』의 기록은 정확하지 않다. 關東의 백성들을 新秦中과 滅北 땅에 이주시킨 것은 元狩 3년 가을의 일이기 때문이다. 『漢書』에는 “봄”이 덧붙여 있다.

600) 漢 武帝 元狩 4년(전121)이다.

601) 『漢書』에는 “曰”이 “以爲”로 되어 있다.

602) 원본은 “粟馬”인데, 戰馬에게 좋은 먹이를 먹이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豆類를, 戰時에는 糧食을 먹였다.

603) 私負從馬: 개인의 의복과 식량을 지고 사적으로 따라가는 말을 말한다. 『漢書』에는 “私負”로 되어 있다. 교감과정에서 그에 따라 “私” 앞에 있는 “負”를 뒤로 바꾸었다.

채 한나라의 포위를 돌파한 다음 서북쪽으로 도망쳤다.⁶⁰⁷⁾ 한나라 군대가 밤이라 [그를] 추격해 잡지 못하였다. 이 원정에서 베거나 사로잡은 흉노의⁶⁰⁸⁾ 수급과 포로가 만 9천여 인이나 되었고, 북으로는 전안산(闐顏山)⁶⁰⁹⁾의 조신성(趙信城)⁶¹⁰⁾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604) 『漢書』에는 “輿”로 되어 있다.

605) 『漢書』에는 “單于”가 없다.

606) 壯騎: 親衛軍 또는 親兵集團을 말한다. 匈奴 單于를 비롯한 후대에 등장한 遊牧帝國의 군주들은 모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물리력으로 親兵集團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런 親兵集團의 존재는 部族聯合體의 국가 성격을 극복하고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자신의 카리스마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해 내는 것이다(Pritsak, 1981: 80). 匈奴帝國의 건설자인 冒頓의 경우 鳴鏑을 만들어 군대를 훈련시켜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이런 親衛軍의 존재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예의 하나이다. 이런 親兵集團의 존재는 이후에 건설된 유목국가인 柔然, 突厥, 回鶻, 契丹, 蒙古 등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김호동, 1993: 152~167).

607) 『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에서는 이 전투 상황을 묘사하였는데, 기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趙信이 單于를 위해 계책을 말했다. “漢나라 군대가 이미 고비를 넘어 사람과 말이 지쳤으니 匈奴가 앞서서도 포로를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수 물자를 멀리 북에 놓고 모두 정예 병사를 이끌고 고비 북방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大將軍 [衛青]의 군대는 장성을 천여 리 나와서 單于의 군대가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大將軍이 武剛車로 고리 모양의 군영을 만들고 5천기를 보내 匈奴에 가서 부닥치게 했다. 匈奴 또한 1만 기를 풀었다. 마침 해가 질 무렵인데, 큰 바람이 일어나 모래와 자갈이 얼굴을 때려 양군이 서로 볼 수 없었고, 漢나라는 더욱 左右翼의 군대를 풀어 單于를 조였다. 單于가 한나라 군대가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병사와 말이 여전히 강해 싸웠으나 匈奴가 불리하자 어스름한 저녁 單于가 마침내 六頭馬車를 타고, 壯騎 수백 명과 함께 한나라의 포위 서북을 뚫고 도망갔다. 때가 이미 어두워져 한나라와 匈奴가 서로 엉겨 죽이고 다친 것이 상당하였다. 한나라 左翼 校尉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가] 單于가 어두워지기 전에 도망갔다고 하니 한나라 군대가 경장기병을 보내 밤에 추격하였고 大將軍의 군대도 그 뒤를 따랐다. 匈奴의 군대가 또한 흩어져 도망하였다. 동이 틀 무렵 2백여 리를 갔으나 單于를 잡지 못하고 사로잡거나 죽인 것을 1만여 급이나 되었고 마침내 闐顏山의 趙信城에 이르러 匈奴가 쌓아놓은 곡식을 병사들에게 먹였다. 군대가 하루 머물렀다가 모두 그 성과 나머지 곡식을 태운 다음에 돌아왔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35~2936).

608) 『漢書』에는 “匈奴”가 없다.

609) 闐顏山: 산의 명칭으로 ‘寘顏山’이라고도 했다. 지금의 몽골공화국 항가이산맥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 갈래의 산을 지칭한다. 『漢書』에는 “寘顏山”으로 되어 있다.

610) 趙信城: 趙信이 匈奴에 투항한 이후에 쌓은 성을 匈奴가 이렇게 불렀다. 闐顏山 서쪽에 있었다.

單于之遁走，其兵往往與漢兵相亂而隨單于。單于久不與其大眾相得，其右谷蠡王以爲單于死，乃自立爲單于。眞單于復得其衆，而右谷蠡王乃去其單于號，復爲右谷蠡王。

선우가 숨어서 도망가자⁶¹¹⁾ 그의 병사들은 왕왕 한나라 병사⁶¹²⁾와 서로 뒤섞여서 선우를 뒤따라갔다. [그로 인해] 선우는 오랫동안 자신의 백성들과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록리왕이 선우가 죽었다고 생각해 스스로 서서 선우가 되었다. 진짜 선우가 다시 백성을 얻게 되자 우록리왕은 선우의 칭호를 버리고 다시 우록리왕이 되었다.⁶¹³⁾

漢驃騎將軍之出代二千餘里，與左賢王接戰，漢兵得胡首虜凡七萬餘級，左賢王將皆遁走。驃騎封於狼居胥山，禪姑衍，臨翰海而還。

한나라의⁶¹⁴⁾ 표기장군은 대[군]에서 이천여 리를 나와 좌현왕과 전투를 벌여 한나라 병사가 얻은 흉노의 수급과 포로는 대개 칠만여 인이었고, 좌현왕과 장군들이 모두 도망갔다. 표기장군이 낭거서산(狼居胥山)⁶¹⁵⁾에서 봉[제](封祭)⁶¹⁶⁾를 올리고, 고연[산](姑衍山)⁶¹⁷⁾에서 선[제](禪祭)⁶¹⁸⁾를 지낸 다음에 한해(翰海)⁶¹⁹⁾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611) 『漢書』에는 “單于之走”로 되어 있다.

612) 『漢書』에는 “軍”으로 되어 있다.

613) 『漢書』에는 “右谷蠡乃去號，復其故位”로 되어 있다.

614) 『漢書』에는 “漢”이 없다.

615) 狼居胥山: 산의 명칭인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학설이 있다. 지금의 몽골공화국 울란바토르 동쪽에 있는 케를렌강 지역, 內蒙古自治區 克什克騰旗 서북에서 阿巴嘎旗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內蒙古自治區 五原縣 서북 黃河北岸에 있는 狼山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비 북방에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616) 封祭: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617) 姑衍山: 산의 명칭으로 狼居胥山의 서북쪽에 위치하였다. 지금의 몽골공화국 울란바토르 인근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18) 禪祭: 땅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是後匈奴遠遁，而幕南無王庭。漢度河自朔方以西至令居，往往通渠置田官，吏卒五六萬人，稍蠶食，地接匈奴以北。

이 뒤로 흉노가 멀리 달아나게 되자 고비 남쪽에 [흉노의] 왕정(王庭)⁶²⁰이 없게 되었다. 한나라는 황하를 건너 삭방에서 서쪽의 영거(令居)⁶²¹까지 곳곳에 [물을 대는] 도랑을 통하게 하고 농지를 개간하여 관리와 병졸 5, 6만 명이⁶²² 점점 [흉노 땅을] 잠식해 가 [한나라의] 땅이 흉노 [구지의] 이복과 인접하게 되었다.

初，漢兩將軍大出圍單于，所殺虜八九萬，而漢士卒物故亦數萬，漢馬死者十餘萬。匈奴雖病，遠去，而漢亦馬少，無以復往。匈奴用趙信之計，遣使於漢，好辭請和親。天子下其議，或言和親，或言遂臣之。丞相長史任敞曰：「匈奴新破，困，宜可使爲外臣，朝請於邊。」漢使任敞於單于。單于聞敞計，大怒，留之不遣。先是漢亦有所降匈奴使者，單于亦輒留漢使相當。漢方復收士馬，會驃騎將軍去病死，於是漢久不北擊胡。

619) 瀚海: ‘瀚海’라고도 한다. 일설에는 지금의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호수를 지칭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몽골 초원 동부의 후룬호(呼倫湖)와 바이호(貝爾湖)라고도 한다. 당시 행군로를 가지고 추측해 볼 때, 몽골 초원 동북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의 克什克騰旗와 阿巴嘎旗 사이의 달라이누르(達來諾爾)로 추정된다. 다르게는 고비를 칭하거나 몽골 초원에 있는 항가이산맥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호수의 명칭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620) 匈奴의 王庭(오르두)은 원래 고비 남부 龍城(龍城)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제는 고비를 건너 漠北地域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주238) 참조

621) 令居: 縣 명칭으로 金城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의 甘肅省 永登縣 서북쪽에 있었다.

622) 저본은 원래 “往往通渠置田，官吏卒五六萬人.”이라고 표점하였다. 그러나 武帝 元朔 2년(전127)에 大將軍이 河南을 수복하자 朔方에 이주를 시켜 屯田하게 되었고, 元狩 4년(전121) 이후에 令居에도 屯田을 하였다. 따라서, 이때 그곳에 田官을 보내 管理하게 하여 屯田에 있는 畝와 卒이 당시 5~6만 명이 넘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資治通鑑』에서도 “田官”으로 이어서 읽었고, 胡三省 역시 注에서 “置官以主屯田.”라고 했다. 그러므로 “往往通渠置田官，官吏卒五六萬人”이라고 표점한 『漢書』가 타당하고, 여기에서는 이에 따랐다.

일찍이⁶²³⁾ 한나라의 두 장군⁶²⁴⁾이 대거 출격해 선우를 포위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⁶²⁵⁾ 8, 9만이 되었는데, 한나라 사졸 중 죽은 자가⁶²⁶⁾ 역시 수만 명이었고, 한나라의 말도 십여만 [필]⁶²⁷⁾이나 죽었다.⁶²⁸⁾ 흉노가 비록 피폐하여 멀리 도망갔으나 한나라 말 역시 적어서⁶²⁹⁾ 다시 나가 [싸울] 수 없었다. 흉노가 조신의 계략을 채택해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⁶³⁰⁾ 좋은 말을 해 가며 화친을 청했다. 천자가 [이것을] 조정 대신들에게 논의하도록 했는데, 일부는 화친을 말하기도 하고, 일부는 [흉노를] 쫓아가서 신하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승상장사(丞相長史)⁶³¹⁾ 임창(任敞)이 말하였다. “흉노는 패전한 지가 얼마 안 되어 [몹시] 곤궁하니⁶³²⁾ 마땅히 귀속한 속국(外臣)으로 변경에서 조회를 드리도록 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한나라에서는 임창을 선우에게 사신으로 보냈다. 선우는 그의 제안을 듣고 크게 화를 낸 다음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앞서 한나라 역시 [투항한] 흉노 사자를 억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선우 역시 번번이 한나라 사신을 억류하여 그에 대응했다. 한나라에서는 바야흐로 군사와 군마를 징발하려고 했는데, 때마침⁶³³⁾ 표기장군 광거병이 병사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한나라는 오랫동안⁶³⁴⁾ 북쪽으로 흉노를 공격하지 못했다.

623) 漢 武帝 元狩 4년(전121)이다.

624) 두 명의 장군은 大將軍 衛靑과 驃騎將軍 霍去病이다.

625) 『漢書』에는 “者”로 되어 있다.

626) 物故: ‘죽었다’는 의미이다.

627) 『漢書』에는 “匹”이 있다.

628) 『史記』의 출정한 말이 14만이 넘는데, 돌아온 것이 3만이 되지 않았다는 기록(권111 「衛將軍驃騎列傳」 “兩軍之出塞, 塞閔官及私馬凡十四萬匹, 而復入塞者不滿三萬匹”: 2938)을 통해 말의 피해가 10만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29) 『漢書』에는 “而漢馬亦少”로 되어 있다.

630) 『漢書』에는 “遣使好辭請和親”로 ‘於漢’이 없다.

631) 丞相長史: 관직의 명칭으로 丞相의 屬官이다. 文帝 2년에 일시적으로 두 명의 長史를 두었다. 長史는 相府의 일을 總管하였고 秩은 千 석이었다.三公은 모두 長史를 두어 그의 보좌를 받았다.

632) 『漢書』에는 “匈奴新困”으로 되어 있다.

633) 驃騎將軍 霍去病은 元狩 4년(전119) 漠北에서 전투를 한 지 3년 이후인 元狩 6년(전117) 가을 구월에 죽었다.

634) 武帝 元狩 4년(전119) 匈奴를 격파한 이후에 元鼎 6년(전111) 가을 公孫賀와 趙破奴를 匈奴 공격을 위해 출진시킬 때까지 약 7~8년 동안 匈奴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다.

數歲，伊稚斜單于立十三年死，子烏維立爲單于。是歲，漢元鼎三年也。烏維單于立，而漢天子始出巡郡縣。其後漢方南誅兩越，不擊匈奴，匈奴亦不侵入邊。

몇 년 후 이지사선우가 즉위한 지 13년 만에 죽고,⁶³⁵⁾ 그의 아들 오유(烏維)⁶³⁶⁾가 서서 선우가 되었다. 이 해가 한나라의 원정(元鼎)⁶³⁷⁾ 3년(전114)이었다. 오유선우가 즉위했을 때 한나라의 천자⁶³⁸⁾가 비로소 군현을 순수하러 나섰다.⁶³⁹⁾ 그 뒤 한나라가 바야흐로 남쪽으로 양월(兩越)⁶⁴⁰⁾을 치느라고 흉노를 공격하지 못했는데, 흉노 역시 [한나라의] 변경을 [쳐들어] 오지 않았다.⁶⁴¹⁾

635) 漢 武帝 元鼎 3년(전114) 伊稚斜單于가 재위 14년 만에 죽었다.

636) 烏維單于(재위 전114~전105): 匈奴의 여섯 번째 單于이다.

637) 漢 武帝의 다섯 번째 연호(전116~전111)이다.

638) 『漢書』에는 “武帝”로 되어 있다.

639) 漢武帝의 순행은 元封 6년(전105) 겨울에 열두 장군을 이끌고 邊境의 郡縣을 巡視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雲陽을 출발하여 上郡, 西河, 五原 등을 거쳐 長城 밖으로 나아가 單于臺에 올랐다. 單于臺는 雲州 雲中縣 서북쪽 백여 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다음에 朔方에 이르렀고 北河로 가는데 군대 18萬騎와 旌旗가 거의 천여 리에 걸쳐 늘어서 있어 匈奴를 놀라 떨게 만들었다고 한다.

640) 兩越: 南越과 東越을 가리킨다.

南越是 南粵이라고도 한다. 古代 南方 越人의 일족이다. 원래는 族名이었는데, 뒤에 趙佗가 세운 國名이 되었다. 그 강역은 현재 廣東과 廣西 지구를 포함하여 남쪽으로는 越南 북부까지, 북쪽으로는 湖南省과 貴州省 남부까지 해당한다. 秦이 六國을 통일한 뒤 이 지역에 桂林郡, 南海郡, 象郡 3郡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史記正義』는 廣州 南海縣에 도읍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秦始皇 33년에 嶺南을 통일한 뒤 南海郡을 설치하였고, 郡治는 番禺城이었다. 현재 廣州市 越秀區 내에 속한다(『史記』 권113 「南越列傳」).

東越是 閩越와 東甌와 함께 지금 福建省과 浙江省 남부에 거주하던 전통적인 越族의 일파이다. 閩越是 司馬遷에 따르면 越王 句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대략 전334년 戰國時代 句踐의 7대손 無疆 시대에 越이 망한 이후 그의 일부가 閩으로 옮겨가 살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秦代 閩中郡을 설치하자 그의 통치를 받다가 無諸가 진나라 말에 반란을 일으켜 漢의 劉邦을 도와 閩越王이 되었다(『史記』 권114 「東越列傳」). 漢 武帝 元鼎 5년(전110) 봄에 南越의 相 呂嘉가 반란을 일으키자 가을에 伏波將軍 路博德와 樓船將軍 楊僕이 南越로 와서 元鼎 6년(전111) 겨울에 진압하고 南越에 南海 등 9개의 郡을 설치했다. 또한 6년(전111)에 東越王 餘善이 반기를 들자 가을에 橫海將軍 韓說와 樓船將軍 楊僕이 東越을 정벌하였다. 元封 元年(전110) 겨울에 繇王이 자살하고 그 백성은 江淮 사이로 이주되었다.

烏維單于立三年，漢已滅南越，遣故太僕賀將萬五千騎出九原二千餘里，至浮苴井而還，不見匈奴一人。漢又遣故從驃侯趙破奴萬餘騎出令居數千里，至匈河水而還，亦不見匈奴一人。

오유선우⁶⁴²가 전 지 3년⁶⁴³ 만에 이미 한나라가 남월(南越)⁶⁴⁴을 멸망시켰으므로⁶⁴⁵ 태복(太僕)⁶⁴⁶을 지냈던 [공손]하⁶⁴⁷를 보내 만 5천 기를 거느리고 구원(九原)에서 2천여 리를 나아가 부저정(浮苴井)⁶⁴⁸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흉노를 하나도 보지 못했다. 한나라는 또한 종표후(從驃侯)였던 조파노(趙破奴)⁶⁴⁹를 보내 만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영거(令居)에서 수천 리를 나아가 흉하수(匈河水)⁶⁵⁰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역시 흉노를 하나도 보지 못하

641) 『漢書』 권6 「武帝紀」에 따르면 元鼎 5년(전112) 가을에 匈奴가 五原에 쳐들어와 太守를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匈奴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이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漢書』도 “匈奴亦不入邊”으로 되어 있다.

642) 『漢書』에는 “單于”가 없다.

643)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이다.

644) 『漢書』에는 “兩越”로 되어 있다. 漢나라가 東越을 멸한 것은 元封 元年(전110) 로 元鼎 6년(전111)에는 아직 東越이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漢書』의 기록은 ‘南’라고 해야 할 것을 ‘兩’이라고 잘못 기록한 것이다.

645) 漢 武帝 元鼎 3년(전114) 봄의 일이다.

646) 太僕: 관직의 명칭으로 황제의 수레, 가마와 황제의 巡行을 맡아보는 측근으로서 九卿의 하나이다. 公孫賀는 建元 6년(전135)부터 太僕이 되어 太初 2년(전103) 丞相이 될 때까지 太僕을 거의 33년 동안 맡았다. 따라서 公孫賀가 元鼎 6년(전111)에 九原에서 출정할 때 그의 지위는 太僕이고 그런 점에서 太僕을 지냈었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주500) 참조

647) 『漢書』에는 “公孫賀”로 되어 있다.

648) 浮苴井: 지명으로 九原에서 이천 리 떨어진 곳이다. 지금의 몽골공화국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漢輿地圖』에 따르면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達爾罕茂明安聯合旗 百靈廟 북쪽에 있었다고 한다.

649) 趙破奴: 九原사람으로 元狩 2년(전121) 北地에서 匈奴를 격퇴한 공이 있어 從驃侯, 混野侯에 봉해졌다. 元鼎 5년(전112) 구월에 좌천되어 金失侯가 되었고, 元鼎 6년(전111) 匈奴에 출정했기 때문에 그를 故從驃侯라고 불렀다.

650) 匈河水: 강의 명칭으로 令居에서 천 리 떨어져 있다. 趙信城 서쪽에 있는 匈奴河를 가리킨다. 지금의 甘肅省에 있는 疏勒河이다. 달리 오르곤 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었다.⁶⁵¹⁾

是時天子巡邊，至朔方，勒兵十八萬騎以見武節，而使郭吉風告單于。郭吉既至匈奴，匈奴主客問所使，郭吉禮卑言好，曰：「吾見單于而口言。」單于見吉，吉曰：「南越王頭已懸於漢北闕。今單于(能)即[能]前與漢戰，天子自將兵待邊；單于即不能，即南面而臣於漢，何徒遠走，亡匿於幕北寒苦無水草之地，毋爲也。」語卒而單于大怒，立斬主客見者，而留郭吉不歸，遷之北海上。而單于終不肯爲寇於漢邊，休養息士馬，習射獵，數使使於漢，好辭甘言求請和親。

이 무렵⁶⁵²⁾ 천자가 변경지대를 순시해 삭방에 이르러⁶⁵³⁾ 18만 기병의 군사를 검열해 절도 있고 [당당한] 무위(武威)를 과시하고⁶⁵⁴⁾ 광길(郭吉)을 시켜 선우에게 [한나라 위세를 은근히] 깨우치게 했다. 광길⁶⁵⁵⁾이 흉노에 도착한 뒤 흉노의 주객(主客)⁶⁵⁶⁾이 [한나라의] 사자로 온 취지를 묻자 광길은 예로써 [몸을] 낮추고 좋은 말로⁶⁵⁷⁾ 이야기했다. “제가 선우를 뵙고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가 광길을 만나 주니 광길이 [선우에게] 말하였다. “남월왕의 목이 이미 한나라 수도의 북문에⁶⁵⁸⁾ 걸려 있습니다. 지금 선우께서는 할 수 있다면 나와서 한나라와 한 번 싸워 보십시오. 천자께서 몸소 병사를 거느려 변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우께서 [그것을] 못 하겠다고 생각되시면 남쪽을 향해 한나라의 [천자에게] 신하

『漢書』에는 “匈奴河水”로 되어 있다.

651) 『漢書』에는 “至匈奴河水，皆不見匈奴一人而還”로 되어 있어, “흉노하수에 이르렀으나 모두 흉노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달리 번역된다.

652) 漢 武帝 元封 元年(전110) 겨울 시월이었다.

653) 『漢書』에는 “親至朔方”으로 되어 있다.

654) 漢 武帝가 이때 내린 詔文에서 皇帝가 지시한 내용을 알 수 있다(“朕將巡邊垂，擇兵振旅，躬秉武節，置十二部將軍，親帥師焉.”). (주639) 참조)

655) 『漢書』에는 “郭吉”이 없다.

656) 主客: 匈奴 관직의 명칭으로 漢나라의 典客에 대응한다. 이는 주로 賓客을 접대하는 일을 관장하는 외교 관원으로 추정된다.

657) 『漢書』에는 “卑體言好”로 되어 있다.

658) 『漢書』에는 “闕下”로 되어 있다.

가 되십시오. 어찌 부질없이 멀리 도망쳐 고비 북쪽[幕北]의 춥고 고통스러운 물도 풀도 없는 땅에 숨어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⁶⁵⁹⁾ 말이 끝나자 선우가 몹시 화를 내고 [곽길을] 만나게 한 주객을 즉시 베어 버리고 [곽길을] 억류해 돌려보내지 않고 북해(北海)⁶⁶⁰⁾로 내쳐 버렸다⁶⁶¹⁾. 그리고 선우는 끝내 한나라 변경을 침범하지 않고 병사와 말을 쉬게 하고⁶⁶²⁾ 활쏘기를 수렵을 통해 익히게 하면서 자주 한나라에⁶⁶³⁾ 사신을 보내 좋고 교묘한 말로 화친을 청했다.

漢使王烏等窺匈奴。匈奴法，漢使非去節而以墨黥其面者不得入穹廬。王烏，北地人，習胡俗，去其節，黥面，得入穹廬。單于愛之，詳許甘言，爲遣其太子入漢爲質，以求和親。

한나라 사신 왕오(王烏) 등이 흉노의 [형편을] 살폈다⁶⁶⁴⁾. [그런데] 흉노의 법은 한나라 사신도 절(節)⁶⁶⁵⁾ 대신 얼굴에 먹물을 들이지 않으면⁶⁶⁶⁾ [선우의] 천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

659) 『漢書』에는 “何徒遠走，亡匿於幕北寒苦無水草之地”가 “何但遠走亡匿於幕北寒苦無水草之地爲”로 되어 있다. 「武帝紀」元封 元年 겨울 시월의 詔에도 “何但亡匿幕北寒苦之地爲!”로 되어 있으므로 “毋爲也”에서 ‘毋’는 쓸데없이 덧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60) 北海: 지금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 이르쿠츠크(Irkutsk)와 브랴야트(Buryatia) 자치공화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칼호를 가리킨다. 이 호수는 수심이 1,742m로 세계에서 가장 깊고 면적은 3만 1,500km², 남북 길이 636km, 최장 너비 79km, 최단 너비 27km이며, 둘레가 2,200km에 이른다. 약 330여 개의 강이 이곳으로 흘러드는데, 밖으로 나가는 수로는 앙가라(Angara) 강 하나뿐이다. 저수량이 2만 2,000km³로 담수호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전 세계 얼지 않는 담수량의 20%, 러시아 전체 담수량의 90%를 차지한다.

661) 『漢書』에는 “遷辱之北海上”으로 되어 있다.

662) 『漢書』에는 “休養士馬”로 되어 있다.

663) 『漢書』에는 “數使使好辭甘言求和親”으로 되어 있다.

664) 『漢書』에는 “闕”로 되어 있다.

665) 節: 使臣이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드는 符節을 말한다. “符節”은 원래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 조정에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군대를 징발할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金·銅·玉·木으로 만들며 두 개로 나누어, 朝廷과 節을 지닌 자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두 개를 합쳐 보아 맞으면 효력이 발생하였다. 둘째, 使者가 지닌 일종의 통행증도 符節이라고 한다. 대나무를 두 개로 쪼개 使者와

다.⁶⁶⁷⁾ 왕오는 북지군 출신으로 흉노의 풍습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절을 버리고 얼굴에 먹물을 새긴 뒤 [선우의] 천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⁶⁶⁸⁾ 선우가 [왕오의 태도를 기특하게] 여겨 그를 좋아하고 그에게 달콤함 말을 하며 태자를 한나라에 볼모⁶⁶⁹⁾로 보내 화친을 청하겠다고 하였다.⁶⁷⁰⁾

漢使楊信於匈奴。是時漢東拔穢貉·朝鮮以爲郡，而西置酒泉郡以隔絕胡與羌通之路。漢又西通月氏·大夏，又以公主妻烏孫王，以分匈奴西方之援國。又北益廣田至胘雷爲塞，而匈奴終不敢以爲言。是歲，翁侯信死，漢用事者以匈奴爲己弱，可臣從也。楊信爲人剛直屈彊，素非貴臣，單于不親。單于欲召入，不肯去節，單于乃坐穹廬外見楊信。信既見單于，說曰：「即欲和親，以單于太子爲質於漢。」單于曰：「非故約。故約，漢常遣翁主，給繒絮食物有品，以和親，而匈奴亦不擾邊。今乃欲反古，令吾太子爲質，無幾矣。」匈奴俗，見漢使非中貴人，其儒先，以爲欲說，折其辯；其少年，以爲欲刺，折其氣。每漢使入匈奴，匈奴輒報償。漢留匈奴使，匈奴亦留漢使，必得當乃肯止。

한나라는 양신(楊信)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다.⁶⁷¹⁾ 이 무렵 한나라는 동쪽으로 예맥(穢貉),

京師에서 하나씩 가지고 이를 합쳐 보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신빙성을 입증하였다. 이 제도는 先秦時代에 시작하여 역대 왕조에서 계속 사용하였다. 周代에는 門關用 符節, 貨賂用 璽節, 道路用 旌節 등이 있었다. 셋째, 조정과 외국의 왕래를 보증하는 증빙서류이다. 양방이 이를 신표로 삼아 符節의 오른쪽 절반은 朝廷에 남기고 왼쪽의 반은 外官에게 주었다. 朝廷에 일이 생기면 사자를 보내 半符를 지니고 가면 外官은 다시 半符를 꺼내 맞춰 본 후 진위를 판별하였다.

666) 墨: 古代 다섯 가지 형벌의 하나이다.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에 범죄자의 이마에 글씨를 적어 넣었다. 흑색으로 그것을 표시하였다. 黥은 墨刑을 말한다(『荀子』「正論篇」注: “黥, 以墨涅面.”).

667) 『漢書』에는 “漢使不去節, 不以墨黥其面, 不得入穹廬”로 되어 있다.

668) 『漢書』에는 “黥面入廬”로 되어 있다.

669) 質: 볼모를 의미한다. 匈奴는 이를 보내 漢나라와 和親을 구하려고 했다.

670) 『漢書』에는 “陽許曰: 吾爲遣其太子入質於漢, 以求和親.”으로 되어 있다.

671) 楊信을 匈奴에 보낸 것은 元封 4년(전109) 가을이어야 한다. 『漢書』의 기록(권6 「武帝紀」 元封 4年 秋條 “以匈奴弱, 可遂臣服, 乃遣使說之”: 196)에도 전109년으로 되어 있다.

조선을 정복해 군(郡)으로 삼고⁶⁷²⁾ 서쪽으로는 주천군(酒泉郡)⁶⁷³⁾을 설치해 흉노와 강(羌)이 통하는 길을 막았다.⁶⁷⁴⁾ 한나라는 또한 서쪽으로 [대]월지,⁶⁷⁵⁾ 대하(大夏)⁶⁷⁶⁾와 [우호관계를 맺어] 통하고 [한나라의] 공주를 오손왕(烏孫王)에게 시집보냄으로써⁶⁷⁷⁾ 흉노의 서쪽에서 [그를] 지원하던 여러 나라를 [그로부터] 떼어 놓았다. 또한 북쪽으로 농경지를 더욱 확장해

672) 당시 漢나라는 元朔 元年(전128) 가을에 穢貉君 南閭가 朝鮮王 右渠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다음 內屬하자 그곳에 蒼海郡을 두었다. 元封 3년(전108)에 朝鮮을 멸하고 그곳에 樂浪, 玄菟, 眞番, 臨屯의 네 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673) 酒泉郡: 군의 명칭으로 지금의 甘肅省 疏勒河 동쪽과 高臺縣 서쪽에 있었다. 漢나라에서는 元狩 2년(전121) 가을에 匈奴 昆邪王이 休屠王을 죽이고 투항했기 때문에 河西가 비게 되자 元鼎 2년(전115)에 張騫을 烏孫에 사신으로 보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자 그 땅에 酒泉郡을 두었다. 酒泉郡의 治所는 祿福에 있었는데, 지금의 甘肅省 酒泉縣이다.

674) 匈奴와 羌이 통하는 길을 끊는 것은 漢나라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서 그들을 포위하는 방식의 일환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鹽鐵論』(「西域篇」 “胡西役大宛·康居之屬, 南與群羌通.”: 321)에서도 동일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675) 전117년 이후 수년에 걸쳐 月氏는 匈奴의 공격을 받아 대부분 서쪽으로 옮겨갔다. 그들은 먼저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일리하 유역과 그 서쪽에 자리잡고 大月氏를 형성했다. 그리고 서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祁連山으로 들어가 羌人和 雜居한 소수의 세력이 小月氏를 형성했다. 여기서는 大月氏를 가리킨다.

676) 大夏: 나라 명칭으로 박트리아(Bactria 또는 Bactriana)를 말한다. 힌두쿠시(Hindu Kush)산맥과 아무다리아(Amu Darya) 사이, 즉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고대 그리스인이 세운 나라로 전246~전138에 존재했다. 페르시아어에서는 Bakhtar, 아랍어와 인도어에서는 Bhalika로 표기한다. 전126년 張騫이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大月氏의 침입을 받아 왕국이 망한 뒤였다고 한다. 『大宛列傳』에서는 大宛의 서남쪽으로 2천여 리 떨어진 곳에서 정착생활을 하여 성곽과 가옥을 가지고 있으며 大宛과 풍속이 같다고 하였다. 또 大君長은 없지만 때때로 성읍에 小長이 세워지고, 그 군대는 약하고 싸우기를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은 장사는 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大月氏가 흉노의 압박으로 서쪽으로 도망쳐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모두 臣屬시켰다고 하였다. 인구는 대략 100여 만 명이 되고, 도읍은 藍市城인데, 시장이 있어 각종 물건들을 판매하며, 그 동남쪽에는 身毒國이 있다고 하였다(『史記』 권123 「大宛列傳」: 3164). 또한 『漢書』 「西域傳」에 따르면 대월지가 본래 敦煌과 祁連 사이에 있다가 목특선우에게 공격을 당해 그 왕의 두개골을 匈奴의 老上單于가 술잔을 만들었고, 대월지는 멀리 도망가 大宛의 서쪽으로 지나 大夏를 공격하여 복속시키고 媯水 북쪽에 도읍을 삼고 王庭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大夏의 일부는 月氏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그 일부가 인도로 밀려들어가 명맥을 유지했다고 한다.

677) 烏孫으로 시집간 공주는 漢 景帝의 손자 江都王 劉建의 딸 劉細君이다. 元封 6년(전105)에 烏孫王에게 출가하였다. 烏孫의 왕 昆莫은 그를 右夫人으로 삼았다. 武帝는 두 번에 걸쳐 宗室의 딸을 공주로 속여 烏孫王에게 출가시켰다.

현뢰(眩雷)⁶⁷⁸까지 나아가 요새를 구축해도 흉노는 끝내 감히 한 마디[의 항의]도 하지 못하였다. 이 해에 흡후 [조]신이 죽으니⁶⁷⁹ 한나라의 집권자들은 흉노가 이미 쇠약해져 신하로서 따르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신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급힐 줄 몰랐는데, 평소에 [그가] 귀한 신하가 아니라고 하여 선우가 [그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선우가⁶⁸⁰ [그를] 불러들 이려고 해도 [양신이] 끝내 절(節)을 버리지 않자 선우가 이에 천막 밖에다 자리를 마련하고 양신을 만났다. [양]신이 선우를 뵈자 달래어 말했다.⁶⁸¹ “만약 [한나라와] 화친하기를 원하신다면 선우의 태자를 한나라에 볼모로 보내십시오.” 선우가 말하였다. “그것은 과거의 약속과⁶⁸² 다르오. 과거의 약속은 한나라에서 늘 용주를 보내면서 비단, 명주솜, 식품 등을 등급 차이에 따라 주어 화친을 하면 흉노도 [한나라의] 변경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오. 지금 본래의 약속과 달리 나의 태자를 볼모로 달라 하니 [오히려 과거의 약속과 다른 이런 일]을 바라지도 마시오.⁶⁸³” 흉노의 습속에 따르면 한나라 사자가 중귀인(中貴人)⁶⁸⁴이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유생이면⁶⁸⁵ 설득하러 온 줄 알고 그의 변설을 꺾으려 하고,⁶⁸⁶ 그⁶⁸⁷ [사람이] 나이가 젊으면 자객이라 여겨 그의 기세를 꺾으려 했다. 매번 한나라의 사신이⁶⁸⁸ 흉노로 들어올 때면 흉노 역시 바로 [사신을 한나라로] 상응하게 보냈다. 한나라에서 흉노의 사자를

678) 眩雷: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烏孫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塔城縣 부근에 있었다. 그 위치를 西河郡 西北邊 또는 內蒙古自治區 鄂托克旗地域이라고도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없다. 『漢書』에는 “眩雷”로 되어 있다.

679) 前將軍 翁侯 趙信은 元朔 6년(전126) 여름에 匈奴에 투항하여 元封 4년(전107) 그곳에서 죽었다.

680) 『漢書』에는 “單于”가 없다.

681) 『漢書』에는 “楊信說單于曰”로 되어 있다.

682) 故約, 즉 과거의 약속은 漢 高祖가 使臣 劉敬을 보내 匈奴 冒頓單于와 맺은 和親之約을 말한다. 이것은 양국이 화친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그리고 文帝 4년(전176)에 다시 冒頓單于와 漢 文帝가 편지를 통해 과거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文帝 6년(전174)에는 漢나라에서 匈奴의 冒頓單于에게 편지를 보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양국의 화친 약속은 武帝시대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683) 無幾: “과거의 약속과 다르므로, 볼모를 보내는 일은 결코 바랄 수 없다.”는 의미이다.

684) 中貴人: ‘中貴’라고도 하는데, 皇帝의 寵愛를 받는 宦官을 말한다.

685) 先: ‘先生’을 말하는 것인데, 생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漢書』에는 “儒生”으로 되어 있다.

686) 『漢書』에는 “折其辭辯”로 되어 있다.

687) 『漢書』에는 “其”가 없다.

688) 『漢書』에는 “兵”으로 되어 있다.

잡아두면 흉노 역시 한나라의 사자를 잡아두는 등 반드시 대등한 수단을 취하며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⁶⁸⁹⁾.

楊信既歸，漢使王烏，而單于復調以甘言，欲多得漢財物，給謂王烏曰：「吾欲入漢見天子，面相約爲兄弟。」王烏歸報漢，漢爲單于築邸于長安。匈奴曰：「非得漢貴人使，吾不與誠語。」匈奴使其貴人至漢，病，漢予藥，欲愈之，不幸而死，而漢使路充國佩二千石印綬往使，因送其喪，厚葬直數千金，曰：「此漢貴人也。」單于以爲漢殺吾貴使者，乃留路充國不歸。諸所言者，單于特空給王烏，殊無意入漢及遣太子來質。於是匈奴數使奇兵侵犯邊。漢乃拜郭昌爲拔胡將軍，及浞野侯屯朔方以東，備胡。路充國留匈奴三歲，單于死。

양신이 [그냥] 돌아온 뒤 한나라는 왕오를 사자로 [보냈는데], 선우가 다시 교묘한 말로 [왕오를] 달래 한나라의 재물을 많이 얻을 욕심에⁶⁹⁰⁾ 거짓으로 왕오에게 말하였다.⁶⁹¹⁾ “내가 한나라에 몸소 들어가 천자를 뵈고 형제가 될 것을 서로 약속하고⁶⁹²⁾ 싶네.” 왕오가 돌아와 한나라에 [이를] 아뢰자 한나라에서는 선우를 위해 장안에 큰 집을 지었다. [그러나 트집을 잡으며] 흉노 [선우가] 말하였다. “한나라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사신으로 오지 않으면 나는 성실한 답을 줄 수 없소.” 흉노가 높은 지위의 인물을 사신으로 삼아 한나라에 보냈는데, 병이 나자 한나라에서 약을 주어⁶⁹³⁾ 치료해 주고자 했으나 불행하게도 [그가] 죽었다.⁶⁹⁴⁾ 그러자 한나라에서는 노충국(路充國)을 2천 석⁶⁹⁵⁾ [고관이 차는] 인수(印綬)를 주어 사신으로

689) 『漢書』에는 “必得當乃止”로 되어 있다.

690) 『漢書』에는 “漢使王烏等如匈奴。匈奴復詔以甘言”로 되어 있다.

691) 『漢書』에는 “給王烏曰”로 되어 있다.

692) 『漢書』에는 “結”로 되어 있다.

693) 『漢書』에는 “服藥”으로 되어 있다.

694) 漢 武帝 元封 4년(전107) 가을이다.

695) 二千石: 漢代 관인의 등급을 표시하는 秩을 말한다. 안으로 九卿, 郎將과, 밖으로 郡守, 郡尉까지 官秩이 모두 二千石이었다. 官秩이 다르고 印綬도 규모가 역시 달랐다(『漢書』 권19 「百官公卿表」). 二千石印綬의 規格은 銀印青綬였다.

그 유해를 호송하게 하고 정중한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 수천 금이었는데,⁶⁹⁶⁾ [그가] 말하기를 “[노충국] 이 사람이 한나라의 귀인이요.”라고 했다.⁶⁹⁷⁾ 선우는 한나라가 자신의 고귀한 사자를 죽였다고 여겨 바로 노충국을 잡아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선우가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의 말들은 다만 선우가 왕오 등을 속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가 한나라에 가거나 태자를 볼모로 보낼 생각이 없었다. 이에 흉노는 여러 번 기습부대로 하여금 변경을 침범하도록 했다.⁶⁹⁸⁾ 한나라에서는 이에 곽창(郭昌)⁶⁹⁹⁾을 발호장군(拔胡將軍)으로 삼고 착야후 [조과노]⁷⁰⁰⁾를 삭방의 동쪽에 주둔시켜 흉노에 대비했다. 노충국이 흉노에 억류된 지 3년이 지나서 [오유] 선우가 죽었다.⁷⁰¹⁾

烏維單于立十歲而死，子烏師廬立爲單于。年少，號爲兒單于。是歲元封六年也。自此之後，單于益西北，左方兵直雲中，右方直酒泉·燉煌郡。

오유선우가 즉위한 지 10년 만에 죽자⁷⁰²⁾ [그의] 아들 오사려(烏師廬)⁷⁰³⁾가 즉위해 선우가 되었다.⁷⁰⁴⁾ [오사려는] 나이가 어려 아선우(兒單于)라 불렸다. 이 해가 [한나라의] 원봉(元封)⁷⁰⁵⁾ 6년(전105)이었다. 그로부터⁷⁰⁶⁾ 선우는 더욱 서북쪽으로 [옮겨가] 좌익의 군사는 운중

696) 『漢書』에는 “漢使路充國佩二千石印綬，使送其喪，厚幣直數千金”으로 되어 있다.

697) 『漢書』에는 “曰：此漢貴人也”가 없다.

698) 『漢書』 권6 「武帝紀」에는 匈奴가 元封 4년(전107) 가을에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다.

699) 郭昌：雲中(內蒙古自治區 托克托 동북쪽) 사람으로 校尉로서 大將軍을 수행했다. 元封 4년(전107) 太中大夫로서 拔胡將軍이 되어 朔方에 주둔했다. 宣帝시대에 諫大夫가 되었다(『漢書』 권55 「衛青霍去病傳」: 2492).

700) 浞野侯는 趙破奴를 말한다.

701) 元封 4년(전107) 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된 路充國이 元封 6년(전105) 烏維單于가 죽자 돌아왔다. 匈奴에 거의 3년 정도 체류했다. 『漢書』에는 “單于死”가 없다.

702) 烏維單于는 元鼎 3년(전114)에 즉위하여 재위 10년 만인 漢 元封 6년(전105)에 죽었다. 『漢書』에는 “烏維單于立十歲死”로 되어 있다.

703) 『漢書』에는 “詹師廬單于”로 되어 있다. 烏師廬單于(재위 전105~전102): 匈奴의 일곱 번째 單于이다.

704) 『漢書』에는 “子詹師廬立”로 되어 있다.

705) 漢 武帝의 여섯 번째 연호(전110~전105)이다.

706) 『漢書』에는 “自是後”로 되어 있다.

[군]에 맞서고, 우익[의 군사]는 주천[군], 둔황군(燉煌郡)⁷⁰⁷에 맞서게 했다.

兒單于立，漢使兩使者，一弔單于，一弔右賢王，欲以乖其國。使者入匈奴，匈奴悉將致單于。單于怒而盡留漢使。漢使留匈奴者前後十餘輩，而匈奴使來，漢亦輒留相當。

아선우가 즉위하자 한나라에서 두 명의 사신을 보낸 것은 하나는 선우를 조문하고 하나는 우현왕⁷⁰⁸을 조문하여 그 나라를 이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신들이 흉노로 들어가자 흉노는 모두를 선우에게로 데려갔다. 선우가 화를 내면서 한나라 사신을 모두⁷⁰⁹ 잡아 두었다. 한나라 사신으로 억류된 사람은 전후로 십여 명이었는데, 흉노의 사자가 오면 한나라 역시 번번이 잡아 두어 [그 숫자가] 서로 대응했다.⁷¹⁰

是歲，漢使貳師將軍廣利西伐大宛，而令因杆將軍敖築受降城。其冬，匈奴大雨雪，畜多飢寒死。兒單于年少，好殺伐，國人多不安。左大都尉欲殺單于，使人間告漢曰：“我欲殺單于降漢，漢遠，即兵來迎我，我即發。”初，漢聞此言，故築受降城，猶以為遠。

이 해에⁷¹¹ 한나라에서는 이사장군(貳師將軍)⁷¹² 이광리(李廣利)⁷¹³를 시켜 서쪽으로 대완

707) 燉煌郡: 郡 명칭으로 치소는 敦煌縣(지금의 敦煌市 서쪽)이다. 관할구역은 지금의 甘肅省 疏勒河 서쪽과 남쪽 지역이었다(高榮, 2004: 24). 『漢書』에는 “敦煌”으로 되어 있다.

708) 右賢王의 이름은 嚙犂湖로 烏維單于의 동생으로 烏師廬 兒單于의 숙부이다. 兒單于가 죽은 다음에 그를 이어 8代 單于가 되었다.

709) 『漢書』에는 “悉”로 되어 있다.

710) 『漢書』에는 “而匈奴使來漢，亦輒留之相當.”으로 끊어 읽어 의미상의 차이는 없으나 문형이 바뀌었다.

711) 漢 武帝 太初 元年(전104)이다.

712) 貳師: 大宛의 城 이름이다. 여기에서는 將軍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713) 李廣利: 中山(지금의 河北省 定縣) 사람이다. 여동생 李夫人이 漢 武帝의 총애를 받아 등용되었다. 大宛 정벌의 명을 받고 貳師城에 이르러 善馬를 얻어 돌아와 貳師將軍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후에

(大宛)⁷¹⁴을 정벌케 하고 인우⁷¹⁵장군(因杆將軍) [공손]오⁷¹⁶를 시켜 수항성(受降城)⁷¹⁷을 쌓게 했다. 그 해 겨울⁷¹⁸ 흉노 [땅에는] 큰 눈이 내려 대다수 가축이 굶주리고 얼어 죽었다.⁷¹⁹

匈奴를 공격하다 패하고 항복하였다가 匈奴에게 피살되었다(『漢書』 권61 「張騫李廣利傳」: 2699~2704).

714) 大宛: 음은 ‘대완’이다. 고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파미르고원 서쪽 기슭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페르가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북으로는 康居, 서남으로는 大月氏, 大夏, 동북으로는 烏孫과 접해 있었다. 貴山이 都城이었다(『史記』 권123 「大宛列傳」).

715) 因杆: 匈奴의 地名이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716) 『漢書』에는 “貳因杆將軍”으로 되어 있다.

717) 受降城: 匈奴 貴族의 투항을 맞이하기 위하여 쌓은 성이었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巴彥淖爾盟 烏拉特中後旗 동쪽 지역에 그와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다.

718) 太初 元年(전104) 겨울이다.

719) 몽골 초원의 자연재해는 유목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가축을 길러야 했기 때문이다. “큰 눈이 내려 대다수 가축이 굶주리고 얼어 죽었다.”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건조한 초원에 눈과 비가 계속되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발생하였다. 초원의 재해는 가축의 폐사와 함께 목민들의 기근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유목경제 자체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유목민들이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遊牧’이라는 생산양식 자체가 축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겨울에도 초지에 가축을 그대로 방목하는 유목 경영방식에서 현재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이었을 匈奴時代에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재해에는 건조지역에 비가 계속 오는 것 이외에도 가뭄[黑災], 한파(寒波), 폭설[白災]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늑대 피해[狼害: 겨울철 늑대들이 가축을 공격하는 것]와 가축 전염병 등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초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黑災]과 폭설[白災]이 가장 심각했고, 그 다음은 가축 전염병[疫]이었다. 초원의 가뭄은 초지를 줄어들게 만들어 가축들의 생존을 어렵게 했고, 그에 따라 먹을 것이 줄어들어 약해진 가축들은 아사하거나 병에 걸려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초원은 황무지(赤地)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풀이 자랄 수 없게 되고, 이런 파괴로 인해 유목민들은 재생산 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가뭄으로 인한 초지의 축소는 현재에도 유목민들의 생존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로 기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폭설은 겨울 내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유목민들의 기근을 야기했고, 현재에도 유목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폭설은 지역적으로 북위 41도 이북으로 해발 2,500~3,000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언제든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몽골 초원은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폭설의 발생이 주기적이기는 하지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응이 어려웠고, 그 외의 시기에도 언제든지 한파, 눈보라와 함께 닥칠 가능성이 있어 몽골 유목민들에게는 이런 재해가 치명적이었다. 특히, 눈보라와 한파를 동반하는 특성은 유목민들과 가축들을 고립시켜

아선우가 아직 어리고 호전적이어서 국인(國人)들 대부분이 안심하지 못하였다. 좌대도위(左大都尉)⁷²⁰가 선우를 죽이고자 해서 몰래 사람을 시켜 한나라에 고하여 말하였다. “제가 선우를 죽이고 한나라에 항복하고자 하는데, 한나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한나라]⁷²¹ 군대가 바로 와서 저를 맞아주면 제가 바로 실행할 것입니다.” 일찍이 한나라에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수항성을 쌓았지만 그래도 [천자는 흉노와 너무] 멀다고 여겼다.

其明年春，漢使浞野侯破奴將二萬餘騎出朔方西北二千餘里，期至浚稽山而還。浞野侯既至期而還，左大都尉欲發而覺，單于誅之，發左方兵擊浞野。浞野侯行捕首虜得數千人。還，未至受降城四百里，匈奴兵八萬騎圍之。浞野侯夜自出求水，匈奴聞捕，生得浞野侯，因急擊其軍。軍中郭縱爲護，維王爲渠，相與謀曰：「及諸校尉畏亡將軍而誅之，莫相勸歸。」軍遂沒於匈奴。匈奴兒單于大喜，遂遣奇兵攻受降城。不能下，乃寇入邊而去。其明年，單于欲自攻受降城，未至，病死。

그 이듬해⁷²² 봄 한나라에서는 착야후 [조]파노에게 2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삭방[군]에서 서북으로 2천여 리를 나아가 준계산(浚稽山)⁷²³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다. 착야후는 약속한 날짜가 되어 [약속한 지점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좌대도위가 [선우를 죽이려는 거사를] 실행하려다가 발각되자 선우가 [그를] 죽이고 좌익의 군대를 일으켜 착야후를

동사하거나 기아로 아사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자연재해는 유목사회의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3년에 한 번 小災, 5년에 한 번 中災, 10년에 한 번 大災가 발생했다. 따라서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유목경제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 특히 말기에 이런 재해가 집중되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되면서 내적인 분열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匈奴의 경우에도 자연재해의 발생은 각 부족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초래하여 제국의 분열과 약화를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額爾敦布和, 1988: 146).

720) 左大都尉: 匈奴의 관직 명칭으로 左大將의 아래, 左大當戶의 위에 위치했다.

721) 『漢書』에는 “漢”이 들어 있다.

722) 漢 武帝 太初 2년(전103)이다.

723) 浚稽山: 산의 명칭으로 內蒙古의 居延海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몽골공화국 南部의 고비 알타이산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격하게 했다. 착야후는 가던 길에 수급과 포로 수천을 잡았다. [그러나] 돌아오던 길에 수항성에서 4백 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 흉노 군대⁷²⁴⁾ 8만 기에게 포위되었다. 착야후가 밤에 몸소 물을 구하러 나갔다가 숨어 있던 흉노가 [그를] 사로잡고⁷²⁵⁾ 급히 [한나라] 군대를 공격했다. [착야후의] 진중에는 곽종(郭縱)이 호[군](護軍)⁷²⁶⁾이었고 유왕(維王)⁷²⁷⁾이 거[수][渠帥]였는데,⁷²⁸⁾ 서로 상의하여 말하였다. “여러 교위들이 장군을 잃어 사형될 것을 두려워하여 돌아가기를 권할 수 없소.”⁷²⁹⁾ [그리하여] 군대가 마침내 흉노에 투항했다. 흉노의⁷³⁰⁾ 아선우가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기습부대를 보내 수항성을 공격했다. 함락시키지 못하자 변경을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그 이듬해⁷³¹⁾ 선우가 몸소 수항성을 공격하려 나섰다가 [수항성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나서 죽었다.

兒單于立三歲而死。子年少。匈奴乃立其季父烏維單于弟右賢王响犁湖爲單于。是歲太初三年也。

아선우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었다. 그 아들 나이가 어렸다⁷³²⁾. 흉노에서는 그의 숙부이자 오유선우의 동생인 우현왕 구리호(响犁湖)⁷³³⁾를 선우로 세웠다. 이 해가 [한나라의] 태초(太

724) 『漢書』에는 “兵”이 없다.

725) 『漢書』에는 “匈奴生得泥野侯”로 되어 있다.

726) 護: 관직 명칭으로 ‘護軍’의 줄임말이다. 그의 역할은 秦, 漢나라 시대에 임시로 설치하여 여러 장군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武帝 元光 2년(전133) 여름에 漢나라가 馬邑에서 매복한 다음에 匈奴를 유인했을 때 御史大夫 韓安國이 護軍이었다(주481) 참조.

727) 維王: 匈奴 阿邪王의 생질로 渾邪王을 따라 漢나라에 항복하였다. “維”는 『資治通鑑』에 “緹”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緹”로 해야 마땅하다.

728) 渠: ‘渠帥’로서 수령을 의미한다. 즉, 匈奴에서 투항한 병사의 우두머리이다.

729) 『漢書』에는 “軍吏畏亡將而誅, 莫相勸而歸”로 되어 있다.

730) 『漢書』에는 “單于”로 되어 있다.

731) 漢 武帝 太初 3년(전102)이다.

732) 『漢書』에는 “子少”로 되어 있다.

733) 响犁湖(재위 전102~전101): 음은 ‘구리호’이다. 『漢書』에는 “句黎湖”로 되어 있다. 匈奴의 여덟 번째 單于이다.

初) 3년(전102)이었다.

响犁湖單于立，漢使光祿徐自爲出五原塞數百里，遠者千餘里，築城郭列亭至廬胸，而使游擊將軍韓說·長平侯衛伉屯其旁，使彊弩都尉路博德築居延澤上。

구리호선우가 즉위하자 한나라에서는 광록[훈](光祿勳) 서자위(徐自爲)를 시켜 오원새(五原塞)⁷³⁴에서 수백 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멀리 천여 리에 걸쳐 성채와 망루⁷³⁵를 쌓아 [홍노의 영역인] 여구[산](廬胸山)⁷³⁶까지 연결하게 했다. 유격장군(遊擊將軍) 한열(韓說)⁷³⁷과 장평후(長平侯) 위항(衛伉)⁷³⁸을 그 근방에 주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노도위(彊弩都尉) 노박덕(路博德)⁷³⁹을 거연호(居延澤)⁷⁴⁰ 근처에 [요새를] 쌓고 거주하게 했다.

其秋，匈奴大入定襄·雲中，殺略數千人，敗數二千石而去，行破壞光祿所築城列亭

734) 五原塞: 지명으로 五原郡의 榆林塞를 가리킨다.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包頭市 西北이다. 일설에는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河套(오르도스) 동북쪽에 위치한다고도 한다.

735) 障: 변경의 장성에 요새를 세울 때 산 속에 있는 작은 城을 말한다. 望臺를 亭이라 하였다. (주484) 참조)

736) 廬胸山: 산 명칭으로 內蒙古自治區의 狼山 北麓에 위치하고 있었다. 廬胸은 원래 匈奴의 지명이다.

737) 韓說: 弓高壯侯 韓頰의 庶孫으로 衛靑을 따라 匈奴를 격퇴하였다. 그 공으로 龍額侯에 봉해졌다가 이후에 작위를 잃었다. 이후에 다시 東越의 공격에 공이 있어 按道侯에 봉해졌다. 遊擊將軍이 되어 五原에 주둔하면서 城을 수축하는 일을 했다. 관직은 光祿勳에 이르렀다. 후에 황태자 劉據에게 피살당하였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44).

738) 衛伉: 大將軍 衛靑의 長子로 죄를 지어 侯를 잃었다. 元封 5년(전106)에 大將軍이 죽자 長平侯가 되었다가 征和 2년(전91) 春에 巫蠱사건으로 주살되었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40).

739) 路博德: 西河 平州(지금의 山西省 林汾市 일대) 사람이다. 右北平 太守로 驃騎將軍을 따라 원정하여 공을 세워 涿離侯로 봉해졌다. 이후에 衛尉가 되어 伏波將軍이 되었다. 죄를 지어 侯를 잃고 穹廬都尉로 居延에 주둔해 있다가 죽었다(『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2945).

740) 居延澤: 호수 명칭으로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額濟納旗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漢나라에서 요새를 수축하였다.

郭. 又使右賢王入酒泉·張掖, 略數千人. 會任文擊救, 盡復失所得而去. 是歲, 貳師將軍破大宛, 斬其王而還. 匈奴欲遮之, 不能至. 其冬, 欲攻受降城, 會單于病死.

그 해 가을⁷⁴¹⁾ 흉노가 정양[군], 운중[군]으로⁷⁴²⁾ 대거 [침입해] 들어와 수천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이천 석[의 고관] 몇 명이 [이끄는 군사들] 격파한 뒤 돌아가면서 광록[훈 서자위]가 구축한 성채와 망루마저⁷⁴³⁾ 파괴하였다. 또한 [흉노는] 우현왕을 시켜 주천[군], 장액[군](張掖郡)⁷⁴⁴⁾으로 들어와 수천 명을 잡아갔다. 마침 [한나라 장수] 임문(任文)⁷⁴⁵⁾이 출격해 [이들을] 구출하니 [흉노가] 얻은 것을 모두 다시 잃고 돌아갔다. 이 해⁷⁴⁶⁾ 이사장군 [이광리]가 대안을 격파해 그 왕을 베고 돌아왔다. 흉노가 [그의 귀로를] 차단하려 했으나 이르지 못했다.⁷⁴⁷⁾ 그 해 겨울 [흉노가] 수항성을 공격하고자 했는데, 마침 선우가 병에 걸려 죽었다.⁷⁴⁸⁾

响犁湖單于立一歲死. 匈奴乃立其弟左大都尉且鞮侯爲單于.

구리호선우는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었다. 흉노는 이에 그의 동생 좌대도위 저제후(且鞮侯)⁷⁴⁹⁾를 세워 선우로 삼았다.

741) 漢 武帝 太初 3年(전102) 가을이다.

742) 『漢書』에는 “雲中·定襄·五原·朔方”으로 되어 있다.

743) 『漢書』에는 “城鄯列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744) 張掖: 郡 명칭으로 武帝 元鼎 6년(전111)에 武威郡에서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張國臂掖”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고 한다. 치소는 饜得縣(지금의 甘肅省 張掖市 서북 40여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관할 구역은 지금의 甘肅省 高臺縣 이동 弱水 상류와 內蒙古自治區 額濟納旗지역이다.

745) 任文: 漢나라의 장군이다. 그는 玉門關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貳師將軍의 뒤를 지켰다.

746) 漢 武帝 太初 3년(전102)이다. 『漢書』에는 “是歲”가 없다.

747) 『漢書』에는 “匈奴欲遮之, 不能至”를 “匈奴欲遮之, 不敢”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748) 漢 武帝 太初 4년(전101) 겨울이다.

749) 且鞮侯(재위 전101~전96): 음은 저제후이다. 匈奴의 아홉 번째 單于이다.

漢既誅大宛，威震外國。天子意欲遂困胡，乃下詔曰：「高皇帝遺朕平城之憂，高后時單于書絕悖逆。昔齊襄公復九世之讎，春秋大之。」是歲太初四年也。

한나라가 이미 대宛을 주벌하니 위세가 외국에도 떨쳤다.⁷⁵⁰⁾ [그래서] 천자는 [차제에] 흉노를 곤궁케 하려고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고조 황제는 짐에게 평성(平城)의 고통을 남겼다. 고후(高后) 때에는 선우가 매우 무도한 편지를 보내왔다. 옛날 제(齊)의 양공(襄公)이 구세(九世)의 원수를 갚으니 『춘추(春秋)』⁷⁵¹⁾에서 이것을 칭찬했도다.”⁷⁵²⁾ 이 해가 [한나라의] 태초 4년(전101)이었다.

且鞮侯單于既立，盡歸漢使之不降者。路充國等得歸。單于初立，恐漢襲之，乃自謂「我兒子，安敢望漢天子！漢天子，我丈人行也。」漢遣中郎將蘇武厚幣賂遺單于。單于益驕，禮甚倨，非漢所望也。其明年，浞野侯破奴得亡歸漢。

저제후 선우가 즉위한 뒤 한나라 사신 가운데 [흉노에] 항복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 주었다. [그래서] 노충국 등이 돌아올 수 있었다. 선우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 한나라의 공격을 걱정해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⁷⁵³⁾ “나는 어린애다. 어떻게 내가 감히 한나라의 천자와 [대등하기를] 바라겠는가! 한나라 천자는 나의 [아버지 같으신] 어른이다.” 한나라에서는 중랑장⁷⁵⁴⁾

750) 漢 武帝 太初 3년(전102)에 漢나라가 다시 大宛을 공격하자 大宛의 귀족이 왕 毋寡를 살해하고 漢나라에 항복하였다.

751) 春秋: 魯나라에 전해 오는 사관의 기록을 바탕으로 孔子가 隱公 元年(전722)에서 哀公 14년(전481)의 獲麟까지 12명의 공, 242년간의 사건 기록을 編年體로 엮어 놓은 사서이다. 중국 최초의 편년사이며 간략한 서술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西周 금문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초기 산문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문장은 비록 아주 짧지만 字句의 운용이나 구성은 『書經』보다 훨씬 발전하여 간결하고 평이하다.

752) 『春秋公羊傳』 莊公4年條에 “齊 襄公 九世祖인 哀公이 紀侯의 모함을 받아 周에 피살당하였는데, 전 690년 襄公이 紀를 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公羊傳』 莊公四年春 “齊襄公滅紀，復讎也。襄公之九世祖，昔爲紀侯所譖，而亨(烹)殺於周，故襄公滅紀也。九世猶可以復讎乎？曰 雖百世可也。”).

753) 『漢書』에는 “且鞮侯單于初立，盡歸漢使之不降者路充國等於漢。單于乃自謂……”로 되어 있는데, 순서가 도치되었을 뿐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소무(蘇武)⁷⁵⁵를 보내 선우에게 후하게 예물을 주었다. [그러나] 선우가 더욱 교만해져 예의가 심하게 거만해지니 이것은 한나라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 이듬해⁷⁵⁶ 초야후 [조]파노가 한나라로 도망쳐 돌아왔다.⁷⁵⁷

其明年，漢使貳師將軍廣利以三萬騎出酒泉，擊右賢王於天山，得胡首虜萬餘級而還。匈奴大圍貳師將軍，幾不脫。漢兵物故什六七。漢復使因杆將軍救出西河，與彊弩都尉會涿涂山，毋所得。又使騎都尉李陵將步騎五千人，出居延北千餘里，與單于會，合戰，陵所殺傷萬餘人，兵及食盡，欲解歸，匈奴圍陵，陵降匈奴，其兵遂沒，得還者四百人。單于乃貴陵，以其女妻之。

그 이듬해⁷⁵⁸ 한나라에서는 이사장군 [이]광리⁷⁵⁹를 시켜 삼만 기를 거느리고 주천에서 나가 천산(天山)⁷⁶⁰에서 우현왕을 공격해 흉노의 수급과 포로 만여 인을 얻어 돌아왔다. 흉노

754) 中郎將: 관직의 명칭으로 皇帝의 護衛部隊를 통솔하여 좌우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떤 때는 禁軍을 통솔하기도 하였는데 將軍 아래에 있는 직책이었다.

755) 蘇武(?~전60): 자가 子卿으로 杜陵(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동남쪽) 사람이다. 遊擊將軍 蘇建의 아들이다. 그는 天漢 元年(전100)에 匈奴가 억류한 漢나라의 사신을 모두 석방하자 武帝가 이런 單于의 생각을 좋게 생각하여 漢나라에 머물고 있던 匈奴 사신을 송환하도록 하기 위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그 이후에 뜻밖의 사건으로 單于로부터 투항을 권유받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19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漢나라로 다시 돌아와 영웅이 되었으나 부인이 개가를 하고 靖亂으로 아들을 잃는 등 개인적으로 불행한 운명을 맞았다(도미야 이타루, 2003: 11~19).

756) 漢 武帝 天漢 元年(전100)이다. 且鞮侯單于가 즉위한 해는 太初 4년(전101)이다. 蘇武가 匈奴로 간 것과 趙破奴가 匈奴에서 도망해 온 것도 天漢 元年(전100)이므로 원문의 “其明年” 이 세 글자는 “漢나라가 中郎將 蘇武를 보내(漢遣中郎將蘇武)”의 앞으로 가야 마땅하다.

757) 바로 위 문단과 아래의 두 문단은 후세 사람의 가필로 여겨 天漢 연간(전100~전97)과 征和 연간(전92~전98)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匈奴에서 사신들 중에서 匈奴에 항복하지 않은 자를 돌려보낸 것은 天漢 元年(전100)의 일로 太初 4년(전101)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758) 漢 武帝 天漢 2년(전99)이다.

759) 『漢書』에는 “廣利”가 없다.

760) 天山: 산의 명칭인데, 다양한 위치 비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張掖縣에 있는 祁連山이 아니라 지금의 新疆維吾爾自治區 하미(哈密: 伊州) 이북의 巴里坤 哈薩克自治縣 부근에 있는 蒲類海 근처에 위치한

가 이사장군을 포위하니 거의 빠져나가지 못하였다.⁷⁶¹⁾ 한나라 군대는 열에 여섯 일곱을 잃었다. 한나라에서는 다시⁷⁶²⁾ 인우장군 [공손]오를 시켜 서하(西河)⁷⁶³⁾에서 나가 강노도위(疆弩都尉)⁷⁶⁴⁾ [노박덕과] 탁야산(涿涂山)⁷⁶⁵⁾에서 만났으나 얻은 바가 없었다. 또, 기도위(騎都尉) 이릉(李陵)⁷⁶⁶⁾을 시켜 보병과 기병⁷⁶⁷⁾ 5천을 거느리고 거연에서 북쪽으로 천여 리 나아가 선우와 만나 전투를 벌여 [이]릉이 [홍노병] 만여 명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병력과 식량이 다 떨어져 [포위를] 풀고 돌아오려고 하자⁷⁶⁸⁾ 홍노가⁷⁶⁹⁾ [이]릉을 포위하니 [이]릉이 홍노에 투항하고 그의 병사가 다 항복하니 돌아올 수 있었던 자가 겨우 4백 명이었다⁷⁷⁰⁾. 선우는 이에 [이]릉을 귀하게 여겨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⁷⁷¹⁾

天山을 가리킨다.

761) 『漢書』에는 “幾不得脫”로 되어 있다.

762) 『漢書』에는 “又”로 되어 있다.

763) 西河: 강의 명칭이 아니라,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山西省, 陝西省 변경지대로 陝西 東部 黃河 西岸을 통칭한다.

764) “疆弩都尉”는 路博德을 말한다. 그는 驃騎將軍을 따라 공을 세워 符離侯가 되었다. 그는 이후 죄를 지어 侯를 잃었다가 疆弩都尉가 되어 居延에 주둔했다.

765) 涿涂山: 음은 ‘탁야산’이다. 산 명칭으로 內蒙古의 居延海의 서북에서 떨어진 지금 몽골공화국의 西部에 있는 만달 고비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漢書』의 기록처럼 일명 ‘涿邪山’이라고도 한다

766) 李陵(?~전74): 자는 小卿으로 隴西 成紀(지금의 甘肅城 秦安縣) 사람이다. 명장 李廣의 손자로 병사 8백 기를 이끌고 匈奴로 쳐들어가 2천 리를 들어가 지형을 살피고 돌아와 騎都尉가 되었다. 하지만 5천 명의 보병으로 匈奴를 공격하다가 잡히게 되었다. 그 이후 가족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죽임을 당하자 匈奴에 투항하게 되었다(『史記』 권109 「李將軍列傳」: 2877~2878). 司馬遷은 그를 변호하다가 궁형을 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그가 이후 蘇武에게 보낸 편지가 『文選』에 남아 있다(도미야 이타루, 2003: 11~19).

767) 李陵이 이끌고 匈奴를 공격한 부대는 ‘步兵과 騎兵’이 아니라 步兵이었다. 『漢書』 권62 「司馬遷傳」 “且李陵提步卒不滿五千, 深踐戎馬之地, 足歷王庭, 垂餌虎口, 橫挑疆胡, 印億萬之師, 與單于連戰十餘日, 所殺過當. ……” 또한 『漢書』 권54 「李陵傳」, 太史公「報任少卿書」, 荀悅『漢紀』, 『資治通鑑』 등에서 모두 “步卒”로 기록하고 있다.

768) 『漢書』에는 “兵食盡, 欲歸”고 되어 있다.

769) 『漢書』에는 “單于”로 되어 있다.

770) 『漢書』에는 “其兵得脫歸漢者四百人”고 되어 있다.

771) 『漢書』 「李陵傳」에도 동일하게 “單于壯陵, 以女妻之, 立爲右校王.”라고 되어 있다.

後二歲，復使貳師將軍將六萬騎，步兵十萬，出朔方。彊弩都尉路博德將萬餘人，與貳師會。游擊將軍說將步騎三萬人，出五原。因杆將軍敖將萬騎步兵三萬人，出鴈門。匈奴聞，悉遠其累重於余吾水北，而單于以十萬騎待水南，與貳師將軍接戰。貳師乃解而引歸，與單于連戰十餘日。貳師聞其家以巫蠱族滅，因并衆降匈奴，得來還千人一兩人耳。游擊說無所得。因杆敖與左賢王戰，不利，引歸。是歲漢兵之出擊匈奴者不得言功多少，功不得御。有詔捕太醫令隨但，言貳師將軍家室族滅，使廣利得降匈奴。

그 후 2년이⁷⁷²⁾ 지나서 다시 이사장군 [이광리]를 시켜 6만의 기병과 보병 10만⁷⁷³⁾을 거느리고 삭방[군]에서 나아가게 했다. 강노도위 노박덕이 만여 명을 거느리고 이사[장군 이광리]와 만났다. 유격장군 [한]열⁷⁷⁴⁾은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오원[군](五原郡)⁷⁷⁵⁾에서 나갔다. 인우장군 [공손]오는 만 명의 기병과 보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안문[군]에서 나갔다. 흉노가 [이 정보를] 듣고 짐이 될 수 있는 처자와 자산[累重]⁷⁷⁶⁾을 모두 여오수(余吾水)⁷⁷⁷⁾의 북쪽으로 대피시킨 다음 선우가 10만 기를 이끌고 [여오]수 남쪽에서 기다렸다가 이사장군 [이광리]와 전투를 벌였다. 이사[장군 이광리]는 [공격을] 풀고 되돌아오다가 선우와 연이어 10여 일을 싸웠다.⁷⁷⁸⁾ 이사[장군 이광리]는 자신의 가족들이 무고(巫蠱)의 난⁷⁷⁹⁾에 연루되어 몰살

772) 漢 武帝 天漢 4년(전97)이다. 『漢書』 「武帝紀」에 天漢 3年(전98) 가을에 匈奴가 雁門에 들어오자 4年(전97)에 貳師將軍을 보냈다고 되어 있다.

773) 『漢書』에는 ‘七萬’으로 되어 있다.

774) 韓說: 弓高侯의 庶孫으로 校尉로서 大將軍을 따라 匈奴 정벌에 공을 세워 龍頰侯가 되었다가 죄를 지어 侯를 잃었다. 元鼎 6년(전111) 橫海將軍으로 東越을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워 按道侯가 되었다. 太初 3년(전102) 游擊將軍이 되어 五原 밖에 주둔해 있었다. 光祿勳이 되었다가 巫蠱사건으로 戾太子에게 죽임을 당했다.

775) 五原: 郡 명칭으로 前漢 元朔 2년(전127)에 설치되었다. 치소는 九原縣(지금의 內蒙古自治區 烏拉特前旗 동남 黑柳子鄉 三頂房村 古城)이다. 관할구역은 內蒙古自治區 後套 이동, 陰山 이남, 包頭市 이서와 達拉特, 准噶爾旗 지역이다. 後漢 말에 폐지되었다.

776) 累重: 짐이 될 수 있는 처자와 재산을 의미한다.

777) 余吾水: 강의 명칭으로 『山海經』 「北山經」에서 “涂吾之水”라고 되어 있다. 지금의 몽골공화국에 있는 셀렝게강의 중요한 지류 중의 하나인 툽강을 지칭한다.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흉노에 투항하니⁷⁸⁰⁾ 이에 살아서 돌아온 자가 천 명 중에 겨우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았다. 유격[대장 한]열도 전과가 없었다. 인위[장군 공손]오도 좌현왕과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해 철수해 돌아왔다. 이해에⁷⁸¹⁾ 한나라 군사로 출정해 흉노와 싸운 사람 중에서 군공(軍功)을 따질 만한 여지조차 없어 논공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한편] 조칙을 내려 태의령(太醫令)⁷⁸²⁾ 수단(隨但)을 체포했는데, [이는] 그가 이사장군 [이광리의] 가족이 몰살되었다고 말해 이광리를 흉노에 투항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⁷⁸³⁾

太史公曰：孔氏著春秋，隱桓之間則章，至定哀之際則微，爲其切當世之文而罔褒，忌諱之辭也。世俗之言匈奴者，患其微一時之權，而務調納其說，以便偏指，不參彼己；將率席中國廣大，氣奮，人主因以決策，是以建功不深。堯雖賢，興事業不成，得禹而九州寧。且欲興聖統，唯在擇任將相哉！唯在擇任將相哉！

태사공이 말하였다. “공자(孔子)가 『춘추』를 지었을 때 [옛날] 은공(隱公)과 환공(桓公)⁷⁸⁴⁾

778) 이 부분은 맥락상 “貳師將軍 [李廣利]는 單于와 10여 일을 계속 싸우다가 [군사를] 풀고 돌아왔다.”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79) 巫蠱: 古代의 迷信으로 呪術師들이 사술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漢 武帝 末年에 皇帝가 方士神巫를 좋아하여 여자 무당들이 宮闈에 출입을 했다. 漢 武帝 征和 2년(전91)에 方士와 무당들이 宮人들을 고혹시켜 木人을 宮中에 묻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때 우연히 皇帝가 병에 걸렸다. 戾太子와 사이가 나쁜 강충이 “皇帝의 병은 무당들의 현혹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궁중의 木人들을 파내자 太子宮에서 나온 것이 가장 많았다. 太子가 두려워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패하자 자살했다.

780) 征和 2년(전91), 巫蠱가 시작되어 3년(전90)에 李廣利가 匈奴를 공격하러 나갔다가 패배하고 항복하였다.

781) 漢 武帝 征和 3년(전94)이다.

782) 太醫令: 관직 명칭으로 前漢시대에 太常과 少府에 소속되어 있었다. 太常 소속은 百官의 병을 치료하고, 少府 소속은 궁정 귀족의 병을 치료하였다(『漢書』 권19 「百官公卿表」: 726).

783) 『漢書』에서는 『史記』의 내용을 이어 “明年，且鞮死，長子狐鹿姑單于立”로부터 그 이후 匈奴傳의 내용이 전개된다.

784) 『春秋』에는 魯 隱公 元年(전722)의 일부터 기록되었다. 魯 桓公(재위 전711~전694)은 隱公의 뒤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명료하게 서술하였으나 [자신과 동시대인] 정공(定公)과 애공(哀公)⁷⁸⁵⁾ 사이에 [일어난 일을] 분명하지 않게 서술한 것은⁷⁸⁶⁾ 당시와 너무나 가까운 일의 기록이 근거 없이 칭송하거나 꺼려서 피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항간에서 흉노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들은 일시적인 권세를 얻고 싶어 하여⁷⁸⁷⁾ 제 의견이 채택되도록 아첨함으로써 [황제 또는 장군 등 의견 채택자의] 편견을 조장하고 피아(彼我)[의 정세]를 참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장군들은⁷⁸⁸⁾ 중국이 광대하다는 것만 믿고 기고만장했으며, 임금은 [그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운 공이 많지 못하였다. 요[임금]은 비록 현명한 [군주였으나 혼자서] 사업을 일으켜 성공할 수 없었으나 우[임금]을 얻고서야 [비로소] 구주(九州)⁷⁸⁹⁾를 안녕하게 만들 수 있었다.⁷⁹⁰⁾ 또한 [거룩한] 성왕의 전통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오직 장군이나 대신을 잘 골라 일을 맡기는 데 있도다! 오직 장군이나 대신을 잘 골라 일을 맡기는 데 있도다!”

이어 재위하였다.

785) 魯 定公(재위 전409~전495)과 魯 哀公(재위 전494~전468) 시기는 『春秋』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孔子가 살았던 때이기도 하다.

786) 孔子는 定公과 哀公시기에 관리가 되어 『春秋』를 저술했다. 과거의 일은 꺼릴 필요가 없어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자신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 이런 기록은 司馬遷이 孔子가 『春秋』를 저술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이 當代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꺼리는 내용을 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787) “微”은 ‘구한다’는 것으로 일시적인 권력의寵愛를 구한다는 의미이다.

788) “將率”은 樊噲, 衛青, 霍去病을 지칭한다.

789) 『尙書』 「禹貢編」에 의하면 九州는 冀州, 兗州, 青州, 徐州, 揚州, 荊州, 豫州, 梁州, 雍州이다. 이 외에도 여러 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全中國을 지칭한다.

790) 『史記正義』에서 司馬遷이 堯가 비록 聖人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禹를 얻어 九州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武帝가 좋은 將軍과 宰相을 잘 고르지 못하고 小人들의 아첨에만 빠져 여러 차례 匈奴를 원정하여 백성들의 삶을 파괴한 것을 비판했다고 평가했다.

| 참고문헌 |

- 國史編纂委員會, 『中國正史朝鮮傳譯註』 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0
- 김원중 譯, 『史記列傳』, 서울: 을유문화사, 1999
- 李丙燾 譯註, 『國譯 三國史記』, 서울: 을유문화사, 1977
- 丁範鎭 譯, 『史記列傳』 上·下, 서울: 까치, 1995
- 桓寬, 김한규·이철호 譯, 『鹽鐵論』, 서울: 소명출판, 2002
-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 十三經,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馬持盈 註, 『史記今注』, 臺灣: 商務印書館, 1983
- 司馬光,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56
- 楊伯峻, 『春秋左傳注』 1~4, 北京: 中華書局, 1990
- 許嘉璐 主編, 『二十四史全譯 史記』,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內田吟風, 田村實造 譯註, 『騎馬民族史1 - 正史北狄傳』, 東京: 平凡社, 1971
-
- 도미야 이타루, 李在成 譯, 『나는 이제 오랑캐의 옷을 입었소: 이릉과 소무』, 서울: 시공사, 2003
- 디코스모, 이재정 譯, 『오랑캐의 탄생』, 서울: 황금가지, 2005
- 르네 그루쎄,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서울: 사계절, 1998
-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서울: 민속원, 2001
- 사와다 이사오, 김숙경 옮김, 『匈奴: 지금은 사라진 고대 유목국가 이야기』, 서울: 아이필드, 2007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서울: 푸른역사, 2003
-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古代篇』, 서울: 一潮閣, 1982
-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2001
- 하자노프, 金浩東 譯, 『遊牧社會의 構造 - 역사인류학적 접근』, 서울: 知識産業社, 1990
- 江鴻, 『匈奴興亡之追踪』,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 丘光明, 『中國歷代度量衡考』, 北京: 北京科學出版社, 1992
- 段連勤, 『丁零·高車與鐵勒』,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 馬利清, 『原匈奴·匈奴-歷史與文化的考古學探索』,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5
- 馬長壽, 『北狄與匈奴』,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a)

- 馬長壽, 『氐與羌』,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b)
- 蒙文通, 『周秦少數民族研究』, 上海: 上海龍門聯合書局, 1958
- 武沐, 『匈奴史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05
- 王光華, 『古代中國西北歷史資料輯錄』,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1988
- 王明哲·王炳華, 『烏孫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83
- 林幹, 『匈奴通史』,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 林幹 編, 『匈奴史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1988
- 林幹, 『東胡史』,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9
- 林幹, 『東胡烏桓鮮卑研究與附論』,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 林幹, 『中國古代北方民族通史』, 廈門: 鷺江出版社, 2003
- 張興唐, 『史記漢書匈奴地名今釋』, 臺北: 國防研究院, 1963
- 田廣金·郭素新, 『北方文化與匈奴文明』,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5
- 陳序經, 『匈奴史稿』,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 江上波夫, 『ユウラシア古代北方文化: 匈奴文化論考』上·下, 東京: 山川出版社, 1948
- 內田吟風, 『北アジア史研究 匈奴編』, 京都: 同朋舍, 1975
- 來村多加史, 『萬里の長城 攻防三千年史』, 東京: 講談社, 2004
- 山田信夫, 『北アジア遊牧民族史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東京: 講談社, 2007
- 小谷仲男, 『大月氏』, 東京: 東方書店, 1999
- 松井健, 『遊牧といる文化』, 東京: 吉川弘文館, 2001
- 原山焯, 『モンゴルの神話・傳説』, 東京: 東方書店, 1995
- 張承志, 『モンゴル草原遊牧誌』, 東京: 朝日新聞社, 1993
- 護雅夫, 『北アジア・古代遊牧國家の構造』, 『岩波講座 世界歷史』, 東京: 岩波書店, 1970
- 護雅夫, 『遊牧騎馬民族國家』, 東京: 講談社, 1967
- 後藤富男, 『內陸アジア遊牧民の社會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7
- Barfield, T.J.,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Cambridge: Basil Blackwell, 1989
- Hildinger, *Warriors of the Steppe: A Military History of Central Asia, 500 B.C. to 1700 A.D.*,
New York: Sarpedon, 1997
- Pritsak, O., *The Origin of Rus vol.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姜仁旭, 「中國 北方地帶와 夏家店上層文化의 청동투구에 대하여 - 기원전 11~8세기 중국 북방 초원지역의 지역 간 상호교류에 대한 접근」, 『先史와 古代』 25, 2006
- 姜仁旭, 「한국고고학의 최근 성과와 과제: 시베리아 고고학 연구 성과와 과제 - 한국, 중국 동북지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貧雪 任孝宰教授 停年紀念論叢特輯號: 韓國先史考古學報』 12, 2006
- 金浩東,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 II, 서울: 知識產業社, 1989
- 金浩東,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東亞史上的 王權』,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3
- 朴京哲, 「遼西琵琶形青銅文化의 再認識」, 『先史와 古代』 12, 1999
- 裴眞永,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 전국시대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 『中國史研究』 36, 2005
- 복기대, 「紀元前 7~4세기 遼西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관하여 - 秦開 東征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1, 2004
- 복기대, 「東北아시아 青銅器文化의 地域性: 夏家店上層文化와 凌河文化 比較研究」, 『先史와 古代』 20, 2004
- 복기대, 「韓國 上古史와 東北아시아 青銅器時代 文化 - 南滿洲 지역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4, 2006
- 吳江原, 「中國 東北地域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流關係」, 『先史와 古代』 20, 2004
- 丁載勳, 「古代遊牧國家의 社會構造」,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編, 『韓國古代史講座3 古代國家의 構造와 社會』, 서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高榮, 「月氏·烏孫과 匈奴在河西의 研究」, 『西北民族研究』 2004-3, 2004
- 龔蔭, 「匈奴單于疏證」, 『西北民族研究』 1999-2, 1999
- 馬利清·宋遠茹, 「關於匈奴文字의 新線索」, 『考古與文物』 2004-2, 2004
- 武沐, 「對匈奴收繼婚制度의 再探討 - 匈奴婚姻制度研究之一」, 『中國邊疆史地研究』, 2005-3, 2005
- 徐復, 「閼氏讀音考」, 林幹 編, 『匈奴史論文選集(1919~1979)』, 北京: 中華書局, 1983
- 額爾敦布和, 「牧區“白災”及防禦對策」, 內蒙古自治區蒙古族經濟史研究組 編, 『蒙古族經濟發展史研究』 第2集,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8
- 梁啓超, 「史記匈奴傳戎狄名意考」, 『中國歷史上民族之研究』(『飲冰室合集·全集』 41·42), 北京: 中華書局, 1989
- 吳疆, 「突厥의 向東拜日習慣의 述考」, 『蘭州大學學報』 1989-4, 1989
- 王慶憲, 「生活在匈奴地區의 中原人口」, 『黑龍江民族叢刊』 2005-3, 2005
- 王國維, 「鬼方昆方獯豸考」, 『觀堂集林』 권13, 北京: 中華書局, 1984

- 姚大力, 「追溯匈奴的前史 - 兼論司馬遷對“史道”的突破」, 『復旦學報』 2004-4, 2004
- 熊貴平·王擴建, 「孝文十四年匈奴南“侵”原因及影響新探」, 『江西師範大學學報』, 2005-3, 2005
- 李春梅, 「匈奴政權“二十四長”和“四角”, “六角”探析」, 『內蒙古社會科學』, 2006-3, 2006
- 岑仲勉, 「伊朗之胡與匈奴之胡」, 『眞理雜誌』 1-3, 1944, 『匈奴史論文選集』, 北京: 中華書局, 1983
- 卡哈爾曼·穆汗, 「塞·匈奴·月氏·鐵勒四部名稱考」, 『西域研究』 2000-4, 2004
- 陳勇, 「《史記》所見“胡”與“匈奴”稱謂考」, 『民族研究』 2005-6, 2005
- 黃文弼, 「論匈奴族之基源」, 『古代匈奴民族之研究』, 1943, 『匈奴史論文選集』, 北京: 中華書局, 1983
- 吉田順一, 「ハンガイと陰山」, 『史觀』 102, 1980
- 後藤富男, 「モンゴル族におけるオボの崇拜 - その文化における諸機能」, 『民族學研究』 1956
- Pritsak, O., “Die 24 Ta-ch'en. Stuide zur Geschichte des Verweltungsaufba us der Hsiung-nu Reice”, *Orinens Extremus* 1, 1954
- 季德源 主編, 『中華軍事職官大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9
- 高文德 主編, 『中國民族史人物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 丘樹森 主編, 『中國歷代職官辭典』,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8
- 紀大椿 主編, 『新疆歷史辭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3
-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大辭典: 歷史地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7
-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徐連達 主編, 『中國歷代官制詞典』,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1
- 雪梨, 『中國絲綢之路辭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4
- 翁獨健·劉榮焯 主編, 『中國歷史大辭典: 民族史』,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5
- 魏崇山 主編, 『中國歷代地名大辭典』,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1995
- 俞鹿年 編著, 『中國官制大詞典』,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2
- 劉維新 主編, 『西北民族辭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8
- 李成華 編著, 『中國古代職官辭典』, 臺北: 常春樹書房, 1988
- 林幹 編, 『匈奴歷史年表』, 北京: 中華書局, 1984
- 鄭天挺·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0
- 陳永齡 主編, 『民族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
- 小松久男, 『中央ユーラシアを知る事典』, 東京: 平凡社, 2005

남월열전(南越列傳)



「남월열전(南越列傳)」 해제

남월국(南越國)은 현재 광동성과 광서성 일대를 포함하여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에서 북쪽으로는 호남성과 귀주성 남부까지 해당하는 남부 최대의 강역을 자랑하던 고대국가로, 한무제 시기 내속화(內屬化)된 이래 중국의 역대 강역 속에서 남방 한계선을 의미하게 되었다. 「남월열전」은 제1대 남월왕 조타(趙佗)를 시작으로 제2대인 조호(趙胡), 제3대 조영제(趙嬰齊), 끝으로 조흥(趙興)까지의 가계(전203~전111)를 서술하고 있다.

「남월열전」은 기타 외국전과 함께 한대 중국적 세계질서체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자리잡아 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한고조(漢高祖) 때 남월과 맺었던 화친책이 남월왕의 백월(百越)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고 동시에 관시(關市)를 설치하여 한(漢)과의 교역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장사국(長沙國)과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남월국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통사물(通使物)’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은 열전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남월국 내에서 조타가 황제를 칭하며 황옥(黃屋)과 좌독(左纛)의 사용, 칭제(稱制)를 칭한 사실 등이 당시 황제의 위용을 상징하는 의전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한(漢)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던 남월국이 한무제 때 그 균형이 깨지면서 남월왕의 ‘입견(入見)’을 강요받게 되는데, 조호(趙胡)의 남월국 신하들이 이를 망국(亡國)의 지름길로 받아들인 점, 또 그 뒤를 이은 조영제(趙嬰齊)가 한의 요구를 ‘내제후(內諸侯)’처럼 취급하며 ‘한법(漢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구절 등은 한대 내제후, 외제후의 구분과 제후의 입견제도 등 제도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남월과 한의 관계를 통해 기타 다른 외국과의 관계도 유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기』 「남월왕전」의 내용은 1983년에 광주(廣州)시 상강(象崗)에서 발굴된 남월왕묘의 유물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출토문물 중 용鈕(龍鈕)의 “문제행새(文帝行璽)”라 새겨진 금인(金印) 한 점과 ‘조말(趙昧)’이라 새겨진 옥인(玉印)이 나와 묘주가 남월왕국의 제2대왕 조말, 즉 사서의 조호임을 확인해 주었다. 조말은 조타의 손자로 시호는 문제(文帝)였으며, 기원전 137년에서 기원전 122년까지 재위하였다. 또, 같은 자리에서 구鈕(龜鈕)의 ‘태자(太子)’ 금인과 ‘문제행새(文帝行璽)’라는 옥새(玉璽)가 출토되었는데, 한조정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위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문물 중에는 페르시아로부터 온 은합(銀盒)과 아프리카산 커다란 상아와 칠합(漆盒) 그리고 훈로(熏爐)와 짙은 남색의 유리 조각이 있다. 이들 문물은 남월국이 일찍이 혹은 더 이른 시기부터 광주지역이 이미 페르시아 및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과 해상무역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월국이 단순히 한조정의 제후국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지향할 수 있었던 경제기반과 교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 7실의 묘실에서 묘주는 후부의 중실(中室)에 안장되었으며, 순장자는 모두 15인으로 그 중 희첩(姬妾)이 4인이고 시종이 7인이었다. 또 묘주는 사루옥의(絲縷玉衣)라는 옥 조각을 비단 실로 꿰 수의(壽衣)를 입고 있었는데, 옛날 한나라 때 옥으로 염(殮)하면 시신이 썩지 않는다고 믿어 황제, 제후, 고급귀족 사이에 유행하였다. 즉, 여전히 당시 한조정의 문화가 그대로 전수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는데, 출토문물에는 한문화, 전통적인 초(楚)와 월(越)문화와 함께, 새로이 인도양을 통해 페르시아에 이르는 지역의 문화가 흡수된 다양한 문화양식이 보이고 있어, 「남월왕전」에 나타난 한조정의 제후왕으로서의 성격 외에 복잡한 정치적 위상을 보이는 남월국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남월열전」은 사마천이 구사하는 서술어가 한초의 관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남월열전」을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몇몇 명칭과 구절을 생략, 가감하고 있는 반고(班固)의 『한서』와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예를 들면, 효문제(孝文帝) 즉위 후 조타에게 고후(高后) 이래 악화된 남월과의 관계 회복을 권유받자, 조타가 한 말 중에서 “내가 듣기로 두 영웅은 함께 설 수 없고, 두 현인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황제란 현명한 천자이다(吾聞兩雄不俱立, 兩賢不並世. 皇帝, 賢天子也)”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비해 『한서』에는 “한의 황제는 현명한 천자이다(漢皇帝, 賢天子也)”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회주고증(史記會注考證)』

이 이미 지적하듯, 글자 하나의 첨가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달라진다.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서』는 『사기』의 「남월열전」을 그대로 전재하되 이처럼 부분부분 첨삭과 개정을 가하고 있고, 『사기』에 보이지 않는 상세한 상주문을 싣고 있는 등 그 차이는 분명하다.

- 역주: 문정희
- 교열: 김유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남월열전(南越列傳)」역주

南越王尉佗者，眞定人也，姓趙氏。秦時已并天下，略定揚越，置桂林、南海、象郡，以謫徙民，與越雜處十三歲。佗，秦時用爲南海龍川令。至二世時，南海尉任囂病且死，召龍川令趙佗語曰：「聞陳勝等作亂，秦爲無道，天下苦之，項羽·劉季·陳勝·吳廣等州郡各共興軍聚衆，虎爭天下，中國擾亂，未知所安，豪傑畔秦相立。南海僻遠，吾恐盜兵侵地至此，吾欲興兵絕新道，自備，待諸侯變，會病甚。且番禺負山險，阻南海，東西數千里，頗有中國人相輔，此亦一州之主也，可以立國。郡中長吏無足與言者，故召公告之。」卽被佗書，行南海尉事。囂死，佗卽移檄告橫浦·陽山·湟谿關曰：「盜兵且至，急絕道聚兵自守！」因稍以法誅秦所置長吏，以其黨爲假守。秦已破滅，佗卽擊并桂林、象郡，自立爲南越武王。高帝已定天下，爲中國勞苦，故釋佗弗誅。漢十一年，遣陸賈因立佗爲南越王，與剖符通使，和集百越，毋爲南邊患害，與長沙接境。

남월¹⁾왕 위타(尉佗)²⁾는 진정(眞定)³⁾ 사람으로 성은 조씨(趙氏)이다. 진이 천하를 통일하고

- 1) 南越: '南粵'이라고도 한다. 古代 南方 越人の 일족이다. 원래는 族名이었는데, 뒤에 趙佗가 세운 國名이 되었다. 그 疆域은 현재의 廣東과 廣西 지역을 포함하여 남쪽으로는 월남 북부까지, 북쪽으로는 湖南省과 貴州省 남부까지 해당한다. 秦이 六國을 통일한 뒤 이 지역에 桂林郡, 南海郡, 象郡 3郡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史記正義』(이하 『正義』로 약칭)는 廣州 南海縣에 도읍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秦始皇 33년에 嶺南을 통일한 뒤 南海郡을 설치하였고, 郡治는 番禺城이었다. 현재의 廣州市 越秀區 내에 속한다. 越秀區

나서 양월(楊越)⁴⁾을 공략하여 평정하고 계림군(桂林郡),⁵⁾ 남해군(南海郡),⁶⁾ 상군(象郡)⁷⁾을

는 南海縣과 番禺縣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隋 開皇 10년에 番禺縣을 南海縣에 통합하였다가 唐 長安 3년에 다시 番禺縣을 회복시켰다. 이후 五代十國과 宋代 통합과 분리를 거듭하다가 明代 鹿步巡檢司의 관할에 속하면서 같은 행정소속이 되었다. 한대 백월족의 분포는 뒤에 첨부한 도표와 같다.

- 2) 尉佗: 여기에서 尉는 ‘郡尉’를 말한다. 『史記索隱』(이하 『索隱』으로 약칭)에 인용된 『十三州記』에 의하면, “大郡은 守라 하고 小郡은 尉라 한다.”고 하였으니, 秦漢시대 郡의 최고 군사장관으로 그 지위는 郡守 아래이며 前漢 景帝 中二年(전148)에 都尉로 改名하였다. 秦시대에 桂林, 南海, 象郡에는 아직 郡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尉가 郡의 최고장관으로서 軍權과 民政을 모두 겸하였다. ‘尉佗’라고 한 것은 그가 일찍이 南海尉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尉佗라 부른 것이다. 참고로 『索隱』에 인용된 『十三州記』는 지금까지 應劭의 저작으로 알려져 왔는데, 『史記』中華書局本 「標點後記」(10권, 15쪽)는 『史記』권55 「留侯世家」의 ‘放牛桃林之陰’에 대한 司馬貞의 주석에서 “應劭『十三州記』弘農有桃丘聚, 古桃林也”는 ‘應劭’ 다음에 탈자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十三州記』는 北魏 闕駟이 편찬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魏書』권52 「闕駟傳」 및 『隋書』 「經籍志」, 『舊唐書』 「經籍志」 등에 모두 ‘十三州志’로 되어 있는 점, 清代 일련의 고증학자들이 모두 應劭의 작품으로 주석하고 있는 점, 예를 들어 淸 章宗源의 『隋書經籍志考證』에 “『十三州記』卷亡, 應劭撰, 不著錄”라고 한 점, 그리고 鄺道元的 『水經注』의 『泗水注』에 應劭의 『十三州記』를 인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應劭의 저작이 맞다고 주장하는 설이 제기되었다(蘇魯支, 『史記』標點商榷一則—附應劭『十三州記』佚文, 『經學諸子研究』國學數典論壇).
- 3) 眞定: 縣名이다.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처음에는 郡名이었는데, 뒤에 縣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前漢初에 설치되었고 常山郡에 속하였다. 前漢 武帝 元鼎 4년(전113)에 眞定國으로 바뀌었다. 治所는 현재 河北省 正定 남쪽에 있다.
- 4) 楊越: 楊越이라 한 것은 『史記集解』(이하 『集解』로 약칭)에 인용된 張晏에 의하면, 楊州의 南越을 말한다. 『索隱』은 『戰國策』의 “吳起가 楚나라를 위해 양월을 복속시키다.”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正義』는 禹의 九州 중 楊州에 南越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양월이라 부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楊州란 명칭은 『尚書』 「禹貢」에 “淮海惟楊州”라고 처음 보인다. 현재의 淮水, 黃海, 長江에 걸친 江蘇, 安徽, 江西, 浙江, 福建 등의 省을 포함한 지역이다. 현재의 揚州도 포함하는 지역이지만 똑같은 지역이라 말할 수는 없다.
- 5) 桂林郡: 秦始皇 33년(전214)에 설치되었다. 현재 廣西省 대부분 지역을 포괄한다. 郡의 治所는 布山縣(현재의 廣西省 貴港市) 혹은 현재 廣西省 桂平市 西南이라고 하여 불분명하다. 『索隱』은 『漢書』 「地理志」(이하 『地理志』로 약칭)를 인용하여 桂林郡이 武帝 때 鬱林郡으로 개명되었다고 전한다.
- 6) 南海郡: 秦始皇 33년(전214)에 설치되었다. 番禺, 四會, 博羅, 龍川 등 4개 현을 관할하였다. 이 중에서 郡의 治所는 番禺(현재의 廣州)였으며, 주요 관할지역은 현재의 廣東省이었다(黃森章, 『南越國』, 廣東人民出版社, 2004, 제3장).
- 7) 象郡: 『索隱』에 의하면, 秦始皇 33년(전214) 陸梁의 땅을 공략하여 이곳에 南海, 桂林, 象郡을 설치하면서 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또 『地理志』에는 武帝 때 日南郡으로 개명하였다고 전한다. 그 治所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첫째, 漢代 日南郡이 곧 秦代 象郡이라는 설과 둘째, 秦代 설치된 후 前漢 昭帝 元鳳 5년 가을에 폐지하고 그 땅에 郁林, 柯 두 郡을 설치했다는 郁林설(『地理志』)이 있다(李龍章, 『秦漢象

설치하였다. 이곳에 죄를 지은 자들을 천사시켜[謫民]⁸⁾ 월나라 사람과 섞여 살게 하였는데, 그러기를 어언 13년이 흘렀다.⁹⁾ 조타는 진나라 때 남해군 용천령(龍川令)¹⁰⁾에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진(秦)의 이세(二世)가 즉위했을 즈음에 남해위(南海尉)¹¹⁾였던 임오(任囂)¹²⁾가 병이 들어 죽음에 임박해서 당시 용천령인 조타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들으니 진승(陳勝)¹³⁾ 등이 난을 일으켰다고 하오. 진은 무도해서 온천하가 괴로워하고 있소. 항우(項羽), 유계(劉季),¹⁴⁾ 진승(陳勝), 오광(吳廣) 등이 각자 주군(州郡)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무리

郡辨析』『秦俑秦文化研究』, 郡 치소는 臨塵(현재의 廣西省 崇左)이었으며, 일설에는 象林(현재의 越南 維州南茶輪) 또는 盧容(현재의 越南 順化 東北)이었다고 한다.

- 8) 謫民: ‘죄를 지어 형을 받은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하거나 축성 등 노역에 동원하는 일’을 말한다. 『漢書』 『武帝紀』, “遣貳師將軍李廣利發天下謫民西征大宛.” 그 顏師古注에, “庶人之有罪謫者也”라고 하였다.
- 9)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秦이 천하를 통일(전221)한 후부터 二世 元年(전209)까지는 13년, 천하를 통일한 뒤 8년에 越地를 평정(전214)했고, 그 후 이세 원년까지는 6년이 된다.
- 10) 龍川令: 『索隱』에 인용된 『地理志』에 의하면 현 이름이며 南海郡 소속이다. 『正義』 역시 顏師古를 인용하여 남해군의 현이라 하였으며, 아울러 그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南宋의 裴淵이 편찬한 『廣州記』를 인용하여 원래 博羅縣의 東鄉이었는데, 용이 땅에서 나온 뒤 그 구멍에서 샘이 흘러나와 용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또, 『史記』 『主父偃傳』에 의하면, 秦이 百越을 평정할 때 조타와 屠睢가 군을 이끌었는데, 도수의 군대는 서쪽 서구지역에서 참패하여 시체가 수십만에 이르렀으나 동쪽 조타의 군대는 越人の 지지를 얻으며 진군하니 만일 일대를 확고하게 장악하였다. 秦始皇 33년(전214)에 마침내 임오가 장군이 되고 조타가 그 보좌로서 백월을 평정하니, 임오는 남해군위에, 조타는 龍川令에 임명되었다고 전한다. 唐代 『元和郡縣志』(권34) 『河源縣』조에 보면, “용천고성은 하원현 동북수로 175리에 있다. 진의 용천현이다. 진의 남해위 임오가 병들자 용천령 조타를 불러 그에게 정사를 맡겼는데, 바로 이곳이다(龍川故城在縣東北水路一百七十五里, 秦龍川縣也. 秦南海尉任囂疾, 召龍川令趙佗, 授之以政, 即此處也).”라고 하였다.
- 11)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都尉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都尉로 개칭된 것은 前漢 景帝 中二年(전148)의 일이다.
- 12) 任囂: 任囂의 囂자에는 ‘떠들썩하다’는 의미의 ‘호’와 ‘거만하다’는 의미의 ‘오’라는 두 가지 음이 있다. 이에 대해 『索隱』은 오(五)와 도(刀)의 반절, 즉 ‘오’라고 하였기에 이것을 따랐다.
- 13) 陳勝: ‘陳涉’을 말하며 중국 최초의 농민반란의 영수이다. 司馬遷은 이를 특별히 世家에 포함시켜 18번째 『陳涉世家』를 만들었다. 진섭이 자립해서 왕이라 칭한 것은 불과 6개월뿐이었고 영토도 부여받지 못했지만, 이처럼 司馬遷이 世家에 포함시킨 것은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漢初 공신들인 彭越, 黥布, 韓信 등을 世家에서 제외하고 진섭을 世家에 포함시킨 것은 이를 반증한다.
- 14) 劉季: 漢高祖 劉邦을 가리킨다. 劉季는 즉위 후 邦으로 개명하기 이전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季는 고대에 항렬의 순서인 伯, 仲, 季의 季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름 자체보다는 형제들

를 모아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며 천하를 다투고 있다고 하오. 중국(中國)¹⁵⁾이 이처럼 혼란스러워 세상이 언제 평안해질지 알 수 없소. 또, 호걸들은 진에게서 등을 돌려 잇달아 독립하고 있소.¹⁶⁾ 남해군은 비록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 도적떼 같은 저들의 군대가 언제 이곳까지 쳐들어올지 알 수 없소. 그래서 나는 군대를 일으켜 신도(新道)¹⁷⁾를 끊고 스스로 방비하여 제후들이 일으킨 변고에 대비코자 마음먹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병이 들어 이처럼 깊어지게 되었소. 번우(番禺)¹⁸⁾는 뒤로는 험한 산세를 등지고 있고 앞에서는 남해가 가로막이 되고 있소[阻南海].¹⁹⁾ 이 땅은 동서로 수천 리에 걸쳐 뻗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건너온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으니, 이 또한 한 주(州)²⁰⁾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세울 만하오. 군에 있는 장리(長吏)²¹⁾들과는 이런 일을 함께 의논할 수가 없어 공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이오.” 그리고는 조타에게 조서를 쓰게 해서[被佗書] 남해위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였다.²²⁾ 임오가 죽자 조타는 곧바로 횡포관(橫浦關),²³⁾ 양산관(陽山關),²⁴⁾ 황계관(滄谿

중 막내로 불려지던 것이 이름을 대신해서 불렀음을 보여 준다(「高祖本紀」, 『史記索隱』, “按漢書‘名邦, 字季’, 此單云字, 亦又可疑. 按: 漢高祖長兄名伯, 次名仲, 不見別名, 則季亦是名也”).

- 15) 中國: 여기에서는 秦나라를 가리키기보다는 南越과 대비하여 중원지역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16) “聞陳勝等作亂” 이하 50자의 내용은 중복되고 있어 『漢書』에는 “聞陳勝等作亂, 豪傑叛秦相立” 12자로 수정하고 있다(瀧川資言, 『史記會注考證』, 北岳文藝出版社, 1998년, 제9卷「南越列傳」, 4649쪽, 이하 『史記會注考證』의 인용은 책명과 쪽수만 표시).
- 17) 新道: 秦이 嶺南에 개척한 南海郡 등 3郡과 연결된 도로를 말한다.
- 18) 番禺: 秦代 南海郡의 郡治가 된 이래, 南越國의 都城이 있던 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 19) 阻南海: 『漢書』에는 ‘南海’의 ‘海’자가 ‘北’자로 되어 있고 ‘番禺負山險阻’에서 구두가 찍혀 있는데, 周壽昌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南北東西數千里’가 되어 南越의 지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瀧川資言, 『史記會注考證』, 北岳文藝出版社, 1998년, 제9卷「南越列傳」, 4649쪽).
- 20) 州: 여기에서 말하는 ‘州’는 이른바 천하의 통치지역을 상징하는 九州의 하나를 의미한다. 九州의 九는 실제 9개의 州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역을 총칭하여 이른 개념이다. 예를 들면, 前漢 武帝 때 전통적인 『禹貢』의 九州에 새로이 편입된 남월지역에 交趾자사를 두고 雍州를 나눠 朔方자사를 두는 등 천하를 13州로 구획하고 州刺史를 설치한 데에서 알 수 있다.
- 21) 長吏: ‘지위가 높은 관리’를 뜻한다.
- 22) 『集解』와 『索隱』 모두 韋昭를 인용하여 ‘被之以書’, 즉 ‘그에게 조서를 쓰게 하다.’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索隱』에 인용된 服虔은, 任囂가 거짓으로 조서를 작성해서 南海尉를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위소의 해석을 따랐다.

關)²⁵⁾에 격문을 돌려 포고하기를, “도적떼 같은 군대가 장차 들이닥칠테니 빨리 도로를 끊고 병사를 소집하여 각자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진이 임명한 장리(長吏)들을 법망에 얽어 죽여 없애고 자신의 일당으로 대체하여 대신 지키도록 하였다[假守].²⁶⁾ 얼마 후 진이 멸망하자 조타는 곧바로 계림군(桂林郡)과 상군(象郡)을 공격하여 병합하고 스스로 남월 무왕(武王)²⁷⁾에 즉위하였다. 고제(高帝)²⁸⁾는 천하를 평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국이 전쟁으로 피폐해졌다고 생각하여 조타를 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었다. 한(漢)나라 11년(漢高祖 11년: 전196)에 육가(陸賈)²⁹⁾를 보내 조타를 그대로 인정하여 남월왕에 책봉하

- 23) 橫浦關: 현재의 廣東省 南雄縣 동북에서 江西省 大庾縣 西南 大庾嶺 위에 있는 梅關을 말하며 ‘秦關’이라 고도 한다. 대유령에서 횡포관으로 이어지는 關道는 江西와 廣東을 잇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 중의 하나였다(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이하 『中國歷史地名大辭典』로 약칭). 『索隱』에 인용된 『南康記』에 의하면, 南野縣 大庾嶺 30리에서 橫浦에 이르는 사이에 秦代 설치된 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랫지방 사람들은 이를 ‘塞上’이라 불렀다고 한다.
- 24) 陽山關: 『索隱』에 인용된 『地理志』에 의하면, 揭陽郡에 陽山縣이 있는데, 이 縣 상류 백여 리쯤에 있다는 騎田嶺이 바로 陽山關이라고 한다. 현재 廣東省 陽山 서북쪽에 있다.
- 25) 湟谿關: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桂陽郡에 있으며 南海郡 소속인 四會縣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索隱』은 ‘湟谿’를 ‘날계(湟谿)’라고 하였는데, 『漢書』가 ‘湟谿’라 하였고, 顏師古注도 “湟音皇”이라 하여 ‘황’으로 읽었다. 『衛青傳』과 『南粵傳』에 ‘出桂陽, 下湟水’에도 ‘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姚察은 『史記』에 ‘涅’이라 되어 있다고 하고 鄒誕 역시 ‘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涅’이 조금 옛날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索隱 “湟谿. 鄒氏·劉氏本並作「涅」, 音年結反. 漢書作「湟谿」, 音皇. 又(衛青傳) [南粵傳] 云「出桂陽, 下湟水」是也. 而姚察云史記作「涅」, 今本作「湟」, 涅及湟不同, 良由隨聞則輒改故也. 水經云含匯縣南有匯浦關, 未知孰是. 然鄒誕作「涅」, 漢書作「湟」, 蓋近於古). 열수(涅水)는 현재 세 곳으로 추정되지만, 남월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廣東省 英德 서남쪽, 즉 廣東의 東江에 해당한다. 문헌자료로는 『水經注』 「泐水注」에 “其餘水又東至龍川縣爲涅水”라고 하였다. 清代 全祖望은 龍川이 涅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涅水 또한 세 곳으로 추정되지만, 남월과 관련있는 곳은 滙水로 추정되는 廣東省 連州市 동남쪽 連江으로 본다. 湟谿關은 廣東省 連州市 서북쪽에 설치한 關으로 보고 있다(『中國歷史地名大辭典』, 2618 쪽).
- 26) 假守: 『索隱』은 조타가 자기의 친당을 郡縣의 職 혹은 假守에 임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27) 武王: 『集解』에 인용된 韋昭는 살아서 ‘武’라는 호를 쓴 것은 옛 제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28) 高帝: ‘高祖’와 함께 혼용하고 있다. 참고로 『史記』는 「高祖本紀」라 하였고, 『漢書』는 「高帝本紀」라고 편명을 삼았다. 다만, 『史記』 본문에서는 高帝와 高祖가 거의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 29) 陸賈: 楚人으로 前漢 초기 漢高祖 劉邦이 기의했을 때부터 그 휘하에서 활동하였고 漢 건국 후에도 漢高祖 劉邦을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高祖에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말 위에서 다스릴

고 부를 나눠 [신의의 징표로 삼고]³⁰⁾ 사신을 왕래토록 하였다. 또한 조타로 하여금 백월(百越)³¹⁾의 여러 부족을 평화롭게 통솔케 하여 한의 남쪽 변경에서 우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수 없다.”는 충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외에 漢高祖 劉邦에게 秦의 멸망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新語』라는 저서를 편찬하여 지어 바치었다. 『史記』 「酈生陸賈列傳」에는 그가 언변이 뛰어나 자주 사신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력 때문에 남월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列傳」에는 陸賈가 조타를 상대로 유세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을 인용해 보면, “죽히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척과 형제, 조상의 무덤이 진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히는 천성을 위반하여 관대를 버리고 구구한 월나라로 천자와 맞서 적국이 되고자 하니 장차 화가 일신에 미칠 것입니다. 또, 저 진나라는 실정하여 제후들과 호걸들이 모두 봉기하였는데, 오직 한왕만이 제일 먼저 입관하여 함양을 점거하였습니다. 항우가 약조를 배반하고 스스로 서초패왕으로 자처하자 제후들이 모두 그에게 귀속되니 참으로 강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왕은 파촉에서 봉기하여 천하 사람들을 채찍질하여 다른 제후들을 평정하고 마침내 항우를 주멸하였습니다. 그후 5년 사이 해내가 평정되었으니 이는 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늘이 세워 준 일입니다. 천자께서는 군왕이 남월의 왕이 되어 천하를 도와 폭도를 주멸하지 않았음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장상들이 군대를 일으켜 왕을 주벌하고자 하였지만 천자께서는 백성들의 노고를 가엾게 여겨 전역을 쉬게 하려고 신을 보내 군왕께 인을 하사하고 황제의 부절을 나눠 사신을 왕래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군왕은 마땅히 교에 나와 이를 맞이해야 하며 복면하여 칭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든 미완의 남월로써 이와 같이 한나라에 대하여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에서 만일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군왕의 조상들의 무덤을 불태우고 종족들을 모두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부장으로 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월나라를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월나라 사람들이 군왕을 죽여 한에 항복할 것은 손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울 것입니다 (陸生因進說他曰:「足下中國人, 親戚昆弟墳在眞定. 今足下反天性, 棄冠帶, 欲以區區之越與天子抗衡爲敵國, 禍且及身矣. 且夫秦失其政, 諸侯豪傑並起, 唯漢王先入關, 據咸陽. 項羽倍約, 自立爲西楚霸王, 諸侯皆屬, 可謂至彊. 然漢王起巴蜀, 鞭笞天下, 劫略諸侯, 遂誅項羽滅之. 五年之間, 海內平定, 此非人力, 天之所建也. 天子聞君王王南越, 不助天下誅暴逆, 將相欲移兵而誅王, 天子憐百姓新勞苦, 故且休之, 遣臣授君王印, 剖符通使. 君王宜郊迎, 北面稱臣, 迺欲以新造未集之越, 屈彊於此. 漢誠聞之, 掘燒王先人冢, 夷滅宗族, 使一偏將將十萬衆臨越, 則越殺王降漢, 如反覆手耳.」)。”

30) 원문에는 ‘剖符’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황제가 제후를 분봉할 때나 전쟁에 장수를 파견할 때 金, 玉, 銅, 竹 등으로 만든 符를 2개로 쪼개 각각 황제와 신하가 나눠가짐으로써 신의의 징표로 삼았던 것을 말한다. 필요할 때에는 서로 합쳐보아 진위를 따질 수 있다. 이것은 한왕조가 정식으로 조타를 남월왕에 임명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31) 百越: 남방의 여러 越族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문헌상에서는 ‘百粵’, ‘諸越’로 표기되어 있다. 이 명칭이 가리키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남방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예를 들면, 賈誼의 『過秦論』에 “南取百越之地”라고 한 예가 그것이다. 先秦시대 고적 중에는 동남지역의 토착민족을 가리켜 ‘越’이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는데, 사실 광대한 이 지역에는 다양한 부족이 각기 다른 종족명과 성씨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는 ‘吳越’(東南浙北 일대)라 하기도 하고 혹은 ‘閩越’(福建 일대), 혹은 ‘楊越’(江西湖南

장사국(長沙國)³²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高后時，有司請禁南越關市鐵器。佗曰：「高帝立我，通使物，今高后聽讒臣，別異蠻夷，隔絕器物，此必長沙王計也，欲倚中國，擊滅南越而并王之，自爲功也。」於是佗乃自尊號爲南越武帝，發兵攻長沙邊邑，敗數縣而去焉。高后遣將軍隆慮侯竈往擊之，會暑溼，士卒大疫，兵不能踰嶺。歲餘，高后崩，卽罷兵。佗因此以兵威邊，財物賂遺閩越·西甌·駱，役屬焉，東西萬餘里。迺乘黃屋左纛，稱制，與中國侔。

고후(高后)³³ 때 유사(有司)³⁴가 남월과 국경 관문에서 거래하던³⁵ 철기의 교역을 중단할 것을 주청하였다. 조타가 말하기를, “고제(高帝)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 [한과] 사신이 오고가며 물자를 교역해 왔는데, 지금 고후(高后)는 남월을 중상하는 신하의 말만 듣고 오랑캐라 차별하며 기물(器物)의 교역을 중단하였다. 이는 장사왕(長沙王)³⁶의 음모임이 분명하다. 장

일대) 혹은 ‘南越’이라 불리웠다.

32) 長沙國: 기원전 202년에 건립되어 기원후 37년에 폐지될 때까지 209년간 존속하였다. 秦代 長沙郡이 설치되었던 관할지역을 계승한 것으로 治所는 ‘湘縣’(뒤에 臨湘縣으로 개명, 현재 湖南省 長沙)을 국도로 삼았다. 漢의 개국공신인 吳芮가 제1대 長沙王에 봉해졌다. 그 후 王莽에 의해(기원후 8년) 모든 侯國이 폐지됨에 따라 長沙國은 ‘填蠻郡’으로 강등되었고, 국도인 臨湘縣 또한 ‘撫陸縣’으로 개명되었다가 後漢 때 劉秀에 의해 원래 이름을 회복, 다만 國이 아닌 郡으로 편제되었다.

33) 高后: 漢高祖 劉邦의 부인인 呂雉를 말한다. 高祖 사후 아들 惠帝가 그 뒤를 잇자 실권을 행사, 惠帝마저 재위 7년만에 사망한 뒤 惠帝의 아들 少帝 恭을 세웠다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자 폐위시켜 죽이고 동생인 常山王 弘을 제위에 앉히고 呂氏 일파를 중용하는 등 한초 정계를 주름잡았다. 司馬遷은 이 때문에 『呂太后本紀』를 두어 本紀에 넣었고 『漢書』도 『高后紀』를 두어 惠帝 사후 高后가 臨朝稱制한 후부터 高后 元年~8년까지 紀年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34) 有司: 관계부처 담당관을 말한다.

35) 關市: 원래 關과 市에서 교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國語』 『齊語』에 “關市幾(稽)而不征”이라 하였고, 『周禮』 『天官』의 九賦 중에 “關市之賦”가 있으며, 睡虎地秦簡의 秦律에도 ‘關市律’이 있어 關市에서 교역하는 데 일정한 원칙과 법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漢代에는 匈奴와 南越 등과의 교역을 위해 關市를 설치, 운용하였는데, 흉노의 경우 ‘胡市’라고 불렀다. 高后 때 남월과의 교역을 금지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漢은 이민족과 화해 또는 통제하는 방법으로 關市를 하나의 통제책으로 이용했다.

36) 長沙王: 이때의 長沙王은 長沙共王 吳右를 말하며, 기원전 186~기원전 178년까지 재위하였으며, 초대 長沙王 吳芮의 曾孫이다.

사왕은 중국에 기대어 남월을 공격해 멸망시켜 이를 병합해 왕이 되어 공업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타는 스스로 호를 높여 남월의 무제(武帝)³⁷⁾라고 한 다음 군사를 일으켜 장사국 변방의 읍을 공격하고 여러 현들을 쳐부순 다음 돌아갔다. 고후가 장군 융려후(隆慮侯) 조(竈)³⁸⁾를 파견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때마침 덥고 습한 여름이어서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 군대는 [양산]령³⁹⁾을 넘지 못했다. 1년 뒤(전180) 고후가 죽자 곧바로 군대를 철수하였다. 조타는 이때를 틈타 군대를 동원하여 [한의] 변방을 위협하는 한편, 민월(閩越)⁴⁰⁾과 서구(西甌),⁴¹⁾ 낙(駱)⁴²⁾ 등에는 많은 재물을 선물로 보내 이들의 환심을 사서 그 휘하에

- 37) 南越武帝: 『漢書』「高后紀」에는 ‘南武帝’라고 되어 있다. 그 注에 韋昭의 말을 인용하여, 살아 있을 때武帝라고 칭한 것은 옛날 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顏師古는 이를 반박하여, 成湯이 ‘吾武甚’이라 하며 스스로 武王이라 한 것을 근거로 옛날 제도와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
- 38) 隆慮侯 竈: 周竈를 말한다.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隆慮侯의 隆慮는 縣의 이름이며 河內郡 소속이다. 『漢書』「高后紀」 注에 인용된 應劭에 의하면, 隆慮는 원래 林慮인데, 殤帝를 기휘하여 隆慮로 고쳤다. 林慮는 현재 河南省 林縣에 있다. 그리고 隆慮侯 竈의 성은 周이다. 周竈는 漢高祖 劉邦을 도와 項羽를 친 공으로 漢高祖 6년(전201) 正月에 隆慮侯에 책봉되었다.
- 39) 『索隱』은 이 령이 陽山嶺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陽山嶺은 현재 廣東省 陽山縣 경내에 있다.
- 40) 閩越: 중국 남방의 百越族의 한 지류이다. 주요 근거지는 지금의 福建省 武夷山에서 臺灣海峽에 이르는 일대이다. 先秦시대부터 특유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벼농사와 어로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閩越의 역사에 대해서는 『史記』「東越列傳」이 立傳되어 전해지고 있다.
- 41) 西甌: 『漢書』「西南夷兩粵朝鮮傳」에 의하면, “蠻夷中, 西有西甌, 衆半羸, 南面稱王; 東有閩粵, 其衆數千人; 亦稱王”이라 하여 동쪽의 閩越과 대칭하여 서쪽의 蠻夷를 西甌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史書에는 어떤 때에는 駱越이라 하거나, 또 어떤 때는 西甌라고 하고 또 어떤 때에는 西甌와 駱越이라 병칭할 때에도 있어 혼란스럽다. 다만, 『史記』에서는 閩越, 西甌, 駱 그리고 南越이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 42) 駱: 『集解』는 『漢書音義』를 인용하여 ‘駱越’이라 하였다. 『索隱』 또한 鄒氏의 말을 인용하여 駱越이라 하는 한편, 姚氏의 말을 인용하여, 『廣州記』에 “交趾에는 駱田이 있는데, 潮水가 위 아래로 흘러들어가 그 밭을 일구어 먹고 사는 사람들을 ‘駱人’이라 부른다. 그래서 駱王도 있고 駱侯도 있다. 또, 그 밖의 여러 현에서는 자칭 ‘駱將’이라 하며 銅印에 靑綬를 하니 오늘날의 令長에 해당한다. 뒤에 蜀王의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駱侯를 토벌한 뒤 安陽王이라 자칭하며 치소를 封溪縣에 두었다. 뒤에 南越王 尉佗가 安陽王을 쳐서 두 명의 사자로 하여금 交趾와 九眞郡의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駱은 바로 甌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西甌는 하나의 국명으로 여기의 駱은 『考證』(4652쪽)에 의하면, 아래 문장에 ‘其西甌駱裸國’처럼 西甌와 駱裸처럼 駱 아래에 裸자가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처럼 甌駱을 병칭해서 볼 수는 없다. 駱자는 원래 壯族언어로는 地名을 가리키는데, 산록이나 산기슭을 牘語로는 六(lok)이라고 하는데, ‘六’과 ‘駱’은 음이 비슷하다. 壯族은 원래 문자가

두니, 이로써 남월은 동서로 만여 리나 되었다. 마침내 조타는 황옥(黃屋)⁴³과 좌독(左纛)⁴⁴을 갖춘 수레를 타고 칭제(稱制)⁴⁵하는 등 중국과 [황제의 의례를] 같이 하였다.

及孝文帝元年，初鎮撫天下，使告諸侯四夷從代來即位意，喻盛德焉。乃爲佗親冢在真定，置守邑，歲時奉祀。召其從昆弟，尊官厚賜寵之。詔丞相陳平等舉可使南越者，平言好時陸賈，先帝時習使南越。迺召賈以爲太中大夫，往使。因讓佗自立爲帝，曾無一介之使報者。陸賈至南越，王甚恐，爲書謝，稱曰：「蠻夷大長老夫臣佗，前日高后隔異南越，竊疑長沙王讒臣，又遙聞高后盡誅佗宗族，掘燒先人冢，以故自棄，犯長沙邊境。且南方卑溼，蠻夷中閒，其東閩越千人衆號稱王，其西甌駱裸國亦稱王。老臣妄竊帝號，聊以自娛，豈敢以聞天王哉！」乃頓首謝，願長爲藩臣，奉貢職。於是乃下令國中曰：「吾聞兩雄不俱立，兩賢不並世。皇帝，賢天子也。自今以後，去帝制黃屋左纛。」陸賈還報，孝文帝大說。遂至孝景時，稱臣，使人朝請。然南越其居國竊如故號名，其使天子，稱王朝命如諸侯。至建元四年卒。

효문제(孝文帝)⁴⁶는 즉위 원년(전180)에 처음으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제후왕(諸侯王)과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할 때 다양각색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廣州記』에서 말한 ‘駱田’은 바로 ‘六田’ 즉, 산기슭 사이에 있는 밭을 말한다(黃現璠, 『壯族通史』, 廣西民族出版社, 1988).

43) 黃屋: 『史記集解』에 인용된 蔡邕의 말에 의하면, 황색의 비단으로 속을 만든 수레 덮개를 말한다. 좌독과 함께 漢代에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마 장식으로 황제의 의례를 상징한다.

44) 左纛: 황제의 마차를 장식하는 기인데, 물소 꼬리털이나 꿩의 꼬리깃털로 만든다. 『史記』 「項羽本紀」, “紀信乘黃屋車, 傅左纛”의 『集解』注에 인용된 李斐에 의하면, 纛은 깃털로 만든 幟으로 황제의 수레 저울대 왼쪽 위에 꽂는 장식물이라고 하였다. 또, 蔡邕은 犛牛, 즉 털이 검은 장모의 소 꼬리털로 만들며, 곁마 머리에 두거나 혹은 수레 바탕 위에 둔다고 하였다. 秦漢代에는 黃屋과 함께 황제의 거마행렬을 장식하는 상징물로 취급되었다.

45) 稱制: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뒤 황제라 칭하고 그에 걸맞는 황제제도를 제정하였는데, 황제의 명령을 ‘制’라 칭하고 그 공문을 ‘詔’라고 하였다. 이것으로부터 황제가 즉위하여 집정하는 것을 ‘稱制’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史記』 「魏其武安侯列傳」에 “孝景崩, 即日太子立, 稱制, 所鎮撫多有田蚡賓客計策”라고 하였고, 『後漢書』 「章帝紀」에도 “帝親稱制臨決”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46) 孝文帝: 前漢 高祖의 후비인 薄姬의 아들로 高祖 11년(전196)에 代王에 봉해졌으며, 高后가 사망하고

사이(四夷)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대왕(代王)에서 천자의 위에 오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황제의 크나큰 덕을 일깨워 주었다.⁴⁷⁾ 이어서 조타의 선친 무덤이 진정(眞定)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수읍(守邑)⁴⁸⁾을 설치하여 세시(歲時)마다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또한 조타의 중형 제들을 불러 벼슬을 높여주고 많은 선물을 하사하여 그들을 후대하였다. 효문제가 조를 내려 승상이었던 진평(陳平)⁴⁹⁾ 등에게 남월에 사신을 갈 만한 사람을 추천토록 하자, 진평은 호치(好時)⁵⁰⁾현의 육가(陸賈)가 선제(先帝)⁵¹⁾ 때 일찍이 남월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어 그곳의

여씨 세력이 반란을 피하자 丞相 陳平과 太尉 周勃, 朱虛侯 劉章 등이 代王을 천자로 추대하여 呂氏 일당을 축출하였다. 그 과정은 「高后紀」나 「高五王傳」에 상세하다.

47) 「南越列傳」에서 즉위 원년(전180)에 諸侯와 四夷들에게 그 경위를 널리 알렸다고 하였는데, 「漢書」 「文帝紀」에는 즉위 원년 6월에 郡國에 명하여 조공하러 오지 않도록 하여 시혜를 베푸니 제후들과 四夷들이 떠나할것 없이 좋아했다는 구절이 보이는데, 「南越列傳」에 보이는 성덕을 일깨워 주었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48) 守邑: 守邑이란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드는 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읍을 말한다. 秦始皇 때부터 능 옆에 陵邑을 조성하여 천하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켰는데, 漢代에도 이를 계승하여 황제의 능 옆에는 陵邑을 조성하고 선대 황제와 관련 있는 功臣들이나 고위 관리들,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켜 일종의 제국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漢書」 「地理志」에는 “漢이 일어난 뒤 長安에 도읍을 정한 뒤 楚昭王, 屈王, 景王 및 여러 공신들이 長陵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후대에는 二千石의 관리들과 부호들을 여러 릉 옆에 천사시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능읍은 황제의 능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守邑도 歲時마다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기능상으로는 능읍과 동일하다. 다만, 이를 陵邑이라 하지 않고 守邑이라 한 사례는 「南越列傳」에 처음 등장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알 수 없다.

49) 陳平: 前漢 陽武(현재의 河南省 原陽 동남) 사람으로, 지모가 뛰어나 劉邦이 천하를 쟁취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漢初에 曲逆侯에 봉해졌고, 陸賈의 계책에 힘입어 絳侯 周勃과 함께 呂氏 일족을 숙청하고 文帝를 즉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문제 즉위 후 絳侯 周勃은 右丞相에, 陳平은 좌승상에 임명되었다. 絳侯 周勃이 사임한 뒤에는 1인 재상으로 최고 지위를 누렸는데, 文帝 2년(전179)에 병으로 사망하였다(「史記」 「陳丞相世家」).

50) 好時: 好時는 원래 秦대 雍 동쪽에 있던 제사터로 폐지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던 곳으로, 漢代 현이 설치되면서 그대로 縣名이 되었다. 현재의 陝西省 乾縣 동쪽에는 故城이 남아 있다. 陸賈를 ‘好時的 陸賈’라고 부른 데에는 呂后가 집권하면서 呂氏집안 사람들을 漢의 王에 봉하고자 계획하니 陸賈는 병을 핑계로 조정에서 물러나면서 好時的의 田地가 좋아 귀향한 데에서 기인한다(“孝惠時, 呂太后用事, 欲王諸呂, 畏大臣及有口者. 賈自度不能爭之, 乃病免. 以好時田地善, 往家焉”(「漢書」 「陸賈」傳). 이 때문에 ‘好時田’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는 정계를 떠나 은거하며 전원생활을 하는 말로 비유되었다.

51) 先帝: 漢高祖 劉邦을 일컫는다.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육가를 불러 태중대부(太中大夫)⁵²⁾에 임명하여 남월에 사신으로 보냈다. [육가는] 조타가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그 동안 한 번도 사신을 보내 보고하지 않은 일을 꾸짖었다.⁵³⁾ 육가가 남월에 도착하자 남월왕은 매우 두려워하며 글을 지어 사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이(蠻夷)의 대장(大長)⁵⁴⁾ 노부(老夫) 신(臣) 타(佗)는 지난날 고후께서 남월과 거리를 두며 차별을 하여 이는 장사왕이 신을 참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후께서 신(臣) 타(佗)의 친족을 모조리 죽이고 선친의 묘를 파내어 불질러 버렸다는 소식을 멀리서 풍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장사국의 변방 국경을 침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은 지대가 낮고 기후는 습한 곳으로 만이(蠻夷)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동쪽의 민월(閩越)은 겨우 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왕을 칭하고 있으며 서쪽의 구(甌)와 락(駱)⁵⁵⁾은 벌거벗고 다니는 나라[裸國]⁵⁶⁾인데도 역시 왕을 칭하고 있습니다. 노신(老臣)이 외람되게 감히 황제를 칭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라기보다 스스로 재미삼아 해 본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천왕(天王)⁵⁷⁾에게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52) 太中大夫: 『漢書』「百官公卿表」에 의하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太中大夫는 秩 比千石,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比2천석이 되었고, 諫大夫는 원래는 秦官이었는데, 漢初에 폐지되었다가 武帝 元狩 5년에 다시 설치되면서 秩 比8백 석이 되었다. 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53) 『漢書』「兩粵傳」에는 孝文帝가 보낸 조서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史記』「南越傳」에는 이 부분이 없고 오히려 조타가 올린 상서문만 실려 있다. 『漢書』에는 조타가 올린 상서가 뒤에 이어지는 南越國 내에 내린 명령과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

54) 大長: 여기에서 수장을 의미하며 만이 중에서 으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蠻夷의 首長을 ‘君長’이라고 칭하는데, ‘蠻夷大長’이란 칭호는 ‘蠻夷君長’ 중의 君長’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5) 본문에는 ‘其西甌駱’으로 되어 있지만, 『考證』이 지적하듯이, 앞부분에 ‘閩越·西甌·駱’이라고 하여, 西甌는 국명이므로 ‘其西, 西甌, 駱’이 되어야 옳다.

56) 裸國: 『索隱』에는 躄國이라 하며 음은 화(和)와 과(寡)의 반절이라 하였으나, 『考證』도 지적하였듯이, 和는 리(利)의 오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음은 ‘라’이기 때문이다.

57) 天王: 漢 皇帝에 대한 존칭으로 皇帝 칭호 이전에 周代 봉건적 질서체계 속에서 왕의 존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려 사죄를 하며 앞으로 영원히 번신(藩臣)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조공을 바치겠노라고 하였다. 곧 이어 온 나라에 명을 내려 “내가 듣기로 두 영웅은 함께 설 수 없고 두 현인(賢人)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황제(皇帝)란 현명한 천자이다.⁵⁸⁾ 그러니 지금 이후로는 황제란 칭호를 쓰지도, 제(制)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황옥(黃屋)과 좌독(左纛)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육가가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하니 효문제(孝文帝)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후 효경제(孝景帝)⁵⁹⁾ 때까지 신하를 칭하며 사신을 보내 조청(朝請)⁶⁰⁾하였다. 그러나 남월은 그 나라 안에서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천자에게 사신을 보낼 때에는 다른 제후들처럼 왕을 칭하며 조정의 명을 받들었다. 건원(建元) 4년(전137)에 죽었다.⁶¹⁾

58) 賢天子: 이 구절에서 ‘賢天子’의 의미는 『史記』의 문맥을 보면, 영웅은 둘이 될 수 없으며 현인, 즉 성인은 한 세상에 둘이 나올 수 없다는 故事를 전제로 한 것을 미루어볼 때, 皇帝란 모름지기 賢人天子, 즉 聖人天子이므로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漢書』 「兩越」傳에는 ‘皇帝’ 앞에 ‘漢’이 덧붙여져 ‘漢皇帝, 賢天子’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漢의 皇帝’라고 ‘漢’을 덧붙인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史記會注考證』도 ‘漢’자가 뒤에 덧붙여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史記會注考證』, 4653쪽)

59) 孝景帝: 孝文帝의 태자 劉啓로, 모후는 竇皇后이다. 기원전 157년 文帝 사망 후 2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통치기간에 吳楚七國의 난을 평정하여 중앙집권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60) 朝請: 봄에 황제에게 문안인사하는 것을 ‘朝’, 가을에 인사하는 것을 ‘請’이라 한다. 이는 漢律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로 『周禮』의 春朝秋覲의 禮를 말한다. 『史記』 「吳王濞列傳」 「吳王恐, 爲謀滋甚. 及後使人爲秋請」의 『集解』에 인용된 孟康의 말에 의하면, “律, 春曰朝, 秋曰請, 如古諸侯朝聘也”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는 “請, 謁也”이라 하였으며, 그 段玉裁注에 “周禮, 春朝秋覲, 漢改爲春朝秋請”라고 하였다. 漢律로 규정된 것은 그만큼 漢代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뜻하는데, 제도의 기원은 段玉裁가 지적하듯 漢代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史記』 「貨殖列傳」에 朝請의 사례가 이미 보이고 있어 漢 이전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뒤로 추정하기도 한다(張豐乾, 「朝請, ‘諸侯’與竹簡〈文子〉的撰作年代」, 『簡帛研究』, 2001년 11월15일). ‘朝請’은 漢 조정이 지방 제후들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 제후들이 朝請, 不朝請함으로써 중앙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후대에 ‘奉朝請’이라는 명예직으로 지속되는데, 朝覲이 제후에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朝請은 秦漢시대 중요 대신들로 확대되었고 통일 후 군현제적 통치하에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들과 상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61) 『漢書』에는 ‘卒’자가 없다. 『史記』대로 해석하면, 武帝 建元 4년은 기원전 137년으로, 趙佗는 文帝 元年에 이미 “老夫가 越에 거한 지 49년”이라 했으니, 文帝 23년을 거쳐 景帝 16년, 武帝 建元 4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43년이며 趙佗가 20여 세에 龍川수가 되었다고 했으니, 모두 합치면 110여 세가 넘는다. 列傳에 趙佗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建元 4년은 손자인 胡가 즉위한 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考

佗孫胡爲南越王。此時閩越王郢興兵擊南越邊邑，胡使人上書曰：「兩越俱爲藩臣，毋得擅興兵相攻擊。今閩越興兵侵臣，臣不敢興兵，唯天子詔之。」於是天子多南越義，守職約，爲興師，遣兩將軍往討閩越。兵未踰嶺，閩越王弟餘善殺郢以降，於是罷兵。

조타(趙佗)의 손자인 조호(趙胡)가 남월왕이 되었다.⁶²⁾ 이때⁶³⁾ 민월왕(閩越王) 추영(騶郢)⁶⁴⁾이 군사를 일으켜 남월 변방에 있는 몇몇 읍을 공격하자 조호가 사람을 보내 상서하기를, “양월(兩越)⁶⁵⁾은 모두 한(漢)의 번신(藩臣)이 되었으니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서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월이 군대를 일으켜 신(臣)의 나라를 침범하였습니다. 신이 마음대로 군대를 일으킬 수 없어 오직 천자의 명만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천자는 남월이 의리가 있고 말은 바 직분을 잘 지켰음을 칭찬하며 남월을 위해 군사를 일으켜, 두 명의 장군을 파견하여 민월을 토벌하게 하였다.⁶⁶⁾ 군대가 령(嶺)⁶⁷⁾을 넘기도 전에 민월왕

證』, 4653쪽에 인용된 王鳴盛 설)

- 62) 『史記』에서는 문단이 나뉘어져 있지만, 앞의 주에서 말했듯이, 建元 4년은 조타의 손자인 胡가 즉위한 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 구절에서 문단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至建元四年(卒), 佗孫胡爲南越王”로 두 구절을 연결시켜야 된다. 『集解』는 皇甫謐의 말을 인용하여, 南越王 趙佗가 建元 4년에 사망하였는데, 이때가 漢왕조가 세워진 지 70년째 되는 해로서 조타의 나이는 100여 세 정도가 된다고 하여 조타가 사망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 63) 이때가 『漢書』에는 ‘立三年’으로 되어 있으니, 武帝 建元 6년(전135)이다.
- 64) 騶郢: 『史記』「東越列傳」에 姓은 騶氏이고 閩越王 無諸의 아들이라 하였다.
- 65) 兩越: 南越과 閩越을 가리킨다.
- 66) 『漢書』「武帝本紀」 建元 6년(전135)조에 “閩越王郢攻南越. 遣大行王恢將兵出豫章, 大司農韓安國出會稽, 擊之. 未至, 越人殺郢降, 兵還”이라고 하여, 閩越 토벌작전이 建元 6년(전135)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두 장군은 王恢와 韓安國으로, 王恢는 豫章에서, 韓安國은 會稽에서 출격하였다.
- 67) 여기의 嶺은 梅嶺일 가능성이 높다. 『史記』「東越列傳」에 20여 년 뒤인 元鼎 5년(전112)에 누선장군 양복이 동월을 공격할 것을 청하자 예장의 매령에서 대기토록 하였다(至元鼎五年, 南越反……是時樓船將軍楊僕使使上書, 願便引兵擊東越. 上曰士卒勞倦, 不許, 罷兵, 令諸校屯豫章梅嶺待命)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梅嶺은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會稽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고, 『索隱』은 徐廣의 설명이 틀렸다고 하며 豫章 30리에 梅嶺이 있으며 洪崖山 기슭이며 옛날 驛道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正義』는 『括地志』를 인용하여 梅嶺은 虔化縣 동북 128리에 있으며, 虔州는 漢대에도 豫章郡 소속이었으나 두 곳 모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譚其驥의 『中國歷史地圖集(秦漢)』에는 豫章郡에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江西省 寧都縣 동북에 해당한다.

의 동생인 추여선(騶餘善)⁶⁸이 추영을 죽이고 항복하자 군대를 해산하였다.

天子使莊助往諭意南越王，胡頓首曰：「天子乃爲臣興兵討閩越，死無以報德！」遣太子嬰齊入宿衛，謂助曰：「國新被寇，使者行矣。胡方日夜裝入見天子。」助去後，其大臣諫胡曰：「漢興兵誅郢，亦行以驚動南越。且先王昔言，事天子期無失禮，要之不可以說好語入見。入見則不得復歸，亡國之勢也。」於是胡稱病，竟不入見。後十餘歲，胡實病甚，太子嬰齊請歸。胡薨，諡爲文王。

천자가 장조(莊助)⁶⁹를 보내 남월왕에게 한(漢)의 뜻을 알리자 조호(趙胡)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천자께서 신을 위해 군사를 일으켜 민월을 토벌하셨으니, 죽어도 그 은덕을 갚을 길이 없사옵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태자 조영제(趙嬰齊)를 입조(入朝)시켜 천자를 숙위(宿衛)하도록 하였다. 조호가 장조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적에게 침략당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신은 먼저 돌아가시오. 저 호는 가까운 시일 내에 행장을 꾸려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토록 하겠소.”라고 하였다. 그런데 장조가 떠나자 남월의 대신들이 조호에게 간언하기를, “한이 군사를 일으켜 영(郢)을 주살하여 놀랐는데, 또다시 [왕께서] 입조하기 위해 한(漢)에 간다면 이 역시 남월에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⁷⁰ 또, 선왕(先王)⁷¹께서 옛적에 하신 말씀이, 천자를 섬기되 예를 잃지 않도록 힘쓸 뿐이라 하셨습니다. 요컨대, 사신의 달콤한

68) 騶餘善: 閩越王 騶郢의 아우이다. 閩越王 騶郢이 군사를 일으켜 南越을 공격하자 漢의 군대가 이를 응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형인 騶郢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립하였다. 武帝 元鼎 6년에는 ‘武帝’를 자칭하며 漢나라 군대와 맞서다가 형과 마찬가지로 吳衍 등 閩越 내부 사람들에게 피살되었다(『史記』「東越列傳」).

69) 莊助: 嚴助라고도 한다. 嚴助는 後漢의 明帝 劉莊을忌諱하여 莊을 嚴으로 고친 것이다. 莊助(?~전122)는 자가 詳이고 會稽 吳人이다. 漢武帝 建元 3년에 吳王의 아들 劉駒의 부추김을 받아 민월이 동구를 공격했을 때 장조는 회계군의 군사를 동원하여 동구를 구원하였고, 建元 6년(전 135)에 閩越이 南越을 공격하자 南越의 구원 요청으로 사신으로 파견되어 남방을 안정시켰다. 그 공으로 會稽太守에 임명되었다가 淮南王 劉安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70) 『考證』(4654쪽)은 “漢興兵誅郢，亦行以驚動南越”의 ‘行’ 뒤에 구두를 찍어 한이 군사를 일으켜 영을 주살한 것과 남월왕의 행차 모두 남월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71) 남월왕 趙佗를 말한다.

말에 기꺼워하며⁷²⁾ 입조하여 알현할 것까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하러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이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호는 병을 핑계삼아 결국 입조해 천자를 알현하지 않았다. 그 후 10여 년이 흘러 조호는 진짜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태자인 영제가 귀국을 청하였다. 조호가 죽자[薨] 그 시호(諡號)를 문왕(文王)이라 하였다.⁷³⁾

嬰齊代立，卽藏其先武帝璽。嬰齊其入宿衛在長安時，取邯鄲穆氏女，生子興。及卽位，上書請立穆氏女爲后，興爲嗣。漢數使使者風諭嬰齊，嬰齊尚樂擅殺生自恣，懼入見要用漢法，比內諸侯，固稱病，遂不入見。遣子次公入宿衛。嬰齊薨，諡爲明王。

조영제(趙嬰齊)가 [조호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는데, 선왕 무제(武帝)의 옥새를 창고에 넣어두었다.⁷⁴⁾ 장안(長安)에서 숙위하던 시절 영제는 한단(邯鄲)⁷⁵⁾ 규씨(穆氏)⁷⁶⁾ 여자를 취하여

72) 『索隱』은 ‘說’을 ‘悅’이라 하여 “悅好語入見”으로 해석하였다. 또, ‘悅’이 『漢書』에는 ‘怵’로 되어 있는데, 韋昭는 이것을 “誘怵好語”, 즉 듣기 좋은 말로 피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73) 고대 예법에는 등급에 따라 죽임도 구별했는데, 제후가 죽었을 때 薨이라 한다. 『禮記』「曲禮下」에 “天子死曰崩，諸侯曰薨，大夫曰卒，士曰不祿，庶人曰死”라고 하였다. 趙胡의 묘가 1983년 6월 현재 廣州市象崗山에서 발견되었는데, 수천 건에 달하는 부장품이 출토되었고 그 중에 ‘文帝行璽’라고 새겨진 龍紐金印이 출토되었다. 이것으로 남월왕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帝號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기물에 새겨진 명문은 묘주가 趙昧이라고 되어 있는데, 麥英豪, 黃展岳 등 다수 학자들이 趙昧이 『史記』의 趙胡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혹자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吳海貴, 「象崗南越王墓主新考」, 『考古與文物』 2000-3) 아직 정론은 없는 실정이다. 남월왕묘 발굴현황에 대해서는 廣州象崗漢墓發掘隊, 「西漢南越王墓發掘初步報告」, 『考古』 1984-3를 참조.

74) 『索隱』은 李奇의 말을 인용하여 “그 동안 참칭한 帝號를 버린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漢書』에는 ‘武帝文帝璽’라고 하여 武帝뿐만 아니라 文帝璽도 언급하고 있다. 비록 사서에는 이와 같이 기술되어 있으나 출토된 남월왕묘를 보면 여전히 국내에서 帝號와 玉璽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75) 邯鄲: 『漢書』「地理志」에는 “옛날 秦의 한단군을 고제 4년에 조국으로 바꿨고 경제 3년에 다시 한단군으로 고쳤다가 5년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였다(趙國，故秦邯鄲郡，高帝四年爲趙國，景帝三年復爲邯鄲郡，五年復故).”고 전한다. 군의 속현이 4개였는데, 그 중 하나가 邯鄲縣이다. 그 治所는 현재 河北省 邯鄲市에 있다.

76) 『索隱』은 穆氏를 穆氏라고 하며 그 음은 기(紀)와 규(虬)의 반절이라 하였다. 또, 穆姓은 邯鄲이 본관이라

아들 흥(興)⁷⁷⁾을 낳았었다. 영제는 왕위에 오르자 조정에 상서하여 규씨 여자를 왕후(王后)로 삼고 그 소생 흥을 후계자로 인정해 주기를 청하였다. 한은 여러 번 사자를 보내 영제에게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하도록 권유했으나 영제는 제멋대로 살생을 즐기고 맘껏 사는 것을 좋아했는데, 입조하면 한법(漢法)의 적용을 받고 내제후들과 같이 취급될까 두려워 한사코 병을 핑계로 입조하여 천자를 알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들 차공(次公)을 보내 숙위토록 하였다. 영제가 죽자 시호를 명왕(明王)이라 하였다.⁷⁸⁾

太子興代立，其母爲太后。太后自未爲嬰齊姬時，嘗與霸陵人安國少季通。及嬰齊薨後，元鼎四年，漢使安國少季往諭王。王太后以入朝，比內諸侯；令辯士諫大夫終軍等宣其辭，勇士魏臣等輔其缺，衛尉路博德將兵屯桂陽，待使者。王年少，太后中國人也，嘗與安國少季通，其使復私焉。國人頗知之，多不附太后。太后恐亂起，亦欲倚漢威，數勸王及群臣求內屬。卽因使者上書，請比內諸侯，三歲一朝，除邊關。於是天子許之，賜其丞相呂嘉銀印，及內史·中尉·太傅印，餘得自置。除其故黥劓刑，用漢法，比內諸侯。使者皆留填撫之。王·王太后飭治行裝重齎，爲入朝具。

태자인 조흥(趙興)이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태후가 되었다. 그런데 태후는 영제의 희첩(姬妾)⁷⁹⁾이 되기 전에 일찍이 패릉(霸陵)⁸⁰⁾ 사람 안국소계(安國少季)⁸¹⁾와 정을

하였다.

77) 『集解』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흥이 일설에는 ‘典’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78) 1983년 5월 象崗 大墓가 발견되기 1개월 전에 廣州市 西村 車輛段 숙소 공사현장에서 이미 도굴당한 前漢 초기 대형목곽묘를 발굴하였다. 이미 도굴당하였으나 출토된 몇 개의 정교한 옥제품으로 미루어 발굴단은 이 묘를 제3대 조영제의 묘로 추정하였다(麥英豪, 「象崗南越王墓反映的諸問題」, 『嶺南文史』 1987-10).

79) 姬妾: 『漢書』 「文帝本紀」 「薄姬」조에 대한 주에 如淳은 姬를 妾의 총칭으로 해석, 그 근거를 『漢官儀』의 ‘姬妾數百’과 『外戚傳』의 ‘幸姬戚夫人’을 들고 있다. 그런데 臣瓚은 姬를 내관으로 해석, 그 근거를 『漢祿祿令』과 『茂陵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姬의 秩祿은 比二千石이며 지위는 婕妤의 뒤이자 八子の 앞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顏師古는 姬는 본래 周의 姓에서 유래되어 夫人의 美稱이었는데, 뒤에 妾의 총칭으로 변하였다고 보고 『外戚傳』 어느곳에도 姬가 관직명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고 하여 臣瓚이 주장한 內官설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영제가 장안에서 취한 규씨녀를 희첩의

통하던 사이였다. 영제가 죽은 뒤 원정(元鼎) 4년(전113)에 한(漢)은 안국 소계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왕과 왕태후에게 내제후처럼 입조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리고 변사(辯士)인 간대부(諫大夫)⁸²⁾ 종군(終軍)⁸³⁾ 등에게는 직접 황제의 뜻을 말하도록 하고 용사(勇士)인 위신(魏臣) 등에게는 곁에서 신속히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돕도록 하였으며,⁸⁴⁾ 위위(衛尉)⁸⁵⁾인 노박덕(路博德)⁸⁶⁾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계양(桂陽)⁸⁷⁾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사자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왕이 어린데다가 태후가 중국인이었고 또 안국소계와 정을 통한 사이라 그가 사신으로 오자 다시 사사로이 정을 통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부분 태후를 따르지

신분으로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80) 霸陵: 縣名이다. 前漢 文帝 9년(전171) 芷陽縣을 霸陵縣으로 개명하였다(『漢書』「地理志」, “霸陵, 故芷陽, 文帝更名”). 京兆尹 소속이다. 治所는 현재 陝西省 西安市 東新市村 부근이다. 孝文帝 劉恒의 陵墓인 霸陵에서 지역의 이름을 삼았다.
- 81) 安國少季: 『索隱』에 의하면, 安國은 姓이고 少季는 이름이다.
- 82) 諫大夫: 郎中令 소속으로 秩은 比八百石이며 정원은 없다. 諫大夫는 『漢書』「百官公卿表」에 의하면, 元狩 5년(119년)에 처음 설치하였다고 한다.
- 83) 終軍: 終軍(전133~112)의 자는 子雲, 濟南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博聞強記하여 문필로 郡中에 이름이 나 18세에 博士弟子에 추천되었다. 長安에 도착한 뒤에는 匈奴로 갈 사신에 자원한 일을 계기로 武帝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남월 공략에도 자청하여 출사하였다. 이때의 南越 出使 때 呂嘉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의 사적에 대해서는, 『史記』에는 立傳되어 있지 않고, 『漢書』「終軍傳」에 상세하다.
- 84) 원문에는 ‘輔其缺’, 즉 ‘부족한 부분을 돕도록’ 되어 있으나 『集解』에서 인용된 徐廣의 말처럼 어떤 곳은 缺이 ‘決’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漢書』에는 ‘決’로 되어 있어 顏師古注는 “助令決策也”, 즉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돕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돕도록 하였다는 것도 통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문맥상 南越國의 王과 신하들이 내속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부추겼다는 의미가 다분해서 顏師古의 주석을 따랐다.
- 85) 衛尉: 漢代 황궁을 지키는 직관으로 원래 秦官이었다. 景帝 때 中大夫令으로 개칭된 적이 있으나 후에 다시 개명되었다. 본 직무는 衛士를 거느리고 황궁을 지키는 관직이나 유사시 군대를 이끌고 황제의 명을 받들어 파견나가기도 한다. 秩 中二千石으로 九卿 중의 하나이다.
- 86) 路博德: 生卒 연대는 자세하지 않다. 西河 平州(현재의 山西省 離石) 사람이다. 武帝 元狩 4년(전119)에 霍去病을 따라 匈奴 원정에 나서 공을 세워 裨離侯에 봉해졌다. 元鼎 6년(전111)에 伏波將軍에 임명되어 남월을 평정하였고, 다음해인 기원전 110년 海南島를 공격하여 이곳에 珠崖郡과 儋耳郡 2郡을 설치함으로써 海峽 통치의 서막을 열었다. 『史記』「衛將軍驃騎列傳」에는 强弩都尉가 되어 居延에 주둔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 87) 桂陽: 桂陽郡을 말하며 治所는 郴縣(현재의 湖南省 郴州)이다.

않았다. 그리하여 태후는 나라에 난이 일어날까 두려웠고, 또 한(漢)의 위세를 빌리려고 여러 번 왕과 신하들에게 한에 내속할 수 있도록 청하라고 권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신을 통해 상서하여 내제후가 하듯 삼 년에 한 번 입조하고 변방에 설치된 관을 철폐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이를 허락하고 승상(丞相)⁸⁸⁾ 여가(呂嘉)에게 은인(銀印)을 하사하고 내사(內史)⁸⁹⁾와 중위(中尉),⁹⁰⁾ 태부(太傅)⁹¹⁾에게 인(印)을 하사하였으며 나머지 관직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²⁾ 월나라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경형(黥刑)⁹³⁾과 의형(劓刑)⁹⁴⁾

88) 丞相: 漢初 諸侯王國의 丞相은 처음에는 ‘相國’이라 하였다가 惠帝 元年 제후국의 相國法을 폐지하고 丞相으로 개명되었다. 또, 景帝 中原 5년에는 丞相을 ‘相’으로 개칭하였다.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왕국 승상의 직책은 “統衆官”, 즉 왕의 보좌역할로 그 권한이 막대하였다. 『漢官儀』에는 “帝子爲王. 王國置太傅, 相, 中尉各一人, 秩二千石, 以輔王. ……皆官如漢官官吏”라고 하였다. 그 秩祿은 賈誼 『新書』 「等齊」에 의하면, “天子之相, 號爲丞相, 黃金之印; 諸侯之相, 號爲丞相, 黃金之印, 而尊無異等, 秩加二千石之上”이라고 하여 천자나 제후의 경우 똑같이 丞相이라 하고 金印을 사용하며 秩祿은 二千石 이상이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文帝 때까지는 王國 丞相의 秩祿과 지위는 天子의 丞相과 차이가 없었는데, 景帝 때 吳楚七國의 난 이후 諸侯王國의 丞相을 相으로, 金印을 銀印으로, 秩祿은 二千石 이상에서 二千石으로 강등조치를 취하였다(吳榮會, 「西漢王國官制考實」, 『北京大學學報』, 1990年第3期 참조). 이 구절에서 南越의 丞相인 呂嘉에게 銀印을 下賜하였다고 하였으니, 景帝 이후에도 南越에서는 적어도 호칭과 印綬 등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89) 內史: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王國 內史의 주요 職掌은 “治國民”이다. 王國의 內史는 王國內의 民의 호적을 관장하고 지방관인 縣令과 직접 종속관계에 있다. 王國의 內史는 또한 刑獄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王國의 內史는 漢 조정의 內史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漢의 內史는 京師의 內治를 담당하여 丞相과 御史가 중추를 담당한 것과 달리 王國의 內史는 漢의 丞相과 御史와 같이 왕을 보좌하는 관리였다.(吳榮會, 앞의 글) 『漢官儀』에 의하면, 秩祿은 二千石이고, 成帝 綏和 元年(전8)때 內史를 폐지하고 相이 太守처럼 治國을 담당하게 되었다.

90) 中尉: 王國의 中尉는 軍事를 담당, 왕국의 軍吏는 모두 中尉에 의해 통속되었다. 따라서, 왕국에서 출병할 때 將軍은 언제나 中尉에서 담당하였다. 이처럼 中尉는 王國 내에서는 相과 內史 다음으로 중요한 요직이었다(吳榮會, 앞의 글). 秩祿은 相, 太傅와 함께 二千石이다.

91) 太傅: 王國의 太傅는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왕의 보좌를 담당, 王國에서 그 지위는 중요하므로, 문헌 상에는 傅와 相이 항상 병칭되고 있다. 傅는 王의 師傅로서 왕을 지도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漢 조정은 傅를 통해 諸侯王을 통제하려 했는데, 왕이 잘못을 행할 경우 바로잡는 직무였다. 秩祿은 二千石이다.

92) 顏師古에 의하면, 丞相, 內史, 中尉, 太傅 이외의 관은 모두 南越國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漢의 印綬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考證』, 4656쪽). 여기에서 內史, 中尉, 太傅에게 하사한 印은 丞相 呂嘉가 銀印을 하사받았으므로 銅印이었을 것이다.

을 폐지하고 한나라 법을 채용하여 내제후와 같게 하였다. 또한 사신들은 모두 그대로 머물며 정세를 장악하고, 왕과 왕태후는 행장과 예물을 준비하여 입조할 채비를 하였다.

其相呂嘉年長矣，相三王，宗族官仕爲長吏者七十餘人，男盡尚王女，女盡嫁王子兄弟宗室，及蒼梧秦王有連。其居國中甚重，越人信之，多爲耳目者，得衆心愈於王。王之上書，數諫止王，王弗聽。有畔心，數稱病不見漢使者。使者皆注意嘉，勢未能誅。王、王太后亦恐嘉等先事發，乃置酒，介漢使者權，謀誅嘉等。使者皆東鄉，太后南鄉，王北鄉，相嘉、大臣皆西鄉，侍坐飲。嘉弟爲將，將卒居宮外。酒行，太后謂嘉曰：「南越內屬，國之利也，而相君苦不便者，何也？」以激怒使者。使者狐疑相杖，遂莫敢發。嘉見耳目非是，即起而出。太后怒，欲縱嘉以矛，王止太后。嘉遂出，分其弟兵就舍，稱病，不肯見王及使者。乃陰與大臣作亂。王素無意嘉，嘉知之，以故數月不發。太后有淫行，國人不附，欲獨誅嘉等，力又不能。

[남월의] 상(相)⁹⁵⁾ 여가(呂嘉)는 나이가 많았는데, 삼대에 걸쳐 왕을 모셨기 때문에 그의 종족(宗族) 중에는 벼슬길에 나가 장리(長吏)가 된 자가 70여 명이나 되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으며 여자들은 왕의 자제들이나 종실과 혼인을 맺었다. 창오(蒼梧)⁹⁶⁾

93) 黥刑: 일명 '墨刑'이라고 하는 신체형인 육형의 하나이다. 죄인의 이마에 먹물을 새겨 넣어 범죄자임을 표시하는 형벌이다. 春秋戰國시대 제자백가 중 墨家は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수공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秦末 漢初 軍容 중의 하나인 英布는 일찍이 墨刑을 받은 자이었기 때문에 '黥布'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漢書』 「刑法志」에 의하면, 文帝 때 형벌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肉刑이 정식으로 폐지되었는데, 이때 黥刑도 폐지되었다.

94) 劓刑: 周代 '五刑'(墨刑, 劓刑, 宮刑, 剕刑, 死刑)의 하나이다. 의형은 『周禮』 「秋官·司刑」 鄭康成注에 “劓, 截其鼻也”라고 하여, 코를 베는 형벌이다. 劓刑은 墨刑보다는 重刑에 속하고 剕刑보다는 輕刑에 속하는 형벌로, 商鞅이 변법을 실시했을 때 처음 법을 어긴 公子虔을 의형에 처했다고 한다. 文帝 때 肉刑을 폐지하는 대신에 劓刑은 笞刑 300대로 대체하였다.

95) 앞에서 漢이 '丞相 呂嘉'에게 '銀印'을 하사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其相'이라 하여 丞相을 相이라고 하였으니, 호칭도 고쳤음을 알 수 있다.

96) 蒼梧: 前漢 呂后 5년(전183)에 南越王 趙佗가 族弟 趙光을 蒼梧王에 임명하자 梧州에서 蒼梧王城을 흥건하였다. 前漢 元鼎 6년(전111)에 武帝가 嶺南을 정복한 뒤 廣信縣을 설치하자 蒼梧王城은 廣信縣城이

진왕(秦王)⁹⁷⁾과도 인척이었다. 나라 안에서 그의 신앙은 매우 두터워 월나라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목이 되어 일하는 자들이 많아서 민심을 얻는 것이 왕을 넘어서고 있었다. 왕이 한 조정에 상서하려고 할 때마다 여가는 여러번 그를 만류했으나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가는] 역심을 품고 자주 병을 핑계로 한나라 사신을 접견하지 않았다. 사자들은 모두 여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형세가 아직 그를 죽일 수는 없었다. 왕과 왕태후 역시 여가 등이 먼저 일을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한나라 사자의 힘을 빌어[介漢使者權]⁹⁸⁾ 여가 등을 주살할 것을 모의하였다. 사자들은 모두 동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태후는 남쪽을 향해, 왕은 북쪽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았고, 상 여가와 대신들은 모두 서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가의 동생은 장군이어서 병사를 이끌고 궁 밖에 머물고 있었다. 술이 한바퀴 돌아 태후가 여가에게 말하였다. “남월이 한나라에 내속하게 되면 나라에 이익이 될터인데, 상(相)께서 어찌 그리 불편해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요?”라고 하여 한나라 사자들을 격노하게 하였다. 한나라 사자들은 머뭇거리며 서로 미루다가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다. 여가(呂嘉)는 이목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태후는 화를 내며 직접 창으로 여가를 찌르려[縱]⁹⁹⁾ 하였으나 왕이 태후를 저지하였다. 여가는 마침내 [궁을] 빠져나와 동생 휘하의 병졸들의 일부를 나누어 그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갔다.¹⁰⁰⁾ 이후 여가는 병을 핑계

되었다. 廣信이라는 명칭은 『漢書』 「郡國志」에 의하면, “縣의 이름이 廣信인 것은 처음으로 粵 땅을 개척하여 널리 [황제의] 은혜와 신의를 알린다.”는 의미에 붙여졌다. 漢武帝는 南越國을 평정한 뒤 南海, 蒼梧 등 9군을 설치하였고 蒼梧郡에는 廣信 등 10縣을 설치하였다.

97) 秦王: 『集解』에 인용된 『漢書音義』에 의하면, 蒼梧 지역을 차지하고 활동하는 越人의 수령으로 스스로 秦王이라 자칭한 자로 『索隱』에 의하면, 아래 기술되어 있는 趙光이며, 혼인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이였다.

98) 介漢使者權: 『集解』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사자를 방패삼아 믿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介’의 의미에 대해 『索隱』은 韋昭의 해석을 일단 긍정하면서도, 西晉시대 虞喜가 지은 『志林』에는 ‘介’를 ‘因’으로 보아 “사자를 매개로 임의대로 여가를 죽이려 하다.”로 해석한 것을 소개하면서,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顏師古는 ‘介’를 ‘恃’, ‘믿고 의지하다’로 해석하였다.

99) 縱: 『集解』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치다[撞]’는 의미이다. 『索隱』 역시 ‘치다’로 해석하였고, 그 음은 칠(七)과 흉(凶)의 반절, 즉 충이라 하였고, 『吳王濞傳』의 “縱殺吳王”과 같은 의미라고 덧붙이고 있다(集解韋昭曰: 「縱, 撞也。」 索隱韋昭云: 「縱, 撞也。」 案: 字林七凶反。 又吳王濞傳 「縱殺吳王」, 與此同.)

100) 원문은 ‘分其弟兵就舍’으로 되어 있는데, 『索隱』은 이것을 ‘동생의 병사 일부를 거느리고 집으로 가다.’로

로 왕과 사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밀리에 대신들과 반란을 꾀하였다. 왕은 본래 여가를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여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은 조용히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았다. 그런데 태후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남월국 사람들이 그녀를 따르지 않아 독자적으로 여가 등을 없애고자 하여도 세력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天子聞嘉不聽王，王·王太后弱孤不能制，使者怯無決。又以爲王·王太后已附漢，獨呂嘉爲亂，不足以興兵，欲使莊參以二千人往使。參曰：「以好往，數人足矣；以武往，二千人無足以爲也。」辭不可，天子罷參也。邾壯士故濟北相韓千秋奮曰：「以區區之越，又有王·太后應，獨相呂嘉爲害，願得勇士二百人，必斬嘉以報。」於是天子遣千秋與王太后弟膠樂將二千人往，入越境。呂嘉等乃遂反，下令國中曰：「王年少，太后，中國人也，又與使者亂，專欲內屬，盡持先王寶器入獻天子以自媚，多從人，行至長安，虜賣以爲僮僕，取自脫一時之利，無顧趙氏社稷，爲萬世慮計之意。」乃與其弟將卒攻殺王·太后及漢使者。遣人告蒼梧秦王及其諸郡縣，立明王長男越妻子術陽侯建德爲王。而韓千秋兵入，破數小邑。其後越直開道給食，未至番禺四十里，越以兵擊千秋等，遂滅之。使人函封漢使者節置塞上，好爲謾辭謝罪，發兵守要害處。於是天子曰：「韓千秋雖無成功，亦軍鋒之冠。」封其子延年爲成安侯。膠樂，其姊爲王太后，首願屬漢，封其子廣德爲龍亢侯。乃下赦曰：「天子微，諸侯力政，譏臣不討賊。今呂嘉、建德等反，自立晏如，令罪人及江淮以南樓船十萬師之。」

천자는 여가(呂嘉)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왕과 왕태후는 약하고 고립되어 이를 제압할 수 없는데다, 사자들은 나약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 왕과 왕태후는 이미 한(漢)에 귀속하기로 했는데, 여가 홀로 반란을 일으켰으니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장삼(莊參)에게 이천의 군사를 주어 남월에 사신으로 파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장삼이, “천선을 위해 간다면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만, 정벌하러 간다면 이천 명으로는

해석하였는데, 『漢書』에는 ‘分’자가 ‘分’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李奇는 ‘被’로 해석한 반면, 顏師古는 ‘分’을 ‘甲’으로 보아 무장하여 자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불가하다고 사양하였다. 천자는 이에 장삼을 파면하였다. 그런데 협현(郟縣)¹⁰¹⁾의 장사이자 이전에 제북국(濟北國)¹⁰²⁾의 상(相)을 지냈던 한천추(韓千秋)¹⁰³⁾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를, “조그만 월나라인데다가 왕과 태후가 안에서 호응하고 있고 오직 승상 여가만이 문제인데, 용맹한 병사 이백¹⁰⁴⁾이면 반드시 여가의 목을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천자는 한천추를 과견함¹⁰⁵⁾과 동시에 왕태후의 동생인 규악(穆樂)에게 이천의 군사를 이끌고 남월의 국경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에 여가 등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온 나라에 영을 내려 말하기를, “왕의 춘추가 아직 어린데다가 태후는 중국인이다. 게다가 한의 사자와 사사로이 정을 통하면서 오로지 한에 내속하려 하고 있다. 선왕의 귀중한 보물을 가져다가 몽땅 천자에게 바쳐 아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장안(長安)에 데리고 가서 노비로 팔아 버리려 하고 있다. 스스로 한때의 화를 모면하려는 이익만 취하려 할 뿐 조씨 사직을 돌보아 만세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
- 101)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潁川郡 소속이라 하였고, 음은 고(古)와 흡(洽)의 반질, 즉 곱이라 하였다. 『索隱』은 如淳을 인용하여 潁州에 있다고 하였고, 『正義』에는 汝州 郟城縣이라 하였다(集解徐廣曰:「縣屬潁川, 音古洽反。」索隱如淳云:「郟, 縣名, 在潁州」正義今汝州郟城縣). 그런데 顏師古는 곱의 음은 협이라 하여, 여기에서는 顏師古를 따랐다. 郟縣은 秦代 설치되었고, 그 治所는 지금의 河南省 郟縣에 있었다.
- 102) 濟北國: 濟北國의 治所는 盧縣(현재의 山東省 長清縣 동남쪽에 위치)에 있다. 그런데 『史記』「李陵傳」에는 韓千秋가 濟北相이 아니라 濟南相으로 되어 있다(成安侯者, 潁川人, 父韓千秋, 故濟南相, 奮擊南越戰死, 武帝封子延年爲侯, 以校尉隨陵). 濟北國은 孝文帝 元年(전179)에 처음 설치된 이래 잠깐 폐지되었다가 孝文帝 15년(전165)에 다시 설치된 후 孝宣帝 地節 3년(전67) 平原郡과 泰山郡으로 분리되어 폐지되었다. 한편, 濟南國은 文帝 16년(전164)에 濟南郡을 國으로 개칭하고 劉肥의 아들 辟光을 濟南王에 임명 東平陵(지금의 山東省 章丘市 서쪽)에 도읍하였다. 景帝 3년(전154)에 吳楚七國의 亂에 참가하여 郡으로 강등되었다. 武帝 이후에는 南部가 泰山郡에 소속됨으로써 관할지역이 더욱 축소되었다.
- 103) 韓千秋: 郟縣(지금의 河南省 郟縣) 사람으로 「南越列傳」과 「漢書」 「李陵傳」에 그 이름이 부분적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南越列傳」에 서술된 바와 같이 南越공격을 자청하여 출정하였다가 여가의 유인작전에 빠져 전사하고 말았다. 武帝는 뒤에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그의 아들 韓延年을 成安侯에 봉하였다.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에는 “以校尉韓千秋擊南越死事. 子侯”라고 韓千秋가 校尉의 신분으로 南越을 공격하다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 104) 『漢書』 「南越傳」에는 ‘二百人’이 아니라 ‘三百人’으로 되어 있다.
- 105)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校尉로 임명하여 과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의 “以校尉韓千秋擊南越死事. 子侯”이다.

마침내 자신의 동생과 병졸들을 이끌고 공격하여 왕과 태후 그리고 한의 사자를 죽였다. 창오(蒼梧)의 진왕(秦王)과 소속 군현에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명왕(明王)¹⁰⁶의 장남으로 월인 아내가 낳은 술양후(術陽侯)¹⁰⁷ 건덕(建德)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한천추의 병사들이 들어와 몇몇 작은 읍들을 쳤다. 남월은 단지 길을 열어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유인하다가 한천추의] 군대가 번우성(番禺城) 40리쯤에 못 미쳤을 때, 남월은 군사를 이끌고 한천추 등을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사람을 시켜 한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부절(符節)을 함께 봉해서 국경의 요새 위에 두게 하고¹⁰⁸ 그럴듯한 말로 사죄의 뜻을 표하는 한편, 군사를 동원하여 요충지를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한천추는 비록 공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군의 선봉으로서는 으뜸이었다.”라고 하며, 그의 아들인 한연년(韓延年)을 성안후(成安侯)¹⁰⁹에 봉하였다. 규악은 그의 누이가 왕태후이고 제일 먼저 한에 귀속하길 청하였으므로 규악의 아들인 광덕(廣德)을 용항후(龍亢侯)¹¹⁰에 봉하였다. 그리고 사면을 내려, “천자의 권위가 미약하여 제후들이 서로 힘으로 다퉴 때, 신하된 자로서 난적을 토벌하지 않는 것을 『춘추(春秋)』는 나무랐다.¹¹¹ 지금 여가(呂嘉)와 건덕(建德) 등이 반란을 일으켜 자립하여 태연자약하고 있다.

106) 明王: 趙嬰齊를 말한다.

107) 術陽侯: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元鼎 4년에 南越王의 형인 越을 高昌侯에 봉하였다고 하였다. 또, 『索隱』의 韋昭는 漢에서 책봉한 이름이라 하고, 「功臣表」에 의하면, 術陽은 下邳郡(지금 江蘇省 水滸縣 서북)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에는 元鼎 4년(전113)에 建德을 侯에 봉하였고 이듬해 元鼎 5년(전112)에 죄를 지어 廢國되었다고 되어 있다.

108) 『索隱』은 漢의 사자의 부절을 함께 봉해서 새 위에 두었다(函封漢使節置塞上)고 하여 단순히 국경의 요새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南康記』가 이 ‘塞上’은 오령의 하나인 大庾의 또다른 이름이라고 한 것을 들어(索隱函封漢使節置塞上. 案: 南康記以爲大庾名‘塞上’也), 특정 지명으로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09) 成安侯: 『索隱』은 「功臣表」에 成安은 郟縣 소속이라 하였다(索隱案功臣表, 成安屬郟). 治所는 현재 河南省 汝州市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110) 龍亢侯: 『索隱』은 龍亢은 譙國 소속이라 하였다. 또, 『漢書』에는 ‘夔侯’으로 되어 있고 服虔에 의하면 음이 공(邛), 晉灼는 옛 ‘龍’字라고 하였다. 龍亢의 治所는 현재 安徽省 懷遠縣 서북 龍亢鎮에 해당한다.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에 의하면, 元鼎 5년(전112)에 廣德은 龍亢侯에 책봉되었다가 元封 6년(전105)에 죄를 지어 처벌되고 폐국되었다.

111) 본문에는 『春秋』라는 冊名이 보이지 않지만, 주 왕실의 권위가 쇠약해지고 제후국들이 서로 힘을 다투었던 春秋戰國시대의 상황을 포괄한 것은 바로 『春秋』였다. 같은 구절에 대해 顏師古는 “역정이란 군사력으로 서로 경쟁함을 말한다. 신하가 적을 토벌하지 않는 것을 나무란 것은 춘추의 뜻이다(力政謂

죄수들과 장강(長江) 및 회수(淮水)¹¹²⁾ 이남의 누선(樓船)¹¹³⁾ 10만 병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라.”라고 하였다.

元鼎五年秋，衛尉路博德爲伏波將軍，出桂陽，下匯水；主爵都尉楊僕爲樓船將軍，出豫章，下橫浦；故歸義越侯二人爲戈船·下厲將軍，出零陵，或下離水，或抵蒼梧；使馳義侯因巴蜀罪人，發夜郎兵，下牂柯江；咸會番禺。

원정(元鼎) 5년(전112) 가을 위위(衛尉) 노박덕(路博德)이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되어 계양(桂陽)¹¹⁴⁾에서 출동하여 회수(匯水)¹¹⁵⁾로 남하하였다. 주작도위(主爵都尉)¹¹⁶⁾ 양복(楊僕)¹¹⁷⁾은 누선장군(樓船將軍)이 되어 예장(豫章)¹¹⁸⁾에서 출동하여 횡포(橫浦)¹¹⁹⁾로 남하하였

以兵力相加也。讖臣不討賊者，春秋之義”라고 해석하였다.

112) 淮水: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淮는 어떤 곳에는 ‘匯’로 되어 있다.

113) 樓船: 『集解』에 인용된 應劭에 의하면, 당시 남월을 치려면 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선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樓船이라고 한 것은 배 위에 망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114) 桂陽: 앞의 주 참조.

115) 匯水: 현재의 廣東省 連州市 東南 連江이다. 『集解』의 徐廣에 의하면, 匯는 ‘滄(滄)’으로 된 곳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裴駰은 「地理志」에 “桂陽에 匯수가 있어 四會로 통한다.”라고 하여 徐廣이 말한 ‘滄’을 부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匯는 ‘淮’로 된 곳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索隱』은 劉氏를 인용하여 匯는 ‘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 근거로 『漢書』에는 ‘下滄水’로 되어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본래 ‘滄(滄)’이라고 하기도 한다. 『漢書』 「地理志」에 “桂陽匯水，南至四會入郁林，過郡二，行九百里”라 하였고, 『水經注』 「匯水注」에는 “匯水出桂陽縣西北上驛山盧聚爲盧溪水，東南流徑桂陽縣故城，謂之匯水”라 하여 桂陽縣에서 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6) 主爵都尉: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主爵都尉는 秦代에는 主爵中尉로 列侯의 封爵을 담당하였다. 漢景帝 中元 6년(전144) 主爵都尉로 개칭되었고 武帝 太初 원년(전104)에 右扶風으로 개칭되면서 내사가 관할하던 右地를 담당하면서(主爵中尉，秦官，掌列侯。景帝中六年更名都尉，武帝太初元年更名右扶風，治內史右地), 원래의 직장인 封爵과는 달리 경기 지역의 오른쪽을 담당하는 행정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117) 楊僕: 『史記』 「酷吏列傳」에 “양복은 의양사람이다. 천부로 관리가 되었다. 하남군수 안의 추천으로 어사가 되었고 관동의 도적을 감찰하였다. 윤제의 통치를 모방하여 함부로 잡아들였다. 벼슬이 주작도 위에게까지 이르러 구경의 반열에 들어섰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누선장군에 제수하였고 공을 세워 將梁侯에 봉하였다. 순체에게 잡혔다가 병사하고 말았다(楊僕者，宜陽人也。

다.¹²⁰⁾ 이전 월나라 사람으로 한에 귀의한 귀의후(歸義侯) 두 사람¹²¹⁾은 각각 과선장군(戈船將軍)¹²²⁾과 하려장군(下厲將軍)¹²³⁾이 되어 영릉(零陵)¹²⁴⁾에서 출발하여 한 사람은 이수(離水)¹²⁵⁾로 남하하고, 한 사람은 창오(蒼梧)¹²⁶⁾로 진격하였다. 치의후(馳義侯)¹²⁷⁾로 하여금 과촉

以千夫爲吏。河南守案舉以爲能，遷爲御史，使督盜賊關東。治放尹齊，以爲敢擊行。稍遷至主爵都尉，列九卿。天子以爲能。南越反，拜爲樓船將軍，有功，封將梁侯。爲荀彘所縛。居久之，病死。”고 전하고 있다.

118) 豫章: 郡名이다. 漢高祖 初年(전202경)에 豫章郡을 설치하였다. 郡治는 南昌(현재의 江西省 南昌市)이었고 南昌, 廬陵, 彭澤, 鄱陽, 餘汗, 柴桑, 贛, 新淦, 南城, 宜春, 鄱都, 艾, 安平, 海昏, 厲陵, 建成 등 18개 縣을 관할하였다. 관할지역은 대체로 후대 江西省 일대와 일치한다.

119) 橫浦: 橫浦關을 말한다. 橫浦關에 대해서는 앞의 주 참조.

120) 『漢書』 「武帝本紀」에는 누선장군 楊僕이 豫章에서 출발하여 瀘水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다(樓船將軍楊僕出豫章, 下瀘水). 瀘水는 현재 廣東省 南雄縣 大庾嶺 남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曲江縣에 이르러 武水와 만나고 남쪽의 물줄기는 北江이 된다.

121) 『集解』에 인용된 張晏에 의하면, 옛날 월나라 사람들로 漢에 항복해서 侯가 된 자들이다. 『漢書』 「武帝本紀」에 이들의 이름이 각각 嚴과 甲으로 되어 있는데(歸義越侯嚴爲戈船將軍, 出零陵, 下離水; 甲爲下瀨將軍, 下蒼梧), 清代 梁廷의 『南越五主傳』에 의하면, 鄭嚴과 田甲이라고 한다.

122) 戈船將軍: 『集解』에서 裴駟은 명칭의 유래에 대해 張晏설을 인용하여, 월나라 사람들은 물 속에서 다른 사람의 배를 뒤집어엎거나 또 물 속의 교통을 저지하기 위해서 배 아래에 창을 넣어 두기 때문에 戈船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였다. 臣瓚은 또 『伍子胥書』에 戈船이란 것이 있는데, 방패와 창을 실었기 때문에 그리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다(集解徐廣曰: 「厲, 一作『瀨』.」 駟案: 張晏曰「越人於水中負人船, 又有蛟龍之害, 故置戈於船下, 因以爲名也. 應劭曰「瀨, 水流涉上也.」 瓚曰「伍子胥書有戈船, 以載干戈, 因謂之『戈船』也.」). 이처럼 戈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考證』도 徐德森과 劉放의 설을 인용하여 배 밑에 창을 둔 데에서 유래되었다는 張晏설이 황당하다고 설명하고 臣瓚의 설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하고 있다(4662쪽). 또, 『西京雜記』 권6에는, “昆明池에 戈船, 樓船이 각각 백척이 있다. 樓船 위에는 樓櫓를 세우고 戈船 위에는 戈矛를 세운다. 네 모퉁이에 모두 幡旄를 드리운다 ……”고 되어 있어 과선은 창을, 누선은 망루를 배 위에 설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3) 下厲將軍: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下厲의 厲는 ‘瀨’라고도 한다(『漢書』에 瀨로 되어 있다.). 『漢書』 「武帝本紀」注에 인용된 臣瓚에 의하면, 『伍子胥書』에 ‘下瀨船’이 있다고 하였으니(“瀨, 湍也, 吳越謂之瀨, 中國謂之瀨. 伍子胥書有下瀨船”), 樓船과 戈船처럼 下瀨도 선박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下瀨는 수심이 얕은 물의 급류를 헤치고 다니는 밑이 평평하고 낮은 쾌속선을 말한다.

124) 零陵: 縣名이다. 秦代 설치되었으며 長沙郡 소속이다. 治所는 현재 廣西省 全州縣 西南쪽에 있다. 前漢 때에는 零陵郡治가 되었다. 『考證』은 丁謙을 인용하여, 零陵郡은 武帝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湖南 永州府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4662쪽).

125) 離水: 현재 廣西省의 瀾江, 桂江이며 西江의 지류이다. 『集解』의 徐廣에 의하면, 離水는 零陵에 있으며 廣信과 이어진다고 하였다. 『正義』는 「地理志」를 인용하여 “零陵縣에 離水가 있는데, 동쪽으로 廣信가

(巴蜀)의 죄수들과 야랑국(夜郎國)¹²⁸⁾의 군사를 징발하여 장가강(牂柯江)¹²⁹⁾으로 남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번우(番禺)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元鼎六年冬，樓船將軍將精卒先陷尋陝，破石門，得越船粟，因推而前，挫越鋒，以數萬人待伏波。伏波將軍將罪人，道遠，會期後，與樓船會乃有千餘人，遂俱進。樓船居前，至番禺。建德、嘉皆城守。樓船自擇便處，居東南面；伏波居西北面。會暮，樓船攻敗越人，縱火燒城。越素聞伏波名，日暮，不知其兵多少。伏波乃爲營，遣使者招降者，賜印，復縱令相招。樓船力攻燒敵，反驅而入伏波營中。犂旦，城中皆降伏波。呂嘉、建德已夜與其屬數百人亡入海，以船西去。伏波又因問所得降者貴人，以知呂嘉所之，遣人追之。以其故校尉司馬蘇弘得建德，封爲海常侯；越郎都稽得嘉，封爲臨蔡侯。

원정(元鼎) 6년(전111) 겨울 누선장군이 정예병사를 이끌고 먼저 심협(尋陝)¹³⁰⁾을 함락시

지 이르며 鬱林으로 들어간다, 총 980리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 『水經注』 「漓水」조에, “漓水亦出陽海山, 南過蒼梧荔浦縣, 又南至廣信縣, 入于郁水”라고 하였다.

126) 蒼梧: 舜이 남으로 巡狩하다가 사망한 곳으로 유명하다(『史記』 「五帝本紀」, “南巡狩, 崩于蒼梧之野”). 元鼎 6년(전111)에 蒼梧郡이 설치되었고 治所는 廣信縣(현재의 廣西省 梧州市)이었다.

127) 馳義侯: 『集解』의 徐廣에 의하면 越나라 사람이며 이름은 遺라고 한다. 『漢書』 「武帝本紀」에는 “越馳義侯遺”라고 되어 있다.

128) 夜郎國: 『正義』는 曲州와 協州 이남이 곧 夜郎國이라 하였다(正義曲州·協州以南是夜郎國). 戰國시대부터 西漢초까지 존재했다. 현재 貴州 서부와 북부 雲南 동북을 포괄하며 四川 남부와 廣西 북부도 그 관할하에 있었다. 國都는 아직 정론이 없는데, 최근 貴州 赫章縣 서북 可樂民族鄉古遺址에서 대량의 진귀한 문물이 발굴되었다. 夜郎國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史記』 「西南夷列傳」 주 참조.

129) 牂柯江: 『正義』에 의하면 牂柯江은 남쪽 요새 밖에서 나와 동쪽으로 四會와 통하며 番禺에 다다라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다. 牂柯江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史記』 「西南夷列傳」의 정의에 인용된 崔浩에 의하면, ‘배를 매는 말뚝’이다(正義崔浩云: 「牂柯, 繫船杙也.」). 이것이 地名의 유래가 된 데에는 『華陽國志』에 “楚頃襄王 때 莊蹻를 보내 夜郎을 쳤는데, 군대가 且蘭에 이르러, 江岸에 배를 대고 步兵戰을 벌였다. 夜郎을 멸한 뒤에, 且蘭을 배를 댄 말뚝이 있는 곳이라 하여 곧 그 이름을 고쳐 牂柯라 하였다(常氏華陽國志云: 「楚頃襄王時, 遣莊蹻伐夜郎, 軍至且蘭, 楫船於岸而步戰. 既滅夜郎, 以且蘭有楫船杙處, 乃改其名爲牂柯.」).”라고 하였다.

키고 석문(石門)¹³¹⁾을 격파하였다. 남월 배의 군량미를 노획하고 그 여세를 몰아 전진하여 남월의 선봉을 꺾고,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파(伏波)장군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복파장군은 죄수들을 거느린데다 [행군한] 거리가 너무 멀어 약속한 기일에 늦게 되었다. 누선장군과 만났을 때에는 겨우 천여 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고 마침내 [합류하여] 함께 행진하였다. 누선장군이 앞장을 서서 번우에 이르렀다. 건덕(建德)과 여가(呂嘉)는 모두 성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다. 누선장군은 자기에겐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동남쪽에 진을 쳤고, 복파장군은 서북쪽에 진을 치게 되었다. 때마침 날이 저물자 누선장군이 월나라를 공격하여 패배시키고 성을 불태워 버렸다. 남월 사람들은 평소 복파장군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게다가 날이 저물자 그의 병사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복파장군은 곧바로 영루를 세워 사자를 보내 항복해 오는 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인(印)을 하사하고는 다시 풀어 주 항복한 자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누선장군이 전력을 다해 적을 공격하고 성을 불태운 것이 오히려 남월 사람들을 복파장군 진영으로 몰아간 꼴이 되었다. 날이 채 밝기도 전[黎明]¹³²⁾에 성안 사람들 모두 복파장군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여가와 건덕은 이미 밤을 타서 자신의 일속 백여 명을 데리고 도망쳐 바다로 들어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사라졌다. 복파장군은 또한 항복해 온 자들 중 귀인(貴人)들에게 여가가 도망친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본

130) 尋陝: 『索隱』은 姚氏의 말을 인용하여 尋陝은 始興 서쪽 300리에 위치하며 連口에 가깝다고 하였다(索隱姚氏云:「尋陝在始興西三百里, 近連口也」). 『考證』의 丁謙에 의하면, 尋陝은 곧 韶州 英德縣 남쪽에 있는 湓陽峽을 말한다. 또, 『方輿紀要』 권101 清遠縣 ‘峽山’條에 “觀亭山在縣東三十五里. 一名觀峽山. 或云即峽山之支麓, 或謂之尋陝”이라고 하였다. 현재 위치로는 廣東省 清遠市 동쪽이다.

131) 石門: 『索隱』은 石門에 대해 『廣州記』의 다음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番禺縣 북쪽 30리에 있다. 옛날 여가가 한에 대항하여 싸울 때 돌을 쌓아 강을 메워서 석문이라 이름을 붙였다. 또, 세속에서는 石門水を ‘탐천(貪泉)’이라 하였는데,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吳隱之가 石門에 이르러 그 물을 떠서 마시고 곧바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索隱按: 廣州記「在番禺縣北三十里. 昔呂嘉拒漢, 積石鎮江, 名曰石門. 又俗云石門水名曰『貪泉』, 飲之則令人變. 故吳隱之至石門, 酌水飲, 乃爲之歌云也」) 또, 『方輿紀要』 권101 廣州府를 보면 石門山은 “두 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문과 같다(兩山對峙如門).”이라 하여 石門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한다. 현재의 廣東省 廣州市 西北 30리에 있다.

132) 黎明: 원문은 ‘黎明’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黎明’을 ‘~까지 이어지다, 미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고 『漢書』도 ‘黎明’이 ‘遲旦’으로 되어 있어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때를 말하고 있다. 『索隱』은 ‘黎明’의 의미를 검다[黑]로 해석, 날이 미쳐 밝기 전 어두운 때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 사람을 시켜 그 뒤를 추적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교위(校尉)의 사마(司馬)¹³³⁾ 소홍(蘇弘)¹³⁴⁾은 건덕을 잡은 공로로 해상후(海常侯)¹³⁵⁾에 봉해졌고, 월의 랑(郎)¹³⁶⁾ 도계(都稽)¹³⁷⁾는 여가를 잡은 공로로 임채후(臨蔡侯)¹³⁸⁾에 봉해졌다.

蒼梧王趙光者，越王同姓，聞漢兵至，及越揭陽令定自定屬漢；越桂林監居翁諭馮駱屬漢；皆得爲侯。戈船、下屬將軍兵及馳義侯所發夜郎兵未下，南越已平矣，遂爲九郡。伏波將軍益封，樓船將軍兵以陷堅爲將梁侯。

창오왕(蒼梧王) 조광(趙光)은 월왕(越王)과 동성(同姓)이다. 한나라 군대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월(越)의 계양령(揭陽令)¹³⁹⁾인 정(定)¹⁴⁰⁾과 함께 한나라에 복속하기로 결정하였다.

133) 故校尉司馬: 『考證』은 朱一新의 말을 인용하여 ‘故校尉司馬’를 ‘이 때문에 校尉였다가 이제 軍司馬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漢書』에는 ‘故其校司馬’로 되어 있고, 顏師古는 “校의 司馬이다. 지금의 行軍總管사마이다(校之司馬, 若今行軍總管司馬也).”라고 해석하였다. 「功臣表」에 蘇弘은 伏波司馬로 南越王 建德侯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 이것을 참조하면 顏師古의 해석처럼 伏波장군 휘하 校尉의 司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4) 蘇弘: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 ‘海常侯’조에 의하면, 伏波司馬로 南越王 乾德을 잡은 공으로 侯가 되었고, 元封 6년 7월 乙酉일에 莊侯 蘇弘의 원년이 되었으며, 太初 元년에 蘇弘이 사망하고 후사가 없어 國이 폐지되었다. 「高祖功臣侯者年表」의 『索隱』에 의하면, ‘莊侯’는 項籍을 참한 五侯에게 내려진 시호인데, 「建元以來侯者年表」에는 南越王 建德을 잡은 蘇弘과 東越의 循北將軍을 잡은 轅終古 외에는 莊侯의 시호가 보이지 않는다.

135) 海常侯: 『集解』의 徐廣에 의하면 東萊에 있다. 食邑이 東萊郡에 있다는 말인데, 東萊郡의 郡治는 지금 山東省 掖縣에 있다. 일설에는 그 食邑이 琅邪郡에 있다고도 하는데, 琅邪郡의 郡治는 山東省 諸縣에 있다.

136) 越郎: 『集解』의 徐廣에 의하면 南越의 郎官을 말한다. 郎은 본래 王宮을 지키는 衛士였는데, 前漢 때에는 이미 직장이 명문화되어 황제 혹은 왕국의 막료로 충당되었다. 한조정과 마찬가지로 王國의 郎官은 郎中과 中郎, 侍郎이 있었으며, 『漢官儀』에 의하면, 秩祿은 이백 석이었다. 「百官公卿表」에는 “景帝中五年令諸侯王不得復治國, 天子爲置吏, …… 郎諸官長丞皆損其員”이라고 하여, 景帝 中元 5년에 王國의 郎官의 숫자를 감축했다고 전한다(吳榮曾, 앞의 글, 114쪽).

137) 都稽: 『漢書』 「景武昭宣元成功臣表」에는 孫都로 되어 있다.

138) 臨蔡侯: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에는 실려 있지 않고, 『漢書』 「景武昭宣元成功臣表」에 臨蔡侯는 河內郡 소속이며, 食邑이 千戶로 되어 있다. 河內郡의 治所는 懷縣, 즉 현재의 河南省 武陟縣 서남이다.

월의 계림감(桂林監)¹⁴¹⁾인 거옹(居翁)¹⁴²⁾은 구락(甌駱)에게 한나라에 복속하도록 종용하여¹⁴³⁾ 모두 후(侯)가 될 수 있었다.¹⁴⁴⁾ 이리하여 과선장군과 하려장군의 군대 및 치의후가 징발한 야랑국의 군사가 미처 당도하기도 전에 남월은 평정되었다. 마침내 이곳에 구군(九郡)¹⁴⁵⁾을 설치하였다. 북과장군은 봉을 더하였고 누선장군은 견고한 적의 군대를 함몰시킨 공로로 장량후(將梁侯)¹⁴⁶⁾에 봉해졌다.

自尉佗初王後，五世九十三歲而國亡焉。

위타(尉佗)가 처음으로 왕이 된 이래 5대 93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139) 揭陽令: 『集解』의 韋昭에 의하면, 揭의 음은 기(其)와 서(逝)의 반절, 즉 ‘계’이다. 『索隱』은 또한 『地理志』를 인용하여 揭陽縣이 南海郡 소속이며, 揭의 음은 결(桀)이라 하였다(集解韋昭曰:「揭音其逝反。」索隱地理志揭陽縣屬南海。揭音桀。韋昭音其逝反, 劉氏音求例反。定者, 令之名也。案: 漢功臣表云「定揭陽令」, 意又別也)。또, 『漢書』 顏師古注에 인용된 蘇林에 의하면, “揭의 음은 羯이다. 남해현이다(揭音羯。南海縣).”라고 하였다. 이처럼 ‘揭’는 계, 갈, 걸로 음이 각각 다르다. 여기에서는 위 소설을 따랐다. 揭陽縣은 秦代 설치되었고 揭陽嶺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揭陽이라 불렀다. 治所는 현재의 廣東省 揭陽市 서북이다.

140) 定: 揭陽令의 이름이다. 『漢書』 「兩越列傳」에는 揭陽令史定이라 되어 있다.

141) 桂林監: 『集解』에 인용된 『漢書音義』에 의하면 桂林郡의 中監이다. 漢書注에 인용된 服虔에 의하면, 桂林部監이라고 하였다.

142) 居翁: 『集解』에 인용된 『漢書音義』에 의하면, 桂林郡 中監으로 姓이 居, 이름이 翁이다.

143) 『漢書』 「兩粵列傳」에는 “粵桂林監居翁諭告甌駱四十餘萬口降”이라고 하여, 40여 만 구가 항복하였다.

144) 『漢書』 「兩粵列傳」에는 趙光은 한나라 군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항복해서 隨桃侯에 봉해졌고, 揭陽令 史定은 安道侯에, 越의 장수 畢取는 臈侯에, 桂林監 居翁은 湘城侯에 봉해졌다고 하였다.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湘城은 堵陽縣(원래 秦代 陽城縣을 前漢代 개칭, 현재의 河南省 方成縣 동쪽 6리)에 속하고, 隨桃, 安道, 臈 세 縣은 모두 南陽郡(前漢 때 관할 지역의 범위는 현재의 河南省 桐柏縣以西, 湖北省 丹江口市 以東, 河南省 魯山縣 以南, 河南省 鄭州市와 湖北省 廣水市 以北에 해당)에 속한다.

145) 九郡: 『集解』의 徐廣에 의하면, 儋耳, 珠崖, 南海, 蒼梧, 九眞, 鬱林, 日南, 合浦, 交阯 등 9郡이다. 『索隱』에 의하면 徐廣의 9郡說은 모두 『漢書』를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146) 將梁侯: 『史記』 「建元以來侯子年表」의 『索隱』에 의하면, 『漢書』 「景武昭宣元成功臣表」와 『地理志』에 기록이 없다.

太史公曰：尉佗之王，本由任囂。遭漢初定，列爲諸侯。隆慮離溼疫，佗得以益驕。甌駱相攻，南越動搖。漢兵臨境，嬰齊入朝。其後亡國，徵自繆女；呂嘉小忠，令佗無後。樓船從欲，怠傲失惑；伏波困窮，智慮愈殖，因禍爲福。成敗之轉，譬若糾墨。

태사공(太史公)은 말한다. 위타(尉佗)가 왕이 된 것은 본래 임오(任囂) 때문이었다. 한나라가 천하를 평정하게 되자 제후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용려후(隆慮侯)가 습기와 전염병에 걸리자 위타는 이때부터 더욱 교만해지기 시작하였다. 구락(甌駱)이 남월을 공략하자 남월은 크게 동요하였다. 한나라 군대가 국경에 다다르자 영제(嬰齊)가 입조하였다. 그 후 나라가 망하였는데, 그 조짐은 구씨(繆氏) 여자에서 비롯되었다. 여가(呂嘉)의 작은 충성 때문에 조타의 후사가 끊기게 되었다. 누선장군(樓船將軍)은 자기 욕심만 부리며 태만하고 오만하여 적을 부수고 살피는 데 게을러 잘못을 저질렀으나 복파장군(伏波將軍)은 곤궁에 빠졌을 때 그 기지와 사려깊음이 더욱더 빛을 발해 화를 복으로 바꾸었다. 성패의 뒤바뀜은 이처럼 새끼를 꼬는 것과 같구나.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注』 1, 서울: 신서원, 2004(影印)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十三經,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許嘉璐主編, 『二十四史全譯: 史記』,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瀧川龜太郎, 『史記會注考證』, 臺北: 宏業書局, 1974(再版)

김한규,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서울: 一潮閣, 1982

劉煒, 김양수 옮김, 『황제의 나라: 秦漢 시대』, 서울: 시공사, 2004

董楚平, 『吳越文化新探』,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8

福建省博物館編, 『閩越考古研究』,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1993

余天熾 等, 『古南越國史』, 桂林: 廣西人民出版社, 1988

中國百越民族史研究會編, 『百越民族研究』,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0

陳國強 等, 『百越民族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何光岳, 『百越原流史』,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2

許智范·肖明華, 『南方文化與百越滇越文明』,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5

黃森章, 『南越國』,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4

小林聰, 「漢時代における中国周辺民族の内属について」, 『東方学』 82, 1991

齊藤實, 「前漢武帝の對外政策 - 兩越・西南夷・朝鮮の郡県化と泰山封禪」, 『日本大学芸術学部紀要』, 1988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大辭典: 歷史地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7

譚其驥 編, 『中國歷史地圖集(秦・西漢・東漢時期)』第2冊, 北京: 地圖出版社, 1982

史爲樂,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동월열전(東越列傳)



「동월열전(東越列傳)」 해제

동월(東越)은 민월(閩越)과 동구(東甌) 등 현재의 복건성과 절강성 남부에 거주하였던 전통적인 월족(越族)의 일파이다. 민월은 사마천에 의하면 전국시대 월왕(越王) 구천(句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진대(秦代) 민중군(閩中郡)을 설치한 이래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연동해서 그 세력을 신장하였다. 대략 기원전 334년에서 기원전 110년 사이에 존속하였다.

『사기』 「동월열전」은 전국시대에서 진한제국시대에 존속했던 동남연안 일대의 여러 종족들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국시대 중기 월왕 구천이 현재 절강성 소흥 일대에서 월국(越國)을 재건하였지만, 기원전 334년 월왕 구천의 7대손인 무강(無疆)이 초위왕(楚威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살해됨에 따라 전국시대의 월나라는 멸망하였다. 이때 월국의 왕족 일부는 배를 타고 민(閩)으로 들어가 월나라 사람들은 월천산(越遷山: 현재의 福建省 長樂縣)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사마천에 의하면 월나라 사람들은 신체가 왜소하고 얼굴길이가 짧으며 수염이 적고 코가 넓적하고 동공이 크다. 물가에 살아서 수전을 좋아하고 배와 뗏목을 잘 부리고, ‘단발(斷髮)’, ‘문신(文身)’을 하는 습속을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이 지역을 ‘민(閩)’이라고 부른 데에는 뱀이 많아 당시 뱀을 토렘으로 한 부락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뱀은 고어 중에는 장충(長虫)이라고도 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민(閩)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후한 말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이 ‘민(閩)’을 “동남의 월지역 뱀의 일종”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민속학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뱀의 일종이라기보다는 뱀을 토렘을 하는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게 합리적이다.

기원전 221년 진(秦)이 6국을 통일한 뒤 군대를 민월(閩越)지역으로 진군하여 다음해 민중

군(閩中郡)을 설치하였다. 당시 진은 민중군이 중원과 너무 멀어 ‘황복지국(荒服之國)’으로 여겼고, 또 월인들이 사나워 통치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민중군은 진의 40군 중 하나였지만 지배방식은 타 군현과 같지 않았다. 진말(秦末) 수위령장(守尉令長)을 민중군에 파견하여 민월왕의 왕위만을 폐위시키고 ‘군장(君長)’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그 땅을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진은 명목상 민중군을 설치하였을 뿐 실제로는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중군에 통제를 가하기 위해 진은 대량의 민월 사람들을 현재 절강성 북부와 안휘, 강서성 등지로 이주시켰다. 또 한편, 중원의 죄수들을 민중군으로 유배 천사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서로 다른 민족이 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민월국 본래의 문화와 한문화가 서로 교류하게 되었다.

기원전 209년 진승(陳勝), 오광(吳廣)의 난이 발발하자 각지 인민들이 이에 호응하였는데, 이 때 무제(無諸)는 민월의 병사들을 이끌고 북상하여 중원의 농민기회에 호응하여 진 타도에 동참하였다. 기원전 206년 진이 멸망하고 초한(楚漢)전쟁이 발발하자 무제는 다시 북상하여 유방(劉邦)을 도와 항우(項羽)를 쳐서 공을 세우게 된다. 이 공으로 기원전 202년 무제는 민월왕(閩越王)에 봉해지고 민중을 통치하게 된다. 이에 무제는 성촌(城村) 일대에 민월왕성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민월국은 한대 동남 일대에서 최강의 국가로 성촌(城村)의 왕성 역시 동남 일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였다. 근 1세기 동안 민월국은 복건지역의 원래 백월(百越)문화의 풍속과 습관, 종교관념, 문화, 예술들을 발전시켰고 정치와 경제면에서 한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독자적인 민월문화를 가꾸었다.

1958년 민월고성(閩越古城)의 유적이 발견되어 대량의 문물이 출토되었다. 고성의 평면은 마치 장방형과도 같아 남북으로 약 860미터, 총 면적은 48만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미 발굴된 고호평에는 대형 궁전건축군이 출토되었고 건축의 배치와 구조는 완벽하며 바닥에는 배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 성안에는 다수의 거주유지와 야철유지가 발견되었는데, 다량의 철기, 도기, 건축재료와 동기가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도기는 형태와 문양면에서 모두 중원의 한식(漢式) 도기와 달라 지역적 특색이 매우 짙게 드러나 있다. 2000년에는 민월왕성 유지 동남쪽 3킬로쯤에 민월왕 시대의 귀족의 묘가 발굴되어 당시 번영했던 민월왕국의 일면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무제 사후 자손간의 분쟁과 빈번한 전쟁이 있었는데, 일찍이 북으로는 동구(東甌)를, 남으로는 남월을 공격하여 백월 여러 민족이 모두 신복(臣服)하기도 하였다. 주변 제후국들은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민월국과 교류하려 애썼으며, 민월국은 이미 한대 남방의 최대 강국이 되었다. 민월왕 무제가 죽고 난 뒤 동월왕 여선(餘善)은 ‘무제(武帝)’라는 인쇄(印璽)를 새겨 자립하여 칭제하고 군대를 일으켜 한에 반기를 들었다. 이때 한 왕조는 100여 년간 평화시대로 부국강병해진데다 한무제가 통치했던 최강의 전성기였기에 이러한 사태를 용납하지 않았다. 한무제(漢武帝)는 북방의 흉노를 공격하여 제압한 뒤 4가지 길로 대군을 파견하여 민월국을 포위하였다. 한왕조는 동시에 민월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여 민월(閩越) 요왕(繇王)의 오른팔과 귀족들이 여선을 살해하고 마침내 한으로 압송하였다. 한무제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대군에게 명하여 민월의 백성을 강회(江淮) 내지로 천사시키도록 하고, 민월궁전은 불태워 없애도록 하였다. 발굴된 성촌고성과 그 궁전은 바로 기원전 110년 한무제가 파견한 대군에 의해 파괴되었던 것이다.

「동월열전」은 민월에서 형 영(郢)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여선(餘善)의 대에서 멸망하였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보자면, 한군의 공격이 직접적인 멸망의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한군의 공격 앞에 국내 주전파와 주화파 간의 내분에 의해 와해되는 중국의 주변국가의 붕괴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한 「동월열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무제 때 한 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대외관계 설정에 있어서 제국 내에서도 기존의 화친정책과 적극적인 내속화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월열전」에는 재상 전분(田蚡)과 장조(莊助)의 논쟁이 상세히 실려 있다.

- 역주: 문정희
- 교열: 김유철

「동월열전(東越列傳)」역주

閩越王無諸及越東海王搖者，其先皆越王句踐之後也，姓駟氏，秦已并天下，皆廢爲君長，以其地爲閩中郡。及諸侯畔秦，無諸·搖率越歸鄱陽令吳芮，所謂鄱君者也，從諸侯滅秦。當是之時，項籍主命，弗王，以故不附楚。漢擊項籍，無諸·搖率越人佐漢。漢五年，復立無諸爲閩越王，王閩中故地，都東冶。孝惠三年，舉高帝時越功，曰閩君搖功多，其民便附，乃立搖爲東海王，都東甌，世俗號爲東甌王。

민월왕(閩越王)¹⁾ 무제(無諸)와 월나라 동해왕(東海王)²⁾ 요(搖)는 그 선조가 모두 월왕 구

- 1) 閩越王: 閩의 음은 『集解』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무(武)와 건(巾)의 반절, 즉 ‘민’이며, ‘東越’이라고도 한다. 『索隱』 역시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東越의 일파라고 하였다. 閩越을 東越이라 한 것은 閩越王 郢을 죽이고 자립한 餘善이 東越王을 칭한 데에서 기인한다. 閩越國은 현재 福建省 북부와 浙江省 남부에 걸쳐 기원전 334년~기원전 110년간 존속하였다. 閩越國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기원전 334년 越王 句踐의 7대손인 無疆이 楚威王과의 전투에서 저 멸망한 뒤 월나라 유민들이 남하하여 백월족 원주민과 섞여 살게 되었는데 越國의 왕족은 이때 배를 타고 閩으로 들어가 월나라 사람들은 越遷山(현재의 福建省 長樂縣)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월인은 신체가 왜소하고 얼굴 길이가 짧으며 수염이 적고 코가 넓적하고 동공이 크다는 신체적 특징과 물가에 살아서 水戰에 능하고 조선 기술이 뛰어난 점, ‘斷髮文身’의 습속 등 중원과는 풍속이 달랐다. 이 지역은 뱀이 많았기에 당시 뱀을 토렘으로 한 부족들이 많았는데, 고어 중에는 뱀을 長虫이라고도 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閩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許慎의 『說文解字』에도 이 閩자를 “閩은 東南越이다. 뱀의 일종이다.”라고 하였는데, 閩자를 풀이해 보면, 門은 음을 나타내고 虫은 뜻을 나타낸다. 이 뜻을 나타내는 ‘虫’은 許慎이 뱀의 일종이라고 풀이하게 된 유래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許慎이 글자의 형태로 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대 민속학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뱀의

천(句踐)의 후예로서 성은 추씨(騶氏)³⁾이다. 진(秦)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이들을 폐하여 군장(君長)⁴⁾으로 삼고 그 땅에 민중군(閩中郡)⁵⁾을 설치하였다. 제후들이 진(秦)에 반기를

일종이라기보다는 뱀을 토tem으로 하는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게 합리적이다. 후대 福建省을 가리키는 칭호로 ‘閩’을 사용하게 된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秦이 六國을 통일한 뒤 閩越이 있던 지역에 ‘閩中郡’을 설치하였고, 秦末에 守尉令長을 閩中에 파견하여 閩越王의 왕의 칭호를 ‘君長’으로 대체하였을 뿐 그 통치는 그대로 인정하는 등 직접 통제하에 두지는 않았다.

이후의 閩越의 역사전개과정에 대해서는 『史記』 「東越列傳」에 처음 보이며, 그 내용도 거의 유일하다. 『東越列傳』에 의하면, 기원전 209년 중원에서 陳勝, 吳廣의 난이 발발하자 閩越의 無諸는 병사들을 이끌고 북상하여 진 멸망에 일조하였으며, 기원전 206년 楚漢전쟁시에는 劉邦을 도와 項羽를 쳐서 공을 세워, 그 공로로 기원전 202년 無諸는 閩越王에 책봉되었고, 이 일대에 閩越王城을 축성하였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閩越王城은 48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4개의 성문으로 이루어졌으며, 東西 성문 사이에는 10미터에 달하는 大道가 배치되었으며, 대도 북쪽에는 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궁전터가 있는데, 중심 건축물은 900여 평방미터에 달한다. 이처럼 당시 閩越國은 漢代 동남 일대에서 최강의 국가로서 자리잡았다. 無諸 사후 대내외적 분쟁과 전쟁으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閩越王 郢을 죽이고 그 동생 餘善이 ‘武帝’를 칭하는 등 漢에 반기를 들었다. 漢武帝는 즉각 네 갈래 길로 대군을 파견하여 閩越國을 포위함과 동시에 閩越國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여 閩越 繇王 등이 여선을 살해하고 한에 귀속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漢武帝는 閩越의 백성을 江淮 內地로 천사시키고 閩越 왕성을 불태웠는데, 최근 발견된 城村古城과 궁전터는 바로 그 흔적이다. 1996년 福建省考古工作隊에 의해 新店古城이 발굴되었는데, 발굴단은 이 新店古城이 『史記』와 『漢書』에 묘사된 閩越王城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성유지 주변에서는 다양한 문양과 ‘萬歲’, ‘萬歲未央’ 등의 문자가 새겨진 와당 파편과 ‘閩’자로 추정되는 瓦當이 발견되었다(許智范-肖明華, 『南方文化與百越滇越文明』, 江蘇教育出版社, 2005, 167~69쪽).

- 2) 東海王: 東海는 『漢書』 「惠帝紀」의 “[三年]夏五月, 立閩越君搖爲東海王” 그 應劭注에 “……東海, 在吳郡東南濱海云”이라고 하여 吳郡(後漢代 會稽郡을 나뉜 설치, 지금의 江蘇省 동남 일대) 東南 해안이라 하였고, 顏師古는 泉州(지금의 福建省 福州)라고 하여, 그 위치가 다르다. 이 東海는 秦代 설치된 東海郡과는 무관하다. 즉, 秦代 설치된 東海郡은 현재 山東省 郟城縣 일대인데, 도읍으로 삼은 東甌(현재의 福建省 溫州市)를 고려해 보아도 顏師古가 말한 泉州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동해가 구체적으로 어느곳인지 顏師古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로 泉州는 唐 睿宗 景雲 2년(711)년 武榮州를 泉州로 개칭하고 閩州都督府에 귀속시키면서 이후 이 지역을 泉州라고 하였다고 한다.
- 3) 騶氏: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騶는 ‘駱’으로도 되어 있다. 『索隱』도 徐廣說을 인용하여 앞에서 말한 ‘歐駱’을 말하며 姓이 騶氏는 아니라고 하였다. 陳直도 『史記新證』에서 騶氏는 齊나라의 大姓으로 閩越에 이 姓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와전된 듯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 4) 君長: 고대 소수민족의 수장을 가리키는 칭호이다. 『史記』 「五帝本紀」에, “[舜]遂見東方君長”이라고 되어 있다. 後漢 袁康의 『越絕書』 「外傳記地傳」에도 “親以上至句踐, 凡八君, 都瑯琊二百二十四歲. 無疆以上, 霸, 稱王. 之侯以下微弱, 稱君長”이라고 하여 無疆 이전에는 王을 칭하다가 세력이 미약해져 君長을 칭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들자 무제(無諸)와 요(搖)는 월나라 백성을 이끌고 과양령(鄱陽令) 오예(吳芮)⁶⁾에게 귀순하였다. 오예는 과군(鄱君)이라고까지 불렸던 자인데, 제후들을 따라 진(秦)을 멸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때 항적(項籍)⁷⁾이 제후들을 호령하였는데, 이들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자⁸⁾ 이때문에 초(楚)를 따르지 않았다. 한(漢)이 항적(項籍)을 공격하자 무제와 요는 월나라 사람들을 이끌고 한을 도왔다. 한(高祖) 5년(전 202)에 다시 무제를 민월왕에 봉하니 민중(閩中)의 옛땅을 통치하고 동야(東冶)⁹⁾에 도읍하였다. 효혜제(孝惠帝) 3년(전192)에는 고제(高帝) 때

5) 閩中郡: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建安郡 侯(候)官縣(현재의 福建省 福州市)이라고 하였다. 『索隱』도 徐廣의 설을 인용하는 한편, 閩州가 되었다고 한다. 또, 아래 ‘東冶에 도읍하다’는 구절로 韋昭 역시 侯官縣에 있다고 하였다. 『正義』는 閩州이며 다시 福州로 개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 顏師古는 “현재 泉州 建安이 바로 이곳이다(即今之泉州建安是也).”라고 하였는데, 唐代 泉州 建安은 현재 廣西省 全州縣 西南 六十里이다. 그런데 『漢書』 「地理志」에 실려 있는 秦의 36郡에는 閩中郡이 없는데, 이에 대해 王鳴盛은 閩中郡이 始皇帝 말년에 설치되었으나 無諸와 搖가 여전히 그 땅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가 秦에 복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후들을 따라 秦을 멸망시켜 36군에 들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考證』, 4668쪽). 閩中郡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기왕에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辛德勇은 王國維가 『史記』 「秦始皇本紀」에 “二十五年, 大興兵……王翦遂定荊江南地; 降越君, 置會稽郡”를 근거로 秦始皇 25년에 설치되었다고 한 고증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여 降越君이 통치한 지역은 會稽이지 閩中이 아니므로, 적어도 秦始皇 25년에 설치된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辛德勇, 『秦始皇三十六郡新考(上)』, 『文史』, 2006년 1期).

6) 吳芮: 吳芮(?~전202)는 番禺(현재의 江西省 鄱陽縣) 사람이다. 일설에는 餘干縣이라고도 한다. 『東越列傳』에서 언급한 것처럼 秦代 鄱陽令으로 있으면서 민심을 얻어 鄱君으로 존중받은 인물이다. 秦末 百越族을 이끌고 기병하여 부장 梅縉과 사위 英布를 보내 사졸들을 훈련시키고 北上하여 項梁의 군대와 함께 秦을 쳤다. 함양을 공격할 때 吳芮는 入關의 공으로 衡山王에 책봉되었다. 楚漢전쟁 때 吳芮는 劉邦을 도와 漢의 승리를 이끌었다. 漢高祖 4년에 長沙王에 봉해지고, 臨湘에 도읍하였다. 高祖 5년에 황제의 명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閩을 평정하러 가다 도중에 병사하고 만다. 시호를 文王이라 하였다. 漢初 劉邦이 봉한 8명의 異姓諸侯王 중 7명이 반란을 일으켜 모두 주멸되었으나 오직 吳氏만이 漢에 충성하여 5대를 거쳐 존속하다가 후사가 없어 폐국되고 만다. 吳芮 사후 그 자손 吳臣, 吳回, 吳右, 吳耆가 長沙王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7) 項籍: 西楚霸王(전232~202) 項羽를 말한다. 이름이 籍이고 字가 羽이다. 下相(현재의 江蘇省 宿遷縣) 사람이다. 楚國의 名將인 項燕의 손자로, 楚 멸망 후 그 일족은 모두 살해되어 그의 숙부 項梁을 따라 吳中(현재의 江蘇省 蘇州)으로 피난하였다. 秦末 기의하여 제후들을 호령하고 西楚霸王을 자칭하며 천하를 호령하다가 한고조 유방의 연합군에 의해 패하여 烏江에서 최후를 마감하였다.

8) 『集解』에 인용된 『漢書音義』에 의하면, “제후들의 호령을 주도하였는데, 無諸와 搖 등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월나라가 세운 공을 높이 추켜세워 ‘만군(閩君) 요(搖)의 공이 크다.’고 칭찬하니, 그 백성들이 곧바로 한나라에 귀부하였다. 그리하여 요를 동해왕(東海王)에 봉하니 동구(東甌)¹⁰⁾에 도읍하여, 세간에서는 그를 일러 동구왕(東甌王)이라 하였다.

後數世，至孝景三年，吳王濞反，欲從閩越，閩越未肯行，獨東甌從吳。及吳破，東甌受漢購，殺吳王丹徒，以故皆得不誅，歸國。

그 뒤 몇 대가 지나 효경제(孝景帝) 3년(전154)에 이르자 오왕(吳王) 비(濞)¹¹⁾가 반란을

9) 東冶: 현재의 福建省 福州市이다. 後漢 때 東冶縣을 설치하고 會稽郡에 소속시켰다. 『後漢書』 「鄭弘傳」의 “舊交阯七郡貢獻轉運，皆從東冶汎海而至，風波艱阻，沈溺相係。弘奏開零陵·桂陽嶠道，於是夷通 至今遂爲常路”의 李賢注에 “東冶，縣，屬會稽郡。太康地理志云漢武帝名爲東冶，後改爲東候官，今泉州閩縣是”라고 하여 漢武帝 때 東冶라고 하였다가 東候官으로 개칭, 唐代에는 泉州 閩縣이었으며, 交阯와 통하는 주요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10) 東甌: 東甌는 戰國末 현재 浙江省 東部 甌江 유역 일대에 살았던 越族과 그 거주지역을 일컫는 명칭이다. 당시 嶺南지역의 桂江과 潯江 일대에도 또 다른 越族이 살고 있어 이 월족과 구별하기 위해 東甌라 하였다. 그리하여 晉代 郭璞注 『山海經』에, “甌在閩海中，鬱林郡爲西甌”라고 하였다. 漢初에 東甌王이 東甌에 도읍하였고, 後漢때 永寧縣을 설치, 隋代에 永嘉縣으로 개칭, 唐宋 이래 溫州에 해당한다. 地名의 유래에 대해서는 『素隱』에 인용된 姚氏에 의하면, 강 이름이며, 또 劉宋의 鄭緝之의 『永嘉記』에, “이 강은 永寧山에서 발원하며 30여 리를 흐르는데, 郡城에서 5리 떨어진 곳에서 강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하였다. 또, 옛날 동구왕의 도성이 있어 정이 있고 돌을 쌓아 도로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 길이 남아 있다(永嘉記: 水出永寧山, 行三十餘里, 去郡城五里入江。昔有東甌王都城, 有亭, 積石爲道, 今猶在也.)”고 전하고 있다.

11) 吳王 濞: 吳는 한초 同姓 제후에게 분봉한 나라 중 하나로 東陽, 彰郡, 會稽 등 3郡을 관할하였고 廣陵(현재의 江蘇省 揚州 西北)에 도읍하였다. 吳國의 彰郡은 銅 생산지였으며 해변가의 소금 생산으로 부강국이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유민을 초치하여 동과 소금 생산, 운반 등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文帝 때 吳太子가 입조하였을 때 태자와 함께 바둑 때문에 다투다가 태자 劉啓(후에 景帝)에게 피살되어 이 일로 인해 吳王 濞는 20여 년 동안 稱病하고 입조하지 않았다. 마침내 景帝 3년(전154) 廣陵(현재의 江蘇省 揚州)에서 기병하여 楚와 연합해서 淮水를 건너 서진하여 진격하였다. 이에 景帝는 太尉 周亞夫 등 장군을 파견하여 吳楚 연합군을 공격하였으나 진압에 진전이 없자 吳의 丞相을 지내던 爰盎의 건의에 따라 처음 반란의 빌미가 되었던 削藩令을 제안한 晁錯을 죽여 七國의 난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유리한 상황에 있었던 吳王 濞는 스스로 ‘東帝’를 자칭하며 황제의 명을 받들기를 거부, 전쟁은 계속되었다. 吳楚軍이 洛陽을 향해 진군하던 중 景帝의 동생인 劉武의 封國인 梁國에서 대치를 하게

일으켰을 때, 오왕은 민월을 반란에 동참시키려 했으나 민월은 이에 응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동구만이 오에 동참했다. 오가 격파될 즈음에 동구(東甌)는 한의 뇌물을 받고 오왕을 단도(丹徒)¹²⁾에서 살해하였다. 이 때문에 동구는 주살당하지 않고 귀국할 수 있었다.¹³⁾

吳王子子駒亡走閩越，怨東甌殺其父，常勸閩越擊東甌。至建元三年，閩越發兵圍東甌。東甌食盡，困，且降，乃使人告急天子。天子問太尉田蚡，蚡對曰：「越人相攻擊，固其常，又數反覆，不足以煩中國往救也。自秦時棄弗屬。」於是中大夫莊助詰蚡曰：「特患力弗能救，德弗能覆；誠能，何故棄之？且秦舉咸陽而棄之，何乃越也！今小國以窮困來告急天子，天子弗振，彼當安所告愬？又何以子萬國乎？」上曰：「太尉未足與計。吾初即位，不欲出虎符發兵郡國。」乃遣莊助以節發兵會稽。會稽太守欲距不爲發兵，助乃斬一司馬，諭意指，遂發兵浮海救東甌。未至，閩越引兵而去。東甌請舉國徙中國，乃悉舉衆來，處江淮之間。

오왕(吳王)의 아들 자구(子駒)는 민월(閩越)로 도망갔는데, 동구(東甌)가 그 아버지를 죽인 것을 원망하여 항상 민월(閩越)에게 동구를 칠 것을 권하였다. 건원(建元) 3년(전138)에 마침내 민월이 군사를 일으켜 동구를 포위하였다. 동구의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위기에 처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동구는] 사람을 보내 천자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천자가 태위(太尉)¹⁴⁾인 전분(田蚡)¹⁵⁾에게 대책을 묻자, 전분이 대답하였다.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되었는데, 이때 周亞夫가 이끄는 漢軍이 남하하여 吳軍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淮水 북쪽에서 漢軍에 유리한 평지에서 전투를 벌여 吳楚軍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吳王 濞는 패하여 도주하여 長江 이남의 丹徒(현재의 江蘇省 鎮江)로 물러났다. 漢은 吳軍 중에 포함되어 있던 東越人을 시켜 吳에 반기를 들게 하였는데, 東越人들이 마침내 吳王 濞를 살해하였다. 楚王 劉戊도 자살하여 吳楚七國의 亂은 정월에 시작되어 3월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吳楚七國의 亂이 평정됨으로써 漢初 이래 문제가 되었던 제후왕들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漢武帝의 ‘推恩令’에 의해 ‘強幹弱枝’의 중앙집권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12) 丹徒: 縣名으로 前漢代 會稽郡 속현이었으며, 현재의 江蘇省 鎮江市 동북쪽이다.

13) 『漢書』에는 ‘歸國’ 두 글자가 없다. 『漢書』 「兩粵傳」, “及吳破, 東甌受漢購, 殺吳王丹徒, 以故得不誅.”

14) 太尉: 前漢 초기에 설치한 군사의 최고관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군사를 통솔하거나 황제의 군사고문

싸우는 것이 일상입니다. 또 약속을 자주 반복하기 일쑤여서 중국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가서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대부터 내버려 두고 귀속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중대부(中大夫)¹⁶⁾인 장조(莊助)¹⁷⁾가 진분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만, 힘이 못 미쳐 구원할 수 없거나 덕이 못 미쳐 모두 감화시킬 수 없음을 걱정할 뿐이지, 능히 할 수 있는데 어찌 포기합니까? 또, 진은 함양을 비롯하여 온천하를 포기한 것이지 어찌 월만을 포기한 것이겠습니까?[何乃越也]¹⁸⁾ 지금 작은 나라가 곤란에 처해 천자에게 위급함을 알리러 왔는데, 천자께서 구해 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또, 그리하면 어찌 만국(萬國)을 자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천자는 이 말을 듣고 “태위하고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군사 징발과 통솔 등 실제적 권한은 없었고 상설직이 아니었다. 한무제 때에는 문신으로 충당되었으며 승상 버금가는 지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이후 폐지되었다가 後漢 초에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田蚡이 太尉에 임명된 것은 建元 元年(전140)이고 建元 2년(전 139)에 趙綰과 王臧의 일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史記』「魏其武安侯列傳」, “及建元二年, 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 竇太后大怒, 乃罷逐趙綰·王臧等, 而免丞相·太尉, ……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일설에는 建元 3년인 이때에 田蚡은 列侯의 신분으로 집에 기거하고 있었기에 이 기사를 의문시하고 있는데(『考證』에 인용된 『通鑑考異』와 梁玉繩의 설), 비록 관직에 있지 않아도 그의 발언은 여전히 황제에게 가납되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武安侯雖不任職, 以王太后故, 親幸, 數言事多效”), 기사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태위의 직책으로 진분을 설명한 것은 잘못 표기된 듯하다.

- 15) 田蚡(?~전131): 長陵(현재의 陝西省 咸陽) 사람이다. 景帝의 황후 王娡의 동생이다. 魏其侯 竇嬰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田蚡은 郎官으로 竇嬰 가문과 친분을 맺었다. 孝景帝 말년에 太中大夫가 되었고, 孝景帝 後元 3년에는 武安侯에 봉해졌다. 魏其侯 竇嬰과 함께 漢武帝 초 외척의 신분으로 전횡을 일삼다가 武帝에게 탄핵당할까 두려워하다 병사하였다.
- 16) 中大夫: 『漢書』「百官公卿表」에 의하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중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비이친 석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므로 建元 3년(전138)인 이때에는 아직 秩祿 千石의 관직이다. 前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 17) 莊助(?~전122): 字가 詳, 會稽郡 吳縣 사람이다. 郡의 賢良對策에 추거되어 武帝 때 中大夫에 발탁되었다. 建元 연간에 會稽太守에 제수되었는데, 淮南王 劉晔과 사적으로 친분을 쌓았다가 劉晔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일에 연루되어 파살되었다. 그의 사적은 『漢書』「嚴助傳」에 입전되어 있는데, 莊助를 嚴助라고 하였다. 이는 後漢 明帝의 이름을 기휘한 것이다. 『漢書』「藝文志」에는 嚴助가 지은 賦 3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 18) 何乃越也: 『漢書』「嚴助傳」에는 ‘何但越也’로 되어 있어, 이것에 근거하여 취해 해석하였다.

앞으로 대사(大事)를 논할 수가 없겠구나. 허나 내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 호부(虎符)¹⁹⁾를 내어 군국(郡國)의 병사를 징발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장조(莊助)에게 절(節)²⁰⁾을 주어 회계(會稽)의 군사를 징발하도록 하였다. 회계 태수(會稽太守)가 이에 저항하며 군사를 내주려 하지 않자 장조는 [그의 휘하] 사마(司馬) 한 명의 목을 베어 [황제의] 뜻을 알려 결국 군사를 징발하여 배를 타고 동구(東甌)를 구원하러 나갔다. [군대가] 미처 이르기도 전에 민월(閩越)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동구는 온나라를 바쳐 중국으로 옮겨 가 살 수 있도록 청하였다. 그리고는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장강(長江)과 회수(淮水) 사이에 거쳐하게 되었다.²¹⁾

至建元六年，閩越擊南越。南越守天子約，不敢擅發兵擊而以聞。上遣大行王恢出豫

- 19) 虎符: 沈欽韓에 의하면, 銅으로 만든 符로 호랑이를 새겨 넣어 가운데를 잘라 그 오른쪽은 신하에게 하사하고 왼쪽은 보관하는데,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 둘을 합쳐 증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호부는 陝西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戰國시대로 추정되는 秦 杜虎符이다(그림 참조). 漢代에는 文帝 2년에 虎符제도를 실시, 지방의 군수와 제후들에게 왼쪽 부를 주고, 오른쪽 부는 수도에 남겨 놓았다가 발병시 반드시 부를 합친 뒤에야 실행되었다. 또, 호부에 의해 발병할 때에는 반드시 황제의 詔書 또는 璽書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虎符는 징표로, 조서에는 발병의 목적과 임무가 설명되어 있었다. 虎符제도는 後漢 이후에는 虎符의 發兵은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節이 發兵의 징표가 되었다(陶新華, 『漢代發兵制度』, 『史學月刊』, 2000年 第2期).
- 20) 節: 節과 虎符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虎符는 반쪽은 조정에, 반쪽은 지방관에 지급하여 지방에서 발병할 때에는 중앙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발병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발병 전에는 반드시 중앙의 반쪽 호부가 필요하다. 반면, 節은 처음부터 지방관의 수중에 있어 그 자체가 발병의 징표이기도 하다. 때문에 節을 가진 지방관은 수시로 병사를 동원할 수 있다. 虎符의 사용이 지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한 지역에 한 符만이 가능하지만, 節은 다양한 지방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다. 한대 절은 대나무로 제작하였고 길이는 7~8척이며, 절 위에 소꼬리로 만든 깃대장식이 있으며, 색깔은 처음에 적색이었다가 무제 때 여태자가 절을 위조하여 발병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황색깃발을 더해 구별하였다고 한다(陶新華, 앞의 글).
- 21)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史記』「漢興以來諸侯王年表」에 東甌王 廣武侯 望이 그 무리 4만여 명을 이끌고 항복해 왔고 廬江郡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章，大農韓安國出會稽，皆爲將軍。兵未踰嶺，閩越王郢發兵距險。其弟餘善乃與相、宗族謀曰：「王以擅發兵擊南越，不請，故天子兵來誅。今漢兵衆彊，今卽幸勝之，後來益多，終滅國而止。今殺王以謝天子。天子聽，罷兵，固一國完；不聽，乃力戰；不勝，卽亡入海。」皆曰「善」。卽縱殺王，使使奉其頭致大行。大行曰：「所爲來者誅王。今王頭至，謝罪，不戰而耘，利莫大焉。」乃以便宜案兵告大農軍，而使使奉王頭馳報天子。詔罷兩將兵，曰：「郢等首惡，獨無諸孫繇君丑不與謀焉。」乃使郎中將立丑爲越繇王，奉閩越先祭祀。

건원(建元) 6년(전135)에 민월이 남월을 공격하였다. 남월은 천자와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지 않고 이 사실을 [한에] 알렸다. 천자는 대행(大行)²²⁾ 왕희(王恢)²³⁾를 예장(豫章)²⁴⁾에서 출병하도록 하고, 대농(大農)²⁵⁾ 한안국(韓安國)²⁶⁾을 회계(會

22) 大行: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전객이며 진관이다. 귀의해 오는 만이를 담당한다. 승이 있다. 경제 중원 6년에 대행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무제 태초 원년에 다시 대홍려로 바꾸었다(典客, 秦官, 掌諸歸義蠻夷, 有丞. 景帝中六年) 更名大行令, 武帝太初元年更名大鴻臚).” 秩은 中二千石이며 丞의 秩은 千石이다. 제후왕과 열후 그리고 귀의한 이민족의 책봉, 조빙, 연회에서의 의례를 담당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오는 上計吏들의 접대도 담당하였다. 속관에는 行人令, 丞, 譯官令, 丞, 別火(獄官)令, 丞과 郡邸長丞이 있다.

23) 王恢: 燕나라 사람이며 武帝시기 흉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흉노가 화친을 청하자 한안국과는 반대로 정벌을 주장하여 武帝시기 흉노 원정의 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안한 馬邑 매복전이 실패로 끝난 뒤 그 추죄로 자살하고 말았다. 그와 韓安國과의 흉노전쟁에 관한 논의는 『史記』 「韓長孺傳」에 상세히 실려 있다.

24) 豫章: 漢高帝 초년(전202)에 설치된 郡. 郡治는 南昌이었고 18개 縣을 관할하였다. 분포지역은 贛江, 盱江, 信江, 修水, 袁水 연안이다.

25) 大農: 『史記』 「景帝本紀」에 景帝 中元 6년(전145) “치속내사를 대농으로 고치다(治粟內史爲大農).”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명칭은 ‘大農令’이다. 『集解』에 인용된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치속내사는 진관으로 곡물과 재화를 담당한다(治粟內史, 秦官, 掌穀貨也).”라고 하였으니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관직이다. 『漢書』에는 ‘大司農’으로 되어 있는데, 武帝 太初 원년(전104)에 大司農으로 개칭되었다. 太初 元年 이전이니 대농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26) 韓安國(?~전127): 梁縣 成安(현재의 汝州 小屯村 北쪽) 사람이다. 建元 초에 太尉 田蚡의 추천으로 北地都尉에 임명되었고 얼마 안 있어 大農, 즉 大司農으로 영전하였다. 뒤에 閩越의 원정 뒤에는 御史大夫가 되었으며, 이때 匈奴 원정을 둘러싸고 王恢와 갑론을박을 전개하였다.

稽)에서 출병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장군(將軍)에 임명하였다. 군대가 미처 영을 넘지 못했을 때 민월왕(閩越王) 영(郢)은 군사를 징발하여 험한 지세에 의지하여 저항하였다. 그러자 영의 동생인 여선(餘善)이 (민월의) 상(相) 및 종친들과 [다음과 같이] 모의하였다. “왕이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남월을 공격해놓고 천자에게 주청하지 않으니 천자의 군대가 징벌하러 오고 있소. 지금 한나라의 군대는 수가 많고 강하오. 지금 운종아 이긴다 해도 뒤에 오는 군사는 더 많을테니 나라가 망해야 끝날 것이요. 지금 왕을 죽여 천자에게 사죄합시다. 천자가 이를 받아들여 군사를 물리면 온전히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을 다해 싸웁시다. 이기지 못하면 도망하여 바다로 나갑시다.” 모두들 “좋습니다.”라고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왕을 쳐서 죽이고[縱殺]²⁷⁾ 그 머리를 사신에게 들려보내 대행(大行)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대행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왕을 벌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왕의 머리가 내 앞에 있고 [저들이] 용서를 빌고 있으니 이는 싸우지 않고도 적을 제거한 것이다[不戰而耘].²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의로 군대를 멈추고 대농(大農)의 군대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사신에게 왕의 머리를 가지고 말을 달려 천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두 장군의 군대를 해산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영(郢) 등이 원흉이지, 저 무제(無諸)의 손자인 요군(繇君) 축(丑)²⁹⁾은 홀로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낭중장(郎中將)³⁰⁾을 보내 축을 세워 월요왕(越繇王)으로 삼고 민월(閩越)의 선조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餘善已殺郢，威行於國，國民多屬，竊自立爲王。繇王不能矯其衆持正。天子聞之，爲餘善不足復興師，曰：「餘善數與郢謀亂，而後首誅郢，師得不勞。」因立餘善爲東越王，與繇王並處。

27) 縱殺: 『索隱』에 인용된 劉氏에 의하면, 음이 ‘창(窗)’으로도 읽는다고 하였다. 그 뜻은 치다[撞]는 뜻이다.

28) 不戰而耘: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漢書』에는 ‘耘’이 ‘殞’으로 되어 있다. 그 글자는 ‘풀을 베어 없애다.’는 뜻으로 제거하다는 의미이다.

29) 繇君 丑: 『索隱』에 의하면, 繇의 음은 ‘요(搖)’이고 邑名이며, 丑은 사람 이름이다.

30) 郎中將: 郎中을 총괄하는 관이다. 궁중의 문을 수비하는 직책으로 郎中丞 소속이다. 일의 계통에 따라 車將, 戶將, 騎將으로 불리기도 한다. 秩은 比千石이다.

여선(餘善)은 영(郢)을 살해하고 나서 그 나라에 위엄을 떨쳐 나라 백성들이 모두 그를 따르자 몰래 자립하여 왕이 되었다. 요왕(繇王)은 좀처럼 그 백성을 바로잡아 정통을 유지할 수 없었다. 천자가 이 소식을 들었지만 여선(餘善) 때문에 다시 군사를 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여선이 여러 번 영(郢)과 모의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뒤에 제일 먼저 영을 베었으니 군사를 일으켜 수고롭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선을 세워 동월왕(東越王)으로 삼고 요왕(繇王)과 함께 나란히 거처하게 하였다.

至元鼎五年，南越反，東越王餘善上書，請以卒八千人從樓船將軍擊呂嘉等。兵至揭揚，以海風波爲解，不行，持兩端，陰使南越。及漢破番禺，不至。是時樓船將軍楊僕使使上書，願便引兵擊東越。上曰士卒勞倦，不許，罷兵，令諸校屯豫章梅嶺待命。

원정(元鼎) 5년(전112)에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동월왕 여선이 상서하여 병졸 8천 명을 이끌고 누선장군(樓船將軍)을 따라 여가(呂嘉) 등을 치겠노라고 청하였다. 군대가 계양(揭揚)³¹⁾에 이르자 바다에 파도가 심하다는 핑계로 더 나아가지 않은 채 두 마음을 품고 은밀히 남월과 내통하고 있었다. 한이 번우(番禺)를 격파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때 누선장군 양복(楊僕)³²⁾이 사신에게 서신을 올리게 하여 곧바로 군대를 일으켜 동월을 치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천자는 사졸이 지쳐 있다고 하며 이를 허락하지 않고 군대를 일단 멈추게 하고 모든 교위들에게 예장군(豫章郡) 매령(梅嶺)³³⁾에 주둔하여 명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31) 揭陽: 秦代 설치되었으며 南海郡 속현이다. 治所는 현재의 廣東省 揭陽市 西北이다. 揭陽嶺 남쪽에 있어 揭陽이라 이름하였다.

32) 楊僕: 그의 사적에 대해서는, 『史記』 「酷吏列傳」에 “楊僕은 宜陽 사람이다. 千夫로 관리가 되었다. 河南郡 守 案의 추천으로 御史가 되었고 關東의 도적을 감찰하였다. 尹齊를 모방하여 다스렸다. 벼슬이 主爵都尉에까지 이르러 九卿의 반열에 들어섰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겨 南越이 반란을 일으키자 樓船將軍에 제수하였고 공을 세워 將梁侯에 봉하였다. 荀彘에게 잡혔다가 병사하고 말았다.”고 전한다.

33) 梅嶺: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梅嶺은 會稽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索隱』은 徐廣의 이 설이 틀렸다고 하며 豫章 30리에 梅嶺이 洪崖山 기슭에 있으며 옛날 驛道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正義』는 『括地志』를 인용하여 梅嶺은 虔化縣 동북 128리에 있으며, 虔州는 漢대에도 豫章郡 소속이었으나 두 곳 모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의 江西省 寧都縣 동북에 있다.

元鼎六年秋，餘善聞樓船請誅之，漢兵臨境，且往，乃遂反，發兵距漢道。號將軍駟力等爲「吞漢將軍」，入白沙、武林、梅嶺，殺漢三校尉。是時漢使大農張成、故山州侯齒將屯，弗敢擊，卻就便處，皆坐畏懦誅。

원정(元鼎) 6년(전111) 가을, 여선은 누선장군이 [동월을] 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며 한나라 군대가 국경에 주둔하여 앞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자, 마침내 반기를 들고 군사를 징발하여 한나라와 통하는 길을 막아섰다. 장군(將軍) 추력(駟力) 등을 ‘탄한장군(吞漢將軍)³⁴⁾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백사(白沙),³⁵⁾ 무림(武林),³⁶⁾ 매령(梅嶺)으로 들어가 한의 교위(校尉) 세 명을 죽였다. 이때 한나라에서는 대농(大農) 장성(張成)³⁷⁾과 이전 산주후(山州侯) 치(齒)³⁸⁾를 장수로 삼아 주둔케 하였는데, 이들은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도리어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였기에, 모두 적을 겁내는 나약한 죄로 처형되었다.

餘善刻「武帝」璽自立，詐其民，爲妄言。天子遣橫海將軍韓說出句章，浮海從東方往；樓船將軍楊僕出武林；中尉王溫舒出梅嶺；越侯爲戈船·下瀨將軍，出若邪·白沙。元封元年冬，咸入東越。東越素發兵距險，使徇北將軍守武林，敗樓船軍數校尉，殺長吏。樓船將軍率錢唐轅終古斬徇北將軍，爲禦兒侯。自兵未往。

- 34) 吞漢將軍: ‘한나라를 삼킬 장군’이라는 뜻이다. 한의 ‘누선장군’이나 ‘횡해장군’ 등과 같이 상설직이 아닌 당시 부여받은 임무에 따른 명칭이다.
- 35) 白沙: 현재의 江西省 波陽縣 서쪽이다. 『太平寰宇記』 권107 饒州 鄱陽縣에 “白沙在府西。水路百二十里，沙白如雪。因以爲名”이라 하여 모래가 눈처럼 희어서 地名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 36) 武林: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武林은 豫章의 경계에 있다. 『索隱』은 또한 豫章 북쪽 200리는 鄱陽의 경계에 접해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이 ‘白沙’이며, 작은 물줄기가 호수로 흘러들어가 이름을 ‘白沙阨’이라 한다. 그 동남쪽 80리에 武陽亭이 있고, 亭의 동남쪽 30리의 땅 이름이 武林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白沙와 武林은 모두 閩越에서 京道로 들어가는 통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武林은 현재의 江西省 餘干縣 동북 30리 武陵山에 있다.
- 37) 大農 張成: 『漢書』 「百官公卿表」에는 大農승으로, 『漢書』 「兩粵傳」에는 大司農으로 되어 있다. 張成은 人名인데, 상세한 이력은 없다.
- 38) 故山州侯 齒: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齒는 城陽 共王 劉喜의 아들이다. 武帝 元朔 4년(전125) 山州侯에 봉해졌으나 元鼎 5년에 酎金律에 걸려 삭탈되었기에 ‘이전 산주후’라고 했던 것이다.

여선(餘善)은 ‘무제(武帝)’새를 새겨 자립하여 그 백성을 속이고 망언을 일삼았다. 천자는 횡해장군(橫海將軍) 한열(韓說)³⁹⁾을 보내 구장(句章)⁴⁰⁾에서 출격하도록 하였는데,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 누선장군 양복(楊僕)은 무림(武林)에서 출격하였고, 중위(中尉)⁴¹⁾ 왕온서(王溫舒)⁴²⁾는 매령(梅嶺)에서 출격하였으며,⁴³⁾ 월후(越侯)는 과선장군(戈船將軍)과 하뢰장군(下瀨將軍)⁴⁴⁾이 되어 약사(若邪)⁴⁵⁾와 백사(白沙)⁴⁶⁾에서 출격하였다. 원봉(元封) 원년(전110) 겨울, 모두 동월로 들어갔다. 동월은 평소대로 군대를 일으켜 험한 곳에 의지하여 순북장군(徇北將軍)⁴⁷⁾에게 무림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누선장군의 몇몇 교위(校尉)

39) 橫海將軍 韓說: 『史記』 「衛將軍驃騎列傳」에 “將軍 韓說은 弓高侯의 庶孫이다. 교위로 대장군을 따라 공을 세워 용액후가 되었다. 주금률에 걸려 봉후를 잃었다. 원정 6년에 대조로 횡해장군이 되어 동월을 쳐 공을 세워 안도후가 되었다. 태초 3년에 유격장군이 되어 오원 밖 열성에 주둔하였다. 광록후가 되어 태자궁에서 그를 파내 위태자가 살해하였다(將軍韓說, 弓高侯庶孫也. 以校尉從大將軍有功, 爲龍額侯, 坐耐金失侯. 元鼎六年, 以待詔爲橫海將軍, 擊東越有功, 爲按道侯. 以太初三年爲游擊將軍, 屯於五原外列城. 爲光祿勳, 掘蠱太子宮, 衛太子殺之).”라고 전한다.

40) 句章: 『索隱』에 인용된 鄭氏에 의하면 句章의 句는 음이 ‘구(勾)’이며 會稽의 縣이다. 『正義』에 의하면 句章故城은 越州 鄞縣 서쪽 100리에 있으며 漢의 縣이다. 현재의 浙江省 餘姚市 동남쪽 50리에 있다.

41) 中尉: 수도의 治安을 담당하고 국가의 武庫를 관리하는 관직이다. 병졸을 이끌고 경성을 지키나 때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기도 한다. 九卿 중의 하나이며 秩은 中二千石이다. 후에 ‘執金吾’로 개칭되었다.

42) 王溫舒: 漢武帝기 대표적인 酷吏이다. 陽陵(현재의 陝西省 高陵縣) 사람이며 관리가 되어서 治獄으로 廷史가 되었고, 張湯을 섬겨 御史로 승진하였다. 당시 도적을 감독하였는데, 매우 혹독하여 살상이 많았으며 廣平都尉로 승진, 廣平 일대가 道不拾遺하여 천자가 이 소식을 듣고 河內太守에 임명, 얼마 안 있어 다시 中尉로 승진을 거듭한다. 東越 원정에서 돌아와 비리가 적발되어 잠시 좌천되었다가 中尉 소속 병졸을 돌려 通天臺 축성에 이용한 공로로 少府에 임명되고 다시 右內史까지 승진한다. 뒤에 그가 저지른 비리가 적발되어 三族에 처해져 자살하였다(『史記』 「酷吏列傳」).

43) 『史記』와 달리 『將相表』와 『漢書』 「武帝本紀」에는 韓說과 王溫舒는 會稽에서 출격하고 楊僕은 豫章에서 출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4) 梁廷楠의 『南越吾主傳』에 의하면, 戈船將軍은 鄭巖이고 下瀨將軍은 田甲이었다고 한다. 모두 漢에 귀의해서 후가 된 남월 사람이다.

45) 若邪: 현재의 浙江省 紹興 이남이다. 『漢書』 「兩粵傳」에는 ‘如邪’로 되어 있다. 『正義』에 의하면 越州에 若耶山과 若耶溪가 있다. ‘若’은 ‘如’와 같은 의미이다. 이처럼 『正義』는 若邪를 越州에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沈欽韓은 越州라면 너무 멀다고 생각하여 『輿地廣記』를 인용하여 新昌縣 서쪽에 鹽溪가 있어 일명 ‘若邪溪’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若邪라고 보았다(『考證』, 4674쪽).

46) 白沙: 현재 江西省 鄱陽縣 서쪽에 있다. 『正義』는 豫州에 白沙山이 있고 백사 동쪽이 이전의 閩州라고 하였다.

를 괴멸시키고 장리(長吏)⁴⁸⁾를 살해하였다. 누선장군은 전당(錢唐)⁴⁹⁾의 원종고(輓終古)⁵⁰⁾를 이끌고 순북장군을 베니, [원종고를] 여아후(禦兒侯)⁵¹⁾에 봉하였다. [누선장군이 거느린 한나라] 군대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의 일이었다[自兵未往].⁵²⁾

故越衍侯吳陽前在漢，漢使歸諭餘善，餘善弗聽。及橫海將軍先至，越衍侯吳陽以其邑七百人反，攻越軍於漢陽。從建成侯敖，與其率，從繇王居股謀曰：「餘善首惡，劫守吾屬。今漢兵至，衆彊，計殺餘善，自歸諸將，儻幸得脫。」乃遂俱殺餘善，以其衆降橫海將軍，故封繇王居股爲東成侯，萬戶；封建成侯敖爲開陵侯；封越衍侯吳陽爲北石侯；封橫海將軍說爲案道侯；封橫海校尉福爲繚嫫侯。福者，成陽共王子，故爲海常侯，坐法失侯。舊從軍無功，以宗室故侯。諸將皆無成功，莫封。東越將多軍，漢兵至，棄其軍降，封爲無錫侯。

이전 월연후(越衍侯)⁵³⁾ 오양(吳陽)은 전에 한나라에 머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조정에서는 그를 보내 여선(餘善)을 회유하였으나 여선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횡해장군이 먼저 도착하였을 즈음에 월연후 오양은 자신의 읍인(邑人) 700여 명과 함께 여선에게 반기를 들고 한양(漢陽)⁵⁴⁾에서 월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건성후(建成侯) 오(敖)⁵⁵⁾를 따라 그 무리

47) 徇北將軍: 순북은 ‘徇罰 북방’, 즉 북방[漢]의 죄를 돌아다니며 대중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다.

48) 長吏: 『漢書』 「兩粵傳」에는 ‘長史’로 되어 있다.

49) 錢唐: 縣名. 『正義』는 杭州의 縣이라 하였고, 顏師古는 “회계현(錢唐, 會稽縣也)”이라 하였다. 治所가 현재의 浙江省 杭州市 서남쪽에 있다.

50) 輓終古: 『正義』에 의하면 輓은 姓이고 終古가 이름이다.

51) 禦兒侯: 『集解』에 인용된 『漢書音義』에 의하면, 禦兒는 吳南亭이다. 『正義』는 ‘禦’자가 당시에는 ‘語’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語兒鄉은 蘇州 嘉興縣 남쪽 70리에 있는데, 官이 설치한 도로에 임해 있다고 한다. 현재의 浙江省 餘杭縣 동북에 해당한다.

52) 自兵未往: 『考證』은 이 구절을 뒤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화서국본에 따라 문단을 앞에서 끊어서 해석하였다. 『考證』처럼 뒷문단과 연결시키면, 한나라 군대가 이르기 전에 월연후 오양이 여선을 죽인 것이 된다.

53) 越衍侯: 東越에서 봉한 衍侯이겠지만 편의상 월연후라 번역하였다.

54) 漢陽: 秦이 천하를 통일한 뒤 貴州 일대에 黔中郡을 설치하였고 아울러 西南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

들과 함께 요왕(繇王) 거고(居股)를 좇아 모의하여 말하기를, “여선이 이 모든 일의 원흉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 군대가 오고 있는데, 그 수도 많을뿐더러 힘도 막강합니다. 여선을 죽여서 한나라 장군들에게 귀순한다면 요행히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여선을 함께 죽이고 그 무리를 이끌고 횡해장군에게 항복하였다. 그래서 요왕 거고는 동성후(東成侯)⁵⁶로 식읍 만호(萬戶)에 봉해졌으며, 건성후 오는 개릉후(開陵侯)⁵⁷에, 월연후 오양은 북석후(北石侯)⁵⁸에, 횡해장군 한열은 안도후(案道侯)⁵⁹에, 횡해교위(橫海校尉) 복(福)은 요영후(繚嬰侯)⁶⁰에 봉해졌다. (유)복은 성양공왕(成陽共王)⁶¹의 아들인데, 이전에 해상후(海常侯)⁶²였다가 위법하여 후작을 잃었다. 종군한 지는 오래 되었으나 공을 세우지는 못했는데, 종실인 까닭에 후가 되었다. 그 밖의 여러 장수들은 모두 공을 세우지 못했으므로 책봉받지 못했다. 동월의 장수인 다군(多軍)⁶³은 한나라 군대가 도착하자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항복해서 무석후(無錫侯)⁶⁴에 봉해졌다.

었는데, 清代 考證學者에 의하면 이때 설치된 縣은 刹成(현재의 黎平), 毋劍(현재의 獨山), 且蘭(현재의 福泉), 夜郎(현재의 石阡), 漢陽(현재의 赫章) 등이었다고 한다.

- 55) 建成侯 敖: 『集解』에 인용된 徐廣에 의하면, 建成侯 敖 역시 東越의 신하이다.
- 56) 東成侯: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東成은 九江에 있다고 했는데, 東城이라고도 하며, 縣名으로 그 治所는 현재의 安徽省 定遠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 57) 開陵侯: 『索隱』에 인용된 韋昭에 의하면, 開陵은 臨淮郡 소속이다. 현재의 江蘇省 長江 以北 또는 이웃한 安徽省 경내로 추정된다. 新 王莽 때 폐국되었다.
- 58) 北石侯: 北石은 일명 ‘外石’이라고도 하며 濟南郡(현재의 山東省 章丘市 서쪽) 소속이다.
- 59) 案道侯: 案道는 『漢書』「高惠高后文功臣表」注에는 ‘齊’에 있다고 하였고, 『史記志疑』에 案道는 號로 대개 『周書』「小明武解」에 “案道攻巷, 無襲門戶”에서 취한 것으로, 그 지역은 상고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史記新注』 第3册 「佞幸列傳」 ‘案道侯韓說’주 참조. 『漢書』「兩粵傳」에는 ‘按道’로 되어 있다.
- 60) 繚嬰侯: 『索隱』에 인용된 服虔에 의하면, 嬰의 음은 ‘영(榮)’이고 縣의 이름이다.
- 61) 成陽共王: 『漢書』「兩粵傳」에는 城陽으로 되어 있다. 제2대 城陽王 劉喜. 文帝 4년(전176) 城陽王에 즉위, 제위 33년, 中元 6년(전144)에 사망, 시호는 共王. 사서에는 城陽共王이라 칭한다.
- 62) 海常侯: 海常은 일설에 東萊郡(治所는 현재의 山東 掖縣)이라고도 하고 琅琊郡(治所는 현재의 山東省 諸城縣)이라고도 한다. 『漢書』「王者侯年表」.
- 63) 多軍: 『集解』에 인용된 『漢書音義』에 의하면, 多軍은 이름이라 하였는데, 『索隱』에 인용된 李奇 역시 이름이라 하였다. 다만, 韋昭는 多是 성이고, 軍이 이름이라고 하였다.
- 64) 無錫侯: 無錫은 현재의 江蘇省 無錫市이다.

於是天子曰東越狹多阻，閩越悍，數反覆，詔軍吏皆將其民徙處江淮間。東越地遂虛。

이에 천자는 “동월은 땅이 좁고 험하며 민월 사람들의 성정은 사납고 여러 번 배반하였다.” 고 하여 군리들에게 명하여 그 백성을 옮겨 장강(長江)과 회수(淮水) 사이에 살도록 하였다. 이에 동월(東越)⁶⁵⁾의 땅은 텅 비게 되었다.

太史公曰：越雖蠻夷，其先豈嘗有大功德於民哉，何其久也！歷數代常爲君王，句踐一稱伯。然餘善至大逆，滅國遷衆，其先苗裔繇王居股等猶尚封爲萬戶侯，由此知越世世爲公侯矣。蓋禹之餘烈也。

태사공은 말한다. 월은 비록 오랑캐였으나, 일찍이 그 선조가 백성에게 크나큰 공덕을 남겼던가, 어찌 이리 장구할 수 있었던가? 대대로 언제나 군왕이 있었으며 구천(句踐)은 한때 패자를 자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선의 대에 이르러 대역죄를 지어 나라는 멸망하고 그 백성은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그 후예인 요왕 거고(居股) 등은 여전히 만호(萬戶)의 후(侯)에 봉해졌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월나라가 대대손손 공후(公侯)가 된 것은 우왕(禹王)이 후세에 남긴 공덕 때문임을 알 수 있겠다.

65) 東越: 『考證』에 인용된 中井積徳에 의하면, 閩越과 함께 언급될 때 東越은 東甌의 땅일 뿐이다. 이전에 이미 동구가 한나라 내지로 천사했기 때문에 그 땅은 민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동구라 할 수 없기에 월의 동쪽 변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말한 東越은 閩越에 소속된 東甌의 옛땅을 포함한 것으로 남월과 상대해서 말한 것이다(『考證』, 4676쪽).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注』 1, 서울: 신서원, 2004(影印)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十三經,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許嘉璐主編, 『二十四史全譯: 史記』,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瀧川龜太郎, 『史記會注考證』, 臺北: 宏業書局, 1974(再版)

김한규,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서울: 一潮閣, 1982

劉煒, 김양수 옮김, 『황제의 나라: 秦漢 시대』, 서울: 시공사, 2004

董楚平, 『吳越文化新探』,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8

福建省博物館編, 『閩越考古研究』,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1993

余天熾 等, 『古南越國史』, 桂林: 廣西人民出版社, 1988

中國百越民族史研究會編, 『百越民族研究』,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0

陳國強 等, 『百越民族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何光岳, 『百越原流史』,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2

許智范·肖明華, 『南方文化與百越滇越文明』,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5

黃森章, 『南越國』,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4

陶新華, 「漢代發兵制度」, 『史學月刊』 2002-2, 2000

辛德勇, 「秦始皇三十六郡新考(上)」, 『文史』 2006-1, 2006

小林聰, 「漢時代における中国周辺民族の内属について」, 『東方学』 82, 1991

齊藤實, 「前漢武帝の對外政策 - 兩越·西南夷·朝鮮の郡県化と泰山封禪」, 『日本大学芸術学部紀要』, 1988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大辭典: 歷史地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7

譚其驤 編, 『中國歷史地圖集(秦·西漢·東漢時期)』第2冊, 北京: 地圖出版社, 1982

史爲樂,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서남이열전(西南夷列傳)



「서남이열전(西南夷列傳)」 해제

『사기』 「서남이열전」은 「동월열전」과 「남월열전」이 군장(君長)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것과는 달리 종족 중심으로 서술을 시작하였다. 우선 맨 앞부분에서는 100여 개 군장(君長)을 종족적·지리적 친연관계에 따라 야랑(夜郎), 진(滇, 靡莫), 공도(邛都), 수(巂)·곤명(昆明), 사(徙)·작도(笮都), 염(冉, 冉과 같음)·방(駟), 백마(白馬) 등으로 대표되는 7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생활양식에 따라 토착, 이목, 혼합의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서남이 군장의 종류와 구분에 관한 개관을 끝낸 뒤에는 장교(莊蹻)와 당몽(唐蒙)을 중심으로 서술이 진행되고 있다. 장교의 진지(滇池) 지역 진입 및 건국고사와 진대(秦代)의 치리(置吏), 그리고 진의 멸망 이후 파촉(巴蜀) '고요(故徼)'로의 철수와 그 이후의 상황 등 간략하게나마 한무제 당시에까지 이르는 전사(前史)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당몽이 남월 사행 이후 무제의 허락과 지원을 얻어 '남이도(南夷道)' 개척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건으로부터 진왕(滇王)이 입조(入朝)하고 익주군(益州郡)이 설치되는 시기까지 약 30년간에 걸친 서남이 경략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마천은 「자서(自序)」에서 “당몽이 사자(使者)로 가서 야랑을 경략하여 교통하고, 공(邛)과 작(笮)의 군장이 내신(內臣)이 되어 한조정의 관리를 받아들여 기를 청한 까닭에, 「서남이열전」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서남이열전」 역시 당몽이라는 인물을 위해 편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남이열전」 역시 다른 외국전과 동일한 논리로 편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광리(李廣利)의 활동을 서술한 「대완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 정보로 '서남이'와 '서역' 지역의 민족상황에 대해 먼저 서술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조정에서 서남이에 대한 인식과 그 역사가 일천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마

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인들에게 서남이가 적극적으로 인식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변군의 설치와 함께였다. 사마천 자신이 종군하여 살펴보았던 서남이 변군 설치과정의 기원은 기껏해야 동시대인들인 당몽과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남이도와 서이도(西夷道) 개척이었다. 그리고 사마천이 열전의 모두(冒頭)에 배치한 서남이 군장에 대한 개관은 사실상 변군 개척과정을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였다. 즉, 서남이 군장에 대한 선인식이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변군 개척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다.

사실 당시의 ‘서남이’는 그 자체로서 한인들의 주목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당몽이 서남이 지역 경략을 위해 한무제를 설득한 것은 서남이 지역 자체가 지닌 매력때문이 아니라, 남월로 가는 또 다른 길의 존재 때문이었다. 즉, 야랑과 장가강(牂柯江)을 통해 남월을 기습할 수 있다는 정보가 당몽이 한무제로부터 탐험대를 구성할 권리와 자금을 얻어 낼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도로의 개착 문제로 잠정 중단되었던 서남이 경영이 재개된 것은 다른 아닌 신독도(身毒道)의 존재 때문이었다.

주지하듯이 서역으로부터 돌아온 장군은 흉노의 위협이 상존하는 비단길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서방으로의 교역로에 관한 정보를 조금은 과장해서 무제에게 제공하였다. 한무제는 서남이 지역 자체가 아니라 진귀한 물건의 교역에 대한 욕심으로 서남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마천의 「서남이열전」이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서남이열전」이나 상거(常璩)의 『화양국지(華陽國志)』 「남중지(南中志)」에 비하여 소략하고 조금은 딱딱한 중국측 이야기들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서남이열전」이 전하는 ‘서남이’ 지역의 공간적 범주는 현재의 사천성 남부, 귀주성의 서부, 운남성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는 다수민족인 한족 외에 약 29종의 ‘소수민족’이 거주한다. 이들 중 야랑, 전, 공도, 수·곤명, 사·작도, 염·방, 백마의 군장들이 대표하는 종족집단들이 현재의 어떠한 소수민족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지난 50년간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그러나 2천여 년이나 되는 시간적 차이를 건너 존재하는 종족집단 사이의 혈연적 관계가 선명히 드러나지는 못하였다.

야랑의 위치와 강역에 대하여는 설이 다양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운남성 동부와 귀주성 서부에 이르는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야랑의 족속은 백월(百越)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운남을 비롯한 서남지역 고대 소수민족의 족속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저강(氐羌) 계통, 백월(百越) 계통, 백복(百濮, 孟高棉) 계통이 그것이다. 백월 계통

이 분포한 지역은 남월(지금의 광둥·광서), 교지(交趾, 현재의 베트남 북부), 야랑, 동사(同師, 현 운남성 保山) 등의 이남 지대이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는 미막(靡莫)을 이읍(夷邑)의 명칭이며 전(滇)과 동성(同姓)이라고 하였는데, 미막은 음명보다는 족명(族名)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다. 방국유(方國瑜)는 강족어를 조사한 주여성(周汝成)이 제기한 미막이 옛 강족이라는 설을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백월 계통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

‘전(滇)’은 국명이자 읍명이며 부락명이기도 하다. 현재는 운남성을 지칭하는 별칭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명청대 이후의 일이다. 그 읍의 위치는 대체로 운남성 진녕현(晉寧縣) 진성진(晉城鎭)으로 비정된다. 전국(滇國)의 강역은 대체로 후한대의 익주군(益州郡), 즉 전한대 익주군에서 서부도위(西部都尉)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전지(滇池) 주변의 평패(平壩) 지구로부터 곡정(曲靖)에 이르는 지역에 해당한다.

‘수(耇)’의 족속에 관해서는 ‘백복’ 계통으로 보는 시각과 ‘저강’ 계통으로 보는 시각이 맞선다. 그러나 그 분포지역을 현재 운남 보산(保山) 지역으로 비정하는 것은 대체로 차이가 없다. ‘곤명(昆明)’에 관해서는 저강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그 분포지역 또한 운남성의 서부지역인 이해지구를 중심으로 분포한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사(徙)’와 ‘작도(笮都)’에 관해서도 작도를 공도(邛都)와 묶어 옛 강인(羌人)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공도는 복계(濮系)의 북족(僂族)이고 작도는 강족이며 ‘사(徙)’는 토착형의 저족이라는 설이 있다. 그 거주지에 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데, 삼국시대 한가군(漢嘉郡)에 해당하는 지금의 四川省 남부 아안(雅安) 지구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염(冉)’과 ‘방(駟)’에 관하여는 『사기정의』에서 『괄지지(括地志)』를 인용하여, “염방은 촉(蜀)의 서쪽 요외(徼外)의 강(羌)으로, 무주(茂州)와 염주(冉州)는 본디 염방국(冉駟國)의 땅이다. 『후한서』에서 이르기를, 염방의 산에는 6이(夷), 7강(羌), 9저(氏)가 있는데, 각기 부락을 가졌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현재는 저인(氏人)의 일종이라는 설과 저도 강도 아닌 티베트 지역에서 동천하여 온 일족이라는 설, 또 강족으로 보는 설 등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 거주지에 대하여는 사천 서부 아빠장족자치주(阿壩藏族自治州) 경내로 보는 설이 대세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백마(白馬)’에 관하여는 ‘저류(氏類)’라고 한 사마천의 견해를 따르는 설과 강의 일종으로 보는 설이 병립하며, 그 활동범위는 후한시기의 촉군(蜀郡) 북부도위(北部都尉) 광한속국(廣漢屬國) 경내, 즉 오늘날 사천성 면양(綿陽) 지구 북부와 감속성

무도(武都)지구 남부의 감숙성과 사천성의 경계지역으로 비정된다.

「서남이열전」 기술 내용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것은 사마천의 서남(出使)이다. 사마천은 「자서」에서 낭중(郎中)으로서 “명을 받들고 출사하여 서쪽으로 파, 촉 이남을 정벌하고 공(邛), 작(笮), 곤명(昆明)을 경략하고 돌아와 복명하였다.”라고 적었다. 『사기집해(史記集解)』에서는 서광(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사마천의 출사를 서남이 평정이 이루어지는 원정(元鼎) 6년(111년)의 일로 보았지만, 방국유는 사마천이 사자로서 종군하였음을 지적하여 원정 5년의 일로 비정하였으며, 그 임무 또한 황제의 눈과 귀가 되어 원정의 진행 상황과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고 적었다. 사마천이 직접 군사활동에 참여하였든 정보수집활동에 그쳤든 그가 서남이 지역에 군현이 설치될 당시 서남이 변군지역을 직접 둘러본 것은 사실이고, 이 경험이 그가 「서남이열전」을 찬술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서남이 지역에 대한 서술에서는 제로(齊魯)지방과는 달리 자신의 여행 경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이 지역에서의 사료수집이나 정보획득에서 개인적인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남이전」의 내용은 대부분 한조정의 공식적인 문서에 입각한 정보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역주: 정 먼
- 교열: 김유철

「서남이열전(西南夷列傳)」역주

西南夷君長以什數 夜郎最大；其西靡莫之屬以什數，滇最大；自滇以北君長以什數，邛都最大；此皆魋結，耕田，有邑聚。其外西自同師以東，北至牂榆，名爲嵩·昆明，皆編髮，隨畜遷徙，毋常處，毋君長，地方可數千里。自嵩以東北，君長以什數，徙·笮都最大；自笮以東北，君長以什數，冉駹最大。其俗或土箸，或移徙，在蜀之西。自冉駹以東北，君長以什數，白馬最大，皆氐類也。此皆巴蜀西南外蠻夷也。

서남이(西南夷)¹⁾의 군장(君長)이 열을 헤아리는데,²⁾ [그 중에] 야랑(夜郎)³⁾이 가장 크다.

- 1) 司馬遷은 「自序」에서 “唐蒙이 使者로 가서 夜郎을 經略하여 交通하고, 邛·笮의 君이 內臣이 되어 吏를 받아들여 請한 까닭에, 「西南夷列傳」을 지었다.”라고 하여 「서남이열전」을 지은 경위를 밝히고 있다. 瀧川資言(1865~1946)의 『史記會注考證』(이하 『考證』)에서는 丁謙(1843~1919)과 凌雉隆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정점은 말하기를 “漢의 西南夷는 지금의 四川 남쪽, 貴州의 西南 및 雲南 全省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凌雉隆은 “이 열전은 夜郎·滇 두 國을 머리로 하여 대개 漢에서 封建한 곳이다.”라고 말하였다(瀧川資言, 1935: 4689~4690). 丁謙은 청말부터 民國시기까지 활동한 지리학자이며, 凌雉隆은 明代의 官료이자 학자로 1540년에 進士에 金제하였으며 『漢書評林』·『史記評林』 등의 저서가 있다. 唐代 張守節의 『史記正義』(이하 『正義』)에서는 “[西南夷는] 蜀의 남쪽에 있다(在蜀之南).”라고 하였다. 『사기』에는 ‘西南夷’라고 되어 있어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漢書』 「西南夷列傳」에서는 ‘(西)[南]夷’라 표기하였다. 전체 記事의 구조로 보건대, 『漢書』의 표기가 옳다고 생각된다. ‘서남이’로 보면, ‘서남이의 군장이 열 몇 있는데, 그 중 夜郎이 가장 크다.’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서남이’의 범주가 문제가 된다. 『史記』 「西南夷列傳」의 말미에 “西南夷 君長이 백을 헤아리는데……”라 기술한 부분과도 모순일 뿐더러, 滇·邛都·徙·笮都·冉駹·白馬 등의 大君長 및 昆明·嵩 등의 種족집단을 제외한 ‘西南夷’로

불리는 집단이나 공간이 따로 존재했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南夷’는 蜀郡 남쪽의 모든 蠻夷에 대한 다소 추상적 통칭이라기보다는 犍爲郡과 牂牁郡에 ‘屬’했던 蠻夷들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唐代 司馬貞의 『史記索隱』(이하 『索隱』)에서도 ‘南夷’를 ‘犍爲(郡)와 牂牁(郡)’ 내지 ‘牂牁(郡)와 夜郎(國)’을 가리키는 것이라 풀고 있다(『史記』卷117 司馬相如列傳, 3047; 『史記』卷117 司馬相如列傳, 3052). 이는 漢武帝 시기 서남이 개척이 唐蒙의 ‘夜郎道’, ‘南夷道’ 개척으로부터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비하여 司馬相如가 화유하여 ‘約爲置吏’한 ‘邛·笮’은 ‘西夷’라 칭하였다. 따라서, 『漢書』의 기술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史記』 기사의 ‘西南夷’는 ‘南夷’의 誤寫로 보아야 할 것이다. 『考證』은 “西字는 衍字인 듯하다. 『漢書』에는 없다.”라고 한 中井積徳의 말을 소개하고 있다(『瀧川資言, 1935: 4690).

2) 『索隱』: 劉氏는 [數의] 音을 所와 具의 半切이라고 하였고, 鄒氏는 音을 所와 主의 半切이라고 하였다(劉氏音所具反. 鄒氏音所主反).

3) 사마천이 말하는 야랑(夜郎)은 ‘國’名이다. 남이의 10여 군장국 중 하나로 야랑후 혹은 야랑왕의 邑과 야랑에 복속한 주변 小邑들로 구성된 ‘國’이었겠지만, 『後漢書』에 이르면 『史記』나 『漢書』에서 말하는 남이 10여 군장의 권역을 모두 아우르는 ‘國’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索隱』에서 司馬貞은 『後漢書』를 인용하여 “夜郎은 東으로 交阯에 接하고, 그 땅은 胡南에 있으며, 그 君長은 본디 竹에서 나와, 竹을 姓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按: 後漢書云「夜郎東接交阯, 其地在胡南, 其君長本出於竹, 以竹爲姓也」). 『사기』와 『후한서』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 즉 ‘야랑’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야랑’의 권역을 더욱 크게 묘사하는 『후한서』의 인식의 배경을 추적해 볼 만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다. 대부분의 정치공동체의 이름, 특히 오래 존속한 정치공동체의 이름은 그 정치공동체가 소멸하더라도 그 인간 집단과 그 인간 집단이 채운 공간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살아남는다. ‘야랑’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安帝 永初 元年(107), 九真郡 徼外の 夜郎 蠻夷가 ‘舉土內屬’하였다는 『後漢書』 「孝安帝紀」(207쪽)와 「南蠻西南夷列傳」(2837쪽)의 기록은 ‘야랑국’이 교지와 접했다는 기록이 전혀 근거 없는 인식이 아님을 보여 준다.

夜郎은 또한 郡縣의 이름이기도 하였다. 『索隱』에서 韋昭의 말을 들어 “漢代에 縣을 설치하여 牂牁郡에 속하게 하였다(韋昭云: 「漢爲縣, 屬牂牁」).”라고 하였듯이, 야랑은 漢代에 牂牁郡에 속한 현이었다. 그리고 晉代와 南朝 시기에는 郡의 이름이었다. 그 위치와 강역에 대하여는 설이 다양하다. 『索隱』에서는 “犍爲屬國이다.”라고 한 荀悅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荀悅云: 「犍爲屬國也」), 『正義』 또한 대체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正義』는 “지금 瀘州 남쪽 큰 강 南岸의 協州와 曲州는 본디 夜郎國이었다(今瀘州南大江南岸協州·曲州, 本夜郎國).”라고 했는데, 이는 대체로 후한대의 건위속국의 위치 및 강역에 부합한다. 한편, 『考證』은 姚范(1702~1771)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夜郎은 지금의 遵義府 桐梓縣이고, 瀘州의 남쪽 曲靖州, 貴州의 普安州, 石阡府 興隆, 思南과 廣西 諸州 대부분이 夜郎의 땅이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0). 요점은 현재의 귀주성 桐梓縣을 그 중심지로, 운남성의 동부, 귀주성의 상당부분과 廣西省의 서부 일부를 야랑국의 강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학자들 또한 설이 분분하다. 朱俊明에 따르면, 우선 야랑국의 강역에 관하여는 크게 漢代 牂牁郡의 강역에 해당한다는 說(一郡說)과 장가군을 넘어서 여러 군이 경계에 해당한다는 설(數郡說)이 있고, 일군설과 수군설에 대체로 각기 3종씩

그 서쪽에 미막(靡莫)⁴⁾의 족속이 열을 헤아리는데, 전(滇)⁵⁾이 가장 크다. 전의 이북에도 군장

의 구체적 설이 있다고 한다. 대체로 작게는 현재 귀주의 서남과 서북, 운남의 동북과 동남 그리고 광서의 북쪽 일부를 포함하는 영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크게는 북쪽과 서북쪽으로 귀주성 전역과 사천 남부와 운남 동북을 포괄하고, 남쪽으로는 현 광서성의 田林과 南丹까지, 동쪽으로는 湖南省의 新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쪽으로 운남의 곡정과 육랑에 달하는 지역을 설정하기도 하였다(夜郎史探 朱俊明, 1988: 10). 2000년에 貴州의 夜郎 연구 50년을 평가하는 글을 내어놓은 熊宗仁은 여전히 주준명의 정리를 되풀이하고 있다(熊宗仁, 2000: 5).

또, 주준명에 따르면, 夜郎國의 핵심세력을 且蘭部로 보는 설과 夜郎部로 보는 설이 나뉘는데, 차란부의 위치는 현재의 貴州省 麻江·福泉·黃平 일대로 보는 데 별 이의가 없다. 이에 비하여 야랑부의 경우는 그 설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① 현재의 귀주성 서남부의 黔西 南州 및 六盤水市 일대로 보는 설, ② 현재의 운남성 동북쪽의 宣威·霑益 일대로 보는 설, ③ 현재의 귀주의 서남지구, 즉 望謨(蔣徹, 1994)과 貞豐 일대로 보는 설, ④ 현재의 귀주성 서북부와 운남 동북부 일대로 보는 설이 그것이다(夜郎史探 朱俊明, 1988: 10~11). 웅정인의 정리 또한 이와 비슷한데, 다만 야랑부 중심설의 중심에 대하여 두 가지 설을 추가하였다. 즉, 赫章縣 可樂鄉(劉義, 2004)설과 귀주성 중부의 安順·六枝 일대 설이다(熊宗仁, 2000: 5). 그리고 花溪의 燕樓村이나 桐梓縣의 夜郎鎮, 興義縣과 銅仁 일대(朱路, 2000: 44) 등을 야랑왕의 古都로 지적하는 연구들 또한 이들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金氏族譜> 일부와 대량의 古墓群과 古城池 유지 등이 발견된 長順縣 廣順鎮 일대가 유력한 후보지로 주목되고 있다(朱路, 2000: 44~45; 沙先貴, 2005: 11~13).

夜郎의 族屬은 ‘百越系統’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운남을 비롯한 서남지역 고대 소수민족의 족속은 크게 세 개의 갈래로 정리된다. 氐羌系統, 百越系統, 百濮(孟高棉)系統이 그것이다(尤中, 1994: 19~35; 馬躍, 1983: 1~24; 王文光, 1997: 240~253). 百越系統에 속하는 고대의 족명으로는 ‘濮’과 ‘僚’ 등이 있고, 越·西甌·雒越·夜郎·句町·漏臥·滇越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백월 계통이 분포한 지역은 南越(지금의 廣東·廣西), 交趾(현재의 월남 북부), 夜郎, 同師(현재의 雲南省 保山) 등의 이남지대이다(尤中, 1994: 30). 현재 소수민족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설이 분분한데, 현재의 仡佬族이 바로 야랑의 후예라는 설도 있고, 현재 귀주 일대에 거주하는 彝族이라는 설도 있다. 아울러, 고대의 야랑인이 점차 변하여 현재의 仡佬族과 布依族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현재의 仡佬, 布依, 侗, 水, 壯 여러 족이 고대의 야랑과 어느 정도씩 관련을 갖는다고 하는 설도 있다(夜郎史探 朱俊明, 1988: 9). 다만, 貴州에 거주하며 ‘竹崇拜’의 풍속을 가진 仡佬族과 夜郎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다. 熊宗仁은 夜郎의 족속 및 주체민족에 관한 연구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周代 徐淮夷 중의 謝人이 천사하여 왔다는 謝人說, ② 현재 옛 夜郎國의 강역 내에 거주하는 布依·水·苗·彝·仡佬 중 흘료가 야랑왕족의 후손이며 토착민족이라는 가정 위에 흘료의 선민인 僚人和 濮人이 야랑의 주체민족이었다는 仡佬族先民濮人說, ③ 백월 계통의 료인과 남만계의 복인, 현 이족의 선민인 강족이 모두 주체민족이었다는 越·濮·羌공동주체민족설, ④ 야랑은 羌 계통의 夷·僰과 百越 계통의 僚人 3개 민족이 연합하여 만든 것이며, 현 彝族의 선민인 夷가 수령의 지위를 가졌다는 彝族先民說, ⑤ 百越說이 그것이다(熊宗仁, 2000: 6~7).

4) 靡莫: 『索隱』은 靡莫을 夷邑의 이름이며 ‘滇’과 同姓이라고 하였는데(夷邑名, 滇與同姓), 미막은 음명보다는 族名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다. 『正義』에서 미막에 대하여 蜀 南쪽 아래로 서쪽에 이르기까지 존재한다고 하고, 唐代에 姚州 北쪽에 존재하였던 靡非라는 족속을 곧 靡莫의 夷라고 한 것(在蜀南以下及西也. 靡非在姚州北, 去京西南四千九百三十五里, 卽靡莫之夷) 또한 음명보다는 족명으로 인식한 사례이다. 方國瑜는 『中國西南歷史地理考釋』(上)에서 羌族語를 조사한 周汝成이 제기한 미막이 옛 羌人部族이라는 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方國瑜, 1987: 13). 滇과 靡莫 그리고 僂을 모두 氏·羌系로 보는 시각은 그 유래가 깊다(馬躍, 1983: 8~10; 馬躍, 1987: 54~55).

5) ‘滇’은 國名이자 邑名이며 部落名이다. 현재는 운남성을 지칭하는 별칭으로 쓰이기도 하며, 운남성을 지칭하는 별칭으로 사용된 것은 명청대 이후의 일이다. 『考證』에서 인용한 丁謙(1843~1919)은 ‘滇國’이 ‘滇池’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雲南의 昆明이라고 했지만(『考證』: 4690), 이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우선 莊騫의 ‘入滇’ 전설을 어디까지 신빙해야 할 지 알 수 없지만, 장교의 立國이 해당 지역 최초의 立國이라 하더라도, ‘滇’이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方國瑜는 滇國의 도읍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漢代 滇池縣의 위치를 운남성 晉寧縣의 晉城區 및 呈貢縣 지역으로 비정하였고(方國瑜, 1987: 61), 張增祺는 문헌과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의지하여 전국 도성의 위치를 晉寧縣 晉城鎮으로 비정하였다(張增祺, 1997: 3~10).

滇國의 강역, 즉 滇을 비롯한 ‘靡莫之屬’ 10여 君長의 강역은 대체로 後漢代의 益州郡, 즉 前漢代 益州郡에서 西部都尉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滇池 주변의 平壩地區로부터 曲靖의 평패지구에 이르는 지역에 해당한다. 張增祺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 즉 滇文化 유물의 분포 범위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강역을 비정하였는데, 서쪽 경계는 安寧縣 太極山 古墓群(晉寧 石寨山 유지로 부터 70km 거리), 동쪽 경계는 지금의 路南에서 瀘西에 이르는 선, 남쪽 경계를 新平·元江에서 个舊에 이르는 선, 북쪽 경계는 曲靖·東川 이북의 會澤·昭通 일대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국의 영역을 현재의 昆明市와 東川市 전부, 曲靖과 玉溪지구 대부분, 紅河州·楚雄州와 文山州의 일부분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비정하였다(張增祺, 1997: 10~12). 물론 滇文化 표지 유물의 분포지역이 바로 滇國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강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滇國의 주민에 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靡莫과 僂을 동일한 계통으로 보고, 그 주체 민족을 氏羌系로 인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尤中, 1994: 37~39; 馬躍, 1983: 8~10). 또, ‘僂’으로 보지만, 氏羌系가 아니라 토착의 濮系로 보는 시각도 있다(童恩正, 1998: 98). 이에 비하여 최근에 이르러 ‘滇’과 ‘僂’을 분리하여 滇人을 백월 계통에 속하는 민족군체로 정리하거나(王文光, 1997: 249~251; 王文光·龍曉燕·陳斌, 2005: 95~105), 滇國의 주체 민족을 ‘越人’으로 보는 시각도(張增祺, 1997: 32~52) 늘어나고 있다. 장증기의 경우 滇國에는 주체민족인 ‘월인’ 이외에도 ‘濮人’, ‘昆明人’, ‘羌人’, ‘叟人’, ‘漢人’ 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음을 논증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張增祺가 여기에서 언급한 ‘叟人’은 塞人, 즉 사카족(Saka)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란계로, 본디 발하시 호수(Balkhash Lake)와 이직쿨 호수(Issyk-kul Lake) 일대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2세기 흉노의 冒頓이 大月氏를 압박하자, 대월지가 伊犁河 유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의 압박을 받은 사카족이 서쪽과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한 갈래가 靑藏高原을 건너 운남 서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張增

이 열을 헤아리는데, 공도(邛都)⁶⁾가 가장 크다. 이들은 모두 추계(魑結)하고,⁷⁾ 밭을 갈며,

祺, 1997: 46). 2005년에 출간된 『中國西南民族關係史』는 叟族에 관한 張增祺의 설을 지지하였다(王文光·龍曉燕·陳斌, 2005: 105~107).

劉宋代 裴駟의 『史記集解』(이하 『集解』)에서는 如淳의 말을 인용하여, “滇의 음은 ‘顛’이다. 顛馬가 나는 그 國이다.”라고 하였고(如淳曰: 「滇音顛. 顛馬出其國也.」), 『索隱』에서는 崔浩의 말을 인용하여, “나중에 縣이 되었으며, 越嶲太守에 의해 다스려졌다.”라고 하였다(崔浩云: 「後爲縣, 越嶲太守所理也.」). 『索隱』이 소개한 崔浩의 말은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越嶲郡의 설치와 益州郡의 설치에는 2년의 시차가 있으므로, 漢과 滇 사이 唐蒙과 夜郎侯 多同 사이에 맺어진 ‘約’과 같은 수준의 ‘約’이 존재하였다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正義』는 “昆州·郎州 등은 본디 滇國으로, 京師와의 거리가 5,370리이다(昆州·郎州等本滇國, 去京西五千三百七十里也).”라고 하였다.

- 6) 『考證』에서 인용한 丁謙은 “邛都是 지금 四川의 寧遠府이다.”라고 했는데(瀧川資言, 1935: 4690), 영원부는 오늘날의 四川省 남부의 西昌에 치소를 두었다. 方國瑜는 邛都가 漢代에 越嶲郡에 있었고, 오늘날의 西昌 및 涼山地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부족의 거민은 옛 羌人이라고 하였다(方國瑜, 1987: 13~14). 이에 비하여 童恩正은 1979년에 저술한 『古代的巴蜀』에서 ‘僰’과 ‘濮’을 사실상 동일시하고, 邛都를 滇·夜郎과 함께 濮系의 僰族으로 규정하였다(童恩正, 1998: 94~99). 한편, 『中國西南民族關係史』는 邛都를 滇·夜郎과 함께 百越 계통에 속하는 족군으로 분류하였다(王文光·龍曉燕·陳斌, 2005: 102~105).

『集解』는 漢文帝 6년(전158) 모반한 淮南王 長을 蜀의 ‘嚴道·邛都’로 유배하는 내용의 「文帝紀」 기사에 주를 달면서 東晉末 劉宋初 사람인 徐廣의 말을 인용하였다. 徐廣이 말하기를, “『漢書』의 어떤 판본에는 (‘都’字를) ‘郵’字로 적었으며, 어떤 판본에는 바로잡는다면 이르기를 ‘邛僰’이라 하였다. 邛都是 본디 西南夷이며, 이때(문제 6년)에는 아직 嚴道와 교통하지 않았고, 邛僰山이 있다.”라고 하였다(『史記』 卷10 「孝文本紀」 第10, 426쪽). 현행 中華書局 표점본 『漢書』의 같은 기사에는 ‘邛都’가 생략되어 있다. 文帝 당시(漢朝의 입장에서) 嚴道와 邛都 사이에 아직 교통이 없었다는 서광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正義』 또한 앞 「文帝紀」의 기사에 주를 달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邛은 其(기)와 恭(공)의 半切(공)이다. 『括地志』에서 이르기를, “嚴道는 지금 縣이 되었으니, 곧 邛州에서 관할하는 縣이다. 縣에 蠻夷가 있으면 일러 道라 하는 까닭에 嚴道라 말하는 것이다. 邛都縣은 본디 邛都國인데, 漢이 縣으로 만들었으며, 지금의 嶺州이다. 『西南夷傳』에 이르기를 ‘滇池 以北으로 君長이 열을 헤아리는데, 邛都가 가장 크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다.” 생각컨대, 羣臣이 請하여 淮南王 長을 蜀의 嚴道에 두자고 한 것은 여기가 아니라, 더 멀리 邛都 서편에 있는 邛僰山이었을 것이다. 邛僰山은 雅州의 榮經縣 경계에 있다. 榮經은 武德 年間에 설치하였는데, 본디 秦의 嚴道 땅이다. 『華陽國志』에서 이르기를, “邛笮山은 옛 邛人和 笮人の 경계이다. 산과 巖石이 가파르고 높은데다, 굽이굽이 아홉 번은 꺾여져야 이를 수 있으며, 아래위로 열음이 열어있다. 생각컨대, 바로(漢代의) 王尊이 올랐던 산이다. 지금 九折阪으로부터 서남쪽으로 가서 嶺州에 이르는 길은 산에 비가 많이 내리고 개인날이 적어 속칭 ‘漏天’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史記』 卷10 「孝文本紀」 第10, 426쪽). 여기서 말하는 邛僰山은 현재 四川省 서부에 있는 邛崃山(Qiong lai Shan)이며, 嚴道는 현재 四川省 雅安의 榮經縣에 해당한다. 그리고 王尊은 漢元帝時 益州刺史가 되어 部內를

읍취(邑聚)⁸⁾의 주거지를 이루고 산다. 그 바깥 서쪽의 동사(同師)⁹⁾ 이동(以東) 그리고 북으로 엽유(楛楡)¹⁰⁾에 이르는 지역에 수(嵩)와 곤명(昆明)이라는 이름을 가진 족속이 있다.¹¹⁾ 모두

순시하던 중 邛崃山에 오른 적이 있는 사람이다(『漢書』卷76「王尊傳」第46, 3229쪽). 참고로 「司馬相如列傳」에 따르면, “邛都를 비롯한 笮都, 冉駹의 西夷 지역에도 秦代에 郡縣이 설치된 바 있다(『史記』, 3046쪽).”고 하는데, 주목할 만하다.

- 7) 『索隱』: 魑는 『漢書』에서 ‘椎’라 적었는데, 음은 直과 追의 半切이다. 結은 음이 ‘計’이다(魑, 漢書作「椎」, 音直追反. 結音計). 여기에서는 『索隱』을 좇아 ‘魑結’의 ‘結’은 ‘계’로 읽었다. 『考證』에서는 『漢書』의 師古注를 인용하였는데, “結은 髻라고 읽는데, 상투를 만들되 朶[椎]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0). 張增祺는 이 ‘추계’의 습속을 ‘滇人’을 ‘越人’으로 판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張增祺, 1997: 34). 물론 ‘추계’가 월인 만의 습속은 아니었다. 「朝鮮列傳」에도 ‘추계’가 보인다(『史記』: 2985).
- 8) 邑과 聚 모두 집주의 주거형태를 지칭하며, 취는 보통 읍보다 규모가 작은 취락을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 취락의 형태를 지칭하기보다는, 이들이 정착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9) 同師: 『集解』와 『索隱』에서도 三國時代 吳나라 사람인 韋昭의 말을 인용하여 지적하였듯이, 同師는 邑의 이름이다. 『색은』은 또 『漢書』에서는 ‘桐師’로 적고 있음을 지적하였다(『集解』韋昭曰: 「邑名也」; 『索隱』韋昭云邑名. 漢書作「桐師」). 『考證』에서는 丁謙의 말을 인용하여 “桐師는 滇國의 西南 邊界이다. 『讀史兵略』에서 이르기를 곧 龍陵縣이라고 했는데, 사실에 가깝다.”라고 했다(瀧川資言, 1935: 4690). 龍陵은 오늘날의 雲南省 保山地區의 龍陵이다. 方國瑜는 同師가 嵩唐의 지역에 있었다고 하고, 嵩唐의 지역을 지금의 保山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동사의 소재를 현재 雲南의 保山으로 비정하였다(方國瑜, 1987: 15, 20). 尤中 또한 保山으로 비정하였다(尤中, 1994: 23).
- 10) 楛楡: 『集解』와 『索隱』에서는 韋昭를 인용하여 “楛의 음은 葉”이라고 했는데(『集解』韋昭曰: 「在益州. 楛音葉」; 『索隱』韋昭曰: 「益州縣. 楛音葉」), 여기에서도 이를 따라 楛楡를 ‘엽유’라고 읽었다. 『正義』 또한 음을 ‘葉’이라 하였다(上音葉). 『正義』에서는 또 “楛澤은 靡의 北쪽 100餘 里에 있다. 漢의 楛楡縣은 澤의 西쪽 益都에 있다. 靡非는 본디 葉楡王의 屬國이다(楛澤在靡北百餘里. 漢楛楡縣在澤西益都. 靡非, 本葉楡王屬國也).”라고 했는데, 『正義』의 지적은 이른바 ‘白子國’에 관한 여러 설화들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하다. 백자국에 관하여는 藤澤義美(1969: 15~44)와 林超民(1991) 참조. 『考證』에서는 丁謙의 말을 인용하여, “葉楡는 漢의 縣이고 益州郡에 屬하며, 나중에는 永昌郡에 屬속되는데, 葉楡水로 인하여 이름을 얻었다. 葉楡水는 곧 元江의 上游이며 그 발원지는 현재의 雲南縣 北梁王山에 있으니, 縣이 운남 땅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1). 엽유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雲南省 大理로 비정된다(尤中, 1994: 23).
- 11) 『集解』: 徐廣이 말하기를 “永昌(郡)에는 嵩唐縣이 있다.”라고 하였다(徐廣曰: 「永昌有嵩唐縣」). 『索隱』: 崔浩가 이르기를, “(嵩와 昆明은) 두 國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韋昭가 이르기를, “嵩는 益州(郡)의 縣이다.”라고 하였다(崔浩云: 「二國名」. 韋昭云: 「嵩, 益州縣」).

번발(編髮)하였고 가축을 따라 옮겨 다니며,¹²⁾ 일정한 거처가 없고¹³⁾ 군장도 없다. 땅이 사방 수천 리(里)이다. 수(僦)로부터 동북쪽으로 군장이 열을 헤아리는데, 사(徙)와 작도(笮都)가¹⁴⁾ 가장 크다. 작(笮)으로부터 동북쪽에도 군장이 열을 헤아리는데, 염(冉)과 방(駟)¹⁵⁾이

『正義』; 僦의 음은 髓이다. 지금의 嶺州이다. 昆明은 嶺州의 縣이며, 대개 남쪽으로 昆明의 땅에 접해 있는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嶺音髓. 今嶺州也. 昆明, 嶺州縣, 蓋南接昆明之地, 因名也).

『考證』은 丁謙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僦와 昆明은 葉榆와 桐師의 사이에 있으니, 마땅히 지금의 永昌·騰越·順寧 등의 지역이 된다. 師古의 注에 이르기를, 僦는 곧 嶺州이고, 昆明은 그 동남쪽에 있으니, 곧 南寧州라고 했는데, 틀렸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1). 方國瑜는 嶺를 嶺唐으로 보아, 종족적으로 昆明과 분리하였다. 嶺唐은 지금의 雲南 保山지역에 해당하며, 현 雲南省 騰衝지역에 해당하는 滇越과 함께 哀牢夷의 거주지역이라고 비정하였다. 따라서, 수는 애뢰이의 일종이며, 그 주체민족은 옛 ‘濮人’, 즉 오늘날의 蒲曼族, 崩龍族, 佉族의 공통 선민이라고 비정하였다(方國瑜, 1987: 19~22). 그리고 昆明에 대하여는 공도(월수군 지역), 전(익주군 동부 전지지역)과 함께 오래 전에 雲南지역으로 천사하여 온 羌族의 후예로 보았다. 그리고 그 거주지역을 익주군의 서부(楚雄지역 이서로부터 현재의 洱海地區에 이르는 지역)로 비정하였다(方國瑜, 1987: 15~17).

尤中은 嶺를 삼국시대 이후 주로 등장하는 叟와 동일시하였는데, 이 嶺(叟)족은 漢代의 越嶺郡 지역을 최대 거주지로 하는 氏·羌族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지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 『史記』 기사에 등장하는 嶺는 곤명과 함께 현재의 운남성 保山 일대로부터 大理州 일대에 걸쳐 잡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滇越과는 구분하였다(尤中, 1994: 35~43). 王文光 또한 叟(嶺)族과 昆明族 모두 氏羌系統으로 분류하였으며, 『華陽國志』 「南中志」의 “夷人大種曰昆, 小種曰叟”라는 기사를 들어 昆明과 叟가 秦漢시기 중국 西南지구 인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지적하였다(王文光, 1997: 243~244).

- 12) 『正義』; 編(변)은 步(보)와 典(전)의 半切(변)이며, 畜(축)은 許(허)와 又(우)의 半切이다. 모두 僦와 昆明의 풍속이다(編, 步典反. 畜, 許又反. 皆僦·昆明之俗也).
- 13) 사마천의 이와 같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 발굴자료에 의거하여 당시 大理 洱海지역의 주민, 즉 昆明族이 상당한 정도의 定住農耕社會를 형성하였음이 지적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藤澤義美, 1969: 3~6).
- 14) 徙와 笮都: 『集解』에서는 徐廣이 말하기를, “徙는 漢嘉(郡)에 있다. 笮은 음이 昨(작)이며, 越嶺(郡)에 있다.”라고 하였다(徐廣曰: 「徙在漢嘉. 笮音昨, 在越嶺.」). 『索隱』은 후한 말 사람인 服虔을 인용하여, “(徙·笮都)는 두 國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韋昭의 말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徙縣은 蜀(郡)에 屬한다. 笮縣은 越嶺(郡)에 있다.”라고 하였다. 또, 『集解』와 마찬가지로 徐廣을 인용하여, “笮의 음은 昨이다.”라고 하였다(服虔云: 「二國名.」 韋昭云: 「徙縣屬蜀. 笮縣在越嶺.」 徐廣云: 「笮音昨.」). 『正義』는 徙의 음은 斯라 하고, 『括地志』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笮州는 본디 西蜀의 徼外에 있었고, 貓羌嶺라 불렸다. 『地理志』에 이르기를 徙縣이라 하였다. 『華陽國志』에 따르면, 雅州의 邛笮山은 본디 이름이 邛笮山이었는데, 邛人和 笮人の 境界에 있었던 까닭이다.”라고 하였다(徙音斯. 括地志云: 「笮州本西蜀徼外, 曰貓羌嶺. 地理志云徙縣也. 華陽國志雅州邛笮山本名邛笮山, 故邛人·笮人界.」).

『考證』은 丁謙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徙國은 武帝時에 徙縣이 되었으며, 나중에 屬國都尉에 예속되었다. 『會典』에서는 곧 雅州 西쪽의 天全州라고 말하였다. 笮都是 漢이 蜀郡 嚴道縣으로 삼았으며, 지금은 清溪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1). 『考證』에서 笮都를 漢代에 嚴道縣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西南夷列傳』에서 司馬遷은 기원전 111년에 비로소 笮都를 沈黎郡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嚴道縣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 전국시대 秦나라는 기원전 329년에 蜀나라를 합병하고, 臨邛(현재의 邛崃市 臨邛鎮)로부터 지금의 榮經에 이르는 길을 닦고, 그 길의 이름을 엄도라 하였다고 한다. 기원전 316년에 秦은 이곳에 嚴道縣을 설치하여, 蜀國守에 예속시켰다. 그리고 기원전 285년(秦昭襄王 22年)에 蜀國守를 폐하고 蜀郡을 설치한 뒤 엄도현을 측군에 예속시켰다. 『鄧氏錢』으로 유명한 漢文帝의 寵臣 鄧通은 바로 이 嚴道縣의 銅鑛을 사여받아 鑄錢하였다(於是賜鄧通蜀嚴道銅山, 得自鑄錢, 『鄧氏錢』布天下. 其富如此.: 『史記』卷125 「佞幸列傳」第65, 3192쪽).

方國瑜는 笮都를 邛都와 묶어 설명하면서, 그 부족의 거민이 모두 옛 羌人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위치는 三國時代의 漢嘉郡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었으며, 지금의 四川省 남부 雅安地區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과 북으로 邛과 笮이 거처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잦은 천사로 잡쳐하게 되었다고 한다(方國瑜, 1987: 13~14). 한편, 童恩正은 邛都와 笮都를 종족적으로 구분하였다. 邛都是 ‘濮系の 僂族’으로 분류한 반면 笮都(ts'a)는 徙(si)와 함께 氏·羌系로 구분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徙’와 ‘斯’가 고대에音が 같았다는 점, 그리고 ‘徙’를 『史記』 「司馬相如列傳」에 ‘斯榆’로, 『華陽國志』에서는 ‘斯叟’로 칭했다는 점을 들어 ‘徙’와 ‘叟(so)’를 연결시켰다. 그리고 ‘叟’를 중국 西南지역 氏羌 계통 소수민족의 범칭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徙(斯)는 氏族에 속하며 土着의 유형에 속한다고 추정하였다. 이에 비하여 笮都是 ‘移徙’ 유형의 羌族에 속한다고 논증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 또한 둘 다 오늘날의 雅安지구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면서도, 徙는 오늘날의 사천성 天全州 지역으로 笮都是 오늘날의 漢源 근처로 세분하여 지정하였다(童恩正, 1998: 99~104).

藍勇은 橫斷山脈 六江文化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四川省 雅安地區 북부의 天全·寶興·蘆山·石綿 등지의 청동기 문화를 川西徙文化로 규정하고, 그 문화적 특징으로 土坑墓와 石棺葬의 병행과 三叉格 銅劍을 들었다. 여기서 6강이란 大渡河, 岷江 상류, 雅魯江, 金沙江 상류, 怒江 상류, 瀾滄江 상류를 지칭한다(藍勇, 1997: 17~18). 이와 관련하여 김병준은 寶興縣에서 발굴된 여러 좌의 石棺葬墓에서 발견된 자루가 굽어 있는 馬鞍形 銅劍과 三叉格(‘山’字形) 동검은 大渡河 이서의 石棺葬, 혹은 四川省 西南部의 邛都, 雲南省 서부의 昆明문화와 일치하는 것들이라고 하였다(김병준, 1997: 263).

- 15) 冉駹: 중화서국본에서 엮과 방에 따로 옆줄을 그어 표시한 까닭에 엮과 방의 한자 표기를 따로 나누어 달았다. 『索隱』은 後漢代의 학자인 應劭(約153~196)의 말을 인용하여, “汶江郡은 본디 冉駹(ranmang)이다. 音은 亡(망)과 江(강)의 반절이다.”라고 하였다(案: 應劭云「汶江郡本冉駹. 音亡江反」). 『正義』는 『括地志』를 인용하여, “(冉駹은) 蜀의 西쪽 徼外의 羌으로, 茂州·笮州는 본디 冉駹國의 땅이다. 『後漢書』에서 이르기를, 冉駹 그 산에는 6夷, 7羌, 9氏が 있는데, 각기 部落을 가졌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括地志云: 「蜀西徼外羌, 茂州·笮州本冉駹國地也. 後漢書云冉駹其山有六夷·七羌·九氏, 各有部落也.」). 『考證』은 丁謙의 말을 인용하여, “冉駹은 漢이 汶山縣으로 삼았고, 지금은 茂州를 말한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1).

가장 크다. 그 풍속은 어떤 이들은 정착하여 살고, 어떤 부류는 옮겨 다니며, 촉(蜀)의 서편에 있다. 염과 방으로부터 동북쪽으로도 군장이 열을 헤아리는데, 백마(白馬)¹⁶⁾가 가장 크며, 모두 저(氏)¹⁷⁾의 부류이다. 이들은 모두 파촉(巴蜀)의 서남 바깥에 있는 만이(蠻夷)이다.

童恩正是冉駹은冉과駹 두 족속이며, 지금의 사천 서부 阿壩藏族自治州 경내가 그 활동 범위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氏의 일종이라고 하였다(童恩正, 1998: 105~109). 馬長壽는冉駹이 隋唐 시기의 嘉良이며, 近代의 嘉戎이라고 하면서, 氏도 아니고 羌도 아니라고 하였다. 嘉戎, 즉 冉駹은 遠古시기 西藏의 琼部로부터 東遷하여 온 一族이라고 하였다(馬長壽, 1984: 25~26). 藍勇은 현재의 阿壩羌族藏族自治州 경내를 고대 冉駹민족의 취거지구로 규정하고,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川西北冉駹文化’로 명명하였다. 이 문화의 전형적 유지는 岷江 상류 유역의 理縣, 汶川, 茂汶(茂縣과 汶川)의 沿河 兩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 대표적 문화적 특징으로 石棺葬과 石碉樓를 꼽았다. 석관장이란 토갱을 만들고 주변에 열석을 쌓은 후 그 위에 板岩이나 片麻巖을 깨뜨려 만든 장방형의 석관을 계단 모양으로 덮어 만든 석관으로 장례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석조루란 고대 염방 민족의 주거 건축으로 돌을 쌓아 집을 만든 것이며, “邛籠”이라 부른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羌族의 중요 주거 형태이다(藍勇, 1997: 17). 이 茂汶지역의 문화와 관련하여 김병준은 이 지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石棺葬·雙耳罐의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은주시기 이래 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川西평원 蜀文化로부터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하면서, 『華陽國志』에서 ‘以汶山爲畜牧’이라고 하여 촉국의 범위를 茂汶지구까지로 기록한 것과 고고자료의 결과가 일치한다고 지적하였다(김병준, 1997: 275).

- 16) 白馬: 『索隱』; “살피건대, 夷邑의 이름이고, 곧 白馬氏이다(案: 夷邑名, 卽白馬氏).” 『正義』; “『括地志』에 이르기를, ‘隴右의 成州와 武州는 모두 白馬氏이며, 그 豪族 楊氏는 成州의 仇池山 위에 居한다.’라고 하였다(括地志云: ‘隴右成州·武州皆白馬氏, 其豪族楊氏居成州仇池山上.’)”

『考證』에서는 丁謙의 말을 인용하여, “白馬는 漢이 陰平道로 삼았으며, 지금은 階州 成縣 서남쪽의 白馬關 지역이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2). 司馬遷은 白馬를 ‘氏類’라고 하였고, 馬長壽도 이를 좇아 백마를 氏族의 전형으로 보았다(馬長壽, 1984: 10). 王文光은 ‘白馬羌’이라 하여 羌의 일종으로 보았으며, 그 주요 분포지역을 後漢시기의 蜀郡 北部都尉·廣漢屬國 경내, 즉 오늘날의 四川省 綿陽지구 북부와 甘肅省 武都지구 남부의 감숙성과 사천성의 경계지역으로 비정하였다. 따라서, ‘廣漢羌’이라 칭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 백마강의 일부분은 나중에 발전하여 오늘날 四川省 平武 등지의 白馬藏人 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王文光, 1997: 241~242).

- 17) 氏: 中國 西北지역의 古代民族으로 陝西省 甘肅省과 四川省의 변계지구에 거주하였다. ‘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同源異派’說과 ‘不同’說이 있다. 馬長壽는 氏와 羌은 기원전 16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존재하였던, 상대에 이미 그 기록이 존재하는 역사가 유구한 민족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다른 민족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 원시 분포 중심지의 거리 차이, 자칭 및 타칭의 차이, 복식과 건축형태 등 문화와 생활 습속의 차이 등을 들었다. 馬長壽가 말한 氏의 원시 분포 중심지는 甘肅省 동남부의 西漢水·白龍江 유역이고, 羌의 원시 분포 중심지는 青海省 동부의 河曲지역 및 그 以西 以北 등의 지역이다. 氏의 自稱은 ‘蓋稚’이고, 강(羌)의 자칭은 ‘畢’, ‘綿’ 혹은 ‘瑪’이다. 그리고 氏와 羌은 漢인들이 붙여 준 이름이다

始，楚威王時，使將軍莊騫將兵循江上，略巴·(蜀)黔中以西。莊騫者，故楚莊王苗裔也。騫至滇池，(地)方三百里，旁平地，肥饒數千里，以兵威定屬楚。欲歸報，會秦擊奪楚巴·黔中郡，道塞不通，因還，以其衆王滇，變服，從其俗，以長之。秦時常頽略通五尺道，諸此國頗置吏焉。十餘歲，秦滅。及漢興，皆弃此國而開蜀故徼。巴蜀民或竊出商賈，取其笮馬·僂僮·髦牛，以此巴蜀殷富。

옛날 초(楚)나라 위왕(威王) 때에 장군(將軍) 장교(莊騫)¹⁸⁾에게 군대를 이끌고 장강(長江)을 따라 올라가, 파(巴)¹⁹⁾와 검중(黔中)²⁰⁾ 이서(以西)지역을 경략(經略)하게 하였다.²¹⁾ 장교

(馬長壽, 1984: 1~22). 王文光是 氏와 羌이 매우 깊은 친연관계에 있으며, 현대의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漢藏語系 藏緬語族에 해당하는 까닭에 항상 氏羌이 연칭된다고 하였다(王文光, 1997: 136).

18) 莊騫: 『索隱』; “(騫의) 音은 炬와 灼의 半切이라고 하였다. [莊騫는] 楚莊王之弟로 盜가 되었던 者이다 (音炬灼反. 楚莊王弟, 爲盜者).” 『正義』; “(騫의 음은) 其와 略의 半切이다. 郎州·昆州는 곧 莊騫가 王노릇했던 곳이다(其略反. 郎州·昆州卽莊騫所王).”

『考證』은 清末의 法学家인 沈家本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살피건대, 『韓非子』 「喻老篇」에서는 ‘楚莊王時에 莊騫가 境內에서 盜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小司馬는 아마도 이것에 근거하여 說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楚威王 때라고 하였으니, 盜가 된 莊騫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史記』의 글에 분명하게 ‘將軍’이라 하였고, 또 ‘楚莊王之 苗裔’라고 하였으니, 小司馬의 오류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증’은 이 說이 清代 사람인 梁玉繩이 지은 『史記志疑』에도 보인다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2).

19) 巴: 巴(Ba)는 古族의 명칭이며, 古代의 國名이다. 그 활동지역은 지금의 四川省 동부이다. 史爲樂이 主編한 『中國歷史地名大辭典』(이하 『地名大辭典』)의 ‘巴’에 대한 설명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西周初의 封國으로 巴子國이라 칭하였다. 春秋 시기에는 楚·鄧의 國 등과 교왕이 매우 밀접하였으며, 四川 동부쪽으로 발전하였다. 戰國 시기에는 巴國 또한 王을 칭하였으며, 그 도읍은 江州(지금의 四川省 重慶市)였다. 東晉의 常璩는 『華陽國志』 「巴志」에서 이르기를, “그 地境은 동쪽으로 魚復에 이르고, 서쪽으로 樊道에 이르며, 북으로는 漢中에 접하고, 남쪽으로는 黔·涪의 끝까지 미친다(其地, 東至魚復, 西至樊道, 北接漢中, 南極黔涪).”라고 하였다. 魚復은 현재의 奉節縣에 해당하고, 樊道는 현재의 宜賓市, 漢中은 현재의 陝西省 漢中市에 해당한다. 그 疆域은 대체로 현재의 四川 嘉陵江, 涪江, 南溪縣 이동으로 奉節縣에 이르고, 大巴山 이남, 貴州 동북부 지구를 포괄한다. 周愷王 5年(전316)에 진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그 땅은 巴郡이 되었다(史爲樂, 2005: 505).

任乃強은 『華陽國志校補圖注』에서 앞의 「巴志」의 巴의 疆域에 관한 기사에 注하여 이르기를, “魚復과 樊道는 巴가 楚·蜀과 다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至’라 말한 것이다. 漢中은 秦에 속해 있고, 巴國과 大巴산맥으로 격절되어 있어 서로 범할 수 없는 까닭에 ‘接’이라고 한 것이다. 黔水는 곧 烏江이다.

라는 자는 옛 초나라 장왕(莊王)의 먼 후손이다. 장교가 전지(滇池)²²⁾에 이르렀는데, (물의)²³⁾

涪水是 곧 아랫글의 ‘巴涪水’이니, 지금의 赤水河를 말한다. 모두 그 源과 流가 이르는 곳을 다 하였기에 ‘極’이라고 말한 것이다. 두 하수가 이르는 곳은 현재의 貴州 全省을 포괄한다.”라고 하였다(任乃強, 1987: 6).

童恩正是 種族名 ‘巴’의 유래에 관한 몇 가지 설을 정리하였는데, ① 물의 흐르는 모양에서 기원, ② 巴地 소산의 식물 苴의 음에서 기원, ③ 虫과 蛇의 종류에서 기원, ④ 平地的 지형을 지칭하는 ‘壩’의 음에서 기원 등이 그것이다. ①에 대하여 童恩正은 『元和郡縣志』卷34 「渝州」조의 기사를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梁州지역은 옛 巴國에 해당하는데, 그곳의 閻水와 白水가 동남쪽으로 흘러 돌고 꺾이는 모양이 마치 巴字와 같아서 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에 대하여 童恩正은 『史記』 「張儀列傳」의 “苴·蜀相攻擊”이라는 기사에 대한 『索隱』의 해석을 인용하였다. 그 내용은 苴의 음이 巴인데, 巴人 巴郡이라는 것은 본디 苴로 인해 이름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그 글자도 점차 苴를 巴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苴’는 바로 갈대(蘆葦)이며, 四川에서 속칭 芭茅라고 하는데, 四川 동부 일대에서 많이 난다고 한다. ③에 관하여는 “巴는 벌레이다. 어떤 이는 코끼리를 잡아먹는 뱀이라고도 한다(巴, 虫也. 或曰食象蛇).”라고 한 許慎의 『說文』과 “西南에 巴國이 있는데, 黑蛇가 있어, 머리가 과랴고, 코끼리를 먹는다.”라고 한 『山海經』 「大荒北經」의 기사를 인용하였다. ④는 평지를 지칭하는 壩(ba)와 巴(ba)를 동일시하여, 巴族이 고대에 평지에 거주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童恩正은 이들 설에 대하여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추정하기를, 巴族의 선조 廩君이 石穴에서 태어났다는 전설과 사천 동부지방의 방언에 오랫동안 石을 巴라고 하였다는 점을 결부하여, 巴氏族이 그 거주환경으로부터 그 이름을 얻었을 것이라 하였다(童恩正, 1998: 11~12).

20) 黔中: 黔中郡에 관한 『地名大辭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戰國시기에 楚나라에서 설치하였으며, 나중에 秦에 속하게 되었다. 秦代의 治所는 臨沅縣(오늘날의 湖南省 常德市)에 있었다. 그 강역은 오늘날의 湖南省 沅水·澧水 유역, 湖北省의 淸江 유역, 四川省의 黔江 유역과 貴州 동북부에 상당한다. 西漢代에 고쳐서 武陵郡으로 삼았다(史爲樂, 2005: 2913).

21) 『考證』은 원문의 ‘巴·(蜀)黔中’에 관하여 王念孫의 말을 인용하였다. 王念孫이 말하기를, “蜀字는 위 문단의 巴·蜀으로 인한 衍字이다. 莊蹻가 江을 따라 올라갔는데, 巴·黔中 以西로부터 滇池에 이르렀다면, 蜀에 이를 수 없다. 『漢書』에는 ‘蜀’字가 없다.”라고 하였다. 『考證』은 또 巴와 黔中에 관하여 丁謙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丁謙이 말하기를, “巴는 漢의 巴郡이며, 지금의 重慶府이다. 黔은 물의 이름인데, 의미가 검은 색인 것으로 볼 때, 지금의 烏江을 말한다. 옛 黔中郡은 漢代의 武陵이다. 章懷注에는 ‘黔中の 옛 城은 辰州 沅陵縣 서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살펴건대, 辰州에는 黔水가 없으니, 필시 郡이 이곳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轄境은 烏江 유역에 걸쳐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22) 전지(滇池): 『索隱』; “滇池는 (넓이가) 方 300里이다. 『地理志』 益州 滇池縣條에는 澤이 (현의) 西北쪽에 있다고 하였다. 『後漢書』에서 이르기를, ‘그 못의 水源이 깊고 넓은데, [그 末이] 점차 얕고 좁아져서 마치 거꾸로 흐르는 듯 보이는 까닭에 滇池라 불렀다.’라고 하였다(滇池方三百里. 地理志益州滇池縣, 澤在西北. 後漢書云: 「其池水源深廣, 而[末]更淺狹, 有似倒流, 故謂滇池.」) 『正義』; “『括地志』에 이르기를, ‘滇池澤은 昆州 晉寧縣 西南쪽 30리에 있다. 그 水源이 깊고 넓은데, [그 末이] 갈수록 얕고 좁아져,

넓이가 사방 300리(里)이며, 주변의 평지가 기름지고 넉넉한 것이 수천 리였다. [장교가] 군대로 위협하여 [이 땅을] 평정하고 초나라에 속하게 하였다. 귀국하여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진(秦)이 초의 파군(巴郡)과 검중군(黔中郡)을 쳐서 빼앗으니, 길이 막혀 통행할 수 없었다.²⁴⁾ 그래서 되돌아가 그 무리를 기반으로 진(滇)에서 왕이 되었는데, 복식을 바꾸어 입고 그 풍속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진(秦)나라 때 상안(常顔)²⁵⁾이 [이 땅을] 경략하여 오척도(五尺道)²⁶⁾를 개통하였는데, 이 국(國)들에²⁷⁾ 관리를 둔 것이 자못 많았다. 10여 해가 지나 진이 멸망하였다. 한(漢)이 일어나자, [관리들이] 모두 이 국을 버리고 [달아 두었던] 촉(蜀)²⁸⁾의 옛 요(徼)를 [다시] 열었다.²⁹⁾ 파와 촉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마치 거꾸로 흐르는 듯 보이는 까닭에 滇池라 불렀다.'라고 하였다(括地志云:「滇池澤在昆明晉寧縣西南三十里. 其水源深廣而[未]更淺狹, 有似倒流, 故謂滇池。」)

『考證』은 王念孫의 말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池 아래에는 마땅히 ‘地’ 자 가 있을 수 없다. 『素隱』의 판본 및 『漢書』 모두 ‘地’ 자 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王先謙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一統志』에 따르면, 滇池는 雲南府 昆明縣 남쪽, 呈貢縣 서쪽, 晉寧州 서북쪽, 昆陽州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2).

- 23) 원문에 (地)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滇池 물의 넓이로 보아야 한다. 주23)의 『考證』 참조.
- 24) 『考證』은 沈家本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살피건대, 이는 楚 頃襄王 22년의 일이며, 위로 威王 末年과의 차이가 52년이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2). 『漢書』의 師古注에서 인용한 『華陽國志』에도 ‘楚頃襄王時’라 하였으며(『漢書』 卷28上「地理志」 第8上, 1602쪽), 『後漢書』 「西南夷列傳」에서도 ‘楚頃襄王時’라고 적었다(『後漢書』 卷86「南蠻西南夷列傳」 第77, 2845쪽).
- 25) 常顔: ‘顔’의 일반적인 독음은 ‘알’인데, 『集解』에서 (顔의) 음은 案이라(音案)한 까닭에 여기서도 ‘상안’이라 읽었다. 『考證』에 따르면, 楓·三本에서는 常顔을 “常顔”라 적었고, 『漢書』에서는 “嘗破”라고 적었다고 한다(瀧川資言, 1935: 4693). 이 밖에 상안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찾기 어렵다.
- 26) 五尺道: 『素隱』: “[五尺道の 5척은] 棧道の 너비가 五尺임을 말하는 것이다(謂棧道廣五尺).” 『正義』: “『括地志』에 이르기를, ‘五尺道는 郎州에 있다. 顔師古가 이르기를 그 곳이 험하고 막힌 까닭에 길의 너비가 겨우 5尺이라고 하였다. 如淳이 이르기를, 길의 너비가 5尺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括地志云:「五尺道在郎州. 顔師古云其處險阨, 故道纔廣五尺. 如淳云道廣五尺」).”
漢代の 夜郎道와 唐代의 石門道가 이 五尺道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석문도란 石門關(雲南省 鹽津縣 豆沙鎮 소재, 豆沙關이라고도 함)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淸溪道와 함께 蜀과 滇을 연결하는 대표적 古道의 하나이다. 成都로부터 宜賓(옛 犍道), 昭通, 曲靖을 거쳐 昆明에 이른다.
- 27) 『考證』은 원문의 ‘諸此國’에 관한 中井積徳의 견해를 소개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諸此國은 ‘此諸國’이라고 적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아래 문장의 ‘此國’ 사이에는 ‘諸’ 자가 탈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3). 이 설이 일리가 없지 않으나, 여기서는 따르지 않았다.

몰래 나와 교역을 하였는데, 작마(笮馬)³⁰와 북동(夔僮)³¹ 그리고 모우(髦牛)를 사들였다.³²⁾

28) 蜀: 여기에서의 ‘蜀(Shu)’은 기원전 314년에 秦惠王이 설치한 蜀郡을 지칭한다. 『地名大辭典』 ‘蜀郡’조에 서는 西漢代 蜀郡의 영역을 비정하여 “현재 四川의 松潘 이남, 北川·彭縣·洪雅 이서, 峨邊·石棉 이북, 邛崃山·大渡河 이동, 그리고 大渡河와 雅礮江 사이·康定 이남·冕寧 이북에 미치는 땅에 상당한다.”고 하였다(史爲樂, 2005: 2696). 그리고 ‘蜀’조에서는, 商代로부터 戰國시기까지 존재하였던 蜀國을 소개하고 있는데, 周武王을 쫓아 商의 紂를 정벌한 8國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리고 望帝 杜宇 때에 郫邑(현재의 四川省 郫縣 북쪽)에 도읍하였으며, 開明朝 시기에 成都로 천도하였다고 하였다. 또, 『華陽國志』 「蜀志」를 인용하여 그 國의 강역을 밝히고 있는데, “그 땅이 동쪽으로 巴에 접하고, 남쪽으로 越에 접하며, 북으로는 秦과 강토를 나누고 있고, 서쪽으로는 峨眉山과 峩冢山을 포함한다(其地東接於巴, 南接於越, 北與秦分, 西奄峨峩).”라고 하고, 현재의 四川省 서부의 江安과 長江 상류 유역 이북, 涪江 상류지구 및 陝西 서남부의 땅을 가졌다고 하였다. 촉국은 周文왕 5년(전 316)에 진에 멸망하였고, 그 땅에는 촉군이 설치되었다(史爲樂, 2005: 2694).

任乃強은 『華陽國志校補圖注』에서 蜀國은 본디 羌氏民族이 岷江 상류 河谷에 세운 部落이었다고 하였다. 이들이 九頂山 입구를 넘어 湍水를 따라 成都평원에 들어온 뒤 농업으로 흥성하여 大國이 되었으며, 당시 독특한 문화를 가졌다고 하였다(任乃強, 1987: 118). 童恩正은 옛 蜀人을 氏羌 계통에 속한다고 하였다(童恩正, 1998: 62~66). 그리고 김병준은 사천지역의 청동기문화를 분석하여 成都를 중심으로 한 川西지역은 靑銅문명이 蜀 독자적 ‘蜀’ 문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김병준, 1997: 49~118).

29) 『考證』은 원문의 ‘關’자에 관한 王念孫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關’자는 마땅히 『漢書』를 좇아 ‘關’으로 적어야 한다. 秦時에 항상 諸國에 置吏하였는데, 漢初에 이르러 이 諸國을 버리고 단지 蜀의 여러 徼를 關으로 삼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 문장에서 ‘巴·蜀의 민이 혹은 몰래 나와 교역하였다.’라고 한 것은 곧 이 關을 나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蜀의 옛 徼를 열었다.’고 말한다면, 위와 아래의 문장과 모두 합치하지 않는다. 顏師古는 말하기를, ‘西南의 徼는 北方의 塞와 같다.’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3).” 역시 일리 있는 견해이지만, 여기에서는 원문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關’의 의미를 살리되 맥락에 맞게 번역하려고 노력하였다.

30) 笮馬: 笮都 종족이 생산한 말이라는 의미인데, 그 종류나 특징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31) 夔僮: 『索隱』: “韋昭가 이르기를, ‘夔는 犍爲郡에 속하며, 음은 蒲(pu)와 北(bo)의 半切이다.’라고 하였다. 服虔은 이르기를, ‘옛 京師에 夔婢가 있었다.’라고 했다.(韋昭云: 「夔屬犍爲, 音蒲北反.」 服虔云: 「舊京師有夔婢.」) 『正義』: “현재 益州의 南쪽 戎州의 北쪽은 大山에 닿아있는데, 옛날의 夔國이다(今益州南戎州北臨大山, 古夔國).”

‘夔僮’은 夔族 출신의 노예를 지칭한다. ‘夔(Bo)’에 관하여는 앞서 간간이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설이 다소 복잡하다. 方國瑜는 夔의 族屬은 羌의 한 갈래이며, 아마도 古 羌人이 南으로 이동하여 大渡河에 이르렀는데, 그 동부에 거주하게 된 分支는 靑衣江을 따라 내려가 岷江 상류지역에 散居하게 되었으며, 또 남쪽으로 西夔지구에 이르렀는데, 邛·滇·昆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西夔’지구란 夜郎의 서쪽 夔人의 거주지를 지칭하며, 方國瑜는 古夔人의 거주지를 비정하여 夔道縣을 중심으로 그 남쪽 경내에 散居하였으며, 秦 이후 더 남쪽으로 옮겨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夔僮의 產地는 朱提郡 지역, 즉 지금의

이로 인하여 파와 축이 넉넉하고 풍성해졌다.

建元六年，大行王恢擊東越，東越殺王郢以報。恢因兵威使番陽令唐蒙風指曉南越。南越食蒙蜀枸醬，蒙問所從來，曰「道西北牂柯，牂柯江廣數里，出番禺城下」。蒙歸至長安，問蜀賈人，賈人曰：「獨蜀出枸醬，多持竊出市夜郎。夜郎者，臨牂柯江，江廣百餘步，足以行船。南越以財物役屬夜郎，西至同師，然亦不能臣使也。」蒙乃上書說上曰：「南越王黃屋左纛，地東西萬餘里，名為外臣，實一州主也。今以長沙·豫章往，水道多絕，難行。竊聞夜郎所有精兵，可得十餘萬，浮船牂柯江，出其不意，此制越一奇也。誠以漢之疆，巴蜀之饒，通夜郎道，為置吏，易甚。」上許之。乃拜蒙為郎中將，將千人，食重萬餘人，從巴蜀笮關入，遂見夜郎侯多同。蒙厚賜，喻以威德，約為置吏，使其子為令。夜郎旁小邑皆貪漢繒帛，以為漢道險，終不能有也，乃且聽蒙約。還報，乃以為犍為郡。發巴蜀卒治道，自犍道指牂柯江。蜀人司馬相如亦言西夷邛·笮可置郡。使相如以郎中將往喻，皆如南夷，為置一都尉，十餘縣，屬蜀。

昭通지구였다고 하였다(方國瑜, 1987: 18~19). 馬驥는 僰을 氏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四川 서부에 분포하는 僰人을 총칭하여 “西僰”, 雲南 경내에 거주하는 僰人을 총칭하여 “滇僰”이라 하고, 雲南의 동북쪽에 있는 僰道(지금의 宜賓)을 秦代의 “僰侯國” 소재지라고 하였다(馬驥, 1983: 8~9). 우중은 북쪽은 저장으로부터 분화한 별종으로 진국의 주체민족이었으며, 복도현으로부터 북쪽 거주지를 향해 개통한 교통로 “복도”를 따라 현재의 곡정지구와 귀주 서부지구에 적지않은 북쪽 인구가 거주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僰(bo)과 白(bo)이 같은 음인 것과 元代 李京이 지은 『雲南志略』의 기사를 들어 漢代의 僰人이 곧 元代의 白人이었다고 하여, ‘僰’이 현재 白族의 시조라는 설을 시사하였다(尤中, 1994: 19~23). 王文光 또한 僰人의 족속을 氏羌系로 규정하였다(王文光, 1997: 242). 童恩正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僰族이 사실상 바로 濮族이며 夜郎·滇·邛都 등이 濮系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四川 남부의 宜賓지구와 涼山彝族自治州 동부의 馬邊·屏山·峨邊 등의 縣이 대체로 漢代 犍為郡의 범위 이내에 상당하며, 春秋戰國시대 僰族의 집거지였다고 하였다(童恩正, 1998: 94~96).

- 32) 『考證』은 일본의 학자인 岡白駒(1692~1767)의 말을 인용하여, “笮國의 말, 僰國의 노비 및 髦牛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우에 대하여 스스로의 견해를 밝혀, 髦는 마땅히 驢이라고 적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3).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髦牛는 곧 旄牛이고, 야크[yak]이다. 티베트고원을 중심으로 해발 3천미터~5천미터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牛種으로, 雲南 서부와 四川 서부의 고지대에도 많이 보인다. 아마도 瀧川資言은 ‘笮’과 ‘僰’과 對를 이루는 개념으로 ‘髦’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과 노비 소의 교역을 다루는 데 굳이 특정 지역이나 종족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건원(建元) 6년(전135)에 대행(大行)³³⁾ 왕희(王恢)³⁴⁾가 동월(東越)을 공격하자, 동월은 그 왕 영(郢)을 죽여 [항복의 의사를] 알렸다.³⁵⁾ 왕희는 군사적 위세를 바탕으로 파양령(番陽令)³⁶⁾ 당몽(唐蒙)³⁷⁾을 보내 남월(南越)³⁸⁾을 넉넉히 일러 깨우치게 하였다. 남월이 당몽에게 축에서 나는 구장(枸醬)³⁹⁾을 대접하였다. 당몽이 들어온 곳을 물으니, 말하기를, “서북쪽 장가

- 33) 大行: 『漢書』 「百官公卿表」에서는 大行을 귀순한 蠻夷를 담당하던 典客을 개칭한 것으로 보았는데, “典客은 秦官으로 귀순한 蠻夷들을 담당하며, (屬官으로) 쯤이 있다. 景帝 中 6년(전144)경에 大行令으로 불렸고,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大鴻臚로 이름을 바꾸었다. 屬官으로 行人 譯官 別火 3令丞 및 郡邸長丞이 있다. 武帝 太初 元年에 行人을 大行令으로 고쳐 불렀고, 別火를 처음으로 두었다(『漢書』卷90上 「百官公卿表」 第7上, 730쪽).”라고 하였다. 顏師古는 景帝 中 2년(전148) 諸侯王이 죽거나 列侯가 처음 봉건되어 취국할 때는 大鴻臚가 讞·誅와 策을 올리게 하고, 列侯가 죽거나 諸侯의 太傅가 처음 관에 제수될 때는 大行이 讞·誅와 策文을 올리게 한 조치에 관한 『景帝紀』의 기사에 注를 달면서, “大鴻臚는 본디 명칭이 典客이며, 나중에 고쳐 大鴻臚라 한 것이다. 大行令은 본디 명칭이 行人이며, 바로 典客의 屬官인데, 나중에 고쳐 大行令이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일이 귀하고 무거울[尊重] 경우에는 大鴻臚를 파견하고, 일이 가볍고 천한[輕賤] 경우에는 大行을 보내는 것이다. 이 本紀의 글에 따르면, 景帝는 이미 典客을 고쳐 大鴻臚라 하였으며, 行人을 고쳐 大行이라 하였다. 그런데 『百官公卿表』에서는 여전히 景帝 中 6년에 典客의 이름을 바꾸어 大行令이라 하고, 武帝 太初 元年에 大行令의 이름을 바꾸어 大鴻臚라 했으며, 行人의 이름을 바꾸어 大行令이라 해다고 했다. 이는 마땅히 表의 오류이다.”라고 하였다(『漢書』卷5 「景帝紀」 第5, 145쪽).
- 34) 王恢: 西漢의 將軍이다. 燕나라 사람으로 여러 차례 邊吏를 지낸 까닭에, 胡, 즉 흉노의 일에 밝았다. 建元 元年(전140)에 匈奴가 화친을 청하였을 때, 大行의 職에 있으면서 韓安國과 조정에서 논쟁을 벌여 화친에 반대하였다. 元光 元年(전134) 馬邑 사건으로 武帝의 질책을 받자, 자살하였다.
- 35) 『東越列傳』에 따르면, 東越은 곧 閩越이다. 閩越에 대한 출격은 閩越이 ‘天子의 職約’을 어기고 함부로 南越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벌어졌다. 東越王 郢을 죽이고 항복한 이들은 왕의 弟 餘善과 相 및 그 宗族들이었다(『史記』卷114 「東越列傳」 第54, 2981쪽).
- 36) 番陽: 『正義』에서 番의 음을 ‘婆’라 하였는데(番音婆), 이를 좇아 ‘番陽’을 파양으로 읽었다. 『考證』에서는 丁謙의 말을 인용하여, “番陽은 『地理志』에서 鄱陽이라 적었는데, 漢의 縣 이름이다. 豫章郡에 屬하며, 지금의 九江府이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4). 『地名大辭典』에 따르면, 番는 春秋시기 楚나라에서 설치하였으며, 秦代에 番縣을 설치하였다. 이후 西漢代에 番縣을 番陽縣으로 바꾸었으며, 豫章郡에 속하게 하였다. 그 治所는 지금의 江西省 波陽縣 동북의 古縣渡鎮이다(史爲樂, 2005: 2579).
- 37) 唐蒙에 관하여는 여기 『西南夷列傳』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가장 자세하며, 다른 사서에도 서남이 개척과 관련하여 언급될 뿐이다.
- 38) 여기에서의 南越은 國名이다. 남월국은 기원전 203년부터 기원전 111년까지 중국의 嶺南 지역에 존속한 고대국가이며, 國都는 番禺(지금의 廣州 市内)에 있었다. 그 疆域은 오늘날의 중국 廣東, 廣西 두 성의 대부분 지역과 福建, 호남, 귀주, 운남의 일부 지역과 베트남 북부를 포괄하였다.

(牂柯)로부터 오는데, 장가강(牂柯江)⁴⁰⁾은 넓이가 수 리(里)이며, 번우성(番禺城)⁴¹⁾ 아래로

39) 枸醬: 『集解』; “徐廣은 ‘枸’는 ‘蒟’라 적기도 하며, 음은 ‘窶’이다”라고 하였다. (裴)駰이 살피건대, 『漢書音義』에서 말하기를, ‘枸木은 穀樹와 유사하고, 그 잎이 뽕나무 잎과 같다. 그 잎을 사용하여醬을 담그면 시면서도 맛있는데, 蜀人은 珍味로 여겼다(徐廣曰: 「枸, 一作『蒟』, 音窶. 駰案: 漢書音義曰 「枸木似穀樹, 其葉如桑葉. 用其葉作醬酢, 美, 蜀人以為珍味.」).”라고 하였다. 『索隱』; “(枸는) 蒟이다. 살피건대, [晉人으로서 『漢書音義』를 지은] 晉灼은 음이 矩라 하였다. 劉德은 이르기를, ‘蒟樹는 뽕나무와 같은데, 그 열매(오디)의 길이가 2 3寸이며 맛은 시다. 그 열매를 취하여醬을 담그면, 맛있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蒟는 樹에서 나므로, 木이 아니다. 지금 蜀 지방에서는 家마다 蒟를 내는데, 열매가 뽕나무의 오디와 비슷하고, 맛이 매운 것이 생강과 유사하며, 시지 않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잎을 취한다.’라고 하였다. 이 注는 또 이르기를, 잎이 뽕나무 잎과 비슷하지만, 아니라고 하였다. 『廣志』에서는 이르기를, ‘色이 검고 맛이 매우며, 기를 가라앉혀 허기를 느끼게 한다(식욕을 돋운다).’라고 하였다. 窶는 求와 羽의 반절이다(蒟. 案: 晉灼音矩. 劉德云 「蒟樹如桑, 其椹長二三寸, 味酢; 取其實以為醬, 美.」. 又云 「蒟綠樹而生, 非木也. 今蜀土家出蒟, 實似桑椹, 味辛似薑, 不酢.」. 又云 「取葉. 此注又云葉似桑葉, 非也. 廣志云 「色黑, 味辛, 下氣消穀. 窶, 求羽反.」.”

40) 牂柯: 『正義』; “崔浩(北魏 사람, 381~450)는 이르기를, ‘牂柯는 배를 매는 말뚝이다.’라고 하였다. 常氏(東晉代 常璩)는 『華陽國志』에서 이르기를, ‘楚 頃襄王 때에 莊驪를 보내 夜郎을 쳤는데, 군대가 且蘭에 이르러, 江岸에 배를 대고 步兵戰을 벌였다. 夜郎을 멸한 뒤에, 且蘭을 배를 댄 말뚝이 있는 곳이라 하여 곧 그 이름을 고쳐 牂柯라 하였다.’라고 하였다(崔浩云: 「牂柯, 繫船杙也.」. 常氏華陽國志云: 「楚頃襄王時, 遣莊驪伐夜郎, 軍至且蘭, 楸船於岸而步戰. 既滅夜郎, 以且蘭有楸船杙處, 乃改其名為牂柯.」).”
任乃強은 『正義』에서 인용한 『華陽國志』에서 장가와 강가를 연결시킨 부분에 대하여 『南中記』를 지은 譙周의 오류이며, 상거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용한 결과라고 하였다. 譙周가 南人으로부터 牂柯郡 이름의 유래에 관한 전설을 듣고 莊驪의 入滇 설화에 부회하였다는 것이다(任乃強, 1987: 233~234). 『考證』에서도 ‘장가(강)’에 관하여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楓 三本에는 牂柯 아래 “江” 字가 있다. 王念孫이 말하기를, “牂柯 아래 마땅히 ‘江’字가 있어야 한다. 道는 ‘從’의 의미이며, 서북쪽 牂柯江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한다. 『索隱』 판본에 ‘道牂柯江’ 네 字가 나오고, 『漢書』, 『漢紀』 모두 ‘道西北牂柯江, 江廣數里’라고 적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라고 하였다. 丁謙이 말하기를, “牂柯江은 지금의 盤江이며, 『水經注』에서는 溫水라 칭하였다. 雲南 曲靖府 북쪽 霽益州 境內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阿迷州 동쪽에 이르면, 꺾여 동북쪽으로 흘러 八達江이 되는데, 속칭 混水河이다. 羅平州 동쪽 경계에 이르면 돌아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貴州 興義府 남쪽을 지나면 또 동쪽으로 北盤江과 합류하니, 곧 『水經注』에서 말하는 存水이다. 南·北盤江이 만나서 합류하면 비로소 牂柯江의 이름이 있게 되니, 대개 興義府 지역이 곧 漢武帝가 세운 牂柯郡이다. 따라서, 酈氏는 물이 牂柯郡 且蘭縣을 거친다고 말하고, 그것을 일러 牂柯水라 하였다. 牂柯江이 당시에는 牂柯郡 남쪽 일대만을 專稱하여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바야흐로 강 전체를 總稱하는 이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4))

41) 番禺城: 南越 趙佗의 수도로 지금의 廣州 시내로 비정된다. 番禺縣은 秦始皇 33년(전214)에 南越 지역을

나옵니다.”라고 하였다. 당몽이 돌아와 장안(長安)에 이르러 촉(蜀)에서 온 상인에게 [그 사정을] 물었다. 상인이 말하기를, “오직 촉 지방에서만 구장이 나는데, 대부분 몰래 가지고 나가 야랑(夜郎)에 팝니다. 야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가강 가에 있는데, 그 강의 너비가 100여 보(步)로 족히 배를 띄울 만합니다. 남월은 재물을 가지고 야랑을 역속(役屬)하여 [그 영향력이] 서쪽으로 동사(同師)에 이르지만, 또한 신하로 부리지는 못 합니다.”라고 하였다. 당몽이 이를 바탕으로 상서(上書)하여 상(上)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남월왕은 황옥좌독(黃屋左纛)의 제도를 시행하고,⁴²⁾ [다스리는] 땅은 동서 만여 리(里)라 하니, 이름은 외신(外臣)⁴³⁾이로되,

점령한 뒤 설치한 것으로 南海郡의 치소가 되었다. 현재의 廣東省 廣州市에 비정된다(史爲樂, 2005: 2579).

42) ‘黃屋左纛’: 皇帝의 車服이다. 황옥은 노란 비단으로 만든 수레의 덮개이고, ‘纛’은 야크의 꼬리로 만든 깃발이며, 수레 결말의 머리나 수레 형목의 좌변에 꽂는 듯하다(李斐曰: 「天子車以黃繪為蓋裏. 纛, 毛羽幢也, 在乘輿車衡左方上注之. 蔡邕曰以犂牛尾為之, 如斗, 或在駢頭, 或在衡.」應劭曰: 「雉尾為之, 在左驂, 當鑣上.」師古曰: 「纛音毒, 又徒到反. 應說非也.」: 『漢書』卷1上 「高帝紀」第1上, 41 쪽).

43) 外臣: ‘外臣’ 개념에 관하여는 도모노부 구리하라(栗原朋信)의 학설이 유명하다. 도모노부는 황제의 덕과 중국의 예법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중국의 漢을 중심으로 하는 天下를 내외로 나누고, 중국 안은 內臣, 內客臣으로 중국 바깥은 外臣, 外客臣과 같은 外客臣, 그리고 단순히 德化만으로 신속시킬 수 없는 絕域의 朝貢國으로 구분하였다(栗原朋信, 1960: 261). 이 중 ‘外臣’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한 황제의 덕화와 함께 예가 보급될 뿐, 법이 미치지 않는 지역(栗原朋信, 1960: 249)”이며, “내신과 외신의 구별은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제도상의 것, 바꾸어 말하면 문화적인 것(栗原朋信, 1960: 254)”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외신과 한과의 관계를 규정한 ‘職約’을 설명하면서, “한의 천하에 편입된 외신에 대하여 한 황제의 통제력은 보통의 경우 그 국내 질서에는 간섭하지 않지만, 외신 상호의 질서 유지에는 한의 규정이 존재하여 한의 간섭이 미친다(栗原朋信, 1960: 260~61).”라고 하였다.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에 대하여 종래의 일원적 관점을 통한 평면적 접근을 극복하고 다원적 관점을 통한 보다 입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金翰奎는 도모노부의 연구의 시도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外臣’ 개념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 비판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栗原의 ‘외신’은 ……(역주자 생략, 이하 同) 중외관계의 여러 유형 가운데서 ‘화친Ⅱ’ 관계에 포함되는 외국만을 가리킨다. 또한 율원의 ‘禮와 法’은 ‘內臣’과 ‘外臣’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 ‘外臣’ 자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栗原의 ‘내신’과 ‘외신’의 구분은 단순한 중국과 주변민족의 구분을 의미할 뿐이다. …… 栗原의 도식 가운데에는 ‘외신이 아닌 또 다른 주변민족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하겠다. 栗原은 ‘外客臣’의 존재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만, ‘외객신’과 ‘외신’을 구별하는 기준을 오로지 ‘덕과 예가 미치는 정도의 강약’에만 두고 있으므로(『秦漢史の研究』, 276쪽),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栗原의 ‘中國의 世界秩序’는 일견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매우 단순하다(김한규, 1982: 193).”

실은 한 주(州)⁴⁴⁾의 주인(主人)입니다. 지금 장사(長沙)⁴⁵⁾와 예장(豫章)⁴⁶⁾을 통해 가면, 물길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듣건대, 야랑이 보유한 정예 군사가 10여 만은 족히 된다고 하니, 장가강에 배를 띄워 불시에 [군대를] 내보내면, 이는 월(越)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책(奇策)입니다. 진실로 한(漢)의 강성함과 파촉(巴蜀)의 넉넉함이라면, 야랑(夜郎)에 이르는 길을 개통하여 [군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라고 하니, 상(上)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당몽을 제수(除授)하여 낭중장(郎中將)⁴⁷⁾으로 삼고, 천인의 군사와 보급부대⁴⁸⁾ 만여 인을 이끌고, 파(巴)·촉(蜀)의 작관(笮關)으로부

44) 州: 여기에서는 部刺史의 감찰구역으로서의 ‘州’나 後漢代 13州의 하나로서의 ‘州’와는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여기에서의 ‘州’는 오히려 ‘九州’의 州, 특히 우임금이 정비하기 이전의 독립적이고 격절된 하나의 구역 내지 자체적 세계로서의 ‘州’라는 의미에 가깝다.

45) 長沙: 長沙國을 가리킨다. 장사국은 西漢시기 현재의 湖南 지역에 설치된 諸侯封國인데, 기원전 202년에 세워지고 기원후 7년에 廢封되어 209년간 존속하였다. 漢高祖가 봉건한 이성제후 가운데 한고조 사망 이후에도 존속한 유일한 제후왕이다. 그 강역은 秦代의 長沙郡 영역을 이어 받았고, 장사군의 치소인 “湘縣”(오늘날의 臨湘縣)을 國都로 삼았다.

46) 豫章: 漢高祖 初年(대략 기원전 202년)에 豫章郡(贛江은 본디 豫章江이라 칭하였다.)을 설치하였다. 郡의 治所는 南昌이며, 18개 縣을 관할하였는데, 南昌·廬陵·彭澤·鄱陽·餘汗·柴桑·贛·新淦·南城·宜春·雩都·艾·安平·海昏·曆陵과 建成 등이 그것이다. 그 分布地域은 贛江·盱江·信江·修水·袁水沿岸, 곧 후대의 江西省 지역과 대체로 부합한다. 漢武帝時에 全國을 13個 監察區로 나누었는데, 이를 13部州라 칭하였다. 이때의 江西는 楊州部에 속하였다. 王莽의 新 始建國 元年(9)에 豫章郡의 이름을 九江郡으로 변경하였다. 後漢·三國·晉·南北朝 시기 郡의 이름은 豫章이었고, 郡의 治所 이름은 南昌이었다. 隋 開皇 九年(589)에 豫章郡을 폐지하고 洪州를 설치하였는데, 치소는 여전히 南昌縣이었다. 唐 至德 元年(756)에 豫章郡의 이름을 章郡으로 개칭하였다. 唐朝 貞觀年間에 長江의 中下流 지역에 江南道를 설치하였는데, 서기 733년 唐玄宗이 다시 江南東道와 江南西道로 나누었다. 江南東道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변화를 거쳐 지금은 江蘇와 安徽 兩省이 되었으며, 江南西道는 江西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여 豫章을 대신하여 강서지역의 행정명칭이 되었다.

47) 『考證』에서는 北宋代의 역사가 劉放(1023~1089)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郎中將은 마땅히 中郎將으로 적어야 하며, 뒤에 (司馬)相如로 하여금 郎中將으로서 가서 깨우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라고 하였다. 또, 清代 사람인 周壽昌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華陽國志』에서는 中郎將이라 적었다.”고 했다(瀧川資言, 1935: 4695).

48) 食重: 『索隱』; “[‘食重’은] 食貨 輜重의 수레이다. ‘重’의 음은 持와 用의 半切이라 하였다(案: 食貨輜重車也. 音持用反).” 치(輜)는 의복 같은 가벼운 물건(物件), 중(重)은 무기(武器) 같은 무거운 물건(物件)을 뜻한다. 따라서, 치중은 말이나 수레 따위에 실은 짐, 그리고 군대(軍隊)의 여러 가지 군수 물품(物品). 탄약(彈藥)·식량(食糧)·장막(帳幕)·피복 따위 물건(物件)을 통칭하는 말이다.

터⁴⁹⁾ 들어가게 하니, 마침내 야랑후(夜郎侯)⁵⁰⁾ 다동(多同)을 만났다. 당몽이 하사품을 넉넉하게 내리고,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이득으로써 타이르고 혼계하여, [군현을 설치하여] 관리를 두기로 약(約)을 맺고, 야랑후의 아들을 현령(縣令)으로 삼도록 하였다. 야랑 주변의 작은 읍(邑)들이 모두 한(漢)나라의 증백(縉帛)을 탐하였는데, 한(漢)나라에 이르는 길이 험하여 끝내 얻을 수 없으리라 여기고, 결국 오래지 않아 곧 당몽의 약(約)을 받아들였다. 귀환하여 보고하니,⁵¹⁾ 곧 건위군(犍爲郡)으로⁵²⁾ 삼았다. 파와 촉의 군사들을 징발하여 길을 닦았는데,

49) 『考證』은 符關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漢書』에는 “巴” 아래 “蜀”자가 없다. 王念孫이 말하기를, “巴의 符關은 본디 巴의 符關으로 적어야 한다. 『水經』에 이르기를, ‘江水가 동쪽으로 符縣을 지나, 북쪽으로 邪 동남쪽에 이르면, 鱗部水가 符關 동북쪽으로부터 흘러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水經의] 注에 이르기를, ‘縣은 옛 巴夷의 땅인데, 漢武帝 建元 6년 唐蒙을 中郎將으로 삼아 萬人을 거느리고 巴의 符關을 나가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符關은 符縣에 있고, 현은 옛 巴夷의 땅이므로 巴의 符關이라 말한 것이다. 漢의 符縣은 지금의 瀘州 合江縣 서쪽에 있었고, 지금의 합강현 남쪽에 符關이 있으니, 漢의 舊名을 따른 것이다. 만약 笮地라고 한다면, 촉의 서쪽에 있으니, 巴와 서로 접하지 않아 巴의 符關이라 말할 수 없다. 『史記』에서 巴蜀의 符關이라 적었는데, ‘蜀’字 하나가 많은 것이다. 舊本 『北堂書鈔』의 「政術部」에서 인용한 『漢書』는 ‘巴符關’이라 적었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正義』는 『幻云抄』에 의거하여 補하였고, 張氏本 또한 符라 적고 笮이라 적지 않았다. 顏師古는 말하기를, “多同은 그 侯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5). 그리고 『考證』에만 있는 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正義] 「地理志」에 따르면, 犍爲郡에는 符離縣이 있다. 살피건대, 符關은 符縣에 있다. 犍爲郡은 지금의 戎州이다(地理志, 犍爲郡有符離縣, 按符關在符縣, 犍爲郡, 今戎州也).

50) 夜郎侯: 漢朝는 內屬한 蠻夷에 대하여 王·侯·君·長의 爵을 수여하였다. 多同에 대하여 야랑후라고 한 것은 야랑의 내속과 置縣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호칭이다. 야랑후는 뒤에 본문에서 언급되겠지만, 한에 來朝한 이후 王의 爵을 받게 된다.

51) 『考證』에 따르면, 楓三本에는 “蒙” 아래에 “等”자가 있고, “還” 위에 “蒙”자가 있다고 한다(瀧川資言, 1935: 4694).

52) 犍爲郡: 前漢 建元 6년(전135)에 廣漢郡 남부를 나누어 夜郎國 지역과 함께 설치하여 益州에 속하게 하였다. 治所는 營縣(오늘날의 貴州 遵義市 서부)에 두었다. 元光 5년(전130) 南廣(오늘날의 사천 筠連縣 경내)으로 치소를 옮겼고, 다시 始元 원년(전86) 치소를 犍道縣(오늘날의 사천 宜賓市 서남부)으로 옮겼다. 後漢 永初 원년(107) 武陽縣(四川省 彭山縣 동부)으로 치소를 옮겼다. 그 강역은 초기에 매우 넓어서 오늘날의 四川 簡陽·彭山 등 현의 이남, 廣西 서부 및 貴州 대부분에 상당하였다. 그러나 元鼎 6년(전111) 且蘭을 평정한 뒤, 그 강역이 축소되었다. 지금의 廣西 서북부, 雲南 동부 부분지역과 貴州 지역에 牂柯郡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後漢 永初 초년에 또 서남부를 나누어 犍爲屬國을 설치하였다(史爲樂, 2005: 2564).

북도(樊道)⁵³⁾로부터 장가강으로 향하였다.⁵⁴⁾ 축 출신인 사마상여(司馬相如)⁵⁵⁾ 또한 말하기를, 서이(西夷)의 공(邛)과 작(笮)은 군(郡)을 설치할 만하다고 하였다. 사마상여를 낭중장(郎中將)⁵⁶⁾으로 삼아 가서 깨우치게 하니, 모두 남이(南夷)처럼 하였다.⁵⁷⁾ 도위(都尉)⁵⁸⁾ 하나와

53) 樊道: 전국시대 秦이 설치한 縣으로 현 四川의 宜賓市에 해당한다. 일설에는 宜賓縣 서쪽의 安邊場鎮이라 하기도 한다(史爲樂, 2005: 2791).

54) 『索隱』; 牂柯江으로 향한 것이다. 崔浩가 이르기를, “牂柯는 배를 매는 말뚝인데, 이를 지명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道는 ‘從’과 같다. 『地理志』에서는 夜郎에 또 豚水가 있다 했는데, 東으로 南海에 이르며, 네 개의 물줄기와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 이것이 牂柯江이다(道牂柯江. 崔浩云: 「牂柯, 繫船杙也, 以爲地名.」 道猶從也. 地理志夜郎又有豚水, 東至南海四會入海, 此牂柯江).

『考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丁謙이 말하기를, “樊道는 漢의 縣이고, 犍爲郡의 治所가 있던 곳이었다. 바로 오늘날의 敘州 宜賓縣이다.”라고 하였다. 張文虎가 말하기를, “『索隱』이 牂柯가 이미 위의 문장에 보이는데도, 여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單本의 이條 또한 ‘食重萬餘人’條 뒤에 나온다. 錯亂이 의심 된다.”라고 하였다(8쪽).

『司馬相如列傳』에서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相如가 郎이 되어 몇 해가 지났는데, 마침 唐蒙이 사자로 가서 夜郎과 西樊지역을 경략하여 개통하려고 하였다. 巴蜀의 吏卒 千人을 징발하고, 郡은 또 그를 위하여 轉漕 萬餘人을 동원하였다. (당몽이) 興法을 들어 그 渠帥를 베니, 巴蜀의 민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上이 그것을 듣고 相如를 보내 唐蒙을 질책하고, 諭告하여 巴蜀의 민에게 上의 뜻이 아님을 밝혔다(『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第57, 3044쪽).”

55) 司馬相如: 字는 長卿이며, 현재의 四川省 南充 蓬安 출신이다. 辭와 賦로 유명하며, 景帝時에 재물을 바쳐 郎이 되었고 武騎常侍를 맡았으나, 景帝가 사부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 마침 사부를 좋아하는 양왕이 입조시 데리고 온 枚乘·鄒陽 등과 어울리게 되자 사직하고 양으로 갔다. 枚乘 鄒陽 등과 어울리면서 <子虛賦>를 지었다. 이후 귀향하여 임공에서 거부 卓王孫의 딸과 결혼하여 부자가 되었다. 漢武帝가 即位 후에 <子虛賦>를 보고 크게 기뻐하자, 狗監 楊得意의 推薦으로 다시 입궐하게 된다. 司馬相如是 漢武帝를 위하여 <上林賦>를 지었다. 이후 본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郎中將으로써 西夷道 개통에 중사하게 된다.

56) 郎中將: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은 [궁 안에서] 門戶를 지키고 [황제의] 외출시에는 車騎를 지키는 일을 맡는다. [그 종류에는] 議郎 中郎 侍郎 郎中이 있고, 모두 定員이 없으며, 많으면 千 명에 이른다. 議郎 中郎은 秩이 比六百石이고, 侍郎은 比四百石이며, 郎中은 比三百石이다(『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第7上, 727쪽).” 『考證』에 따르면, 『司馬相如傳』에서는 郎中將을 中郎將이라 적었다(瀧川資言, 1935: 4696)고 했는데, 낭중장은 ‘郎中の將’으로 중랑장은 ‘中郎의將’으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듯하다.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平帝 元始 元年(1) 謁者의 명칭을 虎賁郎으로 바꾸고, 中郎將을 두었으며, 秩이 比二千石이라 하였는데(『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第7上, 727쪽), 이 중랑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57) 『司馬相如列傳』에서는 이 장면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때 邛과 笮의 君長들이 南夷가 漢과

10여 현(縣)을 설치하여 촉군(蜀郡)에 속(屬)하게 하였다.

通하여 賞賜를 얻은 것이 많았다 함을 듣고, 대부분 욕심을 내어 內臣妾이 되고 관리의 설치를 청하여 南夷에 준하여 처리해 주기를 바랐다. 天子가 相如에게 물으니 相如가 말하기를, ‘邛笮毋駘은 蜀에 가깝고 길 또한 개통하기 쉬워서, 秦代에 일찍이 通하여 군현을 설치하였다가 漢이 일어남에 이르러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진실로 다시 通하여 군현을 설치한다면 南夷보다 나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天子가 그러하다 여겨 相如를 배수하여 中郎將으로 삼고, 節을 세워 사자로 보냈다. 副使 王然于 壺充國 呂越人 등과 傳 수레 네 대에 나누어 타고 말을 달려 巴蜀의 夷를 통해 幣物을 西夷에게 주었다. ……司馬 長卿이 바로 西夷를 略定하자, 邛笮毋駘 斯榆의 君이 모두 內臣이 되기를 청하였다. 기존의 關을 제거하고 더 넓혀서 西쪽으로는 沫若水에 이르고, 南으로는 牂柯에 이르러 徼로 삼고, 零關道를 개통하였으며, 孫水에 다리를 놓아 邛都와 通하였다. 돌아와 天子에게 보고하니, 天子가 크게 기뻐하였다(『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第57, 3044~3046쪽). 이에 따르면 邛과 笮의 君長들이 南夷지역의 置吏와 交通로 개척 소식을 듣고 스스로 「稱臣」과 「置吏」를 요청하였고, 이 요청에 대하여 漢武帝가 司馬相如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문에서처럼 사마상여가 군현을 설치할 만하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西夷道 개척이 시도된 것이다.

- 58) 都尉: 여기에서의 都尉는 郡都尉를 지칭하며, 특히 ‘部都尉’의 설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郡都尉는 진대의 군위를 말하며,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군위는 군수를 보좌하여 武職과 甲卒을 관장하였다 한다. 질은 比二千石에 해당하며, 景帝 中二年(전148)에 都尉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漢書』 卷19 上 「百官公卿表」 第7上, 742쪽). 部都尉에 관한 김한규의 정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漢代の 邊郡에는 내군에 설치되지 않았던 특수한 都尉官이 數種 있었다. 部都尉·屬國都尉·農都尉·騎都尉·關都尉 등이 그것이다. 특히, 部都尉는 22개의 邊郡內에 48개나 설치되어, 변군조직의 가장 특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漢書』 「地理志」에 의하면, 部都尉는 太守의 治所와 분리된 치소에 常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통치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漢代の 部都尉制란 邊郡의 疆域을 地理的 便宜에 따라 東西南北中 등 五方으로 분할하여 各部의 통치권을 都尉官에게 위임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변군에 부도위가 설치된 것은 아니며, 또한 부도위가 설치된 변군이 모두 5부로 분할된 것도 아니다. 혹은 1부만 분할된 경우(7개郡)도 있으며 혹은 2부(5개郡), 3부(8개郡)로 분할된 경우도 있고, 혹은 동일한 방향의 2개 부도위가 동시에 병존한 경우(2개郡)도 있었다(김한규, 1982: 178).” 대부분의 邊郡에 部都尉가 설치되어 태수의 통치권이 분할된 까닭에 대하여는, “部都尉는 邊郡의 토지가 광원하였기 때문에 설치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주요한 이유는 한인의 주거지와 비한인의 주거지를 구별하여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後漢書』 「西南夷傳」의 沈黎郡 관련 기사를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沈黎郡은 武帝 元鼎 6년(전111)에 西南夷의 주거지에 설치된 初郡이었다. 그 뒤 天漢 4년(전97)에 蜀郡에 병합되어 蜀郡西部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蜀郡西部에는 漢人의 원주거지역과 西南夷의 주거지역이 혼입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漢은 촉군 서부에 兩都尉를 두어 1都尉는 西南夷를, 1都尉는 漢人을 각각 분리하여 통령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비록 1部 2都尉의 특수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부도위의 역할이 蠻夷地域을 漢人地域으로부터 분리하여 통치하는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일례라 할 것이다(김한규, 1982: 180).”

當是時，巴蜀四郡通西南夷道，戍轉相饟。數歲，道不通，士罷餓離溼死者甚衆；西南夷又數反，發兵興擊，耗費無功。上患之，使公孫弘往視問焉。還對，言其不便。及弘爲御史大夫，是時方築朔方以據河逐胡，弘因數言西南夷害，可且罷，專力事匈奴。上罷西夷，獨置南夷夜郎兩縣一都尉，稍令犍爲自葆就。

이때에 이르러 파(巴)와 촉(蜀)의 4군(郡)⁵⁹⁾은 서이도(西夷道)와 남이도(南夷道)의 개통을 위해 수자리 보낼 병사들을 [도로 개착 공사에] 돌리고 그 군량을 제공하였다. 몇 해가 지나도 길이 통하지 않자, 병사 중에 고달프고 굶주려 유리하거나, 습한 기운 때문에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⁶⁰⁾ 서남이(西南夷) 또한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는데, 군대를 동원하여 쳤으나, 비용만 소모할 뿐 공(功)이 없었다. 상(上)이 이 사태를 걱정하여, 공손홍(公孫弘)⁶¹⁾에게 가서 조사하여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는 돌아와 대답하여 그 불리함을 말하였다. 공손홍이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을 때, 마침 삭방군(朔方郡)⁶²⁾에 성(城)을 쌓고 황하를 경계로 호(胡)⁶³⁾

59) 『集解』에서 徐廣이 말하기를, “(그 4郡은) 漢中郡, 巴郡, 廣漢郡, 蜀郡이다.”라고 하였다(徐廣曰: 「漢中, 巴郡, 廣漢, 蜀郡。」).

60) 『考證』은 위 문장을 『한서』와 비교하여, 『漢書』에서는 “戍”를 “載”라 적었고, “離” 위에 “饑”字가 있으며, “溼” 위에 “暑”字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正義』本에는 “溼”을 “潔”으로 적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고증』이 말하는 『정의』본의 注는 三家本에는 없는 것이다. 이 『正義』注는 “潔의 음은 溫이며, 士卒이 여름의 열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음을 말한다(溼, 音溫. 言士卒歷暑熱氣而死者衆多也).”라고 하였다. 『雲南史料叢刊』의 徐文德은 이 조는 黃本·殿本 및 標點本에 모두 없다고 하였다(方國瑜, 1998: 8).

61) 公孫弘: 전200~전121. 漢代 武帝時 丞相을 지냈다. 淄川國 薛縣(지금의 山東 濰州 南部) 사람으로 출신이 貧寒하였다. 젊을 때 옥리가 되었다가, 죄를 얻어 면직되어, 돼지치기로 생업을 삼았다. 40여 세에 『春秋』 雜說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漢武帝 때에 賢良과 文學을 천거하게 하였는데, 淄川國의 추천을 얻어 現량으로 박사에게 임용되었다. 나중에 흉노에 사신으로 간 일로 무제의 뜻을 거슬러 병을 칭하여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元光 5年(전130)에 다시 現량문학으로 천거되었는데, 대책에서 일등으로 뽑혀 博士에 제수되고 待詔金馬門에 임명되었다. 元朔 3年(전126)에 御史大夫로 승진하였으며, 5년에 丞相이 되었다. 한초에는 늘 공신열후 혹은 그 후사가 尙書에 임명되었는데, 공손홍은 布衣로서 尙書의 위에 발탁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따라서, 武帝는 특별히 詔를 내려 그를 平津侯로 封하였고, 이후 尙書를 열후에 봉하는 것은 常制가 되었다. 元狩 2年(전121)에 죽었다.

62) 朔方郡: 西漢 元朔 2年(전127)에 설치되었고, 치소는 朔方縣(內蒙古 杭錦旗 북 什拉召 일대)에 있었다. 그 강역은 오늘날의 內蒙古 伊克昭盟 西北部 및 巴彥淖爾盟 后套지구에 해당한다.

63) 여기에서의 ‘胡’는 匈奴를 지칭한다.

를 축출하려 하였다. 공손홍은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서남이 경영의 해(害)를 말하였는데, 장차 [서남이 경영을] 포기하고 흉노(匈奴) 문제에 전력(專力)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황제가 서이(西夷) 경영은 포기하였으며, 오직 남이(南夷)와 야랑(夜郎) 두 현(縣)에 도위 하나만 설치하여 두고,⁶⁴⁾ 점차 건위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키고 [군현을] 이루어가도록 하였다.⁶⁵⁾

及元狩元年，博望侯張騫使大夏來，言居大夏時見蜀布·邛竹杖，使問所從來，曰「從東南身毒國，可數千里，得蜀賈人市」。或聞邛西可二千里有身毒國，騫因盛言大夏在漢西南，慕中國，患匈奴隔其道，誠通蜀，身毒國道便近，有利無害。於是天子乃令王然于·柏始昌·呂越人等，使開出西夷西，指求身毒國。至滇，滇王嘗羌乃留，爲求道西十餘輩。歲餘，皆閉昆明，莫能通身毒國。

원수(元狩) 원년(전122)에 박망후(博望侯) 장진(張騫)이 대하(大夏)⁶⁶⁾에 사신으로 갔다가

64) 『集解』에서 徐廣이 말하기를, “元光 6年(前129)에 南夷에 비로소 郵와 亭을 설치하였다.”라고 하였다(徐廣曰:「元光六年, 南夷始置郵亭」).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년간의 남이도 공사에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 때문에 서이도 경영이 완전히 포기된 데 비하여, 남이도 경영은 잠정 보류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리된 듯하다. 『考證』은 이 부분 문장 중 다른 판본 및 『한서』와 다른 부분을 지적하여, “罷” 위에, 楓·三本에는 “許” 자가 있고, 『漢書』에는 “許之” 두 자가 있다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7).

65) 『正義』에서는 ‘稍令犍爲自葆就’를 “犍爲에게 스스로 지키게 하고, 점차 (기반을) 닦아 그 郡縣을 이루도록 하였다.”라고 해석하였다(令犍爲自葆守, 而漸修成其郡縣也). 『考證』은 ‘葆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漢書』에서는 葆를 保로 적었다. 王念孫이 말하기를, “葆就’는 ‘保聚’와 같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7). 『考證』본의 『史記』는 ‘葆就’를 ‘夷就’라고 적고 있지만, 『고증』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건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雲南史料叢刊』의 徐文德은 각 판본이 모두 “葆就”로 적고 있는데, 오직 『會證』본만이 “夷就”로 적고 있는데, 아마도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方國瑜, 1998: 8).

66) 大夏: Bactria; Bactriana. 기원전 246~기원전 138. 힌두쿠시(Hindu Kush)산맥과 아무다리아(Amu Darya)강 사이, 즉 오늘날의 아프카니스탄 북부에 고대 그리스인이 세운 나라. 페르시아어에서는 Bakhtar, 아랍어와 인도어에서는 Bhalika로 표기한다. 기원전 126년 張騫이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大月氏의 침입을 받아 왕국이 망한 뒤였다고 한다. 『大宛列傳』에서는 大夏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大宛의 서남쪽으로 2천여 리 떨어진 곳에 있고, 정착생활을 하여 성과와 가옥을 가지고 있으며 대완과 풍속이 같다고 하였다. 또, 대군장(大君長)은 없지만 때때로 성읍에 작은 우두머리(小長)가 세워지고, 그 군대는

돌아왔는데, 대하에 있을 때 촉(蜀)의 포(布)와 공(邛)의 죽장(竹杖)⁶⁷⁾을 보고 그 들여온 곳을 알아보았었다. [그때 어떤 이가] 말하기를, “동남쪽의 신독국(身毒國)⁶⁸⁾으로부터 오는데, 수 천 리는 족히될 터이지만, 촉(蜀) 상인이 파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 어떤 이에게 듣기는 공(邛)의 서쪽으로 2,000리 정도에 신독국이 있다고 했다. 장건이 이를 근거로 조금 과장하여 말하기를, 대하는 한(漢)의 서남쪽에 있는데, 중국을 혐모하나, 흉노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진실로 촉(蜀)을 통하면, 신독국에 이르는 길은 편하고 가까우며, 이익만 있을 뿐 해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천자(天子)가 마침내 왕연우(王然于), 백시창(柏始昌), 여월인(呂越人)⁶⁹⁾ 등에게 영을 내려 서이 서쪽 사이로 몰래

약하고 싸우기를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은] 장사는 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월지가 흉노의 압박으로 서쪽으로 도망쳐 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모두 臣屬시켰다고 하였다. 그 인구는 대략 100여만 명이 되고, 그 도읍은 남시성(藍市城)인데 시장이 있어 각종 물건들을 판매하며, 그 동남쪽에는 신독국(身毒國)이 있다고 하였다.〔『史記』 卷123 「大宛列傳」 第63, 3164쪽〕.

67) 邛의 竹杖: 『集解』; “韋昭가 말하기를, ‘邛縣의 대나무이며, (공현은) 蜀郡에 屬한다.’고 하였다. 瓚이 말하기를, ‘邛은 山의 이름이다. 이 대나무는 그 마디가 길고 속이 실하여 지팡이를 만들기에 좋다.’라고 하였다(韋昭曰: 「邛縣之竹, 屬蜀。」 瓚曰: 「邛, 山名. 此竹節高實中, 可作杖」.

『考證』에서는 ‘蜀布’와 ‘邛竹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蜀布는 蜀 지방에서 나는 布이다. 邛竹杖은 邛 지방에서 나는 대나무 지팡이이다. 大夏는 「匈奴傳」에 보인다. 梁玉繩이 말하기를, “『史記』·『漢書』의 表를 살펴보면, 張騫이 元朔 6年(전123) 3월에 列侯에 封해졌는데, 그렇다면 元狩 元年(전122)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大宛傳」을 고구하면, 張騫은 匈奴 가운데 구류되어 있다가, 左谷蠡 王이 그 太子를 공격하여 자립하고 國내가 어지러워지자, 도망하여 漢으로 귀환하였다. 「匈奴傳」으로 그 사실을 추적해보면 元朔 3年(전126)의 일이니, 장건이 元朔 3년에 귀환하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7).

68) 身毒國: 『集解』; “徐廣이 말하기를, ‘어떤 이는 字를 ‘쓰’이라고도 적는다. 『漢書』에서는 바로 이르기를, ‘身毒’이라고 하였지만, 『史記』의 한 판본에서는 ‘乾毒’이라고 적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駢이 살피건대, 『漢書音義』에서 말하기를, ‘一名 ‘天竺’이라고 하는 것은 곧 浮屠胡 이것이다.’라고 하였다(徐廣曰: 「字或作 ‘竺’. 漢書直云 ‘身毒’, 史記一本作 ‘乾毒.’ 駢案: 漢書音義曰 「一名 ‘天竺’, 則浮屠胡是也」). 『索隱』; “身의 音은 捐이고, 毒의 音은 篤이다. 다른 판본에서는 ‘乾毒’이라고 적었다. [東晉 사람 蔡謨가 지은] 『漢書音義』에서는 一名 ‘天竺’이라고 하였다(身音捐, 毒音篤. 一本作 「乾毒’. 漢書音義一名 「天竺’也).” 『考證』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王先謙이 말하기를, “『集解』에 따르면, 『史記』의 한 판본이 身毒을 乾毒이라 적었다고 했다. 顏師古는 이르기를, ‘捐篤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살피건대, 捐篤은 마땅히 捐毒이라 적어야 하며, 西域의 國이지, 天竺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漢書』 「西域傳」에 보인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7). 결과적으로 身毒은 인도를 지칭하는 말이며, 『史記』 「大宛列傳」 역주의 해당 注가 그 내용이 자세하다.

나가 신독국을 찾게 하였다.⁷⁰⁾ 전(滇)에 이르렀는데, 전왕(滇王) 상강(嘗羌)⁷¹⁾이 끝내 잡아두고, 대신하여 길을 찾기 위해 서쪽으로 보낸 것이 10여 무리였다. 한해 남짓 지나 모두 곤명에게 막혀⁷²⁾ 끝내 신독국과 통(通)할 수 없었다.

滇王與漢使者言曰：「漢孰與我大？」及夜郎侯亦然。以道不通故，各自以爲一州主，不知漢廣大。使者還，因盛言滇大國，足事親附。天子注意焉。

69) 『考證』에서는 『漢書』에는 “有利” 두 자가 없고, 楓·三本에는 “柏始昌·呂越人等” 7자가 없다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8).

70) 『大宛傳』에 따르면, 왕연우(王然于), 백시창(柏始昌), 여월인(呂越人) 등이 武帝의 명을 받아 실제로 身毒國道를 찾아 나선 시점은 張騫이 신독국도를 찾은 것을 건의한 뒤 한참 뒤로 보인다. 즉, 일러도 南越이 멸망한 기원전 111년 이후의 일이어야 한다. 『史記』 「大宛列傳」은 명확하게 신독국도를 찾기 위한 사자 파견을 남월 멸망 이후로 기록하고 있다. “이때 한은 이미 월(越)을 멸망시켰으므로 촉(蜀)과 서남이(西南夷)들이 모두 떨어져서 관리[를 파견해 줄 것]와 입조(入朝)하기를 청했다. ……이에 백시창(柏始昌)과 여월인(呂越人) 등 일년에 십여 무리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이들 처음 [설치된] 군을 나서서 대하에 가려고 했으나 모두 곤명에게 막혀서 피살되고 재물은 빼앗겼으며, 끝내 대하와 소통할 수 없었다. 이에 한은 삼보(三輔)의 죄수들을 보내고, 파촉(巴蜀)의 병사 수만 명을 [합하여], 광창(郭昌)과 위광(衛廣) 등 두 장군을 파견하여 곤명이 한의 사신들을 방해한 것에 대해 공격하도록 해서, 수만 명을 참살하고 포로로 잡아서 갔다. 그 후에 사신을 보냈는데, 곤명이 다시 노략질하니 끝내 소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도(北道)로는 주천에서 대하에 이르고 사신들도 이미 많아져, 외국에서는 한의 재물이 날로 넘쳐나서 그 물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史記』 卷123, 3170~3171).” 이 기사와 『사기』와 『한서』의 여타 기사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독국도를 찾는 작업과 미막 등의 복속, 滇王의 入朝, 益州郡의 설치와 확대 등은 거의 동시에 추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월의 멸망, 야랑과 서이 평정, 신독국도 개통 추진, 노침과 미막의 멸망, 전왕의 입조, 신독국도 개통 시도의 실패의 순서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漢書』 「西南夷傳」에서 신독국도 개통 작업이 4년여 만에 실패했다고 밝힌 것을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위 『史記』 「大宛列傳」 기사가 지적하였듯이 ‘북도’의 개통으로 그 필요성이 감소한 뒤, 아마도 기원전 105년 益州郡 昆明의 반란과 광창 등의 진압실패 이후 포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신독국도 개통 자체는 실패하였지만, 漢은 이 과정에서 昆明의 지역인 益州郡의 西部지역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1) 嘗羌: 『集解』에서 “徐廣이 말하기를, ‘嘗’은 어떤 관본에서는 ‘賞’이라고 적었다(徐廣曰: ‘嘗, 一作 ‘賞’).” 라고 하였다. 『考證』은 『漢書』에서는 嘗羌을 “當羌”으로 적고 있음을 지적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8).

72) 『集解』에서 “如淳이 말하기를, 昆明에게 길이 막혔다(如淳曰: ‘爲昆明所閉道’).”라고 하였다. 『正義』; 昆明은 지금의 嶺州 南쪽에 있었는데, 昆縣이 이것이라고 하였다(昆明在今嶺州南, 昆縣是也).

전왕이 한의 사자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한나라와 우리 중에 어느 쪽이 더 큰가?”라고 하였다. 야랑후 또한 그렇게 말하였다.⁷³⁾ 길이 통하지 않은 까닭에 각기 스스로를 한 주(州)의 주인⁷⁴⁾으로 여기고, 한나라의 광대함은 알지 못하였다. 사자가 돌아와 과장되게 칭찬하여 말하기를滇(滇)은 큰 나라로 가까이 지내기에 족하다고 하니, 천자가 주목하였다.

及至南越反，上使馳義侯因犍爲發南夷兵。且蘭君恐遠行，旁國虜其老弱，乃與其衆反，殺使者及犍爲太守。漢乃發巴蜀罪人嘗擊南越者八校尉擊破之。會越已破，漢八校尉不下，卽引兵還，行誅頭蘭。頭蘭，常隔滇道者也。已平頭蘭，遂平南夷爲牂柯郡。夜郎侯始倚南越，南越已滅，會還誅反者，夜郎遂入朝。上以爲夜郎王。

남월(南越)이 반란을 일으키자,⁷⁵⁾ 무제(武帝)는 치의후(馳義侯)⁷⁶⁾에게 건위군을 통하여 남이(南夷)의 군대를 동원하게 하였다. 차란⁷⁷⁾군(且蘭君)은 군대를 멀리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 하였는데, 주변의 국(國)들이 [남은] 노약자들을 사로잡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73) 滇王과 夜郎侯를 모두 만나고 이러한 이야기를 천자에게 전한 漢의 사자는 누구이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때는 언제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司馬相如傳』의 기록이다. 『司馬相如傳』에 따르면, 사마상여 외에 王然于·壺充國·呂越人이 副使로서 이 사행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서이지역뿐만 아니라, 남이지역인 장가에까지 이른다(『史記』卷117『司馬相如列傳』第57, 3046쪽).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부사로 참여한 인사 중 王然于와 呂越人은 이후 武帝의 명령으로 신독국도를 개척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 사람들이며, 특히 왕연우는 이후 기원전 109년에 전왕에게 입조를 권유하는 사자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보건대, ‘夜郎自大’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한의 사자와 전왕 및 야랑후의 회견은 사마상여의 서이 경략에 부수하여 일어난 일로 보아도 좋을 듯하며, 이 사자는 서이 경략에 참여한 부사 일행, 특히 그 중에서도 왕연우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74) 『考證』은 『漢書』에서는 主를 “王”으로 적고 있는데, 訛傳이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698).

75) 南越의 相 呂嘉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元鼎 6년(전111) 夏四月의 일이다.

76) 馳義侯: 越人으로서 이름은 遺이고 그 성은 전해지지 않는다. 『고증』은 “『漢書』 『武帝紀』에 ‘越馳義侯遺’라고 적었는데, 馳義侯는 아마도 越人인 듯하고, 그 姓은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77) 且蘭: 『索隱』은 ‘且’의音を 설명하면서, 뒷글자의音은 子(zi)와 餘(yu)의 반절(ju)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小國의 이름이며, 나중에 縣이 되어 牂柯郡에 속하였다라고 하였다(上音子餘反. 小國名也. 後縣, 屬牂柯). 且蘭國은 戰國시기부터 漢初에 이르는 古國이다. 그 위치는 현재 貴州의 都勻·福泉·黃平·貴定 등의 市縣 일대에 해당한다.

무리와 함께 배반하여, 사자 및 건위 태수를 죽였다. 한은 이에 일찍이 과촉의 죄인을 징발하여 남월을 공격하던 여덟 교위(校尉)로 이들을 격파하였다. 마침 월이 이미 격파되었기 때문에⁷⁸⁾ 한의 여덟 교위는 남하하지 않고, 즉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두란(頭蘭)⁷⁹⁾을 주멸하였다.⁸⁰⁾ 두란은 늘 진(滇)으로 향하는 길을 막던 자였다. 이미 두란을 평정한 뒤, 마침내 남이를 평정하여 장가군(牂柯郡)을 설치하였다. 야랑후는 처음에 남월에 의지하였다. 그런데 남월이 이미 멸망하고, 때마침 [한군이] 돌아와 이반한 자들을 주멸하니, 야랑이 마침내 입조(入朝)하였다. 상(上)이 야랑왕(夜郎王)으로 삼았다.

南越破後，及漢誅且蘭·邛君，并殺笮侯，毋駝皆振恐，請臣置吏，乃以邛都爲越嵩郡，笮都爲沈犁郡，毋駝爲汶山郡，廣漢西白馬爲武都郡。

남월이 격파된 뒤, 한이 차란과 공군(邛君)을 주멸하고, 아울러 작후(笮侯)를 죽이자, 염(毋)방(駝)이 모두 떨며 두려워하여 칭신(稱臣)하고 [군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둘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도(邛都)에 월수군(越嵩郡)을 설치하고, 작도(笮都)를 침려군(沈犁郡)으로 만들고, 염(毋)방(駝)에 문산군(汶山郡)⁸¹⁾을 설치하였으며, 광한군(廣漢郡) 서쪽의 백마(白馬)는 무도군(武都郡)으로 삼았다.

78) 南越이 격파된 것은 元鼎 6년(전111) 冬十月이다.

79) 頭蘭: 『索隱』: “[頭蘭은] 곧 且蘭이다(卽且蘭也).”

80) 『漢書』 「西南夷傳」에서는 이때 남이 정벌에 참여한 인물로 ‘中郎將郭昌·衛廣’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광창의 경우는 『한서』에 입전되어 있는데, “郭昌은 雲中人이다. 校尉로서 大將軍 衛靑을 종군하였다. 元封 4년에 太中大夫로서 拔胡將軍이 되었으며 朔方에 둔수하였다. 昆明을 쳤으나 功이 없어 人수를 회수당하였다.”라고 하였다(『漢書』 卷55 「郭昌傳」, 2492). 『漢書』 「武帝紀」에 따르면, 광창은 元封 6년(전105) 삼월에 일어난 益州郡의 昆明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하는데(『漢書』 卷6 「武帝本紀」, 198), “功이 없어 人수를 회수당하였다.”라고 한 것은 이때의 일인 듯싶다.

81) 汶山郡: 『集解』: “應劭가 말하기를, ‘지금의 蜀郡 岷江이다.’라고 하였다(應劭曰: 「今蜀郡岷江」).”

汶山郡은 기원전 111년에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汶江縣(현재의 四川 武縣 북)이었다. 그 강역은 현재의 四川 黑水縣, 邛崃山 이동, 岷山 이남, 北川·都江堰市 이서지역에 상당한다. 地節 3년(전 67)에 蜀郡에 편입되었다. 東漢 建安 말년에 劉備가 다시 설치하였다.

上使王然于以越破及誅南夷兵威風喻滇王入朝。滇王者，其衆數萬人，其旁東北有勞
 澗·靡莫，皆同姓相扶，未肯聽。勞澗·靡莫數侵犯使者吏卒。元封二年，天子發巴
 蜀兵擊滅勞澗·靡莫，以兵臨滇。滇王始首善，以故弗誅。滇王離難西南夷，舉國降，
 請置吏入朝。於是以為益州郡，賜滇王王印，復長其民。

상이 왕연우(王然于)를 사자로 보내 남월의 패망과 남이를 주멸한 군사적 위세로써 전왕(滇王)을 넉넉히 깨우쳐 입조하도록 하였다. 전왕이라는 자는 그 무리가 수만 인에 그 곁 동북쪽에 노침(勞澗)과 미막(靡莫)⁸²⁾이 있어 모두 동성(同姓)으로 서로 의지하는 까닭에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노침과 미막은 여러 차례 [한의] 사자와 관리 및 사졸을 침범하였다. 원봉(元封) 2년(전109)에 천자가 파촉의 군대를 일으켜 노침과 미막을 쳐서 멸하고, 그 군대로 전을 압박하였다. 전왕이 처음 한과 관계를 가진 이래로 늘 선의(善意)를 가졌기 때문에⁸³⁾ 주멸당하지 않았다. 전왕이 서남이(西南夷)의 전례(前例)를 좇아⁸⁴⁾ 나라를 들어 항복하고, 군현의 설치와 입조(入朝)를 요청하였다. 이에 익주군(益州郡)⁸⁵⁾을 설치하고,⁸⁶⁾ 전왕에게 왕

82) 『索隱』: ‘勞澗’ ‘靡莫’은 勞寢과 靡莫이며, 두 國은 滇王과 同姓이다(勞寢·靡莫. 二國與滇王同姓).

83) ‘始首善’에 대한 여기에서의 해석은 우선 『漢書』의 師古注를 좇았다. 師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善意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漢書』卷95「西南夷傳」, 3842쪽). 안사고는 ‘初始以來’라고 하여 ‘漢과 滇과의 관계가 시작된 이래’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그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한편, ‘始’를 ‘비로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군대가 滇에 가까이 닥치자, 비로소 스스로 앞장서 善意를 표시하였다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84) ‘離難西南夷’에 대한 해석은 『考證』을 좇았다. 『考證』은 먼저 中井積德의 견해를 소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離難’은 滇王의 이름이고, ‘西南夷’는 衍文이다(9쪽). 한편, 『漢書』에서는 ‘難’자와 ‘南’자를 빼고 ‘離西夷’로 적었고, 顏師古는 여기에 注하여 “東向하여 漢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西夷가 이미 ‘請臣置吏’하였다 적은 것을 고려하면, “離西夷”는 ‘西夷를 좇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瀧川資言, 1935: 4700).

85) 益州郡: 기원전 109년에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滇池縣(雲南 晉寧縣 동북의 晉城鎮)에 있었다. 그 강역은 雲南의 怒江 이동, 洱海 이서 및 姚安·元謀·東川 이남, 曲靖·宜良·華寧·蒙 이서, 哀牢山 이북의 지역에 상당한다.

86) 『考證』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中井積德이 말하기를, “‘離難西南夷’ 5자는 뜻이 통하지 않으며, 『한서』에서는 ‘離西夷’ 3자만 적었다. 顏師古는 이르기를, “東向하여 漢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西南夷’ 세 자는 아래 문장에 이어지는 衍文이다. 離難은 滇王의 이름이다. 丁謙이 말하기를,

(王)의 인(印)을 내려 다시 그 민의 수장이 되도록 하였다.

西南夷君長以百數，獨夜郎·滇受王印。滇小邑，最寵焉。

서남이의 군장이 백을 헤아리는데, 오직 야랑(夜郎)과滇(滇)만이 왕인(王印)을 받았다.滇은 작은 읍(邑)이었지만, 가장 총애를 받았다.

太史公曰：楚之先豈有天祿哉？在周爲文王師，封楚。及周之衰，地稱五千里。秦滅諸侯，唯楚苗裔尚有滇王。漢誅西南夷，國多滅矣，唯滇復爲寵王。然南夷之端，見枸醬番禺，大夏杖·邛竹。西夷後揃，剽分二方，卒爲七郡。

태사공(太史公)이 말한다. 초(楚)의 선조에게 무슨 하늘의 녹[天祿]이 있었던가? 주대(周代)에 문왕(文王)의 사(師)가 되어 초(楚)에 봉(封)해졌다.⁸⁷⁾ 주나라가 쇠미하게 되었을 때는 그 땅이 오천 리라고 칭할 정도였다. 진(秦)이 제후(諸侯)⁸⁸⁾를 멸하였으나, 오직 초의 먼 후손으로 오히려 전왕(滇王)이 있었다. 한(漢)이 서남이를 주멸하여, 국(國)이 대부분 멸망하였으나, 오직 전만은 다시 총애받는 왕이 되었다. 그러나 남이(南夷) 정벌의 발단이 구장(枸醬)과 번우(番禺) 그리고 대하(大夏)의 지팡이과 공(邛)의 대나무에 있었다. 서이(西夷)는 나중에 나뉘어⁸⁹⁾ 흩어져서 두 지방으로 나뉘었으며,⁹⁰⁾ 끝내 일곱 개의 군(郡)이 되었다.⁹¹⁾

“漢의 益州는 지금의 雲南省 城이며, 三國時에 이르러 비로소 四川을 益州로 여겼다.”라고 하였다(瀧川資言, 1935: 4700).

87) 『史記』 「楚世家」에 따르면, ‘文王之師’는 季連의 묘에 鬻熊(『史記』 卷40 「楚世家」 第10, 1691쪽)을 지칭하는 것이다. 鬻熊은 요절하였으나, 성왕시에 그 공을 인정받아 子爵에 추증되어 ‘子男의 땅’, 즉 방50리의 땅에 封建되었다. 楚武王은 隨人을 정벌한 뒤 姬姓인 수인을 통해 周 왕실에 號를 높여 주기를 청하였다. 주 왕실이 이를 거절하자 스스로 호를 높여 왕이라 칭하면서 “나의 선조 鬻熊 文王之師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史記』 卷40 「楚世家」 第10, 1695쪽).

88) 중화서국본에는 ‘諸侯’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이는 ‘諸侯’로 바꾸어야 한다.

89) 『集解』는 『漢書音義』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揃의) 音은 ‘翦’이다.”라고 하였다(漢書音義曰：「音翦.」).

- 『索隱』도 (揃의) 音은 ‘剪’이라 하였으며, 揃은 分割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音剪. 揃謂被分割也).
- 90) 『索隱』은 ‘剽’에 대하여 音이 匹과 妙의 반절이라 하였고, 西夷가 나중에 나뉘고 물리고 쫓겨 마침내는 흩어져 西·南 두 지방에 居하여 각기 郡縣에 屬하게 되었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 剽 또한 ‘分’의 뜻이라고 하였다(剽音匹妙反. 言西夷後被揃迫逐, 遂剽居西南二方, 各屬郡縣. 剽亦分義).
- 91) 『集解』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犍爲郡·牂柯郡·越嶲郡·益州郡·武都郡·沈犁郡·汶山郡의 땅이다.”라고 하였다(徐廣曰:「犍爲·牂柯·越嶲·益州·武都·沈犁·汶山地也.」).

| 참고문헌 |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十三經,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許嘉璐主編, 『二十四史全譯: 史記』,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常璩撰, 任乃強校注, 『華陽國志校補圖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瀧川資言, 『史記會注考證』,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1999(影印)

김병준, 『中國古代地域文化와 郡縣支配』, 서울: 一潮閣, 1997

김한규,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서울: 一潮閣, 1992

貴州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夜郎史探』,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8

藍勇, 『西南歷史文化地理』,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7

童恩正, 『童恩正文集·學術系列 古代的巴蜀(1979)』, 重慶: 重慶出版社, 1998

馬曜主編, 『雲南簡史』,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83

馬長壽遺著, 『氏與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4

方國瑜主編, 『雲南史料叢刊』第1卷,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1998

方國瑜, 『中國西南歷史地理考釋』, 北京: 中華書局, 1987

王文光, 『中國古代的民族識別』,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1997

王文光·龍曉燕·陳斌, 『中國西南民族關係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尤中, 『雲南民族史』,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1994

藤澤義美, 『西南中國民族史の研究』, 東京: 大安, 1969

栗原朋信, 『秦漢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0

馬曜, 「“滇”“叟”“爨”族屬與彝白源流」, 『雲南社會科學』1987-5, 1987

沙先貴, 「長順與夜郎文明的關係」, 『貴州民族學院學報』2005-2, 2005

熊宗仁, 「貴州研究夜郎五十年述評」, 『貴州民族研究』2000-1, 2000

劉義, 「夜郎國究竟在哪里」, 『中州今古』2004-10, 2004

林超民, 「白子國考」, 『南詔文化論』,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91

蔣徹, 「夜郎在貴州黔西南望謨縣桑郎蠻王城」, 『貴州文史叢刊』1994-3, 1994

朱路, 「千古懸念 - 夜郎故地探謎」, 『當代貴州』 2000-12, 2000

史爲樂,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대완열전(大宛列傳)



「대완열전(大宛列傳)」 해제

「대완열전(大宛列傳)」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서역차공(西域鑿空)’의 위업을 이룬 장건(張騫, 전195~114)의 귀환과 이광리(李廣利)의 대완원정(大宛遠征)에 힘입어 ‘서역(西域)’에 관한 비교적 소상한 사정이 중국에 알려지게 되자, 사마천(司馬遷)이 이를 계기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사기』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건이 한무제(漢武帝)의 명을 받아 서역으로 나선 것은 기원전 139년이었지만, 가고 오는 도중에 흉노(匈奴)의 포로가 되어 10여 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126년에야 귀환할 수 있었다. 그 뒤 그는 기원전 123년과 121년에 각각 장군 위청(衛靑)과 이광(李廣)을 따라 흉노원정에 참여하였고, 119년에는 오손(烏孫)과의 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출사하였다. 한편 이광리의 원정은 대완 한혈마(汗血馬)에 관한 장건의 보고를 들은 무제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기원전 104년 1차원정이 실패한 뒤 기원전 102년 2차원정이 감행되어 ‘선마(善馬)’ 수획 필을 얻는 전과와 함께 종료되었다. 사마천이 기원전 91년 전후한 시기에 『사기』를 지으면서 그때까지 중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서방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담은 「대완열전」을 포함시킨 것도 바로 장건과 이광리 두 사람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기』 그 자체가 후일 기전체류 정사의 남상(濫觴)을 이루었듯이,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대완열전」도 『한서』와 『후한서』를 비롯하여 후대의 여러 정사들에 포함된 「서역전」의 효시를 이루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正史 속의 다른 어떤 서역전들에 비해 그 동안 학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완열전」의 원전성(原典性), 즉 현재 『사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대완열전」이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망실(亡失)

되었다가 후일 다른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한 뒤 삽입해 넣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다. 『사기』는 중국 고대사 이해에 필수불가결한 독보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불경(不敬)에 가까운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우선 「대완열전」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열전의 주인공이 대완이 아니라 장건과 이광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의 다른 열전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안에 대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전의 제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대완’은 *Taxwar(=‘Tochara’, ‘*’는 추정된 음가임을 뜻한다.)를 음사한 것으로, 지리적으로는 파미르 서쪽의 페르가나(Ferghana) 계곡 일대를 지칭하였다. 따라서, ‘대완’이라는 말 자체가 후일 특정한 의미를 갖고 사용된 ‘서역’이라는 용어와 등치될 만한 것인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완열전」의 배치도 『사기』에 포함된 중국 주변 민족들의 기록 — 권113 「남월열전」, 권114 「동월열전」, 권115 「조선열전」, 권116 「서남이열전」 — 과는 떨어져서 권123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홍노열전」도 권110으로 두어졌기 때문에 「대완열전」의 배치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홍노열전」의 경우 그 앞 뒤로 배치된 권109의 「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과 권111의 「위장군표기열전(衛將軍驃騎列傳)」과의 연속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대완열전」은 「혹리열전(酷吏列傳)」과 「유협열전(游俠列傳)」을 앞뒤로 두고 있어서 그러한 연속성마저 희박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사기』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이며 소위 ‘삼가주(三家注)’의 하나로 8세기 전반에 저술된 『사기색은(史記索隱)』의 작자 사마정(司馬貞)이 「대완열전」의 신빙성에 대해서 최초의 의문을 제기했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사마천 사후 『사기』의 완본이 사라지고 잔결본만 전해지게 되었는데, 사라진 부분에 속했던 「대완열전」을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인물인 저소손(褚少孫)이 보완하여 삽입하는 과정에서 그 같은 일탈이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대완열전」의 ‘원전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의구심은 최적(崔適)이 『사기탐원(史記探源)(1918)』을 통해서 학술적인 문제로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대완열전」이 저소손의 노력에 의해서 복원된 것이 아니라 실은 후인이 『한서』 「장건·이광리전」을 그대로 채록해 넣은 것이기 때문에, 「대완열전」은 사마천이 원래 기록했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네델란드의 학자 A. F. P. Hulsewé에 의해서 더욱 정치하게 개진되었다. 그는 『사기』 「대완열전」과 『한서』 「장건·이광리전」을 비교한 결과, 상호 문구 하나도 빠지 않고 그대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착간에서 비롯된 오류까지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은 다른 쪽을 베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후자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정보들이 전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현존 「대완열전」은 원본이 사라진 뒤 「장건·이광리전」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일부 새로운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에노키 가즈오(榎一雄)와 중국의 여태산(余太山)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완열전」에 더 고어(古語)형의 낱말들이 사용되고 있는 점인데, 예를 들어 ‘옥문관(玉門關)’이 아니라 ‘옥문(玉門)’이라고 하거나, ‘한인(漢人)’이 아니라 ‘진인(秦人)’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양편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들이 발견되는데, 만약 「대완열전」이 「장건·이광리전」을 거의 복사해 놓은 것이라면 생기기 힘든 현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완열전」에는 대월지(大月氏)의 왕이 흉노에게 살해된 뒤 그 태자가 뒤를 이었다고 했지만 「장건·이광리전」에는 그 부인이 뒤를 이었다고 한 점이 그러하며, 이는 양자가 별개의 정보에 토대를 두고 집필되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셋째, 때로는 『한서』 「서역전」에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완열전」의 작위자(作僞者)가 그것을 무시하고 굳이 「장건·이광리전」에서 베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들을 지적한 에노키(榎)·여(余) 양인의 비판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양편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풀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완열전」의 원전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같은 논란을 통해서 확인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후대의 전형적인 ‘서역전’과는 달리 장건과 이광리 두 사람의 합전(合傳)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대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만년을 무릅쓰고 대완을 방문하거나 원정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유협열전」 바로 앞에 배치한 것도 장건이나 이광리의 ‘협적(狹的)’ 모험과 유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완열전」이 이 두 사람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일 ‘서역전’의 원조로 여겨지는 까닭은 거기에 이제까지 중국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미지의

세계였던 대만을 비롯한 서방의 여러 지역, 지리적으로 파미르고원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처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즉, 장건이 직접 방문했던 대완, 대월지, 강거(康居), 대하(大夏)는 물론이지만, 그가 전해서 들은 오손(烏孫), 엄채(奄蔡), 안식(安息), 조지(條支), 여헌(黎軒) 등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대완열전」을 집필할 때 사마천은 무엇보다도 장건의 보고를 근본 자료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도 장건 사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는 그의 뒤를 이어 서역에 사신으로 다녀왔던 사람들의 보고도 참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완열전」이 중국의 서방에 대해서 현지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최초의 체계적인 기록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후대에 정형화되는 ‘서역전’의 전형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일 중국의 문헌에 등장하는 ‘서역’은 광협(廣狹)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협의로는 『한서』와 『후한서』의 「서역전」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듯이 동서 6천여 리 남북 1천여 리, 즉 동쪽으로는 양관(陽關) 옥문관(玉門關)과 서쪽으로는 총령(蔥嶺, 파미르)에 의해 차단되고 남북으로는 곤륜(崑崙)과 천산(天山)이라는 두 산맥으로 막혀진 곳,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타림분지를 가리켰다. 광의로는 파미르 이서의 지중해 또 그 너머의 로마까지 포괄하는, 말하자면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사기』에서는 ‘서역’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용되는 경우에도 ‘흉노서역(匈奴西域)’이나 ‘강거서역(康居西域)’ 등과 같이 주로 서북방 유목집단과 연관된 표현의 일부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와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석·이해하느냐는 좀더 논의를 요하는 문제이지만, 『사기』에서 그리 많지 않은 ‘서역’의 용례를 놓고 볼 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한서』의 경우처럼 하나의 지리적 개념으로 분명하게 규정된 의미를 갖고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사기』 「대완열전」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우리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생각해 오던 서역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 그것은 다른 사이(四夷)들에 대한 열전과는 동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어 연속성을 보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대만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풍토와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라기 보다는 장건과 이광리 양인의 합전에 가깝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서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이 주목된다. 따라서, 전형적인 서역전의 등장은 서역과 한(漢)과의 정치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서역도호(西域都護)가 상

치(常置)되면서 그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한서』 「서역전」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열전」은 중국이 한무제 때에 이르러 역사상 최초로 중앙아시아와 그 너머 서방지역과 외교적·군사적인 접촉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확보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모든 서역전의 효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서역전에 대한 연구와 역주 작업이 「대원열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역주: 김호등
- 교열: 김유철

「대완열전(大宛列傳)」역주

大宛之跡，見自張騫。張騫，漢中人。建元中爲郎。是時天子問匈奴降者，皆言匈奴破月氏王，以其頭爲飲器，月氏遁逃而常怨仇匈奴，無與共擊之。漢方欲事滅胡，聞此言，因欲通使。道必更匈奴中，乃募能使者。騫以郎應募，使月氏，與堂邑氏(故[胡]奴甘父俱出隴西。經匈奴，匈奴得之，傳詣單于。單于留之，曰：「月氏在吾北，漢何以得往使？吾欲使越，漢肯聽我乎？」留騫十餘歲，與妻，有子，然騫持漢節不失。

대완(大宛)¹⁾에 관한 내용은 장건(張騫)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건은 한중(漢中)²⁾ 사람으로 건원(建元)³⁾ 연간에 랑(郎)⁴⁾이 되었다. 당시 천자께서 흉노(匈奴)⁵⁾에서

1) 大宛(d'āi-iwen): 이하 고유명사의 古代音은 별도의 注記 없이 Karlgren 1972에 복원된 唐音으로 표기한다. 본서에서는 '대완'이라는 독음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史記索隱』(이하 『索隱』으로 약칭)은 “音苑, 又於袁反.”이라고 하여 발음은 '완' 혹은 '원'에 가까운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완은 일반적으로 파미르 고원 바로 서쪽에 위치한 페르가나(Ferghana) 지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Pulleyblank(1966: 25)가 大宛의 原音이 *taxwar였다고 주장하고 지리적으로는 토하라(Tokhara)인들이 살던 소그디아나 지방을 가리킨다고 추정한 이래 여러 학자들이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대완에 대하여 『史記正義』(이하 『正義』로 약칭)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漢書』에 의하면 大宛國은 長安에서 12,550리 떨어져 있다. 東으로는 都護의 治所에 이르고, 西南으로는 大月氏에 이르고, 南으로도 역시 大月氏에 이르고, 北으로는 康居에 이른다고 하였다. 『括地志』에는 ‘率都沙那國은 蘇對沙那國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본디 漢나라 때의 大宛國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率都沙那國 혹은 蘇對沙那國은 모두 Sutturshana를 音寫한 것으로 사마르칸드와 호젠드 중간에 위치한 도시(Usrushana라고도 불리움)를 지칭한다. 이 도시에 대해서는 Barthold 1977: 165~168 참조.

투항한 사람을 심문했는데,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흉노가 월지(月氏)⁶⁾의 왕을 격파하고 그 머리로써 술마시는 그릇[飲器]⁷⁾를 삼았으며,⁸⁾ 월지는 도망쳐서 항상 흉노를 원수처럼 여기고

- 2) 漢中: 『索隱』은 陳壽(233~297)의 『益部耆舊傳』(亡佚)을 引用하여 “騫은 漢中 成固人”이라 했는데, 漢中은 漢代 郡名이고, 成固는 현재의 陝西 城固에 해당한다.
- 3) 建元: 前漢 武帝時 年號로 기원전 140~135.
- 4) 郎: 皇帝 侍從官의 通稱으로 議郎, 中郎, 侍郎, 郎中 등을 포함. 郎은 廊, 즉 ‘宮廷의 回廊’에서 연원한 말로서, 황제를 陪從扈衛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 5) 匈奴: 紀元前 209년 冒頓(목득)이 單于(선우)를 칭하고, 東胡·丁靈 등을 병합하여 초원을 통일한 뒤에 세운 遊牧國家. 紀元後 48년 南北分裂을 거쳐 156년경에는 鮮卑에게 초원의 패권을 빼앗겼다. 흉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역사적인 사실들에 관해서는 江上波夫 1948; 內田吟風 1975; Barfield 1981; 사와다 1996; 디 코스모 2002 등을 참조.
- 6) 月氏(ngiwet-zie): 『正義』: “氏音支. 涼·甘·肅·瓜·沙等州는 본시 月氏國의 땅이었다. 『漢書』에서 [월지] 본디 敦煌과 祁連山 사이에 살았다고 한 것은 옳다.” 이 같은 기록을 근거로 학자들은 月氏의 原住地가 ‘敦煌과 祁連山 사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Haloun(1935)이 月氏의 古音을 *zgudscha, 즉 스키타이(앗시리아 문헌의 Skuja)라는 假說을 제시했고, 일본의 榎一雄(Enoki 1959)도 이를 받아들여 月氏가 바로 스키타이였으며, 匈奴의 대두 이전에 甘肅지방뿐만 아니라 몽골리아의 대부분과 천산산맥 북방 및 타림분지의 도시들을 지배하던 大勢力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7) 飲器: 『漢書』 卷61 「張騫·李廣利傳」에 보이는 ‘飲器’에 대해서 顏師古는 注를 붙여(이하 顏注로 약칭) “『匈奴傳』에 ‘月氏의 왕을 격파하고 그 [머리로써 그릇을 만들어] 같이 마시고 血盟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飲酒之器가 바로 이것이다. 韋昭가 이를 두고 柳樽(술통)이라 하고, 晉灼가 獸子(번기통)라고 했는데, 모두 옳지 못하다. 柳樽은 오늘날의 偏樽이니 술을 가득 담을 뿐이지 마시는 용도가 아니다. 獸子는 용변을 볼 때 사용하는 囊器이다.”라고 설명하였다. 敵의 頭蓋骨로 飲器를 만드는 풍습은 고대 유라시아 유목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보였고 일찍이 헤로도투스(Herodotus)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풍습에 관해서는 Ma Yong: 1989; Sinor 1993 등을 參照.
- 8) 역사상 月氏에 대한 匈奴의 공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미 冒頓 집권(전209) 직후부터 匈奴의 압력을 받아 敦煌 祁連山 부근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 기록에 따르면 紀元前 176년 冒頓의 공격을 받은 月氏는 甘肅의 祁連山 지방을 떠나 天山 北方의 伊犁(ili)河流域으로 西遷하여 ‘大月氏’가 되었으며, 이때 西遷하지 못하고 甘肅地方에 남아 있던 집단은 ‘小月氏’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 老上單于의 治世(174~161)에 재차 침공이 벌어져 月氏王은 殺害되고 그 頭蓋骨이 酒器로 만들어지는 치욕을 당했다. 史書에는 이때 月氏가 “遁逃”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敗北를 의미할 뿐 여전히 伊犁河流域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원전 139년 張騫이 흉노에 포로로 잡혔을 때 單于가 “月氏는 우리 북쪽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月氏가 아무다리야 연안으로 이주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 그가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烏孫王 昆莫이 흉노의 도움을 받아 宿敵인 月氏를 공격하고 伊犁河流域을 차지하게 되자, 이때 비로소 月氏는 南下하여 아무다리야

있지만 함께 공격할 [세력이] 없다고 하였다. 한나라가 드디어 오랑캐[胡⁹⁾]를 멸하려고 도모할 때 이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월지와] 연락을 하고자 하였다. 경로가 부득이 흉노의 영내를 지나가게 되어 이에 능력 있는 사신을 모집했는데, 장건이 랑의 신분으로 응모하여 월지에 사신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는 당읍씨(堂邑氏)에 속하는 오랑캐 노예인 감보(甘父)¹⁰⁾와 함께 농서(隴西)¹¹⁾를 나섰다. 흉노[의 영내]를 지나가다가 흉노가 그들을 붙잡아 선우(單于)¹²⁾에게 보내서 만나게 하였다. 선우가 그를 붙들어 두면서 말하기를 “월지는 우리 북쪽에

부근으로 이동하고 아무다리아 남방의 大夏를 복속하게 된 것이다. 다만, 王城은 여전히 아무다리아 북방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Enoki 1959; 余太山 1995: 203~213; 사와다 1996: 43~46; 小谷仲男 1999: 24~60 참조. 이 밖에 월지의 西遷에 관한 최근 중국측 연구로는 錢伯泉 1994; 錢伯泉 1997; 高榮 2004 등을 참조.

- 9) 胡: 古音은 *g'o/γ uo. ‘胡’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본격적인 ‘遊牧民’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獯粥·山戎 등과 같은 農牧複合住民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었다. 이 ‘胡’라는 명칭은 漢代에는 北方·西北方の 遊牧民들, 특히 匈奴를 의미하였지만, 隋唐代가 되면 주로 중앙아시아의 소그드(Soghd)인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된다. ‘胡’의 어의와 그 변화에 대해서는 Průšek: 1971; 디 코스모 2002: 175~183; 모리야스 2006 참조. 그러나 『唐書』 卷221 「西域傳下」에 “拂菻·大食諸胡七十二國”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반드시 소그드인만을 지칭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桑山正進 1992: 110~111). ‘胡’라는 단어의 연원은 非中國語 계통인 것으로 보이며, 현대 몽골어에서 ‘아들’을 뜻하는 kō'ū와 유사성이 주목된다(船木勝馬 1978). 그렇다면 『漢書』 권94上 「匈奴傳」에 “單于가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서한을 전달하기를 ‘南쪽에는 大漢, 북쪽에는 強胡가 있다. 胡라는 것은 하늘의 자랑스런 아들(天之驕子也)이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때 “胡는 하늘의 자랑스런 아들”이라는 구절은 胡의 그러한 뜻을 활용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0) 甘父: 『索隱』에 “堂邑縣人의 집에 속한 胡奴이며, 이름은 甘父이다. 아래에서 ‘堂邑父’라고 한 것은 대체로 후대의 역사가들이 생략해서 부르는 것으로 ‘堂邑父’라고만 하고 ‘甘’字를 생략한 것이다. 甘은 혹시 그 姓을 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였다. 한편 顏注에는: “堂邑氏의 노비로서 본래는 胡人이었고 이름이 甘父였다. 아래에서 ‘堂邑父’라고 한 것은 대저 그 주인의 姓을 따서 자기의 성씨로 한 것이며, 그 이름만 부르면 父이다.”라고 되어 있다. 堂邑은 원래 楚지방의 諸侯家門이었는데, 紀元前 116년에 臨淮郡으로 편입되었다. 甘父는 이 堂邑侯에 종속된 匈奴人(胡奴)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1) 隴西: 郡名으로 현재 甘肅 臨洮의 남쪽에 해당. 隴山은 六盤山 南端의 別稱이며, 隴西, 즉 隴右는 六盤山以西를 지칭.
- 12) 單于(zhān-jū). 여기서는 匈奴의 제3대 군주 軍臣單于(전160~127)를 지칭한다. 單于는 匈奴 君主의 稱號이며 ‘선우’라고 발음한다. 이를 dān-hwah로 읽고 고대 투르크의 官稱號 tarxan의 古形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Pulleyblank 1963: 256), 다른 방증자료가 없는 한 그 같은 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있는데, 한나라가 어떻게 사신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월(越)나라¹³⁾로 사신을 보내고자 한다면 한나라가 내가 하려는 일을 들어주겠는가?”라고 하였다. [홍노는] 장건을 10여 년¹⁴⁾ 동안 머무르게 하였고 부인을 맞아주었으며 아들까지 생겼다. 그러나 장건은 한나라의 절(節)을 붙들고¹⁵⁾ 잃지 않았다.

居匈奴中，益寬，騫因與其屬亡鄉月氏，西走數日至大宛。大宛聞漢之饒財，欲通不得，見騫，喜，問曰：「若欲何之？」騫曰：「爲漢使月氏，而爲匈奴所閉道。今亡，唯王使人導送我。誠得至，反漢，漢之賂遺王財物不可勝言。」大宛以爲然，遣騫，爲發導繹，抵康居，康居傳致大月氏。大月氏王已爲胡所殺，立其太子爲王。既臣大夏而居，地肥饒，少寇，志安樂，又自以遠漢，殊無報胡之心。騫從月氏至大夏，竟不能得月氏要領。

홍노에 머무르는 동안¹⁶⁾ 점차로 [경계가] 느슨해지자 장건은 그 부하들과 함께 월지를 향해서 도망쳤다. 서쪽으로 도망친지 수십 일 만에 대완에 도착했다. 대완은 한나라의 풍부한 재화에 관해서 듣고 소통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는데 장건을 보고는 기뻐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장건은 “한나라를 위하여 월지에 사신으로 가다가 홍노에게 [붙들려] 길이 막혔었습니다. 이제 도망쳤으니 오직 왕께서 사람을 시켜 저를 인도하시기만 [바랍니다]. 만일 제가 정말 [월지에] 이르렀다가 한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한나라가 왕께 보내 줄 재물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완은 이를 옳다고 여겨 장건을 보내면서 그를 위해 향도와 통역¹⁷⁾을 붙여 주었다. 그가 강거(康居)¹⁸⁾에 이르자 강거

13) 越: 南越을 가리키며 현재의 廣東·廣西 및 베트남 북부. 당시 匈奴가 이미 越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다.

14) 十餘歲: 建元 二年(전139)부터 元光 六年(전129)까지를 가리킨다.

15) 持漢節: 節은 使臣이 奉命出行할 때 반드시 지니고 가는 일종의 信標로, 『後漢書』 卷1에는 逸失된 『漢官儀』를 인용하여 “節은 대나무로 만들어졌고 자루[柄]의 길이는 8尺(약 185cm)이며, 깃대장식[旄]은 소 꼬리털[牛尾]이고 세 겹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이 보인다.

16) 居匈奴中: 『漢書』 卷61에는 ‘居匈奴西’.

17) 遣騫, 爲發導繹: 『漢書』 卷61에는 ‘遣騫, 爲發譯道’. 『索隱』은 이를 “爲發道驛抵康居”로 이해하고, “發道란

는 대월지(大月氏)¹⁹⁾에게로 전달하여 데려다 주었다. 대월지의 왕은 이미 오랑캐[胡]에게 살해되었으므로 그 태자를 왕으로 세웠다.²⁰⁾ 대하(大夏)²¹⁾를 모두²²⁾ 신속시키며 살고 있는데, 땅은 비옥하고 약탈하는 사람도 적어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또한 스스로 한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오랑캐에게 복수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장건은 월지에서 대하에 이르렀으나 결국 월지의 관심을 얻지 못하였다.²³⁾

留歲餘，還，並南山，欲從羌中歸，復爲匈奴所得。留歲餘，單于死，左谷蠡王攻其太子自立，國內亂，騫與胡妻及堂邑父俱亡歸漢。漢拜騫爲太中大夫，堂邑父爲奉使君。騫爲人彊力，寬大信人，蠻夷愛之。堂邑父故胡人，善射，窮急射禽獸給食。初，騫行時百餘人，去十三歲，唯二人得還。

일년여 머무르다가 귀환하였는데, 남산(南山)²⁴⁾을 따라서 강족(羌族)²⁵⁾이 사는 땅을 통과

驛站을 출발하여 길을 안내해서 康居에 도달케 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導譯’에 관해서는 ‘導驛’(嚮導와 驛傳)보다는 ‘導譯’(嚮導와 通譯)으로 이해하는 쪽이 타당해 보인다.

18) 康居: 이에 관해서는 後註 참조.

19) 大月氏: 前註 참조. 『正義』에는 “이 大月氏는 大宛의 西南에 위치하며, 媯水의 北쪽에 王庭을 두었다. 『漢書』에 의하면 長安에서 11,600리 떨어져 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媯水는 아무다리야를 지칭한다.

20) 立其太子爲王: 『漢書』卷61에는 ‘立其夫人爲王’. 『史記集解』(이하 『集解』로 약칭)는 徐廣을 인용하여 “혹은 夫人이 왕을 했다고 하는데, 夷狄은 여자를 임금으로 삼기도 한다.”라고 기록했다. 余太山(2005: 6)은 大月氏왕이 괴살되었을 때 太子가 어렸다면 그 母親이 攝政했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했다.

21) 大夏: 서방측 자료의 박트리아(Bactria)에 해당한다. 아무다리야 以南, 힌두쿠시 북방에 위치. 紀元前 250년경 알렉산더 제국의 동방령에서 독립한 그리스계 셀레우코스 왕국의 太守였던 디오도투스(Diodotus)에 의해 건국되었으나 남하한 月氏에 의해 붕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Tarn 1938 參照.

22) 既臣大夏而居: 『漢書』卷61에는 ‘既臣大夏而君之’. 『正義』는 ‘既’에 대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뜻과는 달리 ‘모두’를 의미한다는 注記를 덧붙이고 있으며, 여기서는 그것을 따랐다.

23) 『索隱』에는 “要領은 要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要契’는 물론 장건과 월지 사이의 ‘약조·합의’를 뜻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顏注는 “뜻은 옷의 허리춤이고 領은 옷깃이다. 대저, 옷을 잡는 사람은 허리춤과 깃을 잡는 법이다. 장건이 월지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한나라에 복속케 할 수 없었으니, 이를 옷깃과 옷소매로 비유한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해서 돌아가려고 했으나 다시 흉노에게 붙들리게 되었다.²⁶⁾ 일년여 머물렀는데 선우가 사망하자 좌록리왕(左谷蠡王)이 그 태자를 공격하고 자립하면서 나라 안에 난리가 일어났고,²⁷⁾ 장건은 오랑캐 부인과 당읍씨 감보와 함께 도망쳐서 한나라로 돌아왔다.²⁸⁾ 한나라는 장건을 태중대부(太中大夫)²⁹⁾로 삼고, 당읍씨 감보를 봉사군(奉使君)으로 삼았다. 장건의 사람됨은 힘이 세고 마음이 넓으며 신실하여 만이(蠻夷)들도 그를 아꼈다. 당읍씨 감보는 원래 오랑캐 사람이었으므로 활을 잘 쏘고, 사정이 급해지면 짐승을 사살하여 식량을 제공했다. 처음에 장건이 떠날 때에는 백여 명이 있었으나 13년이 지나서 오로지 두 사람만이 돌아오게 되었다.

騫身所至者大宛·大月氏·大夏·康居，而傳聞其旁大國五六，具爲天子言之。曰：大宛在匈奴西南，在漢正西，去漢可萬里。其俗土著，耕田，田稻麥。有蒲陶酒。多善馬，馬汗血，其先天馬子也。有城郭屋室。其屬邑大小七十餘城，衆可數十萬。其

- 24) 南山: 타림분지의 남쪽에 위치한 산맥, 즉 곤륜(崑崙)에서 알친[阿爾金山]으로 이어지는 산맥을 가리킨다.
- 25) 羌族: 현재 감숙성 서남쪽, 즉 청해 부근에 거주하던 티베트 계통의 목축민. 漢代에는 '西羌'이라 불리웠으며, 흉노의 세력 아래에 있으면서 중국에 자주 침입했다. 한무제는 河西四郡을 설치하여 흉노와의 접촉을 단절했고, 宣帝·元帝 때에도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後漢 이후 羌族은 중국 내부의 혼란을 틈타서 後秦(384~417)과 같은 왕조를 건설했다.
- 26) 張騫이 귀환하는 도중 匈奴에 붙들린 곳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羌族이 거주하는 羌中路를 통과했다면 그 路線은 대체로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파미르를 넘어서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의 산지를 거쳐서 오늘날의 青海와 甘肅 사이로 향했을 것이다.
- 27) '左谷蠡王'은 흉노국가에서 單于·左賢王·右賢王 다음으로 높은 지위이다. 『集解』: “服虔曰: 谷音鹿, 蠡音離.”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谷蠡의 발음은 luk-li, 즉 '록리/녹리'가 된다. 본문에 언급된 사건은 『史記』 「匈奴列傳」에 元朔 3년(126) “匈奴의 君臣單于가 사망하자, 君臣單于의 동생 左谷蠡王 伊稚斜가 자립하여 單于가 되어, 君臣單于의 太子 於單을 攻破했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 28) 일반적으로 張騫이 月氏로 출발한 해는 기원전 139년이고 귀환한 해는 기원전 126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흉노의 左谷蠡王이 반란을 일으킨 해가 元朔 3년(전126)이었고, 그가 1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제의 조정에서 흉노에 대한 정벌을 최초로 논의한 것이 기원전 133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장건을 파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Hulsewé 1979: 209~210의 주 774 참조.
- 29) 太中大夫: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上」에 의하면 太中大夫는 郎中丞에 소속된 관직이며 秩比千石이며 궁정 안의 議論을 관장했다.

兵弓矛騎射。其北則康居，西則大月氏，西南則大夏，東北則烏孫，東則扞采·于窠。于窠之西，則水皆西流，注西海；其東水東流，注鹽澤。鹽澤潛行地下，其南則河源出焉。多玉石，河注中國。而樓蘭·姑師邑有城郭，臨鹽澤。鹽澤去長安可五千里。匈奴右方居鹽澤以東，至隴西長城，南接羌，鬲漢道焉。

장건이 몸소 방문했던 곳은 대완·대월지·대하·강거 등이었고, 또한 그 주변 5~6개의 큰 나라에 관해서도 전해 들었는데, 이를 모두 천자에게 아뢰었다. “대완은 흉노의 서남쪽에 있고 한나라의 정서(正西)에 있는데, 한나라에서 대략 만리는 됩니다.³⁰⁾ 그 풍속은 정착생활 [土著]이고 농사를 짓고, 쌀과 보리를 심으며 포도주(蒲陶酒)가 있습니다.³¹⁾ 좋은 말이 많은데,³²⁾ 피땀[汗血]을 흘리며 그 조상은 천마(天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³³⁾ 성과와 가옥이 있

30) 萬里: 1里=0.4km로 계산하면 4,000km가 되는 셈이며, 당시 한제국의 수도 長安에서 하서회랑·타림분지를 거쳐 대완까지의 거리에 해당될 것이다. 余太山 2005: 10은 장건이 흉노에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다 합친 것이라고 보았으나, 그럴 경우 4,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31) 蒲陶: ‘葡萄’로도 표기되나 桃와는 무관하다. 포도는 장건이 그 씨를 처음으로 입수해 와 장안 주변에 심었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포도재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蒲陶/葡萄라는 말 자체도 장건에 의해 처음 소개된 셈이 되는데, 이 말은 이란어 *buda(wa)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포도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전반 高昌(투르판)이 붕괴된 뒤 그곳의 포도재배 기술이 唐으로 전래된 이후부터였다. Laufer 1919: 220ff; Schafer 1963: 141~145 참조.

32) 『索隱』에는 “『外國傳』에 의하면 天下에 세 가지가 많은데, 中國은 사람이 많고[人衆], 大秦은 보물이 많고[寶衆], 月氏는 말이 많다[馬衆].”라는 기록이 보인다.

33) 天馬: 『集解』에는 “『漢書音義』에 의하면 大宛國에는 高山이 있고 그 위에 말이 있는데, 손에 넣을 수 없어서, 五色의 암말을 그 아래에 갖다 놓았더니 교미하여 汗血하는 망아지를 낳았고, 그래서 그것을 天馬의 자식이라 부른다고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위의 本文에 의하면 처음에는 烏孫馬를 天馬라고 불렀는데, 大宛의 汗血馬를 구한 뒤에 烏孫馬를 西極馬라고 부르고 大宛馬를 天馬라고 불렀다. 武帝가 天馬에 특별한 집착을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匈奴와의 전쟁을 위한 駿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도 있고, 혹은 「天馬歌」에서 드러나듯이 崑崙山 정상에 사는 西王母를 만나 不老長生の 靈藥을 얻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있다. 또,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黃河의 治水와 관련된 설명인데, 예를 들어 『漢書』 卷6 「武帝紀」에 元狩 2년(전121) “馬生余吾水中”이라는 기사, 元鼎 4년(전113) “馬生渥洼水中”하여 “作天馬之歌”했다는 기사 등이 그러하다. 封禪과 黃河治水 그리고 西域遠征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李成珪 2000 참조.

고, 그 속읍(屬邑)으로는 크고 작은 70여 개의 성(城)이 있으며, 백성의 숫자는 대략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 군대는 활과 창으로 무장했으며 기사(騎射)를 합니다. 그 북쪽에는 강거가, 서쪽에는 대월지가, 서남쪽에는 대하가, 동북쪽에는 오손(烏孫)이, 동쪽에는 우미(扞采)³⁴와 우전(于寘)³⁵이 있습니다. 우전의 서쪽에서 강물은 모두 서쪽으로 흘러 서해(西海)³⁶로 주입되며, 그 동쪽에서 강물은 모두 동쪽으로 흘러 염택(鹽澤)³⁷으로 주입됩니다. 염택의 [물은]

34) 扞采(uo-mjie). 『集解』: “徐廣이 말하기를 『漢紀』에 拘彌國은 于寘에서 三百里 떨어져 있다고 한다.” 『索隱』: “扞采는 國名이다.” 『後漢書』 卷78 「西域傳」: “玉門을 나서서 鄯善·且末·精絕를 거쳐 三千餘里 가면 拘彌에 도달한다.” 同: “拘彌國. 거처는 寧彌城이고 長史의 거처인 柳中에서 4,900리 떨어져 있다. 낙양에서 12,800리 떨어져 있고, 관할하는 호수는 2,173, 인구는 7,251, 병사는 1,760명이다.” 등의 기록 참조. 이로 미루어 볼 때 扞采(우미) 혹은 拘彌(구미; g'iu-mjie)는 于寘(우전; 즉 현재의 호탄) 부근의 지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Chavannes와 같은 학자들은 捍癩, 捍癩, 汗彌(한미) 등이 더 정확한 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黃文彌은 이곳을 현재 호탄을 거쳐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흘러가는 케리아강 중상류 지역에 위치한 Kara Dong과 동일지점으로 보았다. Hulsewé 1979: 94~95. 자세한 내용은 『漢書』 「西域傳」 扞彌國條 參照.

35) 于寘(jiu-d'ien). 타림분지 南邊의 주요한 오아시스 도시인 Khotan(현재 和田). 고대 중국 史書에는 于寘 이외에 于闐, 烏纏, 于循, 于殿, 屈丹, 喚那 등의 字面으로도 표기되었으며, 몽골제국시대에는 鞞端, 忽炭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티베트인들은 이곳을 Lih-yul(Lih國의 뜻) 혹은 U-then이라고 불렀고, 인도식 호칭은 Kustana인데, 프라크리트 방언으로는 Kustanaka이다. 고대문헌의 于寘·于闐 등은 U-then을 옮긴 것이고, 『大唐西域記』의 瞿薩旦那(‘대지의 젖’이라는 뜻)는 Kustana를 음사한 것이다. 호탄은 곤륜 산맥에서 北流하는 두 개의 강, 즉 유룽카시(Yurungqash, 白玉河)와 카라카시(Qaraqash, 黑玉河)에 의해서 형성된 큰 오아시스로, 동서 35km 남북 20km의 규모이다. 주민들은 농경과 과수재배를 통해서 생활을 해 왔으며, 河床에서 채취되는 軟玉(nephrite)은 고대 이래로 매우 유명하다. 호탄의 고대 주민은 印歐語에 속하는 호탄語(Khotanese)를 사용했으며, 중국측 기록에 尉遲(伏闐), 즉 Vijaya라는 姓을 가진 王家의 지배 아래에서, 동쪽으로는 Niya(精絕)에서 서쪽으로는 Guma(皮山)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고대 于闐國의 都城은 호탄시 서쪽에 있는 Khalche 부근의 요트칸(Yotkan) 유적지에 폐허로 남아 있다. 현재 중국에서 于田이라고 부르는 도시는 케리아(Keriya)에 해당된다. 『歷史事典』 8: 308~309; 蘇北海 1988: 46~64; Whitfield 2004: 134ff 참조.

36) 西海: 여기서는 아랄海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西海’라는 명칭은 문맥에 따라 카스피海나 地中海 혹은 페르시아만을 지칭할 가능성도 있어, 하나의 확정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7) 鹽澤: ‘鹽水’라고도 기록되었으며, 현재의 롭 노르(Lop Nor; 羅布泊). 사막지역이어서 호수에 염분이 많이 남아 鹽澤이라 불리웠으며 蒲昌海 혹은 泐澤이라고도 불리웠다. 이에 관하여 『正義』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漢書』에 ‘鹽澤은 玉門·陽關에서 三百餘里 떨어져 있고, 넓이와 길이가 三四百里이며, 그 물은 모두 地下로 潛行하다가, 남쪽으로 가서 積石山에서 나와 中國의 黃河가 된다.’고 하였다. 『括地志』에 ‘蒲昌海는 泐澤, 鹽澤, 輔日海, 穿蘭, 臨海라고도 부르며, 沙州의 西南쪽에 있다. 玉門關은

지하로 잠행하는데, 그것이 남쪽으로 [흘러와] 황하의 근원이 되어 [지상으로] 분출됩니다.³⁸⁾
 옥석(玉石)이 많이 나며 황하는 중국으로 흘러듭니다. 또한 누란(樓蘭)³⁹⁾과 고사(姑師)⁴⁰⁾

沙州 壽昌縣의 서쪽 六里되는 지점에 있다.'고 되어 있다." 타림화가 사막의 지하로 伏流했다가 湧出하여 형성된 이 호수에 관해서는 스벤 헤딘의 고전적인 업적이 있다(Hedin 1940).

38) 『索隱』: “『漢書』 『西域傳』에 의하면 ‘黃河는 두 개의 원천이 있는데 하나는 蔥嶺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于窰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다. 『山海經』에 의하면 ‘黃河는 崑崙의 東北쪽 구석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다. 郭璞은 ‘黃河는 崑崙에서 나와서 地下로 潛行하다가, 蔥嶺山 于窰國에 이르러 다시 갈래가 나뉘어 지상으로 나왔다가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沕澤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積石으로 흘러가서 中國의 黃河가 된다.’고 기록했다. 沕澤은 곧 鹽澤이며 一名 蒲昌海라고도 한다. 『西域傳』은 ‘하나의 원천은 于窰 南山 아래에서 나온다.’고 하여 郭璞이 『山海經』에 주석을 단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廣志』에는 ‘蒲昌海는 蒲類海 동쪽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19세기 말 중앙아시아에 대한 과학적인 지리탐사에 의해 황하의 원류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이전 중국인들은 崑崙山에서 發源한 黃河가 地下로 潛行하여 東流하다가 于窰에 이르러 여러 갈래로 나뉘어 奔出하고, 그것이 다시 합류하여 鹽澤으로 들어간 뒤 거기서 다시 伏流하여 흐르다가 積石山에서 다시 湧出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소위 ‘黃河伏流重源說’인데,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武田雅哉 1997 참조.

39) 樓蘭(lou-lan): 카로슈티(Kharoshti) 문헌에 보이는 Krora'imna 혹은 Krorayina와 동일. 소그드인들에 의해서 씌어진 소위 ‘古代書翰(Ancient Letters)’에서 樓蘭은 kr'wr'n으로 표기되었다(Henning 1948: 611). S. Hedin과 A. Stein에 의해 타림분지 東邊의 룽 노르 부근에서 폐허가 발견·조사되었고, 현지에 남아 있는 佛塔, 카로슈티 문자가 씌어진 木簡, 헬레니즘 양식의 木彫 등을 통해 이 도시의 고대 주민이 印歐語族에 속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2천 년기 초반에서 기원후 초기 수세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古墓에서 수많은 미이라들이 발견되었고, 그 외형적 특징뿐만 아니라 遺傳因子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유라시아 서부의 코카서스계 인종과 동일 계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위 ‘樓蘭의 美人’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로는 Mair 1995; Mallory & Mair 2000 참조. 누란의 도읍인 扞泥城은 蒲昌海, 즉 룽 노르 북변에 있었고, 호수 남쪽에서 발견된 Miran유적지는 伊循城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란이 언제부터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기원전 176년 흉노의 單于가 한나라에 보낸 서한, 그리고 기원전 126년 張騫의 귀환보고에서 樓蘭이 特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동서교통의 要地로서 번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漢이 기원전 115년 河西를 장악하고 타림분지의 도시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서 樓蘭에 대한 지배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원전 77년에는 傅介子를 보내어 그 왕을 살해한 뒤 國名도 鄯善으로 바꾸고 屯田을 실시하여 이곳을 한제국의 전진기지로 만들었다. 鄯善이라는 명칭은 Cherchen/Charchan (현재의 且末)과 같은 어원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곳에서 발견된 3세기 후반의 한문문서들은 西晉도 이곳을 경영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前涼의 西域長史인 李暹이 쓴 서한의 草稿(소위 ‘李暹文書’라고 불리움)를 통해서 4세기 전반까지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점차 타림河의 水量과 河道의 변화에 따라, 도시에 물을 공급하던 호수가 사라짐에 따라 도시 자체도 폐허화되고 사막 속에 묻히게 되었다.

등의 읍은 모두 성곽을 갖고 있으며 엄택에 임해 있습니다. 엄택은 장안에서 대략 5천 리는 떨어져 있습니다.⁴¹⁾ 흉노의 우방(右方)은 엄택의 동쪽에서 농서(隴西)의 장성에까지 이르는 지역에 자리잡으면서 남쪽으로는 강(羌)과 접하여 한나라의 도로를 격절시키고 있습니다.”

烏孫在大宛東北可二千里，行國，隨畜，與匈奴同俗。控弦者數萬，敢戰。故服匈奴，及盛，取其羈屬，不肯往朝會焉。

“오손⁴²⁾은 대완의 동북쪽으로 대략 2천 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동국가[行國]⁴³⁾이고 가축을 따라다니며 흉노와 풍속이 동일합니다.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며 그들은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과거에는 흉노에 복속했었는데, [오손이] 강성해지자 복속[羈屬]을 하면서도 [흉노가] 소집하는 대회[朝會]⁴⁴⁾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40) 姑師(kuo-si): 현재 투르판 부근의 도시국가. 기원전 60년대에 한제국이 투르판 지역을 정복한 뒤 ‘車師(kiwo-si)’라고 불렀다(車師에 관해서는 『漢書』 「西域傳」의 譯註 참조). 이 명칭의 語源에 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岑仲勉은 qusi의 對音으로 보고 쉘 테긴 비문에는 이것이 qushu로 바뀌어 나타났다고 주장했으며, P. Pelliot는 Qoshu를 西突厥 十姓의 일부인 弩失畢五姓 중의 하나인 哥舒와 연관시켰는가 하면, Hun족 연구자인 O. Maenchen-Helfen은 Kusi로 읽고 月氏의 貴霜과 동일시하였다. 한편, A. Herrmann은 樓蘭과 姑師의 거리가 멀다는 점을 들어 姑師=車師에 반대한 바 있다(Hulsewé 1979: 76~77).

41) 5,000里=2,000km. 현재 西安에서 롽 노르까지의 직선거리가 대략 2,000km에 달한다.

42) 烏孫(uo-suən): 漢代에 천산 북방 일리하, 이식 쿨 호수, 시르다리아 등의 유역에서 유목하던 집단. 그 종족적 귀속에 관해서는 투르크계로 보는 입장과 이란계로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烏孫에 관해서는 『漢書』 「西域傳」의 기록이 상세하다. 이에 의하면 烏孫은 처음에 甘肅 서부의 敦煌·祁連 사이에서 月氏와 인접하여 살고 있었는데, 월지의 공격을 받아 오손의 왕이 살해되자 匈奴의 보호를 청하였고, 후일 흉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천산방면에 있던 월지를 공격하여 서투르키스탄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한나라는 장건의 제의에 따라 흉노를 견제하기 위하여 오손과 연맹을 맺었는데, 기원전 116년의 일이었다. 양측의 화친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江都王 劉建(武帝의 조카)의 딸인 細君을 公主로 삼아서 오손왕에게 降嫁시켰는데, 그녀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었다는 詩는 유명하다. 일리강 유역의 昭蘇, 特克斯, 新源, 鞏留, 尼勒克 등지에서 烏孫의 古墳들이 발굴되었다. 王明哲·王炳華 1983; 蘇北海 1988: 1~21 참조.

43) 行國: 이 말의 뜻에 대해서 『集解』는 徐廣의 글을 인용하여 ‘不土著’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行國과 土著은 반대개념으로, 전자는 遊牧사회를 후자는 農耕사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康居在大宛西北可二千里，行國，與月氏大同俗。控弦者八九萬人。與大宛鄰國。國小，南羈事月氏，東羈事匈奴。

“강거⁴⁵⁾는 대완의 서북쪽으로 대략 2천 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동국가이고 풍속은 월지와 대체로 동일합니다.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8~9만 명이고 대완에 인접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작아서 남쪽으로는 월지에 복속[羈事]하고 동쪽으로는 흉노에 복속하고 있습니다.”

奄蔡在康居西北可二千里，行國，與康居大同俗。控弦者十餘萬。臨大澤，無崖，蓋乃北海云。

“엄채(奄蔡)⁴⁶⁾는 강거의 서북쪽으로 대략 2천 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동국가이고 풍속

44) 朝會: 『史記』 「匈奴列傳」에는 “五月에 龍城에서 大會를 갖고, 그 조상, 天地, 鬼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가을에 말에 살찌면 蹄林에서 大會를 열고 사람과 가축의 수를 세어 과세를 부과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集解』는 『漢書音義』를 인용하여 “匈奴의 秋社는 八月中에 제사지는 곳에 모두 모여서 지낸다.”고 하였다. ‘朝會’는 중국적인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五月과 八月에 열리는 ‘大會’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흉노의 ‘大會’에 대해서는 江上波夫 1948 참조.

45) 康居(k'ang-kiwo): 『括地志』에 의하면 “康居國은 수도 [長安]에서 서쪽으로 10,600리 떨어져 있고, 그 서북으로 대략 2,000리 가면 奄蔡가 있는데 곧 酒國이다.” 張騫이 大宛을 떠나 大夏로 가는 도중 經由한 것으로 보아 康居는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 사이의 소그디아나(Sogdiana)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Pulleyblank는 康居의 古音を khaŋ-kiah로 추정하고, 이는 토하라어에서 ‘돌’을 의미하는 kank를 포함한 말이며, 후일 康居가 있던 지방이 石國(Samarqand)으로 불리우게 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Hulsewé(1979: 123~124)는 張騫에 앞서서 이미 司馬相如와 董仲舒가 康居에 대해서 언급했음을 지적했다.

46) 奄蔡(iäm-ts'ai): 『正義』는 “『漢書解詁』에 의하면 奄蔡가 곧 闐蘇이고, 『魏略』에 의하면 서쪽으로 大秦과 통하고 東南으로는 康居와 접하며, 그 나라에 담비가 많고 水草를 따라 畜牧하는데, 때로 康居를 羈屬하기도 했다.”라고 하였다. Chavannes는 奄蔡를 Strabo에 기록된 Aorsoi, Ptolemy의 Alanorsi와 유사한 음가를 나타낸 것이며 카스피해 북방의 Alan족으로 보았다. Pulleyblank도 이러한 주장에 찬동하며 闐蘇(hap-sah)가 Abzoe라는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奄蔡와 闐蘇가 모두 Abzoe라

은 강거와 대체로 동일합니다.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10여 만 명입니다. 대택(大澤)에 임해 있는데, 끝이 없이 [넓어서]⁴⁷⁾ 그것이 곧 북해(北海)라고 부르는 것인 듯합니다.”

大月氏在大宛西可二千里，居媯水北。其南則大夏，西則安息，北則康居。行國也，隨畜移徙，與匈奴同俗。控弦者可一二十萬。故時彊，輕匈奴，及冒頓立，攻破月氏，至匈奴老上單于，殺月氏王，以其頭爲飲器。始月氏居敦煌·祁連間，及爲匈奴所敗，乃遠去，過宛，西擊大夏而臣之，遂都媯水北，爲王庭。其餘小衆不能去者，保南山羌，號小月氏。

“대월지⁴⁸⁾는 대완의 서쪽으로 대략 2~3천 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규수(媯水)⁴⁹⁾의 북쪽에

는 동일한 민족명을 나타낸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그것은奄蔡가 서쪽으로大秦과 통한다는 기록과도 상응한다. 한편,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魏書』·『周書』 등에 ‘粟特國’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의 소그드(Soghd)가 아니라 흑해 북안 크림리아 반도에 위치한 수그닥(Sughdag) 혹은 수닥(Sudak)을 가리키는 것이다. Hulswé 1979: 129~130; 內田吟風 1975: 128~133.

47) 『漢書』「西域傳」에는 “奄蔡國臨大澤”. ‘大澤’은 일반적으로 黑海로 추정된다. 無崖는 無涯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通典』「邊防篇」에는 ‘無涯岸’으로 기재되어 있다.).

48) 大月氏: 前註 참조. 한편, 『正義』는 『萬震南州志』를 인용하여 “天竺의 北으로 七千里 정도 가면 땅은 높고 건조하며 멀다. 國王은 ‘天子’라고 칭하며, 國中에 항상 탈 수 있는 말이 十萬匹이며, 城郭·宮殿은 大秦國과 동일하다. 人民은 赤白色이며 弓馬 다루는 법을 배운다. 土地의 所出과 진기한 보물, 그리고 입는 옷의 고급스러움은 天竺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49) 媯(kwie)水: 일반적으로 아무다리야(Amu Darya, 그리스 문헌의 Oxus)강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唐代에는 烏澹水 혹은 縛芻河 등으로 표기. Chavannes는 媯가 Oxus강의 파흘라비(Pahlavi)어 표기인 Weh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Pulleyblank는 ‘媯’가 *wa를 나타내고 ‘水’도 뜻이 아니라音を 옮긴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아무다리야가 고대에 Vakhshu 혹은 Wakshu 등으로 불리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Pulleyblank의 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오늘날에도 아무다리야 상류의 한 지류에 대해서 이러한 이름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중세 이슬람권 작가인 Biruni는 Wakhsh가 그 지역의 강을 보호하는 神의 명칭이라고 기록했으며, 또한 박트리아인들은 Wakhsh를 Anahita 女神(千手を 갖고 있어서 수많은 지류를 갖는 강을 상징)과 동일시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Barthold 1977: 65; 孫毓棠 1978; Hulswé 1979: 116 등 참조. 玄奘은 『一切經音義』에서 아무다리야를 나타내는 漢字音寫形으로 博叉, 薄叉, 婆叉 등을 들었고, 玄奘은 縛芻, 慧超는 縛叉라고 표기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Vakhshu 혹은 Vakhsha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桑山正進 1992: 172~173).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은 곧 대하요, 서쪽은 곧 안식(安息)이며, 북쪽은 곧 강거입니다. 이동국가이고 가축을 따라 옮겨다니며 풍속은 흉노와 동일합니다.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대략 10~20만 명입니다. 그런 까닭에 강성함을 믿고⁵⁰⁾ 흉노를 가볍게 보았는데, 목특(冒頓)⁵¹⁾이 들어서자 월지를 공파했습니다. 흉노의 노상(老上)⁵²⁾ 선우에 이르러 월지왕을 죽이고 그 머리로써 술마시는 그릇을 삼았습니다. 처음에 월지는 둔황(敦煌)⁵³⁾과 기련(祁連)⁵⁴⁾ 사이

50) 故時彊: 『漢書』 「西域傳」에는 ‘故彊’. 이는 모두 ‘故恃彊’의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51) 冒頓: 흉노제국의 건국자. 치세는 기원전?~174년. 頭曼의 아들이고 老上單于의 아버지. 冒頓은 몽골어에서 ‘英雄’, ‘戰士’를 뜻하는 Baghatur, 혹은 ‘聖’을 뜻하는 Bogdo의 음寫라는 추정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목특은 기원전 206~202년 사이에 頭曼을 살해하고 單于에 즉위한 뒤, 東胡·月氏 등 당시 東西의 양대 세력을 격파하고, 고비사막 북방의 丁靈(튀르크), 兩昆(키르기즈) 등을 공략하고 남쪽으로는 河南의 樓煩과 白羊을 병합하여 秦의 장군 蒙恬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였다. 기원전 200년 漢高祖를 유인하여 平城(山西 大同) 부근의 白登山에서 포위하여, 기원전 198년에는 흉노에게 유리한 내용의 和親條約을 체결했다. 목특은 두 번째로 月氏를 치고 천산 북방에 거주하던 烏孫, 樓蘭, 呼揭 등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하고, 서역 제국의 통제를 위해 日逐王 휘하에 童僕都尉를 두었다.

52) 老上: 흉노의 제2대 선우로서 치세는 기원전 174~161년. 冒頓單于의 아들이며 君臣單于의 아버지. 老上稽粥單于라고도 칭해지는데, 그는 두 차례에 걸친 목특의 월지원정에 이어 세 번째로 공격하여 月氏王을 죽이고 그 두개골을 술잔으로 만드는 戰果를 올렸다. 또한 漢人 中行說(중항열)의 도움을 받아 내적인 안정을 도모하면서 漢나라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취하여 변경에 대한 약탈전을 강화하였다. 기원전 162년에는 변경의 혼란을 우려한 文帝와 和親을 복구하였다.

53) 敦煌(tuən-xwəŋ): 이는 원래 漢字語가 아니라 月氏 계통의 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Pulleyblank (1966: 21)는 이 말이 Turfan과 어원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水經注』에 나오는 敦薨(카라샤르의 북쪽, 바그라시 호수의 남쪽에 위치)도 마찬가지로 아마 토하라어에서 동일한 어원과 연관된 말일 것으로 추정했다. 林梅村(1998: 77) 역시 소그드인들의 고대 서한에 敦煌은 δ rw'n으로 표기되었고, 이는 吐魯番과 동일한 어원을 갖는 말이며, ‘높다[高]’는 뜻을 지닌 토하라어(A방언에서는 tāprone, B방언에서는 tāpraŋe)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漢武帝는 元鼎 6년(전111; 一說에는 元封 4~5년, 즉 전 107~106년)에 酒泉郡을 분할하여 敦煌郡을 설치했다. 治所는 敦煌縣(현재 敦煌市 西南)이었고, 甘肅省 疏勒河 以西, 玉門關 以東지역을 관할했다.

54) 祁連('g'ji-liän): 顏注에 의하면 祁連은 匈奴語로 ‘하늘’을 뜻하였다. 그러나 Pulleyblank(1966: 20)는 이 말이 月氏語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麒麟과의 연관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Mair는 祁連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天空, 天堂’을 뜻하는 caelum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林梅村(1998: 64~69)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토하라어에서 ‘聖天’을 뜻하는 klyom 혹은 klyomo의 古形 *kilyom(o)를 음寫한 것이 祁連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舊唐書』 「地理志」 伊吾縣에 “天山은 州의 북쪽 20리 지점에 있으며, 一名 白山이고 胡人들은 析羅漫山이라고 부른다.”는 기사에서 析羅漫은 折羅漫의 오류이며, 한문사료에 보이는 初羅漫은 祁羅漫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모두 祁連과

에 살았으나 흉노에게 패배하게 되자 멀리 도망쳐, 대완을 지나서 서쪽으로 대하를 공격하여 신하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규수의 북쪽에 도읍을 정하고 왕정(王庭)으로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서쪽으로] 갈 수 없었던 소수의 무리들은 남산(南山)의 강족에게 보호를 받으며⁵⁵⁾ 소월지(小月氏)라고 불리웁니다.”

安息在大月氏西可數千里。其俗土著，耕田，田稻麥，蒲陶酒。城邑如大宛。其屬小大數百城，地方數千里，最爲大國。臨媯水，有市，民商賈用車及船，行旁國或數千里。以銀爲錢，錢如其王面，王死輒更錢，效王面焉。畫革旁行以爲書記。其西則條枝，北有奄蔡·黎軒。

“안식⁵⁶⁾은 대월지의 서쪽으로 대략 수천 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풍속은 정착생활이고,

같은 어원의 말을 표기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崑崙이라는 단어 역시 토하라어의 *kilyom(o)를 가장 먼저 한자어로 음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cf. 松田壽男 1970: 43~52).

55) 원문은 “保南山羌”인데, 保는 원래 ‘보호하다, 방어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의] 보호를 구하다’, 즉 ‘保於南山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옳을 것이다.

56) 安息(an-siak): 파르티아(Parthia, 전248~후224) 왕조를 가리키며, 이 왕조의 건설자의 이름인 Arsak을 음사한 것이 安息이다. 원래 파르티아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 속했던 省(satrapy)의 명칭으로서 카스피해 동남연안지역, 즉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남부지방을 지칭하였다. 이 지역은 알렉산더 제국이 분열된 후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으나, 파르니(Parni)라는 이란계 부족이 독립을 획득하며 파르티아 왕조를 건설하였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몸을 뒤로 돌려 활을 쏘는 소위 ‘파르티아식 騎射法’(Parthian shooting)으로도 유명한 이 유목민들은 전 240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보낸 원정군을 격파하여 제국의 기초를 놓고, 헤카툼필로스(Hecatompylos)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 최초의 도읍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쉬하바드 서쪽 16km 되는 지점 新·舊 Nisa유적지에서 궁전과 신전 및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풍부한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어, 그곳이 헤카툼필로스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이란 동북지방에 기초를 놓은 파르티아 왕조는 기원전 2세기 중반경 Mithradates 1세와 2세의 시대에 동으로는 인도를 침공하고, 서로는 메디아를 병합했으며, 나아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유프라테스 양하 유역을 정복하여, 수도를 Ecbatana에서 티그리스강 左岸에 있는 Ctesiphon으로 옮겼다. 파르티아의 명성은 기원전 53년 유프라테스 상류에서 벌어진 카르해(Carrhae)의 전투에서 로마를 격파함으로써 최고조에 이르렀다. 제1차 三頭政治의 주역인 크라수스(Crassus)가 이끄는 로마의 重裝步兵은 파르티아의 새로운 방식으로 무장한 군대를 당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파르티아는 종래 활과 검으로 무장한 輕裝騎兵 이외에 重裝騎兵이라는 새로

농사를 짓고 쌀과 보리를 심으며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성읍은 대완과 같은데, 거기에 속한 크고 작은 수백 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 땅은 둘레가 수천 리이어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나라는] 규수에 임해 있고 시장이 있으며,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수레와 배를 이용하여 이웃 나라로 가는데, 수천리를 가기도 합니다. 은으로 화폐를 만들며 화폐는 그 왕의 얼굴을 본따서 만듭니다.⁵⁷⁾ 왕이 죽으면 곧 화폐를 바꾸는데, 왕의 얼굴을 본따서 [다시] 만듭니다. 가죽 위에 횡(橫)으로 글자를 써서 기록을 합니다. 그 서쪽은 곧 조지(條支)이고, 북쪽은 곧 엄채와 여헌(黎軒)입니다.⁵⁸⁾”

운 군대를 투입했는데, 이것은 小札을 이어붙인 馬鐵(말갑옷)으로 무장한 말에 과거와 같은 가죽제 鏡子가 아니라 금속제 鏡子를 달고 거기에 밭을 단단하게 끼운 채 손에는 長槍을 들고 말의 달리는 힘을 이용하여 그대로 적진을 돌파함으로써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파르티아는 2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의 압력으로 서서히 약화되었고, 226년 이란 사산왕조의 아르다시르(Ardashir)가 크테시폰을 함락함으로써 파르티아는 멸망하고 말았다. 동서문명의 교류사에서 파르티아 왕조가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護雅夫 1970: 152~167 참조. 한편, 『正義』는 安息國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地理志』에 의하면 ‘安息國의 수도는 서쪽으로 11,200리 떨어져 있고, 西關에서 西行하여 3,400리 가면 阿蠻國에 이른다. 西行하여 3,600리 가면 斯賓國에 이르는데, 斯賓에서 南行하여 강을 건너서 다시 960리 西南行하면 于羅國에 이르니, 이곳이 安息의 가장 서쪽 경계이다.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大秦國과 통한다.’고 한다. 『漢書』에는 ‘北으로는 康居, 東으로는 烏弋山離, 西로는 條枝에 접하며, 나라는 媯水에 인접해 있다. 정착생활을 하며, 은으로 화폐를 만드는데, 그 王의 얼굴을 새긴다. 王이 죽으면 곧 화폐를 바꾸어 왕의 얼굴을 그려넣는다.’라고 되어 있다.”

57) 『索隱』: “『漢書』에는 ‘정면[文]에는 오로지 王의 얼굴을 새기고, 배면[幕]에는 夫人의 얼굴을 새긴다.’고 하였고, 荀悅는 ‘幕의 홑은 漫이고, 문자가 없는 面(無文面)을 말한다.’고 하였다. 張晏은 ‘화폐의 정면에는 사람이 乘馬한 모습을 새기고, 화폐의 배면에는 사람의 얼굴 모습을 새긴다.’고 하였으며, 韋昭는 ‘幕은 화폐의 背面이고, 홑은 漫이다.’라고 하였다.”

58) 黎軒(liei-xian): 『漢書』 「西域傳」에는 ‘黎軒’. Hulswé(1979: 117~118)에 의하면 이 명칭의 비정에 대해서 수많은 견해가 제출되었는데, 중요한 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Hirth, Chavannes: 로마제국의 Petra를 지칭하는 Rekem을 읍진 말로서 시리아와 로마제국의 동방령을 지칭. (2) Brosset, de Groot, Herrmann: Hyrcania(카스피해 남방)를 지칭. (3) Boodberg: 중앙아시아에 있던 Alexandria들 가운데 하나. (4) Tarn: Media. (5) Pelliot, Dubs: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 (6) Haloun: Seleucid를 지칭. (7) 藤田豊八: Rai (Rhagae, Rhages)를 지칭. 한편, 黎軒에 대한 중국측의 주석은 傳聞에 의거한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황당무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의一端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인용해 두기로 한다. 먼저 『索隱』에는 “『漢書』에 黎斬, 『續漢書』에 一名 大秦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생각컨대 [黎軒, 黎斬, 大秦] 三國은 모두 西海에 임해 있고 [동일한 나라를 가리킨다]. 『後漢書』는 ‘西海가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으며 오직 西北으로만 陸道와 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漢使가 烏弋에

條枝在安息西數千里，臨西海。暑溼。耕田，田稻。有大鳥，卵如甕。人衆甚多，往往有小君長，而安息役屬之，以爲外國。國善眩。安息長老傳聞條枝有弱水·西王母，而未嘗見。

“조지⁵⁹⁾는 안식의 서쪽으로 수천 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서해(西海)에 임해 있습니다. 덥고

서 돌아올 때 條枝에 도달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正義』는 黎軒에 관한 諸家の 견해를 망라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後漢書』는 ‘大秦은 一名 ‘犁鞞’이고, 西海의 西쪽에 있으며, 東西南北이 各 數千里이다. 四百餘所의 城이 있으며, 金銀奇寶가 많이 난다. 夜光璧·明月珠·駭雞犀·火浣布·珊瑚·琥珀·琉璃·瑯玕·朱丹·青碧 등이 있으며, 珍怪한 물건들은 모두 大秦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康氏外國傳』은 ‘그 나라의 城郭은 모두 靑水精으로 기초를 삼았고, 五色水精으로 壁을 세웠다. 人民은 기술이 많아서, 능히 銀을 金으로 만든다. 나라 사람들은 시장에서 모두 金銀으로 만든 화폐로 물건을 산다.’고 하였다. 『萬震南州志』는 ‘큰 집의 屋舍는 珊瑚로 기둥을 삼고, 琉璃로 牆壁을 삼으며, 水精으로 주춧돌을 놓는다. 바다 가운데 섬에는 나무가 있는데, 겨울이면 그곳으로 가서 그 껍질을 벗겨내어 쌓아서 布로 만든다. 極細하여 手巾과 같은 것 여러匹을 만들 수 있다. 麻焦布와 차이가 없고 色은 약간 靑黑인데 만약 더러워져서 씻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불 속에 넣으면 곧 精潔해지니, 세상에서는 그것을 火浣布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括地志』는 ‘火山國은 扶風の 南東쪽 大湖海中에 있다. 그 나라 안의 산들에서는 모두 불길이 치솟는데, 그렇지만 그 불 속에 白鼠皮와 樹皮가 있고, 그것이 쌓여서 火浣布가 된다. 『魏略』에서 말하기를 大秦은 安息·條支의 西쪽에 있는 大海의 서쪽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연유로 세상에서는 그곳을 海西라고도 부른다. 安息의 경계에서 배를 타면 곧바로 海西로 가는데, 좋은 바람을 만나면 석 달 만에 도착하고, 바람이 늦어지면 1~2년이 걸리기도 한다. 큰 건물을 세워 公私의 宮室로 삼고, 郵驛을 위해 亭과 置를 둔 것은 中國과 같다. 安息에서 바다를 끼고 육지로도 그 나라에 도착하는데, 주민들은 서로 연접해 있고, 十里에 一亭, 三十里에 一置를 둔다. 盜賊이 없다. 그 풍속에 의하면 사람들은 長大平正하고, 中國人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胡服을 입고 있다.’고 하였다. 『宋膺異物志』는 ‘秦의 북쪽에 附庸하는 小邑이 있다. 羊새끼가 땅 속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데, 그것이 막 움터서 나오려고 할 때는 판막이로 둘러싸서 짐승들이 그것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한다. 그 배꼽은 땅에 맞닿아 있어서 잘라 내면 죽어 버린다. 물건을 두드려 그것을 놀래게 하면 곧 놀라서 울다가 배꼽이 마침내 잘라진다. 수초를 따라서 무리를 이루며 산다. 또한 大秦에는 金 二枚가 있는데, 그 크기가 모두 오이만하여 그것을 심으면 번식하는 것이 끝이 없고, 사용한 즉 眞金과 같다.’고 하였다. 『括地志』는 ‘小人國이 大秦 南쪽에 있는데, 사람들은 겨우三尺에 불과하다.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鶴이 잡아먹을까 우려해, 大秦이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다. 그곳은 곧 焦僕國이니 그 주민들은 穴居한다.’고 하였다.”

59) 條支(d'ieu-tsie): 條枝라고도 표기. 『史記』「大宛列傳」, 『漢書』 및 『後漢書』「西域傳」, 『魏略』 등에 보이는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이 나라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1) 安息의 서쪽에 있다,

습하며 농사를 짓는데, 벼를 재배합니다. 대조(大鳥)가 있고 알은 향아리[鴛]와 같습니다.⁶⁰⁾ 사람들이 무척 많으며, 때로는 군소의 군장(君長)들도 있습니다. 안식이 [조지]를 복속시키고 있으나 외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마술[眩]에 능합니다.⁶¹⁾ 안식의 장로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지에는 약수(弱水)와 서왕모(西王母)가 있다고 하나,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⁶²⁾”

(2) 安息에서 大秦으로 가는 교통로상에 위치해 있다, (3) 西海에 臨해 있다, (4) 安息에 복속해 있다는 정도이다. 특히, 大秦과 西海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條支의 실체는 Caldaea 설, Fars 설, Syria 설로 나뉘어진다. Caldaea 설은 Hirth에서 시작하여 Chavannes와 白鳥庫吉 등이 지지하고 있고, Fars 설은 藤田豊八이 주장한 것인데 條支를 페르시아만 부근의 항구 Tao-ke로 보는 입장이다. Syria 설은 宮崎市定이 가장 분명하게 제시했고, 최근에는 중국의 余太山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다. 『歷史事典』 4: 387~388; 余太山 1992: 182~209 참조. 물론 張騫은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傳聞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부정확함도 피할 수 없다.

60) 大鳥: 일반적으로 駝鳥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正義』: “『漢書』에 의하면 ‘條支에서는 師子·犀牛·孔雀·大雀 등이 나오며, [大雀의] 알은 향아리 같다. 和帝 永元 13년에 安息王 滿屈이 師子·大鳥를 헌상했는데, 세간에서는 그것을 일러 安息雀이라 불렀다.’ 『廣志』에 의하면 ‘매(鴉鷹)의 몸, 발굽은 낙타(駱)와 같고, 색깔은 푸르다[蒼]. 고개를 들면 八九尺이고, 날개를 펴면 1척이 넘으며, 大麥을 먹고, 알은 크기가 향아리만하다.’”

61) 眩: 마술의 종류에 대해서 『正義』는 吞刀·吐火·殖瓜·種樹·屠人·截馬 등의 기술을 열거하였다. 『後漢書』 卷116 『西南夷傳』에는 永寧 元年(후120)에 擘國王이 사신을 보내면서 樂人和 幻人也 보냈는데, 이들은 變化에 능하여 불을 입에서 뱉고, 스스로 몸을 조각내고, 소와 말의 머리를 바꾸고, 跳丸에 능하여 [공을 땅에 떨어트리지 않고 던지는 횡수가] 천 번에 이르는데, 스스로 ‘海西人’이라고 하니, 海西란 즉 大秦이고 擘國은 西南으로 大秦과 통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62) 弱水와 西王母: 『漢書』에는 ‘安息의 長老가 弱水·西王母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고대 중국인들의 신화적 관념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西王母는 고대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던 地母神 Cybele와 연관된 것이거나, 시리아 지방의 도시국가인 Ugarit에서 숭배되던 Anat라는 女神과 관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Hulsewé 1979: 114; 余太山 2005: 18~19. 『索隱』에는 “『魏略』에 의하면 ‘弱水는 大秦의 서쪽에 있다.’ 『玄中記』에 의하면 ‘天下에서 가장 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崑崙의 弱水이며, 기러기의 털[鴻毛]조차 띄우지 못할 정도이다.’ 『山海經』에 의하면 ‘玉山은 西王母가 사는 곳이다.’ 『穆天子傳』에 의하면 ‘天子가 瑤池가에서 西王母와 술잔을 나누었다.’ 『括地圖』에 의하면 ‘崑崙·弱水는 龍을 타고서도 이를 수 없다. 三足の 神鳥가 있는데, 西王母를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해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正義』는 “이 弱水·西王母는 安息의 長老가 傳聞해 준 것이지만 본 적은 없다. 『後漢書』에는 桓帝時에 大秦國王 安敦이 日南徼外에서 遣使하여 來獻했다고 했고, 혹은 그 나라 서쪽에 弱水·流沙가 있어서 西王母의 거처와 가깝고 태양이 들어가는 곳과 가깝다고 한다. 그러나 先儒들은 『大荒西經』을 많이 인용하여 말하기를, 弱水는 두 개의

大夏在大宛西南二千餘里媯水南。其俗土著，有城屋，與大宛同俗。無大(王)[君]長，往往城邑置小長。其兵弱，畏戰。善賈市。及大月氏西徙，攻敗之，皆臣畜大夏。大夏民多，可百餘萬。其都曰藍市城，有市販賈諸物。其東南有身毒國。

“대하는 대완의 서남쪽으로 2천여 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규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 풍속은 정착생활이고 성과와 가옥이 있으며, 대완과 동일한 풍속을 갖고 있습니다. 대군장(大君長)은 없지만 때때로 성읍에 작은 우두머리[小長]가 두어집니다. 그 군대는 약하고 싸우기를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은] 장사는 잘합니다. 대월지가 서쪽으로 도망쳐와서 그들을 쳐서 패배시키고, 대하를 모두 신속[臣畜]케 하였습니다. 대하의 백성은 많아서 대략 100여 만 명이 되고, 그 도읍은 남시성(藍市城)인데, 시장이 있어 각종 물건들을 판매합니다. 그 동남쪽에는 신독국(身毒國)⁶³⁾이 있습니다.”

원천이 있는데, 모두 女國의 北쪽 阿耨達山에서 발원하며, 南流하다가 女國의 東쪽에서 모이고, 그 나라에서 1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 깊이는 1丈餘 폭은 60步가 되어 毛舟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으며, 강물은 南流하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阿耨達山이 곧 崑崙山이니 『大荒西經』의 내용과 합치한다. 그러나 [이 같은 『大荒西經』의 내용과는 달리] 大秦國은 西海의 섬에 있어서 安息의 西界에서 바다를 건널 때 순풍을 만나면 3개월이면 도착하고, 弱水 역시 그 나라의 서쪽에 있다. 한편, 崑崙山의 弱水는 女國의 北쪽에서 흘러 崑崙山의 南쪽으로 나오는데, 女國은 于寘國의 南쪽 2,700리 되는 지점에 있고 于寘은 京師에서 9,670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大秦과 大崑崙山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대략 4~5만 리가 되니, 논급할 바가 아니며 先賢들이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는 모두 漢代의 括地에 근거하여 논한 것일 뿐 명백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弱水가 두 군데에 있다는 주장은 옳은 듯하다.”라고 기록했다.

63) 身毒(sien-d'uok): 『漢書』에 天竺(t'ien-tuok), 『後漢書』에 天竺(t'ien-tuok)으로 표기되었으며, 이는 인도를 지칭하던 고대 이란어 Hinduka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身毒 역시 인도식 발음인 Sindhu와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을 직접 음譯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Cf. Hulswé 1979: 97~98. 『素隱』은 身毒에 대하여 孟康을 인용하여 “즉 天竺이며 소위 浮圖[부처][가 속했던] 胡이다.”라고 했는데, 『正義』는 다음과 같이 매우 자세한 주석을 첨부하였다. “月氏에서 東南으로 數千里 떨어진 곳에 있다. 풍속은 月氏와 같으나, 卑溼·暑熱하다. 그 나라는 大水에 임해 있으며 코끼리를 타고 전투를 한다. 그 백성은 월지보다 약하다. 浮圖의 道를 닦아서 殺伐하지 않는 것이 마침내 그 풍속이 되었다. 코끼리·물소·瑇瑁·金·銀·鐵·錫·鉛 등이 나온다. 西로는 大秦과 통하여 大秦의 珍物이 있다. 明帝가 長大한 金人을 꿈에서 보았는데, 머리 위에는 光明이 있었다. 그래서 衆臣들에게 물어 보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西方에 神이 있는데 이름하여 佛이라고 하며, 그 형태는 키가 1丈 6尺이며 황금색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는 天竺으로 사신을 보내어 佛의 道法을 탐문한 뒤 마침내 中國으로 돌아와 그 생김새를

騫曰：「臣在大夏時，見邛竹杖·蜀布。問曰：『安得此?』大夏國人曰：『吾賈人往市之身毒。身毒在大夏東南可數千里。其俗土著，大與大夏同，而卑溼暑熱云。其人民乘象以戰。其國臨大水焉。』以騫度之，大夏去漢萬二千里，居漢西南。今身毒國又居大夏東南數千里，有蜀物，此其去蜀不遠矣。今使大夏，從羌中，險，羌人惡之；少北，則爲匈奴所得；從蜀宜徑，又無寇。」天子既聞大宛及大夏·安息之屬皆大國，多奇物，土著，頗與中國同業，而兵弱，貴漢財物；其北有大月氏·康居之屬，兵彊，可以賂遺設利朝也。且誠得而以義屬之，則廣地萬里，重九譯，致殊俗，威德徧於四海。天子欣然，以騫言爲然，乃令騫因蜀犍爲發間使，四道並出：出驪，出犍，出徙，出邛·犍，皆各行一二千里。其北方閉氏·笮，南方閉巂·昆明。昆明之屬無君長，善寇盜，輒殺略漢使，終莫得通。然聞其西可千餘里有乘象國，名曰滇越，而蜀犍出物者或至焉，於是漢以求大夏道始通滇國。初，漢欲通西南夷，費多，道不通，罷之。及張騫言可以通大夏，乃復事西南夷。

묘사하였다. 『萬震南州志』는 ‘地方이 三萬리며 佛道가 나온 곳이다. 그 國王은 城郭에 거주하는데, 宮殿은 모두 문양을 새기고 장식을 붙였으며. 거리와 시장과 동네는 각각 行列을 갖고 있다. 左右에는 대저 16개의 大國들이 있는데 모두 [身毒을] 받들며 天地의 중앙이라고 여긴다.’라고 기록했다. 『浮屠經』은 ‘臨兒國의 王이 隱屠太子를 낳았다. 그 부친은 屠頭邪이고 모친은 莫邪屠이다. 몸은 黃色이고 머리카락은 靑絲, 젖은 靑色, 손톱은 붉기가 銅과 같았다. 처음에 莫邪가 흰 코끼리[白象]를 꿈에서 본 뒤에 잉태했는데, 출생할 때 모친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다. 나올 때 이미 머리카락이 있었고 땅에 떨어져 능히 일곱 걸음을 걸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太子가 출생할 때 두 龍王이 左右에서 협시하면서 물을 토해 내었는데, 한 용은 따뜻한 물을, 또 한 용은 찬 물을 토해서 마침내 두 개의 연못이 되었으며, 지금도 하나는 차고 하나는 따뜻하다고 한다. 처음 일곱 걸음을 댄 곳에는 琉璃 위에 남은 太子의 발자국[腳跡]을 지금도 볼 수 있다. 탄생지는 祇洹精舍라고 불리우는데 舍衛國의 南쪽 4리 되는 곳에 있으며, 이곳이 바로 長者 須達이 일어난 곳이다. 또한 阿輸迦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夫人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태자를 낳은 나무이다.’라고 하였다. 『括地志』는 ‘沙祇大國이 곧 舍衛國이며 月氏의 남쪽 萬里되는 곳, 즉 波斯匿王의 王城이 있는 곳이다……. 天竺國은 東·西·南·北·中央의 [다섯] 天竺國이 있는데, 나라의 둘레가 三萬里이고 月氏에서 7,000리 떨어져 있으며, 大國으로 거기에 예측된 나라가 무릇 21개나 된다. 天竺은 崑崙山의 南쪽에 있는 大國이며, 治城은 恆水에 임해 있다……. 阿耨達山은 建末達山이라고도 불리며 崑崙山이라고도 불리운다. 거기서 강물이 나오는데 一名 拔扈利水라고도 하며 一名 恆伽河라고도 하니, 즉 [恆]河라고 經稱하는 것이다. 崑崙山 以南에는 平地가 많으나 습하다. 토지는 비옥하고 여러 종류의 벼를 심는데, 1년에 4번 익으며, 낙타와 말을 부리며 쌀알도 아주 크다.’라고 하였다.”

장건이 말하기를, “신(臣)이 대하에 있을 때 공(邛)의 죽장(竹杖)⁶⁴과 촉(蜀)의 포(布)⁶⁵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했느냐?’고 물어 보니 대하국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상인들이 신독에 가서 산 것이다. 신독은 대하의 동남쪽으로 대략 수천 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풍속은 정착생활로서 대체로 대하와 동일하지만, 매우 습하고 덥다고 한다. 그 나라 사람들은 코끼리를 타고 전투를 한다. 그 나라는 큰 강[大水]⁶⁶에 임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아려 보건대, 대하는 한나라에서 일만 이천 리 떨어져 있고 한나라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독국 또한 대하에서 동남쪽으로 수천 리 떨어져 있고 촉의 물건이 있다면, 이는 그곳이 촉으로부터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하에 사신을 보낼 때, 강족이 사는 땅을 통과하려 한다면 [그 길은] 험하고 강족이 싫어할 것이고, 조금 북쪽으로 간다면 흉노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니, 촉을 경유한다면 당연히 지름길이 있을 것이고⁶⁷ 또한 약탈당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미 천자(天子)께서는 대완과 대하와 안식 등과 같은 것들이 대국이고 특이한 물자가 많으며 토착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생활을 하지만 군대가 약하고 한나라의 재물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과, 그 북쪽의 대월지와 강거 등과 같은 것들은 군대가 강하지만 그들에게 재물을 보내서 이익을 베풀어 입조(入朝)하게⁶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진심을 다해서 의로움으로써 그들을 귀속케 한다면 영토는 만 리를 넓힐 수 있을 것이요, 거듭해서 통역을 하여⁶⁹ 다른 풍속을 [갖는 사람들을] 초치한다면 [천자의] 위덕이 사해(四海)에 미칠 것이다. 천자께서 기뻐하며 장건의 말을 옳다고 하고, 이에 장건으로 하여금 촉의 건위(犍爲)⁷⁰를 거쳐서 밀사(間使)⁷¹로 출발하도록 하였다. [사신

64) 邛竹杖: 『正義』: “邛都의 邛山에서 이 대나무가 나오므로 ‘邛竹’이라 이름한 것이다.” 邛山은 邛崃山을 가리키며 현재의 四川省 荊經 西南方に 있다.

65) 蜀布: 『正義』에 “布는 土蘆布를 가리킨다.”는 기록이 보인다.

66) 大水: 즉 인더스강.

67) 從蜀宜徑: 『集解』는 如淳을 인용하여 “徑은 疾의 뜻인데, 혹은 直의 뜻으로도 해석한다.”라고 설명했다.

68) 設利朝也: 『漢書』「張騫·李廣利傳」에서 顏注는 “設은 施의 뜻이다. 利益을 베풀어서 入朝토록 유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69) 重九譯: 『正義』에 의하면 “아홉 차례의 번역을 거쳐서 그 뜻을 통하게 하다.”는 의미.

70) 犍爲: 『正義』: “犍爲郡은 현재의 戎州이며, 益州 南쪽 1,000여 리에 위치해 있다.” 犍爲는 현재 四川의 筠連에 해당.

71) 間使: ‘間行’이 “은밀하게 가다, 알려지지 않은 길로 가다.”는 뜻임에 비추어, ‘間使’를 “은밀한 사신”이라

들이] 네 방향의 길로 모두 출발했는데, 하나는 방(駟)⁷²⁾을, 하나는 엽(叶)⁷³⁾을, 하나는 사(徙)⁷⁴⁾를, 하나는 공(邛)⁷⁵⁾·북(夔)⁷⁶⁾을 나서서 모두 1~2천 리씩 갔다. 그 북방은 저(氏)⁷⁷⁾와 작(笮)⁷⁸⁾에게 막히고, 남방은 수(雋)⁷⁹⁾와 곤명(昆明)⁸⁰⁾에게 막혔다. 곤명과 같은 곳에는 군장이 없고 [사람들은] 약탈과 도적질을 잘해서, 갑자기 한나라 사신들을 죽이거나 약탈하였으므로 결국 통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서쪽으로 대략 천 여리 떨어진 곳에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나라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이름은 진월(滇越)⁸¹⁾이라고 하며 축의 상인들이 몰래 물건을 내보내서⁸²⁾ 어쩌다 그곳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는 대하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 비로소 진국(滇國)⁸³⁾과 교통하였다. 원래 처음에 한나라는 서남이(西南夷)와 교통하고자 했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길도 통하지 않아 그만두었던 것인데, 장건이 대하와 통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이에 비로소 다시 서남이와의 교통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는 뜻으로 보인다.

72) 駟: 西南夷 民族名. 四川 茂汶 一帶. 이하 서남지방의 소수민족에 관해서는 余太山 2005: 22~23 참조.

73) 叶(叶): 西南夷 民族名. 四川 茂汶 一帶. 『正義』: “茂州·向州 등은 叶·駟의 땅이며 戎州 西北에 있다.”

74) 徙: 西南夷 民族名. 四川 漢源 一帶.

75) 邛: 西南夷 民族名. 四川 西昌 一帶와 雲南 麗江·楚雄 北部.

76) 夔: 西南夷 民族名. 四川 南部 및 雲南 東北部. 『正義』: “徙는 嘉州에 있고, 邛은 현재의 邛州이고, 夔은 현재의 雅州이다. 모두 戎州의 西南에 있다.”

77) 氏: 西南夷 民族名. 甘肅 東南, 陝西 西南 및 四川 西北部. 『正義』: “氏는 현재의 成州와 武等州이다.”

78) 笮: 西南夷 民族名. 四川 漢源 一帶. 『索隱』: “韋昭는 ‘笮縣은 越雋이며 音은 昨이다.’라고 하였는데, 생각컨대 南越이 공파된 뒤에 笮侯를 죽이고 笮都를 沈黎郡으로 삼았으며 笮縣을 정하였다.” 『正義』: “笮은 白狗羌이며 모두 戎州 西北에 있다.”

79) 雋: 西南夷 民族名. 四川 西昌 一帶.

80) 昆明: 西南夷 民族名. 四川 西部 및 雲南 西部·北部. 『正義』: “雋州와 南昆明의 오랑캐이며, 모두 戎州 西南에 있다.”

81) 滇越: 아삼지방과 미얀마(緬甸) 사이의 Danava를 지칭. 『正義』: “昆·郎 等州는 모두 滇國이다. 그 서남쪽에 있는 滇越·越雋 등은 통상 越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나, 세분하여 雋·滇 등의 명칭을 갖는 것이다.”

82) 姦出物: 『漢書』 「張騫·李廣利傳」에는 “間出物”로 되어 있으며, 顏注는 “몰래 가서 장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3) 滇國: 현재 雲南 晉寧의 동쪽.

騫以校尉從大將軍擊匈奴，知水草處，軍得以不乏，乃封騫爲博望侯。是歲元朔六年也。其明年，騫爲衛尉，與李將軍俱出右北平擊匈奴。匈奴圍李將軍，軍亡多；而騫後期當斬，贖爲庶人。是歲漢遣驃騎破匈奴西(城)[域]數萬人，至祁連山。其明年，渾邪王率其民降漢，而金城·河西西並南山至鹽澤空無匈奴。匈奴時有侯者到，而希矣。其後二年，漢擊走單于於幕北。

장건은 교위(校尉)⁸⁴의 신분으로 대장군(大將軍)⁸⁵을 따라 흉노를 공격했는데, 수초(水草)가 있는 곳을 알아서 군대가 그 부족함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장건을 봉하여 박망후(博望侯)⁸⁶로 삼았으니 그 해는 원삭(元朔) 6년(전123)이었다. 그 다음해⁸⁷에 장건은 위위(衛尉)⁸⁸가 되어 이장군(李將軍)⁸⁹과 함께 우북평(右北平)⁹⁰을 나서 흉노를 공격하였다. 흉노가 이장

84) 校尉: 秦漢대에 군대를 통솔하는 武官으로, 將軍보다 낮고 都尉보다 높은 직책으로 秩二千石이었다. 출정시에 임시로 임명되며, 一校(營)兵을 지휘하고, 司馬·候 등의 屬官을 거느렸다. 輕騎校尉·戊己校尉 등의 예와 같이 앞에 다른 명칭이 붙여졌는데, 그 구체적인 직무에 따라 선행하는 名稱이 붙여졌다. 烏桓校尉·護羌校尉처럼 이민족을 통어하는 校尉도 두어졌다.

85) 大將軍: 여기서는 衛靑을 지칭한다.

86) 博望侯: ‘넓고 멀리 바라보다.’는 뜻에서 붙여진 封號. 그러나 南陽에 博望縣이라는 지명이 있었다. 『索隱』은 “張騫의 封號일 뿐 地名이 아니다. 또한 小顏도 ‘그가 능히 넓고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武帝도 博望苑을 두었으니 이 역시 그 뜻에서 취한 이름이다.”라고 했으며, 『正義』는 “地理志에 南陽 博望縣이 있다.”는 기록을 첨가하였다.

87) 其明年: 기원전 122년. 『漢書』「張騫·李廣利傳」에는 ‘後二年’.

88) 衛尉: 戰國·秦代에 설치된 官名으로 宮廷의 警備를 담당하였다. 漢代에 沿置되었으며 秩中二千石이고 九卿의 반열에 들었다. 景帝 때 中大夫승으로 改名했으나 後元 元年(전143)에 복원되었다. 황제의 거처인 未央宮의 禁衛를 담당하며 宮門에 屯駐하는 衛士들을 관할하고, 晝夜로 순찰하면서 출입하는 자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89) 李將軍: 李廣(?~전119). 『史記』卷109「李將軍列傳」에 立傳된 인물이다. 隴西 成紀(현재의 甘肅 安北)人. 文帝 때 匈奴戰에 중군하여 郎이 되었고, 활을 잘 쏘아 文帝를 따라 사냥에 자주 나갔다. 景帝가 즉위하자 騎郎將이 되고, 吳·楚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軍功을 세워, 후일 上谷·上郡·隴西·北地·雁門·雲中等 北邊의 郡太守를 역임하며 여러 차례 흉노와 전투를 벌였다. 武帝 때에 未央衛尉가 되었고, 元光 6년(전129)에는 驍騎將軍이 되어 雁門을 나서서 匈奴를 공격했으나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胡馬를 탈취하여 귀환하여, 斬刑은 면하고 庶人으로 강등되었다. 후일 右北平 太守가 되었고, 元朔 6년(전123)에는 郎中승의 지위로서 將軍이 되었다. 元狩 4년(전119) 大將軍 衛靑을 따라 匈奴원정에 나섰으

군을 포위하여 군인들 가운데 망실(亡失)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장군은 기일에 늦어 마땅히 참형을 받아야 했으나 속전(贖錢)을 내고 서민이 되었다. 그 해에 한나라는 표기장군(驃騎將軍)⁹¹⁾을 보내서 흉노 서역⁹²⁾의 군대 수만 명을 격파하고 기련산(祁連山)에 이르렀다.⁹³⁾ 그 다음해⁹⁴⁾에 혼야왕(渾邪王)⁹⁵⁾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하니, 금성(金

나 길을 잃고 기약한 날짜를 어기자 自殺하고 말았다. 평소 원정할 때에는 部曲이 없이 行陣했으며, 夜營할 때에도 刁斗를 두드리지 않아 병사들을 편히 쉬게 하였고, 賞賜가 있으면 부하들에게 곧바로 나누어 주어 병사들과 고락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 흉노와도 7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 그 명성이 매우 높았으나 끝내 封侯를 받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90) 右北平: 현재의 天津 薊縣 부근.

91) 驃騎將軍: 霍去病(?~전117). 『史記』 卷111 「衛將軍·驃騎列傳」, 『漢書』 卷55 「衛青·霍去病傳」에 立傳된 인물이다. 河東 平陽(현재의 山西 臨汾 西南)人. 어려서 말이 적었으나 과감하고 지략이 뛰어났다고 한다. 처음에 侍中이 되었다가 驃騎校尉의 신분으로 大將軍 衛青을 따라 흉노를 공격하여 공을 세웠고 冠軍侯에 봉해졌다. 그 후 여러 차례 出塞하여 많은 적군을 斬獲하였다. 元狩 2년(전121) 驃騎將軍이 되어 隴西를 나서서 焉支山을 지나 匈奴休屠王의 祭天金人을 획득하고, 같은 해에 北地를 나서서 居延을 지나자 渾邪王이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였다. 4년(전119)에 霍去病은 代郡을 나서고 衛青은 定襄을 나서서 兩軍이 漠北을 원정했는데, 翰海(바이칼 호수)까지 갔다가 귀환했다. 大司馬로 加封되었고, 秩祿은 大將軍 衛青에 견줄 정도였다. 현재의 陝西省 興平에 있는 漢武帝의 茂陵 옆에 霍去病의 墓가 있다.

92) 匈奴西域: 『漢書』 「張騫·李廣利傳」에는 ‘匈奴西邊’. 흉노의 渾邪王은 ‘匈奴西域王’이라 칭해지기도 했다. ‘西域’이라는 개념이 중앙아시아를 지칭하는 정치·지리적 용어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서쪽 지역’을 뜻하던 단계의 용례로 보인다.

93) 祁連山: 『史記』 卷110 「匈奴列傳」에는 다음과 같은 『正義』의 주석이 첨가되어 있다. “焉의 음은 ‘烟’이다. 『括地志』에 ‘焉支山은 일명 刪丹山이며 甘州 刪丹縣 東南 50리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西河故事』에는 ‘匈奴가 祁連·焉支 두 산을 잃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亡我祁連山, 使我六畜不蕃息, 失我焉支山, 使我婦女無顏色(나의 祁連산을 잃었으니 나의 가축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나의 焉支산을 잃었으니 나의 婦女들이 顏色을 잃게 되었구나!)」. 그들의 섭섭함이 이와 같았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焉支山은 ‘燕支山’이라고 표기되기도 하며, 『穆天子傳』의 ‘焉居’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흉노인들이 祁連과 焉支를 구별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산줄기로 추정된다. 焉支山은 현재 甘肅 永昌의 서쪽, 즉 山丹 동남쪽에 있는 산이 아니라, 新疆의 巴里坤(巴里坤) 동쪽, 즉 천산산맥 東端의 高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哈爾里克(Qaraliq)山이라고 불리우며 이 명칭은 투르크어로 ‘黑山’을 뜻한다. 그런데 토하라어에서도 黑色은 arkent(A방언) 혹은 erkent(B방언)이라고 불리우는데, 焉支·焉居는 이것을 음寫한 말이다(林梅村 1998: 74 참조). 그렇다면 焉耆라는 도시도 토하라어에서 ‘黑色’을 뜻하는 arkent/erkent에서 기원한 명칭임이 분명하며, 후일 투르크인들이 그곳을 점유한 뒤 Qarashahr(‘黑城’이라는 뜻)로 불리우게 된 것도 그 의미가 습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94) 其明年: 『漢書』 「張騫·李廣利傳」에는 ‘其秋’. 元狩 2년(전121)을 지칭한다.

城)⁹⁶과 하서(河西)의 서쪽, 그리고 남산(南山)⁹⁷에서 엄택에 이르기까지 흉노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때로 흉노가 척후를 보내어 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드물었다. 그 후 2년 뒤⁹⁸ 한나라는 선우를 공격하여 사막의 북쪽[幕北]으로 쫓아 버렸다.

是後天子數問騫大夏之屬。騫既失侯，因言曰：「臣居匈奴中，聞烏孫王號昆莫，昆莫之父，匈奴西邊小國也。匈奴攻殺其父，而昆莫生於野。烏嚙肉蜚其上，狼往乳之。單于怪以爲神，而收長之。及壯，使將兵，數有功，單于復以其父之民予昆莫，令長守於西(城)[域]。昆莫收養其民，攻旁小邑，控弦數萬，習攻戰。單于死，昆莫乃率其衆遠徙，中立，不肯朝會匈奴。匈奴遣奇兵擊，不勝，以爲神而遠之，因羈屬之，不大攻。今單于新困於漢，而故渾邪地空無人。蠻夷俗貪漢財物，今誠以此時而厚幣賂烏孫，招以益東，居故渾邪之地，與漢結昆弟，其勢宜聽，聽則是斷匈奴右臂也。既連烏孫，自其西大夏之屬皆可招來而爲外臣。」天子以爲然，拜騫爲中郎將，將三百人，馬各二匹，牛羊以萬數，齎金幣帛直數千巨萬，多持節副使，道可使，使遺之他旁國。

그 이후로 천자께서는 여러 차례 장건에게 대화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 물으셨다. 장건은 이미 후작(侯)을 상실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⁹⁹ “신(臣)이 흉노 가운데 머물 때 곤막(昆

95) 渾邪((γ uən-ia)王: 渾邪王·昆邪王 등으로도 표기되었으며, 休屠王과 함께 감숙 河西回廊지역에 유목하던 흉노인들의 수령이었다. 元狩 2년(전121) 休屠王이 한나라 군대에 누차 패배한 것에 대해 單于가 격노하여 誅殺하려고 하자, 渾邪·休屠 二王은 한에 투항하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휴도왕이 이를 후회하자 혼야왕이 그를 살해하고 4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투항을 결행했다. 한나라는 그를 溱陰侯로 봉하고, 그 땅에 張掖郡을 설치했다.

96) 金城: 현재의 감숙성 蘭州.

97) 南山: 祁連山.

98) 元狩 4년, 즉 기원전 119년.

99) 騫既失侯，因言曰: 이 두 구절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모호하다. 그가 博望侯의 지위를 상실한 것과 위의 내용을 황제께 아뢰는 것은 무관해 보이며, ‘騫既失侯’ 다음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Hulsewé 1979: 214).

莫)¹⁰⁰⁾이라 불리우는 오손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곤막의 부친은 흉노의 서쪽 변경에서 소국(小國)[의 군장]이었습니다. 흉노가 그 부친을 공격하여 죽였는데,¹⁰¹⁾ [그때] 곤막이 태어나 들에 버려졌습니다.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그 위를 날아다녔고¹⁰²⁾ 늑대가 가서 그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선우가 기이하게 생각하고 신령스럽다고 여겨서 그를 거두어서 키웠습니다. 그가 장성하자 군대를 지휘케 하였고 여러 차례 공을 세우자, 선우는 그 부친의 백성을 다시 곤막에게 주고 서역에서 오랫동안 수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곤막은 그 백성을 거두어 길러서 주변의 소읍들을 공격했고, 활을 당길 만한 사람 수만 명에게 전투하는 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¹⁰³⁾ 선우가 죽자 곤막은 이에 그 무리를 이끌고 멀리 옮겨 가서, 중립(中立)을 유지한

100) 昆莫(kuən-muo): 『漢書』「西域傳」에는 “昆莫은 王號이고, 이름은 獵驕靡이다. 後書에는 ‘昆靡’라고 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昆靡의 古音은 kuən-mjie. 昆莫·昆靡 모두 烏孫國의 王號였다. 토하라어에서 ‘태양’을 뜻하는 kün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려는 주장(王明哲·王炳華 1983: 76~77)이 있으나 설득력은 부족하다.

101) 匈奴攻殺其父: 『漢書』에는 昆莫의 아버지의 이름이 難兜靡(nán-təu-mjie)이고, 烏孫의 原住地가 敦煌과 祁連 사이, 즉 河西回廊이었으며, 오손을 공격한 세력도 흉노가 아니라 大月氏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難兜靡를 살해한 장본인이 누구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史記』「大宛列傳」과 『漢書』「張騫·李廣利傳」의 상호관계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불리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Hulsewé 1979: 214~215; 孟凡人 1985: 1~18; 王炳華 1993: 255~260 참조.

102) 烏曠隱: 『索隱』은 “曠의 音은 ‘衛’이다. 曠도 역시 飛字와 같다.”고 설명했다. ‘烏孫’이라는 명칭은 물론 현지인의 명칭을 한자로 옮긴 것이겠지만, 위의 설화와 연관시켜 “까마귀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전달 되도록 音寫한 것으로 추정된다. Daffinà(1982: 327~328)는 이것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보면서, 그럴 경우 ‘烏孫’이라는 이름은 匈奴人들에 의해 지어진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03) 『漢書』「張騫·李廣利傳」에는 “그때 月氏는 이미 匈奴에게 격파되었고 서쪽으로 塞王을 공격하였다. 塞王이 南走하여 멀리 이주하니 月氏가 그 땅에 거주하였다. 昆莫이 장성한 뒤 單于에게 父怨을 갚게 해 달라고 청하였고, 마침내 서쪽으로 大月氏를 공파하였다. 大月氏는 다시 西走하여 大夏의 땅으로 이주하였고, 昆莫은 그 무리를 빼앗고 그곳에 머물렀다. 군대가 점차 강해져서 單于가 사망하게 되자 다시 匈奴에 入朝하지 않으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史記』「大宛列傳」과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漢書』를 믿는다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것이다. 즉, 처음에 月氏가 烏孫을 격파하여 昆莫, 즉 어린 太子가 흉노에 망명하였고, 후일 月氏가 匈奴의 공격을 받아 西遷하여 塞(Saka)을 공격하자 塞은 南走했고 月氏가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런데 昆莫이 장성하여 匈奴의 지원을 받아 大月氏를 공격했고, 이에 大月氏는 西走하여 大夏의 땅으로 이주하고 烏孫이 대신 그 지역을 차지한 것이다.

채 흉노에 조회(朝會)하러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흉노가 기습병(奇兵)을 보내어 공격했으나 승리하지 못하자, [곤막을] 신령스럽게 여기고 멀리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흉노는] 그를 신속(羈屬)시키지만 할 뿐 크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선우가 한나라로 인하여 새로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예전 혼야왕의 땅도 텅 비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이(蠻夷)의 풍속은 한나라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이를 활용할] 시기입니다.¹⁰⁴⁾ 오손에게 많은 물자를 주어서 동쪽으로 초치하여 옛 혼야왕의 땅에 거주케 하고 한나라와 형제맹약을 맺자고 한다면, 이 같은 상황으로 보아 [오손은] 마땅히 청종할 것이고, 그가 청종한다면 이는 흉노의 오른팔(右臂)을 끊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오손과 연맹한다면 그 서쪽에 있는 대하 등의 무리도 모두 초치하여 외신(外臣)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자께서는 이를 옳다고 하면서 장건을 중랑장(中郎將)¹⁰⁵⁾으로 배수하였다. 그에게 300명을 지휘케 하고 그 각각에게 말 2필을 주었으며, 또한 우양(牛羊) 약 만 마리, 막대한 값어치의 금과 비단을 주었다. 절(節)을 지참한 부사(副使)들 여러 명을 도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이웃 나라로 파견토록 하였다.

騫既至烏孫，烏孫王昆莫見漢使如單于禮，騫大慙，知蠻夷貪，乃曰：「天子致賜，王不拜則還賜。」昆莫起拜賜，其他如故。騫諭使指曰：「烏孫能東居渾邪地，則漢遣翁主爲昆莫夫人。」烏孫國分，王老，而遠漢，未知其大小，素服屬匈奴日久矣，且又近之，其大臣皆畏胡，不欲移徙，王不能專制。騫不得其要領。昆莫有十餘子，其中子曰大祿，彊，善將衆，將衆別居萬餘騎。大祿兄爲太子，太子有子曰岑娶，而太子蚤死。臨死謂其父昆莫曰：「必以岑娶爲太子，無令他人代之。」昆莫哀而許之，卒以岑娶爲太子。大祿怒其不得代太子也，乃收其諸昆弟，將其衆畔，謀攻岑娶及昆莫。昆莫老，常恐大祿殺岑娶，予岑娶萬餘騎別居，而昆莫有萬餘騎自備，國衆分爲三，而其大總取羈屬昆莫，昆莫亦以此不敢專約於騫。

104) 『漢書』에는 “지금 單于가 새롭게 漢에게 곤란을 당하여 昆莫의 땅이 비게 되었다. 蠻夷가 故地를 戀慕하여……”라는 내용이 보인다. 즉, 烏孫의 原住地가 河西回廊이었고, 흉노 渾邪王의 투항으로 그 곳에서 흉노의 세력이 一掃되었기 때문에 “昆莫의 땅이 비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다.

105) 中郎將: 秦代에 두어졌고 漢이 沿置한 관직명으로, 宮禁宿衛를 관장하고 御駕를 隨行하며, 郎中令(光祿勳)을 보좌하여 郎官을 선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장건이 오손에 도착하니 오손왕 곤막이 한의 사신을 보고 마치 [흉노의] 선우에 대한 의례와 동일하게 하였다.¹⁰⁶⁾ 장건은 크게 수치스러워했으나, 오랑캐[蠻夷]의 탐욕스러움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천자께서 하사품을 보내셨는데, 왕께서 절을 하지 않으면 하사품을 갖고 돌아가겠소.” [이에] 곤막이 일어나 하사한 것에 대해 절을 올리고, 기타 [의례에 관해서도] 예전과 같이 행하였다. 장건은 [그에게 천자의] 명령을 전하여 “오손이 동쪽으로 [이주하여] 혼야의 땅에 거주하기만 한다면 한나라는 옹주(翁主)¹⁰⁷⁾를 보내서 곤막의 부인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오손은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고 왕은 늙었으며, 한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나라의] 규모[大小]를 몰랐다. [더구나] 흉노에 오랫동안 복속해 왔고, 또한 그들에게 근접해 있어, 그 대신(大臣)들이 모두 오랑캐를 두려워하며 이주하지 않으려 하므로 왕도 홀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장건은 그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 실패했다.¹⁰⁸⁾ 곤막에게는 1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 아들[中子]¹⁰⁹⁾이 대록강(大祿疆)¹¹⁰⁾이라 불리웠다. 그는 무리를 잘 지휘하였다. 그는 무리를 이끌어 만여기를 데리고 다른 곳에 따로 거주하였다. [그 연유인즉] 대록의 형이 태자가 되었는데, 태자에게 잠취(岑娶)¹¹¹⁾라는 아들이 있었다. 태자가 일찍 사망했는데, 그가 임종의 순간에 그 아버지 곤막에게 말하기를 “잠취를 태자로 삼지,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곤막은 슬퍼하며 그 [요구를] 허락하여 마침내 잠취를 태자로 삼았다. 대록은 자신이 태자를 대신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드디어 그 여러 동생들을 거두고 무리를 이끌어 반란을 일으키고, 잠취와 곤막을 공격할 것을 모의했다. 곤막은 연로했기 때문에 대록이 잠취를 죽이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고, 잠취에게 만여 기를 주어 다른 곳에 거주토록 했고, 곤막 [자신]도 만여 기를 데리고 스스로

106) 昆莫見漢使如單于禮: 이 표현의 의미와 상이한 해석에 관해서는 『漢書』 「西域傳」의 동일조문에 대한 譯註 참조.

107) 翁主: 『漢書』에는 ‘公主’. 漢代에는 諸王之女를 ‘翁主’라 칭했다.

108) ‘不得要領’의 의미에 대해서는 前註 참조.

109) 中子: Daffinà(1982: 329)는 ‘중간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로 이해하였다.

110) 大祿疆: 『漢書』 「西域傳」에는 烏孫의 相(丞相)에 해당하는 관직의 명칭이 大祿이라고 되어 있다. 즉, 大祿은 丞相을 뜻하는 烏孫語를 음사한 것이고 疆은 그의 實名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疆을 뜻으로 새겨서 “그 중간 아들이 대록인데, 그는 강하고 무리를 잘 지휘하였다.”라고 번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11) 岑娶: 『漢書』에는 ‘岑陁’라고 표기되었고 이것은 官號이며, 그의 本名은 軍須靡라고 되어 있다.

대비[自備]하였으므로, 나라의 백성은 셋으로 나뉘어졌다. 그들은 대체로 곧막에게 복속해 있지만, 곧막은 역시 이런 [까닭으로] 인해 장건에게 독단적으로 약속을 하지 못한 것이다.

騫因分遣副使使大宛·康居·大月氏·大夏·安息·身毒·于窰·扞采及諸旁國。烏孫發導譯送騫還，騫與烏孫遣使數十人，馬數十匹報謝，因令窺漢，知其廣大。騫還到，拜爲大行，列於九卿。歲餘，卒。

이에 장건은 대완, 강거, 대월지, 대하, 안식, 신독, 우전, 우미 및 인근의 여러 나라에 부사(副使)들을 나누어 파견했다. 오손은 향도와 통역¹¹²⁾을 보내서 장건을 귀환시켰다. 장건[이 귀환할 때] 오손은 [황제에게] 답례를 하기 위해 사신 수십 명, 말 수십 필을 함께 보냈는데, 그것을 기회로 한나라를 살피고 그 규모를 파악하도록 했다. 장건은 돌아와서 대행(大行)¹¹³⁾에 배수되어 구경(九卿)¹¹⁴⁾의 반열에 들었는데, 1년여 뒤에 사망했다.¹¹⁵⁾

烏孫使既見漢人衆富厚，歸報其國，其國乃益重漢。其後歲餘，騫所遣使通大夏之屬者皆頗與其人俱來，於是西北國始通於漢矣。然張騫鑿空，其後使往者皆稱博望侯，以爲質於外國，外國由此信之。

112) 導譯: 前註 참조.

113) 大行: 春秋시대에 처음 설치된 官名. ‘大行人’·‘小行人’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四方賓客을 영접하는 儀禮를 관장하며, 外交·出使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景帝 치세인 기원전 144년에 大行을 行人으로 改名했는데,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다시 大行令으로 고쳤고 줄여서 大行이라 불렀으며, 大鴻臚에 소속되었다.

114) 九卿: 漢代에는 奉常(太常), 郎中令(光祿勳), 太僕, 廷尉(大理), 典客(大鴻臚), 宗正, 治粟內史(大司農), 少府, 衛尉, 中尉(執金吾), 三輔長官 가운데 二千石一級의 중앙 각 고급행정기구의 장관들을 모두 九卿이라 칭한 것이지, 굳이 9종류의 고관만을 칭했던 것은 아니었다.

115) 歲餘卒: 일반적으로 張騫은 元狩 4년(전119)에 烏孫에 사신으로 갔다가 元鼎 2년(전115)에 귀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元鼎 2년에 大行에 배수되었고, 사망은 元鼎 4년(전113)으로 추정된다. 그의 묘지는 陝西省 成固 부근의 張家村에 있으며, 1945년 보수하는 도중에 ‘博望家造’라는 글자가 새겨진 土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Hulsewé 1979: 218).

오손의 사신이 한나라에는 사람이 많고 재물이 풍부한 것을 이미 보고 돌아가 그 나라에 보고하니, 그 나라가 한나라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그 후 1년여 지나서 장건이 대하 등의 나라와 소통하기 위해 파견했던 사신들이 대부분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오니, 이에 서북의 나라들이 한과 처음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런데 장건이 ‘착공(鑿空)’¹¹⁶⁾하고 난 뒤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모두 박망후라 칭했는데, [한나라는] 이로써 외국에 신실함¹¹⁷⁾을 보이려 했고 외국은 그것을 신임했기 때문이다.

自博望侯騫死後，匈奴聞漢通烏孫，怒，欲擊之。及漢使烏孫，若出其南，抵大宛·大月氏相屬，烏孫乃恐，使使獻馬，願得尚漢女翁主爲昆弟。天子問羣臣議計，皆曰「必先納聘，然後乃遣女」。初，天子發書易，云「神馬當從西北來」。得烏孫馬好，名曰「天馬」。及得大宛汗血馬，益壯，更名烏孫馬曰「西極」，名大宛馬曰「天馬」云。而漢始築令居以西，初置酒泉郡以通西北國。因益發使抵安息·奄蔡·黎軒·條枝·身毒國。而天子好宛馬，使者相望於道。諸使外國一輩大者數百，少者百餘人，人所齎操大放博望侯時。其後益習而衰少焉。漢率一歲中使多者十餘，少者五六輩，遠者八九歲，近者數歲而反。

박망후 장건이 사망한 뒤 흉노는 한과 오손이 교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그 (오손)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손에 파견된 한의 사신이 마침내 그 남쪽을 나서서 대완과 대월지에 연이어 도달했다. 이에 오손이 두려워하며 사신을 [한나라에] 보내어 말을 바치고, 한나라의 옹주를 맞아들여 형제되기를 희망했다. 천자께서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모두 “반드시 먼저 빙물(聘物)을 바치게 한 뒤에 여자를 보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처음에

116) ‘鑿空’은 전인미답의 경지를 開通한다는 의미이다. 『集解』는 “蘇林이 말하기를 ‘鑿은 開의 뜻이고, 空은 通한다는 의미이다. 장건이 西域道를 開通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索隱』은 “생각컨대, 西域은 險阨하여 본시 道路가 없었는데, 이번에 鑿空하여 그것을 소통케 하였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117) ‘質’은 ‘성실과 신뢰’를 의미한다. 『集解』에는 “如淳이 말하기를 ‘質은 誠信이다. 博望侯가 誠信했기 때문에, 후대의 사신들이 그 같은 뜻을 외국에 보이기 위해 칭했던 것이다.’ 李奇가 말하기를 ‘質은 信이다.’라고 하였다.”라는 설명이 보인다.

천자께서 『역서(易書)』를 꺼내서 짐을 쳤더니¹¹⁸⁾ “신마(神馬)가 마땅히 서북에서 올 것이다.” 라는 [점괘가] 나왔다. 오손의 좋은 말을 얻어 그것을 ‘천마(天馬)라 이름하였는데, 대완의 한혈마를 얻고 보니 더욱 장대하여, 오손의 말을 ‘서극(西極)’이라 이름을 고치고, 대완의 말을 ‘천마’라고 이름하였다. 그리고 한은 영거(令居)¹¹⁹⁾ 이서에 비로소 [장성을] 쌓고 주천군(酒泉郡)¹²⁰⁾을 최초로 설치하여 서북의 나라들과 소통하였다. 그로 인하여 안식, 엄채, 여헌, 조지, 신독국에 더욱 더 사신들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천자가 대완의 말을 좋아하여 사신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외국으로 가는 사신들의 무리로서 규모가 큰 것은 수백 명이고, 작은 것은 백여 명이었는데,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것은 박망후의 시대나 대체로 비슷했다. 그 후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숫자는 줄어들었다. 한나라는 평균 일 년에 파견하는 사신이 많은 경우는 10여 회, 적은 경우는 5~6회였다. 먼 곳은 8~9년, 가까운 곳은 수년 만에 돌아왔다.

是時漢既滅越，而蜀·西南夷皆震，請吏入朝。於是置益州·越巂·牂柯·沈黎·汶山郡，欲地接以前通大夏。乃遣使柏始昌·呂越人等歲十餘輩，出此初郡抵大夏，皆復閉昆明，爲所殺，奪幣財，終莫能通至大夏焉。於是漢發三輔罪人，因巴蜀士數萬人，遣兩將軍郭昌·衛廣等往擊昆明之遮漢使者，斬首虜數萬人而去。其後遣使，昆明復爲寇，竟莫能得通。而北道酒泉抵大夏，使者既多，而外國益厭漢幣，不貴其物。

이때 한은 이미 월(越)을 멸망시켰으므로 촉(蜀)과 서남이(西南夷)들이 모두 떨면서¹²¹⁾ 관리[를 파견해 줄 것]와 입조(入朝)하기를 청했다. 이에 익주(益州)¹²²⁾·월수(越巂)¹²³⁾·장

118) 『發書易』: 『集解』: “『漢書音義』에 의하면 ‘易書를 꺼내어 짐을 치다.’”

119) ‘令居’: 元鼎 2년(전115)에郡이 되었다.大通河 동쪽, 즉 平番縣(현재의 甘肅省 永登) 서북방에 위치해 있었다.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金城에 속한다.”고 하였다.

120) ‘酒泉’: 元狩 2년(전121) 匈奴 渾邪王이 투항한 뒤에 설치된 郡名. 郡의 治所가 있는 곳 아래에 샘이 있었고 그 물맛이 술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河西回廊의 서부를 관할했다. 治所는 祿福縣. 一說에 의하면 元鼎 2~3년(전115~114) 혹은 6년(전111)에 처음 설치되어 河西回廊 전체를 관할하다가 후일 武威와 酒泉의 지역을 분할하여 張掖·敦煌을 두면서, 酒泉은 현재 甘肅省 疏勒河 以東, 高臺縣以西 지역만을 관할하게 되었다고 한다.

121) 『漢書』 「張騫·李廣利傳」에는 “蜀과 소통하고 있는 西南夷들이 모두 떨면서……”.

가(牂柯)¹²⁴ · 심려(沈黎)¹²⁵ · 문산군(汶山郡)¹²⁶을 설치하고, 그래서 [이들] 땅[의 경계]가 접하여 앞으로 [나아가] 대하와 소통하기를 바랐다.¹²⁷ 이에 백시창(柏始昌)과 여월인(呂越人) 등 일년에 십여 무리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이들 처음¹²⁸ [설치된] 군을 나서서 대하에 가려고 했으나 모두 곤명(昆明)에게 막혀서 피살되고 재물은 빼앗겼으며, 끝내 대하와 소통할 수 없었다.¹²⁹ 이에 한은 삼보(三輔)¹³⁰의 죄수들을 보내고, 파촉(巴蜀)¹³¹의 병사 수만 명을 [합하여], 곽창(郭昌)¹³²과 위광(衛廣) 등 두 장군을 파견하여 곤명이 한의 사신들을 방해한 것에 대해 공격하도록 해서,¹³³ 수만 명을 참살하고 포로로 잡아서 갔다. 그 후에 사신을 보냈는데 곤명이 다시 노략질하니 끝내 소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도(北道)로는 주천에서 대하에 이르고 사신들도 이미 많아져, 외국에서는 한의 재물이 날로 넘쳐나서 그 물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122) 益州: 郡名. 治所는 현재의 雲南省 晉寧 동쪽.

123) 越嶲: 郡名. 治所는 현재의 四川省 西昌 동남.

124) 牂柯: 郡名. 治所는 현재의 貴州省 黃平·貴定 사이.

125) 沈黎: 郡名. 治所는 현재의 四川省 漢源 동북.

126) 汶山: 郡名. 治所는 현재의 四川省 茂縣 북쪽.

127) 欲地接以前通大夏: 『集解』는 李奇를 인용하여 “地界가 相接하니 大夏에 이르고자 원했다.”고 설명했다.

128) ‘처음’이라고 한 것은 이들 행정구역이 후일 반란을 일으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129) 『漢書』 卷95 「西南夷傳」에는 “이에 天子께서 王然于·柏始昌·呂越人等 十餘輩에게 명령하여 몰래 西南夷쪽으로 나가도록 했는데, 身毒國에 이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滇에 이르자 滇王 當羌은 그들을 억류하였다. 길을 찾기 시작한 지 4년여가 되도록 모두 昆明에 막혀서 능히 통할 수가 없었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史記』 卷116 「西南夷傳」에는 滇王의 이름이 ‘當羌’으로 표기되어 있다.

130) 三輔: 漢代에 京畿지역을 관할하는 3인의 지방장관 혹은 그들이 관할하는 지역을 칭하는 용어이다. 景帝 2년(전155)에 左內史·右內史·主爵中尉(主爵都尉로 개칭)를 두어 長安城과 京畿地方을 공동으로 관할케 하였고, 이들을 합쳐서 三輔라 칭했다.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左右內史와 主爵都尉를 左馮翊, 京兆尹, 右扶風으로 개명하였다.

131) 秦漢代에 巴·蜀 二郡을 현재의 四川省 서부와 동부에 설치했다. 巴는 오늘날의 重慶 부근이고, 蜀은 成都 부근이다.

132) 『史記』 卷111 「衛將軍驃騎列傳」에 “將軍 郭昌은 雲中人이다. 校尉로서 大將軍을 따라 종군했다. 元封 4년에 太中大夫로서 胡將軍에 발탁되어 朔方에 주둔했다. 돌아와서 昆明을 공격했으나 공을 세우지 못해서 인장을 박탈당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아울러 『漢書』 卷55 「衛青·霍去病傳」도 참조.

133) 이는 기원전 109년의 일이다.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元封二年”이라고 명시했다.

自博望侯開外國道以尊貴，其後從吏卒皆爭上書言外國奇怪利害，求使。天子爲其絕遠，非人所樂往，聽其言，予節，募吏民毋問所從來，爲具備人衆遣之，以廣其道。來還不能毋侵盜幣物，及使失指，天子爲其習之，輒覆案致重罪，以激怒令贖，復求使。使端無窮，而輕犯法。其吏卒亦輒復盛推外國所有，言大者予節，言小者爲副，故妄言無行之徒皆爭效之。其使皆貧人子，私縣官齎物，欲賤市以私其利外國。外國亦厭漢使人人有言輕重，度漢兵遠不能至，而禁其食物以苦漢使。漢使乏絕積怨，至相攻擊。而樓蘭·姑師小國耳，當空道，攻劫漢使王恢等尤甚。而匈奴奇兵時時遮擊使西國者。使者爭徧言外國災害，皆有城邑，兵弱易擊。於是天子以故遣從驃侯破奴將屬國騎及郡兵數萬，至匈河水，欲以擊胡，胡皆去。其明年，擊姑師，破奴與輕騎七百餘先至，虜樓蘭王，遂破姑師。因舉兵威以困烏孫大宛之屬。還，封破奴爲浞野侯。王恢數使，爲樓蘭所苦，言天子，天子發兵令恢佐破奴擊破之，封恢爲浩侯。於是酒泉列亭鄣至玉門矣。

박망후가 외국과의 교통로를 열어서 존귀하게 대우받으니, [그들] 수행했던 이졸(吏卒)들이 그 후 모두 다투어 글을 올려 외국의 기이한 물자와 이해득실을 말하며 사신이 되기를 청하였다. 천자는 그곳이 지극히 멀고 사람들이 즐겨 가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사신의] 절(節)을 주어, 관리와 백성의 출신 [배경]을 묻지도 않고 모집하여, 사람들을 갖추어 붙여 주고 파견하여 그 교통로를 넓히도록 하였다. 그들이 돌아올 때 재물을 노략당하거나 사신들이 [천자의] 지시를 못 지키는 경우가 없을 수 없으니, 천자께서는 그들이 그런 일을 [자주 해서] 익숙해 있다고 하여 번번히 조사시키고 중죄에 처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속죄를 위해 다시 사신으로 가기를 청하도록 자극했던 것이다. 사신이 되고자 청하는 방도는 무궁무진하고 법을 어기는 것을 가벼이 여겼다. 그 이졸들도 자주 외국의 물품들을 거둬서 열심히 추천하였는데, 거창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節)을 주고 소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부관으로 삼으니, 이런 연유로 헛된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무리들이 모두 다투어 그것을 본받았던 것이다. 그 사신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의 아들¹³⁴⁾

134) 貧人子: 『漢書』卷61에는 이 구절이 없음.

이어서 관부(縣官)에서 보낸 재물을 개인의 것으로 하여¹³⁵⁾ [그것을] 외국에서¹³⁶⁾ 싼 가격으로 팔아 그 이익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였다. 외국도 역시 한나라 사신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마다 가볍고 무거움에 [차이가 많고],¹³⁷⁾ 한나라 병사들은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그들의 식량[지급]을 끊어 버려서 한나라 사신들을 괴롭게 하였다. 한나라 사신들은 핍절(乏絶)하게 되고 원망이 쌓여 마침내 [사신들끼리] 서로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누란(樓蘭)과 고사(姑師)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나 교통로[空道]¹³⁸⁾에 위치해 있어 한나라 사신 왕회(王恢)¹³⁹⁾ 등을 공격하고 겁락함이 특히 심했다. 또한 흉노의 급습부대[奇兵]가 자주 서방의 나라로 가는 사신들의 길을 막고 공격하였다. 사신들은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두루 말하면서, 모두 다 성읍은 갖고 있으나 군대가 약하여 공격하기 수월하다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천자는 종표후(從驃侯) 파노(破奴)¹⁴⁰⁾로 하여금 속국(屬國)¹⁴¹⁾의 기병과 군병(郡兵) 수만 명을 지휘케 하여 파견했는데, 그는 흉하수(匈河水)¹⁴²⁾에 이르러 오랑캐를

135) 私縣官齎物: 『漢書』 卷61에서 顏注는 “갖고 가는 官物을 훔쳐 사사로이 씌으로써 私有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136) 『漢書』 卷61에는 ‘外國’이 없음.

137) 『集解』는 服虔을 인용하여 “漢使가 外國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사람마다 輕重이 맞지 않는다.”라고 풀이하었다.

138) 空道: ‘孔道’, 즉 사신들이 통행하는 ‘큰 길’을 뜻한다.

139) 王恢: 그는 기원전 107년 姑師 정벌의 공으로 浩侯에 봉해졌으나 같은 해에 酒泉에 사신으로 갈 때 皇命을 날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侯爵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사람은 기원전 133년 馬邑에 伏兵을 설치하여 흉노를 급습하자고 건의했다가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뒤 自殺한 王恢와는 다른 인물이다.

140) 破奴: 趙破奴를 지칭. 『漢書』 卷55에 그의 간략한 열전이 있다. 이에 의하면 그는 太原人으로 일찍이 匈奴에 망명했다가 돌아와서 驃騎將軍의 司馬가 되어 북방에 출전, 공을 세워 從驃侯에 봉해졌으나 기원전 112년 봉작을 상실했다. 1년 뒤 匈河將軍에 임명되어 匈河水까지 진출하여 흉노를 공격했으나 공을 세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원전 108년에는 樓蘭王를 공격하여 포로로 잡았고 그 공으로 浞野侯에 봉해졌다. 기원전 103년 그는 浚稽將軍의 직함을 갖고 2만 명의 기병을 지휘하여 匈奴의 左賢王을 공격했으나, 左賢王은 8만 명의 병력으로 그를 포위하는 바람에 趙破奴는 포로가 되고 군대는 전멸했다. 그는 흉노에 10년 동안 살다가 흉노의 太子 安國과 함께 한나라로 도망쳤는데, 기원전 91년 巫蠱의 혐의를 받아 一族과 함께 처형되고 말았다.

141) 屬國: 『正義』에 의하면 “투항해 온 사람들을 五郡에 사민시키고, 각자 本國之俗에 따르면서 漢에 복속하도록 했으니, 이런 연유로 ‘屬國’이라고 말한다.”

142) 匈河水: 余太山(2005: 36)에 의하면 현재 몽골국의 拜達里格河(Baidragin Gol)에 해당. 『元朝秘史』 159

공격하려 하였으나 오랑캐는 모두 가 버렸다. 그 다음해 고사를 공격하였는데, 파노와 경기병 700여 명이 먼저 도착하여 누란왕을 포로로 잡고 마침내 고사를 격파하였다. 이어서 군대의 위세로써 오손과 대완 등의 나라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귀환하자 파노는 착야후(浞野侯)에 봉해졌다.¹⁴³⁾ 왕희는 여러 번 사신으로 갔다가 누란에게 고통을 받았고, 이를 천자에게 아뢰자 천자는 군대를 보내고 왕희에게 파노를 보좌하여 그들을 격파하도록 하였다. 왕희는 호후(浩侯)에 봉해졌다.¹⁴⁴⁾ 이때에 이르러 주천(酒泉)의 정장(亭鄣)¹⁴⁵⁾이 옥문(玉門)¹⁴⁶⁾까지 연결되게 되었다.

烏孫以千匹馬聘漢女，漢遣宗室女江都翁主往妻烏孫，烏孫王昆莫以爲右夫人，匈奴亦遣女妻昆莫，昆莫以爲左夫人。昆莫曰「我老」，乃令其孫岑娶妻翁主，烏孫多馬，其富人至有四五千匹馬。

오손은 한나라의 여인을 구하기 위해 천 필의 말을 혼수로 바치자, 한나라는 종실의 여인인 강도옹주(江都翁主)¹⁴⁷⁾를 오손[왕]에게 부인으로 보냈고, 오손왕 곤막은 그녀를 우부인(右夫

절에 칭기스칸과 옹칸의 연합군이 나이만의 쿡세우 사브락이 지휘하는 군대를 만난 Baidaraq Belchir 에 해당하며, 항가이산맥 남쪽에 위치해 있다(Rachewiltz 2004: I, 583~584).

143)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元封 3年(전108)의 일로 명시.

144) 浩侯: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車師王을 捕得하여, 元封 4年(전107)에 浩侯로 封했다.”고 기록했다.

145) 亭鄣: 亭障이라고도 표기되며, 戰國·秦漢代에 邊境과 關塞에 설치하여 적의 동태를 척후하고 경비하기 위한 시설물. 亭은 변경의 土臺 위에 세운 건축물로 망을 보기 위한 용도이고, 鄣은 邊境과 關塞에 세워진 城堡로 尉가 주둔했었다.

146) 玉門: 『集解』: “韋昭는 ‘玉門關은 龍勒의 境界에 있다.’고 하였다.” 『索隱』: “韋昭는 ‘玉門은 縣名이고 酒泉에 있다. 또한 玉關이 있으니 龍勒의 境界이다.’라고 하였다.” 『正義』: “『括地志』에 의하면 ‘沙州 龍勒山은 縣南 165리 지점에 있고, 玉門關은 縣西北 118리 지점에 있다.’” 玉門關은 陽關과 함께 漢代 西域防衛線의 마지막 요충지로, 현재 敦煌의 西北에 위치.

147) 江都翁主: 江都王 建의 딸이며 王細君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다. 江都王은 景帝의 五子로서 江都王으로 봉해진 劉非의 長子인 劉建. 江都는 현재의 江蘇 揚州에 해당한다. 기원전 127년에 江都王의 지위를 계승한 그는 황제가 될 것을 꿈꾸며 반란을 음모하였으나, 발각되어 治罪될 것을 두려워하여 기원전 121년에 自殺하였고, 주술을 행했던 그 부인은 처형되었다. 그 뒤 封國은 廢除되고 封地는 朝廷으로 병합되었다.

人)으로 삼았다. 흉노 역시 여자를 보내 곤막의 처로 삼게 했는데, 곤막은 그녀를 좌부인(左夫人)으로 삼았다. 곤막은 “나는 늙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손자인 잠취(岑娶)로 하여금 옹주를 부인으로 삼도록 했다. 오손에는 말이 많아서 그 중 부유한 사람은 4~5천 마리의 말을 소유하기까지 한다.

初，漢使至安息，安息王令將二萬騎迎於東界。東界去王都數千里。行比至，過數十城，人民相屬甚多。漢使還，而後發使隨漢使來觀漢廣大，以大鳥卵及黎軒善眩人獻于漢。及宛西小國驩潛·大益，宛東姑師·扞采·蘇薤之屬，皆隨漢使獻見天子。天子大悅。而漢使窮河源，河源出于寘，其山多玉石，采來，天子案古圖書，名河所出山曰崑崙云。

처음에 한나라 사신이 안식에 이르렀을 때, 안식왕은 2만 명의 기병을 동쪽 경계까지 보내서 [사신을] 맞이하도록 했다. 동쪽 경계는 왕도에서 수천 리 떨어져 있어 그곳까지 도착하려면 수십 개의 성을 지나고 주민들도 연이어 있어서 매우 많다.¹⁴⁸⁾ 한나라 사신이 돌아오매 그 뒤에 한나라 사신을 따라 사신을 파견했다. [그들이] 와서 한나라의 광대함을 보고, 대조(大鳥)의 알과 여헌(黎軒)의 마술사[眩人]¹⁴⁹⁾를 한나라에 헌상했다. 이에 대완의 서쪽에 있는 소국인 환잠(驩潛)¹⁵⁰⁾·대익(大益),¹⁵¹⁾ 대완의 동쪽에 있는 고사(姑師)·우미(扞采)·소해

148) 張騫은 기원전 116년 烏孫에 사신으로 갔다가 여러 지방으로 副使들을 파견했다. 한나라 사신이 안식에 처음으로 갔다는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아마 그때의 일일 것이다. 당시 파르티아의 동쪽 경계는 메르브(Merv) 부근이었다. 기원전 130년경부터 파르티아는 중앙아시아의 사카(Saka)족의 공격을 받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위협을 잘 막아내고 국가의 안정을 가져온 인물이 미트라다테스(Mithradates) 2세였는데, 그의 치세는 기원전 123년부터 87년까지였다. 余太山(2005: 37)은 한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왔다는 2만 명의 기병도 아마 사카족과의 전쟁을 위해 동부지역에 파견된 군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149) 眩人: 『索隱』: “韋昭가 말하기를 ‘變化術을 부려 미혹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즉, 각종 幻術을 부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150) 驩潛(xuan-dz'iäm): 余太山(2005: 38)은 아무다리야 하류에 위치한 호레즘, 즉 비스톤 비문에 보이는 Uvarāzmi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151) 大益(d'äi-iäk): 카스피해 동남부에 거주하는 이란계 민족인 ‘Daha’를 가리킨다는 추정이 있다(Hulsewé

(蘇薤)¹⁵²⁾ 등의 나라가 모두 한나라 사신을 따라 와서 천자를 뵈고 헌납하니, 천자가 크게 기뻐했다. 또한 한나라 사신이 황하의 근원에 이르렀는데, 황하의 근원은 우전(于賓)에서 용출하며, 그 [부근의] 산에는 옥석(玉石)¹⁵³⁾이 많아 [사신들이] 캐어서 갖고 왔다. 천자께서 옛날의 도서를 살피시고 황하가 발원하는 산을 가리켜 ‘곤륜(崑崙)’이라 이름하였다.

是時上方數巡狩海上，乃悉從外國客，大都多人則過之，散財帛以賞賜，厚具以饒給之，以覽示漢富厚焉。於是大觳抵，出奇戲諸怪物，多聚觀者，行賞賜，酒池肉林，令外國客徧觀名倉庫府藏之積，見漢之廣大，傾駭之。及加其眩者之工，而觳抵奇戲歲增變，甚盛益興，自此始。

이때 황상께서 마침 여러 차례 해변지역을 순수(巡狩)¹⁵⁴⁾하셨는데, 언제나 외국의 빈객들이 그를 따라갔다. 큰 도회와 많은 주민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면 재물과 비단을 상으로 하사해 주고, 후하게 대접하고 풍부하게 공급해 줌으로써, 한나라의 부유하고 넉넉함을 보여 주었다.

1979: 224).

152) 蘇薤(suo-y ai): 余太山(2005: 38)은 Soghd의 음역으로 보았으나 확실치 않다.

153) 玉石: 玉은 硬玉(즉 翡翠, jade)과 軟玉(nephrite)로 구분되는데, 前者의 산지는 미얀마 북부, 북부 이탈리아, 일본 니이카타현 등이고, 후자의 산지는 타림분지의 호탄, 뉴질랜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의 와이오밍, 대만 등이다. 중국에서 고대 이래로 사용된 옥은 軟玉이었으며, 출토된 유물들의 재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호탄지방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곤륜산맥에서 발원하는 黑玉河(Qaraqash)와 白玉河(Yurungqash)에는 여름에 수량이 많아지면 玉石이 굴러 내려오는데, 가을의 渴水期가 되면 사람들이 강에 들어가 이것을 채취한다. 중국 고대 문헌에는 ‘禹氏의 玉’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禹氏는 月氏를 지칭하며 月氏가 흉노의 공격을 받아 西遷하기 전에 호탄의 옥을 중국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松田壽男 1967; 長澤和俊 2002: 318~319 참조.

154) 巡狩: 天子가 天下를 순회하면서 民情을 시찰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巡守’라고도 표기한다. 『書經』의 舜典에 의하면 舜은 5년에 1회 巡狩하되, 東南西北의 順으로 순회하며, 사방의 諸侯들을 집합시켜 朝見케 했다고 한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巡狩는 秦始皇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천하를 통일(전 220)한 다음해에 隴西·北地를 巡狩한 것을 필두로, 매년 각 지방을 돌아다녔고, 특히 東方을 순수할 때에는 각지의 名山에 올라가 山川에 제사를 지내고 刻石을 남겨서 秦의 德을 표방하였다. 이것은 새롭게 정복된 東方諸國의 백성들에게 秦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큰 씨름¹⁵⁵[시합]이 열리고 진기한 놀이와 여러 기이한 물건들이 나왔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람하였다. [천자께서는] 주지육림(酒池肉林)¹⁵⁶이 될 정도로 상을 내리시고, 외국의 빈객들로 하여금 이름높은 창고¹⁵⁷에 쌓인 물건들을 두루 살펴보고 한나라의 광대함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하였다. 또한 그 마술사들의 재주가 더 늘어나고, 씨름과 기이한 놀이도 해마다 늘어나고 변화하였으니, 그것이 점점 더 유행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西北外國使，更來更去。宛以西，皆自以遠，尚驕恣晏然，未可誦以禮羈縻而使也。自烏孫以西至安息，以近匈奴，匈奴困月氏也，匈奴使持單于一信，則國國傳送食，不敢留苦；及至漢使，非出幣帛不得食，不市畜不得騎用。所以然者，遠漢，而漢多財物，故必市乃得所欲，然以畏匈奴於漢使焉。宛左右以蒲陶爲酒，富人藏酒至萬餘石，久者數十歲不敗。俗嗜酒，馬嗜苜蓿。漢使取其實來，於是天子始種苜蓿。蒲陶肥饒地，及天馬多，外國使來衆，則離宮別觀旁盡種蒲萄·苜蓿極望。自大宛以西至安息，國雖頗異言，然大同俗，相知言。其人皆深眼，多鬚鬣，善市賈，爭分銖。俗貴女

155) 角抵: ‘角抵’라고도 표기. 궁중에서 매년 씨름시합이 열렸는데, 기원전 44년에 폐지되었다. 『史記』卷87 「李斯列傳」에서 『集解』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첨가하였다. “應劭가 말하기를 ‘戰國시대에 講武의 儀禮를 조금씩 진작시켰기 때문에, [角抵를] 戲樂으로 삼아 상호 과시하는 데에 활용했는데, 秦은 그 이름을 角抵로 바꾸었다. ‘角’이란 角材를 말하고, ‘抵’란 서로 抵觸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文穎이 말하기를 ‘秦나라는 이 戲樂을 角抵라고 이름했는데, 서로 상대하면서 힘을 겨루고[角力] 伎藝·射御를 겨루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角抵라고 부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156) 酒池肉林: 殷의 末王인 紂가 극도로 無法 放蕩하고 奢侈하여 거대한 재화를 들여서 高 千尺, 廣 三里的 鹿臺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화려한 宮室을 짓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못에 술을 가득 채우고 나무에는 고기를 걸어 놓아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겼고, 동시에 나체의 남녀가 서로 좇으면서 유희를 벌이게 한 荒淫한 행동을 했다는 『史記』 「殷本紀」의 故事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같은 구절을 사용한 것은 외국 사신에게 지나친 향응을 베푸는 것에 대한 司馬遷의 비판적인 입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57) 『史記』와 『漢書』의 판본에 따라 ‘名’ 혹은 ‘各’으로 표기되었지만, 여기서는 보다 오래 된 판본에 따라 ‘名’을 취했다. 일반적으로 창고를 가리킬 때는 邸閣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倉庫府藏’이란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 각종 물자를 저장해 두던 곳이 아닐까 추정된다(Hulsewé 1979: 224~225).

子, 女子所言而丈夫乃決正. 其地皆無絲漆, 不知鑄錢器. 及漢使亡卒降, 教鑄作他兵器. 得漢黃白金, 輒以爲器, 不用爲幣.

서북의 외국 사신들이 거듭해서 오고 가곤했다. 대완의 서쪽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여 항상 교만하고 방자하니, 예의로써 그들을 굴복시키거나 기미(羈縻)¹⁵⁸⁾로써 통제할 수가 없었다. 오손의 서쪽에서 안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은] 흉노와 가깝고 흉노가 월지를 괴롭힌 적이 있기 때문에, 흉노의 사신이 선우의 신표(信標) 하나를 들고 가면 나라마다 모두 음식을 보내 주고 감히 붙잡아 두고 괴롭히지 못한다. 그런데 한나라 사신이 도착할 경우 폐백을 내놓지 않으면 음식을 얻을 수 없고 가축을 사지 않으면 탈 것을 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까닭은 한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물은 많아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필시 구매를 해서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나라 사신보다 흉노를 더 두려워한다. 대완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은 포도를 갖고 술을 만드는데, 부자는 술을 보관하는 것이 만 석이 넘을 정도이며, 오래 묵은 것은 수십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들의 풍속은 술을 좋아하고, 말은 목숙(苜蓿)¹⁵⁹⁾을 좋아한다. 한나라 사신이 그 종자를 갖고 오니, 이에 천자가 처음으로 비옥한 땅에 목숙과 포도를 심었다. 천마가 많아지고 외국의 사신들도 많이 오니, 이궁(離宮)과 별관(別觀) 옆에 모두 목숙과 포도를 심었는데 끝이 없었다. 대완의 서쪽에서부터 안식에 이르기까지의 나라들은 그 언어가 상당히 다르지만 풍속은 대체로 비슷하고 서로의 말을 알아 들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눈이 깊고 수염이 많으며, 장사에 능하고 사소한 액수를

158) 羈縻: 『索隱』: “羈는 말의絡頭이고, 縻는 소의 韁이다. 『漢官儀』에는 ‘말에 대해서는 羈라고 하고, 소에 대해서는 縻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곧, 四夷를 제어함이 마치 牛馬를 羈縻로 부림과 같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즉, 원래 말고삐[羈]와 소고삐[縻]를 일컫는 표현이지만, 이민족에 대한 외교정책의 한 방식을 지칭하게 되었다. 漢代에는 ‘天子之於夷狄也, 其義羈縻勿絕而已’라고 하여 四夷가 朝貢을 바치러 오면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변방을 약탈하면 군사적으로 물리치되, 그들을 공격하여 지배하고 漢人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통치를 도모하는 積極정책이나, 아니면 반대로 閉關絕貢하여 일체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放任정책도 아닌 일종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이었다. 唐代의 ‘羈縻’도 물론 직접 지배라고 할 수는 없으나 漢代의 ‘羈縻’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지배와 통제의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金浩東 1993 참조.

159) 苜蓿(muk-suk): 고대 이란어 buxsuk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며, 사료로 많이 사용하는 alfalfa(Medicago sativa)를 지칭한다. 이에 관해서는 Laufer 1919: 208~219 참조.

두고도 다룬다. 그 풍속에 여자를 귀히 여기니, 여자가 말하면 남편은 곧 그것에 따라 결정한다. 그 땅에서는 어디건 비단과 옷[絲漆]이 생산되지 않으며 철기를 주조할 줄 모른다.¹⁶⁰⁾ 한나라의 사신이 도망치거나 병졸들이 투항하면 그들을 시켜 병기를 주조하여 만들게 한다. 한나라의 황금과 백금을 구해서 자주 그릇을 만드나 화폐로 사용하지는 않는다.¹⁶¹⁾

而漢使者往既多，其少從率多進熟於天子，言曰：「宛有善馬在貳師城，匿不肯與漢使。」天子既好宛馬，聞之甘心，使壯士車令等持千金及金馬以請宛王貳師城善馬。宛國饒漢物，相與謀曰：「漢去我遠，而鹽水中數敗，出其北有胡寇，出其南乏水草。又且往往而絕邑，乏食者多。漢使數百人爲輩來，而常乏食，死者過半，是安能致大軍乎？無奈我何。且貳師馬，宛寶馬也。」遂不肯予漢使。漢使怒，妄言，椎金馬而去。宛貴人怒曰：「漢使至輕我！」遣漢使去，令其東邊郁成遮攻殺漢使，取其財物。於是天子大怒。諸嘗使宛姚定漢等言宛兵弱，誠以漢兵不過三千人，彊弩射之，卽盡虜破宛矣。天子已嘗使浞野侯攻樓蘭，以七百騎先至，虜其王，以定漢等言爲然，而欲侯寵姬李氏，拜李廣利爲貳師將軍，發屬國六千騎，及郡國惡少年數萬人，以往伐宛。期至貳師城取善馬，故號「貳師將軍」。趙始成爲軍正，故浩侯王恢使導軍，而李哆爲校尉，制軍事。是歲太初元年也。而關東蝗大起，蜚西至敦煌。

한나라 사신이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 이미 많아졌고, 그 중 젊은이들[少從]¹⁶²⁾은 대체로 천자에게 나아가 그를 알게 되었으며, 그들이 “대완의 이사성(貳師城)¹⁶³⁾에 좋은 말이 있는데

160) 鑄錢器: ‘錢器’는 錢幣와 器物일텐데, 여기서는 『漢書』 「西域傳」의 ‘鑄鐵器’를 따랐다. 그러나 大宛 서쪽의 나라들이 鐵器를 제작할 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錢字를 많이 만들었고 또한 鐵字를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여, 錢幣와 鐵器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161) 그러나 파르티아(安息)와 박트리아(大夏) 등의 나라에서는 金貨를 제작하고 있었다.

162) 少從: 외국으로 파견된 사신들 가운데 지위가 낮거나 젊은 사람을 지칭한다. 『集解』: “『漢書音義』에 ‘少從이란 [원래는] 계산한 것과 같지 않다는 뜻인데, 從行하는 사람들 가운데 微少한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進熟이라는 말이 成熟한 사람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말인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163) 貳師(nzi-si):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호젠드와 사마르칸드 중간에 있는 Uratpe 부근의 Sutrushana (혹은 Ustrushana)에 해당되는 곳으로 본다. 그러나 Pulleyblank(1966: 26)는 아랍 역사가들의 기록에

숨겨놓고는 한나라 사신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천자는 대완의 말을 좋아했으므로 이를 기쁜 마음으로 듣고, 용맹한 인물인 차령(車令) 등에게 천금(千金)과 금마(金馬)¹⁶⁴⁾를 갖고 가서 대완왕에게 이사성의 좋은 말을 달라고 청하라고 하였다. 대완에는 [이미] 한나라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하여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염수(鹽水)를 지나서 [오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했다.¹⁶⁵⁾ 그 북쪽으로 나가면 오랑캐에게 약탈당하고, 남쪽으로 나가면 수초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어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한나라 사신 수백 명이 한 무리가 되어 오지만 항상 식량이 부족하여 죽는 사람이 반이상인데, 어찌 대군을 보낼 수 있겠는가? 우리를 어찌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사(貳師)의 말(貳師馬)은 대완의 보마(寶馬)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라 사신에게 [말을] 주기를 거부했다. 한나라 사신은 분노하여 옥을 퍼붓고¹⁶⁶⁾ 금마를 부셔 버리고는 떠나갔다. 대완의 귀족이 분노하며 “한나라 사신이 우리를 매우 멸시한다.”고 말하고, 한나라 사신을 떠나 보낸 뒤 그 동쪽 변경의 옥성(郁成)¹⁶⁷⁾에게 한나라 사신을 가로막고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으라고 하였다. 이에 천자께서 크게 노하셨다. 일찍이 대완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요정한(姚定漢)¹⁶⁸⁾ 등이 말하기를, 대완의 군대가 취약하니 만일 3천

보이는 Neseif 혹은 Nakhshab(현재의 Karshi)로 비정하였다.

164) 金馬: 금으로 주조한 말을 뜻할텐데, 물론 실물 크기는 아닐 것이다. 기원후 2세기경의 분묘에서 발굴된 靑銅馬를 보면 높이가 대략 40~50cm 정도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5) 鹽水中數敗: 鹽水는 鹽澤, 즉 톱 노르를 지칭하며 자세한 내용은 『漢書』 「西域傳」의 註釋 참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鹽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전투에] 패배했다.’가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한나라 사신이 鹽水가 있는 지역을 경과하여 대완으로 오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正義』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孔文祥이 말하기를 ‘鹽은 鹽澤이다. 물이 廣遠하여 風波가 일어나기도 하며 여러 차례 실패했다.’고 하였다. 裴矩의 『西域記』에는 ‘西州 高昌縣의 東쪽에 있으며, 東南쪽으로 瓜州와 1,300리 떨어져 있다. 모두 沙磧뿐인 땅이며 水草를 찾아보기 어렵고 사방이 모두 위험하다. 道路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行人들은 오로지 人畜의 骸骨과 駝馬의 糞으로 標驗을 삼을 수밖에 없다. 그곳의 道路가 험악하므로 人畜이 約行하지 않으면, 사막 안에서 때때로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노래나 울음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자주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순식간에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주 죽음을 당한다. 대저 도깨비들[魑魅魍魎]의 소행이다.’라고 하였다.”

166) 妄言: 『集解』: “如淳이 말하기를 ‘욕하다’는 뜻이다.”

167) 郁成(iuk-ziäng): 미확인 지명. 余太山(2005: 43)은 Ush, Uzkont, Gasiani 등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명이 안 되는 [소수의] 한나라 병사를 동원한다고 해도 강력한 쇠뇌[疆弩]로 공격하면 대환을 격파하고 모두 포로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천자는 이미 착야후 [조파노]로 하여금 누란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그가 700명의 기병을 데리고 먼저 도착하여 그 왕을 포로로 잡은 적이 있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천자는] 정한 등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또한 자신이 총애하는 이씨(李氏)에게 봉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광리(李廣利)¹⁶⁹⁾를 이사장군(貳師將軍)으로 삼고, 속국에서 징발한 기병 6천 명과 아울러 군국(郡國)의 불량배들[惡少年]¹⁷⁰⁾ 수만 명을 데리고 가서 대환을 정벌하도록 했다. 그가 이사성에 도착해서 좋은 말을 취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에 ‘이사장군’이라는 칭호를 준 것이다. 조시성(趙始成)을 군정(軍正)¹⁷¹⁾으로 삼고, 과거에 호후(浩侯)였던 왕희(王恢)로 하여금 군대의 향도(導軍)로 삼았으며, 이치(李哆)를 교위(校尉)로 삼아 군대를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태초(太初) 원년(전104)의 일이었다. 또한 관동(關東)¹⁷²⁾에서는 메뚜기 떼가 크게 일어나 서쪽으로 돈황까지 확대되었다.

168)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인물이다.

169) 李廣利: (?~전90). 中山(현재의 河北 定縣)人. 그의 누이 李夫人은 武帝의 총애를 입고 劉髡를 출생했다. 이런 연줄로 李廣利도 등용되어 太初 元年(전104) 大宛의 善馬를 구하기 위해 貳師城 원정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貳師將軍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本文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원정하는 도중 沿道の 도시들이 식량을 제공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貳師城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敦煌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武帝의 嚴命을 받아 다시 수만 명의 군사를 규합하여 2차원정을 감행하였고, 貳師城의 水源을 차단하면서 40일간을 포위한 끝에 굴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원래의 목표였던 善馬는 불과 수십 필밖에 구하지 못했지만, 주위의 康居·烏孫 등에게 漢의 위용을 과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李廣利는 貳師원정의 공으로 海西侯에 봉해졌다. 후일 天漢 2년(전99)과 天漢 4년(전97) 흉노 원정을 나갔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征和 3년(전90) 황제의 명으로 흉노를 치러 출정했는데, 李夫人의 아들 昌邑哀王(劉髡)을 皇太子로 옹립하려는 문제와 연관된 讒訴를 받게 되었다. 그는 흉노에 대한 戰果를 올려 만회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살해되는 운명을 맞았다.

170) 惡少年: 顏注는 『漢書』 卷7 「昭帝紀」에서 “惡少年은 無賴子弟를 뜻한다.”고 하였고, 卷61 「張騫·李廣利傳」에서는 “行義가 없는 者”라고 설명하였다.

171) 軍正: 春秋시대에 처음 두어졌으며 軍隊의 司法官이다.

172) 關東: 秦·漢·唐은 長安에 도읍을 정했던 왕조로, 函谷關 혹은 潼關 以東 지역을 關東이라 불렀으며 ‘關外’라고도 하였다. 戰國七雄 가운데 秦을 제외한 나머지 六國에 대해서 ‘關東六國’이라 부르기도 했다.

貳師將軍軍既西過鹽水，當道小國恐，各堅城守，不肯給食。攻之不能下。下者得食，不下者數日則去。比至郁成，士至者不過數千，皆飢罷。攻郁成，郁成大破之，所殺傷甚衆。貳師將軍與哆·始成等計：「至郁成尚不能舉，況至其王都乎？」引兵而還。往來二歲。還至敦煌，士不過什一二。使使上書言：「道遠多乏食；且士卒不患戰，患飢。人少，不足以拔宛。願且罷兵，益發而復往。」天子聞之，大怒，而使使遮玉門，曰軍有敢入者輒斬之！貳師恐，因留敦煌。其夏，漢亡浞野之兵二萬餘於匈奴。公卿及議者皆願罷擊宛軍，專力攻胡。天子已業誅宛，宛小國而不能下，則大夏之屬輕漢，而宛善馬絕不來，烏孫·侖頭易苦漢使矣，爲外國笑。乃案言伐宛尤不便者鄧光等，赦囚徒材官，益發惡少年及邊騎，歲餘而出敦煌者六萬人，負私從者不與。牛十萬，馬三萬餘匹，驢騾橐它以萬數。多齎糧，兵弩甚設，天下騷動，傳相奉伐宛，凡五十餘校尉。宛王城中無井，皆汲城外流水，於是乃遣水工徙其城下水空以空其城。益發戍甲卒十八萬，酒泉·張掖北，置居延·休屠以衛酒泉，而發天下七科適，及載糒給貳師。轉車人徒相連屬至敦煌。而拜習馬者二人爲執驅校尉，備破宛擇取其善馬云。

이사장군의 군대가 서쪽으로 가서 염수를 지나자 연도의 소국들이 두려워하며 각자 성곽의 수비를 견고하게 하면서 식량을 주기를 거부했다. 그들을 공격했지만 함락시킬 수 없었다. 함락할 경우 식량을 얻었지만 함락하지 못할 경우에는 며칠만에 떠났다. 옥성에 다다랐을 때 병사들 가운데 도착한 사람은 수천 명에 불과했고, 모두 굶주림에 지쳐 버렸다. 옥성을 공격했으나 [도리어] 옥성이 그들을 크게 격파하여 사상자가 아주 많이 발생했다. 이사장군과 이치·조시성 등이 함께 헤아리기를 “옥성에 이르러 이것도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 [나라의] 왕도는 어떻겠는가?”라고 하며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오고 가는 데 2년이 걸렸다. 둔황에 돌아왔을 때 [남은] 병사들은 열 명에 한두 명을 넘지 못했다. [이사장군은] 사신을 보내 글을 올리며 “길은 멀고 식량은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병사들은 싸울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릴 것을 걱정합니다. 인원도 적어서 대원을 함락하기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바라건대 일단 군대를 해산하되 더 많은 군사를 징발해서 다시 가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천자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옥문관을 단게 하고 “군인들 가운데 감히 들어오려는 자가 있으면 즉시 베어 버려라!”고 말했다. 이사[장군]이 두려워하여 둔황에

머물렀다. 그 해 여름 한나라는 착야후의 군대 2만여 명을 흉노[와의 전투]에서 잃어버리자,¹⁷³⁾ 공경(公卿)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대완원정군을 해체하고 오랑캐를 공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를 원했다. [그러나] 천자는 이미 대완에 원정군을 보냈는데, 대완이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벌하지 못했으니 대하 등과 같은 나라가 한나라를 가버이 여길 것이고, 대완의 좋은 말도 끊겨 오지 않을 것이며, 오손과 윤두(倫頭)¹⁷⁴⁾ 등은 한나라 사신을 쉽사리 괴롭힐 것이니, 외국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천자는] 대완을 정벌하는 것이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던 등광(鄧光)¹⁷⁵⁾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형도(囚徒)와 재관(材官)¹⁷⁶⁾들을 사면하고 더욱 많은 수의 불량배들과 변방의 기병들을 동원하여, 1년 남짓 지나서 돈황을 나서는 자가 6만 명을 헤아렸는데,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사사로이 따르는 사람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소가 10만 두, 말이 3만여 필, 나귀와 노새와 낙타가 만 필을 헤아렸다. 식량을 많이 가져갔고 병사와 장비도 단단히 준비했다. 천하가 시끌법석했고 대완원정[의 명령]을 받들어 서로 전달한 교위(校尉)들이 대략 50여 명에 달했다. 대완의 왕성 안에는 우물이 없어 모두 성 바깥에 흐르는 물을 끌어서 쓰는데, 이에 수공(水工)을 보내서 그 성 아래의 수로를 바꾸어 그 성의 물을 고갈케 하였다.¹⁷⁷⁾ 그리고 병사 18만 명을 더 징발하여 주천과 장액(張液)¹⁷⁸⁾ 북방에 주둔케 하고, 거연(居延)¹⁷⁹⁾과 휴도(休屠)¹⁸⁰⁾ [두

173)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太初 2年(전103)에 趙破奴가 浚稽將軍이 되어 二萬騎로써 匈奴를 공격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174) 倫頭: 쿠차 부근에 있던 도시국가이며 『漢書』에 輪臺로 표기된 것과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된다.

175) 鄧光: 이 사건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다.

176) 材官: 秦漢代에 처음 설치된 下位軍職으로 ‘材士’라 칭해지기도 한다. 材官引強·材官蹶張 등의 명칭이 시사하듯이 능히 강한 활을 당기거나 말로 쇠뇌를 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秦代에는 여러 郡에 두어졌으나, 漢代에는 邊郡에 설치되지 않았다. 23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材官·騎士로 1년간 근무하고 활을 잘 쏘면 步戰에도 활용되었다. 이들은 평시에 농사를 짓고 살지만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징집되어 京師나 邊方의 방위에 배치된다. 그러나 『漢書』 卷61의 같은 구절에는 材官에 대한 언급이 안 보인다.

177) “대완의 왕성 안에는……”부터 시작되는 이 문장은 사실 다음 단락에 나오는 大宛의 國都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에 삽입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78) 張掖: 漢武帝가 武威郡을 나누어 설치한 郡名으로 ‘張國臂掖(나라의 팔과 겨드랑이를 펼친다.)’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治所는 饒得縣(현재의 감숙성 張掖市 西北)에 있었으며, 관할구역은 감숙성 高臺縣 以東, 弱水 上流, 內蒙古 額濟納(에치나)旗 지역이었다. 一說에 의하면 酒泉에서 분리되어 나온

현]을 설치하여 주천을 방위하도록 하였다.¹⁸¹⁾ 또한 천하의 7종류의 죄인들[七科適]¹⁸²⁾을 징발하여 식량을 싣고 이사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운반하는 수레와 사람들이 서로 연이어 돈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말에 익숙한 사람 2명을 집구교위(執驅校尉)¹⁸³⁾에 임명하여, 대완을 정벌한 뒤 그 선마를 선택하여 취할 것에 대비하였다.

於是貳師後復行，兵多，而所至小國莫不迎，出食給軍。至命頭，命頭不下，攻數日，屠之。自此而西，平行至宛城，漢兵到者三萬人。宛兵迎擊漢兵，漢兵射敗之，宛走入葆乘其城。貳師兵欲行攻郁成，恐留行而令宛益生詐，乃先至宛，決其水源，移之，則宛固已憂困。圍其城，攻之四十餘日，其外城壞，虜宛貴人勇將煎靡。宛大恐，走入中城。宛貴人相與謀曰：「漢所爲攻宛，以王毋寡匿善馬而殺漢使。今殺王毋寡而出善馬，漢兵宜解；卽不解，乃力戰而死，未晚也。」宛貴人皆以爲然，共殺其王毋寡，持其頭遣貴人使貳師，約曰：「漢毋攻我。我盡出善馬，恣所取，而給漢軍食。卽不聽，我盡殺善馬，而康居之救且至。至，我居內，康居居外，與漢軍戰。漢軍熟計之，何從？」是時康居候視漢兵，漢兵尚盛，不敢進。貳師與趙始成·李哆等計：「聞宛城中新得秦人，知穿井，而其內食尚多。所爲來，誅首惡者毋寡。毋寡頭已至，如此而

것이며, 轄境은 보다 후에 설치된 武威郡의 관할구역까지 포함했었다고 한다.

179) 居延: 내몽골 예치나[額濟納]旗 東南에 위치. 張掖郡에 소속되었으며 郡都尉의 治所가 있었다. 張掖의 북쪽으로 흐르는 居延河(額濟納河, Etsin Gol)이 모여서 형성된 호수 居延海가 부근에 있는데, 漢代에는 '居延澤'이라 불리었다. 1930년 居延河 兩岸과 부근의 黑城(Qaraqoto)에서 西北科學考察團이 1만여 매의 漢簡을 발견했고, 1972~76년에 다시 2만여 매에 가까운 簡牘資料가 발견되었다.

180) 休屠: 匈奴의 休屠王이라는 명칭에서 기원한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前註 참조.

181) 衛酒泉'『集解』는 如淳을 인용하여 “二縣을 세워서 변방을 보위하였다. 혹은 二部都尉를 두어서 酒泉을 방위하였다고도 한다.”라고 하였다.

182) 七科適: 『正義』는 張晏을 인용하여 “죄지은 吏가 하나요, 亡命者가 둘이요, 贅壻가 셋이요, 賈人이 넷이요, 市籍者가 다섯이요, 父母가 市籍者인 경우가 여섯이요, 大父母가 市籍者인 경우가 일곱이니, [이것들이] 七科이다. 武帝 天漢 4年(전97)에 天下의 七科謫을 징발하여 朔方으로 내보냈다.”라고 설명했다. 市籍者를 이 가운데 포함시킨 것은 商人으로서 市籍에 등록된 사람들을 罪人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183) 執驅校尉: 여기 이외에는 다른 용례가 보이지 않으나, 문자 그대로 馬匹을 관장하는 校尉였을 것이다.

不許解兵，則堅守，而康居候漢罷而來救宛，破漢軍必矣。」軍吏皆以爲然，許宛之約。宛乃出其善馬，令漢自擇之，而多出食食給漢軍。漢軍取其善馬數十匹，中馬以下牡牝三千餘匹，而立宛貴人之故待遇漢使善者名昧蔡以爲宛王，與盟而罷兵。終不得入中城。乃罷而引歸。

이리하여 이사장군이 그 후 다시 가게 되었는데, 병사가 많아서 도착하는 곳의 소국들은 영접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고 식량을 내어 군대에게 공급하였다. 윤두에 도착하였는데, 윤두가 굴복하지 않자 며칠 동안 공격하여 그곳을 도륙했다. 여기서 서쪽으로 진군했는데, 막힘없이 가서 대완성에 도달했고,¹⁸⁴⁾ 도착한 한나라 군사는 3만 명이었다. 대완의 군대가 한나라 군대를 맞아서 공격했지만 한나라 병사들이 활을 쏘아 물리치자, 대완 [사람들]은 성채[葆]¹⁸⁵⁾ 안으로 들어가 그 성[의 견고함]에 의존했다. 이사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옥성으로 가서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러다가] 행군이 지체되면 대완이 더욱 계략을 꾸밀까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옥성을 차지 않고] 먼저 대완으로 온 것이다. 그 수원을 끊고 [물길을] 바꾸었더니 대완이 심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한 것이 40여 일이 지나 그 외성은 무너졌고, 대완의 귀족이자 용장인 전미(煎靡)를 포로로 붙들었다. 대완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내성[中城]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대완의 귀족들이 서로 상의하여 말하기를 “한나라가 대완을 공격하는 것은 왕 무과(毋寡)가 선마를 숨기고 한나라 사신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제 왕 무과를 죽이고 선마를 내어 준다면 한나라 군대는 응당 해산할 것이다. 만약 해산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완의 귀족들은 모두 동의하고 함께 그 왕 무과를 죽인 뒤 그 머리를 갖고 이사장군에게 귀족을 사신으로 보냈다. 그리고 약속하며 말하기를 “한나라는 우리를 공격하지 마시오. 우리가 선마를 모두 내어놓을테니 마음대로 취하도록 하시오. 한나라 군대에게 식량도 공급하겠소. 만약 [우리 조건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선마를 모두 죽일 것이고, 또한 강거의 구원병도 도착할 것이요, 그들이 도착하면 우리는 안에서 강거는 밖에서 한나라 군대와 싸울 것이요. 한나라 군대는

184) 中華書局本은 “自此而西，平行至宛城”으로 끊어 읽었지만, 이를 “自此而西平，行至宛城”로 끊으면 “여기서부터 서쪽은 평온하게 되어, 진군해서 대완성에 도달했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185) ‘葆’는 ‘堡’와 통한다.

어떻게 할지 잘 헤아리시오. 어떤 길을 택하시겠소?”라고 하였다. 이때 강거는 한나라 군대를 염탐하여 살펴보았는데, 한나라 군대가 아직 숫자가 많아서 감히 진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사장군은 조시성과 이치 등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대완의 성 안에는 진나라 사람[秦人]¹⁸⁶⁾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우물과는 법을 안다. 또한 그 안에는 식량이 아직 많다. 여기에 온 까닭은 악행의 장본인 무과를 주살하려는 것인데, 무과의 머리는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포위를 계속하고] 군대를 해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비를 강화할 것이고 또 강거는 한나라 [군대]가 지친 틈을 타서 대완을 구하러 올 터이니, 한나라 군대는 필시 패배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군대의 장교들은 모두 [그 말이] 옳다고 하여 대완에게 화약(和約)을 허락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완은 그 선마를 내어놓고 한나라 측에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많은 식량을 내어서 한나라 군사들에게 지급하였다. 한나라 군대는 그 선마 수십 필, 그리고 중마(中馬) 및 그 이하 수준의 암수의 말들 3천여 필을 골랐다. 또한 대완의 귀족 가운데 전부터 한나라 사신에게 잘 대해 주던 매채(昧蔡)를 세워서 대완의 왕으로 삼고, 맹약을 맺은 뒤 군대를 철수하였다. 결국 [한나라 군대는] 내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다.

初，貳師起敦煌西，以爲人多，道上國不能食，乃分爲數軍，從南北道。校尉王申生·故鴻臚壺充國等千餘人，別到郁成。郁成城守，不肯給食其軍。王申生去大軍二百里，(偵)[偵]而輕之，責郁成。郁成食不肯出，窺知申生軍日少，晨用三千人攻，戮殺申生等，軍破，數人脫亡，走貳師。貳師令搜粟都尉上官桀往攻破郁成。郁成王亡

186) 秦人: 『漢書』卷94上「匈奴傳」에도 흉노 안에 秦人들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顏注는 “秦나라 때 흉노로 망명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자손들을 아직도 秦人이라 부른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大宛에 거주하는 秦人도 ‘中國人’에 대한 통칭이 아니라 秦代에 그곳에 가서 살게 된 사람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중국을 China라고 부르게 된 연유도 바로 秦의 발음을 옮겨 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秦漢 왕조 교체 이후에도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秦人’으로 불리우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 보인다. 한편, 고대에 중국의 또 다른 명칭이었던 Seres가 비단(silk)과 관련된 어휘라는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Pulleyblank(1963: 229)는 ‘秦’의 고대 발음인 *dzēn의 마지막 음이 r로 와전된 형태가 바로 Seres라고 주장한 바 있다.

走康居，桀追至康居。康居聞漢已破宛，乃出郁成王予桀，桀令四騎士縛守詣大將軍。四人相謂曰：「郁成王漢國所毒，今生將去，卒失大事。」欲殺，莫敢先擊。上邽騎士趙弟最少，拔劍擊之，斬郁成王，齧頭。弟·桀等逐及大將軍。

처음에 이사장군은 둔황의 서쪽에서 출발했는데, 사람이 많아 연도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식량을 공급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회하의 군대를] 몇 개의 부대로 나누어 [천산의] 남도와 북도를 따라가게 했다. 교위였던 왕신생(王申生)¹⁸⁷과 전에 홍로(鴻臚)¹⁸⁸였던 호충국(壺充國)¹⁸⁹ 등 천여 명이 [이들 본대와는] 별도로 옥성에 도착했는데, 옥성이 성문을 닫아걸고 그 군대에게 식량을 공급하려 하지 않았다. 왕신생은 본군에서 [불과] 200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믿고 [옥성을] 가며이 여겨 옥성을 질책하였다. 옥성은 식량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왕신생의 군대의 숫자가 날로 적어져 가는 것을 보고는 새벽에 3천 명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왕신생 등을 살육하였다. 군대는 패배했고 몇 명이 도망쳐 나와 이사장군에게로 갔다. 이사장군은 수속도위(搜粟都尉)¹⁹⁰ 상관걸(上官桀)¹⁹¹에게 가서 옥성을 공파하라고 명령했다. 옥성의 왕이 강거로 도망쳤고 걸은 강거까지 추격했다. [이때] 한나라가 이미 대만을 격파했다는

187) '王申生'. 이 사건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다.

188) 鴻臚: 『周禮』에 나오는 官名. 秦漢初에는 典客으로 칭해지다가 景帝 6년에 大行令으로 개명했으며, 武帝 太初 元年(전104)에 大鴻臚로 改稱하였다. 賓客을 接待하는 사무를 관장했다.

189) 壺充國: 『漢書』 卷19下 「百官公卿表」에는 太初 元年(전104)에 大鴻臚로 임명되었으나 그 다음해에 商丘成이라는 인물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기원전 131년에는 司馬相如를 수행하여 南越에 사신으로 다녀온 바 있다.

190) 搜粟都尉: 『漢書』 卷24上 「食貨志」에 “武帝가 末년에 [흉노를] 征伐했던 것을 후회하여 丞相을 富民侯로 봉하고, ‘마야흐로 지금 힘써야 할 일은 농사에 주력하는 것이다.’라고 下詔하면서 趙過를 搜粟都尉로 삼았다.”는 기록, 卷19下 「百官公卿表」에 天漢 4년(전97)에 大司農 桑弘羊을 搜粟都尉로 강등시켰다는 기록들은 搜粟都尉가 農務와 연관된 사무를 담당했음을 추측케 한다.

191) 上官桀: 隴西 上邽(현재의 甘肅 天水市)人. 字는 少叔. 젊은 나이에 羽林期門郎이 되었는데, 武帝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未央殿令으로 발탁되고 후에 侍中과 太僕을 역임했다. 무제 임종시 左將軍·安陽侯에 봉해졌고, 大將軍 霍光과 함께 幼主를 輔佐하도록 위탁받았다. 昭帝가 즉위한 뒤 자기 아들 安의 딸을 皇后로 세웠으며, 安은 驃騎將軍이 되고 桑樂侯에 봉해졌다. 그러나 후일 上官桀父子가 霍光과 대립하게 되었고, 霍光을 주살하고 昭帝를 폐위시키려는 모의가 발각되어 元鳳 원년(전80) 일족이 참살되었다.

소식을 강거가 듣고 비로소 옥성의 왕을 내보내 곁에게 주었다. 곁은 4명의 기사(騎士)에게 그를 묶어서 대장군¹⁹²⁾에게 호송해 가라고 명령했다. 이 네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옥성의 왕은 한나라에게 해독이 되는 인물인데 이제 살려서 데리고 가면 결국은 큰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죽이고자 하였지만 누구도 감히 먼저 나서서 치지 못했다. 상규(上邽)¹⁹³⁾의 기사인 조제(趙弟)가 가장 어렸는데, 그가 검을 뽑아 그를 치니 옥성의 왕을 참수하고 그 머리를 가져왔다. 조제와 상관걸 등은 대장군이 있는 곳까지 따라잡았다.

初，貳師後行，天子使使告烏孫，大發兵并力擊宛。烏孫發二千騎往，持兩端，不肯前。貳師將軍之東，諸所過小國聞宛破，皆使其子弟從軍入獻，見天子，因以爲質焉。貳師之伐宛也，而軍正趙始成力戰，功最多；及上官桀敢深入，李哆爲謀計，軍入玉門者萬餘人，軍馬千餘匹。貳師後行，軍非乏食，戰死不能多，而將吏貪，多不愛士卒，侵牟之，以此物故衆。天子爲萬里而伐宛，不錄過，封廣利爲海西侯。又封身斬郁成王者騎士趙弟爲新時侯。軍正趙始成爲光祿大夫，上官桀爲少府，李哆爲上黨太守。軍官吏爲九卿者三人，諸侯相·郡守·二千石者百餘人，千石以下千餘人。奮行者官過其望，以適過行者皆絀其勞。士卒賜直四萬金，伐宛再反，凡四歲而得罷焉。

처음에 이사장군이 이차원정[後行]을 갔을 때, 천자께서 사신을 오손에게 보내어 통고하기를 많은 군대를 징발하여 [한나라 군대와] 힘을 합하여 대완을 공격하라고 했다. 오손은 2천 명의 기병을 보내었지만 양쪽을 저울질하며 전진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사장군이 동쪽으로 행군할 때 지나가는 도중에 있는 여러 소국들이 대완의 격파 소식을 듣고 모두 그 자체로 하여금 군대를 따라서 보내 들어와 [공물을] 헌상하였으며, 천자를 뵈고 그리하여 인질이 되었다. 이사장군이 대완을 정벌함에 있어서 군정 조시성이 힘을 다해 싸웠는데 그의 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상관걸은 두려워 않고 [적국 안에] 깊이 들어갔고, 이치는 그를 위해서 전략을 세웠다. 군대가 옥문으로 들어온 것이 만여 명이고 군마는 천여 필이었다. 이사장군의

192) 大將軍: 『集解』는 如淳을 인용하여 “당시 다른 將軍들이 많았으므로 貳師를 大將軍이라 칭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193) 上邽: 漢代 隴西郡 上邽縣으로 현재의 甘肅 天水市.

이차원정에서 군대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사자가 많이 생길 수 없었는데, 장교들이 탐욕스러워 그들 다수가 사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군량을] 갈취하여 그로 인해서 사상자가 많이 생겼다. 천자께서는 그들이 만 리 먼 곳에 가서 대완을 정벌했다고 해서 허물을 기록치 아니하시고, 이광리를 해서후(海西侯)에 봉하고, 직접 옥성왕을 참수한 기사 조제를 신치후(新時侯)로 봉했으며, 군정 조시성을 광록대부(光祿大夫)¹⁹⁴로 삼고, 상관걸을 소부(少府)¹⁹⁵로, 이치를 상당(上黨)¹⁹⁶의 태수로 삼았다. 군관들 가운데 구경(九卿)에 오른 자가 3명이나 되었고, 제후상(諸侯相)¹⁹⁷·군수(郡守)¹⁹⁸·이천 석(二千石)¹⁹⁹에 오른 자가 백여 명이었으며, 천 석(千石)²⁰⁰ 이하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 [스스로] 열심을 내어 갔던²⁰¹ 사람들의 관직은 그들의 기대를 넘었고, 죄를 지어서 갔던 사람들은 모두 그 노고로써 [죄를] 무르게 주었다.²⁰² 사졸들에게 내린 하사액은 4만 금이었다. 두 차례의 대완원정은 대체로 4년 만에 끝나게 된 것이다.

194) 光祿大夫: 大夫 중에서는 최고위(秩二千石).

195) 少府: 秦漢대의 官職으로 九卿의 하나이고 秩二千石이었다. 皇室의 財政을 관장하고, 宮廷에서 필요로 하는 일용품을 공급하며, 궁정의 시종과 수공업업을 관할했다.

196) 上黨: 현재의 山西 和順·榆社 等縣 以南, 沁河 以東의 지명. 지대가 매우 높아서 예부터 하늘과 한 무리(黨)를 이룬다는 뜻에서 上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7) 諸侯相: 諸侯王國의 相. 처음에 高帝 때에 王國에 丞相을 두어 衆官들을 통할토록 했으며 秩二千石이고 조정에서 임명하였는데, 景帝 이후 諸侯王들이 王國을 다스릴 수 없게 된 뒤에 丞相을 相으로 고쳤다.

198) 郡守: 戰國時代에 처음 두어졌다. 당초 武職으로 邊郡의 방위를 담당했으나, 후에 郡 단위 지방행정기구의 장관으로 변모되었다. ‘守’라고 略稱되었으며 秩二千石이었다. 景帝 2년(전155)에 太守로 개명되기도 하였다.

199) 二千石: 漢의 官秩로서 郡守(太守)에 대한 通稱으로도 사용되었다. 『漢書』 「百官公卿表」에 대한 顏注는 “二千石은 (月各)百二十斛”이라고 하였다.

200) 千石: 漢의 官秩로 比二千石 다음에 위치. 『漢書』 「百官公卿表」에 대한 顏注는 “千石은 (月各)九十斛”이라고 하였다. 御史中丞, 丞相의 長史 등이 이 등급에 해당된다.

201) 奮行: 『集解』는 『漢書音義』를 인용하여 “奮은 迅이다. 스스로 즐겨 간 사람들을 뜻한다.”고 하였다.

202) 絀其勞: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奮行者와 適行者가 비록 모두 功勞를 세웠으나, 이제 賞을 내림에 있어서 그 전에 罪지는 것[을 무르는 것]으로 賞賜를 대신하였으므로, ‘그 노고를 絀했다.’라고 말한 것인데, 絀은 抑退 [즉 되무르다]는 뜻이다. 이는 본시 適行한 경우 功勞가 아주 크지 않다면 그것으로 무르고, 奮行者와 같이 상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漢已伐宛，立昧蔡爲宛王而去。歲餘，宛貴人以爲昧蔡善諛，使我國遇屠，乃相與殺昧蔡，立毋寡昆弟曰蟬封爲宛王，而遣其子入質於漢。漢因使使賂賜以鎮撫之。而漢發使十餘輩至宛西諸外國，求奇物，因風覽以伐宛之威德。而敦煌置酒泉都尉；西至鹽水，往往有亭。而侖頭有田卒數百人，因置使者護田積粟，以給使外國者。

한나라가 대宛을 정벌한 뒤 매채를 대宛의 왕으로 세우고 떠났다. 1년여 지나서 대宛의 귀족들은 매채가 아부를 잘해서 “우리 나라가 도륙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짜서 매채를 죽이고, 무과의 형제로서 선봉(蟬封)이라는 사람을 대宛왕으로 세우고는, 그 아들을 한나라에 인질로 보냈다. 이로 인해 한나라는 사신을 보내 하사품을 주고 그곳을 진무하였다. 한나라는 10여 차례 사신단을 대宛의 서쪽 여러 외국에 보내어, 진기한 물건을 구하고 대宛을 정벌한 위덕을 과시하였다. 또한 돈황에 주천도위를 설치하고,²⁰³⁾ 서쪽으로 염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역[亭]이 있었다. 윤두에는 둔전의 사졸 수백 명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사자(使者)를 두어서 둔전과 쌓인 곡식을 보호하고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太史公曰：禹本紀言「河出崑崙。崑崙其高二千五百餘里，日月所相避隱爲光明也。其上有醴泉·瑤池」。今自張騫使大夏之後也，窮河源，惡睹本紀所謂崑崙者乎？故言九州山川，尚書近之矣。至禹本紀·山海經所有怪物，余不敢言之也。

태사공(太史公)은 이렇게 말한다.²⁰⁴⁾ 『우본기』(禹本紀)에 “황하는 곤륜에서 나온다. 곤륜은 그 높이가 2,500여 리이고, 해와 달이 서로 피해서 숨으면서 광명을 가져다 준다. 그 위에는

203) 敦煌置酒泉都尉: 『集解』는 徐廣을 인용하여 “어떤 사본에는 ‘置’字가 없다…… 어떤 것은 置都尉라고 기록했고, 또 어떤 것은 敦煌에 淵泉縣이 있다고 하였으며, 或者는 ‘酒’字가 ‘淵’字로 바뀌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204) 이와 동일한 내용이 『漢書』 卷61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太史公曰”이 아니라 “贊曰”로 시작된다. 太史公은 司馬遷을 가리킨다.

예천(醴泉)과 요지(瑤池)²⁰⁵⁾가 있다.”고 써어 있다. 이제 장건이 대하여 사신으로 다녀온 뒤, 황하의 근원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우]본기에서 말하는 곤륜을 도대체 어디에서 보았다는 말인가?²⁰⁶⁾ 이런 까닭에 구주(九州)의 산천은 『상서』(尙書)[에서 묘사한 것]이 사실에 가깝다. [그러므로] 『우본기』와 『산해경』(山海經)에서 말하는 괴이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감히 말하지 않으리라.²⁰⁷⁾

205) 醴泉과 瑤池: 崑崙山 위에 西王母가 사는 곳에 있다고 여겨지는 감미로운 샘물과 연못이다.

206) 『集解』는 鄧展을 인용하여 “漢나라 [사람들이] 河源에 다다랐다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崑崙을 보았단 말인가? 『尙書』에는 積石에서 黃河가 導出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황하의 근원이 積石에 있다는 말이다. 積石은 金城의 關關에 있기 때문에, [황하가] 崑崙에서 나온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索隱』은 ‘惡視夫謂昆侖者乎’라는 구절에 관해서 “惡의 훈은 ‘烏’이며, 烏는 어디에서[於何]라는 뜻이다. 瞞는 본다는 것이다. 張騫이 河源에 다다르고 大夏·于寘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崑崙을 보았으며 황하가 발원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인가?”라는 뜻이라고 풀이하면서, “이는 『禹本紀』와 『山海經』의 虛妄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山海經』에서는 ‘黃河가 崑崙의 東北隅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西域傳』에서는 ‘남쪽의 積石山으로 분출해서 中國의 河가 된다.’고 하였으니, 積石은 본시 황하의 發源이 아니다. 또한 『尙書』도 ‘洛水가 熊耳에서 導出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冢嶺에서 나오는 것이니 곧 동쪽으로 熊耳를 경유하는 것이다. 이제 이 뜻을 미루어 보건대, 황하가 과연 그러하다. 즉, 황하의 근원은 본시 崑崙인데 [거기서] 潛流하여 于闐에 이르고, 다시 東流하여 積石에 이르러서 비로소 中國에 들어오는 것이니, 『山海經』과 『禹貢』이 각자 그런 사실을 지적했을 뿐이다.”라고 하여, 『尙書』의 기록과 『山海經』과 『禹貢』의 기록, 그리고 張騫의 보고 등이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207) 余不敢言之也: 『索隱』에는 “내가 감히 말하노라(余敢言也).”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긍정이건 부정이건 모두 『禹本紀』와 『山海經』의 신빙성에 대한 司馬遷의 강력한 회의적 입장을 나타낸다.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注』 1, 서울: 신서원, 2004(影印)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 余太山, 『兩漢魏晉南北朝正史西域傳要注』, 北京: 中華書局, 2005
- 內田吟風 編, 『中國正史西域傳の譯註』, 京都: 龍谷大學文學部, 1980
- 長澤和俊 譯注, 『法顯傳·宋雲行紀』, 東京: 平凡社, 1971
- 玄奘, 水谷眞成 譯注, 『大唐西域記』 1~3, 東京: 平凡社, 1999
- Legge, James tr., *A Record of Buddhist Kingdoms*(원간 1886), New York: Paragon, 1965
- Rachewiltz, Igor de, tr.,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2 vols., Leiden: Brill, 2004
- 디 코스모, 이재정 역, 『오랑캐의 탄생: 중국이 만들어 낸 변방의 역사』, 서울: 황금가지, 2005, 2002(원간)
- 사와다 이사오, 『흉노』, 김숙경 옮김, 서울: 아이필드, 2007, 1996(원간)
- 長澤和俊, 関丙勳 譯, 『東西文化의 交流』, 서울: 民族出版社, 1991
- 孟凡人, 『北庭史地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85
- 蘇北海, 『西域歷史地理』, 烏魯木齊: 新疆大學出版社, 1988
- 余太山, 『塞種史研究』,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2
- 余太山, 『兩漢魏晉南北朝正史西域傳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3
- 余太山, 『兩漢魏晉南北朝與西域關係史研究』,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5
- 王明哲·王炳華 『烏孫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83
- 林梅村, 『漢唐西域與中國文明』, 北京: 文物出版社, 1998
- 岑仲勉, 『漢書西域傳地理校釋』 上·下, 北京: 中華書局, 1981(重印)
- 張廣達, 『西域史地叢稿初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張星烺 編注, 朱杰勤 校訂, 『中西交通史料匯編』 1~4, 北京: 中華書局, 2003
- 曾問吾, 『中國經營西域史』, 新疆, 1986, 1935(원간)
- 馮承鈞, 『西域南海史地: 考證論著彙輯』, 香港: 中華書局, 1976
- 解耀華 主編, 『交河故城保護與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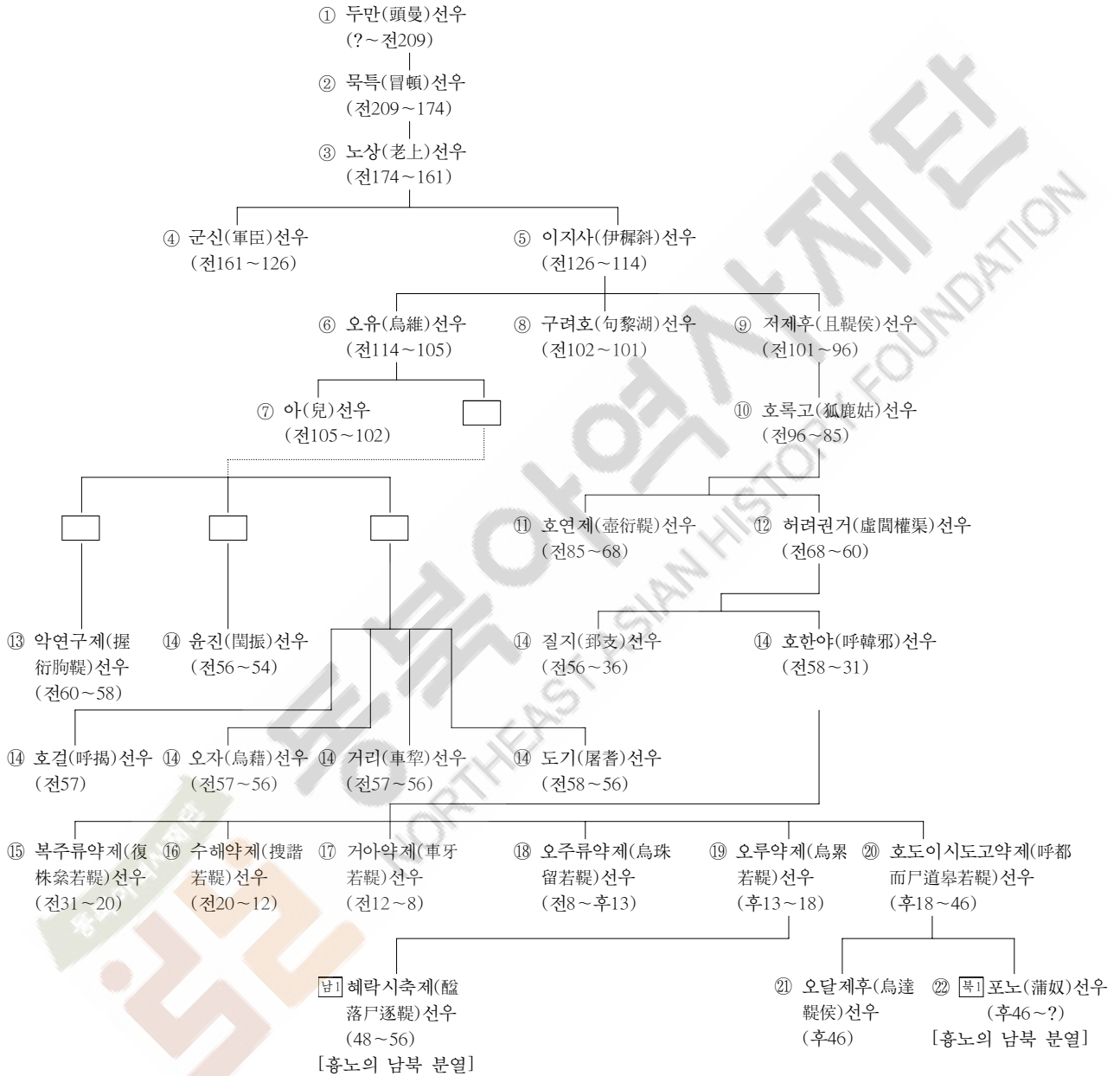
- 黃文弼, 『西北史地論叢』,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 江上波夫, 『ユウラシア古代北方文化: 匈奴文化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1948
- 内田吟風, 『北アジア史研究(匈奴篇)』, 京都: 同朋舎, 1975
- 鳴崎昌, 『隋唐時代の東トルキスタン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7
- 武田雅哉, 『星への筏: 黄河幻視行』, 東京: 角川春樹事務所, 1994
- 桑山正進 編,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2
- 小谷仲男, 『大月氏』, 東京: 東方書店, 1999
- 松田壽男, 『古代天山の歴史地理學的研究(増補版)』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1970
- 伊瀬仙太郎, 『中國西域經營史研究』, 東京: 巖南堂, 1955
- 護雅夫 編, 『漢とローマ』(東西文明の交流 1), 東京: 平凡社, 1970
- Barthold, W.,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Philadelphia: Porcupine, 1977(4th ed.)
- Hedin, Sven, *The Wandering Lake*, New York: Dutton, 1940
- Herrmann, Albert, *An Historical Atlas of China*(based on 1933 ed.), Chicago: Adline Publishing Co., 1966
- Hirth, F., *China and the Roman Orient*, Leipsic Munich: G. Hirth, 1885
- Hulsewé, A. F. P., *China in Central Asia: The Early State: 125 B.C.~A.D. 23*, Leiden: E. J. Brill, 1979
- Karlgren, Bernhard, *Grammatica Serica Recensa*,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72
- Laufer, Berthold, *Sino-Iranica*, Chicago: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1919
- Mallory, J. P. & Mair, Victor H., *The Tarim Mummies: Ancient China and the Mystery of the Earliest Peoples from the West*, London: Thames & Hudson, 2000
- Petech, Luciano, *Northern India according to Shui-ching chu*, Roma: Istituto del medio ed estremo oriente, 1950
- Průšek, Jaroslav, *Chinese statelets and the northern barbarians 1400~300 B.C.*, Prague: Academia, 1971
- Schafer, Edward H.,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 Stein, Aurel M., *Ancient Khotan: Detailed report of archaeological explorations in Chinese Turkestan*. 2 vols, Oxford: Clarendon Press, 1907
- Stein, Aurel M., *Serindia: Detailed report of explorations in Central Asia and westernmost China*. 5

- vols, London & Oxford: Clarendon Press, 1921
- Stein, Aurel M., *Innermost Asia: Detailed Report of Explorations in Central Asia, Kan-su and Eastern Iran*. 5 vols, Oxford: Clarendon Press, 1928
- Tarn, W. W., *The Greeks in Bactria and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8
- Whitfield, Susan, *The Silk Road: Trade, Travel, War and Faith*, London: British Library, 2004
- 金浩東,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993
- 모리야스 다카오, 「당대 불교적 세계지리와 ‘호’의 실태」,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서울: 사계절, 2006
- 李成珪, 「漢武帝의 西域遠征·封禪·黃河治水와 禹·西王母神話」, 『東洋史學研究』 72, 2000
- 賈叢江, 「西漢屬部朝貢制度」, 『西域研究』 2003-4, 2003
- 賈叢江, 「兩漢戊己校尉的名和實」, 『中國邊疆史地研究』 2006-4, 2006
- 賈叢江, 「兩漢時期西域人漢式姓名探微」, 『西域研究』 2006-4, 2006
- 高榮, 「月氏·烏孫和匈奴在河西的活動」, 『西北民族研究』 2004-4, 2004
- 馬雍, 「東漢〈曹全碑〉中有關西域的重要史料」, 『西域史地文物叢考』, 北京: 文物出版社, 1990
- 馬千希, 「漢代‘五船道’考略」, 『西域研究』, 1999-2, 1999
- 武沐·王希隆, 「對烏孫收繼婚制度的再認識」, 『西域研究』 2003-4, 2003
- 孫毓棠, 「安息與烏弋山離 - 讀『漢書·西域傳』札記之一」, 『文史』 5, 1978
- 孫占宇, 「敦煌漢簡王莽征伐西域戰爭史料研究綜述」, 『西域研究』 2006-3, 2006
- 俄琮璋馬, 「漢代西域譯長」, 『西域研究』 2006-4, 2006
- 王炳華, 「烏孫王難兜靡死于大月氏考」, 『絲綢之路考古研究』, 烏魯木齊: 人民出版社, 1993
- 袁延勝, 「也談『過長羅侯費用簿』的史實」, 『敦煌研究』 2003-1, 2003
- 袁延勝, 「懸泉漢簡所見漢代烏孫的幾個年代問題」, 『西域研究』 2005-4, 2005
- 袁延勝, 「『漢書·西域傳』戶口資料系年蠡測」, 『鄭州大學學報』(哲社版) 2007-5, 2007
- 劉國防, 「漢西域都護的始置及其年代」, 『西域研究』 2002-3, 2002
- 劉洪波, 「關於西域都護的始置時間」, 『中國史研究』 1986-3, 1986
- 李大龍, 「西漢派往西域的使者述論」, 『民族研究』 1990-6, 1990
- 李大龍, 「西漢西域都護略論」, 『中國邊疆史地研究』 1991-2, 1991
- 李文瑛·王宗磊, 「近年來交河故城考古的新成果」, 『西域研究』 1997-3, 1997
- 李炳泉, 「兩漢戊己校尉建制考」, 『史學月刊』 2002-6, 2002
- 李炳泉, 「西漢西域伊循屯田考論」, 『西域研究』, 2003-2,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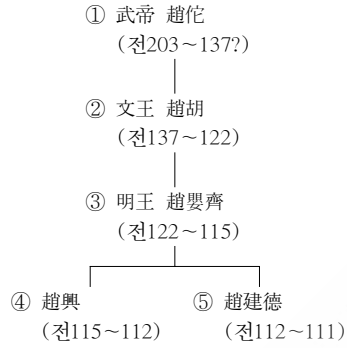
- 李炳泉, 「關於漢代西域都護的兩個問題」, 『民族研究』 2003-6, 2003
- 張德芳, 「『長羅侯費用簿』及長羅侯與烏孫關係考略」, 『文物』 2000-9, 2000
- 張德芳, 「從懸泉漢簡看兩漢西域屯田及其意義」, 『敦煌研究』 2001-3, 2001
- 張運德, 「兩漢時期西域屯墾的基本特徵」, 『西域研究』 2007-3, 2007
- 錢伯泉, 「西漢時期西域的人口和社會經濟情況」, 『新疆社會科學』 1982, 1982
- 錢伯泉, 「烏孫和月氏在河西的故地及其西遷的經過」, 『敦煌研究』 1994-4, 1994
- 錢伯泉, 「烏孫的宗族及其遷徙」, 『西域研究』 1997-4, 1997
- 陳世良, 「『漢書·西域傳』記載道里之特殊方法」, 『新疆社會科學』 1990-1, 1990
- 陳世良, 「『漢書·西域傳』山北諸國之道里」, 『新疆社會科學』 1990-6, 1990
- 榎一雄, 「漢書西域傳の研究: フールスウェ・岑仲勉氏の近業を中心として」, 『東方學』 64, 1982
- 榎一雄, 「史記大宛傳と漢書張騫・李廣利傳との關係について」, 『東洋學報』 64-1~2, 1983
- 堀直, 「清代回疆の水利灌漑」, 『大手前女子大學論集』 14, 1980
- 白鳥庫吉, 「罽賓國考」, 『東洋學報』 7-1, 1917
- 船木勝馬, 「匈奴・烏桓・鮮卑の大人について」, 『内田吟風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集』, 京都: 同朋社, 1978
- 松田壽男, 「絹馬交易と禹氏の玉」, 『東洋史研究』 26-1, 1967
- 松田壽男, 「烏弋山離へのみち」, 『史學』 44-1, 1971
- 長澤和俊, 「古代西域南道考」, 『内陸アジア・西アジアの社會と文化』, 護雅夫 編, 東京: 山川出版社, 1983
- Barfield, T. J., "Hsiung-nu Imperial Confederacy: Organization and Foreign Polic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1, no. 1 (191), 1981
- Brough, John, "Comments on Third-century Shan-shan and the History of Buddhism",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vol. 28, no. 3, 1965
- Chavannes, Edouard, "Les pays d'Occident d'après le Wei Lio", *T'oung Pao* série 2, vol. 6, 1905
- Chavannes, Edouard, "Trois généraux chinois de la dynastie des Han orientaux", *T'oung Pao* série 2, vol. 7, 1906
- Chavannes, Edouard, "Les pays d'Occident d'après le Heou Han chou", *T'oung Pao* série 2, vol. 8, 1907
- Daffinà, Paolo, "The Han Shu Hsi Yü Chuan Re-translated", *T'oung Pao* vol. 68, no. 4~5, 1982
- Enoki, Kazuo, "The Yüeh-chih-Scythians Identity: A Hypothesis", *Studia Asiatica* (Tokyo: Kyuko-Shoin, 1998), 1959(원간)

- Enoki, Kazuo, “Yü-ni-ch'êng and the site of Lou-lan”, *Studia Asiatica* (Tokyo: Kyuko-Shoin, 1998), 1960(원간)
- Enoki, Kazuo, “The Location of the Capital of Lou-lan and the Date of the Kharoṣṭī Inscription”, *Studia Asiatica* (Tokyo: Kyuko-Shoin, 1998), 1963(원간)
- Frye, R. N., “Some Early Iranian Titles”, *Oriens*, vol. 15, 1962
- Henning, W. B., “The date of the Sogdian Ancient Letter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vol. 12, no.3~4, 1948
- Ma, Yong, “A Study on ‘Skull-made Drinking Vessel’”, *Religious and Lay Symbolism in the Altaic World and Other Papers: Proceedings of the 27th Meeting of PIAC*, Walberberg, 1984, Wiesbaden, 1989
- Mair, Victor H., “Mummies of the Tarim Basin”, *Archaeology*, vol. 48, no. 2, 1995
- Pulleyblank, E. G., “Chinese and Indo-Europeans”, *Journal of Royal Asiatic Society*, 1966
- Sinor, Denis, “The Custom of Scalping in Inner Asia”, C. Ch'en ed., *Proceedings of the 35th Permanent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Taipei, 1993
- 紀大椿 主編, 『新疆歷史事典』, 烏魯木齊: 人民出版社, 1993
- 長澤和俊 編, 『シルクロードを知る事典』東京: 東京堂, 2002
- 『アジア歴史事典』, 東京: 平凡社,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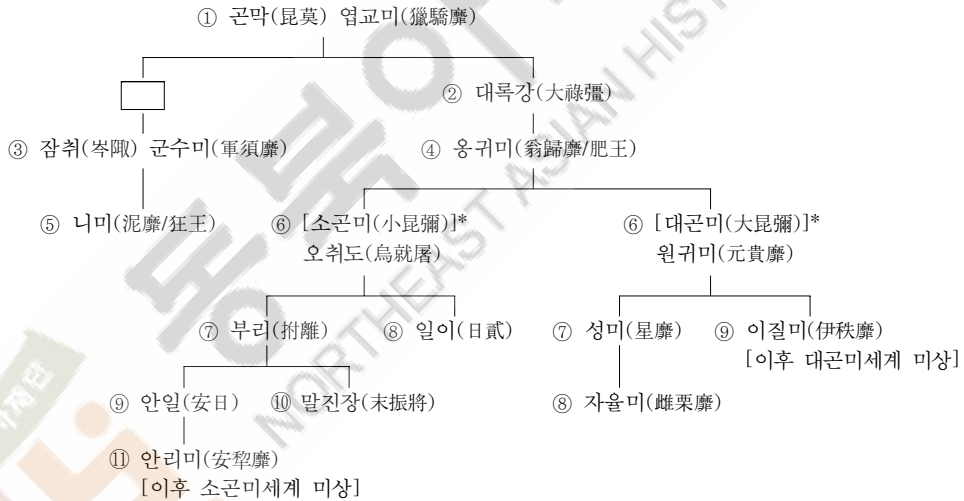
흉노(匈奴) 세계표



남월(南越) 세계표



오손(烏孫) 세계표



※ 한(漢)이 오손을 분치하면서 대곤미와 소곤미로 구분한 것은 전한 선제(宣帝) 감로(甘露) 2년(전52)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I 연표

연도	북방(北方)	남방(南方)	서역(西域)
기원전 771	궤융(桀) 주(周) 유왕(幽王)을 살해		
770		주(周) 평왕(平王)이 낙읍(洛邑)으로 천도	
552		주(周) 공자(孔子)가 출생	
403		주(周) 한(韓)·위(魏)·조(趙)를 제후로 인정	
359		진(秦) 상양(商鞅)의 1차 개혁	
350		진(秦) 상양(商鞅)의 2차 개혁	
318	홍노(紅奴) 전국국가(戰國國家)들 사이의 전쟁에 개입	진(秦) 홍노(匈奴)와 연합한 한(韓)·위(魏)·조(趙)·연(燕)·제(齊)의 공격을 받음	
307		조(趙) 무령왕(武靈王), 호복기사(胡服騎射)를 채용	
273	동호(東胡) 구대(歐代)지역을 조(趙)에게 빼앗김		
244	동호(東胡) 조(趙)의 공격을 받음 임호(林胡) 조(趙)에게 항복		
221		진(秦) 제(齊)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 서남이(西南夷) 지역으로 통하는 오척도(五尺道)를 개착*	
215	홍노(紅奴) 하남(河南, 오르도스)지역을 진(秦)에게 빼앗김	진(秦) 홍노를 쳐서 하남(오르도스)지역을 장악	
214		진(秦) 만리장성을 축조	
210		진(秦) 시황제(始皇帝)가 순행 중 사망	
209		진(秦) 홍노의 목특선우(冒頓單于)에게 하남(오르도스)지역을 빼앗김 진승(陳勝) 등의 거병 이후 항우(項羽)·유방(劉邦) 등 군웅이 할거하는 혼란에 빠짐	
206	홍노(紅奴) 이즈음 목특선우(冒頓單于)가 섬 동호(東胡)를 병합하고, 진(秦)의 멸망 뒤 주도권을 쥔 항우가 유방을 한왕(漢王)으로 봉함		

	의 혼란을 틈타 하남(오르도스)지역을 회복*		
202		전한 유방이 황제를 칭함 서남이 진·한 교체기의 혼란 중 중원 왕조의 영향권 밖에 존재*	
200	흉노 한 고조(高祖)를 평성(平城)에서 포위	전한 고조가 흉노의 친정 중 목특선우에게 포위당하였다가 간신히 탈출	
198	흉노 한과 화친	한 흉노와 화친	
195	조선 이즈음 연인(燕人) 위만(衛滿)이 망명해 옵니다		
194	조선 위만이 준왕(準王)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됨 준왕은 남으로 내려가 한왕(韓王)을 칭함*		
177			월지 흉노의 공격으로 일리하(河) 유역으로 서천(西遷)*
174	흉노 노상선우(老上單于)가 서고한(漢) 종실의 여자를 연지(閼氏)로 맞음	전한 문제(文帝)가 종실의 여자를 새로 선 노상선우에게 시집보냄 중행열(中行說)이 흉노로 투항	
160	흉노 군신선우(軍臣單于)가 서고한과 화친	전한 흉노의 새 선우와 화친 시도	
144	흉노 동호의 왕이 한으로 투항	전한 투항해 온 흉노의 동호왕을 아곡후(亞谷侯)로 봉함	
141		전한 무제(武帝)가 즉위	
139		전한 장건(張騫)이 흉노에 대한 협공을 위하여 월지(月氏)로 출발*	
135		서남이 야랑(夜郎)이 한(漢) 당몽(唐蒙)의 계책에 의하여 건위군(犍爲郡)으로 편입됨	
134		전한 파(巴)·촉(蜀)의 군사를 동원하여 서이도(西夷道)와 남이도(南夷道)를 개척하기 시작	강거 처음으로 한에 사신을 파견
133	흉노 선우가 마읍(馬邑)으로 유인되었다가, 한의 계책을 알고 철수 후 한과의 관계 악화	전한 흉노의 선우를 유인해 죽이려 한 계획이 실패한 뒤 흉노와의 관계가 악화	
130			오손 대월지를 공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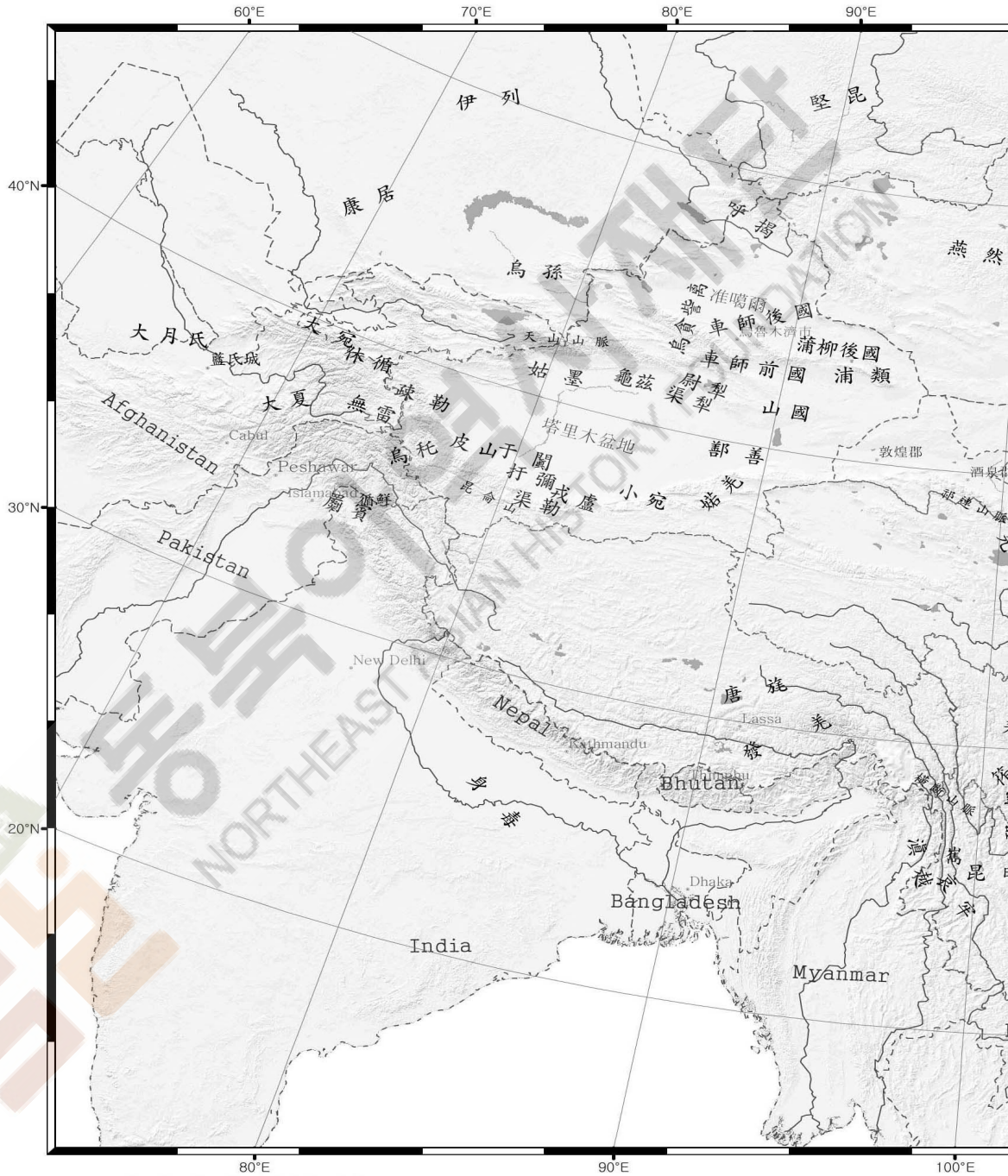
			일리하(河) 유역을 점거 [대월지] 오손에게 쫓겨 아무 다리아 유역으로 이주하 고, 대하(大夏, 박트리 아)를 복속시키며 정착
129	[홍노] 한의 위청(衛靑) 등의 대규 모 공격을 받기 시작함 [대월지] 장건의 홍노 협공 제안을 거 절*	[전한] 위청 등에 의한 대대적인 홍 노 공격 시작 [서남이] 남이지역에 처음으로 한의 우 (郵)와 정(亭)이 설치됨	
128	[예맥] 예왕(濊王) 남려(南閩) 등 이 한으로 내부(內附)		
126	[홍노] 이지사선우(伊稚斜/伊穉斜 單于)가 섬	[전한] 장건이 귀국* 공손홍(公孫弘)의 보고에 의 하여, 서이 경영을 포기하고 남이 에만 두 현(縣)과 하나의 도위(都 尉)를 설치 [서남이] 서이는 한의 직접 지배에서 벗 어나고, 남이에만 한의 현과 도위 가 두어짐	
122		[전한] 장건에게 축(蜀)을 통해 대하 에 이르는 길을 탐색토록 지시	
121	[홍노] 한의 광거병(霍去病) 등의 대규모 공격을 받기 시작함 혼야왕(渾邪王)이 한에 투항	[전한] 광거병 등에 의한 대대적인 홍 노 공격 시작 하서(河西)지역을 장악하고 4 군을 설치*	
119	[오환] 광거병에 의하여 상곡군(上 谷郡) 등 5군의 세외(塞外)로 옮겨짐	[전한] 장건이 오손(烏孫)과 협력하 여 홍노를 협공하기 위해 재차 서 역으로 출발* 염철(鹽鐵)의 전매 등 새로운 재정 정책을 개시	
114	[홍노] 오유선우(烏維單于)가 섬		
112		[남월] 상(相) 여가(呂嘉)가 반란을 일으켜 남월(南越)왕과 한의 사 신을 죽임 [전한] 남월의 내분을 틈타 출병 [서남이] 한의 남월 공격에 징발됨	
111		[전한] 남월을 점령하여 남해군(南海 郡) 등 9군을 설치 [남월] 한의 군현 지배로 들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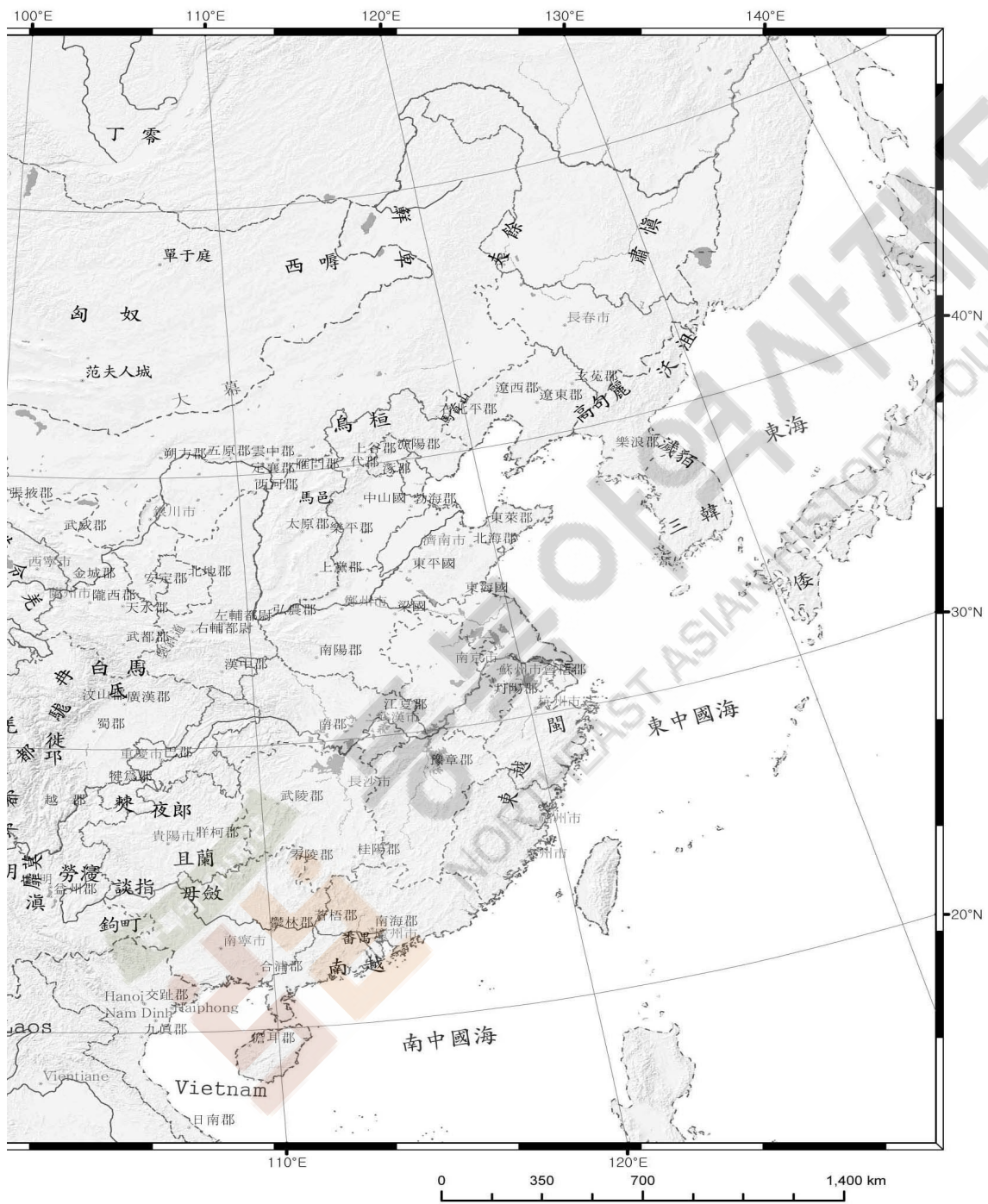
		서남 이 남이가 평정되어 장가군(襄柯郡)이 설치되고, 서이가 평정되어 월수군(越嶲郡) 등이 설치됨	
109		전한 조선(朝鮮)으로 출병, 왕검성(王儉城)을 포위 백시창(柏始昌) 등을 파견하여 대하(大夏)와 소통하려 했으나 곤명(昆明)에 길이 막혀 실패 서남 이 진왕(滇王)이 항복하여 그 땅에 익주군(益州郡)이 설치됨	
108	조선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 1년여의 항전 끝에 결국 항복하여 한의 군(郡)이 설치됨	전한 조선을 멸한 뒤 낙랑(樂浪) 등 4군을 설치	누란 한장(漢將) 조파노(趙破奴) 등의 공격을 받음 오손 곤막(昆莫) 엽교미(獵驕靡)가 한의 종실녀와 흉노 선우의 딸을 모두 처로 맞음*
105	흉노 아선우(兒單于)가 섬		오손 엽교미의 손자 잠취(岑隄) 군수미(軍須靡)가 한의 종실녀를 처로 맞음
104		전한 이광리(李廣利)에게 대완(大宛)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실패	
102	흉노 구리호선우(句犁湖單于)가 섬	전한 이광리가 재차 대완을 공격하여 그 왕을 한과 친하던 매채(昧蔡)로 교체한 뒤 개선	대완 한에 많은 말을 바치고, 한이 원하던 매채를 왕으로 세움
100			대완 매채 대신 한과 싸웠던 무과(毋寡)의 동생 선봉(蟬封)을 왕으로 세웠으나, 그 아들을 한에 입시(入侍)하게 하여 화친관계 유지
101	흉노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가 섬		
99	흉노 한의 공격을 받음	전한 이광리가 흉노를 공격하고, 이때 이릉(李陵)이 흉노에게 패하여 항복 개릉후(開陵侯)가 누란(樓蘭) 등의 병사를 징발하여 거사(車師)를 공격	누란 한 개릉후의 지휘 아래 거사의 공격에 동원됨

96	홍노 호록고선우(狐鹿姑單于)가 섬		
92	홍노 일축왕(日逐王)이 동북도위(僮僕都尉)를 설치하여 서역지방을 통제		
90	홍노 이광리가 투항해 옴	전한 이광리가 홍노에게 항복	누란 한의 거사 공격에 재차 동원됨
87		전한 무제가 사망하고 소제(昭帝)가 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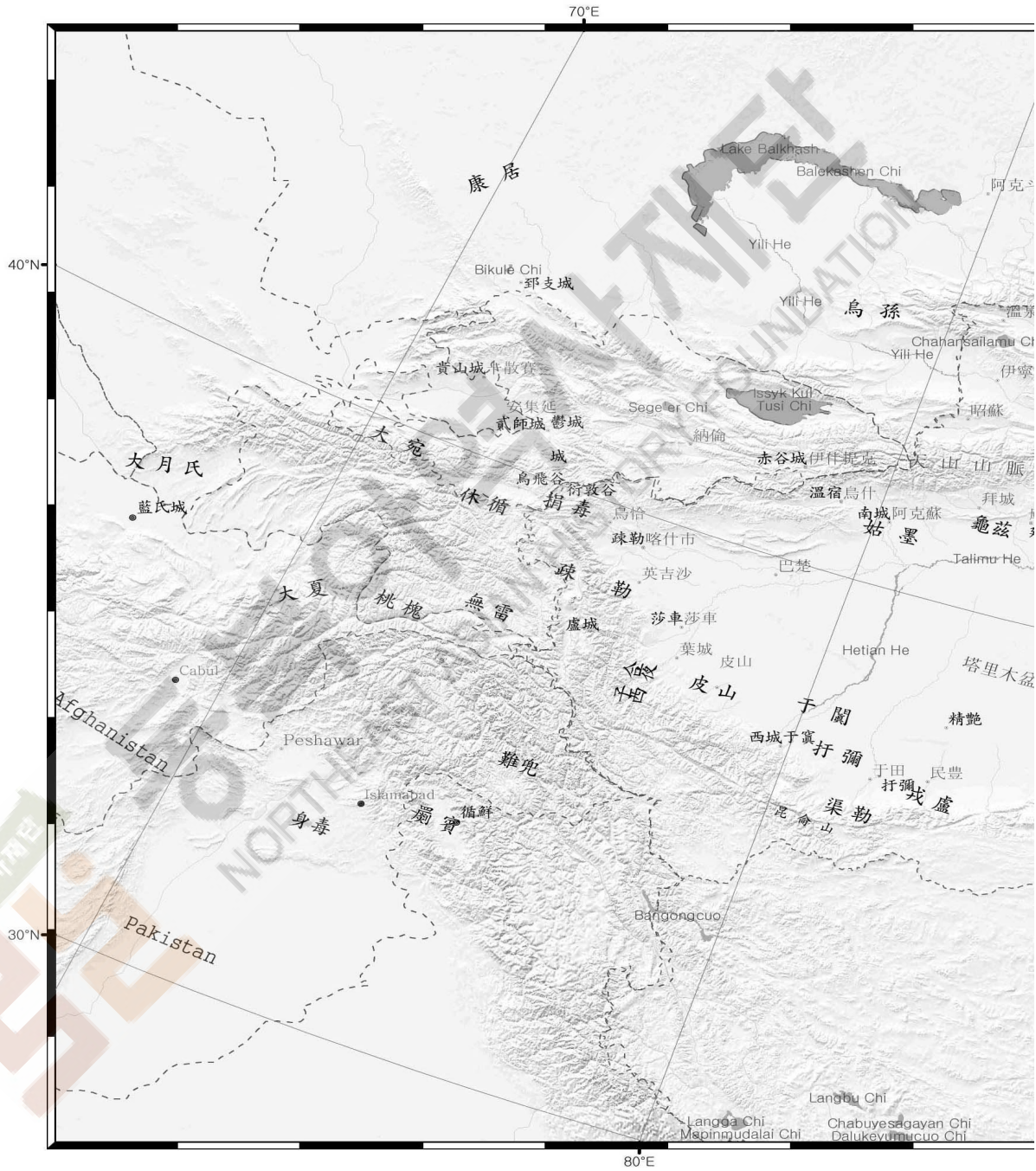
- ※ 시기 표시: 서력 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음력을 사용하던 당시 역법의 연말은 서력으로 볼 때 사실상 그 이듬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확한 연대의 확정이 불가능하거나 논란이 있을 경우 “*”로 표시한다.
- ※ 지역 구분: ‘북방’과 ‘남방’은 장성(長城)을 경계로 하여 나누고, 실크로드 지역은 ‘서역’으로 따로 구분한다. 단, 한반도와 일본열도 지역은 편의상 ‘북방’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후 시기에 따른 변화와 활동지역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획일적인 명칭과 지역 구분이 어려운 국가나 종족의 경우에도 그 주요 활동 시기와 중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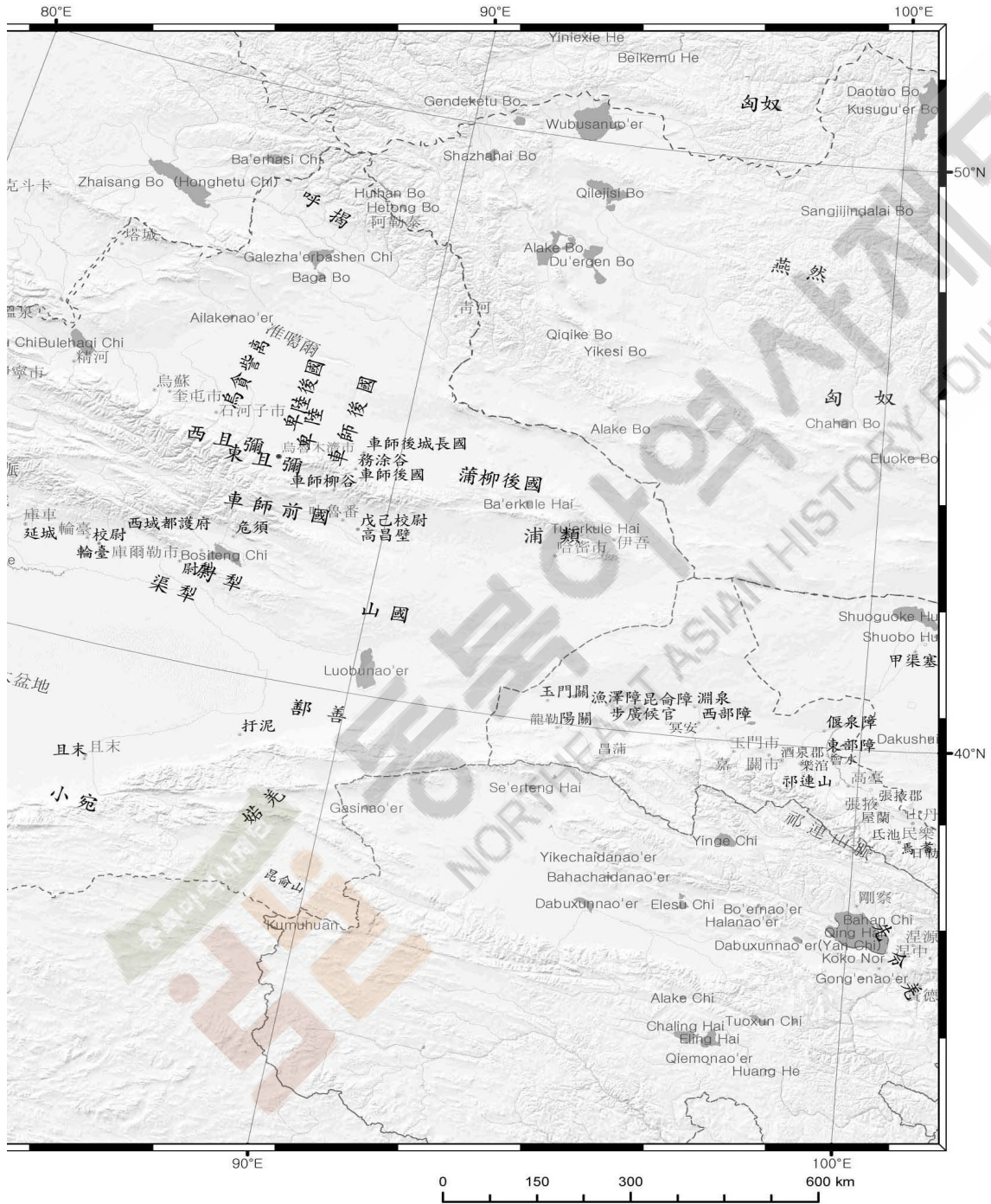
전한 시기 종족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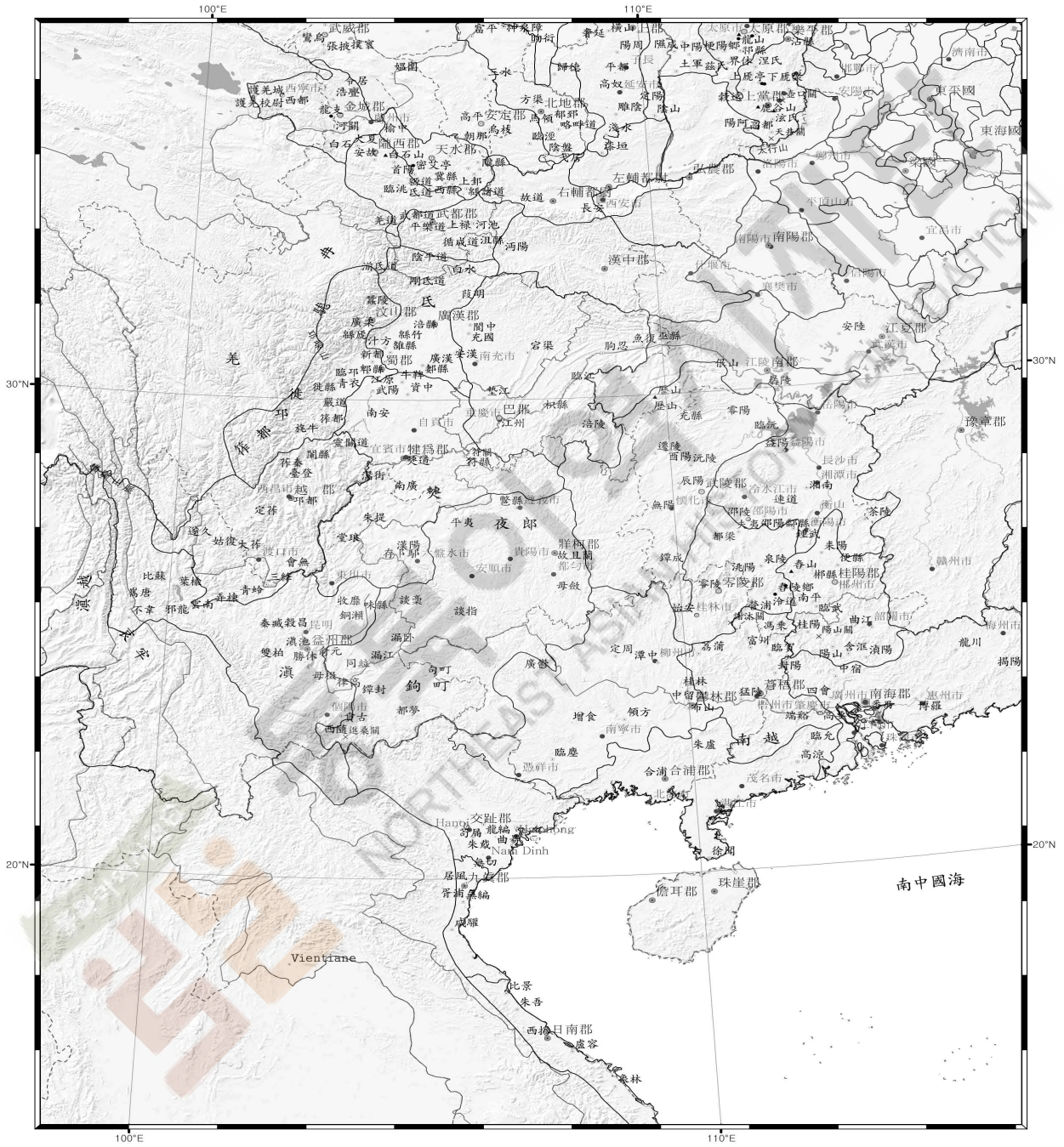


전한 시기 서역도호부도





전한 시기 서남지역도



❖ 색 인 ❖

【ㄱ】

- 감보(甘父) 252, 255
 감천(甘泉) 82, 94, 101
 감천궁(甘泉宮) 53, 57, 94, 101
 강(羌) 67, 127, 209, 213, 218, 219, 220, 223, 259
 강거(康居) 73, 84, 115, 132, 248, 250, 253, 254, 256, 257, 260, 261, 262, 264, 269, 277, 290, 294, 295, 296, 297
 강도옹주(江都翁主) 283
 갓옷[裘] 40, 71
 개릉후(開陵侯) 201, 311
 거려(車廬) 34, 92
 거연(居延) 114, 135, 139, 168, 272, 292, 293
 거옹(居翁) 180
 건성후(建成侯) 200, 201
 건위(健爲) 233, 240, 269
 검중(黔中) 220, 221
 계양(揭揚) 197
 격곤(鬲昆/隔昆) 64, 73, 84, 87, 262
 견융(犬戎/猃狁) 29, 42, 44, 45, 49
 경로도(徑路刀) 38
 경수(涇水) 42, 43, 45, 49
 경장기병(輕裝騎兵) 38, 39, 118, 263
 경형(黥刑) 169, 170
 계림(桂林) 153
 계양(桂陽) 168, 175
 고공단보(古公亶父) 42
 고궐(高闕) 54, 55, 106, 111
 고노(高奴) 81, 82
 고사(姑師) 258, 259, 282, 283, 284
 고연산(姑衍山) 119
 고유(固乳) 39
 고제(高帝) 190
 고후(高后) 137, 150, 158
 곤륜(崑崙) 248, 255, 258, 263, 266, 285, 299, 300
 곤막(昆莫) 127, 251, 273, 274, 275, 276, 277, 283, 284, 311
 곤명(昆明) 207, 208, 209, 210, 211, 214, 216, 217, 222, 235, 237, 270, 280, 311
 골도후(骨都侯) 65, 67
 공(邛) 207, 210, 230, 234, 239, 269, 270
 공도(邛都) 207, 208, 209, 211, 215, 216, 217, 218, 231, 237, 269
 공손오(公孫敖) 50, 106, 107, 112, 114
 공손하(公孫賀) 50, 104, 106, 107, 111, 112, 121, 123
 공손홍(公孫弘) 232, 233, 310
 공유(公劉) 41
 과선장군(戈船將軍) 176, 180, 199
 광거병(霍去病) 102, 106, 108, 113, 114, 121, 142, 168, 272, 310
 광창(郭昌) 130, 235, 237, 280
 관궁(管弓) 36
 관대(冠帶) 56, 157
 관동(關東) 116, 117, 175, 197, 290
 관영(灌嬰) 81, 82, 94
 광덕(廣德) 174
 교위(校尉) 107, 130, 134, 140, 173, 179, 198, 199, 237, 271, 290

구군(九郡) 180
 구리호선우(响犁湖單于/句黎湖單于) 131, 134, 135, 136, 306, 311
 구복(九服) 43
 구원(九原) 57, 123
 구장(句章) 199
 구장(枸醬) 225, 226, 239
 구주(九州) 142, 153, 155, 228, 300
 구탈(甌脫) 62
 군신선우(軍臣單于) 92, 99, 100, 102, 109, 110, 252, 306, 309
 군정(軍正) 290
 굴석(屈射) 64, 73, 84, 87
 궁려(穹廬) 34, 35, 92
 귀의후(歸義侯) 176
 규수(媯水) 127, 254, 261, 263, 264, 267
 규악(穆樂/摎樂) 173, 174
 규후(穆后/摎后) 167
 극문(棘門) 100
 금마(金馬) 289
 금성(金城) 120, 272, 273, 279, 300
 기련(祁連) 114, 259, 262, 272, 274
 기련산(祁連山) 114, 138, 251, 272, 273
 기미(羈縻) 287
 기산(岐山) 42, 49

【ㄴ】

낙(駱) 159, 162, 266
 낙수(洛水) 43, 48
 낙읍(雒邑/洛邑) 43, 45, 47, 48, 308
 낙타(駱駝) 32, 34, 39, 266, 268, 292
 난씨(蘭氏) 65
 난지(難氏) 83, 86

남산(南山) 254, 255, 263, 273
 남시성(藍市城) 127, 234, 267
 남월(南越/南粵) 102, 122, 123, 149, 150, 152, 153,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8, 169, 171, 172, 173, 174, 175, 178, 179, 180, 181, 186, 195, 196, 197, 202, 207, 208, 209, 213, 225, 226, 227, 235, 236, 237, 238, 253, 270, 296, 310
 남월 명왕(南越明王/南粵明王) 149, 165, 166, 167, 168, 174, 181
 남월 무제(南越武帝/南粵武帝) 122, 149, 150,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70, 180, 181, 226
 남월 문왕(南越文王/南粵文王) 26, 52, 149, 150, 164, 165, 166, 232
 남이도(南夷道) 207, 208, 212, 232, 233, 309
 남해(南海) 122, 153, 155, 171, 180, 230
 낭거서산(狼居胥山) 119
 내사(內史) 104, 169, 175
 내제후(內諸侯) 149, 167, 168, 169, 170
 노경(盧卿) 95
 노관(盧綰) 79
 노박덕(路博德) 135, 139, 140, 168, 175
 노상선우(老上單于) 88, 99, 262, 306, 309
 노새 34, 35, 292
 노 애공(魯哀公) 142
 노 정공(魯定公) 142
 노침(勞漣) 235, 238
 녹리왕(谷蠡王) 64, 65
 농산(隴山) 49, 54, 252
 농서(隴西) 54, 67, 77, 95, 107, 109, 114, 116, 252, 259, 271, 272, 285
 농성(隴城) 69, 106, 107, 120, 260
 누란(樓蘭) 83, 84, 258, 259, 262, 282, 283, 290,

311

누번(樓煩) 25, 50, 54, 63, 107
 누선(樓船) 175, 176
 누선장군(樓船將軍) 175, 177, 178, 180, 181,
 197, 198, 199, 200

【ㄷ】

다군(多軍) 201
 단도(丹徒) 192
 당몽(唐蒙) 211, 212, 215, 225, 229, 230, 309
 당읍씨(堂邑氏) 252
 당호(當戶) 65, 67, 68, 96
 대(代) 51, 53, 54, 55, 56, 63, 77, 95, 100, 107,
 109, 110, 112, 115, 187, 189, 272, 289
 대당호(大當戶) 64, 65
 대도위(大都尉) 64, 65, 133
 대려(大荔) 49, 50
 대륙강(大祿疆) 276, 307
 대림(蹄林) 69, 70, 260
 대완(大宛) 131, 132, 136, 137, 233, 246, 247,
 248, 250, 253, 256, 259, 260, 261, 263, 264,
 267, 269, 277, 278, 279, 283, 284,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11
 대월지(大月氏) 58, 67, 83, 102, 115, 127, 132,
 214, 233, 234, 247, 248, 250, 251, 254, 256,
 257, 261, 263, 267, 269, 274, 277, 278, 309
 대익(大益) 284
 대장(大將) 58, 64, 65
 대장군(大將軍) 80, 95, 104, 106, 107, 109, 111,
 112, 114, 117, 118, 120, 130, 135, 140, 199,
 271, 280, 297
 대조(大鳥) 266, 284

대택(大澤) 261
 대하(大夏) 127, 132, 233, 234, 235, 239, 248,
 252, 254, 256, 257, 260, 262, 263, 267, 269,
 270, 273, 274, 275, 277, 278, 280, 292, 300,
 310, 311
 대형(大行) 109, 195, 196, 225, 277
 도계(都稽) 179
 도기(屠耆) 65
 도도(騶駼) 34, 35
 도위(都尉) 67, 94, 95, 104, 107, 153, 154, 230,
 231, 233, 271, 310
 둔황(敦煌/燉煌) 127, 131, 251, 259, 262, 274,
 279, 283, 290, 291, 292, 293, 296, 299
 동구(東甌) 122, 165, 185, 186, 189, 191, 192,
 194, 202
 동구왕(東甌王) 191, 194
 동락(涇酪) 89
 동사(同師) 209, 213, 216, 227
 동성후(東成侯) 201
 동야(東冶) 190, 191
 동월(東越/東粵) 102, 122, 123, 135, 140, 164,
 179, 185, 188, 197, 198, 199, 200, 201, 202,
 225
 동해(東海) 189
 동해왕 요(東海王搖) 188, 190, 191, 196
 동혁(董赤) 95
 동호(東胡) 25, 46, 50, 52, 55, 56, 58, 59, 62,
 63, 66, 74, 87, 251, 262, 308, 309
 두락(逗落) 71
 두란(頭蘭) 237
 두만선우(頭曼單于) 25, 26, 58, 59, 60, 61, 62,
 262, 306
 등광(鄧光) 292

【口】

마유주(馬乳酒) 39
 마음(馬邑) 74, 75, 76, 103, 104, 105, 106, 107, 109, 134, 282, 309
 만기(萬騎) 65, 114
 만이(蠻夷) 81, 159, 162, 212, 215, 219, 225, 229, 275, 276
 매령(梅嶺) 164, 197, 198, 199
 매채(昧蔡) 295, 299, 311
 먼저(縣諸) 49
 명적(鳴鑼) 60, 118
 모우(髦牛) 223, 224
 모진 39
 목숙(苜蓿/目宿) 287
 몽염(蒙恬) 57, 59, 60, 63, 67, 109, 262
 무고(巫蠱) 102, 140, 141, 282
 무과(母寡) 137, 294, 295, 299, 311
 무도(武都) 67, 210, 219, 240
 무림(武林) 198, 199
 무석후(無錫侯) 201
 무제(無諸) 122, 186, 187, 188, 189, 190, 196
 무주(武州) 104, 219
 목특선우(冒頓單于) 25, 26, 50, 59, 60, 61, 62, 63, 64, 67, 73, 74, 75, 76, 77, 79, 80, 83, 84, 88, 99, 127, 128, 251, 262, 306, 308, 309
 문산(汶山) 280
 미막(靡莫) 207, 209, 213, 214, 235, 238
 민월(閩越/閩粵) 102, 122, 154, 157, 159, 162, 164, 165, 185, 186, 187, 188, 189, 192, 194, 195, 196, 198, 202, 225
 민월왕(閩越王/閩粵王) 21, 122, 164, 165, 186, 188, 189, 190, 196
 민중(閩中) 189, 190

【ㅂ】

박망후(博望侯) 108, 115, 233, 271, 273, 278, 279, 281
 방(駟) 67, 76, 207, 209, 217, 219, 224, 231, 270
 백등산(白登山) 74, 76, 77, 262
 백마(白馬) 67, 76, 207, 208, 209, 211, 219, 237
 백사(白沙) 198, 199
 백시창(柏始昌) 234, 235, 280, 311
 백양(白羊) 25, 59, 63, 262
 백월(百越/百粵) 149, 154, 157, 186, 208, 209, 213, 214, 215
 백장(百長) 67
 백적(白翟/白狄) 48, 49
 버새 34
 번우(番禺) 102, 153, 155, 177, 178, 197, 225, 239
 번쾌(樊噲) 78, 79, 80, 142
 범읍(汎邑) 47
 변발(辮髮) 217
 보형(甫刑) 44
 복파장군(伏波將軍) 122, 135, 168, 175, 178, 180, 181
 부시(膚施) 63
 부저정(浮苴井) 123
 북(樊) 213, 214, 215, 223, 224, 270
 북가(北假) 57, 58
 북도(樊道) 220, 222, 224, 230
 북도(北道) 224, 235, 280, 296
 북동(樊僮) 223
 북만(北蠻) 31
 북석후(北石侯) 201
 북주(北州) 84

북지(北地) 54, 94, 95, 100, 107, 114, 116, 123,
271, 272, 285
북해(北海) 35, 125, 261
분지(分地) 35, 67, 83
비소왕(裨小王) 67, 68, 111, 113, 115
비여(比余) 87
비호구(飛狐口) 100
빈(邠) 41, 42

【人】

사(徙) 207, 209, 211, 217, 218, 270
사마상여(司馬相如) 208, 212, 230, 231, 236,
260, 296
삭방(朔方) 48, 109, 111, 116, 120, 122, 124,
130, 136, 237, 280, 293
산융(山戎) 25, 26, 30, 31, 45, 46, 50, 252
산주후(山州侯) 198
삼보(三輔) 235, 280
상곡(上谷) 55, 56, 66, 79, 100, 106, 107, 109,
113, 271, 310
상관결(上官桀) 296, 297, 298
상군(上郡) 53, 54, 66, 67, 81, 82, 95, 100, 102,
110, 111, 116, 122, 271
상군(象郡) 122, 152, 153, 156
상규(上邽) 296, 297
상당(上黨) 298
상봉(相封) 67, 68
상안(常顔) 222
상주왕(商紂王) 42, 43
서구(西甌) 159, 162, 213
서극(西極) 279
서남이(西南夷) 179, 207, 208, 211, 212, 215,
231, 232, 238, 239, 270, 279

서왕모(西王母) 256, 266, 300
서융(西戎) 41, 42, 49, 50, 51, 107
서이도(西夷道) 208, 230, 231, 232, 309
서하(西河) 48, 53, 122, 139
서해(西海) 257, 264, 265, 266, 267
석문(石門) 178
선봉(蟬封) 174, 178, 299, 311
선우(單于) 56, 58, 59, 60, 61, 62, 64, 65, 67,
69, 70, 76, 77, 78, 79, 80, 83, 85, 86, 87, 88,
89, 90, 92, 93, 95, 96, 97, 98, 99, 103, 104,
105, 110, 113, 116, 117, 118, 119, 121, 122,
124, 125, 126, 128, 129, 130, 131, 133, 134,
136, 137, 138, 139, 140, 141, 251, 252, 255,
262, 273, 274, 275, 276
선우정(單于庭) 64, 67, 68, 69, 70
선태후(宣太后) 53
섭일(聶壹) 103
성마(駢馬) 76
성안후(成安侯) 173, 174
세류(細柳) 100
소건(蘇建) 111, 112
소관(蕭關) 94, 107
소무(蘇武) 138, 139
소월지(小月氏) 67, 127, 251, 263
소해(蘇薤) 179, 284, 285
소홍(蘇弘) 179
속국(屬國) 121, 282, 290
손양(孫印) 94
쇠녀 37, 38, 80, 290, 292
수(嵩/嶺) 207, 209, 211, 216, 217, 270
수계혼(收繼婚) 40
수복씨(須卜氏) 40, 65
수속도위(搜粟都尉) 296
수항성(受降城) 107, 132, 133, 134, 136

순북장군(徇北將軍) 199, 200
 순사(殉死) 72
 순수(巡狩) 177, 285
 순유(淳維) 26, 28, 64
 스키타이 33, 37, 38, 251
 신독도(身毒道) 208
 신리(薪犁/新犁) 64, 73, 87
 신망(薪望) 85
 신진중(新秦中) 57, 116, 117
 신치후(新時侯) 298
 신후(申侯) 42, 45
 심려(沈黎) 178, 280
 심협(尋陝) 177
 십장(什長) 67

[ㅇ]

아선우(兒單于) 130, 131, 133, 134, 311
 아키나케스 단검 38
 악소년(惡少年) 290
 안국소계(安國少季) 167, 168
 안도후(案道侯/按道侯) 199, 201
 안문(雁門) 50, 51, 55, 56, 79, 100, 101, 102,
 103, 104, 105, 107, 108, 109, 110, 115, 140,
 271
 안문산(雁門山) 51, 75, 100
 안식(安息) 84, 248, 262, 263, 264, 265, 266,
 269, 277, 279, 284, 287, 288
 알형(軋刑) 70
 야랑(夜郎) 102, 177, 207, 208, 209, 211, 212,
 213, 215, 224, 226, 227, 228, 229, 230, 233,
 235, 237, 239, 309
 약사(若邪) 199
 약수(弱水) 136, 266, 267, 292

양복(楊僕) 122, 164, 175, 176, 197, 199
 양산(陽山) 57, 58, 156
 양산(梁山) 49
 양산관(陽山關) 155, 156
 양월(楊越) 153, 157
 양월(兩越/兩粵) 122, 123, 164
 양평(襄平) 55, 56
 어아후(禦兒侯/語兒侯) 200
 어양(漁陽) 55, 56, 100, 104, 108
 엄조(嚴助) 165, 187, 193, 194
 엄채(奄蔡) 248, 260, 261, 264, 279
 여가(呂嘉) 122,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8, 179, 197, 236, 310
 여구산(盧胸山) 135
 여산(驪山) 45
 여선(餘善) 122, 187, 188, 189, 196, 197, 198,
 199, 200, 201, 225
 여오수(余吾水) 107, 140
 여월인(呂越人) 231, 234, 235, 236, 280
 여현(黎軒) 248, 264, 265, 279, 284
 여후(呂后) 78, 79, 80, 81, 158, 159, 160, 161,
 162
 연(燕) 26, 31, 42, 45, 46, 50, 55, 56, 60, 66,
 74, 101, 105, 108, 109, 115, 308
 연유(煉乳) 39
 연제씨(犢鞞氏) 65, 68
 연지(闕氏) 60, 77, 78, 309
 연지산(焉支山) 114, 272
 염(冉/冉) 67, 207, 209, 217, 219, 231, 237, 270
 염수(鹽水) 257, 289, 291, 299
 염택(鹽澤) 257, 258, 259, 273, 289
 염유(葉榆) 216, 217
 영거(令居) 120, 123, 279
 영릉(零陵) 176

예맥(穢貊) 52, 66, 126
 예장(豫章) 175, 176, 195, 197, 198, 228
 예천(醴泉) 300
 오(敖) 200
 오려마(烏驪馬) 76
 오복(五服) 43
 오손(烏孫) 44, 83, 84, 87, 115, 127, 132, 245,
 248, 257, 259, 262, 274, 275, 276, 277, 278,
 283, 284, 290, 292, 297, 310
 오양(吳陽) 200, 201
 오예(吳芮) 158, 190
 오원(五原) 19, 57, 107, 122, 123, 135, 136, 140,
 199
 오원새(五原塞) 135
 오유선우(烏維單于) 122, 123, 130, 306, 310
 오지(烏氏) 49, 50
 오척도(五尺道) 222, 308
 옥문(玉門) 247, 257, 283, 297
 옥석(玉石) 258, 285
 옹주(翁主) 79, 88, 128, 276, 278, 284
 옹주(雍州) 142, 155
 왕신생(王申生) 296
 왕연우(王然于) 231, 234, 235, 236, 238, 280
 왕온서(王溫舒) 199
 왕황(王黃) 74, 76, 78, 79
 왕희(王恢) 103, 105, 164, 195, 225, 282, 283,
 290
 외신(外臣) 121, 227, 275
 요(徼) 142, 222, 223, 231
 요동(遼東) 52, 56, 57, 66, 95
 요서(遼西) 46, 56, 108
 요영후(繚嫫侯) 201
 요정한(姚定漢) 289
 요지(瑤池) 300
 용천(龍川) 153, 154, 156
 용항후(龍亢侯) 174
 우미(扞采) 257, 277, 284
 우부인(右夫人) 127, 283
 우북평(右北平) 55, 56, 104, 107, 111, 115, 116,
 271, 272
 우전(于賁/于闐) 257, 258, 267, 277, 285, 300
 옥성(郁成) 289, 291, 294, 296
 운양(雲陽) 57, 94, 122
 운중(雲中) 54, 55, 78, 100, 107, 122, 130, 136,
 271
 원종고(輶終古/棧終古) 179, 200
 월(越/粵) 150, 171, 228, 235, 279
 월수(越嶧/越嶧/粵嶧) 215, 217, 237, 240, 279,
 311
 월연후(越衍侯/粵衍侯) 200, 201
 월왕 구천(越王句踐) 185, 202
 월요왕(越繇王/粵繇王) 196
 월지(月氏) 25, 33, 58, 59, 60, 63, 67, 74, 83,
 84, 85, 86, 88, 127, 251, 252, 253, 254, 255,
 256, 259, 260, 262, 267, 268, 274, 285, 287,
 309
 위(衛) 46, 47, 55
 위(魏) 47, 48, 51, 53, 56, 73, 74, 308
 위강(魏絳) 51, 52
 위광(衛廣) 235, 237, 280
 위사(尉史) 105
 위속(魏遯) 95
 위수(渭水) 42, 45, 49, 100
 위신(魏臣) 168
 위청(衛靑) 102, 104, 106, 107, 108, 111, 112,
 114, 135, 142, 237, 245, 271, 272, 310
 위항(衛伉) 135
 유경(劉敬) 77, 78, 79

유목(遊牧) 25, 31, 32, 34, 35, 37, 40, 132, 259, 273
 유수(劉遂) 101
 유여(由余) 49
 유왕(維王) 42, 44, 45, 134, 308
 육가(陸賈) 156, 157, 161, 162, 163, 193
 육혼(陸渾) 47
 윤두(侖頭) 292, 294, 299
 용(戎) 26, 29, 31, 50, 51
 용려후(隆慮侯) 95, 159, 181
 용적(戎狄) 31, 41, 42, 44, 47, 48, 51
 은수(圃水) 48, 49
 음산(陰山) 54, 55, 140
 의거(義渠) 31, 49, 50, 53, 58, 60, 107, 217, 229, 264
 의형(劓刑) 169, 170
 이광(李廣) 94, 102, 104, 106, 107, 115, 245, 271
 이광리(李廣利) 131, 136, 138, 139, 140, 141, 207, 245, 246, 247, 248, 288, 290, 291, 293, 294, 295, 296, 297, 298, 311, 312
 이릉(李陵) 25, 139, 311
 이면(撈面) 72
 이목(李牧) 56
 이사성(貳師城) 131, 288, 289, 290
 이수(離水) 176
 이식(李息) 109, 111
 이장군(李將軍) 271
 이지사선우(伊稚斜單于/伊墀斜單于) 109, 110, 116, 122, 255, 306, 310
 이치(李哆) 290, 291, 295, 297, 298
 익주(益州) 207, 209, 214, 215, 216, 217, 221, 223, 229, 235, 237, 238, 239, 240, 269, 279, 280, 311

인우(因杆) 107, 132, 139, 140, 141
 일(il) 73
 임문(任文) 136
 임오(任囂) 154, 155, 181
 임조(臨洮) 54, 57, 252
 임채후(臨蔡侯) 179
 임호(林胡) 50, 54, 78

【ㄱ】

자구(子駒) 192
 자차왕(自次王) 113
 작(笮) 102, 207, 211, 212, 217, 229, 230, 231, 270
 작도(笮都) 207, 208, 209, 211, 216, 217, 218, 223, 237, 270
 작마(笮馬) 223
 잠취(岑娶) 276, 284
 장가(牂柯) 177, 212, 225, 226, 230, 231, 236, 240, 279, 280
 장가강(牂柯江) 177, 208, 226, 227, 228, 230
 장건(張騫) 84, 102, 108, 115, 127, 208, 233, 234, 235, 245, 246, 247, 248,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8, 259, 260, 266,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4, 290, 300, 309, 310
 장교(莊騫) 177, 207, 214, 220, 221, 222, 226, 295, 298
 장기(壯騎) 117, 118
 장니(章尼) 98, 99
 장량후(將梁侯) 180
 장사(長沙) 158, 228
 장삼(莊參) 172, 173
 장상여(張相如) 95

장성(張成) 198
장안(長安) 75, 82, 95, 100, 101, 114, 115, 116,
129, 161, 166, 167, 168, 173, 227, 250, 254,
256, 259, 260, 290
장액(張掖) 115, 136, 292, 293
재관(材官) 292
저(氏) 67, 214, 217, 218, 219, 220, 224, 270
저거(且渠/沮渠) 65, 68, 96
저제후선우(且鞮侯單于) 136, 137, 138, 306, 311
적원(翟獯) 49
적적(赤翟/赤狄) 48, 49
전(滇) 102, 207, 209, 211, 213, 214, 215, 222,
223, 235, 236, 237, 238, 239, 270, 280
전국(滇國) 209, 214, 215, 216, 224, 270
전당(錢唐) 200
전미(煎糜) 294
전발(剪髮) 72
전분(田蚡) 104, 187, 192, 193, 195
전안산(闐顔山/寔顔山) 118
전월(滇越) 213, 217, 270
전장군(前將軍) 95, 112, 113, 128
전한 경제(漢景帝) 101, 163
전한 고조(漢高祖) 25, 63, 74, 75, 76, 77, 78,
79, 80, 81, 122, 137, 149, 154, 156, 157, 158,
159, 161, 186, 189, 190, 195, 228, 262, 298,
308, 309
전한 무제(漢武帝) 25, 27, 50, 57, 106, 107, 122,
149, 150, 159, 166, 171, 186, 187, 189, 191,
192, 193, 195, 199, 208, 212, 226, 230, 231,
232, 236, 245, 255, 262, 272, 292, 309, 311,
312
전한 문제(漢文帝) 78, 81, 82, 88, 94, 98, 99,
101, 160, 161, 163, 218
절(節) 125, 128, 194, 231, 253, 275, 281
정(亭) 105, 135, 198, 233, 265, 283, 299, 310
정(鄭) 47, 48
정령(丁零/丁令) 60, 64, 73, 84, 87
정양(定襄) 107, 108, 110, 111, 112, 117, 136,
272
정장(亭鄣) 105, 283
제(齊) 31, 42, 46, 47, 56, 74, 77, 81, 95, 101,
137, 189, 201, 308
제북(濟北) 173
제천금인(祭天金人) 114, 267, 272
제 환공(齊桓公) 46, 141
조(趙) 26, 31, 48, 50, 52, 53, 54, 55, 56, 57,
74, 76, 78, 100, 101
조거난(雕渠難) 96
조건덕(趙建德) 174, 178, 179
조광(趙光) 170, 171, 179, 180
조나(朝那) 63, 94
조리(趙利) 76, 78
조 무령왕(趙武靈王) 54, 308
조선(朝鮮) 55, 66, 102, 127, 311
조시성(趙始成) 290
조신성(趙信城) 118, 123
조양(造陽) 55, 109
조양자(趙襄子) 51, 52, 53
조제(趙弟) 297, 298
조지(條支) 248, 264, 265, 266, 279
조차공(趙次公) 167
조파노(趙破奴) 121, 123, 130, 138, 282, 292,
311
조회(朝會) 69, 259, 260
조흥(趙興) 149, 167
종군(終軍) 168, 201, 208, 210, 237, 271, 280
종표후(從驃侯/從票侯) 123, 282
좌도기왕(左屠耆王) 65

좌독(左蠹) 149, 160, 163
좌부인(左夫人) 284
좌장군(左將軍) 107, 296
주객(主客) 124, 125
주 목왕(周穆王) 44
주 무왕(周武王) 42, 156, 223
주 문왕(周文王) 42
주사(周舍) 94
주 양왕(周襄王) 47, 48, 230
주영(朱莢/朱央) 111
주 유왕(周幽王) 42, 44, 45, 134, 308
주조(周竈) 95, 159
주천(酒泉) 67, 115, 131, 136, 138, 235, 279,
280, 282, 283, 292, 293
주 평왕(周平王) 45, 46, 308
죽장(竹杖) 234, 269
준계산(浚稽山) 133
중랑장(中郎將) 137, 138, 228, 229, 230, 275
중위(中尉) 94, 104, 169, 199
중항열(中行說) 26, 88, 89, 90, 91, 92, 93, 99,
262, 309
지백(智伯) 51, 52, 53
직도(直道) 57
진(晉) 31, 47, 48, 49, 50, 51, 52, 53, 228
진(秦) 26, 42,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9, 63, 66, 67, 75, 85, 94,
100, 104, 107, 109, 122, 134, 152, 153, 154,
155, 157, 161, 166, 185, 189, 190, 200, 218,
220, 221, 222, 223, 239, 308
진개(秦開) 55, 66
진 도공(晉悼公) 51
진 문공(晉文公) 48
진 소양왕(秦昭襄王) 44, 53

진 양공(秦襄公) 45, 46, 137
진인(秦人) 247, 295
진정(眞定) 152, 153, 157, 161
진평(陳平) 77, 81, 161
진 혜왕(秦惠王) 53, 54, 223
진희(陳豨) 74, 78, 79, 80, 81, 95
집구교위(執驅校尉) 293

【元】

차란(且蘭) 177, 201, 226, 229, 236, 237
차령(車令) 289
착공(鑿空) 278
착야후(浞野侯) 130, 133, 134, 138, 282, 283,
290, 292
창 38
창오(蒼梧) 170, 171, 174, 176, 177, 180
천금(千金) 289
천마(天馬) 256, 279, 287
천산(天山) 114, 138, 139, 248, 259, 262, 296
천장(千長) 67
청방마(靑驄馬) 76
초확(焦穫) 45
촉(蜀) 211, 214, 215, 218, 219, 220, 221, 222,
223, 226, 227, 228, 229, 231, 232, 234, 235,
269, 279, 280, 309, 310
추계(魑結) 215, 216
추력(騶力) 198
『춘추(春秋)』 27, 49, 137, 141, 142, 174, 232
측대보(側對步) 38
치의후(馳義侯) 176, 177, 180, 236
칠수(漆水) 49

【ㄷ】

타락(駝酪) 39
 탁야산(涿涂山/涿邪山) 139
 탄한장군(吞漢將軍) 198
 탄해(駢駭/驛奚) 34, 35
 태원(太原) 31, 42, 45, 47, 74, 75, 76, 82

【ㄹ】

파노(破奴) 282, 283
 과양(鄱陽) 176, 198, 225, 228
 파촉(巴蜀) 157, 176, 207, 219, 228, 229, 230, 231, 235, 237, 238, 280
 패릉(霸陵) 167, 168
 패상(霸上) 100, 101
 팽양(彭陽) 94
 평성(平城) 75, 76, 77, 80, 81, 137, 262, 309
 포도주(蒲陶酒) 256, 264
 포사(褒姒) 44, 45
 표기장군(驃騎將軍/票騎將軍) 107, 112, 113, 114, 115, 116, 117, 119, 121, 135, 139, 272, 282, 296
 풍호(鄧鄗) 43, 45, 46

【ㅎ】

하남(河南) 45, 57, 59, 63, 81, 82, 94, 106, 109, 111, 116, 120, 308
 하려장군(下厲將軍) 176, 180
 하서(河西) 48, 49, 52, 53, 67, 84, 102, 114, 116, 127, 258, 273, 310
 한(韓) 47, 48, 51, 52, 53, 56, 74, 308
 한료(韓遼) 96

한신(韓信) 76, 77, 78, 79, 95, 154
 한안국(韓安國) 102, 104, 108, 134, 164, 195, 225
 한양(漢陽) 200, 201
 한연년(韓延年) 173, 174
 한열(韓說) 122, 135, 140, 199, 201
 한중(漢中) 74, 75, 220, 232, 250, 251
 한천추(韓千秋) 173
 한해(翰海) 119, 120, 272
 한혜제(漢惠帝) 79
 합기후(合騎侯) 107, 114, 115
 항우(項羽) 63, 74, 75, 95, 154, 157, 159, 186, 189, 190, 308
 항적(項籍) 95, 179, 190
 해상후(海常侯) 179, 201
 해서후(海西侯) 290, 298
 험윤(獫狁/獫允/獵狁) 25, 26, 29, 30, 31, 44, 45, 47
 현뢰(眩雷/眩雷) 128
 현왕(賢王) 64, 65, 67, 68, 71, 76, 81, 82, 83, 86, 106, 111, 115, 119, 131, 136, 138, 141, 255, 282
 협현(郟縣) 173, 174
 형가(荊軻) 55
 혜호천(係雩淺) 85, 86
 호(胡) 26, 31, 52, 54, 55, 56, 57, 163, 164, 225, 232, 252, 254, 267
 호걸(呼揭/烏揭) 84, 262
 호군(護軍) 104, 134
 호복(胡服) 54, 265
 호연씨(呼衍氏) 40, 65
 호충국(壺充國) 231, 236, 296
 호치(好時) 161
 호후(浩侯) 282, 283, 290

혼야왕(渾邪王/昆邪王) 102, 116, 134, 272, 273,
 275, 279, 310
 혼유(渾庾) 64, 73, 84, 87
 환잠(驩潛) 284
 황계관(滄谿關) 155, 156
 황복(荒服) 43, 44
 황옥(黃屋) 149, 160, 163, 227
 회계(會稽) 164, 190, 191, 194, 195, 197, 199
 회수(匯水) 175
 회중궁(回中宮) 94

후연(胸衍) 49, 50
 후의노후(後義虛侯) 83, 86
 후장군(後將軍) 112
 혼옥(葷粥/薰粥) 25, 26, 29, 30, 31
 휴도왕(休屠王) 114, 116, 127, 273, 293
 흉노(匈奴) 25, 28, 29, 30, 31, 33, 34, 35, 36,
 38, 40
 흉하수(匈河水) 123, 282
 흡(翕) 97, 113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21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
史記 外國傳 譯註

초판 1쇄 인쇄 2009년 4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4월 27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00-6-94910
978-89-6187-106-8-세트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